국제고려학 제20호

ISSN 1347-7307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2026
국제고려학회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20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제20호

〈차례〉

■ 펴내는 말 _ 송남선 / 6

■ 기조강연

몽골국과 코리아반도 국가 간의 관계 다시냠 어용체첵 9

한류 시대의 글로벌 한국학의 명암 박노자 37

몽골 코리아학의 동향 분석 성비락 49

남북 역사학 교류와 다극화 추세에서의 전망 안병우 63

■ 토론

통합적 코리아학의 전망 김성민 91

■ 일반논문

남북 의료용어집 편찬의 성과와 한계 도원영·박주원·하신·김숙정 111

洪武正韻譯訓의 反切再解釋
—韻類를 중심으로 라이너 도멜스 1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폐에 담긴 국가 상징의
시각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류현국 161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현황과 과제
—민족정체성의 변천과 관련하여 문광희 193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문자학습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어 초급과정의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朴恩珠·柳美善 221

재일코리안사회에서의 '재일무용'과 '한국전통무용'과의 월경과 융합
—재일한국무용가의 의식에 주목하여 徐希寧 239

민족 위계의 도전과 한국 다문화 전환에 있어서의
조선족과 고려사람의 귀환 이주 송창주 265

부사 '드디어'의 주관화와 의미 확장 申峰林·易超 279

지리산 천왕할매와 몽골 에즈하드 석인상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적 가치 관점 중심 현대적 전승과
변용 과정에 나타난 공동체 축제의 세계화 연구 안영숙 299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에서의 맞춤형
GPT(ChatGPT 기반)적용 가능성 엥흐치멕·사잉빌렉트 329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교재 구성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 출간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을 중심으로
오현아·전영근 345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 생태적 지역개발 모델 모색 이경수 381

한국불교에서 조왕신앙 수용 장정태 397

중국 연변조선어 모음 /ㅚ/와 /ㅟ/의 음가에 대한 실험음성적 연구 許秦 415

동아시아 건축 말각천장(抹角天障)에 관한 건축사적 해석
－기원과 변형, 고구려 고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홍대한 4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교육 정책담론
－시대 구분 중심으로 홍영자 495

일본에서 출판된 코리아어 학습서의 역사적 변화와 향후 과제 平田絵未 515

The Uniquenes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Path Toward Its Final Resolution CHUN Jihoon 543

MONGOLIA'S BALANCING A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Dolgorsuren Dorj 569

Staff Officers' Linguistic Patterns in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 A Stylometric and NLP Approach EunKyoung Jo 585

Elizabeth Anna Gordon and Korean Buddhism
: A Pioneer of Interreligious Dialogue in East Asia Hyangsoon Yi 607

From Diagnosis to Autonomous Mastery
: A Multimodal AI Framework for Self-Directed
Korean Pronunciation Learning Joeun Baek 625

Rece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the Yeoju Jueosa Site
: New Insights into Buddhist–Catholic Interactions in Late Joseon Korea — Sun Kim 651

The Era of Chajusŏng
: DPRK Foreign Policy Thought in the 1970s — Moe Taylor 679

Mongolia's Defector Dilemma
: Navigating the Korea Divide — Sumiya Chuluunbaatar 699

Bridging Cultures: How South Koreans Adapt and Contribute to Mongolia's Social Landscape
TUMENGEREL Purev·SUKHMAA Adiya 713

Resonating Traditions
: Korean Buddhist Aesthetics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海印心) for Geomungo and Western Orchestra — Yoomee Baek 729

■편집후기 _ 강민호 / 747

■투고규정(한글, 영어) / 748

■ 펴내는 말

제16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는 15개국 192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가운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제고려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코리아학의 국제적 확장과 학문적 역량의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몽골국립대학교와 몽골과학아카데미국제학 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다. 두 기관의 학문적 협력은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 코리아학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몽골이라는 지정학적·문명사적 접점에서 국제적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몽골은 다원화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독자적 위상을 형성하며 발전해 온 국가로서, 이번 대회의 주제를 사유하기에 상징적으로도 적합한 공간이었다.

이번 대회는 2022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15차 대회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그 사이 국제 정세, 특히 한반도/조선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국제고려학회는 평양과 서울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최지를 모색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대회에는 평양지부 회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한반도/조선반도를 둘러싼 대립 구도의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지만, 동시에 학문 공동체의 연속성과 포괄성을 지향해 온 학회의 오랜 노력에 비추어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제고려학회는 향후 모든 지부 회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16차 대회의 주제는 "다극화하는 세계와 코리아학(A Multipolar World and Korean Studies)"이었다. 다극화란 세계 질서가 소수 초강대국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복수의 강대국 및 지역 강국들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루는 분산적 권력 구조로 전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각 국가와 지역에 보다

높은 자율성과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갈등과 경쟁, 그리고 구조적 불안정성을 동반하기도 한다.

지정학적 교차점에 위치한 조선반도/한반도는 이러한 다극화의 영향을 특히 민감하게 받는 공간이다. 보다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심각한 긴장과 대립이 심화될 위험 또한 상존한다. 이와 같은 복합적 조건 속에서 코리아학은 단순한 지역학을 넘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평화적 공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즉, 다극화 시대에 조선반도/한반도가 어떠한 가치와 제도,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분야와 방법론을 통해 코리아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문학 및 문화연구 등 여러 학문 분야가 교차하며, 다원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코리아의 위상과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 논문집은 제16차 대회의 학문적 성과를 기록하는 동시에, 다극화 시대의 코리아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학문은 대립을 넘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지니며, 경계를 넘어 공동의 이해를 확장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본 논문집이 국제적 학술 교류의 지속과 심화를 촉진하고, 보다 평화롭고 자율적인 한반도/조선반도의 미래를 사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6년 3월
국제고려학회 회장
송남선

몽골국과 코리아반도 국가 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the Korean Peninsula Countries

다시냠 어용체첵*
몽골국립대학교

1. 몽골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1948~2025)

1.1. 정치외교 관계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외교 관계는 1948년 10월 공식 수립되었으며, 양국은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6.25전쟁[1] 발발 이듬해인 1951년에는 상대국 수도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며 외교 관계를 본격화하였다. 전쟁 기간 몽골 국민은 극심한 고통을 겪던 조선 인민에게 따뜻한 연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는 양국 관계의 출발점을 인도주의적 연대로 규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75년간 양국 관계는 국제질서와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우호협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은 정부 주도의 정치·외교 교류, 특히 정례화된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과 그를 바탕으로 구축된 법적·제도적 기반에 크게 기인한다.

양국은 그간 80회가 넘는 고위급 공식·실무 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공고화해 왔다. 1956년 7월 김일성 내각수상의 몽골 방문과 같은 해 10월

* Oyuntsetseg Dashnyam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Sciences and Arts, Department of Asian Studies)
E-mail: oyuntsetsegd@num.edu.mn, oyuna@snu.ac.kr

1 'Korean war'는 한국에서 '한국전쟁' 또는 '6.25전쟁', 조선에서 '조국해방전쟁' 또는 '해방전쟁'으로 칭하나 본고에서 '6.25전쟁'으로 칭하기로 한다.

Yu. 체덴발(Ю. Цэдэнбал, Tsedenbal.Yu) 몽골인민혁명당 서기장의 조선 답방의 성과로 체결된 「경제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양국 관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고위급 교류는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86년 J.바트몽흐(Ж.Батмөнх, Batmunkh.J) 몽골 인민대회의 상임위원장의 국빈방문과 1988년 김일성 내각수상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협력의 원칙과 방향이 재정립되었으며,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Ж.Ломбо, 2018)

1990년 3월 26일 몽골이 대한민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몽골의 코리아반도(한반도/조선반도) 국가들과의 외교는 다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조·몽 전통적 관계에 일정한 긴장을 초래했으며, 같은 해 8월 25일 조선은 몽골 주재 자국 대사관을 전격 철수하였다. 이 조치는 즉각적인 외교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양자 관계사에서 이례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후 양측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였고, 2002년 8월 8일 백남순 외무상의 울란바토르 방문 시 체결된 「몽골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은 관계 회복의 공식적 계기로 기능하였다.[2] 이어 2004년 8월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몽골 주재 조선 대사관이 재개설되었고,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상기한 양측의 외교적 노력의 결실로 전통적 우호관계가 복원·강화되었으며, 지속적 협력을 위한 토대가 재확립되었다.

2004년 12월 N. 바가반디(Н.Багабанди, Bagabandi.N) 몽골 대통령의 방문, 2007년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답방, 2013년 10월 Ts. 엘벡도르지(Ц.Элбэгдорж, Elbegdorj.Ts) 몽골 대통령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당시의 국제·국내 정세에 부합하는 다양한 양해문서에 서명하고, 기존 협정을 갱신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재정비·강화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양국 관계의 제도적 틀로 기능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2~3회 이루어지는

2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 баримтын дугаар 1190201080000, “Монгол улс, БНА САУ-ын хоорондын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эрээ”. 2002.08.08.

고위 공직자들의 공식·실무 방문은 양국 간 외교 통로를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최근 수교 70주년(2018)과 75주년(2023)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외교장관·차관급 상호 방문은 외교적 의의와 실질적 성과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정상외교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1.2. 경제무역 관계

1956년 체결된 「경제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1957년부터 양국은 정부 간 경로를 통한 물물교환(바터) 방식의 무역을 본격화하였다. 이 시기 조선은 몽골에 식료품(사과·쌀·통조림 과일·피클·인삼 등)과 소비재(담배·비단·운동복·아동복 등)를 공급하였으며, 몽골은 이에 상응하여 농축산물(양모·가공 가죽·육류·유제품 등)을 수출하였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양국 간 교역은 금액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나, 품목의 다양성과 물량 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기존 교역 방식과 법제적 기반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1991년 4월 1일 평양에서 체결된 「정부 간 무역 및 결제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양국 무역 관계는 물물교환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자유태환통화 결제를 허용하였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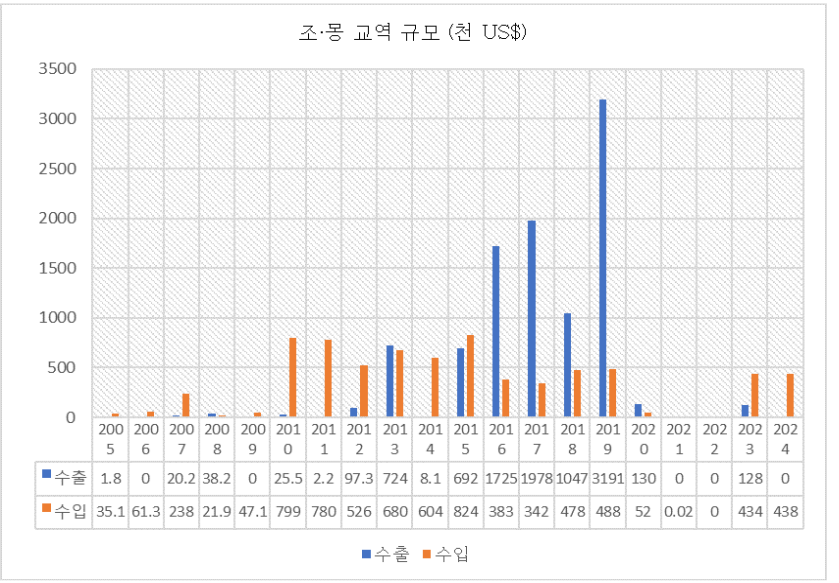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조·몽 경제·무역 관계의 제도적 기반은 2002년 체결된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정립되었다. 동 협정 제6조는 양국이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투자 촉진 및 경제·무역 협력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 협력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이어 2003년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투자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상호투

3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 баримтын дугаар 1190123770000, “БНМА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НАСА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удалдаа, төлбөрийн туха й хэлэлцээр”. 1991.04.01.

자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오랜 기간 지속된 경제제재로 인해 조선공화국과의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난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양국 교역은 현금 결제 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2005년 이후 양국 무역 총액 추이를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연간 교역 규모가 100만 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약 360만 달러에 도달하였다. 그러나2020~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물류 제한 조치로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3년부터 규모가 제한적이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 교역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몽골은 조선에 육류, 축산 부산물, 통조림 식품, 동물성 원료 등을 수출하고, 조선으로부터는 인삼 및 면역증강제 등 제한된 범주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림 1. 조·몽 교역 현황 (2005-2024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1.8	0	20.2	38.2	0	25.5	2.2	97.3	724	8.1	692	1725	1978	1047	3191	130	0	0	128	0
수입	35.1	61.3	238	21.9	47.1	799	780	526	680	604	824	383	342	478	488	52	0.02	0	434	438

출처: 몽골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https://www2.1212.mn/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주목될 특징적 현상이 있는데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교류다. 사회주의 체제하에 초기에는 기술 전수 및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분야별 전문 인력 파견에 주로 한정되었으나, 체제 전환 이후에는 노동시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으로 전환되었다. 2007년 체결된 「노동력 상호 교류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은 이러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4] 이에 따라 2010~2017년 사이 총 18,238명의 조선인 기술 인력이 몽골 산업 현장에 진출하였다. 이들의 전문성과 근무 태도는 몽골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 이행에 따라 2019년까지 전원 송환되었다.(Б.Батсайхан, 2017)

1.3. 공공외교 관계

인도주의 외교

조·몽 관계는 형성 초기부터 인도주의를 토대로 구축되었으며, 이 토대는 오늘날까지 양국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떠받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몽골은 전쟁고아 200명을 자국에 수용하여 1952년부터 1959년까지 보호·양육하였고, 약 30여 명의 젊은이가 몽골국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더불어 몽골 국민들은 전국적인 모금 및 지원 운동을 통해 조선 측에 가축 22만여 마리, 육류 및 식료품 7,000톤 이상, 의약품·방한복·밀·약품 등 방대한 구호물자를 무상 제공하였다(Ж.Баттөр, 2004). 이후에도 몽골은 자연재해 및 식량난에 직면한 조선을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였고,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다양한 품목과 물자가 조선에 전달되었다.

한편 조선은 몽골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954년 수확의 일부로 쌀 20톤과 사과 10톤을 선물했으며, 1961년에는 투브(Tuv)도 알탕볼락(Altanbulag)군에 중학교를 자체 자금과 건설 인력을 투입하여 1년 만에 건립해 주었으며,

---

4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 баримтын дугаар 1190202970000, “Ажиллах хуч солилцох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НАСА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 ондын хэлэлцээр”. 2007.07.20.

1988년에는 해당 학교에 화학·물리·생물 실험실 장비를 기증하였다. 자연재해 복구 및 유아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몽골을 지원하였다.[5] 이러한 인도주의 교류는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양국 국민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곧 민간외교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상호 이해와 우호 감정의 증진에 크게 기여 해왔다.

문화 외교

조·몽 문화외교는 단순한 의전 중심 활동을 넘어,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여론 형성을 지향하는 21세기형 공공외교의 성격을 띠며 전개되어 왔다. 1950년대 초 몽골 작가들은 6.25전쟁과 관련하여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문학 작품을 창작·보급하였고,[6] 언론은 조선의 문화와 정치 이념을 소개함으로써 대중적 공감대를 조성하였다. 수도와 지방 도시에서는 조선의 민중 생활 및 전쟁 상황을 조명한 사진전과 회화전이 반복 개최되었으며, 특히 1952년 열린《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시회는 5일간 5,000여 명이 관람하였다.[7]

1956년 체결된「경제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8]과 이를 토대로 설립된 '몽골-조선 문화교류위원회'는 양국 간 문화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하였다. 이어 1986년「문화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9], 2002년「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조약」[10] 등 일련의 협정들은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언론

---

5 П.Үржинлхундэв, "Цагийн аясаар царцаагуй харилцаа", Өнөөдөр сонин, 2023.10.13.

6 Зохиолч Б.Бааст Ким Ир Сен удирдагчид зориулан "Ялалтаа лавтай байгуулах нөхрийн минь яруу алдар бадартугай", Ц.Гайтав "Солонгосоос зайлцгаа", Н.Жамбалсурэн "Солонгос нөхөддөө", Д.Тарва "Солонгос охин", Д.Лодойдамба "Пхеньян" гэх мэт олон шулэг, яруу найргийг дурдаж болно.

7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туух, археологчдын холбоо,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Туух ба баримт, 1945-1990", 2015, Адмон принт, Улаанбаатар.

8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 "БНМАУ, БНАСАУ-ын хоорондэдийн засаг, соёлын талаа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 1956.11.02.

9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 "Соё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албар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НАСА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 н хэлэлцээр". 1986.11.21.

등 다방면의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며 법적 기반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협력은 조선 예술단의 몽골 공연(1952), 몽골 예술단의 조선 방문 공연(1965), 국제 문화행사 참여 등으로 이어졌고, 양국은 공연예술·시각예술·출판·인쇄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문화교류를 정례화하였다.[11]

1980~1990년대에는 매년 평양에서 개최되는 '봄 축제(친선 예술축전)'와 국제 영화제, 몽골에서 열리는 '우정의 스커스' 국제 서커스 축제, 국제 음악대회에 상호 참가하고, 조·몽 '문화의 날'·'영화의 날'을 개최하는 등 예술·문화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주몽골 공관 철수로 정치·외교 관계가 일시 위축되었음에도 문화 교류는 양국 관계 지탱하는 핵심 경로로 기능하였다. 현재 몽골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봄 축제', 국제 오페라 성악 경연대회, 국제영화제 등 국제적 성격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양측은 기념일과 국가 기념행사를 맞아 전통적인 사진전, 영화 상영회, 소규모 예술 공연 등을 지속 개최하고 있다.

교육 협력

교육 협력의 측면에서, 6·25전쟁 시기 30명의 유학생이 몽골의 대학에서 무상으로 수학한 것을 기점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양국 대학 간 상호 학생 교환 교류가 정례화되었다. 몽골 유학생은 건축공학·농업공학·화학공학 등을, 조선 유학생은 몽골에서 수의학·축산학·언어학·역사학 등을 주로 전공하였다. 1988년 김일성 주석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비날론 산업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몽골 유학생 20명이 초청되었으나, 이후 교육 교류가 일시 위축되었다. (Ж.Ломбо, 2018)

2008년부터 제한적 복원이 진행되면서 정부 초청 장학생의 상호 파견이 재개되었다.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은 주로 몽골국립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

10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 баримтын дугаар 1190201080000,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ын хоорондын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эрээ". 2002. 08.08.

11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туух, археологчдын холбоо,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Туух ба баримт, 1945-1990", 2015, Адмон принт, Улаанбаатар.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평양외국어대학에 몽골어·몽골문화학과가 신설되었으며, 동 학과 학생들이 몽골국립대학교의 몽골학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학술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조·몽 교육 협력이 단순한 학생 교류를 넘어 학문공동체 형성의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4. 양국 관계 발전에서의 핵심 인물과 시민단체의 역할

조·몽 관계의 발전은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뿐 아니라 역사적 인물들의 헌신, 양국 국민 및 시민사회 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한층 공고화되었다. 특히 6·25전쟁기 몽골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단순한 외교 조치를 넘어선 인간적 연대의 실천이자, 양자 관계 형성의 상징적 기반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연대는 지도자들 간 개인적 유대로 확장되었고, 그 우정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진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의 초이발상(Х. Чойбалсан, Kh. Choibalsan)·체덴발(Ю. Цэдэнбал, Yu. Tsedenbal)·삼부(Ж. Самбуу, J. Sambuu),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당시 내각수상, 후일 주석)은 상호 정치적 신뢰와 개인적 유대를 토대로 양국 외교를 실질적으로 견인하였다. 김일성은 몽골에 대해 호의적 인상을 갖고 있었고 양국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Yu.체덴발과 J.삼부 등 당·국가 지도자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한 인물로 전해져 왔다. 1951년 인민대회의 의장 J.삼부가 몽골의 초대 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로 임명되어 근무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평양 주재 외교관과 대표부의 안전 확보 및 대피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일성은 자신의 지하 방공호에서 삼부와 함께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는 일화를 1988년 몽골 방문 시 회고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삼부의 자녀들을 수소문해 만나 고국으로 초청했고, 그 손주들에게 유학 기회를 배려하였다.[12]

1950년대 역사적 인물들의 헌신으로 단초가 마련된 인도적 교류는 오늘날까

12 "Д.Бямбаа: БНАСАУ-ыг хүлээн зөвшөөрч,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хоёр дахь орон нь Монгол", Монцамэ, 2018.10.15., https://montsame.mn/mn/read/167748

지 이어지며 세대 간 연결고리로 기능하고 있다. 1961년 조선의 자금으로 건립·기증된 '조·몽 친선' 명칭의 학교는 이후 '김일성 명칭 학교'로 개칭되었고, 매년 김일성 탄생일에는 대사관 직원과 친선협회 회원들이 학교를 방문해 나무를 식재하고, 일상 보수와 교실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몽골 국민이 지원한 가축은 조선의 9개 도 800여 농업협동조합에서 증식되었으며, 이 과정에 몽골의 축산 전문가들이 협력하였다. 2003년에 지원된 염소 무리는 함흥시의 '김정일 명칭 염소목장'에서 번식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해당 목장에 '조·몽 친선' 명칭이 부여되었다.[13]

1990년 이후 양국은 경제적 난기를 겪어 예정된 교류·협력 사업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때가 있었으나, 그 때마다 양국 우호를 지지하는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은 지속적인 버팀목이 되어 왔다. 비록 대(對)조선 관련 시민·단체의 수는 많지 않지만, 끊김 없이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예컨대 '백두산협회'[14], '주선학 연구센터'[15], '몽골-조선 친선협회'[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학술연구센터'[17] '조선 유학생 동문회'[18], 'J.삼부 기념재단'[19] 등의 적극적

13 П.Үржинлхүндэв, "Цагийн аясаар цаашаагүй харилцаа", Өнөөдөр сонин, 2023.10.13.

14 조선에서 학업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인원 중 가장 많은 구성원을 보유한 단체로, 오랜 기간 조선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몽골 내 유사 단체들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협회 회장은 전권대사인 J. 롬보(Ж.Ломбо, Lombo.J)가 맡고 있으며, P.우르징루훈데브(П.Үржинлхүндэв, Urjinlkhundev.P) 등의 과거 조선 주재 몽골 대사들도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5 센터 명칭에서 "주(주체)"는 주체사상, "선(선군)"은 선군정책을 의미한다. 본 기관은 2006년 전략연구소와 국가안보연구센터의 젊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 중심 단체로, 국제주체사상학회의 회원이자 조선 사회과학원과도 협력하고 있다.

16 1960년에 설립된 전통 있는 민간단체로, 투브 아이막(중앙 지방) 알탄불락 솜의 노동협동조합, 울란바토르 제2중학교, 국립예술극장, 철강공장 등의 기관이 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몽골의 국민문학가 S.수렝자브(Ш.Сүрэнжав, Surenjav.S)가 회장을 역임하였다.

17 2019년, 몽골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N.
뱀바도르지(Н.Бямбадорж, Byambadorj.N)의 주도로 설립된 학술 교류 및 연구 기관이다.

18 조선에서 유학하고 졸업한 몽골 유학생들의 모임으로, 특히 1989년 김일성 주석의 초청으로 유학한 학생들의 대표자들이 이 단체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은 양국 관계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5. 조·몽 관계 향후 전망

연구자의 관점에서 향후 조·몽 관계의 발전 방향은 축적된 정치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 경제 협력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성과 지향적 협력 과제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중 핵심은 해양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서 조선 항만망(특히 라진항)의 활용이다. 팬데믹을 통해 부각된 특정 항만 의존 리스크는 공급망 측면에서 경로 다변화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고, 내륙국인 몽골이 철도-항만 연계 물류 전략과 결합하여 조선 항만망을 활용할 경우 경제 협력의 실체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1996년 「운송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20] 및 2007년 「해상 무역 운송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21]은 항만 이용 권한, 관세·면세, 항만 내 대표부 설치, 입항·정박·서비스, 최혜국대우 등을 규정·확대함으로써 해상 물류 협력의 제도화를 진전시켰다. 2022년 몽골 교통운송부 장관의 라진항 활용 의지 표명[22]은 조선의 항만 개방 및 경제자유구역 정책과 맞물

---

19 몽골인민공화국 시절 조선에 최초로 파견된 대사이며,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J. 삼부의 자녀들이 설립한 재단으로, 조선과 관련 행사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20 「운송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은 청진, 라진, 선봉 등 조선 동해 항만의 이용 권한을 몽골에 부여하고, 몽골 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 및 항만 내 대표부 설치를 허용하였다.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 баримтын дугаар 1190126260000, “Тээврийн салбар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НАСА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элэлцээр”. 1996.05.10.

21 「해상 무역 운송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통해 몽골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 정박, 서비스, 무역상 혜택, 면세,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하였다.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 баримтын дугаар 1190202950000, “Худалдаа ны далайн тээврийн салбар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НАСА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элэлцээр”. 2007.07.20.

22 “Л.Халтар: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Ражин боомтоор нуурс экспортлохоор судалж байна”, 2022.01.28. https://gogo.mn/r/290101?i=

려 실천적 협력 단계로의 진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2024년 6월 러시아-조선 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체결과 2025년 5월 투먼강 도로·철도 병용 교량 착공 등 러-조 관계의 밀착은 몽골이 코리아반도 해상 항만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제고하며, 향후 에너지 수출·국제 물류·무역 경로 다변화에 긍정적 파급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88년 정상외교를 계기로 도출된 경제 협력 구상은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으나 오늘날에도 산업 연계성과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전략적 유효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몽골산 원료탄의 공동 활용, 석면 기반 면섬유 추출 기술 개발, 양모를 활용한 고급 섬유 생산, 비날론 생산을 위한 화학공장 건립 등이 논의되었고, 이에 연동하여 조선이 몽골의 화학공학 전공 유학생을 초청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기술 교류가 병행되었다. 이러한 의제들은 제도적 기반 보강을 전제로 재가동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다.

종합하면, 향후 양국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서적·문화적 기반을 유지·확장하는 동시에 실질적 경제 협력을 병행하여 장기적·지속 가능한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몽골국과 대한민국의 관계(1990~2025)

2.1. 정치외교 관계

1990년 3월 26일 몽골과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 입장에서 몽골은 헝가리에 이어 세계 사회주의권 국가 중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교한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반대로 몽골에게 한국은 소련의 직접적 정치 개입 없이 독자적 결정으로 수교를 체결한 최초의 서방 국가로 기록된다.

수교 이후 양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의 잇따른 상호 방문을 통해 관계는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P.어치르바트(П.Очирбат, Ochirbat.P) 몽골인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동반자 관

계'를 수립하고 항공운송협정을 비롯한 다수의 협력을 체결하였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몽골 공식 방문에서는 양국 관계를 "21세기를 향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하였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시에는 이를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이어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의 확대·심화에 합의하며 전 분야 협력 강화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10년 후인 2021년 9월 10일, 몽골의 후렐수흐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고,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 교류, 국제·지역 협력 등 다섯 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로 했다.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교 이후 35년간 정상급 상호 방문은 총 9회, 화상 정상회담 1회가 이루어졌으며, 총리·국회의장· 외교장관급을 포함한 고위급 공식·실무 방문은 총 40회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약 45건의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고빈도의 정치·외교 교류는 양국 관계의 제도적 정착과 실질적 협력의 심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몽골은 대(對)한 외교를 '제3의 이웃' 정책의 틀 속에서 전개하며[23], 외교 다변화와 자주외교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 '제3의 이웃 국가'로 한국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 경제·사회 협력, 문화적 친연성, 활발한 인적 교류에 기반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해 온 전략적 동반자라는 점에서 한국의 위상은 공고하다. 몽골은 비당사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의 제도화에 기여하고자 중립적 대화 플랫폼으로 2014년 '울란바토르 대화(Ulaanbaatar Dialogue)' 국제회의를 출범시켰다. 현재까지 10차례 개최된 이 회의의 국제적 위상과 실

23 2010년 「몽골 국가 안보 개념」, 2011년 「몽골 대외 정책 개념」 등 핵심 정책 문서 명시로 제도화된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이란 민주주의 선진국가 및 다자협력 연합체체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이다.
'Монгол улсын гуравдагч хөршийн бодлого: Гурвалса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эх боломж' судалгааны тайлан, 2017.

질적 함의가 제고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속적 참여와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몽골의 중립정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신뢰·소통 채널은 한국 신(新)정부의 실용외교 및 북방전략과의 접점에서 그 전략적 역할이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2.2. 경제무역 및 경제외교 관계

경제·무역 관계

상호 호혜를 원칙으로 한 경제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다. 1991년 체결된 「무역 협정」과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2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관세 분야 협력 및 상호 지원 협정」 등 일련의 협정들은 양국 간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2015년부터는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가능성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정례화되면서 실질 협력의 제도화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2024년 11월 서울에서 한-몽 EPA 제4차 실무협상이 개최되었으며, 금년 중 협정 체결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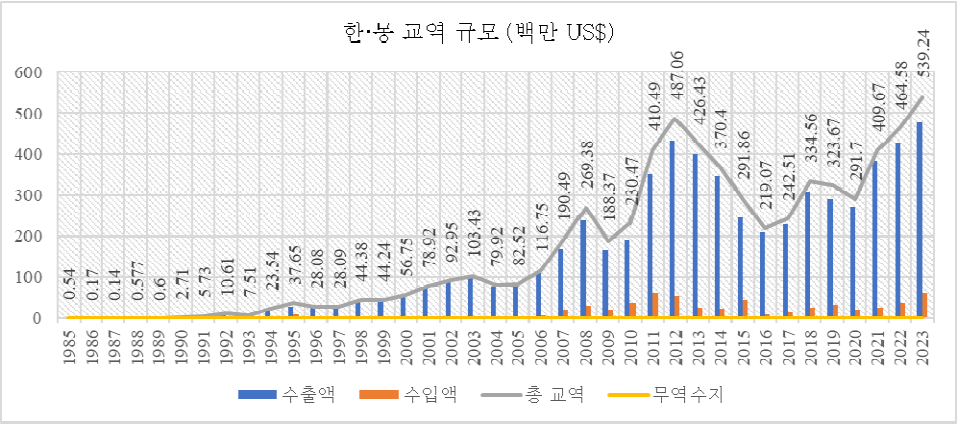
양국 간 교역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비공식 경로로 이루어졌으며, 1985년 몽골의 대한국 수출액은 5만4,400달러, 1988년 한국의 대몽 수출액은 7,000달러로 기록되었다. 수교 이후 교역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3년에 1억 달러를 돌파했고, 20년 후인 2023년에는 5억3,924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몽골의 제4위 수입국(약 4억7천만 달러)이며, 제3위 수출대상국(약 6천만 달러)이다. 최근 3년간 몽골의 대한국 수출은 금속광물, 캐시미어 의류, 금·은·백금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몽 수출은 중고 자동차, 건설·광산용 중장비, 화장품, 기호식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24]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몽골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외국인투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24 '몽골진출전략 20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지털 자료.

마련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해 왔다. 한국의 대몽골 공식 투자는 1994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누적 6억 1,120만 달러로 집계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몽골의 제11위 투자국이며, 반대로 몽골은 한국의 제51위 투자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상호 투자 규모 측면에서 구조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1994~2023년 누적 투자액 기준 산업별 비중을 보면 광업이 33.9%로 가장 높고, 이어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나타난다. 2023년 기준 몽골 내 등록된 한국 투자기업은 총 735개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광업·건설·정보통신 분야 투자가 총액의 42%, 중소기업 투자가 43%를 차지한다. 2021년 6월 당시 중소기업의 비중이 58.2%, 대기업은 23.8%였다.[25] 이러한 통계적 변화는 2021년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궤를 같이하며, 질적·양적 측면에서 협력 기반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2020년대까지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도소매·외식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중국 기업의 우위가 두드러진 몽골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특정국 편중 완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한·몽 교역 현황 (1985~2023)



출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http://stat.kita.net

25 '몽골진출전략 20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지털 자료

2021년 팬데믹 국면에도 한국의 대(對)몽골 수출이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것은 소비자 인식의 변화, 비대면 소비 확대, 청년층 중심의 소비트렌드 등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35세 미만 인구가 약 62%에 달하는 인구구조는 의류, 식음료, 미용,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의 수요 기반으로 작용한다. 반면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중국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의 열위, 통관 절차의 불투명성, 행정 비효율성과 부패 리스크 등은 한국 기업의 직접 진출을 제약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몽골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및 유통 파트너십을 주된 프랜차이즈 진출 방식으로 채택하고, 대기업 중심의 공공조달 참여를 교두보로 민간 유통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신세계 이마트를 시작으로 CU(2017), GS25(2021)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진입하였고, 미샤·에뛰드하우스·더페이스샵 등 화장품 브랜드와 카페베네·탐앤탐스·롯데리아 등 외식 브랜드도 현지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Oyuntsetseg D., 2023).

경제외교 관계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무상원조와 양허성 대출—는 몽골의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은 1991년 몽골을 ODA 수원국으로 지정한 이후 유·무상 원조를 병행하며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무상원조는 1990년 KOICA를 통한 45만 달러 규모의 물자 지원으로 시작되었고,[26] 이후 정보통신기술(ICT)·공공행정·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자금과 기술이 지원되었다. 더불어 정책자문, 전문가 파견,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 협력도 병행되었으며, 1991~2018년 무상원조 규모는 총 2.38억 달러에 달한다(이지안, 200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원조는 1993년 양허대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1996년 화력발전소 건설(630만 달러), 1997년 지방통신망 확장(1,430만 달러), 정부통신망 현대화(530만 달러)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후 울란바토르 고속도로,

26 대한민국 ODA 지원 현황 (2010-2020),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지능형 교통망, 긴급구난 정보망 구축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원리금 상환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이행되었다.[27]

2010~2021년 동안 한국 정부는 몽골에 총 4억 6,270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무상원조가 3억 2,741만 달러, 유상원조가 1억 3,528만 달러를 차지한다. 총 4,005건의 협력사업이 추진되었고,[28] 이는 몽골의 체제 전환기 경제 안정과 공공행정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업들은 양국 간 실질 협력의 확대를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다. 2021년 한 해에만 2,495만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이 집행되었다.[29] 이 같은 한·몽 ODA가 단순한 원조를 넘어 구조적 혁신과 전략적 동반자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3. 공공외교 관계

1990년 수교 이후 몽골과 한국은 1991년 체결된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과 「문화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문화·교육·과학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초기 협력은 물적 지원과 인적 교류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권영순 초대 주몽골 한국대사의 요청에 따라 정보기기 등 교육 기자재가 몽골 교육기관에 제공되면서 교육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이 본격화되었다(이지안, 2002). 수교 직후 한국 정부는 한국학 및 한국어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였고, 몽골국립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한국학 관련 학과가 설치되었다. 2019년 기준 18개의 대학교에서 3201명의 학생이 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으며, 28개의 초·중·고등 통합학교에서 총 4717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세종학당 3곳에서 매년 160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한

27 '몽골과 한국의 관계: 자료집(1990-2019)', 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학연구소, 울란바토르, 2021.

28 대한민국 ODA 지원 현황 (2010-2021),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통합조회서비스. https://kodaportal.go.kr/portal/rctr?basYyyy=2020

29 대한민국 ODA 지원 현황 (2010-2021),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통합조회서비스. https://kodaportal.go.kr/portal/rctr? basYyyy=2021

국어 단기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몽골 현지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3993명으로 집계되었다(Sainbilegt.D, 2021).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대학 내 한국학과 개설, 한국어 교재 개발, 공동연구, 한국학 인재양성 과정 등 학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해 왔다.

2010년 이후 한국의 대몽골 공공외교는 외교부의 '전략적 맞춤형 공공외교' 기조에 따라 문화외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운영된 '문화교류의 해'(2010-2011)를 계기로 대규모 문화 행사와 학술·예술 교류가 활발해졌고, 2012년부터는 '한국의 문화주간(Korea Culture Week)'과 '한국의 날(Korea Day)'이 연례 행사로 정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퀴즈 온 코리아(Quiz on Korea)', 'K-푸드 월드 페스티벌(K-Food Festival)', 'K-팝 월드 페스티벌(K-Pop World Festival)', 한국 영화제, 전통공연 및 미술·사진 전시 등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되며, 특히 'K-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류의 대중성과 파급력을 활용한 핵심 공공외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중심의 공공외교는 몽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체계적·지속적 활동은 정부 간 외교를 보완하는 시민 중심의 상호이해 채널로 작동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다층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4. 인적교류와 국가 이미지 형성

1990년 수교 이후 한·몽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정치·경제·문화 전반을 견인하는 실질적 기반이자 외교적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로 기능해 왔다. 권영순(1996) 초대 주몽골 대사의 지적처럼, 양국 관계는 제도적 협력에 앞서 인간적 교류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는 몽골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방송 중계를 통한 이미지 형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몽골 국민은 한국에 대한 일정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1994

년 몽골항공(MIAT), 1996년 대한항공이 각각 울란바토르-서울 간 정기 항공편을 개설하면서 양국 국민의 왕래—주로 상업 목적—가 본격화되었다. 1996년 이후에는 노동 목적의 한국 방문 몽골인이 급증하였고, 2012년 복수사증 확대, 2015년 사증 간소화 시행,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적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었다.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방문 몽골인은 150,201명, 한국 내 장기체류 몽골인은 57,093명으로 집계되었으며,[30] 같은 시기 한국 내 몽골인 유학생은 12,317명으로 중국·베트남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31] 현재 한국은 재외 몽골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유학·취업·결혼·장기체류 등 다양한 경로의 인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몽골 사회에서 한국 문화의 자연스러운 수용이 촉진되었다. 동시에 방송을 매개로 한 문화 수용도 활발해졌다. 몽골통신규제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지상파 방송사는 17개로 증가하였고, IPTV 도입과 함께 2011년 52개, 2012년 82개, 2013년 100개의 종합편성·전용 채널이 개국하였다. 자체 제작 역량이 제한적이었던 다수 방송사·채널은 외국 콘텐츠—특히 한국 드라마—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었다(Oyuntsetseg D., 2023). 한국 체류 경험자, 한국 드라마 시청자, 한국어 학습자 등은 단순 수용자를 넘어 귀국 후 '한국 문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마트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제품 선호' 소비자들로 형성된 몽골 유통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몽골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을 중국산 대비 품질 우수, 일본산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한국 기업들은 'Made in Korea' 브랜드 전략을 적극 전개하였다.

한편, 몽골국립대학교 사회학연구소가 2011·2015년에 실시한 「몽골인의 한

30 대한민국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연보, 2024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31 4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통계, https://www.studyinkorea.go.kr/it/why/koreaStatistics.do

국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한국산 제품 이용, 한국 방문·체류, 유학·취업 등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한국·한국인·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2008년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한국 문화 수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관찰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한국 드라마의 과다 방영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SNS상에서 전개되었다. 일부 저명 작가·연출가들은 과다 방영이 몽골 청소년의 한국 문화 과몰입을 야기한다고 비판하며 방송 쿼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가 편성하는 전체 콘텐츠의 50% 이상을 자체 제작물로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5.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향후 전망

한·몽 관계는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이후 고위급 상호 방문과 공동위원회·전략대화의 정례화를 통해 실행 거버넌스가 정착되었다. 2022년 8월 외교장관 협의에 이어 2023년 2월 총리 방한 시 6건의 협정·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25년 4월 국회의장 방몽을 계기로 의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구축이 계획되었다. 이러한 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미 착수된 국가 차원의 사업을 감안할 때 향후 양국 관계는 경제협력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제동반자협정(EPA)은 2016년 공동연구 착수, 2023년 협상 개시 공동성명을 거쳐 2024년 11월까지 4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서명을 목표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EPA는 몽골에 대해 광물 자원 기반 제조·농축산 가공의 고도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한국에는 자원·지정학 시너지와 중장기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신시장 개척이라는 이점을 제공하는 상호호혜적 규범화 수단으로 평가된다.

자원·기술 협력은 희귀금속 공급망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3년 체결된 정부 간 양해각서가 그 제도적 출발점이다. 한국정부 무상원조(2023~

2027년, 총700만 달러)를 재원으로 한 '한·몽 희귀금속 공동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전주기(탐사－채굴－정제－가공－응용) 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협력 범위는 원료 공급을 넘어 부가가치 창출, 기술이전, 인재양성, 친환경 채굴 기술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국의 도시개발·인프라 협력은 실행 국면에서 2023년 2월 MOU 기반으로 신(新)카라호롬(Kharkhorum)의 타당성조사·예비분석이 한국 지원으로 진행되고, 신(新)종모드(Zuunmod)는 K-City Network 도입이 추진 중이다. 울란바토르 지하도·교통·도로 등 재개발과 함께 KOICA·국토교통부 주도의 도시계획·폐기물 처리·친환경 건축 협력이 착수되었다. 도시철도는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타당성조사·예비설계를 완료했고 한국 기업 9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대기오염·난방 부문에서는 솔롱고 1·2 주택단지와 10개도(道) 지역난방 개선이 한국 정부 차관으로 추진 중이다. 몽골의 「비전 2050」·「신부흥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시티·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목표로 하는 양국 도시 개발 협력은 단순 시공을 넘어 기술·제도·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다층적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구상된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 2007년 착수된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몽골의 '10억 그루 나무' 국가운동의 연계는 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원 확충 측면에서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체결된 기후변화 대응 정부 간 협정은 환경·에너지·기후 협력을 제도화하였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상호보완적 특성(몽골의 태양광·풍력 잠재력, 한국의 기술력과 ESS)을 결합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Northeast Asia Super Grid)'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다자 협력 구상 범위 내 고비사막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조성 '고비 프로젝트(Gobi Project)'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몽골의 전력 인프라 현대화와 전력 수출국 전환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다자 에너지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한다.

3. 몽골 내 코리아학 연구

몽골 내 코리아학의 발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모두 일정한 기여를 해 왔다. 몽골 코리아학의 기초를 조선과의 교육 협력 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 오늘날의 발전은 한국의 해외 한국학 진흥정책과 재정적 지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960년대 후반 조선어 연구와 몽골제국-고려 관계사를 다룬 최초의 단행본들이 간행되면서, 몽골의 코리아학은 독자적 학문 분야로서의 기초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32] 그러나 사회주의 시기 국가적 건설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조선유학 몽골 학생들이 건설·농업·화학공학 등 국가 산업 수요가 높은 전공에 주로 집중함에 따라 조선어학·조선학 전공 인력의 저변이 협소하였고, 그 결과 코리아학의 학문적 전개는 제약을 받았다. 1990년 이전 몽골의 코리아학 연구는 소수 연구자의 개별 저작을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국 정부의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정책과 지원에 힘입어 몽골의 코리아학은 본격적 발전 국면에 진입하였다. 1991년 몽골국립대학교, 1992년 국립외국어대학교와 국립울란바토르대학교(울란바토르시립대학교)등에서 한국학과·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전공 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Sainbilegt, 2021).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학과 신설을 비롯해 한국어·한국학 교재 개발, 한국학 공동연구,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학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몽골 연구자들에게 한국 현지 연구 수행, 학문 연수 이수, 초빙교수 활동, 학술 자료 접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리아학 연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동시 촉진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측의 지속적 진흥 노력과 제도적 지원의 산물로 평가된다. 오

32 조선어학 전공 학자 B. 솜야바타르(B. Sumiyabaatar, Б. Сумъяабаатар)는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угсаа гарал, хэлний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몽골-조선 민족의 기원과 언어적 연관성에 관하여, 1975)과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ууд (Тэргүүн дэвтэр)』(13-14세기 몽골-고려 관계 사료집, 제1권, 1978) 등의 단행본을 통해 몽골 내 조선학의 토대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1960년대 초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어학을 전공한 첫 전문 인재다.

늘날 몽골에서 '코리아학'이 곧바로 '한국 중심의 코리아학'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상 몽골에서는 같은 민족을 조선과 한국, 혹은 북한과 남한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하나의 동일한 민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Солонгос(설롱고스)'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이러한 인식은 몽골 내 코리아학 연구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조선학 혹은 한국학이라고 분리하지 않고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코리아학)'이라고 해 왔다. 또한 연구 대상과 그 대상이 속하는 시대가 하나의 민족의 언어, 문화, 역사, 민속 등 공통분모를 갖는 이상 언어학·역사학·민속학·고고학 등 다수 분야에서는 '조선학'과 '한국학'의 엄격한 구분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다. 다만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의 현대사, 즉 국가체제와 이념 차이가 두드러지는 정치학·국제관계학·현대 사회·문화 연구 분야에서는 '조선학'과 '한국학'의 구분이 의미를 지닌다.

몽골 코리아학 연구자로서 코리아반도 전반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몽골에서의 코리아학이 조선과 한국을 아우르는 학제 간 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조선과 한국의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몽골·조선·한국 3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연구 구조는 몽골 코리아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반도에 대한 국제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몽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정치외교, 경제무역, 공공외교, 인적 교류의 네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양자관계의 특성과 코리아학 발전에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두 관계는 모두 우호적·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협력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몽골의 대(對)양국 외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는, 성격은 상이하더라도 정상외교의 지속성, 인도주의 외교와 문화교류를 축으로 한 공공외교, 자발적 민간교류의 지속성이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견인해 왔다는 점이다.

조·몽 관계는 수교 초기부터 고위급 상호방문과 각종 협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였고, 냉전 종식과 체제 전환이라는 역사적 격변 속에서도 외교적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현재 국제 제재와 경제구조상의 제약으로 실질적 경제협력은 제한되지만, 정서적 유대와 정치적 신뢰를 토대로 장기적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관계는 사회주의 시기 동맹적 이념 연대에 근거한 인도주의 지원, 정상외교, 문화교류, 정치적 핵심 인물들의 헌신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을 축으로 한 전통적이고 상징성이 강한 우호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향후 관계의 진전은 실용적 경제 협력의 확대 여부에 의존한다. 기존의 정치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 경제 협력, 항만·물류·광물자원 분야의 실용 협력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은 정부 중심 통로보다 민간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록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화할 것이다.

민주주의·시장경제에 기초한 제도적 유사성과 지정학적 공감대, 그리고 정치·영토·역사적 갈등 요인의 부재에 힘입어 형성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몽 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전방위적·실질적 협력으로 발전하며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상외교와 경제외교가 관계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공공외교와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또한 관계 심화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였고, 한국 문화의 자발적 수용은 몽골 내 국가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한국 제품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는 자원·기술 및 환경·에너지 분야의 상호보완적 잠재력을 결합하여,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등 전략적 함의를 지닌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요컨대 수교 35년을 경과한 오늘날의 한·몽 관계는 기존 협력의 고도화를 토대로 신흥 협력 분야로의 확장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평가된다.

몽골은 다자(다축)외교를 기조로 대(對)코리아반도 외교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구사해 왔으며, 중립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복합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몽골에게 조·몽 관계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전략적 자산이며, 한·몽 관계는 다자외교와 개발협력을 결합한 미래지향적 모델로서 가치를 지닌다. 몽골은 양국과의 외교적 균형을 견지하며 코리아반도 평화외교의 중재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조·러 관계의 긴밀화와 투먼강 도로·철도 겸용교 착공 등 최근 역내 정세 변화는 몽골의 해상 출구 확보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몽골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외교적 자산의 잠재력은 한국의 신(新) 정부의 실용외교 및 북방전략에서 몽골의 저략적 동반자 역할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Battur.J (2011) 『20세기 한국 몽골 관계사』, 현대몽골연구원, 서울.

Ж.Ломбо (2018)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ын харилцаа 70 жил,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Ж.Ломбо (2018)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편저

Д.Оюунцэцэг (2021) "БНСУ-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о, стратеги ба Монгол улстай харилцах харилцаа", МУИС, ОУХНУС, Монгол улсын гуравдагч хөрш: Гадаад бодлого, стратегийн дун шинжилгээ, Улаанбаатар, Удам соёл, 166-204.

Ц.Цэрэндорж (2020)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уухийн судал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чиг хандлага", Зуун Хойд Азийн Туухийн Сан, БНСУ, Монголын туухийн харилцааны ололт амжилт ба хэтийн төлөв. 23-33.

Sainbilegt.D (2021) 「몽골에서의 한국학 교육 동향과 과제」, 한국몽골학회(편) 『한국 몽골학의 회고와 전망, 그 30년 지평을 논하다』, 민속원, 243-262.

송병구(2021) 「한·몽 외교 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한국몽골학회 (편) 『한국 몽골학의 회고와 전망, 그 30년 지평을 논하다』, 민속원, 67-110.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2012)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단국대학교 출판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туухч, археологичдын холбоо (2015)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

лцаа: Туух ба баримт I.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принт.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Олон улс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2021)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Баримт бичгийн эмхэтгэл (1990-2019), Улаанбаатар, Бэмби с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Олон улс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2021)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Он дараалллын товчоон (1990-2019), Улаанбаатар, Бэмби сан.
МУИС, ОУСХ (2021)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хагас жаранд.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3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ЭШХ-ын эмхэм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дам соёл.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Oyuntsetseg.D (2024)「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С.Батсайхан (2016) “1990-ээд онд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ын харилцаа: БНАСАУ Монгол дахь ЭСЯ-аа хаасан нь хоёр орны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онцлог”,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1/32, 13-23.
С.Батсайхан (2017) “Монгол дахь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ерөнхий төлөв”,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1/36, 117-133.
Д.Золбоо, Д.Оюунцэцэг (2020)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 хагас жаранд”,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3(7). 10-20.
Д.Оюунцэцэг (2021)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ын олон нийтийн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Монголчуудын Солонгосын талаарх төсөөлөл, ойлголт”.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1/43. 7-32.
С.Энх-Амгалан (2024)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1(9), 68-81.
곽민경, Oyuntsetseg.D (2014)「몽골의 반한류 네트워크 분석: 미디어, 소셜, 정부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을 중심으로」,『몽골학』Vol.39, 한국몽골학회, 271-298.
권영순(1996)「한-몽 현대교류를 회고하며」,『한국북방학회논집』, Vol2, 381-401.

학술회 발표

Oyuntsetseg.D (2023)「한국 기업의 몽골 시장 진출에 몽골에서의 한국의 국가 이미지의 영향」, Proceedings from 2023 SIRPA-ICIS Conference : East Asian Cooperation in a Divided World, Ulaanbaatar, 2023/05/26.
Oyuntsetseg.D (2023) “Current Status of Broadcasting in Mongolia and Acceptance of Korean Dramas”, “2023 ICT Business& Contents Partnership Seminar”,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ROK,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23/04/27.

Д.Оюунцэцэг (2023)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стратегийн туншлэлд”,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ойд зориулсан “ЗҮҮн Хойд Ази ба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еминар. МУИС, ШУС, ХУС. 2023/03/27.

Д.Оюунцэцэг (2023)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ын соёл, хумуунлэ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ухэн унэ цэн”,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75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Туухэн харилцааны унэ цэ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МУИС, ОУХНУС. 2023/04/12.

연구 보고서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Нийгмийн Судалгааны Хүрээлэн, “БНСУ болон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талаарх монголчуудын санал бодол” судалгааны тайлан 2011, 2015

(몽골국립대학교 사회학연구소「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몽골인들의 인식조사」연구보고서 2011, 2015).

대한민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025 몽골진출전략」(디지털 자료)

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411 (2025.07.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 협력방안」연구보고서, 2023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11398&act=view (2025.06.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시북방 시대 한국 몽골 미래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연구보고서, 2020,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5545&otpSeq=0&popup=P (2025.06.17)

신문 기사, 인터뷰

Ж.Ломбо,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 эрт үеэс өргөн харилцаатай байсан талаар туухийн судар бичигт тэмдэглэсэн байдаг” нийтлэл, Монцамэ, 2023.11.25. https://montsame.mn/mn/read/332119 (2025.05.10)

П.ҮржинлхҮндэв, “Цагийн аясаар царцаагүй харилцаа”, Өнөөдөр сонин, 2023.10.13. https://www.unuudur.mn/a/260932 (2025.05.12)

Д.Бямбаа: БНАСАУ-ыг хулээн зөвшөөрч,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хоёр дахь орон нь Монгол” ярилцлага, Монцамэ, 2018.10.15 https://www.montsame.mn/en/read/167748 (2025.05.10)

“Л.Халтар: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Ражин боомтоор нуурс экспортлохоор судалж байна” ярилцлага, 2022.01.28. https://gogo.mn/r/4jd5v (2025.06.19)

통계 서비스 포털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өв архивын цахим архив. БНМАУ, БНАСАУ хоорондын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ны бичиг баримтуудын сан. (몽골외교부 자료보관소 온라인 아카이브) https://mfa-archives.mn/online-archive (2025.05.17)

대한민국 ODA 지원 현황(2010-2024),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ODA통합누리집,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36 (2025.06.12)

대한민국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연보, 2024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2025.05.18)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통계, https://www.studyinkorea.go.kr/it/why/koreaStatistics.do (2025.06.12)

한류 시대의 글로벌 한국학의 명암*

The Contradictions of Global Korean Studies in the Age of Hallyu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1. 들어가며 : 한류시대 한국학의 확산

최근 20여 년간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상승 등의 이유로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크게 일어났다. 가장 인기 있는 언어학습 앱인 듀오링고(Duolingo)에 의하면 지금 한국어 학습자들은 세계적으로 550만 명에 이른다. 듀오링고에서는, 세계의 사용자 숫자가 두 번째 많은 언어인 중국어에 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안상현 2025). 현재의 글로벌 언어 학습시장에서는 한국어만큼 빠른 속도로 그 학습시장 규모가 커져가는 언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한국어 학습이란 약 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지만, 그 규모는 연간 25% 가량 성장해 2034년에 이르러 6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Korean Language Learning Market 2025). 한 때에 소수의 언어였던 한국어는, 이제 세계의 언어적 주류에 편입되어 세계 체제 핵심부에서도 주변부에서도 중국어나 일본어에 못지 않은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 대중문화 영향력의 확산, 한국어 보급과 함께 한국학의 위상도 질적으로 달려져가고 있다. 미국의 4년제 대학들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는 2021년에 접어들어 2만 명 이상 됐다. 한국이 이미 산업 강국이 된 1990년에도 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2096299).

** Vladimir Tikhonov (Pak Noja) (Professor, Oslo University)
E-mail: vladimir.tikhonov@ikos.uio.no

국의 대학들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2375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 그 숫자는 한국 대중문화 인기의 폭발로 빨리 커져가기 시작했다(Fouser 2023). 언어 학습과 함께 학술 분야로서의 한국학도 꾸준히 성장해, 이제 구미권 등 여러 지역의 대학에서는 중국·일본학과 비교할 만한 주류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 202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한국학을 약 4만 명의 대학생들이 약 220개의 대학에서 학습했다(Lee 2021).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발전도 계속 이루어져 왔다. 구미권 아시아학의 주요 학술지에서 게재되는 한국학 관련의 우수 논문들은, 한국 국내의 한국학을 오히려 선도할 정도라 할 수 있다. 외국의 한국학 전문가가 쓴 전문 학술서들이 한국 국내에서 번역 출판돼 학계 안팎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인기를 누리는 상황(예컨대 줄레조 2007는 이와 같은 사례 중의 하나다)은, 이 질적 성장을 웅변적으로 과시해준다.

하지만, 최근의 발전이 괄목할 만한 만큼 글로벌 한국학을 둘러싼 모순, 불평등, 소통의 실패들도 상당하다. 결국 다른 인문, 사회과학 분야들처럼 글로벌 한국학도 자본주의의 위기의 시기인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으로 Frassinelli 2019 참조). 밑에서 이야기할 것처럼 한국학의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은 신자유주의적 대학의 이윤추구 경향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계량화가 가능한 수적 업적으로만 평가 받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연구계의 전반적 생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학 연구자의 공동체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학계 전반이 그런 것처럼, 소수가 돼가는 정규직과 '학계의 무산계급' 격인 비정규직으로 양분돼 있다. 특히 해외 한국학계의 유일한 언어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라고 할 영어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비(非)영어 학술적 성과는 비주류의 위치로 전락된다. 그리고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과 유엔 및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제재 등은 세계 한국학계를 각종의 횡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으로 갈라 놓는 것이다. 대학의 기업화와 학계 안에서의 양극화, 영어 일색이 되고 비영어 사용자로부터 멀어지는 학계의 현주소,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한국학 학계는 어떻게 한반도 평화 지향과 다양성 존중, 동료애(同僚愛, collegiality)와 같은 가치들을 지켜가면서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각

종의 문제적인 경향에 저항할 수 있는가는 바로 이 소논문의 주된 주제다. 비록 한국학 커뮤니티만의 힘으로는 신자유주의나 인문, 사회과학의 위기라는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야 없지만, 한국학 학도들이 그 현장에서 벌일 수 있는 국지적 저항도 난경 속에서 학계를 지키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학: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가르치는가?

2.1. 누가 한국을 배우고 가르치는가?

교육 대중화의 시대지만, 여전히 구미권에서는 한국학을 포함한 학계 종사자는 대개 고학력 부모를 둔 중산층 구성원들이다. 개인 성취 지향의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개 어릴 때부터 학력 성취도가 비교적 높고, 향후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연구자가 될 확률이 높다(Marjoribanks 1998).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평등주의 전통이 강하고 모든 공교육이 무료인 노르웨이에서마저도, 전체 인구 중에서는 불과 32%만이 대졸이지만, 연구자들의 66%는 대졸을 그 부모로 둔 것이다(Amundsen 2024). 반대로 저소득, 저학력 계층 출신들은 한국학을 포함해서 연구계로 쉽게 진입하지 못한다. '계층'과 '종족'이 교차되고 중첩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한국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 중에서는 일부의 피차별 소수 인종 구성원들을 만나보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흑인들은 미국 총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대학 교수 중에서는 6%밖에 되지 못한다(Connor 2025). 학계 전체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학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통계가 없어서 확언하기 힘들지만, 필자는 AAS(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미주 아시아학회)과 AKSE(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유럽 한국학학회) 대회마다 참가하면서 한국학으로는 흑인 출신의 발표자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 중에서는 대졸이 아닌 부모를 둔 이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출신 배경은, 이하에서 논하게 되는 한국학 연구 주제의 선택 등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한국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 전공들은, 구미권의 학계에서 '학계 무산 계급'(academic proletariat)의 성장이라는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학계 무산 계급' 내지 '학계 불안 노동 계급'(academic precariat)은 불안 노동을 강요 받는 학계의 비정규직 등을 가리킨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수 인종 및 노동계급 출신의 연구자들이 학계 불안 노동 계급으로 전락될 위험에 비교적으로 더 노출돼 있다(Burton and Bowman 2022). 미국의 경우에는 평균 박사학위 취득 연령은 31세지만(Survey of Earned Doctorates 2024), 조교수 급으로 최초 정규직 취직의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이다. 사실 미국 조교수들의 67%는 아예 40세 이상이며, 조교수의 평균 연령은 46세다(Assistant professor demographics and statistics in the US). 박사 졸업과 조교수 취직 그 사이에 신진 연구자들이 박사이후 과정생(postdoc) 등의 불안한 삶을 강요 받으며, 종종 무보수 노동 등 부당 노동 행위에 노출된다. 그들이 –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 취직에만 집중해야 하는 그들의 상황은, 그들의 연구나 문필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2. 글로벌 한국학,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한국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들의 연구자들에게 과잉 경쟁을 강요한다. 과잉 경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는 학자들은 게재 논문 편수만을 늘려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깊이나 폭을 종종 희생시켜야 한다. '관리자 본위의 대학'(managerial university)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조건 하에서는 연구자는 계량화된 '업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받는 생산 담당자이며, 학계 불안 노동 계급에 속하는 연구자라면 학계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높은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Olssen 2016). 많은 구미권의 한국학 종사자들은 예컨대 일본 학계의 성과들을 그 논저에서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일본어를 배워 그 언어로 된 연구 성과를 참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과잉 경

쟁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린 그들에게는 도저히 없다.

이와 연계된 또 하나의 문제는, 구미권과 한국 등 광의의 서방권 학계 언어의 실질적 '일색화'다. 세계적인 지정학적·지경학적 다원화 시대(Acharya 2018)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아닌 언어로 쓰인 학술 성과는 서방 학계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참고되지 않는다. SSCI 같은 주요 사회과학 데이타베이스에 등재돼 있는 학술논문의 85%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가 하면, 예컨대 일본어 논문은 5.9% 밖에 안 된다. 한국어는 1.3%뿐이다(이인권 2024). 한국을 포함한 광의의 서방권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계 불안 노동 계급에서 정규직 학계 구성원으로 그 신분의 상승을 이루자면 학술 연구 성과를 영어로, SSCI나 Scopus 등 주요 학술지 색인에 등록돼 있는 등재 학술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과잉 경쟁에서의 상황에서는 영어 논문 발표의 필요성은 더더욱 더 절대화돼 간다. 다른 서방권 국가보다도 특히 한국에서는 영어 논문들은 학술적 성과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김종영 2015). 하지만 학자가 아닌 비영어권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영어로 된 학술 성과들은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노르웨이 같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나라에서마저도, 일반인들은 영어로 된 학술 텍스트를 쉽게 접하지 못한다. 영어 구사력이 노르웨이보다 덜 대중화돼 있는 세계 다수의 사회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한국학을 포함한 여러 인문·사회과학 연구성과들은 그 대중성을 상실하고, 학계와 일반인 사이의 괴리만 커져 간다. 한국학은 그 국적이나 거주국과 무관하게 주로 학술적 영어로만 소통하는 전문 학자들만의 이야기로 전락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2.3. 글로벌 한국학: 중심부, 주변부, 소외지역, 그리고 분절화

연구자들의 출신 배경과 신분, 그리고 연구 언어 다음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지역적 격차,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불균형 복합발전(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에의 경향은 한국학에서도 같은 대륙 안에서의 여러 나라 학자 사이의 불평등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예컨대 같은 유럽 지역이라 해도 대학 교원들의 명목 임금은 동유럽에서 북유럽보다 3-4배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동유럽 (과거의 냉전시대 소련 위성 국가들) 임금 수준이 북유럽에 비해 그 정도로 낮은 것인데(Yanatma 2025), 학계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거기에다 더하여, 많은 동유럽 및 남유럽 대학에서 한국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할 재정이 안돼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의 어려움은 한국학 연구에 많은 방해를 주고 있다. 사실 동유럽도 주로 유럽연합(EU)에 가입돼 있는 국가로 구성돼 있는 만큼 광의의 선진권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격차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진권이라 해도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학계 안에서 정규직 연구자와 '학계 무산 계급'이 공존하는 것처럼 '선진권' 안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가 공존한다.

한국학이 최근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주변부라면, 유라시아의 일부 지역들은 최근 – 아직도 광의의 서방권 중심의 – 글로벌 학계로부터 아예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가동된 뒤로는 러시아의 한국학 전공자들을 포함한 러시아(와 벨로루시) 학계 종사자들은 서방 학계의 학술 활동에서 거의 완전하게 소외됐다. 공식적으로는 구미권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제도적(institutional) 협력만 금지해 놓았지만, 실제로 개벌적 학자들의 – 러시아 기관에의 소속이 있는 한 – 구미권 학술회의 참석, 학술지에서의 논문 게재, 연구차의 방문 등도 매우 어렵게 됐다.(Crowley–Vigneau et. al. 2022). 구미권 학자들도 러시아의 도서관 내지 아카이브 등을 접근할 수 없어 양측의 피해가 심각한데, 구미권 학계 전체에 비해 소수에 불과한 러시아 연구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2022년 이후 최근의 러시아 한국학은 가면 갈수록 한국과는 여전히 약간의 교류를 지속하고 구미권과 거의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는, '게토'와 같은 커뮤니티가 되고 말았다. 전쟁과 한·러 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이 여전히 뜨거운(정덕현 2024) 러시아에서는 한국학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서방권과의 단절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한국학은 바깥에서의 연구 결과를 흡수하지 못해 제대로 발전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나 이란, 러시아 학계는 가장 많은 제재를 직면하고 있지만, 지경학적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세계 학계의 분절화(fragmentation; Huisman and van der Wende 2022)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0년대부터 계속 심화돼온 대(對)중국 대립을 내부 결속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극우 정권은, 미국과 중국의 교육, 학술 연구 기관 사이의 협력을 극히 어렵게 만들었다(陈婧 2025). 이는 한국학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령, 미국에 유학하려는 중국인 한국학 학도나, 미국을 연구 방문하려는 중국의 한국학 연구자, 아니면 연변 등 한반도와 인연 깊은 중국 지역들을 현지 조사하려는 미국 연구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 단,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 학자들과 달리, 중국 학자들은 미국과의 교류가 많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도 적어도 유럽과의 교류를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비교적 이점을 누린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러시아의 한국학 학계에 비해 중국의 한국학 학계는 한국과 훨씬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중국도 어디까지나 일국(一國) 범위 안에서의 한국학으로서의 특색을 띠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학계의 이와 같은 "내향적 전환"(inward turn)은 결국 분절화돼 가는 미국 패권 이후의 세계체제의 새 지형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

2.4. 글로벌 한국학: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연구 주제 사이의 균형 상실이다. 여기에서 지원 기관의 성향과 묵시적 요구부터 구미권의 학계 유행까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역사학을 일례로 들면, '한류 붐' 등도 가미돼 지금 문화사 연구가 팽창되는 한편, 1970-90년대에 각광을 받았던 일부 분야들은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사실 '문화' 내지 '일상'으로 집중되는 관심은,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으로 '계급' 내지 이외의 '거시 서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이후 세계 사학계에서도 크게 나타나는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 또한 이 '문화로의 전환'(cultural turn) 속에서 소수자들의 삶 등 여

태까지 괄시됐던 부분들이 새로이 조명을 받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도 있다(Ellis 2011). 하지만 한국사 연구의 경우에는, '문화로의 전환'은 매우 뚜렷하게 무엇보다도 각종 급진 운동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의 냉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말-90년대에 유행했던 사회주의운동사 등은, 이제 국내외에서 극소수만 종사하게 됐다. 급진 운동, 독립 운동의 역사에 대한 한국 국내에서의 대중적 관심이 높고 시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계 연구 동향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가적 수준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한류 연구는 특히 국외에서 호황을 이루고 있다. 2025년에는 Hallyu: The Korean Wave이라는 별도의 학술지가 브릴(Brill)이라는 유럽의 굴지의 학술출판사에서 나오게 될 정도로 한류 연구는 하나의 '산업'이 돼간다. 한류의 확산이 한국어, 나아가서는 한국학의 세계적인 팽창의 기폭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대중 문화에의 매우 높은 관심은 사실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 한류 관련의 수업들이 많은 만큼 수업 자료로 활용될 만한 연구 업적들에 대한 수요 역시 높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드라마나 영화 등 한국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서 창작되는 문화 상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사나 노동의 사회학, 노동운동사, 여성학 등 비판적 연구 정신이 전제되는 연구들부터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즉, 대중문화 연구가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관심을 거의 독차지하는 상황보다는, 대중문화와 함께 '문화'와 불가분의 연관을 가진 각종 연구 분야들도 나란히 함께 발전되는 상황은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아쉽게도 글로벌 한국학의 현주소는, 후자보다 전자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

3. 나가며 : 평화, 평등, 통합, 그리고 다양성을 지향하는 글로벌 한국학을 위하여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어, 나아가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세계 빈부의 격차나 지정학적인 경계선을 넘어 거의 보편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단적인 예

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최악의 갈등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한국산 대중문화는 이스라엘 젊은이와 팔레스타인 젊은이 사이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Otmazgin and Lian 2014). 갈수록 분절화돼가고, 다시 국민 국가 중심의 경제 운영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 이후'(post-globalization)의 상황(Roudometoff 2025)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야말로 세계인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모종의 '글로발리티'를 상징하게 된 것이다. 한국학 역시 마땅히 이에 못지 않게 다양한 지역과 계층, 인종 출신의,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 언어를 쓰는 연구자들을 평등하게 아우르는 학문 분야가 돼야 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위에서 논증한 것처럼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 세계 학계 전체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글로벌 한국학 학계는 대개 중산층 이상의 계층 출신으로 충당된다. 미국의 흑인 등 역사적으로 억압을 받아온 소수 인종들의 학계 진입은 여전히 어려우며, 한국학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일단 학계에 진입하게 되면 복합적인 서열 구조 속으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 이후부터 정규직 취직까지의 기간에는 '학계 불안 노동 계급'의 일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이미 정규직이 됐다고 해도 같은 선진권 안에서도 그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유럽연합 주변부 출신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서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 가는 등 '두뇌 유출'이 여전히 심한가 하면(Ionescu 2015), 국내외의 주요 한국학 학술지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거의 선진권 중심부 소속의 연구자나 한국 연구자들이 집필·기고하는 것이다. 글로벌 한국학이라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가 각종의 불평등과 격차로 점철돼 있는 것처럼 한국학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결코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곳은 아니다. '세계화 이후' 시대의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일부 지역(러시아 등) 기관 소속 연구자들은 아예 이 글로벌 한국학 커뮤니티로부터 소외된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학자로서의 신분상승은 거의 전적으로 영어 논저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학계 언어가 영어로 사실상 통일된 상황에서는 학자들과 비영어권 대중들의 소통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한류 연구 등은 여러모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만, 학계와 학계 밖의 대중으로서 꼭 필요한

많은 연구 분야들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정치 의제와 외교 조치 등까지 개입되어 상황을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자들이 북한에 여행할 수 없는(North Korea 2025)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에 도움될 수 있는 북한에서의 현지 조사연구 등을 미국 학자로서는 수행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즉, 한반도 평화 실천이라는 그 현실적인 사명 중의 하나를, 북한지역에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없는 미국 등의 학자로서 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글로벌 한국학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가능한 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출신들이 진입해 안정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학술 활동이 가능하고, 지정학적 경계선을 넘는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는 월경적(越境的) 연구 커뮤니티가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런 연구 커뮤니티는 연구 주제의 다양함을 보존할 줄 알아야 하며, 이와 함께 평화와 평등, 사회적 통합,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는 소수 인종 출신을 포함한 부유한 중심부 국가와 가난한 주변부 국가 출신의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연구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 결과물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는 '학계 불안 노동 계급' 구성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며 세계 학계 역시 연구 인력 초과 공급과 재정 부족 등 그 위기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런 커뮤니티는 아마도 조만간 만들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각자가 서고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 본인보다 어려운 입장에 있는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작은 연대'들이 축적되면 결국 오늘보다 더 나은 글로벌 한국학 연구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영(2015)『지배받는 지배자』. 서울: 돌베개.

안상현(2025)「"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 인기 덕…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550만 명" '듀오링고' 창업자 밝혀」,『조선일보』, 4월 18일.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4/18/45AHJUFPFBDB3MI4NBS5HBUI6A/

이인권(2024)「글로벌 시대 영어로 저장된 정보 지식 80%다」,『파이낸스뉴스』, 8월 20일. https://www.fn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27

정덕현(2024)「전쟁이 가로막아도 지금 러시아엔 한류가 뜨겁다」,『시사저널』, 10월 12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85

줄레조, 발레리(2007)『아파트 공화국』. 서울: 휴머니타스.

陈婧(2025)「中国特稿：中美办学路崎岖难行 高校间合作如履薄冰」,『联合早报』, 7월 20일.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50720-7160631

Acharya, Amitav (2018) *The End of American World Order*. New York: Polity Press.

Amundsen, Bård (2024) 'Det er ikke hvem som helst som blir forsker i Norge. Dobbelt så ofte som andre, kommer forskere fra et hjem der foreldrene hadde høyere utdanning.' *Forskning.no*, April 17. https://www.forskning.no/akademia-om-forskning-skole-og-utdanning/det-er-ikke-hvem-som-helst-som-blir-forsker-i-norge/2341730

Assistant professor demographics and statistics in the US (2025) *Zippia: the Career Expert*. https://www.zippia.com/assistant-professor-jobs/demographics/

Burton, Sarah and Bowman, Benjamin (2022) 'The Academic Precariat: Understanding Life and Labour in the Neoliberal Academ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43.4, 497-512.

Connor, Tyrell (2025) 'Black Faculty and Radical Retention' *Footnotes: A Magazine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50.2. https://www.asanet.org/footnotes-article/black-faculty-and-radical-retention/

Crowley-Vigneau, Anne; Kalyuzhnova, Yelena; Baykov, Andrey (2022) 'Russian higher education under sanctions: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Polis: Political Studies 4*, 47-62.

Ellis, Markman (2011) 'Emergence of Cultural History.' *Dandelion* 2.2: 1-8.

Fouser, Robert (2023) 'Korean Learning Boom at US Universities.' *Korea Herald*, December 19.

Frassinelli, Pier Paolo (2019) "Crisis? Which Crisis? The Humanities Reloaded." *Critical Arts* 33.3, 1-15.

Huisman, Jeroen and van der Wende, Marijk (2022) 'Reflections on a Global Agenda:

on Variety, Fragmentation, Change, and the Big Questions Ahead.' In *A Research Agenda for Global Higher Education*, edited by Jeroen Huisman and Marijk van der Wende. 1-18. Tallinn: Elgar Research Agendas.

Ionescu, Luiza (2015) 'Emigration from Eastern Europe, with a Focus on Brain Drain,' *Journal of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s* 4.2, 54-7.

"Korean Language Learning Market" (2025) *Global Market Insights*.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korean-language-learning-market

Lee, Jihae (2021) 'No. of people learning Korean studies abroad exceeds 40,000' *Korea.net*, October 19. https://www.korea.net/NewsFocus/Society/view?articleId=205242

Marjoribanks, Kevin (1998) 'Family Background, Social and Academic Capital, and Adolescents' Aspirations: A Mediational Analysi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 177–197.

"North Korea" (2025) *Travel.state.gov*, April 29. https://travel.state.gov/en/international-travel/travel-advisories/north-korea.html

Olssen, Mark (2016) 'Neoliberal Competition in Higher Education Today: Research, Accountability and Impac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7.1, 129-148.

Otmazgin, Nissim and Lyan, Irina (2014) "Hallyu across the Desert: K-pop Fandom in Israel and Palestine."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3.1*, 32-55.

Roudometof, Victor (2025) 'How Should We Think about Globalization in a Post-globalization Era?' *Dialogues in Sociology* 1.1, 13–26.

Survey of Earned Doctorates (2024)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https://ncses.nsf.gov/surveys/earned-doctorates/2024

Yanatma, Servet (2025) 'Average salaries across Europe: Which countries have the highest pay?' *Euronews*, May 6.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5/05/06/average-salaries-across-europe-which-countries-have-the-highest-pay

몽골 코리아학의 동향 분석*

A Study on the Trends of Korean Studies in Mongolia

성비락**
몽골국립대학교

1. 머리말

몽골에서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 가능하나 1990년 이후부터 교류협력이 많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이 용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앞으로 '한국학(Хан улс судлал)'과 '조선학(Жусон судлал)'라는 두 개의 용어로 세분화되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 이 두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코리아학(Korean studies)' 단어를 활용했다.

이번에 현대 몽골에서의 코리아학 동향을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몽골에서의 코라아학은 몽골 여러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언어와 문화, 민속학과 문학, 역사와 정치와 법학, 국제관계학, 지리학과 관광학 또는 정보통신이나 행정학, 예술과 기초과학 및 의료과학 등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학문들을 뜻한다. 하오나 본고에서 그 모든 학문 분야를 일일이 다루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대학교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교육 및 연구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이 논문은 제16차 ISKS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Sainbilegt Dashdorj (Professor of Asian Studies Department,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E-mail: dsainaa1003@gmail.com

2. 코리아학의 동향

2.1. 연구 동향

몽골과 코리아반도 국가들은 역사의 진전에 따라 끊임없이 사람들의 왕래와 문물의 교류가 있었으나 명나라나 청나라 통치 시대부터 1900년도까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그 동안 몽골은 200년간의 청조 강점기와 1921- 1980말까지의 소련의 억압과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반면에 코리아반도는 1910-1945년까지의 일본 강점기와 미소 양군에 의한 분단점령, 양 진영간의 분리 대립 투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다.

먼저 국가 기원에 대한 연구로는 주채혁(1996)과 Sumiyabaatar(1975)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채혁(1996)은 90년 이래로 수집된 관계 구비전승 사료와 문헌사료 및 고올리 성읍터 답사, 발굴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몽골과 Korea의 기원 문제에 관해서 '몽(蒙) 고올리'와 '맥(貊) 고올리'로 집약되는 한 가설을 제시했다. 반면에 Sumiyabaatar(1975)는 주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하여 음성적, 의미적 유사성에 기대어 어휘비교를 통해 Korea와 몽골의 공통 조상이 중앙아시아에 기원한다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강신, 1996:312).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세 교류 관계, 그 중 '몽골과 고려의 교류'를 제일 많이 다뤄왔다. 그 당시 몽골과 Korea 사이에 이뤄진 문화적 교류의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에 나오는데, 995년에 유학생 10명을 거란에 파견하여 몽골어를 배우도록 했다는 기록이다. 고려 신종 때 예수게이의 맏아들 테무진이 인근의 군소 족속을 정복하고 내외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세력을 넓혀 갔다. 테무진은 1206년에 쿠릴타이라는 대회에서 대칸으로 추대되어 '칭기스칸'이라고 칭해졌고 그 뒤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대몽골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의 암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몽골 장군 살리타이가 고종 18년(1231)에 제 1차 침입을 하였다. 이로부터 몽골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려에 영향을 끼쳤는데 원나라가 멸망하는 1368년까지 약 137년간 많은 문화교류가 이뤄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몽골과 고려 시대 연구의 개척자인 고병익(1949)은 "원대 사회와 이슬람 교도", "원대의 법제(1953)", "여대정동행성의 연구(1961)", "고려 충선왕의 원무종 옹립(1962)"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몽원사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논문들이다. 이 외에 김상기(1964)의 "이익재의 재원, 생애에 대하여", 이용범(1962, 1964)의 기황후의 책립 문제와 원대 라마교의 고려 전래에 대한 논문, 김종원(1969)의 "원대 몽고 국자감과 태학에 대하여"라는 중요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몽골에서의 중세 교류 관련 연구로는 다음 몇 권의 저서와 논문들을 거론할 수 있다. 가령, Sumiyabaatar(1978)에서 몽골 고대 부족에 대한 자료와 13-14세기 몽골의 외교 문서들을 다루었는데, 그 당시 몽한 관련 200여개 문서 중 39개는 외교 관련 문서이고, 21개는 원 나라 황제와 장군들이 고려에 보낸 조서와 서신들임을 밝혔다. 또한 Sumiyabaatar(1992)는 중세 몽한 관련 문헌 자료를 정리하여 출간했으며 Sumiyabaatar(1996)에서 고려를 중세 몽골 사료의 규장각(奎章閣)으로 강조하면서 경진 6년(1280) 10월에 원 나라에서 고려에 보내온 한 군법(軍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Lhagva(1995)는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치우쳐 왔음을 지적하고 이 시기의 양국 간의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일대일 관계에서가 아니라 당시 형성되었던 몽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몽골제국과 고려, 원과 고려 사이의 포괄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며 고려가 처해 있었던 당시의 국내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Dalai(1998)에서 기원전 400년쯤부터 '설렁거스'이라는 명칭을 몽골인들이 사용해 왔고 독립, 자주국가 입장에서 양국은 서로 교류해 왔다고 주장하며 고대 몽한 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인 쿨테긴 비석의 한국관련 기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세 몽한 교류를 몽골제국 시대(1206~1260), 원나라 시대(1260~1308)로 구분하였는데 그 당시 시대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칭기스 칸이 건국한 몽골제국은 고려와의 교류를 확대해 감에 따라 고려인이 몽골의 수도 하르허룸에 와서 몽골 유목생활을 경험하며, 몽골 도시 건설에 참여했다. 이는 원나라 시대의 교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원나라 때 양국 교류는 어떤 면에서 중국과 고려의 교류로 변질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의 통치정책과 관계가 있다." Erdenechimeg(1998)은 원 나라와 고려 왕실 간에 맺은 혼인 관계와 몽골 공주들에 대한 연구를 하여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에 Tserendorj박사의 "고대 한몽 관계사"가 출간되었는데 양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현대 교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몇 권의 서책을 대표로 소개할 수 있다. Battur(1998)에 의하면, 1910년대 씌여진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미정의 번역 책이 몽골에서 발견되었는데, 인명과 지명과 도시 이름, 국명, 직책명 등 고유 명사를 중국식 발음을 따서 만주 문자로 표기했으며 나머지는 몽골 문자로 쓴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일본에 불법 강점된 이후의 조선의 역사, 즉 양국간에 체결한 조약 및 조약 서명식에 참여한 일본인과 Korea인들의 역할과 활동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 책을 이어서 나온 소책자가 있는데 그것은 "망국의 눈물"이다. "망국의 눈물"에서는 조선이 어떻게 하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서술했으며 Battur 박사가 키릴 문자 번역문 뒤에 몽골 위구르 문자 원문과 라틴 전사를 첨부하여 출간하였다. 또한 Battur(2000)에서 1910~1930년대 몽·코리아 교류사를 다루었는데 그 내용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두 나라가 위치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 특징 및 세력 균형, 지역 국가들의 역사적 이익 관계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후반부에서는 1910-1930년대 양국 교류에 관한 문서보관소 사료들을 정리해서 소개했다. 거기에는 당시 3천여 명의 조선인이 몽골 정부에 귀화를 청원하고 농사 허가를 요청한 자료와 몽골 정부가 기근에 처한 조선인들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문서 및 김유식, 요우현, 김책 등 독립운동가들의 방몽에 대한 자료, 이태준 의사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었다. 동 저서 2권에서 남북한 분단 과정 및 몽골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교 또는 교류 증진을 다루었다. 따라서 몽골인민공화국의 6.25 참전, 그것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평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했으며 전후 이북의 상황이나 이북에서의 주체 사상형성 과정에 대하여 논증했다.

그 다음 신상균·Haisandai(2003)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지역 간의 협력관계의 주요인, 발전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몽골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력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 관계와 관련시키는 것, 두만강 유역 지역 발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참여 의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의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교류 과정의 주방향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제시했다.

윤순재(2000)는 한몽 민간 교류의 과정을 1기 탐색기(1978년 스포츠 교류에서~1990년 외교수립까지), 2기 준비기(1990년 3월 외교 수립후~1995년 직항로 개설까지), 3기 성장기(1995년 직항로 개설에서~1999년 김대중 대통령 방몽까지), 4기 확대기(1999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현재) 나누었으며 향후 민간 교류에 대한 전망을 경제와 스포츠, 종교, 교육 및 학술 분야별로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과 한국의 교류가 다만 문헌 사료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몽골과 제주도의 돌하루방 비교연구"라든가, "몽골동부지역 한몽 합동학술조사"로 확대되면서 한몽 학자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1990년 이후의 한국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대한 만큼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연구 깊이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몽골과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학 연구는 잘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필자가 1990년부터~2007년까지 출간된 현지 한국어학과 관련된 논문과 교재와 저서 및 역서 수록 목록을 만들어 봤을 때 대소논문 100여 편, 교재 28권, 저서와 역서가 30여 권이 수록되었다. 지금은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한국언어학과 교육학, 역사와 고고학, 사회학, 문학과 예술, 문화와 민속학, 정치와 외교학, 경제와 경영학, 통번역학, 여러 학문 비교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학, 기초과학, 법학, 의학적으로도 그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졌다. 가령, 한국과 몽골의 비교 역사학이나 기타 한국 역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내용을 보려면 Tserendorj(2021)을 참조할 수 있으며 몽골내에서 수행된 석박학위논문들의 동향을 사르네(2024)을 확인할 수 있다. 사르네(2024)에서 1990~2021년에 몽골에서 수행된 109개의 석사논문과 1995~2023년에 이뤄진 16개의

박사학위논문을 수록 분류하여 쟁점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필자가 2022년에 몽골과 한국에서 수행된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록한 바가 있는데 수집한 논문들의 주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몽골에서 수행된 한국학 관련 학위 논문 (1999년~2022년)

구분	논문의 주요 내용	학위 논문수 (총 47)
한국어교육 (일반)	현황과 과제, 교육정책	석사 3 박사 1
한국어문교육 (특정)	발음과 어휘문법 교육: 자음 발음법,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교육, 말하기, 어휘 교육, 언어교육전략, 문학교육, 온라인 교육, 교원 재교육.	석사 11 박사 2
어문학 번역학	어문대조: 목적격, 속격조사, 종결어미,동사, 속담, 관용어, 흉내내는 말, 수량사, 신체어, 시제와 상, 높임표현, 보조용언, 설화, 이중모음과 장모, 외래어, 감정표현의 인지언어학적인 접근, 언어문화와 사고의 특징을 비교대조한 논문들	석사 19 박사 7
	번역: 관용어 번역, 문화어, 몽골비사	
한국학 관련	지역학과 사회학: 한반도, 고려사, 양국 경제협력에 관한 논문들	석사 1 박사 3

〈표 2〉 한국에서 수행된 한국학 관련 학위 논문 (1999년~2022년)

구분	논문의 주요 내용	학위 논문수 (총 79)
한국어교육연구 (일반)	한국어와 한국학 현황과 과제, 연구 동향, 교육정책	석사 3 박사 1
한국어교육 (특정)	발음(음운)교육: 모음 교정, 이중모음, 초성과 종성, 폐쇄음, 자음 연쇄, 장애음, 문말 억양 인식, 단모음 인지와 산출 양상	석사 9 박사 1
	문법 교육: 격조사, 조사 유의어, 신체어, 관용어, 높임법, 접속문, 연어, 속담, 어휘 문법 오류, 관형사형 어미	석사 15 박사 2
	기능 교육: 쓰기(석4, 박2), 말하기(박2), 읽기(석2, 박1), 듣기(석1)	석사 7 박사 5
	교육과정 (석2, 박1), 교재(석4), 평가(석1), 숙달도(석1)	석사 8 박사 1

어문학과 번역학	어문대조: 조사, 속담, 단위명사, 피동과 사동, 격조사, 문법 용어, 도움토씨, 특수조사, 부정문, 주격 및 호격조사, 분류사, 보조용언, 형용사, 사전 편찬, 동사 파생접미사, 높임 어휘, 호칭어, 관용어, 신체어	석사 21 박사 3
	번역: 문장 기계 번역, 동사 기계 번역	
한국문학 교육과 문화 교육	설화를 활용한 문학 교육, 재한 몽골학교 중고등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석사 1 박사 2

〈표 3〉 **한국에서 수행된 한국학 관련 학회지 논문** (1999년~2022년)

구분	논문의 주요 내용	학회 논문수 (총 55)
한국어교육 (일반)	한국어와 한국학 현황과 과제, 연구 동향, 교육정책	논문 15
한국어교육 (특정)	발음(음운)교육: 파열음 발음 교육	논문 1
	문법 교육: 문법 교육의 실태, 격조사. 유의어 교육,	논문 4
	기능 교육: 텍스트 기능과 수용, 말하기 교육, 쓰기 능력, 쓰기 오류	논문 4
	대학교 교육과정 설계, 통번역 교육과정, 문법 기반 교재, 초중고등 학교 교육과정,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분석, 교육과정 인식과 만족도, 토픽 쓰기 평가	논문 11
어문학과 번역학	어문대조: 격조사, 수량사, 의문사, 움라우트, 청유문, 계통적 위치, 격표현과 특수 조사, 동사 상, 기초 어휘, 사전 편찬	논문 10
	번역: 번역 오류	
한국문학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 문학교육 현황, 대학교 문학교육, 고전문학, 속담을 통한 문화교육, 문화교육 요소, 문화인식	논문 10

상술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몽골과 한국에서 수행된 논문둘 중 발음과 문법 교육, 특히 양언어를 대조한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기능 교육 중 말하기와 듣기, 평가 교육, 한국어 교원(외국인)에 대한 연구가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교육학 말고 한국 역사나 한국 문학과 문화, 한국 정치학, 한국 경제학, 한국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 논문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언어학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인지와 인식, 기계 기술을 활용한 논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인과 몽골인들 또는 여러명이 합동 연구를 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 수행된 논문들의 대부분이 몽골에 거주하는 몽골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는 집단 대상자를 찾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 유학 희망생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한 동안은 한국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될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조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단행본과 사업연구 성과물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몽골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수만 하더라도 40여 종에 이르며, 여러 단행본과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 및 출간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잘 다루지 못했으나 요즘 들어 학술 논문보다 여러가지 콘텐츠, 뉴스 컬럼, podcast 당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인터넷과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상시에 보급 및 확산되고 있다. 한몽 신 세대 청년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본다.

2.2. 교육 동향

2.2.1. 교육기관

몽골에서의 Korean Language 교육은 1990년 3월 26일에 한국과 몽골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외무부 산하 동양학 연구소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학교 한국어학 교육사를 살펴보면 몽골국립종합대학교(1991), 국립외국어대학교(사립 인문대학교로 개명; 1992), 국립울란바타르의대학교(시립대학교로 전환; 1992) 등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었고,

1993년부터 사립국제울란바타르대학(1995년 대학 설립인가 취득)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 어르헝 사립대학교에도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어학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2000년도까지는 상술한 몇몇 대학교에서만 한국어학을 가르쳐 왔으나 2000년 이후로 국립사범대학교(국립교육대학교로 개명;2000), 세루르크대학(2001), 한몽기술대학(2001),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2002), 지방에서는 다르항대학(2004) 등의 여러 대학교에서 한국어학 전공 및 부전공으로 가르침으로써 정규 교육기관의 한국어학 학습자 수가 상당량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2010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다. 즉 한국어학 교육을 하는 학과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으면서 학생수와 교원수가 꽤 줄어들었다. 현재(2024년을 기준) 14개의 대학교에서 전공 및 교양(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쯤 25개 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쳤던 것과 비교하면 그 수가 상당량 줄어든 것이다.

2.2.2. 교원

2019년에 몽골 대학교에서 전임으로 한국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은 26명, 몽골인 54명으로 총 80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대학교 교원 수와 비교하면 25% 정도 줄어든 셈이다. 반면에 2019년 기준으로 현지 초·중·고 통합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을 보면 학교수가 총 28개, 교원수가 총 57명(몽골인 35명, 한국인 2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 3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들이 모두 31명(몽골인 24명, 한국인 7명)으로 집계된다.

현지 한국어 교원들의 대부분은 한국 유학 경험이 있고, 관련 전공을 한 교원들이 많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적다.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수가 꽤 되지만 지속적인 교원양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2.3. 학습자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는 1991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으며, 현재(2024년 기준)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습자 수가 전공 및 교양과목 수강생을 합쳐 총 2000여명인데, 교양(선택)과목 한국어 수강생 수가 한국어학 전공생 수를 훨씬 능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 외에 현지 초·중·고등 통합 26개 학교에서 총 5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있고, 세종학당 4곳에서 매년 200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한국어문화 단기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즉, 2024년 기준 약 9,000명이 몽골내에서, 16000여 명이 한국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학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초급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인구에 비해(2025년 기준으로 몽골인구가 3,544,835여 명이다) 해외 이동 인구가 많고, 유학 희망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아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국내 체류자와 유학생 (2024년 기준)

내용	통계수	연도 기준
한국내 체류자	57,093명	2024년 12월
한국내 유학생	(남) 6565명 (여) 10,090명	2024년 12월
결혼 이민자	2706명	2024년 12월

출처: 2024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2.4. 교육과정

몽골에서의 한국어학 교육과정은 기관 유형에 따라 1) 대학교 한국어학 전공 교육과정, 2) 외국어 초중고 일반 한국어 교육과정, 3) 세종학당 일반 한국어문화 교육과정, 4) 사설 학원 일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대학교 한국어학 교육과정 비중이 크므로 대다수의 조사가 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그간 몽골 고등교육기관에서 다음 몇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이와 같은 변화들이 한국어학 교육과정

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령, 몽골 정부 2010년 제15령에 의해 국립대학교간 통합 또는 일부 학교 인허가 무효화되면서 국립대학교수가 42개에서 16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학습자들이 4년의 짧은 기간 내에 국내 노동 시장 요구에 부합한 수준급 언어와 지역학 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어학' 또는 '한국 지역학'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현지 교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학문적 체계성과 내용 위계화를 위해 한국인 전문가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2.2.5. 교재

한국어학 교재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들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현지 교육 기관이나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재 개발을 한 결과, 한국에서 개발 교재의 번역서를 포함한 교재의 종류가 40여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특히 한-몽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6권'과 스마트교실 활용을 위해 개발한 '몽골 초·중등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8권'과 같은 학습 교재가 대학교와 초·중·고등 학교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반 한국어 교재들의 보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교육기관들이 온라인상에서 파일형태로 교재를 공유하며 사용하는 형편이다. 교재를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학습자들이 복습하거나 습득하는 데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언어외의 지역학 학문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들의 경우 현지 교육과정 내용에 맞는 교재가 지극히 제한적이며, 교재 보급도 각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학 관련 지식 내용 개발과 전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부족하며, 연구진들의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2.2.6. 평가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는 각 교육기관 방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채점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한국어능력 시험(TOPIK)을 위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곳도 교육 평가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야지 교육 총평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몽골내 한국학 교육의 주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내용은 Sainbilegt 2021년, 2022년 논문 참조).

〈표 5〉 몽골내 한국학 교육의 주요 동향(1990년 이후)

1990년대 태동기	- 주요 대학교와 외국어 특수학교에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대학교 5개, 특수 외국어 학교 2개 정도). - 1994년부터 첫 학부생들을 배출됨.
2000년대 성장기	- 2000년도에 들어서서 추가로 여러 대학교들(2006년 기준 21개)과 일반 어학원(31개), 초중고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됨(2008년 기준 10개) - 한몽, 몽한 사전이나 몽골인을 위한 대학교 한국어 교재들이 개발됨
2010년대 전환기 1	-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교수가 줄어들어 전공생과 교원수도 감소세(2019년 기준 대학교수가 18개, 2024년 기준 대학교수가 14개). - 반면에 스마트교실 운영에 의해 외국어 특수학교와 일반 초중고 학교수가 증가세를 보였다(2024년 기준 26개). -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생보다 교양과목생수가 증가하며 세종학당이나 일반 학원을 통해 배우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 현지 토픽 지원자수가 증가하고 있다(2022년의 3차례 지원자수가 8781여 명). - 몽골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됨(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초중고급).
2020년대 몽골 한국어 교육의 전환기 2	- 코로나 또는 4차산업 혁명 등의 영향으로 교육 환경과 교수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 형태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Hybrid 교육 등). - 교육 현장을 재점검하여 이와 같은 변화를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결론

현대에 들어서 몽골에서의 코라아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 왔다. 그간 코리아학 교육과 연구가 양질의 성과를 이루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관련 기관과 개인의 아낌없는 지원과 혜택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지 대학교 학위과정을 통해 유능하고 양국 언어문화를 이해하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배출되어 왔다. 특수외국어 학교나 초중고 학교들이 현지 청소년들의 어문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일조해 왔으며, 현지 세종학당들도 어문화를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지 교육기관을 통해 초급에서 고급 수준의 언어 교육이 제공됨과 동시에 k-pop, k-beauty, k-drama, k-food, k-game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보급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기계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가령, 스마트 교실, 온라인 교육, 메타버스 교육 등.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고등 및 중등 표준 교재(초급~고급)와 교사용 지침서,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현지 교육과정 개선과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한국교류재단이나 세종학당재단 등 기관에서 지원하는 'e-school', '현지 교원 컨설팅 프로그램이' 효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지역 토픽 시험과 기타 시험 운영에 의해 언어 평가 방법이 향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몽골과 코리아반도 두 국가 간의 교류협력이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그 변화·발전에 몽골내외 여러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교재나 교수진이 상당량 확보되었지만 질 높은 언어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며, 앞으로 코리아학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양성되어 체계적이면서 질 높은 코리아학 발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해 본다. 기회가 되면 몽골에서의 '코리아학 백서'가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Battor, J (1998)「대한제국의 역사라는 소책의 원문 연구」, 울란바타르 대학.

Battor, J (2000)『20세기 몽·한 교류(1910-1930)』1, 2권, 한국 KM 메디아.

Dalai, Ch (1998)『고대 몽·한 교류』, 몽골과학 아카데미논문집, 동북아연구센터.

Sainbilegt.D (2021)「몽골에서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과 과제」,『한국 몽골학의 회고와 전망, 그 30년 지평을 논하다』, 한국몽골학 학술총서 5, 민속원, 243~262.

Sainbilegt. D (2022)「한국어교육 연구 및 실행에 관한 고찰: 몽골 사례」, 제24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371-379.

Sarnai, B (2024)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чиг хандлага (Эрдмийн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бүтээлийн жишээн дээр)', МУИС ССХХ-ны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сэтгүүлийн 2023-2024 оны дугаар.

Sumiyabaatar, B (1975)『몽골과 한국민족의 기원, 언어적 상관성에 대한 문제』, 몽골 과학아카데미 언어연구소, 올랑바타르.

Sumiyabaatar, B (1978)『13-14세기 몽한 교류관련 문서』, 몽골 과학아카데미 어문학연구소, 올랑바타르.

Sumiyabaatar, B (1992)『중세 몽한 관계사』, 서울.

Sumiyabaatar, B (1996)『몽골과 고려와의 관계』, 한·몽골 교류 천년, 45-61.

Lhagva, B (1995)「13-14세기 몽한 관계의 특징과 상호 영향의 흔적」, 한몽골교류협회 논문집,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학위논문, 울랑바타르.

Tserendorj, Ts (2020)『고래 한몽 관계사』, Ulaanbaatar Monkhiin useg.

Tserendorj. Ts (2021)「몽골에서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 동향」, *CEFIA Newsletter Vol.20*. 2021.

Erdenechimeg, G (1999)「13-14세기 몽골과 고려 왕실 혼인관계에 대한 연구」, 몽골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신(1996)「몽골의 한국학 연구」, 한·몽골 교류 천년 논문집, 한·몽골교류협회, 311-321.

신상균·Haisandai (2003)「한·몽 교류와 협력관계(1990-2002)」, 과학아카데미 국제연구원.

주채혁(1996)「몽골과 한국의 기원」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13-2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 riss.kr

몽골과학기술재단 자료 data.stf.gov.mn

주몽골한국대사관 자료 http://mng.mofat.go.kr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24

남북 역사학 교류와 다극화 추세에서의 전망

Inter-Korean Historical Scholarly Exchanges
and Prospects in the Context of Multipolarity

안병우*
한신대학교

1. 머리말

한(조선)민족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80여 년이 되었다. 남북의 역사학자들은 분단된 상태에서 80년 동안 각자 연구를 진척시켜 왔지만, 아직도 연구 성과를 자유롭게 교환하며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기 남북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연구와 발굴 사업도 펼쳤지만, 지금은 역사학 교류는 물론 모든 남북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중단 상태가 오래 계속되고 언제 재개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남북 역사학 교류는 기억 속에나 남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심도 거의 사라졌다. 이 글은 '한때' 활발했던 역사학 교류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억하려는 작은 몸부림 같은 것이다.

남북의 역사학 교류는 단기적으로는 민족사를 보는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려는 목적에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역사학 교류는 그 자체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교류사의 일부이고, 남북 학자들이 만나서 발표한 논문과 토론은 분단 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학의 실천적 지향을 담은 학술사의 일부이다. 남북 역사학 교류는 학술회의(토론회)가 중심이 되었으나 공동연구와 발굴, 자료 교환, 공동 출판 같

* AHN Byungwoo (Emeritus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E-mail: bwahn@hs.ac.kr

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하고 협력하였다.

이 글에서는 남북 역사학 교류의 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교류의 내용과 그 배경, 특히 남북 관계와 국제정치 상황을 살펴본 다음 다극화 추세와 남북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역사학 교류와 Korea학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

2. 교류의 과정과 배경

2.1. 교류의 시작(1970년대~1980년대 중반)[1]

2.1.1. 교류의 과정

남북 역사학자들은 1972년 10월 일본 다까마쓰고분(高松塚) 조사에서 처음 학술적 목적으로 만났다. 일본의 초청으로 남한의 김원룡 서울대 교수 등 4명, 북한의 김석형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 등 4명이 방일하여 고분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남한은 고분벽화가 고구려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동아시아 문화의 여러 요소가 복합된 일본 문화가 낳은 8세기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였고, 북한은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한 6세기, 늦어도 7세기 초에 조성되었다고 하였다. 이 만남은 남북 역사학 교류의 시발점이었으며, 북한 학자들이 역사학 교류를 위해 자본주의 국가를 방문한 첫 사례였다.

남북 역사학자들은 그 뒤 국제학술회의에서 세 차례 만났다. 1973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9차 국제동양학자대회(ICAS)의 역사학 분야에서 남한의 유홍렬(성균관대)·최호진(연세대) 교수와 북한의 전호영(조선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장)·이봉현이 발표하였다. 남북 학자들이 국제학술회의에 처음으로 같이 참가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 교류의 결과 남북 역사학의 연구방법론이 근본

1 이 절은 안병우(2025)의 「냉전 시기의 남북 역사학 교류」, 『청계사학』 30을 요약한 것이다.

적으로 다름을 인식하고,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1980년 8월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역사학회(ICHS) 학술회의에서 남한의 고병익 전 서울대 교수와 북한의 J(T). S. Lim 등이 발표하였다. 남한 학자들이 공산권 국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한 사례이며, 이 학술회의에서 경성제국대학 선후배인 유홍렬 교수와 김석형 소장이 34년 만에 해후하였다.

1985년 10월 미국아시아학회(AAS) 중부대서양지역협의회(Mid-Atlantic Region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가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개최한 제14회 연례학술회의의 특별 패널에서 이기백 한림대 교수와 최진혁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게리 레디야드 컬럼비아대 교수가 발표하고, 고병익 교수와 김창일 수석연구원, 최영호 교수가 토론하였다. 주제는 '한국의 역사 편찬 - 실적과 과제'였으며, 최 실장 일행은 외교관이나 올림픽 관계자가 아닌 북한 사람으로서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다.

2.1.2. 만남의 배경

1970년대 두 차례 남북 역사학자들이 교류할 수 있었던 국제적 배경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남북이 대화를 시작한 데 있다. 남북은 7.4남북공동선언과 후속 회담으로 대화 국면을 이어갔다. 다까마쓰고분 실사 참여와 파리 동양학자대회 참석은 7.4공동선언의 성과였다.

1979년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세계는 냉전 후반기(1979~85)로 접어들었고, 남북은 생존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공세적 외교정책을 구사하였다. 남한은 공산권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였고, 북한은 미국·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남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남북 역사학자들은 부쿠레슈티 국제역사학회의에 참석하였다.

남북 관계는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테러로 최악의 상태에 빠졌지만, 곧 대화를 시작하는 널뛰기를 겪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북한에게 미국이 '남북대화 우선'을 요구하고, 남한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80

년대 중반 남북 사이에 일시적으로 대화 국면이 조성되었다. 북한 학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가한 것은 그 영향이었다.

국제정세와 관련해 볼 때 남북 역사학 교류는 데탕트 시기에 그 영향을 받으며 시작되었고, 냉전 후반기에는 남한 역사학자들이 공산권 국가를, 북한 역사학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정도까지 진전되었다.

2.2. 빈번해진 국제학술회의에서의 교류(1980년대 말~1999년)

2.2.1. 빈번해진 교류

남북 역사학자들은 1980년대 말부터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빈번히 만났다. 외국에서의 교류는 대개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형태는 외국이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남북 학자들이 단순 참가하는 것으로, 앞 시기의 국제동양학자대회나 국제역사학회 참가의 연장선에 있는 교류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류는 1989년부터 본격화하였다. 남북 역사학자들이 그해 4월 런던에서 열린 13차 유럽한국학대회(AKSE)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1995년까지 4차례(14회, 15회, 17회) 함께 참석하였으며, 8월 연변대학이 주최한 1차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와 2년 뒤에 열린 2차 토론회에도 같이 참가하였다(연변대학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조직위원회 1989, 1991, 1992). 같은 해 오사카경제법과대학은 '동아시아의 사회와 경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歷史部會를 개설하였다. 역사부회에서는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제문제'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嚴文明, 2000: V) 원시와 고대의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지만(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報告書編集委員會 1991: 198) 남한 학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였다. 남북 교류는 1991년 2회 심포지엄부터 이루어졌으며, 1995년 8월 4회 심포지엄이 끝난 뒤에는 남북 학자들만 모여서 '5천년 민족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열고 각기 5명씩 발표하였다(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報告書編集委員會 1996; 村川行弘 1997; 이형구 1999). 남북 학자만 참여한 첫 학술회의였다.

남북 학자들이 런던과 연변의 두 학술회의에 잇달아 참석하고, 남한 학자들

이 당시 비수교국이었던 중국의 학술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남북 교류의 중요한 통로를 연 점에서, 그리고 남한 학자가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오사카경제법과대학의 심포지엄이 개설된 점에서 1989년은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류는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였으며, 특히 연변지역에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깊고 북한 학자들이 접근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이 학술회의를 많이 개최하여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형태는 남북과 다른 나라가 새로운 학회를 결성하여 교류하는 경우로, 1990년 아시아사학회와 국제고려학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아시아사학회는 3월에 아시아의 시각에서 고대사를 조명하려는 목표로 남북과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에서 창립하고, '동아시아의 재발견-5세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남북에서 두 명씩 발표하였다(江上波夫·上田正昭 1992). 아시아사학회는 네 나라 학자들이 처음으로 창립한 새롭고 진일보한 형태의 학회이며, 한국에서도 이 심포지엄을 남북 문화유산 교류의 시작으로 본다(박영정 2018: 50). 이 심포지엄에서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에 북한으로 간 조선사회과학원 손영종 실장이 유복자 손경한 변호사와 부인, 형제들과 극적으로 상면하였다. 아시아사학회는 2009년까지 중국, 한국, 일본을 오가며 17차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남북 학자들은 5차례 함께 참가했다(高麗美術館 2019: 36-7).

국제고려학회는 8월에 창립되었다. 비록 학회 창립 과정에서 남북은 제외되었지만,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제3회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에는 남한에서 145명, 북한에서 11명이 참가하였다. 이 토론회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고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료집에는 역사 분야 발표문이 남한 6편, 북한 18편 실렸는데, 실제로 와서 발표한 북한 역사학자는 김석형 원사뿐이었다(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중국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1990, 1991). 김원사는 고대 조일 관계 발표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를 만나러 온 형제들과 1946년 월북 이후 처음으로 상봉하였다. 국제고려학회는 대개 격년으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북한 학자들이 대체로 참석하였다.

세 번째 형태는 남북과 다른 나라의 기관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남한의 대학이나 학술 단체가 중국이나 일본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주최하고 북한 학자를 초청하는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1999년 연변대학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회의부터 북한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여 '3자 주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 방식은 남한의 대학이나 단체가 주도적으로 교류를 이끌어간 점에 특징이 있으며, 북한과 직접 교류하는 데 어려움과 부담을 가진 남한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선호하였다. 그러므로 장기간 지속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남북 역사학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이 형태의 학술회의 개최 실적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남한과 외국이 공동 주최한 역사학 관련 학술회의(1993~1999)

학술회의명	주최기관	일시, 장소	주제	발표자 (남 / 북)
동북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세미나	경희대학교·연변대학	1993. 4. 연변대학	해방 후 남북한 및 동북아 동포 사회의 사회문화 변동	3 / 1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	해외한민족연구소·조선사연구회	1993. 8 集安		2 / 4
제2회 동아시아의 연대성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토론회	한국신학연구소·상해사범대학	1994. 8 상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세아의 가능성	1 / 1
코리아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숭실대학교·국제고려학회 아세아분회	1996. 8 북경	남북한 학문(8개 부문) 분야의 현황과 전망	1 / 1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고구려연구회·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재일본조선역사고고학협회	1997. 7 도쿄	고구려 고분벽화	4 / 3 (서면 참가)
연변대학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미래정책학연구회·연변대학·조선사회과학자협회	1999. 7 연변	새천년을 향한 조선족의 현황과 미래	2 / 2

학술회의 이외의 역사학 교류로 1993년 5월 대륙연구소가 조선사회과학원 및 러시아와 공동으로 연해주 우수리스크 부근의 코르사코프카 절터 등 발해 유적을 발굴한 것을 들 수 있다(대륙연구소 1994).

2.2.2. 교류의 배경

이 시기의 활발한 교류는 냉전 해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냉전체제는 1980년대 후반 들어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12월 미·소 정상이 몰타에서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마침내 막을 내렸다. 냉전의 해체는 동아시아에도 화해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때맞춰 열린 서울올림픽(1988.9)에 미수교 상태인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소련(1990.9), 중국(1992. 8)과 차례로 수교하였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1991.9) 국제사회에서 남북의 위상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북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화해와 교류 정책을 추진하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발표하여(1988.7.7) 남북 학자와 학생의 상호 왕래를 제의하였고,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관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며 화해와 교류를 촉진하였다.

북한도 점진적으로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하였다. 1985년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민속박물관의 유물 등을 일본에서 전시하고(高句麗文化展實行委員会 1985) '고구려와 일본 고대문화'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上田正昭 등 1986). 이듬해 4월 일본학술문화대표단이 조선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網干善教 1986: 13), 1988년 5월에는 평양에서 '조선 관계 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를 나흘 동안 개최하였다. 평양에서 처음 열린 조선학 국제학술회에서 14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역사 분과에서도 '조선 사람의 기원과 원시사회 발전 과정'부터 '조선노동당의 항일 투쟁 영도'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로동신문 1988.5.15). 이러한 대외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역사학 학술회의에도 참가한 것이다.

2.3. 직접 교류와 협력 사업의 전개(2000년~2007년)

2.3.1. 남북 직접 교류의 실현[2]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역사학 교류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직접 교류하게 되었고, '3자 주최' 방식의 학술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국제 학술회의 참석도 더욱 왕성해졌다.

직접 교류의 물꼬를 트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잡지 『민족21』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였다. 2001년 3월, 창간을 앞두고 있던 『민족21』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학술회의준비위원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력사학회, 조선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평양에서 '일제의 조선 강점 불법성에 대한 자료전시회 및 남북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남북이 평양에서 개최한 첫 번째 역사학 학술회의였다. 학술회의는 자료전시회와 토론회,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발행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로 구성되었다[3]. 이어 2003년 2월 '일제의 조선인 강제 연행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 자료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8월 '국호 영문 표기 문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이듬해 2월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대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와 '일제의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및 자료 전시회'를 잇달아 열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공동 학술 기구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결성하였다(강만길·허종호 2004.2.28).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2004년 9월 금강산에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비판하였으며, 이듬해 11월에는 문화보존지도국 및 조선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성 유적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고 유적의 공동 발굴에 합의하였다.

---

2 직접 교류 부분은 AHN Byung-woo(2020)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Inter-Korean Exchanges in Historical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3.1를 요약, 수정한 것이다.

3 이후 학술회의는 한동안 토론회, 자료전시회, 공동성명서 발표로 형식화되었으며, 2001년의 첫 학술토론회가 이러한 구성의 출발점이 된 데에도 의미가 있다.

단군학회는 2002년과 이듬해 개천절에 조선력사학회와 공동으로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으며, 북한은 2004년 3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과 9월 고구려연구재단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논문을 보내 '서면 참가'하였다.

남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과거사 관련 회의에서도 역사학자들이 발표하였다. 2002년 5월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등이 평양에서 개최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에서 남북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로동신문, 2002.5.4,5). 이 토론회에서 결성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는 2004년 5월 제2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남한을 방문한 북한 역사학자들은 남한 학자들과 함께 대일 과거사 운동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관하여 발표했다.

민족통일대축전의 남북학술토론회가 2002년 8월 '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려 강만길 상지대 총장과 허종호 조선력사학회 회장 등이 발표하였다(2002년 8·15기념 남북학술회의 2002). 서울에서 처음 열린 남북 역사학 토론회였다. 이듬해 3월 역시 서울에서 열린 '일본의 우리나라 역사 왜곡 진상을 밝히는 남북공동학술토론회'에서도 남북 역사학자들이 발표하였고(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2003), 9월에는 북한의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평양에서 개최한 '우키시마마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평양 토론회'에서 남북 역사학자들이 발표하였다(로동신문, 2003.9.30).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학술적 내용보다는 일본의 침략 및 식민지 지배가 남긴 유산의 청산에 관한 입장을 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발표가 중심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역사 문제가 남북의 민간 교류에서 공통의 과제이자 남북 공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류는 학술회의를 넘어 유적 조사로 확대되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005년 7월 조선사회과학원 등과 공동으로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을 조사하고, 그 성과

를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고구려연구재단 2005; 고구려연구재단·사회과학원 2005). 이듬해 4월에는 평양의 안학궁성을 발굴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구려연구재단 2006).

2.3.2. '3자 주최' 학술회의의 정례화

이전 시기에 시작된 3자 주최 국제학술회의 가운데 일부는 정례화되는 진전이 있었다. 먼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명)은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공동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인문사회과학 전반을 다루었지만 역사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장소는 주로 중국이었지만 평양과 백두산, 성남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도 개최하였다(정구복 등 2009: 337-40). 국사편찬위원회는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공동으로 '항일역사문제 남북역사학 국제학술토론회'를 매년 중국에서 개최하였다. 주제를 항일투쟁으로 한정하여 깊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이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국사편찬위원회 2012: 378-82).

이밖에 여러 단체가 비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연변해외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길에서 '1910~30년대 조선 민족 반일투쟁사 재조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은 공동 주최자가 아닌데도 최진혁 부위원장이 참가하여 발표하였다(연변대학 민족연구원 등 2000).

대학으로는 연세대, 서원대, 경남대가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섰다. 연세대 국학연구원은 2003년 11월 북경에서 북경대학, 연변대학,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중국 경내 조선 志士의 항일투쟁'이라는 주제로 中·朝·韓 국제학술회의를 열었고(북경대학교동북아연구소 등 2003), 2005년 7월에는 연변대학,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공동으로 '항일전쟁 승리 60주년 기념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과 민족문화 전통 고수에 관한 백두산-평양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등 2005).

서원대는 연변대학 민족연구원과 조선사회과학자협회를 파트너로 삼아 2004

년 8월 연길에서 개최한 '동북아지역 합작과 민족문화의 발전' 국제학술회의(서원대학교 등 2004), 2005년 7월의 항일전쟁 승리 60주년 학술토론회(서원대학교 등 2005), 10월의 '1930~1940년대 동북지구 항일투쟁과 민족문화' 토론회(요녕대학 아주연구중심 등 2005), 이듬해 11월 '동북아 지역 력사문화 교류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조선사회과학자협회 등 2006) 등 네 차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마지막 토론회에는 북한이 참가하지 못하고 발표문만 제출하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04년부터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북경대학 동북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중·한국제학술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정치와 국제 관계 등 회의 주제가 광범위하였지만, 역사 문제 특히 항일투쟁을 중요하게 다루었다(중국 북경대학 동북아연구소 등 2004, 2005, 2006, 2007). 3차 학술회의에는 북한은 서면 참가하였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005년 2월 조선력사학학회,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와 공동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에 관한 국제학술회'를 개최하여 35편(남 18, 북 12, 러 5)의 논문을 발표하였다(고구려연구재단 등 2005). 사회단체로는 고려학술문화재단이 2007년 10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김일성종합대학과 공동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고대 역사'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국 학자들이 주로 고구려와 발해사에 관한 논문 16편(남 4, 북 5, 러 7)을 발표하였다(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2007).

2.3.3. 국제학술회의 동시 참가

남북 역사학자들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계속 참가하였다. 2000년 11월, 조선장학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도쿄에서 개최한 '고대사 심포지엄 – 지금 다시 읽는 동아시아의 새 발견'에 남북에서 2명씩 참가하였으며(李成市·早乙女雅博 2002), 이듬해 7월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가 개최한 '근대 일본의 내외정책' 학술회의에 강창일 배재대 교수와 허종호 조선역사학회장 등이 참석하여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였다(서울신문 2001.7.11).

2004년 9월 일본 규슈국립박물관건립준비실 등이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으로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고대 일본과 고구려 문화' 국제심포지엄에서 임효재 서울대 교수, 허종호 조선력사학회 위원장, 조희승 조선사회과학원 고구려사 연구실장이 발표하였다(임효재 2004; 중앙일보 2004.9.20; 西日本新聞 2004.9.20).

2005년 9월 국제고려학회의 제7차 국제학술토론회(중국 심양)에 북한이 다시 참가하였고, 8차 국제학술토론회(2007.8, 영국 SOAS)에 태형철 사회과학원 장 등 11명이 참가하여 남북 교류가 지속되었다.

2.3.4. 공동 연구의 수행

좀 더 심화된 교류로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단군학회는 조선력사학회와 2003년부터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11편(남 6, 북 5)의 논문을 집필함으로써(단군학회 엮음 2005) 공동 연구의 문을 열었고, 이듬해부터 '민족 고대사의 중요 쟁점에 관한 남북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5편(남 3, 북 2)의 논문을 산출하였다(고조선단군학회 2006). 이어 2005년부터 '환단고기·규원사화 등 仙家系 사학에 대한 남북공동연구'를 수행하여 5편(남 3, 북 2)의 논문을 집필하였다(정영훈 2006).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가 소장하고 있는 평양 주재 소련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의 일지 등을 공동으로 번역하여『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하였으며(국사편찬위원회 2012-6),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는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민족화해협의회와 2007년 11월부터 3년 동안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793개 항목의 역사 용어에 관해 서술하였다(정태헌 2011).

출판을 통한 교류도 이어졌다. 2004년 평양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심양의 고려민족문화연구소, 서울의 평화문제연구소가 협력하여『조선향토대백과』20권을 간행하였고(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는 북한의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가 편찬한『조선유적유물도감』20권을 재편집하여『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9권)이라는 이름

으로 간행하였으며(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조선사회과학원 소장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을 간행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2.3.5. 교류 활성화의 배경

이 시기 남북 교류 활성화의 動因은 국제적으로 탈냉전 국면의 유지와 남북 화해였다.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와 역사학 교류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장관급회담에서 사회·문화·학술 교류 확대에 합의하고 민간 차원의 접촉과 협력 사업 지원을 공식화하여 남북 교류를 촉진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을 오가며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다. 조일 수교 움직임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일본과 수교를 추진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역사 문제를 하나하나 주제로 삼아 남한 학자들과 토론하였다. 그러나 2004년 납치자 문제로 수교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남북 역사학 교류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동북공정에 대한 공동 대응, 개성역사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교류 테이블에 올렸다.

2.4. 교류의 위축과 중단(2008년 이후)

2.4.1. 직접 교류의 잔존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직접 교류는 드물게,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일본·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포럼(준)과 민족화해협의회, 조선력사학회, 조선사회과학원의 공동 주최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 강탈 책동 반대 남북공동토론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나(윤미향 2008), 분위기는 싸늘하였다. 이것이 평양에서 열린 마지막 공동토론회였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년 4월의 '일제 강점 100년 남북공동학술회의'는 중국 심양에

서 열렸다. 남북이 직접 교섭하고 외국에서 개최한 특이한 학술회의에서 남북은 6명씩 발표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0).

2008년 이후에도 만월대 발굴을 간헐적으로 계속해 온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잠시 남북 관계가 호전되었던 2015년 10월, 민족유산보존지도국·조선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개성 성균관 마당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9년의 성과와 전망' 학술회의와 전시회 개막식을 열었다(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전시회는 서울 고궁박물관에서도 동일한 기간에 열렸지만, 이것이 북녘에서 열린 마지막 공동학술회의였다.

2.4.2. 공동 주최 학술회의

공동 주최 학술회의도 중단되거나 북한 학자가 참가하지만 북한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지 않는 변형된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심지어 남북이 모두 주최자에서 빠지고 중국이 개최하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3자 주최' 학술회의 가운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남북공동학술회의는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2019년까지 흑룡강성 사회과학원과 항일역사문제 국제학술토론회를 매년 개최했으나 북한은 2008년부터 참가하지 않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의 역사 분과 회의를 조선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다. 2018년 7월 연변대학에서 열린 1차 역사분과회의의 주제는 '항일전투와 일제의 약탈'이었으며, 11명(남 3, 북 3, 중 3, 일 2)이 발표하였다(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 2018). 언론에서는 이 학술회의가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뒤 처음으로 남북, 해외동포 학자들이 참가한 학술교류로서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혀나가려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통일뉴스 2018.7.30). 이듬해 7월에 열린 2차 분과 회의에서는 '일본의 침략 역사와 중국과 조선 인민의 투쟁'을 주제로 13명(남 3, 북 5, 중 3, 일 2)이 발표하였다(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2019).

이 시기 외국에서 활발하게 남북 교류를 추진한 것은 2006년에 설립된 동북

아역사재단이다. 재단은 2008년 8월 국제고려학회 북미지부와 공동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에서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북한에서 5명이 발표하였다(동북아역사재단 2022: 165-6). 12월에는 북경대학에서 일본 교과서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북경대학 사학과와 중화문화교류와합작촉진회가 주관한 이 회의의 주제는 '역사 기억과 역사 인식－일본 우익 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3국에서 31명(남 8, 북 6, 중 17)이 참석하였다(북경대학 사학과·중화문화교류와합작촉진회 2008). 2011년 11월에는 연변대학과 함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를 지원하여 '발해의 역사와 고고 국제학술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게 하였다. 주제는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었으며, 31편(남 5, 북 7, 러 11, 중 5, 일 3)의 논문을 발표하였다(연변대학 등 2011). 또 중국사회과학원과 연변대학이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를 두 차례(2014.5, 2015.5) 연변대학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하였는데, 남북 학자들이 3명씩 발표하였다(延邊大學朝鮮半島研究協同創新中心·中國社會科學院中日歷史研究所 2014, 2015).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와 공동으로 집안에서 '광개토대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대규모로 개최하였는데, 조선사회과학원 손수호 고고학연구소장 등 5명이 발표하였다(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2014).

대학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조선사회과학원·연변대학과 공동으로 2012년 10월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현대적 가치'를 주제로 연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역사 분야에서는 남북이 3편씩 논문을 발표하였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등 2012). 고려학술문화재단은 2012년 10월 러시아연방극동대학·김일성종합대학과 공동으로 극동대학에서 '발해사연구의 새로운 것'을 주제로 제14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은 참가하지 않고 6명이 논문만 보냈다(고려학술문화재단 2012).

2.4.3. 국제학술회의 동시 참가

2008년 이후 남북 역사학자가 지속적으로 참가한 국제학술회의는 국제고려학회와 두만강 포럼 정도이다. 북한은 2009년 8월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고려학회의 9차 국제학술토론회부터 14차(2019, 프라하)까지 빠짐없이 참가하였으며, 역사 분과에서도 계속 발표를 이어갔다. 그러나 10차 학술토론회부터 남북 참가자 수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었고, 15차 토론회(2022.8. 오사카)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북한이 참석하지 못하고 논문만 20편(역사 분야 9편)을 보냈다(국제고려학회·오사카공립대학 등 2022)[4].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16차 토론회(2025.8.18~20)에 북한은 참가하지 않았다.

두만강 포럼은 2008년 연변대학과 한국의 고등교육재단이 주도하여 두만강 유역 국가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하였다. 도문강학술논단조직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포럼에는 중국과 한국, 북한 학자들이 주로 참여하여 동북아 지역 국제협력과 두만강 지역 개발을 주제로 삼아 논의하였는데, 역사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시작할 때 포럼의 주제는 '多元 공존과 변방의 선택'이었고, 북한 역사학자들은 첫회부터 참가하였으나 남한 역사학자들은 적게 참가하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8년에는 남북에서 각기 2명씩 참가하였다(延邊大學 圖們江學術論壇組織委員會 2008, 2011, 2018).

2.4.4. 교류 축소와 중단의 배경

2008년 이후 남북 교류의 축소는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의 악화에 기인한다. 이 무렵부터 세계에는 신냉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러시아가 2008년 8월 친서방 행보를 보이는 조지아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남오세티야를 공격하자 군대를 동원해 조지아를 굴복시켰다. 4일간의 이 전쟁은 러시아의 부활과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은 2001년 9.11테러와 그로 인해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에서 고전하고, 2008년의 금융 위기

4 9편 중 7편이 『국제고려학』 19호에 수록되었다.

와 대침체를 맞았다. 유럽에서는 나토의 東進에 반발한 러시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이 발발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며 약진하였으며, 베이징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티베트 소수민족의 탄압을 지적하는 프랑스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서구권 매체에서 티베트를 언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2010년에 일본의 GDP를 추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대립하고 남사군도 등을 놓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에 따라 중국 위협론이 부상하고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제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한미일의 관계는 긴밀해졌다. 북일 간의 수교 회담이 결렬된 뒤 일본인의 북한 혐오가 고조되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 유럽 등 옛 서구권과 러시아, 중국 등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 관계는 차츰 악화되었다. 때마침 한국에서 보수적인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차례로 집권하며 북한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실행하여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권정민·김학만 2013; 김형빈·김두남 2016),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여 남한과 미국의 비난을 샀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2008.7)과 2차 핵실험(2009.5), 천안함 침몰(2010.3)과 연평도 포격(2010.11)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남북 관계는 교류와 협력 대신 단절과 대립의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다.

남북 관계의 냉각에 따라 역사학 교류도 한반도 안에서는 2008년 이후 거의 중단되고 외국에서나 때때로 성사되는 정도로 후퇴하였다. 2015년과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조성되면서 역사학 교류의 재개 기회가 열리는가 싶었지만,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류의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다.

50년에 걸친 남북 역사학 교류를 되돌아보면, 교류를 통해 얻은 성과가 매우 크다. 첫 번째 성과는 필자가 파악한 것 만해도 943(남496, 북447)편의 논문이 교류 과정에서 발표된 점이다. 교류가 활발하였던 2001~10년 사이에 62%가 발표되었으며, 가장 집중적으로 발표한 논문의 주제는 남한은 고구려를 포함한 삼국시대, 독립운동, 근대사 순서이고, 북한은 항일투쟁, 고구려, 고조선 순서

이다. 또 지속적인 만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로까지 교류의 수준을 높인 점, '위안부', 독도,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국호와 동해 표기 등 일제가 남긴 과거사를 청산하고 역사왜곡을 막는데 공동으로 대응한 점,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보존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AHN, Byung-woo 2020: 293-8). 이러한 성과는 사학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이며, 향후 교류의 재개에도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3. 다극화 추세와 교류의 전망

3.1. 다극화 추세와 동아시아

국제고려학회 16차 국제학술토론회의 주제인 '다극화하는 세계와 코리아학'과 관련하여 남북 역사학 교류의 전망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세계가 다극화체제인지 아니면 일극체제에서 다극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1991년 12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막을 내리고 형성된 미국 일극체제는 몇 차례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패권은 신흥국 특히 중국의 빠른 성장과 미국의 경제 정치적 영향력 감소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경제적 측면에서 다극화 추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는 점에 대

〈표 2〉 주요 국가별 GDP 비중 (2019년도 USD 기준. 단위 : %)[5]

연도	미국	영국	중국	인도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BRICS+	EU (영국제외)
2005	28.22	3.98	7.66	1.97	8.05	3.47	5.42	3.91	2.31	15.77	22.24
2010	25.88	3.56	11.41	2.42	7.01	2.97	5.02	3.58	2.13	20.39	20.40
2015	25.01	3.38	14.41	2.86	6.38	2.48	4.71	3.26	2.05	23.40	18.54
2020	24.64	2.99	17.41	3.14	5.73	2.15	4.43	2.94	1.94	26.32	17.44
2024	24.35	2.97	18.55	3.71	5.19	2.14	3.99	2.85	1.89	27.95	16.74

5 〈표 2〉와 〈표 3〉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준형 박사의 도움으로 확보하였다.

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국가들의 부상으로 경제적 역학관계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추세는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아래 세계 총생산에서 주요 국가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일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신흥국가의 대표 주자인 중국과 인도의 비중은 급속히 늘었다. 그에 따라 BRICS+와 EU의 비중은 2010년대에 역전된 이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표 3〉에서 보듯이 오래전부터 적자를 기록해 온 미국의 경상수지가 2024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지 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그동안 흑자를 보여온 본원소득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가 곧 경제 패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의 특징은 해외 직접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제의 '비영토적' 글로벌화이기 때문이다(조혜경 2012: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표 3〉 미국 경상수지 항목별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수지	계
2005	-782,804	66,262	44,186	-76,876	-749,232
2010	-648,671	145,584	169,911	-98,834	-432,010
2015	-761,868	271,092	185,205	-102,882	-408,453
2020	-912,875	266,834	177,717	-125,174	-593,498
2024	-1,215,403	311,870	-41,039	-240,729	-1,185,301

정치·군사적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철수하였고, 중남미 칠레와 온두라스, 볼리비아에서 미국이 주도한 쿠데타가 뒤집히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 침입, 이란과의 전쟁을 통제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을 미국 힘의 소멸이나 '미국의

세기'의 종말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미국은 금융, 군사, 외교, 문화 같은 거대한 힘의 원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 약화는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할 여지를 제공하였다(노엄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2023: 22-3).

중국은 '세계의 굴뚝'이 되어 GDP 세계 2위에 올라섰다. 기술 수준은 아직 완전한 자립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서구를 앞지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다극화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니(馮特君 2000), 2007년 제17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단극적 패권주의 및 강권주의 반대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발전' '조화세계'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구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외교를 전개하여 자원과 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월한 성과를 거두고,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다자주의 전략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중국 서부 주변을 안정화시키고, 중남미 국가들과는 자원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김관옥 2010). 또 경제력을 바탕으로 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같은 국제기구를 조직하여 국제질서에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외국에 발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다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20여 나라의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제25차 SCO 정상회의(2025. 8.31-9.1, 톈진)에서는 다극화 질서 구축, 경제·안보 협력 심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독자적 금융·무역 네트워크 형성 등의 방향을 담은 톈진선언과 합의들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회원국들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는 군사·안보 영역에서 경제·금융 규범으로 전략 경쟁을 확장하려 한다(최재덕 2025).

중국은 아직 힘을 바탕으로 미국에 직접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다극화 전략으로 외교적 평화적 방법을 구사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노엄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2023: 25), 중국의 경제 발전과 다극화 추구로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은 높아졌다. 2010년대부터 남북 사이에 갈

등이 격화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걸쳐 중국과 인근 국가 사이에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하였다(나원준 2024). 그 결과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매우 높아졌다.

최근 남북 관계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정의하여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과 그 규정의 바탕인 평화통일과 화해 원칙, 심지어 하나의 민족으로서 형성해 온 동질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남한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며 대화와 교류 협력 가능성을 차단하고 향후 대남정책의 핵심으로 전쟁 준비를 내세웠다(경향신문, 2023.12.31).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북러군사동맹을 28년 만에 복원하였다(연합뉴스, 2024.6.20). 그리고 그 조약의 제4조'에 따라 10월 소련-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한국일보, 2025.4.28) 두 나라의 유대관계는 크게 강화되었다. 2025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성공하였다.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선 북중러 세 정상의 모습은 3국 관계의 견고함을 과시하기에 충분하였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남한의 외교정책과 중국의 부상에 맞선 한미일 공조 강화로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에 빠졌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여 러시아와는 준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냉전 시대의 한미일과 북중러의 체제 대립과 유사한 신냉전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의 형성은 남북 관계에 교류와 협력 대신 단절과 적대, 이해와 평화 대신 혐오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고 왔다.

3.2. 다극화와 교류의 전망, 그리고 Korea학의 역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귀결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제력과 기술 수준, 내수 시장 규모로 볼 때 중국은 다극화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관세) 전쟁을 벌이고 강제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 제한 등을 통해 대항하며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조선일보, 2025. 7. 17), 오히려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Max Boot 2025).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양극체제의 수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돌이켜 보면, 남북 역사학 교류는 남북대화 국면의 조성과 중국, 러시아, 미국 관계에서 갈등이 완화될 때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경제·안보 대립이 남북을 각기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강하게 발휘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경제와 안보 갈등의 늪에 빠뜨릴 위험성이 높다. 세계 체제 전환기에 흔히 나타나는 갈등 고조 현상을 한반도가 심각하게 겪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밀착되었고, 남한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와 투자 강요 등 미국의 계속적인 안보·경제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다극화 추세가 진행되는 전환기에 고조된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미가 대화의 창구를 닫아걸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변경하고 남북대화에 나서는 데는 특단의 상황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남북 교류가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Korea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할 수 있을까?

첫째, 한반도의 고조된 위기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 정책을 관장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국 정부와 여론에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대화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남북의 직접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인 만큼 외국의 Korea학과 학자, 학회가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 학술회의 등을 통해 남북 학자들의 교류 기회를 적극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셋째, 각 지역의 Korea학이 더욱 발전하여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남북 교류의 중단은 남북 학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학술 활동을 침체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남북 학계와 모두 접촉이 가능한 외국의 Korea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Korea학의 다극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남북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신문

경향신문, 2023. 12. 31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남북 관계 선언 … 화해·통일 대신 전쟁으로”.

로동신문, 1988. 5. 15 “조선 관계 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 폐막”.

로동신문, 2002. 5. 4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개막”.

로동신문, 2002. 5. 5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폐막”.

로동신문, 2003. 9. 30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평양토론회 진행”.

서울신문, 2001. 7. 11 “韓·日 교과서 갈등/中 사회과학원 국제세미나”.

西日本新聞, 2004. 9. 20 “日韓朝 研究者 高句麗語る”.

연합뉴스, 2024. 6. 20 “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 … 조약 전문 공개”.

조선일보, 2025. 7. 17 “미·중 사이에 낀 싱가포르 … ‘두 개의 초강대국, 매우 위험한 시기’”.

중앙일보, 2004. 9. 20. “북한 역사학회장, ‘중국 고구려사 왜곡’ 정면 비판”.

통일뉴스, 2018. 7. 30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2018’ 지난 1일 중국 연변대학에서 개최”.

한국일보, 2025. 4. 28 “北,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공식 인정 … ‘북러조약 충실히 이행’”.

2) 자료집과 보고서

2002년 8·15기념 남북학술회의(2002)『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자료집).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ANCIENT HISTORY OF STATES IN NORTH-EASTERN ASIA(High College of Korean Studies-12th Aniversary 자료집),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VLADIVOSTOK CITY.
강만길·허종호(2004.2.28)「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에 관한 합의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조선사회과학원·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2012)『동아시아 전통문화와 현대적 가치』.
高句麗文化展實行委員会(1985)『高句麗文化展：麗しの古代美』.
고구려연구재단(2006)『고구려안학궁조사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조선사회과학원·극동국립기술대학교(2005)『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고려학술문화재단(2012)『2012 러시아 연방극동대학교 국제학술회의』.
국사편찬위원회·남북역사학자협의회(2010)『일제강점 100년 남북공동 학술회의』(자료집).
국제고려학회·오사카공립대학 문학연구과·인권문제연구센터·오사카코리안연구플랫폼(2022) 제15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 프로그램과 발표자료집.
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報告書編集委員會(1991)『東アジアの社會と經濟-'89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報告書』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報告書編集委員會(1996)『東アジアの社會と經濟-第4回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報告書』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남북역사학자협의회(2015)『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9년의 성과와 전망』.
대륙연구소(1994)『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 제1차 한·러 공동발굴조사보고서』대륙연구소출판부.
북경대학 사학과·중화문화교류와합작촉진회(2008)「역사 기억과 역사 인식-일본 우익 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국제학술회의 회의 수첩」.
북경대학교 동북아연구소·연변대학 민족연구원·조선사회과학자협회·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2003)『日本軍國主義的侵略戰爭與中國境內朝鮮志士的抗日鬪爭』(中·朝·韓國際學術會議 발표자료집).
서원대학교·조선사회과학자협회·연변대학 민족연구원(2004)「《동북아지역 합작과 민족문화의 발전》국제학술회의 발표순서」.
서원대학교·조선사회과학자협회·연변대학 민족연구원(2005)『반일투쟁과 민족문화』(광복 60주년기념 평양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2019)『제2회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논문집』.
연변대학·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2011)『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延邊大學 圖們江學術論壇組織委員會(2010)『多元共存和邊緣的選擇』(2010圖們江學術論壇論文集).
延邊大學 圖們江學術論壇組織委員會(2011)『多元共存和邊緣的選擇』(2011圖們江學術論壇論文集).
延邊大學 圖們江學術論壇組織委員會(2018)『人類命運共同體視域下的圖們江區域國際交流與合作』.
연변대학 민족연구원·연변해외문제연구소·한국근현대사연구회(2000)『1910~30년대 조선민족 반일투쟁사 재조명』.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協同創新中心·中國社會科學院 中日歷史研究所(2014)『《日軍慰安婦問題》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延邊大學 朝鮮半島研究協同創新中心·中國社會科學院 中日歷史研究所(2015)『第二屆 日軍"慰安婦"問題 國際學術會議論文集』.
연변대학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조직위원회(1989)『연변대학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론문집』.
연변대학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조직위원회(1991)『연변대학 제2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론문집(조선민족해방운동사)』.
연변대학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조직위원회편(1992)『연변대학 제2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론문집』.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2018)『조선반도연구국제학술회의2018론문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조선사회과학자협회·연변대학 민족연구원(2005)『제국주의 침략과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
요녕대학 아주연구중심·조선사회과학자협회·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소·연변대학 민족연구원(2005)『1930~1940年代 東北地區 抗日鬪爭與民族文化』.
일본 오사까경제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중국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0)『제3차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론문 요지』.
일본 오사까경제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중국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1)『제3차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론문 요지(속편)』.
정영훈(2006)「환단고기·규원사화 등 仙家系 史學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_중간/연차보고서」.
조선사회과학자협회·한국서원대학교·연변대학 민족연구원(2006)『동북아 지역 력사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중국 북경대학동북아연구소·한국경남대학극동문제연구소·조선사회과학자협회·중화문화교류와합작촉진회(2004)『항일 건국 리상과 동북아시아 국가의 개혁발전』.
중국 북경대학동북아연구소·조선사회과학자협회·한국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중화문화교류협력추진회(2005)『근현대 동북아 국가 발전의 회고와 전망』.
중국 북경대학동북아연구소·조선사회과학자협회·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중화문화교류협력추진회(2006)『항일 전통, 민족문화와 사회발전: 국제학술회의』.

중국 북경대학동북아연구소·조선사회과학자협회·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중화문화교류와합작촉진회(2007)『회고 사고 및 전망-전면 항전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2014)『호태왕비 건비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회의자료』.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2003)『일본의 우리나라 역사 왜곡 진상을 밝히는 남북 공동학술토론회 자료집』.

3) 논문과 단행본

AHN Byung-woo (2020)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Inter-Korean Exchanges in Historical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3.1.*
Max Boot (2025. 8. 4) 'China is winning the trade war Trump started' Washington Post.
江上波夫·上田正昭 共編(1992)『謎の五世紀を探る』讀賣新聞社.
高麗美術館 編(2019)『共生と民際の歷史學』雄山閣.
고조선단군학회(2006)『고조선단군학』14집.
국립문화재연구소(2019)『광개토대왕릉비 탁본 張明善 탁출』.
국사편찬위원회(2012-6)『북한관계사료집』권 71~80.
국사편찬위원회(2012)『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
권정민·김학만(2013)「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와 갈등 관리: 대북정책 기조와 전개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68, 한국동북아학회.
김관옥(2010)「중국의 대미균형을 위한 다극화 전략: 소프트 파워, 다자주의, 자원외교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31, 한국중국문화학회.
김형빈·김두남(2016)「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통일전략』16-3, 한국통일전략학회.
나원준(2024.11.19.)「트럼프 귀환과 다극화 전망」『경향신문』.
노엄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지음, 유강은 옮김(2023)『물러나다-노엄 촘스키, 다극세계의 길목에서 미국의 실패한 전쟁을 돌아보다』시대의 창.
단군학회 엮음(2005)『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단군과 고조선 연구』지식산업사.
동북아역사재단(2022)『동북아역사재단 15년 활동 성과와 과제』.
網干善教(1986)「高句麗の寺院跡と壁畵古墳」『阡陵-關西大學考古學等資料室彙報』.
박영정(2018)「시대별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전개」『남북문화유산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上田正昭 등, 1986『高句麗と日本古代文化』講談社.
안병우(2025)「냉전 시기의 남북 역사학 교류」『청계사학』30.
嚴文明(2000)「開會の辭」『7·8世紀の東アジア-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交流の再檢討』(大阪經濟法科大學·北京大學考古學系 共編),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윤미향(2008.11.18.)「'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강탈 책동 반대 남북공동토론회'를 마치고」

『통일뉴스』.
李成市·早乙女雅博(2002)『古代朝鮮の考古と歷史』, 熊山閣.
이형구 편(1999)『단군과 고조선』 제1부, 살림터.
임효재(2004.9.21.)「기고/ 日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서 北 학자 발표 자청해 중국 비판」『한국일보』.
정구복 등(2009)『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태헌(2011)「남북 역사인식의 상호 변화와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를 통해 본 역사인식 연합의 전망」『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논문집』 14.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2000)『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1-5』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2002)『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조선시대 1-4』,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혜경(2012)「세계 경제 질서의 다극화와 미국의 경제 패권」『동향과 전망』 84호, 12쪽.
村川行弘 編(1997)『5000年前の東アジア-東アジアにおける原始·古代文明の再檢討』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최재덕(2025.9.16.)「전승절보다 더 예의주시해야 할 SCO 정상회의, 중국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나」『프레시안』.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편(2004)『조선향토대백과』평화문제연구소.
馮特君(2000)「世界 多極化 趨勢 不可逆轉」『求是雜志』 9.

통합적 코리아학의 전망*

The Future Directions of Integrative Korean Studies

김성민**
국제고려학회

1. 들어가며: 통일의 인식론적 전환과 인문학

한(조선)반도의 분단체제가 가진 딜레마는 '탈냉전-탈분단'의 정치·경제적 체제통합 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반발하는 반동적인 힘(reactive force) 또한 커진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 내의 주요한 계층별-세대별-지역별 갈등과 분열이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착종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그렇게도 줄기차게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조선)반도에서 탈분단을 강조할 수록 우리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에 반발하는 세력의 목소리 또한 커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조선)민족의 분단체제가 단순히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 간의 경쟁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국가의 '국민 만들기'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분단의 사회적 신체', 즉 '분단 그 자체'를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각인시킨 대중적 토양을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분단을 몸에 각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남북의 통일이란 불구대

* 이 글은 김성민·박영균의 「통일학의 정초를 위한 인문적 비판과 성찰」(『통일인문학』,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3)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KIM Sungmin (Editor-in-Chie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Professor Emeritus, Konkuk University)
E-mail: ksm3386@hanmail.net

천의 원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북'은 절멸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다. 여기서 모든 합리적 소통의 가능성, 이해의 가능성은 중단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조선)민족에서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문제는 단순한 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체제에서 생산된 분단된 사회적 신체와 마음을 극복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최근까지의 통일 담론은 주로 정치-경제적인 거시적 체제통합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가득찬 분단의 신체를 변화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을 통일의 한 주체이자 수평적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정치-경제적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흡수통일을 강하게 전제하는 연구들은 북을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약탈적 관점에서 종속시켜야 하는 열등한 타자로 위치시키기도 하였다. 이것은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적대시하는 분단국가주의를 생산할 뿐이다.

그러나 통일은 현실적이고 실효적으로 한(조선)민족의 반쪽을 지배하고 있는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와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이 보여주듯이 사회문화적인 통합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체제통합으로서 통일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지불하게 될 사회적 비용은 경제학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재독 철학자 송두율(1995: 8)은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문화적 통일'이며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과제는 단순하게 '경제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문화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송두율 2000: 188). 이는 오늘날의 통일 담론이 남과 북의 체제통합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남과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으로 사유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구나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은 통일 이후를 고려한다면 평화로운 한(조

선)반도의 미래적 전략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분단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의 대립만을 낳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단시킨다. 따라서 이런 남쪽과 북쪽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통합 없이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분단국가였던 예멘이 두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내전을 겪어야 했던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는 통일이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학은 어떤 인문적 성찰과 비판 위에서 출발해야 하며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 이것이다.

2. 통일학의 정초를 위한 내재적 비판의 출발점

인문학(humanities)은 공자가 말했듯이 '지인(知人)의 학'이다. 그 어원인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인문학은 인간다움이나 인간다움의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의 전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간의 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이며, 통일 담론의 새로운 판형은 인문학이라는 토대 위에 통일에 대한 학적 체계를 세운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적 사유가 근본적이기는 하지만 이상적이며 심지어 공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분단극복의 과정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통일을 남과 북이라는 두 분단국가의 체제 통합으로 환원하고,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론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통일은 두 개의 분단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현실주의적 사고가 미래에 지불될 비용이나 위험을 생각하지 않은 채, 현실에 매몰되어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시작해야 할 실천들을

미래로 유예시킨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사회문화적 통합을 정치-경제적 통합 이후의 과제로 생각하는 소위 단계론적 사고는 통일을 '목적'과 '결과'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으로, 통일 그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수단'과 '과정'의 유기적 연속성의 산물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의 적대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루어진 통일은 오히려 분단 보다 더 불행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을 도달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목적 및 결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통일은 남과 북이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기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삶의 왜곡과 위협, 군비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수단'이자, 생명이 약동하는 평화로운 미래통일 한(조선)반도를 건설하는 '과정'인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망각의 베일을 거두어 내야 한다. 그 망각의 베일은 파스칼(pascal)이 말하는 '숨은 신(Deus absconditus)'이 조정하는 세계에서 관성적 사고에 젖어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연구자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있다. 그렇기에 통일을 사유하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체화된 '분단의 아비투스' 그 자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말했듯이 학문의 장은 '스콜레(scole: 여유의 공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립가능하다. '스콜레'는 한편으로 불편부당한 객관적 위치를 점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생산의 구조를 유지하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의 장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사유가 이루어지는 세계'와 '삶이 이루어지는 세계' 사이의 경계를 망각하고 주지주의와 같은 학구적 성향에 빠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체화되어 있는 아비투스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학문 탐구의 결과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장에서 다루어지는 상징체계들 또한 "장(field)을 규정하는 규칙들에 따라 기능"하도록 만들며 "이 규칙들은 (……) 전적인 힘으로 그들에게 강제된다."(피에르 부르디외 2001: 164) 게다가 "국가는 물리적 힘 혹은 강제도구(군대·경찰)의 자본, 경제적 자본, 문화적 혹은 더 나은 경우 정보적 자본,

상징적 자본과 같은 상이한 여러 종류의 자본들의 집중화 과정이 낳은 결과물"이자 "메타-자본의 보유자"이다(피에르 부르디외 2005: 120). 그런데 학문의 장은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담론이 생산되는 장들의 구조와 기능 작용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진정한 자유의 가능성을 사유"하는 "반성"적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피에르 부르디외 2001: 172). 여기서 "반성"은 "객관화의 작업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배제된 인식적 주체가 지닌 특권을 문제 삼는 일"이며, 학문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경험적 주체를 사회적인 시·공간에 위치시키면서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충동, 가정들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피에르 부르디외 2001: 173).

예를 들어 통일 담론의 인문학적 탐색을 전개했던 강만길(2003: 165)은 70년대 중반, 당시까지 역사학계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문헌고증사학이 학문의 현재성으로부터 유리된 채 과거에서 학문적 안식처를 찾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 신채호나 박은식의 민족사학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경제사학론에서 '식민사학론'의 극복 노력을 발견하면서도 이들의 논의가 5·16쿠데타, 유신체제 이후 박정희의 '주체적 민족사관'과 연결됨으로써 분단체제에 흡수되어버렸다는 근본적인 자기비판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한(조선)민족 전체 주민을 하나의 역사공동체·문화공동체로 인식하고 민족의 평화적, 호혜적, 대등적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이념으로 제시된 그의 '통일민족주의론'은 민족통일의 지도 원리로서 민족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이런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역사학계 내부의 자기비판과 성찰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획득된 것이었다(강만길 1999: 214-215).

바로 이런 점에서 '분단국가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성찰과 비판 또한 분단체제와 관련시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분단국가주의는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남/북의 적대적 대치 속에서 '분단국가의 국민'을 생산해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분단국가'는 민족≠국가라는 결핍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분단국가는 '민족≠국가'라는 결핍을 감출 필요가 있었다. 이에 두 분단국가는 '민족'의 자리에 '국가'를 놓음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리를 바꾸어 놓았다. 남과 북은 '민족=국가'를 '국가=민족'으로 전치시킴으로써 '민족=남/북'이라는 분열과 결핍

을 '남=민족' 또는 '북=민족'이라는 상징화를 통해 그 스스로를 민족의 대표자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역으로 남 또는 북이라는 분단국가는 '민족'을 부당하게 참칭하거나 월권을 행사하는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월권과 참칭은 여전히 자신의 공백이나 결핍을 감추는 '무화과 잎사귀'에 불과했다. 1960년 4·19혁명과 1970년 7·4 남북공동선언을 경험하면서 한국이라는 분단국가가 부당하게 참칭했던 '민족'은 오히려 독재 정권을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으며 '통일운동'은 정치적 지배 권력에 맞서는 선봉이 되었다. 그러나 '통일운동'의 성장은 분단국가의 공백과 결핍을 드러내는 '금단의 영역'이다. 따라서 독재정권은 북이라는 타자에 대한 적대성과 공격성을 이용하여 한국사회를 통합하는 '부정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의 정치공학을 '반공테러리즘'을 통해 작동시켰다.

여기서 북은 동족상잔이라는 '6·25전쟁'을 일으킨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민족을 러시아와 중국에 팔아먹은 '괴뢰정권'으로 상징화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상징체계를 따라 독재정권은 자신만을 한(조선)민족의 유일한 민족적 정통성을 가진 정권으로, 따라서 상대는 끊임없이 민족의 평화와 공존을 가로막는 '적'이자 '공포의 대상'으로, 통일을 위해 '화해하거나 우애를 쌓아가야 하는 다른 반쪽의 민족'이 아니라 절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이를 통해서 두 분단국가는 스스로를 민족의 유일한 정치적 권력체이자 통일의 주인으로, 한(조선)민족의 이상적 초자아로 자신을 상징화하였다. 여기서 통일의 주체는 한(조선)민족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 분단의 산물이자 결실로 탄생한 '남'이거나 아니면 '북'이라는 분단국가였던 셈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는 분단체제의 수혜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오늘날 이종석, 손호철, 최장집과 같은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이런 분단의 재생산체제를 '공생적 적대(symbiotic antagonism)' 또는 '적대적 의존관계', '거울이미지효과(mirror image effect)'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개의 분단국가, 남과 북은 적대적이지만 이 적대성을 통해 상호 공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분단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백낙청(2006: 31)은 세계체제의 하위체제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분단의 재생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단 기득권 세력 대 시민 또는 민중을 포함하는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송두율(1995a: 235)은 "민중을 기반으로 한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한(조선)민족을 전체로 사유하는, '남북한 다 살리기'라는 인식의 전환"에 기초한 '통일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3. 통일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

이종석(1998: 26)이 이야기하듯이 한(조선)민족의 분단은 ①"분열된 두 주권국가의 존재로 상징되는 지역적 분단", ②"상이한 삶의 양식을 지닌 두 사회구성체의 분열적 존립", ③"분단에 내재해온 제로섬 게임에 기초한 갈등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적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①에 초점을 맞춘 '국가 간 체제통합'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일부 선진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②로의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 연구는 대체로 '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남과 북의 일반 민중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에 대한 차이와 공통성을 밝히는 데에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③의 분단체제의 적대성에 대한 연구 또한 대중의 사회심리적 토양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논의들이 몇몇 있으나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겠다.

물론 ①의 문제를 벗어나 ②와 ③으로 문제의식을 이동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그들은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 등 인문학적 사유를 전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은 '분단시대', '분단체제', '경계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내세우면서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낭만적 통일론과 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론을 넘어선 인문학적 관점에서 전개되는 통일 담론을 만들어왔다. 이들은 모두 다 기존의 분단국가주의라는 지층 위에서 작동되어 왔던 통일담론을 넘어서 역사학(강만길), 민족문학

(백낙청), 철학(송두율)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성찰을 전개하면서 '민중적·민족적 통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통일민족주의', '분단체제'와 '변혁적 중도주의', '제3의 통일철학'과 '내재적·비판적 방법론'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왔다(김성민·박영균 2010b).

그러나 이들은 문제의식을 바꾸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그 연구를 구체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분단체제가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남긴 분단의 흔적과 상처들, 그리고 분단체제가 작동하는 사회심리적 토양과 신체적 체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송두율은 '마음의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백낙청은 '마음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송두율(2007: 101)은 "이쪽과 저쪽이 모두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만드는 사람", "이쪽 안에서 저쪽을 발견하고 저쪽 안에서 이쪽을 발견하는, 쉽지 않은 작업을 해야만"하는 경계인의 위치를 고집할 뿐, 구체적으로 '마음의 장벽'이 무엇인지를 다루지 않고 있다. 백낙청 또한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마음의 수양과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을 이야기할 뿐 그것이 어떤 대중의 사회심리적 토양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단극복과 통일에 대한 사유는 ① → ② → ③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으로 ③ → ② → ①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통일학'의 학적 연구대상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질문들과 연구영역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 내용의 측면에서 통일의 주체라고 가정되는 한(조선)민족의 구성원이자 분단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한(조선)반도에 거주하는 '시민과 민중이 왜 그들 스스로 오히려 분단체제를 지탱시키고 강화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낳은 적대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의식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식 차원 너머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단체제가 우리의 신체에 체화되어 있는 방식들과 마음에 남겨놓은 분단의 상처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분단체제가 작동하는 사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대안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단극복과 통일의 과제는 단순한 체제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사회통합'의 문제로, 이전까지 다루어졌던 '연방제', '연합제', '중립화론' 등과 같은 통일 방식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통일 한(조선)반도의 정신과 가치, 문화의 상' 등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통일 한(조선)반도의 정신과 가치, 문화의 상'은 남 또는 북 어느 한편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 만일 통일 한(조선)반도의 정신과 가치, 문화를 남 또는 북의 어느 쪽 입장에서 구성해 간다면 그것은 분단국가주의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절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 한(조선)민족의 미래적 가치와 정신, 문화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한국학 대 조선학이라는 분단 체제적 대립을 넘어서 한(조선)민족 전체의 정신문화적 가치들을 흡수하면서 통일 한(조선)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한국(조선)학'을 정립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통일이 '민족적 사회통합'이자 '통합한국(조선)학'의 정립을 통한 통일 한(조선)반도의 정신과 가치, 문화의 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연구의 대상이나 범위는 남과 북으로 한정될 수 없다. 현재 한(조선)민족의 해외 거주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그 숫자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본국거주민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한(조선)민족의 해외 거주 비율은 약 10%로, 유대인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셋째, 외연적 측면에서 통일의 연구 대상은 단순히 '북의 정치경제적 체제'나 '북한사회'만이 아니라 남쪽을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까지를 포괄하는 한(조선)민족에 의해 생산되어 온 학문 전체를 통합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통일 한(조선)반도는 단순한 '국가'의 통합이 아니라 '민족'의 통합으로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창출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분단체제 하에서 생산된 한국학 대 조선학이라는 대립을 벗어나 해외 거주 코리언들까지를 포함하는 한(조선)민족의 학문 전체를 통합하면서 이 속에서 통일의 비전을 찾아가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통일 담론을 인문학의 기초 위에 정초하고자 하는 통일인문학(humanities for unification)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인문학적 통일 담론의 성과

를 흡수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그것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통해서 이들 담론과 전혀 다른 문제틀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연구 대상과 학적 체계를 가진 '통일학'으로 발전시키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성민·박영균 2011).

통일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고유한 학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이런 학적 체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일학이 학적 체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인간을 다루는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기존의 통일 담론들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도출된 연구 방향과 대상을 중심으로 고유한 연구 대상과 방법을 기초해 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분단국가주의적 아비투스를 벗어나 진정으로 통일 그 자체를 다루는 통일학이 정립되기 위해서 제출되어야 할 고유한 연구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분단체제를 작동시키는 '분단된 사회적 신체'에 체화되어 있는 '내면화된 습성들', 분단체제를 '구조화하면서 구조화된 구조'인 '분단의 아비투스'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오늘날 분단의 적대성은 단순한 지배이데올로기도, 주입된 의식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신체에 아로새겨져 있는 내면화된 믿음의 체계이다. 따라서 북이라는 타자는 이미 우리의 믿음체계 안에서 이해 불가능하며 기괴한 어떤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차용·변용시킨 '분단의 아비투스'에 대한 연구(박영균 2010)는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로막는 '성향과 믿음들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분단된 사회적 신체'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통일의 사회적 신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아비투스'는 분단체제를 작동시키는, 우리 몸에 내면화되어 있는 양식들을 파악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민족의 사회 심리적 토양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사실, 한국인들에게 분단체제는 '잊지말자. 6·25', 또는 '아아 어찌 잊으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을.'과 같이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분단체제의 생산 적대적 생산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한다. 그것도 '행복했

던 과거'가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했던 과거'를 불러내어 현재화함으로써 작동한다. 따라서 '분단의 아비투스'는 '분단의 트라우마'라는 리비도의 좌절-억압이라는 무의식적 토양 위에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민·박영균 2010a).

바로 이런 점에서 통일인문학의 두 번째 연구대상은 분단의 피해자인 한(조선)민족 스스로 적대와 증오감을 유발함으로써 분단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전치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치유하고, 남과 북의 통합서사를 만들어냄으로써 불행했던 과거를 통일 한(조선)반도라는 미래지향적 욕망으로 바꾸어가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분단 트라우마'는 분단의 상처가 오히려 그 상처를 덧나게 하면서 적대성을 키워가는 '토양'으로 작동하는 사회 심리적 전이의 체계와 전치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한(조선)민족이 가진 민족적 욕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분석 도구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전쟁, 살인' 등과 같은 경험을 한 이후 '외상 후 신경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가 겪었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역으로 그 시간을 자신의 역사 속에서 지우려는 충동에 시달린다. 여기서 '주체'는 이중의 야누스적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 그는 자신의 서사 안에서 그 시간을 지우고자 하는, '망각하고자 하는 주체'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분단의 트라우마가 낳은 이런 분열적 양상은 남과 북의 적대적 심리 안에서 작동하는데, '6·25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분열을 극단적인 적대감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북은 남에, 남은 북에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대상이 되며 양쪽 모두에게서 반쪽의 자기서사는 상대를 배제한 역사로 재편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치유의 과정은 남과 북을 모두 다 자신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통합서사의 구축 없이 진행될 수 없다. 통일인문학의 세 번째 연구 대상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을 포함하여 그들이 일제 식민지 이후 겪어온 삶 속에서 얻은 '역사적 트라우마'들을 치유하면서 민족적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적 차이와 공통성

을 추출하고 그들의 역사적 자산들을 한(조선)민족 공통의 자산이자 서사로 만들어 가고 민족적 합력을 창출하는, '통합한국(조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족적 합력'을 창출하는 작업으로의 통일학이라는 학문의 정립은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통일패러다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4. 통일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공통성'의 생산으로서 통일

일반적으로 '통일'은 'unification', 또는 'reunification', '統一'이라는 말로, '하나' 또는 '한 줄기'로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일의 언어적 용법은 통일을 '핏줄'이든 '영토'이든 '문화'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에서 그 집단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homogeneity)'을 회복하거나 민족의 원형이라고 상정되는 것으로 되돌아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념은 애초의 의도와 달리 분단국가주의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훼손되지 않은 하나의 핏줄로서 '단일민족의 신화'나 '순수한 민족문화'를 전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가 가진 차이들을 '이질성(heterogeneity)' 또는 '변질(deterioration)'로 단죄하는 배제와 폭력을 낳는 관념적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조선)민족의 특수한 역사와 식민화의 경험은 이와 같은 민족적 동일성이라는 관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에릭 홉스봄(2008: 94)이 말했듯이 한(조선)민족은 적어도 고려시대 이후 지금의 반도 땅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역사적 국가(historical states)"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서구의 민족국가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와 다른 한(조선)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한(조선)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내적 응집력, 동질성이나 동일성을 향한 욕망이 강력하며 이것이 한(조선)민족의 강한 결집력과 통일을 향한 '민족적 리비도(national libido)'를 만들어낸다(박영균 2012). 하지만 일제 식민화 이후 한(조선)민족의

이런 정치공동체로서의 민족국가에 대한 열망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와 8·15 이후 분단으로 인해 좌절됨으로써 '민족적 리비도'의 좌절이 야기한 억압의 상처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동·서 냉전의 산물인 독일과 달리 '전쟁'이라는 참화를 향해 나아갔던 것도,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도 쉽게 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도 이와 같은 한(조선)민족의 독특한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리비도의 좌절이 만들어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변증법'은, 역으로 두 개의 전혀 상반된 욕망에 근거하고 있는, '민족은 하나다'와 같은 구호로 표현되는 민족 동질성과 원형으로의 회귀를 생산하는 '퇴행적 민족주의', '원초적 민족주의'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북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으로 바꾸어 놓는 네오 파시즘적 '반북주의', '호전적 국가주의'를 생산하면서 남쪽 내부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동일성의 신화, 동질성 대 이질성이라는 이원적 대립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통일 한(조선)민족의 건설 과정에 민족적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통일의 비전을 창출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까지의 통일 담론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한(조선)민족의 독특한 역사가 낳은 '이산'의 문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본국 거주민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해외 동포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이들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남북 대립을 중심으로 국제열강의 축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1위, 261만), 중국(2위, 210만), 일본(3위, 80.2만), 독립국가연합(4위, 53만)에 밀집되어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는 전체 해외동포 중 약 87.9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한(조선)반도 주변의 극동지역 거주자 비율이 약 57%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코리언들이 주로 극동지역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강제 동원되었거나 일제의 식민지 약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박해'에 있다는 점이다(김성민·박영균 2012a). 따라서 이들은 라카프라(2008:

288)가 말하는 "민족사에는 트라우마적 사건이나 정체성의 기원이 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나오는 '근원적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있다. 한(조선)민족에게 일제는 '민족≠국가'의 어긋남이 시작된 곳이자 민족적 리비도의 좌절과 억압이 시작된 기점이다. 따라서 이들 또한, 남과 북에 사는 코리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역사적 트라우마'의 형태와 위상학적 배치가 다를 뿐이다(박영균·김종군 2012).

그런데 오늘날 한국인의 민족정체성은 '민족'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가중심주의'적 국가정체성으로, 이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 코리언들의 그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하는 국민정체성이 강하면 우리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재중조선족이 보여주듯이 '국민정체성'이 강한데도 그와 더불어 '민족정체성'도 강할 수 있다(김성민·박영균 2012b: 315-316). 이것은 곧 그들이 이산하여 거주하면서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만들어왔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은 남도 북도 아닌 '한(조선)반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분단극복이나 통일의 열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민족공동체'는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상상 속의 민족공동체로서 분단 이전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이지만 그것이 현재 없으며 이후 생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김성민·박영균 2012b: 322-323). 따라서 민족적 합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역사적 트라우마가 향하는 과거로의 회귀성을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상호소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한(조선)민족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한(조선)민족의 공통서사로 그들의 삶을 통합시켜가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삶의 연대성은 삶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통일 담론의 새로운 비전은 인문학적 비판과 성찰에 기초한 '인간적이고 인문적인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상호 만남이 서로 각자의 환경 속에서 형성해온 '아비투스'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서로

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타자의 타자성'을 이해하고 나누며 '분열과 적대를 낳은 분단된 사회적 신체'를 '민족적 유대와 연대에 기초한 우애와 연대의 사회적 신체'로 바꾸어가는 방식으로 통일 과정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통일학은 통일 한(조선)민족의 인문적 비전을 '동질성의 회복' 또는 '민족적 집단성'이 아니라 '다수성'을 내포하는 '민족공통성(national commonality)'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박영균 2009: 13-32; 2011: 121-125). 'national commonality'는 '모든 민족적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거나 내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전통'이나 이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것의 '교집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어떤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나 문화를 그 공동체의 고유한 가치나 문화로 내세우고 따라서 그런 가치나 문화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거'에 속하며 속성상 '전통문화'로서, '실체론적 입장'에서 민족고유문화를 찾고 이를 복원하고자 한다. 반면에 'national commonality'는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가 생성되어야 할 미래적인 것으로, 현재와 과거의 대화, 현재의 다수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차이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생성되어야 할 '변형문화'로 본다. 이런 변형문화의 창조는 한국의 문화를 민족의 대표 문화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언들이 이산되어 살면서 만들어온 문화 모두를 동등한 한(조선)민족의 산물로 간주하고 이들과의 적극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바꾸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일조선인 학자 서경식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나 '민족혼'처럼 소위 '민족성'이라는 실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민족'은 고통과 고뇌를 공유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지향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나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민족성'이라는 관념에서가 아니라 역사와 정치상황이라는 하부구조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서경식 2006: 11) 따라서 통일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리언 전체의 문제이자 분단의 고통과 고뇌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함께 민족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인문학이 제시하는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인문적 비전은 바로 이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남 때문에', '북 때문에'가 아니라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조선)민족이 비극적 역사로 인해 짊어져야만 했던 공통의 상처를 보듬고 각기 갈라져 있는 서사를 모아 '한(조선)민족의 공통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이 제안하는 새로운 통일의 비전은 백낙청이나 송두율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으로서 통일'을 '사람의 통일'이라는 인문적 비전속에서 민족공통의 가치와 생활문화,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문적 비전속에서 통일인문학은 남과 북을 비롯하여 한(조선)민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과 더불어 '분단'과 '이산'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통합서사를 만들어가고 이 속에서 '통합한국(조선)학'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학적 체계화 속에서 통일한(조선)민족의 공통가치-공통서사-공통문화를 미래기획적으로 생산하는 통일학의 학적 체계를 만들어왔다.

5. 나가며: 인문학에 통일의 길을, 통일에 한국인문학의 길을 물으며

베트남과 예멘, 독일 통일이 보여주듯이 사회과학적인 논의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는 없다. 앞에서 논의해왔듯이 그것은 인문학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문학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①통일에 대한 표면적 이해와 ③통일에 대한 당위적 또는 낭만적 이해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이 있다. 여기서 사회과학은 인문학을 현실성 없는 학문으로, 사회과학은 현실적이어서 꿈이 없는 학문으로 비쳐진다. 따라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도 이 대립과 분리가 작동한다. 그러나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인문학만으로도, 사회과학만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섭적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은 자신만이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고 자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학문의 인간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점에서 자연과학 또한, 인간 그 자신의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인간에 관한 학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월러스틴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분리 및 분과학문체계의 성립은 서구적 근대화가 낳은 결과일 뿐이다(이매뉴얼 월러스틴 2007: 23-33). 예를 들어 의미, 논리, 마음에 대한 물음조차 자연과학적인 연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통일에 대한 물음에서도 사회과학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이 인문학에 자신의 길을 묻는 것은 인문학만으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문학이 빠진 상태에서 그 길은 매우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보다 전제가 되는 마음의 통일, 사회문화적인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의 과정은 언제나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체제통합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간 통합이든 체제 간 통합이든 간에 결국 통일은 가치와 정서, 문화의 통일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인문학에 길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이 땅에 사는 인문학자는 이 시대적 물음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인문학 혼자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근대적인 분과학문체계를 넘어서 서로 함께 도약하기라는 통섭(通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영향을 미친 월러스틴과 분단의 아비투스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친 부르디외는 근대적인 분과체제로 따지면 사회과학이다. 또한, 분단의 트라우마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친 프로이트주의는 심리학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적극적으로 인접학문과 함께 해야 하며 학문 간의 경계를 가로질러야 한다.

그렇다면 이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로지르기와 함께 도약하기가 시작되는 것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물음의 구체성과 현재성, 그리고 실천적 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학문적 물음은 언제나 실천적이며 특정 시대와 지역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미 백낙청(1990: 348)은 "근원적 진리에의 물음에서 나온 이론은 그 자체가 이미 실천과 떼어 생각할 수 없고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진리의 힘을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문학이 주

체적인 한국인문학의 길을 찾아야 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실천적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체적인 한국의 인문학은 한국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상이다. 그러나 기간 한국의 인문학은 종속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적 과제로부터 길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은 특수성을 부정하고 보편성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문학이 오직 보편성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월러스틴(2008: 135-143)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보편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과학적 보편주의는 진리로서의 과학을 주장하면서, 보편적 진리는 인문학자가 아니라 과학자라고 주장하는, "강자들의 가장 교묘한 이데올로기 정당화 방식"이다. 따라서 그는 '보편적 보편주의'를 주장한다. "보편적 보편주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본질주의적 성격 부여를 거부하고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모두를 역사화하며 이른바 과학적인 것과 인문학적인 것을 단일한 인식론으로 재통합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개입을 위한 정당화 근거들을 고도로 객관적이고 지극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연구하고 있는 현실을 더 큰 맥락, 즉 그 현실이 자리 잡아 작동하는 역사적 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인문학은 한국과 서구의 역사 모두를 상대화하고 서구적 보편성을 지역적인 것으로 특수화하고 역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함축하는 특수성으로 포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문학은, 비록 최근 주체적인 모색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 지적·학문적 식민주의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미국적 근대화를 추구했던 주류 우파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했던 좌파학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조희연(2006: 49-52)이 보여주듯이 '과잉보편화'된 서구적 보편에 대항하여 '과잉특수화'된 한국적·동양적 특수성을 고집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이 옥시덴탈리즘으로, 동양과 서양의 대립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서구적 보편의 특수화와 '우리 안의 보편성', 보편과 특수를 차이로 파악하려는 자세를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국의 인문학이 찾아내야 할 우리 안의 보편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인문학이 서 있는 현실이 던지는 물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세계상에 있다. 그래서 사이드(2008: 74-75)가 말했듯이 인문주의의 중심에는 비판이 있고 비판은 "민주주의적 자유의 형식이자 끊임없이 질문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실천이며 구성되어가는 역사적 현실들"에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인문학이 주체적인 '한국인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열려있는 질문,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사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전통으로 회귀하여 한국인들이 한 어떤 것들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문의 주체성은 물음에 있으며 서구적인 학문들을 우리의 문제와 사유양식, 길찾기로 전화시키는데 있다.

게다가 이 과정은 주체적인 한국인문학의 정립하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분단 현실은 '국학'조차 '한국학'과 '조선학'으로 찢어놓았다. 여기서 역사도, 문학도, 사상도 두 개로 분단된 한국의 인문학적 지평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인문학은 실천적 관점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에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한국인문학의 길을 통일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음은 두 가지 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하나는 한국학과 조선학으로 분리되어 있는 역사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온전한 의미에서 국학을 세워가는, 한국인문학의 주체성을 정립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속에서 세계사의 지평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한국인문학의 역사에 통합시키고 우리 물음이 가지는 차이와 해답 속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의 구체성을 획득해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만길(1999) 「분단 극복을 위한 실천적 역사학자」,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214-215.

강만길(2003)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당대.

김성민·박영균(2010a) 「분단의 트라우마에 관한 시론적 성찰」, 『시대와 철학』 21(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5-50.

김성민·박영균(2010b)「인문학적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의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범한철학』59, 범한철학회, 507-533.
김성민·박영균(2011)「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철학연구』92, 철학연구회, 143-172.
김성민·박영균(2012a)「분단극복의 민족적 과제와 코리안 디아스포라」,『대동철학회지』58, 대동철학회, 43-62.
김성민·박영균(2012b)「코리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합력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코리언의 민족정체성』, 도서출판 선인, 2012b, 303-325.
도미니크 라카프라(2008) 육영수 엮음,『치유의 역사학으로: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박영균(2009)「통일론에 대한 스피노자적 성찰」,『분단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도서출판 선인, 13-32.
박영균(2010)「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시대와 철학』21(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69-412.
박영균(2011)「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시대와 철학』22-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21-125.
박영균(2012)「분단의 사회적 신체와 심리 분석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쟁점」,『시대와 철학』21(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21-252.
박영균·김종군(2012)「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방법론」,『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도서출판 선인, 15-40.
백낙청(1990)『민족문학의 새 단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Ⅲ』, 창작과 비평사, 1990.
백낙청(2006)『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서경식(2006) 임성모·이규수 옮김,『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송두율(1995)『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송두율(2000)『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송두율(2007)『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 후마니타스.
에드워드 W. 사이드(2008) 김정하 옮김,『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마티.
에릭 홉스봄(2008) 강명세 옮김,『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이매뉴얼 월러스틴(2007) 유희석 옮김,『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이매뉴얼 월러스틴(2008) 김재오 옮김,『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창비.
이종석(1998)『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조희연(2006)『우리 안의 보편성: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한울아카데미.
피에르 부르디외(2001) 김웅권 옮김,『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피에르 부르디외(2005) 김웅권 옮김,『실천이성』, 동문선.

남북 의료용어집 편찬의 성과와 한계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 the Compil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Public Medical Terminology Glossary

도원영* 고려대학교
박주원** 고려대학교
하신*** 고려대학교
김숙정**** 호남대학교

1. 머리말

2025년은 민족 해방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이 분단된 시간도 80년이나 흐른 셈이다. 그간 남북은 협력과 교류의 강물이 끊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 관계는 얼어붙은 강 그 자체였다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 남측에는 남북 간 소통에 관심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고 북측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국외의 움직임도 있어 한반도 문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풀려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 남과 북의 주요 의제에 대해 그 시급성과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실천적 행보로 이어 갈 적기라 하겠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전·문화·언어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80년의 분단은 남과 북이라는 지리적 구분을 넘어 다양한 부분에서 분리와 변

* DOH Wonyoung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E-mail: dony68@korea.ac.kr

** PARK Juwon (Lecturer, Korea University)
E-mail: juwoni83@korea.ac.kr

*** HA Shin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n Korean Peninsula, Korea University)

**** KIM Suk-jeong (Assistant Professor, Honam University)

화를 초래하여 동질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도 정책, 시스템, 현장을 포함한 영역 전반에 걸쳐 달라졌는데,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단순히 용어 간 다양성과 이질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감염병 공동 대응, 임상 연구 수행, 천연물 기반 신약 개발과 같은 실제적인 협력 활동 영역에서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보건의료 분야의 실질적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간극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간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남측의 의과학자와 국어학자가 남북 의료용어집을 편찬해 온 과정을 소개하는 데 있다.[1] 아울러 편찬 작업의 한계가 무엇인지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의료 용어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남북 의료용어집 편찬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남북의료용어집_내과』(2021), 『남북감염학용어집』(2021), 『남북의료용어집_외과』(2025)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피고, 4장에서는 용어 선정 및 표기, 대응 관계 등에서의 난점을 정리한 뒤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

1 우리의 용어 연구와 용어집 편찬은 선행 연구와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간단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그간 남북의 의학 용어 통합을 위해 1992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남북한 의학용어 비교 연구 소위원회를 통해 정인혁(1993), 김형규(1993), 민득영(1993), 김하수(1993)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6년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된 『남북한 의학용어』는 남북한의 의학 용어를 집대성한 용어집으로, 약 11,500개의 영어 원어에 대해 남한의 용어와 북한의 용어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2014년에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의학용어원탁토론회에서 북한의 의학 용어 발전 과정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김주한(2014), 손승국(2014)에서는 『의학대사전(영조일)』(2002)에 실린 의학 용어를 『의학용어집(5판)』과 비교하여 용어 간 차이점을 밝혔다. 2018년에는 (사)통일간호포럼 간호학용어집위원회에서 『남북한 간호학용어집』을 발간하였다. 기본간호과학용어 570여 개와 기초간호과학용어 670여 개를 선별하여 남북의 용어를 비교하였다. 2020년에는 국립암센터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가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 사례집』을 출간하였다. 한의학계에서도 2020년 『남북 전통약재 기원사전』과 2021년 『남북 전통의학 용어 비교 정리집』이 출간되었다. 이는 남측의 표준한의학 용어집과 북측의 고려의학대사전을 통합하여 총 33,959항목을 선정한 뒤 '통합표제어-북측 표제어와 정의-남측 표제어와 정의'를 비교한 자료집이다.

2. 남북 의료용어집 편찬의 기초

2.1. 의료 용어의 개념과 자료 수집

『남북의료용어집_내과』, 『남북감염학용어집』, 『남북의료용어집_외과』는 그 명칭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의료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포착하기 위하여 의학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와는 다소 다른 범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용어집 편찬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이 원활히 소통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었다.

'의료 용어'에 대하여 박주원·김숙정·도원영(2021:136)에서는 "증상 자각, 진단, 치료의 보건의료 스크립트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공공의료 체계에 수렴된 정제된 형식의 용어"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료의 대상자인 환자는 특정 증상을 자각한 뒤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는 환자의 진술과 관찰을 통해 증상의 원인을 예상하고 검사를 통해 병명을 확정한 뒤, 그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보건의료 스크립트로 요약되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때 쓰이는 증상, 병인(病因), 상병(傷病), 검사, 치료 행위, 약물 등에 대한 용어가 존재한다. 이 용어를 의사와 환자를 비롯한 보건의료 발화의 참여자들이 공적인 의료 시스템 내에서 공적 소통을 위해 사용한다.

다만 의료 현장, 진단과 진료를 포함한 상황에서 쓰이는, 전문적 개념을 지칭하기 사용되는 용어 전체를 다 의료 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적'이라는 말이 강조하듯 국가의 의료 체계에 수렴된 다듬어진 형식으로 한정된다. 의료 용어는 의학 용어와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나 학술 목적 외에 보건 정책과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일상적인 의료 관련 발화 상황에서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사용 영역이나 사용 목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2]

2 의료 용어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주원·김숙정·도원영(2021)의 2장을 참고할 수 있다.

2020년 내과 분야 의료용어집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을 때, 의료 용어 개념에 적합한 목록을 확보해야 했다. 의학 용어의 정제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꾸준히 진행 중이었고 2020년에 새로 개정된『의학용어집(제6판)』이 나와 이를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 용어로 범주를 한정하여 용어의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의학계를 포함하여 보건의료계에서도 별도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 우리는 기출간 용어집에서 직접 용어를 추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의료 용어 목록화 작업을 위하여 주요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그래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건강보험행위목록표(건강보험 EDI)'를 1차 자료로 삼아 이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뒤 분류 및 정제를 하고『의학용어집(제6판)』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내과 의료 용어 목록을 완성하였다.[3]

이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 체계 내에서 확인되는 개념과 이를 담지한 용어를 목록화함으로써 의료 용어의 특징을 살리고자 한 시도로서 상당히 유의미하였다. 다만 일관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 개념어의 나열에 불과한 예가 많아, 전문 용어로서 알맞게 다듬기 위해 여러 단계의 정제가 필요하였다. 추출한 데이터를 세밀하게 용어화해야 했기에 남측의 내과 의료 용어를 확정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경험으로부터 확인한 바는 신뢰할 수 있는 저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기발간 자료들의 목록을 폭넓게 작성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기초 자료를 선정함으로써 용어 목록화 과정의 질적 측면을 더 높이고자 하였다. 실제로 감염학 용어집과 외과 용어집 편찬에서는 엄선된 저본으로부터 비교적 잘 정제된 상태의 용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 역시 정비가 필요하였으나, 데이터 추출 이후에도 여러 단계의 용어화가 요구되었던 작업에 비하면 자료 수집이 효율적으로 이

3 KCD와 건강보험 EDI는 국민의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되는 주요한 메타데이터로서, 의료 현장에서의 실제 쓰임을 반영한 자료이다. 상병명은 KCD에 수록된 내용으로부터, 치료 행위명은 건강보험 EDI에 수록된 수술, 검사, 처치 관련 내용으로부터 추출하였다.

루어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용어의 개념에 부합하는, 즉 '보건의료계의 공적 시스템 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활용되고 있는 용어'이면서 '전문 용어로서의 가치가 확인된 용어'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북측 용어의 경우, 현재 우리가 활용 가능한 것은 『거울 2.0』이었다. 이는 북한 교육성 산하 국가국어사정위원회에서 편찬한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이다. 북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방대한 사전이므로 정보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로부터 용어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북측 의학 논문 및 잡지를 수집하여 참고 자료로 삼았다.

2.2. 남북 의료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세 용어집의 편찬에서 주요한 방법론적 특징은 용어집 편찬에 앞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분야의 용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 간 소통의 기반이 되고 지식 공유의 기초를 제공하며 연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용어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화를 추구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란을 줄인다. 분야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간 연구, 공공에서의 활용에도 유의미하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고자 남북 내과 의료 용어 통합 DB, 남북 감염학 용어 통합 DB, 남북 외과 의료 용어 통합 DB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자료 수집, 구조 설계, 항목 입력 세 단계로 그 실제 과정을 나눌 수 있다. 의료 용어 범주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데 대해서는 앞 절에서 설명하였다. 수집한 용어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짜인 틀이 있어야 하므로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용어의 정보 중 어떤 것을 수록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수록할 것인지 구조를 짜야 하고, 이는 그 자체로 체계성을 지녀야 함은 물론 용어집을 만드는 데에도 적합하고 유용한 방식이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준 정보'가 필요하다. 의료 용어 DB에서는 남측 한글

용어를 기준으로 잡고 이를 준거로 삼아 나머지 정보를 모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남북 용어 대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당연히 남측 용어와 북측 용어를 별도로 각각 수집한 뒤 목록을 만들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 환경에서 이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잘 정비된 정보인 남측 한글 용어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먼저 남북 내과 의료 용어 통합 DB를 설계할 때, 의료 용어의 범위가 넓고 복잡했기에 포함된 개별 용어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또 그간 의학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용어 연구가 대체로 목록화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예가 부족했다. 자료 수집과 용어 정비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분류 정보, 부가 정보 등을 상세히 담을 수 있는 구조를 짰고,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항목이 15개에 이르는 다소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표 1〉 남북 내과 의료 용어 DB 구조

항목		정의
①	표제어 번호	개별 표제어의 인식 번호
②	남측 한글 용어	건강보험 한글명의 용어화 결과
③	남측 용어의 출처 및 구성	남측 용어와 『의학용어집(제6판)』 수록 용어의 대응 방식
④	건강보험 한글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의 한글명
⑤	건강보험 코드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상병 코드 및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의 수가 코드
⑥	영문 용어	건강보험 영문명의 용어화 결과
⑦	건강보험 영문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의 영문명
⑧	북측 용어	북측 의학 자료에서 추출된 한글명
⑨	북측 용어의 출처와 구성	북측 용어의 추출 방식과 용어의 구조 정보
⑩	분류1: 질병의 유형	해부학적 기준에 생애 주기 기준을 더한 18개 분류
⑪	분류2: 진료 부문의 구분	상병/검사/수술/처치(4개 분류)
⑫	분류3: 진료 분야의 구분	내과/외과/기타과(3개 분류)
⑬	북측 용어의 남측 표기형	북측 용어를 남측 표기법에 맞게 다시 적은 것
⑭	동의어	표제어(남측 용어)의 동의어
⑮	비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 발생된 협의 사항

이후 용어집 편찬 경험이 쌓이고 자료 수집 방식이 개선되면서 DB 구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내과 의료 용어 DB 구조의 틀은 계승하되 해당 분야에 맞게 적용되었다. 감염학 용어 DB의 경우 내과의 하위 분과인 감염내과로 그 범위가 한정되고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보다 간결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다.

〈표 2〉 남북 감염학 용어 DB 구조

항목		정의
①	표제어 번호	개별 표제어의 인식 번호
②	용어 등급	총 세 개 등급으로 분류
③	남측 용어	남측 용어의 표준화 결과
④	남측 영문 용어	남측 영문 용어의 표준화 결과
⑤	북측 용어	북측 의학 자료로부터 추출된 한글 표기형
⑥	북측 영문 용어	북측 의학 자료로부터 추출된 영문 표기형
⑦	분류	병인, 증상, 상병, 진단, 치료, 예방의 6개 분류
⑧	비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 발생된 협의 사항 및 추가 정보

남북 감염학 용어 DB에는『거울 2.0』에서 확인된 다른 정보, 즉 북측 영문 용어를 넣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고, 이후 표제어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 등급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틀은 외과 용어 DB를 설계할 때도 다시 적용되었다.

〈표 3〉 남북 내과 의료 용어 DB 구조

항목		정의
①	표제어 번호	개별 표제어의 인식 번호
②	용어 등급	총 5개 등급으로 분류
③	남측 한글 용어	남측 용어의 표준화 결과
④	남측 영문 용어	남측 영문 용어의 표준화 결과
⑤	북측 한글 용어	북측 의학 자료로부터 추출된 한글 표기형
⑥	북측 영문 용어	북측 의학 자료로부터 추출된 영문 표기형
⑦	분류	병인, 증상, 진단, 진료과, 상병, 치료, 해부의 7개 분류
⑧	비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 발생된 협의 사항 및 추가 정보

DB 구조가 완성되고 나면 각 항목에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미 짜인 체계 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 보완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쉽고 입력 단계에서 실수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DB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용어집에 실릴 내용을 선별하기 때문에 용어집 편찬에 효율적이다.

용어집은 주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남측 용어와 북측 용어, 영문 용어 중심으로만 구성이 된다. 그러나 용어집에 실리지는 않아도 DB에 수록된 용어 관련 정보는 효용 가치를 지닌다. 가령 내과 DB에는 그간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용어를 정제한 과정, 북측 용어 출처와 구성 방식 등이 자세히 들어 있어 DB 구축의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고, 향후 구축 모형으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염학 DB와 외과 DB에는 용어 등급 항목이 있는데, 의학 전문가들이 중요도와 사용 빈도, 실제 사용에서의 익숙함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긴 것이다. 이는 용어집에는 수록되지 않으나 표제어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었고, 향후 DB를 이용한 연구 및 새로운 자료 기획의 토대로 쓰일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하겠다. 또 항상 비고 항목을 두고 구축 과정에서 발생된 논의 내용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입력해 놓아 참고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3. 남북 의료용어집의 성과

3.1. 『남북의료용어집_내과』

『남북의료용어집_내과』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21년에 출간된 내과 분야의 남북 의료 용어를 비교한 용어집이다. 남측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건강보험행위목록표에 제시된 용어를 대상으로 『의학용어집(제6판)』(2020)과 비교하여 남측 내과 의료 용어를 추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용어를 확인한 결과, 약 7,000개 규모의 남북 내과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중 질병과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명과 수술, 처치, 검사와 같은 의료 행위명 4,880개를 선별하여 용어집에 수록하였다. 본문에서는 남측 용어, 영어(남측), 북측 용어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검색의 용이성을 위해 북측 용어 기준 색인과 영문 용어 기준 색인을 따로 두었다. 본문의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남북의료용어집_내과』 본문

남측 용어	영문 용어	북측 용어
가슴막염	pleurisy	륵막염, 흉막염
객혈	hemoptysis	각혈
고샅 탈장	inguinal hernia	서혜탈장
고세병	Gaucher's disease	고쉐병
구각염	angular stomatitis	구각미란
급성 신장병	acute renal disease	급성콩팥질병
기관지 폐렴	bronchopneumonia	기관지폐염

이 용어집의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도원영·김영훈 2023: 308-309). 첫째, 표제어의 범위를 학술적 차원의 '의학 용어'가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간, 의사와 환자 간에 쓰이는 '의료 용어'로 한정한 첫 시도였다는 점이다. 의학 용어는 학문 내적 지식과 개념 체계의 이해와 전달의 도구이자 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일반인이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전문성이 높은 어휘 부류이다. 그래서 되도록 투명성, 일의성, 일관성, 친숙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용어를 생성하고 정비하고 관리한다.[4] 반면 의료 용어는 의사와 환자, 간호사와 환자, 약사와 환자 간 소통 과정에서도 쓰이는 증상명, 질병명, 검사명,

4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산하 TC37에서는 전문 용어와 언어 자원에 대한 표준 문건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중 ISO 704(2009)에서는 전문 용어 형성의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Consistency), 적절성(Appropriateness), 언어학적 경제성(Linguistic economy), 파생성 및 합성성(Derivablility and compoundability), 언어학적 정확성(Linguistic correctness), 모국어 선호성(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치명, 수술명을 포함한다. 이는 특히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고 보건의료 통계를 산출하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하여 용어집에서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에게도 낯익은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 이 용어집에서는 남측 내과 분야의 용어만을 표제어로 삼았다. 내과 용어는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 비뇨기과 등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은 부류이다. 특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상병, 검사, 처치, 수술의 명칭 중에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에 대해 남북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고 의료 용어의 실제를 결과물로 내놓았다. 또한 남과 북의 최신 사전과 용어집의 정보를 기준 자료로 삼아 비교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내용은 내용의 공공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셋째, 이 사업은 의학자, 보건학자, 내과 전문의와 같은 보건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북한어 전문가, 남북 언어정책 전문가, 사전학자 등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북측 용어에 대한 추출과 검증 과정은 마땅히 북측 의학자와 용어 전문가가 맡았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재북 시 의사였으며 현재도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용어집 작성 과정에 의학 용어 전문가, 북한어 전문가, 남북 언어정책 전문가, 남북 과학기술 용어 전문가, 전문용어학자, 사전학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 위원이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절차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였다.

3.2. 『남북감염학용어집』

『남북감염학용어집』은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2021년에 출간되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하여, 지리적으로 연결된 남과 북이 감염병 확산에 맞서 중장기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용어집이다. 감염학 용어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말한다. 남측의 감염내과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로부터 주로 용어를 추출하였고,[5] 남북 내과 용어 DB에서도 감염학 분야에 해당하는 용어를 선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약 2,800개 규모의 남북 감염학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용어집에는 총 1,591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본문에서는 남측 용어, 남측 영문 용어, 북측 용어, 북측 영문 용어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중요 용어에는 별표를 달아 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북측 용어를 기준으로 남측 용어를 제시하였다. 본문의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남북감염학용어집』 본문

	남측 한글	남측 영문	북측 한글	북측 영문
★	캄필로박터	Campylobacter	캄필로박테르	Campylobacter
	캄필로박터증	campylobacteriosis	캄필로박테르증	campylobacteriosis
	캘리포니아 뇌염	California encephalitis	캘리포니어뇌염	California encephalitis
	코끼리 피부병	elephantiasis	상피병	elephantiasis
	코 대뇌 털곰팡이증	rhinocerebral mucormycosis	비뇌무코르증	rhinocerebral mucormycosis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idae	코로나비루스	Coronaviridae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십구	COVID-19	코비드십구	COVID-19

우리는 코로나의 발생과 대유행을 겪으며 감염병 관리와 예방이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하게 되었다. 또다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남북의 감염병 관련 주요 용어를 통합한 용어집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한다.

5 대한감염학회에서 나온『감염학』(2014),『성인예방접종』(2019), 대한예방의학회에서 나온『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2015) 등으로부터 용어를 추출하였다.

3.3. 『남북의료용어집-외과』

『남북의료용어집_외과』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5년에 출간되었다. 본래 남북 의료 용어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내과, 외과, 기타 과로 나누어서 차례로 용어집을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부 환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뒤늦게 외과 용어 연구가 재개되었다. 우선『외과학용어집(제2판)』(2022)을 저본으로 삼고『의학용어집(제6판)』(2020)과 외과학 교과서의 색인을 수집, 선별한 내용으로부터 용어를 추출, 정비하여 약 10,000개 규모의 남북 외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중 용어의 중요도, 남북 대응의 정확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인, 증상, 진단, 상병, 치료, 해부 등과 관련된 외과 의료 용어 6,263개를 선별하여 용어집에 수록하였다. 본문에서는 남측 용어, 남측 영문 용어, 북측 용어, 북측 영문 용어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북측 용어를 기준으로 남측 용어를 제시하였다.

〈표 6〉『남북의료용어집-외과』 본문

남측 한글	남측 영문	북측 한글	북측 영문
동맥관	ductus arteriosus	동맥관	ductus arteriosus
동맥관 개존증	patent ductus arteriosus	동맥관개존증, 동맥관개존	patent ductus arteriosus
동맥관 인대	ligamentum arteriosum	동맥인대	ligamentum arteriosum
동맥 파리	aneurysm	동맥류	aneurysm
동맥 내막염	endarteritis, endoarteritis	동맥내막염	endarteritis
동맥 내막 절제	endarterectomy	동맥내막절제, 동맥내막절제술	endarterectomy

의료 분야에서 외과로 한정한 것은 외과가 의학에서 기초가 되는 핵심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널리 쓰이는 '내외산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줄임말로, 의학의 기본을 이루며 이른바 서양 의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일생에 빗대어 표현하면 인간이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고(산부인과) 성장하면서(소아청소년과) 내외적 상황에 의해서 치료를 할 때 약(내과) 또는 수술(외과)로 치료한다. 외과는 의학을 이루는 가장 큰 뿌리라 할 수 있다. 의학의 발전 역사나 우리 몸에 대한 이해, 환자인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분야라는 점에서 외과 분야의 용어집은 중요하다. 남북 외과 용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용어집을 발간함으로써 남과 북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외과에 관한 소통을 활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난제 분석 및 해결 방안 탐색

4.1. 남측 용어에서 규범과 실제 간 괴리 문제

남측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준 정보이자 용어집의 표제어가 되므로 용어 목록화 작업은 무엇보다 공을 들여야 한다. 우선 저본으로부터 의료 용어 범주에 알맞은 용어를 추출하고 정제하여 용어 목록을 확정한다. 이 목록은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각 전문가의 분야에 따라 관점이나 의견에 특징이 보인다. 의학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는 의견 중 상당수는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 즉 이른바 현장 용어와 규범 용어 간 차이가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목록에 있는 남측 용어의 실제성을 지적하거나 다른 대체 용어로의 교체나 용어 추가를 제안하곤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용어의 통일화, 표준화, 한글화를 위해 용어집 발간 및 개정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다. 1977년 제1판을 내놓은 이후 개정을 계속하여 2020년 제6판을 내놓았다. 이는 의학 교육 및 의료인 선발 시험으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일종의 표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최신판인 『의학용어집(제6판)』에서는 하나의 개념에 여러 한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되도록 한 용어를 이른바 '권장 용어'로 선정하고 있다. 의학용어집에 실린 용어,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분과별 용어집 및 교과서에 실린 용어가 규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로부터 용어 목록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규범 용어가 더 중점적으로 수록된 결과물이 된다. 저본의 성격에 따라 추출된 용어가 다양하므로 현장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적 의료 체계 내에서의 용어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규범 용어를 중심으로 현장 용어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정보를 수합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용어집 편찬 단계에서 표제어 선정을 할 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의학 전문가, 특히 임상 현장의 전문의들은 일부 규범 용어에 대해서 실제로 잘 쓰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거나 현장에서 더 많이 쓰이는, 대개 관습적 성격의 전(前) 용어를 제시하곤 한다. 의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편찬자의 몫이기는 하나, 의학 전문가가 이런 입장에서 용어를 평가하다 보면 규범 용어가 표제어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배제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1) 갑상선—갑상샘(권장), 흉막—가슴막(권장), 농양—고름집(권장)

예를 들어 위의 동의어 쌍에서 의학용어집 권장 용어인 후자가 어색하다거나 '갑상선, 흉막, 농양'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해당 용어가 구성 요소가 된 경우, 가령 '가슴막삼출, 가슴막염, 가슴막판'이나 '간고름집, 뇌고름집, 폐고름집' 등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의학용어집 권장 용어와 같은 규범 용어 일부가 의료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는 남북 의료 용어 비교 연구에서 다 다루기 어려운 또 다른 영역의 것이다.[6] 이는 남측에서의 전문 용어와 의료 용어 정책 및 용어 다듬기 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도 용어집 표제어로서 적격성을 따져야 하는 고민은 편찬자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표제어 선정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되도록 규범

6 제시된 사례 중 '갑상샘'은 우리말 의학 용어로 제안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고 국어사전에서도 전(前) 용어로 처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아진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갑상샘'을 비롯하여 이것이 구성 요소로 들어간 많은 용어가 있고 여전히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선암-샘암', '선종-샘종, 생식선-생식샘'과 같이 '선(腺)'을 '샘'으로 바꾼 또 다른 용어들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전(前) 용어가 한자어이고 다듬어진 권장 용어가 우리말인 경우 더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용어를 더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전문가 의견과 결정 과정은 비고 항목에 정리해 두어 이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7]

규범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의료 용어의 표기형 문제이다. 이는 국어학 전문가 집단에서 주로 나오는 의견이다. 의학이나 보건의료 전문 용어 사전이나 용어집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저본 형식을 존중하여 남측 용어를 입력할 때 데이터베이스에도 띄어쓰기 미적용 형식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비록 간소화되었기는 하나 의료용어집은 사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표제어 표기가 한국어 어문 규정과 합치될 필요가 있다. 또 두세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예가 많아서 띄어쓰기 미적용 형식이 이용자의 독해, 이해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2) 기관지폐형성이상, 급성세포성거부반응, 저생식샘자극호르몬생식샘저하증
(3) 위급통증 → 위 급통증
장질샛길 → 장 질 샛길
탈장장절개술 → 탈장 장 절개술
경골전점액부종 → 경골전 점액 부종

(2)에서 보듯 여러 단어가 하나의 용어를 구성함으로써 길고 복잡해진 예가 많다. '기관지 폐 형성 이상, 급성 세포성 거부 반응, 저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저하증'과 같이 띄어쓰기를 적용함으로써 가독성의 이점이 생길 수 있다. (3)의 예는 길이가 길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개념을 바로 인식하는 데에 띄어쓰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특히 '위급통증'과 같은 예는 자칫 '위급+통증'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띄어쓰기 적용 형식을 보여 줌으로써 혼란을 없앨 수 있다.

표제어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맞으면서 체계성, 일관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남북 의료용어집은 표제어, 즉 남측 한글 용어의 경

7 용어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더 많이 쓰는 혹은 병용하는 용어에 대한 의견도 종종 있었다. 가령 표제어 '조류 클라미디아증'이 '비둘기병'으로 불린다든지 동의 표제어인 '가락과다증'과 '다지증' 중 실제로는 거의 후자만이 쓰인다든지 하는 것이다.

우 띄어쓰기를 적용한 형식을 수록하였다. 단어마다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사적 요소는 붙이고,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간경화증'과 같이 관습적으로 붙여 씀이 굳어진 일부 예는 인정하였다. 규칙과 의미를 고려해 하나하나의 표제어 형식을 결정하고 전체적인 일관성을 고려하다 보니 표제어에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일은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혹시 띄어쓰기를 엉뚱하게 하여 용어가 나타내는 바를 부정확하게 만들지 않도록 꼼꼼하고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었다.

(4) 낭포성뇨관염, 로인성뼈성김증, 혈구응집억제시험, 경식도심장초음파검사

북측 자료에서 확인되는 용어 역시 위와 같이 모두 붙여 쓴 형식인데, 이는 '조선말 규범집'에 따른 결과이다.[8] 북측 자료에서 확인된 형식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용어집에도 붙여 쓴 형식으로 수록하였다. 결국 남측 용어는 띄어쓰기 적용 형식, 북측 용어는 모두 붙여 쓴 형식의 용어가 용어집에 실리게 되었다.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 외에도 띄어쓰기가 된 표제어를 제공하는 일은 용어집 이용자에게 실제적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표제어 띄어쓰기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 띄어쓰기 외에 표제어 이해도를 높이는 제시 방식도 논의해 볼 수 있다. 가령 표제어에 대한 형태소 분석 정보를 밝히거나 한자 병기를 하는 방안, 주석이나 돋보기 정보 등을 통하여 해당 용어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숫자나 로마자가 개입된 용어를 배제하고 순 한글 용어로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띄어쓰기 적용과 같이 용어집이 사전의 형식, 특히 국어사전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데 바탕을 둔 생각이다. 남북 모두 용어를 추출한 대부분 자료에서는 숫자나 로마자가 들어간 표기형을 필요에 따

8 조선말 규범집에 따르면 여러 명사가 조사 없이 어울려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다소 임의로 쓰고 있다.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이들을 정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1기 매독, 3도 화상' 대신 '일기 매독, 삼도 화상'으로, 'A형 간염, B 세포' 대신 '에이형 간염, 비 세포'로 표기하는 것은 자칫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북측 자료에서 확인된 형식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띄어쓰기를 비롯한 표기형 문제는 결국 의료용어집이 사전, 특히 국어사전의 규범성을 얼마나 따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용어집으로서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추면서 남북 의료 용어의 성격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4.2. 북측 대응어의 양적, 질적 확보 문제

남측 용어 목록과 북측 용어 목록을 각각 완성하여 상호 비교하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접근 가능한 북측 의료 및 전문 용어 자료와 전문가가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최대한 많은 최신의 북측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양적, 질적으로 아주 만족할 만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남측 용어와 『거울 2.0』에서 얻은 북측 용어의 대응률이 예상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북측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개념어를 의외로 찾을 수 없는 일도 있고 더 많은 대응어를 확인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에 아쉬움이 있었다. 또 북측 자료에서 확인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실재성과 정확성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시도를 하였다. 먼저 해당 분야의 주요 의료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북측 자료에서 대응어를 찾을 수 없어서 용어집 표제어로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조합형' 북측 용어를 생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비록 전체 용어 형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개개 구성성분이 북측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된다면 조합형 역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조합형 용어 역시 북측 한글 용어의 범위에 넣고자 한

것이다. 물론 조합형 생성은 부적절한 용어, 오류 발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 범위에서 신중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학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처음 내과 의료용어집을 편찬할 때 이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조합형 생성 방안 자체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이후 생성한 조합형 북측 용어들의 수용성 여부에 대하여 북한 출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5) 북측: 신상선출혈(신상선+출혈) - 남측: 부신 출혈
북측: 간담도신티그람조영법(간담도+신티그람조영법) - 남측: 간담도 섬광 조영

위는 조합형 용어의 예이다. 이러한 용어를 일부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용어집 표제어 구성을 위한 필요 과정이기도 하다. 북측 대응어가 있어야만 표제어로 선정될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대응어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빈칸으로 남겨 두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이는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용어 비교 연구의 한계, 즉 북측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분석력의 한계가 남과 북의 의료 격차로 이해됨으로써 북측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오독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예상된다. 조합형 생성은 제한적 범위에서 전문가의 교차 검증이 엄밀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내과 용어집에 아주 일부가 반영되었고, 북측 용어가 조합형임을 표시하는 기호를 넣어 주었다.

조합형이 아니더라도 북측 자료에서 확인된 대응어는 모두 의학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이는 남측 용어와 북측 용어의 대응 정확성을 다시 확인하고 북측 의료 용어의 실재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북측 용어에 대한 검증은 북측의 의학자, 용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재북 시 의료인이자 현재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용어 간 대응 관계에 이상이 있다거나 자료에서 확인된 북측 용어가 어색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해당 용어가 아닌 다른 더 적절한 용어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북측 의료 용어 하나하나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북측 용어 검증 과정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무조건 반영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주로 북측 의학 논문 및 단행본, 의학 잡지 등의 자료를 찾아 해당 용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거울 2.0』에서 등재된 용어와 전문가가 새로 제안한 용어를 병기하기로 결정하거나 새로 제안한 용어만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6)

남측	북측
위 무긴장증	위이완증
콩팥잔	콩팥잔
다한증	땀과다증, 땀많음증

⇒

남측	북측
위 무긴장증	위무력증, 위이완증
콩팥잔	신잔, 콩팥잔
다한증	다한증

위에서 보듯 '위 무긴장증, 콩팥잔'의 북측 대응어는 기확인 용어와 전문가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드물기는 하지만 '다한증'과 같이 전문가 의견으로 기확인 용어를 대체하여 인정한 예도 있다.[9]

북측 용어에 대한 검증 방식은 북측 대응어의 적절성을 검사하는 데에 북측의 전문가 공백을 메우는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매우 좁은 점도 분명한 한계이다. 북측 용어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재북 시 의과대학에서 수학하고 임상 경험이 있었지만 북에서의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경력이 많더라도 본인의 전문 진료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검토 과정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남북 의료용어집은 남과 북에서 기발간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 검토하여 편찬되었으나 용어의 최신성, 현장성 등을 담보하는 데에서는 미

9 북측 자료에서 '손바닥다한증때 흉부교감신경절제술후 대상성땀나기를 줄이기 위한 림상적연구, 다한증치료에 직류이온도입료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어린이정신성다한증의 발병동태에 관한 림상적연구' 등과 같이 '다한증'이 쓰인 여러 논문을 볼 수 있었으나, '땀과다증, 땀많음증'의 용례는 전혀 찾지 못하였다. 이 두 용어가 『거울 2.0』에서 확인되고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다한증'의 다듬은 의학 학술용어로서 '땀많음증'을 제안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 의견과 실제 쓰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 의견 중 상당수는 북측 용어에 대해서 기확인된 우리말 용어보다는 한자어 용어가 더 자연스럽다는 내용이었다.

흡한 측면이 있다. 북측 용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확보할 수 있는 북측 자료의 양과 질에 한계가 있고 실제 북측의 의학 전문가, 언어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감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필히 해소되어야 한다. 실제 북측 전문가와 교류하여 미래에는 공동 편찬팀을 구성하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2019년 11월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를 통해 감염병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 남과 북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COVID-19에 대해 전 세계가 대응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환에 대한 개념, 분류와 명명 같은 부분에 대한 표준화 및 대응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특정 질환에 대한 기표가 불일치한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상이한 용어 체계는 국가 간 역학 자료의 공유, 감시 체계의 연계를 포함한 방역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실행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질환 분류, 질환 발병 양상에 대한 기술, 중증도 판단 기준 등에서 용어가 대응되지 않게 되면 협력을 통한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결국 의료 용어의 정비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해 공동 대응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분단 80년간 남과 북은 감염성 질환을 위한 백신, 비감염성 질환 치료제와 재활 치료법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 서로가 공식적인 임상 연구 파트너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향후 교류 협력이 원활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남과 북이 함께 관련 임상 연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연구 설계부터 연구 진행 및 결과 도출, 기술과 신약 개발 전반에 걸쳐 대응되는 용어 체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치료 반응', '부작용', '복합 질환', '대상자 제외 기준' 등에 관한 용어가 대응되지 않는다면 연구 진행 및 결과 데이터 비교, 데이터 통합, 결과 분석과

검증이 어렵게 된다. 표준화된 의료 용어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북측은 고려의학을 진료 및 진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역사 또한 깊기 때문에 천연물 기반의 약품 활용 및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첨단 신약 개발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남과 북의 협력은 '전통'과 '첨단'의 융합과 협력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관련 보건의료 용어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고려약과 고려약 성분을 함께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용어를 포함한 필요 요소의 표준화를 통해 천연물 성분의 분류, 효능 평가, 독성 기준 등에 대한 공동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남북 용어의 정비는 남과 북의 협력을 위한 기초 인프라에 해당한다. 남측에서 먼저 시작한 남북 의료용어집 편찬 사업은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열어 주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남북이 한데 모여 그간 달라진 의료 용어를 맞추어 간다면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를 향한 길도 점점 더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

권재일(2015)「남북한 언어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안」,『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김영훈(2018)「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김영훈(2019)「남북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준비: 남북 의학 용어사전 편찬 사업」,『대한의사협회지』62-10, 506-511.

김영훈 외(2020)『남북의료용어집 발간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영훈 외(2021)『남북감염학용어집 발간 연구』, 통일부.

김주한(2014)「북한의 의학 용어」,『제33회 의학 용어 원탁토론회 자료집』, 대한의사협회.

김하수(1993)「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언어의 차이」,『대한의학협회지』36-5, 대한의사협회.

김형규(1993)「남북한 임상의학 용어 비교」,『대한의학협회지』36-5, 대한의사협회.

도원영·김영훈(2023)「남북 의학 용어 통합의 현황과 과제」,『북한 보건의료 연구와 교류 협력』,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도원영·박주원·하신·김숙정(2025)「남북 감염학 용어의 언어적 분석과 향후 연구의 시사점 -남북감염학용어집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 63,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7-36.
민득영(1993)「남북한 기초의학 용어 비교」,『대한의사협회지』 36-5, 대한의사협회.
박주원·김숙정·도원영(2021)「남북 의료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쟁점과 실제」,『한국사전학』 38, 한국사전학회.
손승국(2014)「북한의 의학 용어 발전과정: 외과계 용어 중심으로」,『제33회 의학 용어 원탁토론회 자료집』, 대한의사협회.
신중진(2020)『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 결과 정리 및 자료집 발간』, 국립국어원.
은희철·송영빈·정인혁(2015)『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 커뮤니케이션북스.
전우택(2018)「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박영사.
정인혁(1993)「북한의 학술용어」,『대한의사협회지』 36-5, 대한의사협회.
정한데로(2021)「의학 전문용어의 말 다듬기와 단어 형성」,『언어와 정보 사회』 42,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37.
지제근(1993)「우리나라 의학 용어」,『대한의사협회지』 36-5, 대한의사협회.
지제근(2011)「의학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지제근(2014)「지정 토론 1: 북한의 의학 용어」,『제33회 의학 용어 원탁토론회 자료집』, 대한의사협회.
최유숙·양명희·이찬규·임현열(2015)「남북 언어 통합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다문화콘텐츠연구』 1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395-426.
하신·이요한(2023)「북한 의학자료의 수집과 활용」,『북한 보건의료 연구와 교류 협력』,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홍윤표(2017)「남북한 의학 용어 통일의 과제와 방안」,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간담회 발표문.
홍윤표(2018)「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남북·국외 한국어 자원 수집 및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좌담회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사전 및 용어집

고려대학교(2021)『남북의료용어집_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려대학교(2021)『남북감염학용어집』, 통일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2025)『남북의료용어집_외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원(2022)『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국립암센터·통일부(2020)『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사례집』.

대한외과학회(2017)『외과학(Textbook of Surgery)(제2판)』, 군자출판사.
대한외과학회(2022)『외과학용어집(제2판)』, 아카데미아.
대한의사협회 남북한 의학용어 비교연구소위원회(1996)『남북한 의학용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2020)『의학용어집(제6판)』, 군자출판사.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2020)『남북전통약재기원사전』.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2021)『남북전통의학용어-비교 정리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2010)『조선말규범집』, 평양:사회과학원 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2001)『외국말적기법』, 평양:사회과학원 출판사.
통일간호포럼 간호학용어집위원회(2018)『남북한 간호학 용어집(1권)』, 대한간호협회.

洪武正韻譯訓의 反切再解釋

- 韻類를 중심으로

A New Interpretation of the Fan-ch'ieh in Hongmu-chŏngun-yŏkhun

라이너 도멜스*

빈 대학교

1. 서문

洪武正韻譯訓(1455)은 洪武正韻(1375)의 小韻 앞에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달았는데, 이 洪武正韻譯訓의 注音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韻書에서 한자의 音을 표기하는 방법은 反切이기 때문에, 이 反切들을 系聯하여 聲類와 韻類 체계를 연구하게 된다.

2. 洪武正韻譯訓의 初聲과 反切上字와의 관계

洪武正韻譯訓의 初聲과 反切上字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應裕康(1970), 김무림(1990), Dormels(1997) 등이다.

反切系聯法을 기반으로 60개의 聲類가 작성되었고, 이는 洪武正韻譯訓의31 聲母로 분류되었다. 아래의 표는 洪武正韻譯訓의 31聲母와 反切上字를 표기하고 있다.[1]

---

*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Univ.-Prof.i.R.)
E-mail: rainer.dormels@univie.ac.at

1 둘째 칸에는 初聲의 번호, 初聲字, 譯訓에 적힌 初聲의 훈민정음표기를 각각 기입하였다 . 그 다음 칸에는 反切系聯法에 따라 정해진 聲類(예를 들어 見(I))를 기입하였다. 그 옆에 해당 反切上字를 표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Dormels(1997: 35-52, 222-241) 참조.

牙音	1見ㄱ	**見(I)** 古,姑,公,沽,攻; **見(II)** 居,擧,堅,經,九,厥,斤,柯,規,圭,涓,佳,嘉,葛,各,俱; **見(III)** 吉,訖,激
	2溪ㅋ	**溪(I)** 苦,丘,口,驅,枯,去,乞,區,詰,空,曲,窺,祛,欺,克,牽,康,墟,孔,可,犬,棄
	3群ㄲ	**群(I)** 渠,具,其,逵,忌,求,祁,奇,琦; **群(II)** 巨,極,臼,竭
	4疑ㆁ	**疑(I)** 五,阮; **疑(II)** 吾,訛; **疑(III)** 語,偶; **以(IIa)** 魚,牛,俄,虞,牙,越
舌頭音	5端ㄷ	**端(I)** 都,丁,多,當,得,德,東,典,董,覩
	6透ㅌ	**透(I)** 他,吐,土,湯,託,佗,天,通,台,惕,逖
	7定ㄸ	**定(I)** 徒,杜,唐,堂,待,蕩,大,度,達,同,亭,田,獨,陁,敵
	8泥ㄴ	**泥(I)** 奴,那,年,農,囊,寧,弩; **泥(II)** 乃,曩; **泥(III)** 女,尼,昵
脣重音	9幫ㅂ	**幫(I)** 補,博,布,邦,搏,兵,陂,彼,比,伯; **幫(II)** 逋,卑,悲,邊,奔,晡,班; **幫(III)** 必,壁,北
	10滂ㅍ	**滂(I)** 普,滂,鋪,丕; **滂(II)** 匹,僻; **滂(III)** 披,紕,篇
	11並ㅃ	**並(I)** 蒲,部,步,毗,薄,皮,婢,裴,備,簿,避,弼
	12明ㅁ	**明(I)** 莫,謨,眉,母,彌,忙,弭,綿,美,蒙,靡,覓,末,密
脣輕音	13非ㅸ	**方(I)** 方,敷,芳,甫,俯,孚,斐,府,妃,撫
	14奉ㅹ	**奉(I)** 符,房,扶,逢,馮,防
	15微ㅱ	**微(I)** 無,文,武,微,罔,亡,巫
齒頭音	16精ㅈ	**精(I)** 子,卽,祖,則,作,宗,牋,遵,租,再,摠,節,贇; **精(II)** 將,資,臧,津,玆,咨,積,足,縱
	17淸ㅊ	**淸(I)** 七,遂,且,趨,戚; **淸(II)** 倉,千,寸,村,遷,促,蒼; **淸(III)** 此,取,采,雌
	18從ㅉ	**從(I)** 疾,昨,族,靖; **從(IIa)** 徂,叢,坐; **從(III)** 才,慈,在,秦,牆,前,財,盡,齊,情
	19心ㅅ	**心(I)** 蘇,先,桑,孫,損,素,寫,雪; **心(IIa)** 息,思,須,相,悉,想,新,斯,私,聳,司,昔
	20邪ㅆ	**邪(I)** 徐,似,詳,祥,旬,象,隨,詞,席; **心(IIb)** 松2
正齒音A	21照ㅈ	**陟(II)** 側,莊,阻,壯
	22穿ㅊ	**丑(II)** 楚,初,創,測,叉1
	23牀ㅉ	**直(III)** 助,牀,狀; **從(IIb)** 鉏,鋤,雛,茶,查; **禪(IIa)** 士
	24審ㅅ	**(審II)** 色,朔; **審(IaA)** 所,師,數,山,疏,踈,沙
正齒音B	21照ㅈ	**陟(I)** 之,職,止,陟,朱,諸,知,竹,章,質,旨,珍,專,甾,緇,腫,主,展,支,征,株
	22穿ㅊ	**丑(I)** 昌,丑,尺,抽,齒,蚩,敕,樞,稱,敞,恥

	23牀 ㅉ	**直(I)** 直,除,丈,呈,柱,長,仲,杖,治; **直(IIa)** 持,陳,池,重,馳
	24審 ㅅ	**審(IaB)** 式,始,尸,詩,失,輸,書,商,舒,申,升,賞,矢,施
	25禪 ㅆ	禪(I) 時,殊,神,丞,承,辰,尙,寔; **禪(IIb)** 上,是,視,善,仕,市; **直(IIb)** 食,裳,石,常; **審(Ib)** 實
喉音	26影 ㆆ	**影(I)** 烏,汪,委; **影(II)** 於,乙,伊,衣,紆,一,依,倚,遏,因,隱,安,鴉,嫗,鄔,迂,益,阿; **以(IIb)** 縈,淵
	27曉 ㅎ	**曉(I)** 呼,荒,翾,忽,霍; **曉(II)** 虎,火,毁; **曉(III)** 許,虛,休,吁,醯,況,馨,詡,香,曉; 曉(IV) 迄,黑
	28匣 ㆅ	**匣(I)** 胡,下,戶,侯,乎,形,弦,洪,雄,奚,湖,亥,華,狹,叶,轄,刑,穫; 匣(II) 何,河,寒,曷; 以(IIc)熒
	29喩 ㅇ	以(I) 以,尹,羕; 以(IId) 于,餘,余,雲,云,爲,爰,王; **以(IIe)** 寅; **以(III)** 弋,夷,宜,倪,延,移,羽,羊,逆,硏,庾,禹,鄢
半舌音	30來 ㄹ	**(來I)** 盧,良,龍,里,兩; **(來II)** 力,郎,魯,落,歷,洛,劣; **(來III)** 離,鄰,凌,靈,閭,連,犁
半齒音	31日 ㅿ	**日(I)** 而,如,儒,人,日; **日(II)** 忍,爾,乳,汝

Dormels(1997)는 위 도표에서 보듯이 이전 연구와 달리 正齒音을 A와 B로 분류한다. 그러나 反切上字가 A 또는 B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洪武正韻譯訓의 初聲에는 차이가 없다(ㅈ ,ㅊ ,ㅉ ,ㅅ 등). 단, A와 B의 구별은 어떤 中聲이 어떤 初聲을 따르는지 조사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60개의 聲類 중 6개는 洪武正韻譯訓에서 한 개 이상의 初聲이 있다.

從2	心2	直2	禪2	審1	以2
ㅉ & ㅉ	ㅅ & ㅆ	ㅉA & ㅆ	ㅉ & ㅆ	ㅅA & ㅅB & ㅆ	ㅇ & ㅇ & ㆆ & ㆅ

결과, 洪武正韻譯訓의 31 聲母의 귀납은 단순한 反切上字의 系聯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對譯音의 初聲과 反切上字가 깊은 관계에 놓여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洪武正韻譯訓의 中聲과 反切下字와의 관계

3.1. 서문

武正韻譯訓의 운류와 洪武正韻의 反切下字를 대조한 연구는 Dormels (1997; 2010)[2] 와 조운성(2015a)이 있다. Dormels(1997)는 洪武正韻譯訓音을 切韻指掌圖(1176-1203), 洪武正韻의 反切, 古今韻會擧要(1297)의 字母韻과 전반적으로 비교한 뒤,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들이 反切을 무시하지 않았고,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체계적으로 참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운성 (2015a) 에서는 洪武正韻 154운류와 洪武正韻譯訓의 161운류를 전반적으로 비교한 결과, 동일한 음운 현상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洪武正韻譯訓의 운모 체계가 洪武正韻의 反切下字를 따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洪武正韻譯訓의 中聲과 反切下字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3.2. 聲類확립을 위한 洪武正韻譯訓 규칙

反切下字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가 韻에 따라 中聲과 終聲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설정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終聲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韻	平聲, 上聲, 去聲	入聲
1, 17, 18	ㅇ	ㄱ
2, 3, 4, 5, 6, 7, 14, 15, 16	終聲 없음	
8, 9, 10, 11	ㄴ	ㄷ
12, 13, 19	ㆁ	
20, 21, 22	ㅁ	ㅂ

2 Dormels(2020)는 Dormels(1997)를 개정한 것이다.

中聲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동일한 終聲의 경우에 동일한 中聲은 하나의 韻에만 나타날 수 있다.
- 韻마다 최대 4개의 中聲을 사용할 수 있다. 또 四呼 "開(-i,-u), 齊(+i,-u), 合(-i,+u), 撮(+i,+u)"당 최대 하나의 中聲만 사용할 수 있다.[3]

	1	17	18	2	3	4	5	6	7	14	15	16	8	9	10	11	12	13	19	20	21	22
	東	陽	庚	支	齊	魚	模	皆	灰	歌	麻	遮	眞	寒	刪	先	蕭	爻	尤	侵	覃	鹽
終聲	ㅇ	ㅇ	ㅇ										ㄴ	ㄴ	ㄴ	ㄴ	ㅁ	ㅁ	ㅁ	ㅁ	ㅁ	ㅁ
開		ㅏ	ㅓ	ㅡ				ㅐ		ㅓ	ㅏ		ㅡ	ㅓ	ㅏ			ㅏ	ㅡ	ㅡ	ㅏ	
齊		ㅑ	ㅣ	ㅣ	ㅖ			ㅒ			ㅑ	ㅕ	ㅣ		ㅑ	ㅕ	ㅕ	ㅑ	ㅣ	ㅣ	ㅑ	ㅕ
合	ㅜ	ㅘ	ㅟ				ㅜ	ㅙ	ㅟ	ㅝ	ㅘ		ㅜ	ㅝ	ㅘ							
撮	ㅠ		ㅟ			ㅠ						ㅝ	ㅠ			ㅝ						

3.3. 단계 1: 韻類 형성

洪武正韻譯訓의 중성과 反切下字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韻別로 反切下字를 가려내어 系聯시켜 韻類를 아래와 같이 만든다. 예를 들면 東韻 (平聲)에서 反切下字를 反切系聯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韻類로 나눌 수 있다.

- (1) 紅(胡公切+古紅切), 冬(德紅切), 公(古紅切), 洪(胡公切), 宗(祖冬切)
- (2) 容(以中切), 中(陟隆切), 隆(良中切) 宮(居中切)

紅, 冬, 公, 洪 宗등은 韻類 東1에 속하고 容, 中, 隆, 宮등은 韻類 東2에 속한다.

하지만 韻類를 만드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東韻 (入聲六韻)에서 反切下字를 反切系聯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韻類로 나눌 수 있다.

- (1) 谷(古祿切+余六切), 祿(盧谷切), 沃(烏谷切), 毒(杜谷切+都毒切) / 玉(魚欲切), 六(盧谷切), 竹(之六切), 欲(余六切)
- (2) 木(莫卜切), 卜(博木切)

3 洪武正韻譯訓의 中聲 표의 韻은 終聲에 따라 분류되었다. 첫 번째 열의 숫자는 22 개의 洪武正韻(譯訓)의 韻을 나타낸다. 두 번째의 열에는 韻 (平聲)의 代表字가 기입되었다.

木, 卜등은 韻類 六1에 속하지만, 谷, 祿, 沃, 毒 등도 예외적으로 韻類 六1에 속하고 玉, 六, 竹, 欲 등은 韻類 六2에 속한다.

그래서 韻 1은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1	東	董	送	六
韻類 1-1	(1)紅,冬,公,洪,宗	(1a)動,總,摠,董,孔,湩	(1)弄,貢,送,鳳,凍	(1a)谷,祿,沃,毒 (2)木,卜
韻類 1-2	(2)容,中,隆,宮	(1b)隴 (2)勇,竦,拱	(2)用,頌 (3)仲,衆	(1b) 玉,六,竹,欲

동일한 反切下字를 가진 小韻의 경우 여러 韻類에 분류된 예외도 있다. 이 예외의 경우는 韻 2, 8, 9, 10, 14, 15, 16에 적용된다.(Dormels 2020; 16-18).

예를 들어 反切系聯法에 따라서 韻類 9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9	寒	旱	翰	葛
韻類 9-1	(1)干,寒	(1)罕,旱,滿	(1)幹,汗	(1)葛,曷,末,撥
韻類 9-2	(2)官,歡,潘	(2)管,緩	(2)玩,亂,換,貫, 筭 (3)漫,半	(2)括,活

하지만 脣重音의 경우 韻類 9-1과 韻類 9-2에서 小韻이 불균등하게 분류되었다.

9脣重音	平聲	上聲	去聲	入聲
韻類 9-1		蒲滿切 ㅃ ㅝ ㄴ 莫旱切 ㅁ ㅝ ㄴ		北末切 ㅂ ㅝ ㄷ 蒲撥切 ㅃ ㅝ ㄷ 莫葛切 ㅁ ㅝ ㄷ
韻類 9-2	逋潘切 ㅂ ㅝ ㄴ 鋪官切 ㅍ ㅝ ㄴ 蒲官切 ㅃ ㅝ ㄴ 謨官切 ㅁ ㅝ ㄴ		博漫切 ㅂ ㅝ ㄴ 普半切 ㅍ ㅝ ㄴ 薄半切 ㅃ ㅝ ㄴ 莫半切 ㅁ ㅝ ㄴ	普活切 ㅍ ㅝ ㄷ

脣重音을 初聲으로 가진 小韻은 韻類 9-2의 경우 平聲, 去聲, 入聲에 있지만 韻類 9-1의 경우에는 上聲과 入聲에만 있다. 四聲들을 병렬로 만들기 위해 脣重音을 初聲으로 가진 小韻을 韻類 9-1에서 韻類 9-2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9脣重音	平聲	上聲	去聲	入聲
韻類 9-1				
韻類 9-2	逋潘切 ㅂ ᅯ ㄴ 鋪官切 ㅍ ᅯ ㄴ 蒲官切 ㅃ ᅯ ㄴ 謨官切 ㅁ ᅯ ㄴ	蒲滿切 ㅃ ᅯ ㄴ 莫旱切 ㅁ ᅯ ㄴ	博漫切 ㅂ ᅯ ㄴ 普半切 ㅍ ᅯ ㄴ 薄半切 ㅃ ᅯ ㄴ 莫半切 ㅁ ᅯ ㄴ	北末切 ㅂ ᅯ ㄷ 普活切 ㅍ ᅯ ㄷ 蒲撥切 ㅃ ᅯ ㄷ 莫葛切 ㅁ ᅯ ㄷ

그 결과 反切下字 旱과 葛을 가진 小韻은 韻類 9-1 에서 뿐만 아니라 韻類 9-2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反切下字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9	寒	旱,	翰	葛
韻類9-1	(1)干,寒	(1a)罕	(1)幹,汗	(1a)曷
韻類 9-2	(2)官,歡,潘	(1b)滿 (2)管,緩	(2)玩,亂,換,貫,筭 (3)漫,半	(1b)末,撥 (2)括,活
韻類 9-1 & 9-2		(1c)旱		(1c)葛

이러한 방식으로 22韻에서 44韻類가 분류되었다.[4]

1	東	董	送	六
韻類 1-1紅孔貢谷	(1)紅,冬,公,洪,宗	(1)動,總,摠,董,孔,湩	(1)弄,貢,送,鳳,凍	(1)谷,祿,沃,毒; (2)木,卜
韻類 1-2 中勇用玉	(2)容,中,隆,宮	(1)隴; (2)勇,竦,拱	(2)用,頌 (3)仲,衆	(1) 玉,六,竹,欲

2	支	紙	寘
韻類2-1 知止智	(1)而,之,支,知,夷,宜; (3)眉,麋,皮; (4)非,微	(1)紙,指; (2)几,里,綺,弭,靡; (2+4)比; (4)委,軌; (5)尾,匪	(1)義,智,志,至,意,戲,弊; (3)例,制,計,捶; (5)寄; (6)媚; (7)沸,未; (8)臂,轡
韻類2-2 玆似四	(2)玆,咨,私,資	(3)似,子,姊	(1)二; (2)四,漬; (4)寺
韻類1-2 & 2-2		(1)氏,止	(4)吏;

4 (2+4) 比는 比가 두 개의 反切, 즉 하나는 (2) 그리고 다른 하나는 (4)에 속하는 反切을 가진다는 뜻이다.

3	齊	薺	霽
韻類3 西禮計	(1)西,齊; (2)黎,兮,題,奚,溪,雞,迷,畦	禮,里,以	(1)計,詣,霽,例; (2)利,地; (3)冀,器

4	魚	語	御
韻類4 於呂據	居,俱,虛,於,余,魚,朱,如,須	許,渚,語,呂,擧,與,庾,主	據,茹,遇,御,慮,豫

5	模	姥	暮
韻類5 胡古故	(1)胡,模,謨,孤,乎; (2)蘇,租,徂; (3)徒,都; (4)無,夫	補,五,古,魯,苦,土,所,祖,武	(1)故,祚,助,慕,暮; (2)父

6	皆	解	泰
韻類6-1 來亥蓋	(3)來,才; (4)哀,開	(3)改,亥,宰	(1)蓋,耐,代,奈,帶,大
韻類6-2 皆買邁	(1)諧,皆	(1)買,蟹; (2)楷,駭	(2)邁,懈,拜,戒
韻類6-3 懷 x塊	(2)懷,乖		(2)怪,塊,夬,壞,賣

7	灰	賄	隊
韻類7 佳委痕	(1) 回,魁,瑰,杯,威,枚; (1+3)追,綏,垂; (2)爲,嫣,圭; (3)惟,佳	罪,賄,浼,猥,委,蘂,累,癸,水,軌,偉	(1)對,內; (2+1)銳,芮,稅 (3)遂,醉,類,萃; (4)佩,昧,妹; (5)桂,胃,位,瑞,僞,恚,睡,媿; (6)外; (7)季

8	眞	軫	震	質
韻類8-1 鄰忍刃質	(1)人,眞,鄰,辛, 民,賓,珍; (4)銀,巾,斤	(1)忍,軫,盡,謹	(1)刃,振,僅,進, 晉,遴,覲,吝	(1)日,質,栗,吉, 密,筆,乞,訖; (3)七,悉,乙
韻類 8-2 倫允閏律	(2)倫,春; (3)分,云,文	(1)隕,允; (2)粉,蘊; (1+2)吻	(2)閏,順,峻 (4)運,問,慍	(2)律,戌 (5)拂,勿
韻類 8-1 & 8-2		(1)敏		
韻類8-3 昆本困沒	(5)尊,昆,渾,魂, 奔,孫	(3)本,袞	(3)悶,困,寸	(6)勃,沒; (7)骨,訥,忽
韻類 8-4 痕懇恨瑟	(6)詵,臻; (7)恩,痕,根	(4)懇,狠	(5)艮,恨	(4)瑟,櫛

9	寒	旱,	翰	葛
韻類9-1 寒旱幹葛	(1)干,寒	(1)罕	(1)幹,汗	(1)曷
韻類 9-2 官管玩括	(2)官,歡,潘	(1)滿; (2)管,緩	(2)玩,亂,換,貫, 筭; (3)漫,半	(1)末,撥; (2)括,活
韻類 9-1 & 9-2		(1)旱		(1)葛

10	刪	産	諫	轄
韻類10-1 丹但贊轄	(1)姦,顏,閑,山, 丹	(1)簡,産,限,但,亶	(1)晏,贊,莧,襉	八,轄,煞,黠,戛, 瞎, 拔
韻類 10-2 還版患滑	(2)干,闌,壇; (3)關,還,頑,班	(2)版,綰,板	(1)販 (2)患,慣,爛,貫, 旦	達,滑,發,伐
韻類 10-1 & 10-2	(1)艱		(1)諫	

11	先	銑	霰	屑
韻類11-1 延典甸列	(1)前,先,眠,堅,天, 肩; (2)連,年,田; (3)然,延,焉	(1)典,珍,幰; (2)免,辨; (4)演,踐,善,淺; (5)輦,展,蹇	(1)見,甸,面,線,練, 電,箭,碾,建; (2)戰,膳	(1)結,列,屑,熱,薛 ,歇,蔑,竭
韻類 11-2 緣兗絹劣	(4)淵,圓,涓,緣,全, 宣,權,員	(3)泫,犬; (4)兗,轉,卷; (6)遠,阮	(1)眷,絹,怨,願,掾, 眩,戀,轉	(2)月,厥,決,悅; (3)劣,(蔫),輟; (4)絶,雪

12	蕭	篠	嘯
韻類 12 招了弔	(1)彫,聊,倏,消; (2)堯,妖,遙,招,鑣,昭,驕	(1)了,皎,鳥,小,杳; (2)少,紹,召,沼	弔,嘯,笑,肖,照,廟,妙,召

13	爻	巧	效
韻類 13-1 交巧教	(1)交,肴	(1)絞,巧,鮑,飽	(1)孝,教,效,恔,報
韻類13-2 刀皓到	(2)褒,毛; (3)刀,高,勞,曹	(2)老,皓,浩,皓,早	(2)到,號,導

14	歌	哿	箇
韻類 14-1 何可箇	(1)何,歌	(1)我,可	(1)荷,个,箇,佐,賀
韻類14-2 禾果臥	(2)禾,戈,波		(1)過
韻類 14-1 & 14-2		(2)果,火	(1)臥

15	麻	馬	禡
韻類 15-1 加下駕	(1)加,巴,牙	(1)下,雅	(1)駕,嫁,亞,訝,架,罵
韻類15-2 瓜瓦霸	(2)瓜,華	(2)寡	(1)霸,化; (2)挂,畫,吳
韻類 15-1 & 15-2		(2)瓦	

16	遮	者	蔗
韻類 16-1 遮野夜	(1)奢; (2+1)邪,嗟	野,者	夜,射,謝
韻類16-2 靴xx	(1)靴		
韻類 16-1 & 16-2	(1)遮		

17	陽	養	漾	藥
韻類 17-1良兩亮灼	(1)章,良,羊,張, 江	(1)兩,獎,仰,掌, 紡	(1)亮,仗,向	(1)灼,略,虐; (3)却,約,雀,縛
韻類17-2 光往放郭	(2)房,方,王; (5)光,黃,旁	(2)往,枉; (4)廣,滉	(1)放,況,況; (3)謗,曠	(4) 博,郭
韻類 17-3 郎黨浪各	(4)郎,堂,當,剛	(3)黨,囊,莽,盎, 晄	(2)浪,宕	(4)各,鶴
韻類17-4 莊 項降角	(3)莊,霜	(5)項,講	(4)巷,降,絳	(2)角,岳,覺

18	庚	梗	敬	陌
韻類 18-1經郢正歷	(3)卿,京,情,盈, 輕,青; (4)丁,經; (6)征,成,呈,陵	(2)永,景,丙,影, 憬; (3)逈,穎,頂,挺, 頃, 郢,井,靜,領, 鼎,庱,拯; (4)幸,耿	(1)慶,正,敬,盛, 孕, 證,應; (2)定,逕; (3)命,映,病	(4)積,迹,亦,昔, 益; (5)歷,力,碧,狄, 逼; (6)隻,石,職; (7)逆,戟; (5+7)擊
韻類18-2庚梗鄧 格	(1)衡,庚,耕; (5)登,騰	(1)杏,梗; (5)等,肯	(4)孟,更,迸,諍; (5)鄧,亘	(2+3)格,頷,窄; (2+7)厄,革; (3)得,則,德,勒, 黑,北
韻類 18-3宏猛x 號	(1)盲,橫,宏,肱	(1)猛		(1)白,伯,陌,虢, 麥
韻類18-4營xx昊	(2)明,兵,平,榮, 營,熒			(8)昊,閶

19	尤	有	宥
韻類 19-1尤九救	(1)求,鳩,蒐,尤,流,留,由,秋,周,休,彪	(1)九,有,酉,糾,久,缶	(1)救,又,富,呪; (2)就,僦; (4)謬,幼
韻類19-2侯口候	(2)鉤,侯	(2)口,斗,后,厚,苟	(3)茂,候,奏,透,豆

20	侵	寢	沁	緝
韻類 20林錦禁入	(1)林,心,沉; (2)針,深,壬,簪,森,斟; (3)禽,音,金,吟	(1)稔,衽,荏,枕,甚; (2)錦,飮	鴆,任,禁,廕	入,立,執,及

21	覃	感	勘	合
韻類 21-1含感濫合	(1)含,南; (2+1)三,甘	(1)禫,感	(1)紺,暗; (2)濫,暫,瞰	(1)閤,盍,沓,合,荅
韻類21-2銜減陷洽	(2)監,啗,咸,銜	(2)斬,減; (3)覽,敢,范,啖	(3)韽,陷,監,鑑; (4)泛	(2)甲,夾,洽

22	鹽	琰	豔	葉
韻類22廉冉豔涉	(1)廉,鹽,占,炎,嚴; (2)兼,嫌	(1)冉,琰; (2)檢,奄,險,撿; (3)點,忝,簟	(1)贍,豔; (2)驗,欠,劒; (3)念,玷	(1)涉,曄,接,葉,輒; (2)協,頰,怯

3.4. 단계 2: 韻類를 유형별로 나누기

洪武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가 洪武正韻의 反切을 따른다면 洪武正韻譯訓의 韻類 속하는 모든 한자가 동일한 中聲을 가지고 있을 것임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 44韻類 중 26개의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이것은 유형 1로 분류된다.

■[유형 1][5]

韻類	洪武正韻譯訓의 中聲
韻類 1-1 (ㅇ/ㄱ 58-2); 韻類 5 (73); 韻類 8-3 (ㄴ/ㄷ 63-2)	ㅜ
韻類 17-3 (ㅇ/ㄱ 65); 韻類 13-2 (ㅱ 46); 韻類 21-1 (ㅁ/ㅂ 55)	ㅏ
韻類 18-2 (ㅇ/ㄱ 70-9)	ㅢ
韻類 2-1 (66-2)	ㅣ
韻類 2-2 (17-1); 韻類 8-4 (ㄴ/ㄷ 15); 韻類 19-2 (ㅱ 45)	ㅡ
韻類 3 (48)	ㅖ
韻類 4 (59)	ㅠ
韻類 6-1 (42)	ㅐ
韻類 7 (92)	ㅟ
韻類 14-1 (40); 韻類 9-1 (ㄴ/ㄷ 21)	ㅓ
韻類 14-2 (29-2); 韻類 9-2 (ㄴ/ㄷ 62-1)	ㅝ
韻類 15-2 (16)	ㅘ
韻類 16-1 (28); 韻類 11-1 (ㄴ/ㄷ 108); 韻類 12 (ㅱ 69); 韻類 22 (ㅁ/ㅂ78)	ㅕ
韻類 16-2 (2) ; 韻類 11-2 (ㄴ/ㄷ 64)	ㅞ

1331 개의 小韻 중 총 19개의 小韻이 유형 1의 규칙에서 벗어난다. 이 19개의 예외 중 9개가 韻類 18-2에 속한다.

■[유형 2]

44개의 韻類 중 18개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中聲을 가진다. 洪武正韻譯訓의 중성과 反切下字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韻類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 18개의 韻類 중 13개에서 우리는 初聲으로서의 牙音과 喉音 뒤에 中聲 "b"가 따르고, 모든 나머지 初聲 뒤에는 中聲 "c"가 따른다는 규칙을 식별할 수 있다.

---

5 韻類 표기 뒤에는 괄호 안에 終聲, 韻類와 연관된 小韻의 총수, 그리고 빼기표 뒤에는 각 유형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小韻의 수가 기입되어 있다. 예를 들면 韻類 1-1(ㅇ/ㄱ 58-2)의 경우에 58개의 小韻 중에 56개의小韻의 中聲은 "ㅜ"이고, 2개의 小韻의 경우는 "ㅠ".

	洪武正韻譯訓에서 牙音&喉音을 따르는 中聲(“b”)	洪武正韻譯訓에서 나머지 初聲을 따르는 中聲(“c”)
韻類17-2 (ㅇ/ㄱ 33)	ㅘ	ㅏ
韻類17-4 (ㅇ/ㄱ 25-4)	ㅑ	ㅏ
韻類18-3 (ㅇ/ㄱ 15-1)	ㅟ	ㅢ
韻類18-4 (ㅇ/ㄱ 12)	ㅝ	ㅣ
韻類6-2 (34-5)	ㅒ	ㅐ
韻類6-3 (10)	ㅙ	ㅐ
韻類15-1 (44); 韻類10-1 (ㄴ/ㄷ 65-1); 韻類13-1 (ㅱ 45); 韻類21-2 (ㅁ/ㅂ 49-2)	ㅑ	ㅏ

332개의 小韻 중 13개의 小韻이 규칙에서 벗어나고(3.9%), 이 13개의 예외 중에서 9개가 韻類 6-2 와 17-4에 속한다.

■[유형 3]

7개의 韻類에서는 脣輕音과 正齒音A 뒤를 中聲 “d”가 따르고, 나머지 初聲 뒤에는 中聲 “e”가 따른다.

	洪武正韻譯訓에서 脣輕音 & 正齒音A를 따르는 中聲 (“d”)	洪武正韻譯訓에서 나머지 初聲을 따르는 中聲 (“e”)
韻類 1-2 (ㅇ/ㄱ 64-3); 韻類 8-2 (ㄴ/ㄷ 63)	ㅜ	ㅠ
韻類 17-1 (ㅇ/ㄱ 80-4)	ㅏ	ㅑ
韻類 18-1 (ㅇ/ㄱ 127-12)	ㅢ	ㅣ
韻類 8-1 (ㄴ/ㄷ 83-2) ; 韻類 19-1 (ㅱ 71); 韻類 20 (ㅁ/ㅂ 73-3)	ㅡ	ㅣ

561개의 小韻 중 24개의 小韻이 규칙에서 벗어나고(4.3%), 이 24개의 예외 중에서 16개가 韻類 17-1과 18-1에 속한다.

■[유형 2]와 [유형 3]

韻類 10-2는 특별한 경우다. 初聲으로서의 牙音, 喉音, 脣輕音, 正齒音A 뒤에 다수의 경우 中聲 ㅘ가 따르지만 나머지 小韻은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中聲 ㅏ가 따른다. 51개의 小韻 중 4개는 중성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예외적인 모습을 보인다. (7.8%)

	牙音,喉音,脣輕音, 正齒音A	나머지
韻類 10-2 (ㄴ/ㄷ 51-4)	ㅘ	ㅏ

결론: 洪武正韻譯訓 의 反切下字 再解釋

韻類는 예외가 그다지 많지 않고 명확하게 정의 할 수 있는 3 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눈에 띈다.[6]

申叔舟의 洪武正韻譯訓 序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今以訓民正音譯之聲與韻諧 不待音和類隔正切回切之繁且勞 而擧口得音 不差毫釐 亦何患乎風土之不同哉

訓民正音으로 된 洪武正韻譯訓이 없었다면 洪武正韻의 音을 읽기 위해서 音和·類隔·正切·回切과 같은 방법의 사용이 필요했을 것임을 洪武正韻譯訓 序에서 추론할 수 있다.

신숙주(申叔舟)는 여기에서 중국에서도 과거에 韻書의 反切과 韻圖 사이의 모순되는 관계를 인식하고 전통적인 音譯을 당시의 현대발음의 음성체계에 맞추기 위해 門法(音和·類隔·正切·回切)을 사용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7]

이러한 배경에서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는 洪武正韻譯訓을 만들면서 洪武正韻의 反切解釋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발명하였다는

6 총 2275개의 小韻 중 60개의 小韻이 위 규칙들을 따르지 않는다 (2.6%).

7 Von Rosthorn(1942)에 의하면 廣韻(1008)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舊韻書에서 初聲 w가 m으로, 初聲 c가 t로 표기되었다면 이를 類隔라 하였다. 이는 初聲을 韻圖의 다음 칸에서 찾을 것을 의미한다. […] 集韻은 이미 전통적인 音譯을 중단하였다… ; 불규칙적인 표기(類隔)는 규칙적인 표기(音和)가 되었다(Von Rosthorn 1942: 12).

추론을 세울 수 있다.

앞의 조사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가 가능하다.

- 韻의 小韻들은 反切下字를 따라44 개의 韻類로 나뉜다.
- 이 韻類는 다시 3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1] : 모든 한자는 中聲 "a"를 가진다.

[유형 2] : 牙音과 喉音의 뒤를 中聲 "b"가 따른다. 모든 나머지 初聲의 뒤는 中聲 "c"가 따른다.

[유형 3] : 脣輕音과 正齒音A의 뒤를 中聲 "d"가 따르고, 모든 나머지 初聲의 뒤는 中聲 "e"가 따른다[8].

3.5. 단계 3: 洪武正韻譯訓의 中聲과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 비교

무엇이 편찬자를 유형2와 3의 규칙을 따르도록 했으며 [유형 1], [유형 2]또는 [유형 3]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는 反切音 재해석을 위해 혹시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어음을 그대로 사용했을까?

四聲通攷의 凡例에는 그러나 다음과 같이 기입되어 있다: 以中國時音所廣用不合圖韻者 逐字書俗音於反切之下.

洪武正韻譯訓의 正音은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것이며 반대로 俗音은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韻圖와 韻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물론 洪武正韻이 여기 속한다. 그런데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들은 어떤 다른 韻圖와 韻書를 참고했을까? 洪武正韻譯訓 序에 다음과 같이 기입되어 있다:

蒙古韻與黃公紹韻會 入聲亦不用終聲何耶 如是者不一 此又可疑者也.

여기에서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가 洪武正韻의 音을 蒙古韻과 韻會의 音과

8 韻類 10-2는 유형 2와 유형 3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비교했음이 명확해진다.

이외에도 蒙古韻과 韻會의 字母韻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금운회거요 앞머리의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에 나오는, "蒙古字韻音同"라는 기록이다.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은 洪武正韻譯訓의 正音의 中聲에 영향을 주었을까? 따라서 古今韻會擧要가 洪武正韻의 反切의 해석을 위한 門法의 구성과 사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洪武正韻譯訓의 音과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비교한다.[9]

洪武正韻과 古今韻會擧要는 서로 다른 韻書이고 다른 音系를 보인다.

〈洪武正韻〉이란 운서는 일종의 南北混合式 音系를 보여 주는 운서여서 明代에도 널리 보급되거나 이용되지 못하였다(姜信沆 1990: 184). 운회는 이중적인 음운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韻書인데, 그 가운데 자모운 체계야말로 당시의 현실음을 반영하고 있다(조운성 2015b: 139).

洪武正韻와 古今韻會擧要에서 비교적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韻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9 첫 번째 칸에는 韻類 및 괄호 안에 유형 번호(1, 2, 혹은 3)와 洪武正韻譯訓의 中聲이 기입되어 있다. 예를 들면 "13-1 (2) ㅑㅏㅏ"이라는 것은 韻類 13-1 초성이 牙音&喉音의 경우에는 洪武正韻譯訓의 中聲인 "ㅑ"이고, 초성 脣輕音& 正齒音A의 경우에 중성은 "ㅏ"이고, 나머지 경우에도 중성은 "ㅏ"라는 뜻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 그 韻類의 小韻의 代表字들이 속하는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이 기입되어 있다. 洪武正韻譯訓의 入聲에 속하는 대표자를 대응하는 字母韻은 대괄호 [穀]에 쓰여 있다. 字母韻 뒤에는 로마자로 된 음가(竺家寧 1987에 따라서)와 훈민정음으로 된 음가(Dormels 2017에 따라서)가 따른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해당 字母韻을 가진 小韻의 수와 비율이 기입되어 있다.

3.5.1. 洪武正韻譯訓내 終聲 ㅇ과 ㅁ을 가진 韻

韻類 ㅇ	牙音 & 喉音	脣輕音 & **正齒音A**	나머지
12 (1) ㅑxㅑ	驍皎叫/ieu/ㅑ9 (53%) 驕矯撟/iau/ㅑ8 (47%)		驕矯撟/ iau/ㅑ31 (63%) 驍皎叫/ieu/ ㅑ18 (37%)
13-1 (2)ㅏㅏㅏ	交絞教/iau/ㅏ 10 (71%) 高杲誥/au/ㅏ 4 (29%)	高杲誥/au/ㅏ 9 (100%)	高杲誥/au/ㅏ 19 (100%)
13-2 (1)ㅏxㅏ	高杲誥/au/ㅏ 16 (100%)		高杲誥/au/ㅏ 29 (100%)
19-1 (3)ㅣㅡㅣ	鳩九救/ iou/ㅣ15 (83%) 樛糾鼸/iəu/ㅖ 3 (17%)	鉤耉冓/ou/ㅡ 10 (67%) 浮婦復/ou/ㅟ 3 (20%) 掊戊/ou/ㅜ 2 (13%)	鳩九救/ iou/ㅣ 37 (100%)
19-2 (1) ㅡxㅡ	鉤耉冓/ou/ㅡ 12 (71%) 鳩九救/iou/ㅣ 5 (29%)		鉤耉冓/ou/ㅡ 22 (81%) 裒掊戊/ou/ㅜ 5 (19%)

韻類 ㅁ/ㅂ	牙音 & 喉音	脣輕音 & **正齒音A**	나머지
20 (3)ㅣㅡㅣ	金錦禁/iə/ㅣ 14 (70%) [訢]/i/ㅣ 5 (25%)	簪譖/ə/ㅡ 4 (44%) [櫛]/ɤ(ə)/ ㅡ 2 (22%) 錦禁/iə/ㅣ 3 (33%)	金錦禁/iə/ㅣ 30 (70%) [訢]/i/ ㅣ 11 (26%)
21-1 (1)ㅏㅏㅏ	甘感紺/a/ㅏ 15 (79%) [葛]/a/ㅓ 4 (21%)	甘/a/ㅏ 1 (100%)	甘感紺&[怛]/a/ㅏ 34 (100%)
21-2 (2)ㅏㅏㅏ	緘減鑑&[憂]/ia/ㅏ 13 (72%) 甘感紺/a/ㅏ 5 (28%)	甘感紺&[怛]/a/ㅏ 14 (100%)	甘感紺&[怛]/a/ㅏ 15 (100%)
22 (1)ㅕxㅕ	箝檢劒&[訐]&[結]/ie/ㅕ 21 (75%) 兼歉歉&嫌&欠/ i/ㅕ 7 (25%)		箝檢劒&[訐]&[結]/ie/ㅕ 48 (100%)

洪武正韻譯訓에서 終聲 ㅇ과 ㅁ을 가진 韻類 중에는 다섯 개가 洪武正韻譯訓에서 [유형 1]을 따른다. 만일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따랐다면 동일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12, 22, 13-2,21-1, 19-2는 古今韻會擧要와 똑같이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유형 1]을 따른다.

韻類	12 (69)	22 (78)	13-2 (46)	21-1 (55)	19-2 (45)
洪武正韻譯訓	ㅕxㅕ	ㅕxㅕ	ㅏxㅏ	ㅏㅏㅏ	ㅡxㅡ
古今韻會擧要	ㅕxㅕ	ㅕxㅕ	ㅏxㅏ	ㅏㅏㅏ	ㅡxㅡ

13-1, 22-1 은 古今韻會擧要와 똑같이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유형 2를 따른다. 19-1, 20은 古今韻會擧要와 똑같이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유형 3을 따른다.

韻類	13-1 (45)	22-1 (49-2)	19-1 (71)	20 (73-3)
洪武正韻譯訓	ㅑㅏㅏ	ㅑㅏㅏ	ㅣㅡㅣ	ㅣㅡㅣ
古今韻會擧要	ㅑㅏㅏ	ㅑㅏㅏ	ㅣㅡㅣ	ㅣㅡㅣ

3.5.2. 洪武正韻譯訓 내 終聲이 없는 韻

洪武正韻 韻 2에서 사용된 몇몇 反切下字는 규칙에 맞지 않게 韻 3 아니면 韻 7에 나열되어 있다. 洪武正韻 韻 7에서 사용된 하나의 反切下字는 韻 6에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韻 2, 3, 6 과 7은 다함께 고려된다. 그러나 먼저 洪武正韻譯訓에서 終聲이 없는 다른 韻類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韻類	牙音 & 喉音	脣輕音& **正齒音A**	나머지
4 (1)ㅠxㅠ	居擧據/iu/ㅠ 21 (100%)		居擧據/iu/ㅠ 38 (100%)
5 (1)ㅜㅜㅜ	孤古顧/u/ㅜ 18 (100%)	孤古顧/u/ㅜ 18 (95%)	孤古顧/u/ㅜ 35 (97%)
14-1 (1) ㅓxㅓ	歌哿箇/o/ㅓ 15 (100%)		歌哿箇/o/ㅓ 18 (78%) 果過/uo/ㅝ 5 (28%)
14-2 (1)ㅝㅝㅝ	戈果過/uo/ㅝ 12 (92%)	過/uoㅝ 1 (100%)	戈果過/uo/ㅝ 13 (100%)
15-1 (2)ㅑㅏㅏ	嘉賈駕/ia/ㅑ 10 (59%) 牙雅訝/a/ㅏ 7 (41%)	牙雅訝/a/ㅏ 10 (100%)	牙雅訝/a/ㅏ 14 (100%)
15-2 (1)ㅘㅘㅘ	瓜寡跨/ua/ㅘ 11 (85%) 卦/uai/ㅙ 2 (15%)	寡/ua/ㅘ 1 (100%)	瓜/ua/ㅘ 1 (100%)

16-1 (1)ㅑxㅑ	迦灺藉/ia/ㅑ 4 (100%)		嗟且借/ie/ㅑ 16 (73%) 迦灺藉/ia/ㅑ 5 (23%)
16-2 (1) ㅖxx	瘸yeㅖ 2 (100%)		

韻類	4 (59)	5 (73)	14-1 (40)	14-2 (29-2)	15-1 (44)	15-2 (16)	16-1 (28)	16-2 (2)
洪武正韻譯訓	ㅠxㅠ	ㅜㅜㅜ	ㅓxㅓ	ㅝㅝㅝ	ㅏㅏㅏ	ㅘㅘㅘ	ㅕxㅕ	ㅖxx
古今韻會擧要	ㅠxㅠ	ㅜㅜㅜ	ㅓxㅓ	ㅝㅝㅝ	ㅏㅏㅏ	ㅘㅘㅘ	ㅕxㅕ	ㅖxx

위 도표에서 15-1을 제외한 모든 韻類는 古今韻會擧要와 똑같이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유형 1을 따른다. 15-1 은 古今韻會擧要와 똑같이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유형 2를 따른다.

韻類	牙音&喉音	脣輕音& **正齒音A**	나머지
2-1 (1)ㅣㅣㅣ	羈己寄/ei/ㅣ13 (93%)	羈己寄/ei/ㅣ7 (100%)	羈己寄/ei/ㅣ35 (81%) 媧軌媿/uei/ ㅟ (19%)
2-2 (1)xㅡㅡ		貲紫恣/ ï/ㅡ 3 (100%)	貲紫恣/ ï/ ㅡ 14 (100%)
3 (1)ㅖxㅖ	雞啓計/i/ㅖ 8 (57%) 羈己寄/ei/ㅣ5 (36%)		羈/己/寄/ei/ㅣ32 (97%)
6-1 (1)ㅐxㅐ	該改蓋/ai/ㅐ 16 (100%)		該改蓋/ai/ㅐ 26 (100%)
6-2 (2)ㅒㅐㅐ	佳解懈/iai/ㅒ9 (56%) 該改蓋/ai/ㅐ 7 (44%)	該改蓋/ai/ㅐ 8 (89%)	該改蓋/ai/ㅐ 6 (100%)
6-3 (2)ㅙㅐㅐ	乖卦/uai/ㅙ 5 (83%) 媿/uei/ㅟ 1 (17%)	蓋/ai/ㅐ 2 (100%)	蓋/ai/ㅐ 2 (100%)
7 (1)ㅟㅟㅟ	媧軌媿/uei/ㅟ 25 (78%) 規癸季/ui/ㅚ4 (13%)	乖掛怪/uai/ㅙ3 (100%)	媧軌媿/uei/ㅟ 50 (98%)

韻類	2-1 (66-2)	2-2 (17-1)	**3 (48)**	6-1 (42)	6-2 (34-5)	6-3 (10)	**7 (92)**
洪武正韻譯訓	ㅣㅣㅣ	xㅡㅡ	**ㅖ xㅖ**	ㅐxㅐ	ㅒㅐㅐ	ㅙㅐㅐ	**ㅟㅟㅟ**
古今韻會擧要	ㅣㅣㅣ	xㅡㅡ	**ㅖxㅣ**	ㅐxㅐ	ㅒㅐㅐ	ㅙㅐㅐ	**ㅟㅙㅟ**

古今韻會擧要를 따랐다면 韻 3의 경우에는 [유형 2] 그리고 韻 7의 경우에는 유형 3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중성은 단 하나의 韻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ㅣ는 이미 韻 2에서, 또한 ㅙ는 韻 6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이 두 中聲은 韻 3 및 韻 7에서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ㅣ와 ㅖ 둘다 齊呼에, ㅟ와 ㅙ 둘다 合呼에 속한다. 같은 운에서 四呼당 최대 하나의 中聲만 사용할 수 있다.

洪武正韻譯訓 내 中聲과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 사이의 차이는 여기에서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가 韻에 따라 中聲과 終聲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3과 2장 참고).

3.5.3. 終聲 ㄴ/ㄷ을 가진 韻

洪武正韻 韻 10에서 사용된 두 개 反切下字는 규칙에 맞지 않게 韻 9에 나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韻 9와 10을 다함께 고려한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終聲 ㄴ/ㄷ을 가진 나머지 韻類을 살펴보도록 한다.

韻類	牙音&喉音	脣輕音 & **正齒音A**	나머지
8-1 (3)ㅣㅡㅣ	巾謹靳/iɘ/ㅣ 8 (35%) [訖]5 iㅣ (22%) 欣緊焮/i/ ㅖ3 (13%) 攈 /yɘ/ ㅠ3 (13%)	謹/ iɘ/ㅣ1 (50%) 艮/ɘ/ ㅡ1 (50%)	巾謹靳&錦 /iɘ/ㅣ 39 (72%) [訖]/ i/ㅣ14 (26%)
8-2 (3)ㅠㅜㅠ	鈞稛攈/yɘ/ㅠ11(55%) [匊]/iu/ㅠ6(30%) 隕運&[聿]/yɘ/ㅠ3(15%)	昆袞睔/uɘ/ㅜ 9 (69%) [穀]/u/ㅜ4 (31%)	鈞稛攈/yɘ/ㅠ18(69%) [匊]/iu/ㅠ8(31%)
8-3 (1)ㅜxㅜ	昆袞睔/uɘ /ㅜ 12 (67%) [穀]/u/ㅜ 5 (28%)		昆袞睔/uɘ /ㅜ 32 (78%) [穀]/u/ㅜ 9 (22%)
8-4 (1)ㅡㅡx	根懇艮/ ɘ/ㅡ 6(75%) 巾靳/ iɘ/ㅣ2(25%)	根&[櫛]/ɘ/ㅡ 5 (100%)	
11-1 (1)ㅕㅕㅕ	鞬蹇建&堅繭見&賢峴現&[訐]&[結] ieㅕ 31 (100%)	鞬/ie/ㅕ 1 (50%) 撰/ua/ㅘ1(50%)	鞬蹇建&堅繭見&[訐]&[結]/ie/ㅕ 62 (100%)
11-2 (1)ㅞㅞㅞ	涓畎睊&[厥]&[玦]/ye/ㅞ 26 (90%)	[玦]/ye/ㅞ2 (100%)	涓畎睊&[玦]/ye/ㅞ 28 (85%)

韻類	8-1 (83-2)	8-2 (63)	8-3 (63-2)	8-4 (15)	11-1 (108)	11-2 (64)
洪武正韻譯訓	ㅣㅡㅣ	ㅛㅜㅛ	ㅜxㅜ	ㅡㅡx	ㅕㅕㅕ	ㅝㅝㅝ
古今韻會擧要	ㅣㅡ/ㅣㅣ	ㅛㅜㅛ	ㅜxㅜ	ㅡㅡx	ㅕㅕ/ㅘㅕ	ㅝㅝㅝ

8-3, 8-4, 11-1,11-2는 古今韻會擧要와 똑같이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유형 1]을 따르고 8-1과 8-2는 古今韻會擧要와 똑같이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유형 3]을 따른다.

韻類 ㄴ/ㄷ	牙音&喉音	脣輕音& **正齒音A**	나머지
9-1 (1)ㅓxx	干笴旰/a/ㅏ16 (76%) [葛]/a/ㅓ5 (24%)		
9-2 (1)ㅝxㅝ	官管貫/o/ㅝ14 (74%) [括]/ua/ㅝ5 (26%)		官管貫/o/ㅝ33 (77%) [括]/ua/ㅝ10 (23%)
10-1 (2)ㅑㅏㅏ	間簡諫&[憂]/ia/ㅑ10 (63%) 干笴旰&[怛]/ a/ㅏ5 (31%)	干笴旰&[怛]/ a/ㅏ11 (92%)	干笴旰&[怛]/ a/ㅏ29 (97%)
10-2 (2&3)ㅘㅘㅏ	關撰慣&[刮]/ua/ㅘ10 (83%) 旰/a/ㅏ2 (17%)	干笴旰&[怛]/ a/ㅏ 11 (73%) 關慣&[刮]/ua/ㅘ 4 (27%)	干笴旰&[怛]/a/ㅏ 20 (95%)

韻類	9-1 (21)	9-2 (62-1)	10-1 (65-1)	10-2 (51-4)
洪武正韻譯訓	ㅓxx	ㅝxㅝ	ㅑㅏㅏ	ㅘㅘㅏ
古今韻會擧要	ㅏxx	ㅝxㅝ	ㅑㅏㅏ	ㅘㅏㅏ

ㅏ는 이미 韻 10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韻 9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ㅏ와 ㅓ는 둘다 동일한 開呼에 속한다. 洪武正韻譯訓에서 韻類 10-2의 경우 脣輕音 뒤에 오는 中聲은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따라가지 않았다.

3.5.4. 洪武正韻譯訓에서 終聲 ㆁ/ㄱ을 가진 韻

韻類ㆁ/ㄱ	牙音&喉音	脣輕音& **正齒音A**	나머지
17-1 (3)ㅏㅏㅑ	**江講絳/ia/**ㅑ 16 (62%) **岡昂鋼/a/**ㅏ 3 (12%) [矍]/ya/ㅛㅕ 2 (7%) **[脚]/yo/**ㅕ 5 (19%)	**昂鋼/a/**ㅏ 3 (50%) **痾/o/**ㅏ 2 (33%) [郭]/uo/ㅘ1 (17%)	**岡昂鋼/a/**ㅏ 20 (43%) **江講絳/ia/**ㅑ 16 (35%) **[脚]&[閣]/yo/**ㅕ10 (22%)
17-2 (2)ㅘㅏㅏ	光廣誑&黃晃/ua/ㅘ17 (71%) [郭]/uo/ㅘ 5 (21%)	岡鋼 /a/ㅏ4 (80%) 壯/o/ㅏ1 (20%)	岡鋼 /a/ㅏ2 (67%) 江/ia/ㅑ 1 (33%)
17-3 (1)ㅏㅏㅏ	岡昂鋼/a/ㅏ13 (68%) [各]/au/ㅏ6 (32%)	壯/o/ㅏ 2 (100%)	岡昂鋼/a/ㅏ23 (74%) [各]/au/ㅏ11 (26%)
17-4 (2)ㅑㅏㅏ	講絳/ia/ㅑ 4 (50%) [覺]/ou(o)/ㅑ 2 (25%) [各]/au/ㅏ 2 (25%)	莊/o/ㅏ 4 (44%) 誑/ua/ㅘ3 (33%) [各]/au/ㅏ1 (11%) [郭]/uo/ㅘ1 (11%)	[郭]/uo/ㅘ3 (50%) 誑/ua/ㅘ 1 (17%) 昂/a/ㅏ 1 (17%) [各]/au/ㅏ 1 (17%)

	17-1 (80-4)	17-2 (33)	17-3 (65)	17-4 (25-4)
洪武正韻譯訓	ㅑㅏㅑ	ㅘㅏㅏ	ㅏㅏㅏ	ㅑㅏㅏ
古今韻會擧要	ㅑㅏㅏ	ㅘㅏㅏ	ㅏㅏㅏ	ㅑㅏㅘ

韻類 17-1의 경우 牙音, 喉音, 脣輕音 또는 正齒音A를 초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나머지") 46 小韻 중 20 小韻의 대표자는 古今韻會擧要에서 音 ㅏ를 가지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古今韻會擧要에서 齊呼(+i, -u)에 속하는 中聲을 가진 小韻의 代表字가 과반수 이상이다(16 ㅑ, 10 ㅕ).

한 편 韻類 17-4의 경우에는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가 古今韻會擧要를 따라가지 않았다.

韻類ㅇ/ㄱ	牙音&喉音	脣輕音 & **正齒音A**	**舌頭音 & 脣重音 & 齒頭音& 正齒音B & 半舌音 & 半齒音**
1-1 (1)ㅜㅜㅜ	公孔貢&[穀]/u/ㅜ 18 (100%)	孔貢/u/ㅜ 3 (100%)	公孔貢&[穀]/u/ㅜ 34 (100%)
1-2 (3)ㅠㅜㅠ	弓拱供&[匊]/iu/ㅠ 25 (100%)	公孔貢&[穀]/u/ㅜ 6 (100%)	弓拱供&[匊]/iu/ㅠ 26 (81%) 公孔貢&[穀]/u/ㅜ 6 (19%)
18-1 (3)ㅣㅢㅣ	**京景敬&**[訖]**/i/**ㅣ 21 (45%) **經剄勁&**[吉]**/iə/**ㅖ 10 (21%) **行杏行/i/**ㅖ 4 (9%) 拱供/iu/ㅠ 5 (11%) 頃/yə/ㅠ 4 (9%)	肯/ ə/ㅡ 2 (50%) [克]/ei(e)/ ㅢ 1 (25%) 敬/i/ㅣ (25%)	**京景敬&**[訖]**/i/**ㅣ 67 (97%)
18-2 (1)ㅢㅢㅢ	經剄勁/iə/ㅖ5 (25%) 行杏行/i/ㅖ3 (15%) 掯肯亘/ə/ㅡ 3 (15%) [格]/ai/ㅐ 3 (15%) [黑]ei(e)/ㅢ 2 (10%)	掯肯亘/ə/ㅡ 3 (50%) [額]ai/ㅐ/ㅒ3 (50%)	掯肯亘/ə/ㅡ 24 (59%) [克]/ei(e)/ㅢ 7 (17%)
18-3 (2)ㅟ x ㅢ	公孔/u/ㅜ6 (60%) [號]/uai/ㅙ 3 (30%) 弓/iu/ㅠ 1 (10%)		[額]/ai/ㅐ 4 (80%) 杏/i/ㅖ1 (20%)
18-4 (2)ㅞ x ㅣ	雄/yə/ㅠ 3 (38%) 弓/iu/ㅠ 1 (13%) [橘]/y/ㅚ 2 (25%) [洫]/ue/ㅞ 1 (13%) 兄/u(ə)/ㅞ 1 (13%)		京/i/ㅣ 3 (75%) 弓/iu/ㅠ 1 (25%)

韻類	**1-1 (58-2)**	**1-2 (64-3)**	**18-1 (127-12)**	**18-2 (70-9)**	**18-3 (15-1)**	**18-4 (12)**
洪武正韻譯訓	ㅜㅜㅜ	ㅠㅜㅠ	ㅣㅢㅣ	ㅢㅢㅢ	ㅟxㅢ	ㅞxㅣ
古今韻會擧要	ㅜㅜㅜ	ㅠㅜㅠ	ㅣㅡㅣ	ㅖㅡ/ㅐㅡ	ㅜxㅐ	ㅠxㅣ

洪武正韻譯訓이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그대로 따랐다면 韻類 18-3과 18-4의 경우에는 中聲 "ㅜ" 와 "ㅠ"를 기대할 수 있지만 中聲 "ㅜ" 와 "ㅠ"가 이미 韻 1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韻 18에서는 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洪武正韻譯訓는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韻 18에서

開呼音 (-i,-u)으로 “ㅡ”와 “ㅐ”가 사용되었을텐데 사실상 開呼音으로 “ㅢ”가 사용되었다.

한 편 韻類 18-2의 경우에 아음(牙音)과 후음(喉音)을 초성(初聲)으로 가지고 있는 소운(小韻)에 경우에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가 中聲 “ㅢ”를 사용하면서 古今韻會擧要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3.5.5. 결론

洪武正韻譯訓의 韻類와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비교한 결과 위에서 설명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洪武正韻譯訓의 韻類와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 사이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0]

위의 연구는 古今韻會擧要의 字母 韻이 洪武正韻의 反切下字를 해석하기 위해 門法의 형성과 사용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4. 요약

위 연구는 洪武正韻譯訓의 音들, 洪武正韻의 反切 그리고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분석하면서 본인이 재구성한 것이다.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는 8년 동안 10개의 초안을 제작했다[11]. 따라서 정확한 편찬절차를 재구성 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재구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가 中聲을 정할 때 反切下字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을 고려하여 門法의 전통을 따라 反切下字 재해석방법을 새롭게 개발했는다는 결론을 시사한다.

---

10 洪武正韻譯訓의 音이 古今韻會擧要 字母韻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韻類의 경우 洪武正韻譯訓 中聲 규칙(3.2.장 참고) 때문에 古今韻會擧要 字母韻을 따르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했을 것이다. 韻類 10-2, 17-4와 18-2는 예외이다.

11 洪武正韻譯訓 序에 다음과 같이 기입되어 있다: 凡謄十餘藁辛勤反復 竟八載之久而向之正罔缺者 似益無疑.

洪武正韻의 反切 → 門法(音和·類隔·正切·回切) → 洪武正韻譯訓의 中聲

↑

古今韻會擧要의 字母韻

참고문헌

자료

『洪武正韻』(影印本), 臺北: 世界書局.

『永樂大典』 1권, 2권, 臺北: 世界書局.

『古今韻會擧要』(影印本), 京都: 中文出版社, 1990.

『洪武正韻譯訓』(影印本), 高麗大學校影印叢書 3,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四聲通解』(影印本), 서울: 大提閣, 1985.

서양 문헌

Dormels, Rainer (1997) *Hongmu-chŏngun-yŏkhun (1455). Analyse der in koreanischer Buchstabenschrift standardisierten "korrekten" Lautungen zur Bestimmung des Grades der Übereinstimmung mit seiner Grundlage, dem chinesischen Reimwörterbuch Hung-wu cheng-yün (1375)* 박사논문 Universität Hamburg.

Dormels, Rainer (2020) Die Interpretation der hinteren Fan-ch'ieh-Zeichen im Hongmu-chŏngun-yŏkhun; in: *Wiener Beiträge zur Koreaforschung* XI, pp.2-30.

Von Rosthorn, Arthur (1942) *Indischer Einfluβ in der Lautlehre Chinas*. Hölder-Pichler-Tempsky A.G. Wien und Leipzig.

동양 문헌

姜信沆(1990)『訓民正音研究』, 成均館大出版部.

金武林(1990)『洪武正韻譯訓 音韻論的 研究』, 고려대학교.

조운성(2015a)「홍무정운역훈의 운류와 홍무정운의 반절하자」,『한국어학』68, 한국어학회, 189-203.

조운성(2015b)「홍무정운역훈의 운류와 고금운회거요의 자모운」,『대동문화연구』9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37-152.

竺家寧(1987)『古今韻會擧要的 語音系統』, 學生書局.

應裕康(1970)『洪武正韻聲母音値之擬定』, 中華學苑 6.
Dormels, Rainer (2006)「洪無正韻譯訓의 正音研究와 訓民正音 창제에 끼친 영향」, 최남희 외(편):『國語史와 漢字音』, 서울: 박이정, 605-646.
Dormels, Rainer (2017)『四聲通解를 기반으로 한 "韻會譯訓"의 구성』, 학고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폐에 담긴 국가 상징의 시각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Visual Language and Typography of National Symbols on the Banknotes of the DPRK

류현국*

츠쿠바기술대학

1. 들어가면서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 체제를 상징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화폐 개혁과 화폐 단위 변경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반영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으로 한다)은 각 시기별로 단행된 화폐개혁을 통해 발행된 지폐에 국기, 국장, 당 마크, 국명, 발행처, 액면 등 국가 상징 요소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언어적·조형적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지폐에 적용된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히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이는 기능을 넘어,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적·문화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복 이후 공화국은 1947년, 1959년, 1979년, 1992년, 2009년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친 화폐개혁을 통해 지폐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의 '유물사관적 화폐 상징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점차 '주체사관적 시각 언어 체계'로 전환되는 사상적, 기술적, 문화적 역사 변동을 충실히 반영한다.

* RYU Hyunguk (Professor, Tsukuba University of Technology)
E-mail: h-ryu@a.tsukuba-tech.ac.jp

1947년에 최초로 발행된 공화국의 '원' 지폐는 국호와 액면을 조선어로 표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과 새로운 국가 출현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이후 국기, 국장, 당 마크의 제정은 독립 국가로서 상징 체계 확립의 기반이 되었으며,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 관광 명소, 건축물, 산업 시설 등은 공화국을 대표하는 상징 이미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 이미지는 각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적 기록물이자 국가 이미지 설계도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화국 지폐에 내재된 정치·경제·문화사적 맥락과 상징 체계, 그리고 그 안에 구현된 타이포그래피 및 시각 언어의 구조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조명한 디자인학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지폐를 단순한 화폐나 기념 이미지로만 인식해온 기존 연구 경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화국의 역대 화폐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지폐 디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속에 내포된 국가 상징 이미지의 시각 언어 체계와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화국의 정치·경제·문화적 발전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지폐 디자인의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행한 다섯 차례의 화폐개혁을 역사적 맥락으로 설정하여, 각 시기의 정치 이념과 경제 정책 변화가 지폐의 시각적 언어와 상징 체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시대별 지폐에 나타난 인물상, 국가 상징물, 주요 건축물 및 산업 이미지의 도상 구성뿐만 아니라, 타이포그래피의 표기 방식과 그 변천 과정에도 주목한다.

특히 초기 국한문 세로 조판에서 국한문 세로·가로 혼용 조판, 조선어 세로 조판을 거쳐 조선어 가로 조판으로 이행한 지폐 문자 체계의 변화는 북한의 이념적 전환과 정책적 지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토대로 공화국 지폐 디자인에 내재된 국가 상징의 시각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변천을 실증적으로 정리한다. 나아가 광복 이후 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변동이 지폐라는 시각 매체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고 구조화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인문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공화국에 있어 국가 상징 의미와 상징 체계의 확립

3.1. 국가 상징 의미

상징은 모든 문화 형성의 근원이며, 인간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상징 체계는 일상적인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학문적 탐구 과정에서도 현실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특히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상징이 지니는 정치적·사회적 의미가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사회주의 이념의 특성과 선전 활동의 구조적 중요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신응철 2015: 163-169).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전은 단순한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 체제 운영을 규정하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한다. 선전은 국가 건설과 권력 유지, 사회적 동원 및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체제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박호진 1986: 157-158).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징은 국가 정당성 확보, 내부 결속 강화, 지배 구조의 정당화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작동한다(임채욱 2002: 23-25). 이러한 특수성은 각 사회주의 국가가 구축한 정치적 상징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화국의 상징 체계는 수령, 당, 군대, 조국, 혁명, 경제 건설 등 정치적·이념

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왔으며, 이는 체제의 이념적 통합과 권력의 정통성 공고화에 기여한다(이우영 2002: 7-8). 특히 공화국은 지폐 디자인을 중요한 선전 매체로 활용해 왔다. 지폐는 가장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국가 매체로서, 그 자체가 '휴대 가능한 정치적 상징물'로 기능한다.

공화국 지폐 디자인에는 국가 건설의 역사, 사회주의 근대화 서사, 수령과 당의 권위, 사회주의적 이상주의가 체계적으로 반영되며, 이를 통해 화폐는 단순한 경제적 교환 수단을 넘어 체제 재생산을 위한 시각적·상징적 장치로 작동한다.

3.2. 국가 상징체계의 발전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적 상징물에는 국기, 국장, 국호, 당 마크, 국화 등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시각적 장치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니라, 국가 정통성·혁명 서사·이념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매개하는 핵심 기호체계로 기능한다. 공화국 역시 건국 이후 각종 상징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는 국가의 이념적 기반과 체제 정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3.2.1.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흰색과 푸른색 띠가 조화를 이루는 구도로 구성되며, 중앙 흰 원 안에 오각별이 배치되어 있다(김정수 2005: 35-60). 이 디자인은 1948년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 초안 채택과 함께 공식 국기로 제정되었다. 붉은색은 항일 혁명 전통과 사회주의 혁명을 상징하고, 중앙의 붉은 별은 당·국가·군의 혁명적 지도성을 나타낸다[그림 1].



〈그림 1〉 국기
(1948년 9월 8일 결정)

3.2.2. 국장

국장은 1948년 평양미술전문학교 교장이었던 김주경이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 띠에 새겨진 국호는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며, 타원형의 붉은 띠는 민족의 통일성과 국가의 영구성을 의미한다(문광일 2013: 85-87). 중앙의 붉은 별은 혁명의 영광과 지도력을, 백두산은 혁명의 기원지이자 성지를 상징한다. 벼 이삭은 농업과 인민을 나타내고, 댐·수력발전소·철탑은 공업·전력·노동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사회주의 근대화의 기본 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국장
(1948년 1월 결정)

3.2.3. 당 마크

조선로동당 마크는 망치(노동자), 낫(농민), 붓(지식인)의 세 가지 도구가 교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징은 북한이 표방한 '노농 + 동맹 + 지식인'이라는 3대 계급 연합의 정치적 구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노란색은 항일 무장투쟁과 주체혁명의 상징색으로 해석된다(박태욱 2015: 21-45). 망치와 낫의 모양에서도 우리나라의 모양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외세의존 혹은 외세 추종이 아니라 자주성, 주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망치와 낫 붓이 배열 형식이 아니라 교차형식으로 배열되어 서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단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그림 3].



〈그림 3〉 당마크
(1948년 10월 10일 결정)

3.2.4. 국화



〈그림 4〉 국화
(1991년 4월 10일 결정)

공화국의 국화는 목련(함박꽃나무)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공식적·비공식적 맥락에서 국가 상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4월 10일에 이르러 정식 국화로 지정되었다(홍선표 2002: 241-243). 목련은 순결·고결·기품·민족적 의지의 상징으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의미 부여는 공화국이 강조하는 '순수한 민족정신'과 '혁명적 기상'의 시각적 표현 전략과 맞물려 있다(임을출 2016: 118). 특히 목련은 김일성 주석 및 김정일 총서기의 혁명적 이미지를 미화라는 우상화 서사와 자연스럽게 결합되며, 국가적 정체성, 민족적 상징성, 그리고 지도자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는 매개로 기능하였다[그림 4]. 이후 공화국의 각종 선전화, 예술 작품, 기념 행사, 교육 교재 등에서 목련은 지도자의 은덕·순수성·도덕적 권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념적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박태욱 2015: 39-42).

공화국의 지폐에는 위와 같은 국가 상징들이 시기별·정책별 맥락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즉, 지폐는 국기·국장·당 마크·혁명 유적지·건설 성과·지도자 형상 등을 통해 각 시기의 이념적 지향과 국가 전략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이러한 상징들은 지폐를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체제의 정통성·혁명성·근대화 담론을 재현하는 시각 언어적 도구로 만들며, 각 시대 정책 변화와 권력 구조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3. 주체사상으로 국가 상징 체제의 확립

1967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는 공화국 정치 이념 형성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전원회의 이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다"라는 문구가 신설되었으

며, 이는 주체사상이 국가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공식·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부터 모든 정책의 기준은 최고지도자의 사상과 의지를 실현하는 데 두어졌고, 국가 상징 체계 역시 이러한 권력구조 속에서 재편되었다(정창영 2015: 132-152).

주체사상 유일화 과정에서 대중 학습 체계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 혁명 활동과 혁명 역정을 구조적으로 주입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었으며, 언론은 지도자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을 절대적 과제로 삼았다(김효은 2021: 38-41). '위대한 수령'의 교시는 모든 출판물에서 굵은 고딕체(천리마체)로 강조되었고, 교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념적 절대주의는 사상·문학·철학·역사 전반의 지식 생산 구조를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종속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서 정리 사업'은 상징적·제도적 전환의 대표적 사례였다. 이 사업은 주체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와 지식을 대대적으로 폐기·정리하는 정책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공화국판 문화혁명'으로 규정한다(이영훈 2006: 132-138). 또한 1967년 '5·25 교시'는 계급투쟁의 강화, 내부 사상투쟁의 격화, 인텔리층의 '혁명화'를 촉진하며 지식·사상 공간의 구조적 재편을 가속화하였다(성혜랑 2001: 312-314).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체계적 이념화는 공화국의 지식 생산과 사상적 규범을 지도자 중심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확립하였다.

4. 공화국에 있어 중앙은행 및 화폐 개혁의 역사적 변천

4.1. 공화국 중앙은행의 변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이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독립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일본 제국의 통화였던 '엔(円)'을 대체하여 각기 독자적 통화로서 '원(圓)'을 도입하

였다. 남조선의 '원' 과 북조선의 '원' 은 모두 일제강점기 통화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적 화폐체계를 구축하는 상징적 기념물로 기능하게 되었다.

광복 직후 북조선 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은 북위 38도선 이북의 금융·재정 기구를 장악하기 위해 1945년 12월 평양에 조선은행의 금융 감독 기관인 '계산소'를 설치하였다(김명식 1996: 53-54). 이어 1946년 1월에는 이북 5도의 조선은행 지점들을 통합하여 평양지점을 본점으로 하는 북조선중앙은행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 8월 제정된 「주요산업국유화법」을 통해 은행은 국유화되었으며, 10월에는 은행 명칭이 '조선중앙은행'으로 공식 변경되었다(리원경 1986: 294).

1959년 2월 조선중앙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으로 승격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대외 결제와 외화 관리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조선무역은행이 신설되었다. 이후 외환 관련 업무는 조선무역은행 외에도 1978년 설립된 조선대성은행, 1988년 설립된 고려상업은행 등에서 분담하게 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조선로동당 재정경리부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특히 재정경리부 산하의 '39호실'은 외화 조달과 관련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72년 12월 헌법 개정을 계기로 중앙은행은 중앙행정기구인 정무국(정무원) 소속으로 편입되며 통화·금융 정책 수립 기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발권은행으로서 기능은 유지되었고, 국가 재정계획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재정의되었다. 이후 2004년 제정된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의 지위와 기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제도적 권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김명식 1996: 56). 이와 같은 공화국 중앙은행 제도의 변천은 광복 직후 소련군정기의 통화 질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 과정, 계획경제의 확립, 1970-80년대 외환 조달체계 변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금융제도 재정비 등 정치·경제 권력의 재편과 긴밀히 연동된 역사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1945–47년 소련군 점령기 군표의 발행과 유통

4.2.1. 화폐정책의 구조적 제약과 제도적 성격

광복 직후 공화국의 화폐정책은 사회주의 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련군 점령 하에서 점령군의 통화 지배를 제도화한 조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화폐는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만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작동하였으며, 볼셰비키 혁명 직후 소련이 화폐를 부르주아적 잔재로 규정하고 현물 분배와 노동쿠폰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유통·회계 구조가 여전히 상품 형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폐지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모순은 사회주의 초기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제약이었고, 공화국 역시 그 제약 속에서 화폐제도를 재편해야 했다(마르크스 1967: 163-177).

소련 점령기 공화국에서 발생한 화폐 혼란을 해석하는 데에서 마르크스의 '물신성' 개념은 핵심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화폐는 사회적 관계를 은폐한 채 독립적 권위처럼 작동하며,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군표 남용과 통화 불안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점령 권력의 작동과 사회적 질서 재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결국 화폐는 경제적 수단을 넘어 체제 전환기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상징적 매개로 기능하였다.

4.2.2. 군표의 발행과 화폐개혁의 불가피성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지속된 소련군 제25군의 군표(軍票) 발행은 공화국의 화폐개혁을 사실상 '강제'한 주요 요인이었다. 화폐개혁은 통상 액면 단위의 변경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통화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통화의 기능을 단절 전환하는 정치경제적 조치를 가리킨다(『조선중앙통신』 2010.3.29.). 당시 소련군정은 군대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군표를 대량 발행하였고, 북조선중앙은행(1946년 1월 설립)이 존재했음에도 화폐 발행권은 전적으로 점령군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통제되지 않은 군표의 반복적 발행은 시중 통화량의 급증을 초래하였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 현상이 1947년 화폐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든 구조적 배경이었다(전현수 1996: 204). 또한 북한 경제 전체에서 군표가 차지한 비중이 1947년까지 절대적 수준이었다(하원호 2017: 133-156).

결국 소련군 각료회의는 1947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일본 제국의

조선은행권을 북조선중앙은행권으로 1엔=1원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전현수 1996: 207).

이 조치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독자적인 화폐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정한 법령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1948년 9월 9일) 이전에 이미 남북 측의 통화 분단이 제도적으로 확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4.2.3. 군표의 타이포그래피 특징

소련군이 발행한 군표는 액면가별로 1원(113×59mm), 5원(128×69mm), 10원(135×73mm), 100원(170×94mm)의 네 종류로 구성되었다[그림 5]. 이러한 군표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점령군 권력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매개체였으며, 다음과 같은 형식적 특징을 통해 그 조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액면에 따른 색상과 규격의 차별화는 문해 능력이 낮은 사회에서도 지폐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기능적 장치로, 초기 화폐 사용 환경을 고려한 실용적인 설계로 볼 수 있다. 둘째, 발행처 표기에 조선어 '가로쓰기'를 채택한 점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세로쓰기 방식과의 단절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새로운 국가 질서의 출현을 상징하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액면가 표기에 한자 '세로쓰기'를 혼용한 구성은 숫자 표기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자가 지닌 권위적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과도기적 조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군표의 유통은 점령기 권력 구조를 드러내는 핵심 장치였으며, 1947년과 1959년 공화국 지폐 또한 소련 국가 보안문서 제작기관 고스낙(Goznak, 1881년 설립)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현수 2006: 201-203). 이는 당시 공화국이 독자적인 인쇄·조형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기술적·제도적 조건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화국 화폐 디자인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근거를 제공한다[그림 5].



〈그림 5〉 1945년 소련 점령군이 발행한 군표 100원, 10원, 5원, 1원의 앞면

(출처: Takara 컬렉션)

4.3. 1947년 제1차 화폐 개혁

4.3.1. 소련 군정기의 통화 질서 재편과 화폐 개혁 시행

1947년 10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후, 한반도 북부 지역의 정치·경제 질서는 사실상 소련군정의 단독 책임 하에 재편되었다. 소련 각료회의는 이미 토지개혁과 노동개혁이 시행된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의 국가 흡수'를 목표로 전면적인 화폐 교환을 결정하였다(「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총결에 관한 조사보고」 1948: 165-166). 이러한 조치는 형식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요구로 설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점령군이 통제하던 기존 통화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적 화폐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치·경제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47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제국의 조선은행권을 북조선 중앙은행이 발행한 신권과 1엔=1원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이 시행되었다. 이때 일제 조선은행권뿐만 아니라 '붉은군대사령부' 명의의 소련군 군표 역시

신권과 1대 1로 교환되었다(전현수 1996: 207). 조선인 주민에게는 일정 교환 한도가 부과되었으나, 소련군 구성원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경제 행위자별로 상이한 반응이 나타났다. 상인·기업가 계층은 반발하였으나 노동자·농민층은 상대적으로 수용적이었으며, 전체 과정은 큰 사회적 혼란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전환기의 일반적인 정책 패턴인 자본 정리 및 재정권 회수와 밀접하게 부합한다(하원호 2017: 133-156).

4.3.2. 통화 주권의 제도적 확립과 국가 재정권의 강화

화폐개혁 직후 공화국의 시장 물가는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소련군이 필요에 따라 무제한으로 발행하던 군표가 제거되고, 북조선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화폐 공급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물가 수준은 단순한 통화량 조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과 유통 구조 전반과 연동되므로, 화폐개혁은 안정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었다(전현수 1996: 207).

공화국이 제시한 화폐개혁의 공식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토지개혁·노동개혁 등의 민주개혁 성과의 공고화, 둘째, 새 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재정적 독립과 자립적 화폐제도의 확립이다. 만약 구화폐·군표 체제를 유지할 경우 미군정 지역 또는 일본 제국 금융권과 구조적으로 연계될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통화 단절은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러한 정책의 성격을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반동들의 파괴 책동을 분쇄하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재정금융사전』 1995: 1261).

결과적으로 1947년 제1차 화폐개혁은 '정치적 탈식민'과 '재정적 주권 확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한 조치였다. 이는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에 이미 남북 측의 화폐 분단을 제도적으로 확정한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되며, 이후 북한이 독자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4.4. 1959년 제2차 화폐 개혁

4.4.1. 전후 복구의 완료와 사회주의 개조의 정착

1959년은 6·25전쟁(공화국은 '조국해방전쟁'이라 한다) 이후 추진된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기였다. 1958년까지 농업과 상공업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면서, 공화국은 이 시기를 전후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시기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생산 동원 능력이 극대화되었으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향한 "혁명적 열의"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선전하였다(국토통일원 1988: 183).

특히 1956년 12월에 시작된 천리마 운동과 1959년 3월에 확대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대중 동원과 노력 경쟁을 제도화한 사회주의 경쟁 체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운동은 국가 경제 운영 방식의 총노선을 형성하는 이념적·조직적 기제로 기능하였다(윤재근·박상천 1990: 281).

이와 같은 대중 동원 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결합은 1950년대 후반 공화국의 경제 지표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정부는 주장하였다.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30%를 상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머지않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지도부 차원에서 천명하였다(리원경 1986: 206). 이러한 신화적 경제 담론은 1959년 화폐개혁을 뒷받침한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였으며, 전후 재건 및 사회주의 개조의'완료'를 국가적 성취로 재현하는 데 중요한 선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4.4.2. 화폐개혁의 실제 효과와 성격

1959년에 단행된 제2차 화폐개혁은 1947년의 제1차 개혁과 동기, 배경, 정책 목표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47년 개혁이 일제강점기 조선은행권과 소련군 군표가 병존하던 이중 통화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통화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1959년 개혁은 이미 구축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안정화하고 가격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

이 개혁은 내각 결정 제11호 「신화폐 발행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시행되었

으며, 교환 한도는 설정되지 않았다. 기존 '북조선중앙은행권' 100원을 '조선중앙은행권' 1원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자산 압수나 계층 재편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화폐 단위와 가격 표기를 간소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한 조치였다. 다시 말해, 주민의 소득·자산 구조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통화 유통 질서를 정비하고 회계 단위를 재조정하려는 기능적 개혁이었다(이영훈 2006: 113-115).

이번 개혁은 1947년의 구조적 '청산'과는 달리, 체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의 성격을 띠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과 소득의 강제적 재분배를 배제하여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둘째, 가격 기준을 1/100로 조정함으로써 회계와 통화 표기의 단순화 및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화폐 단위와 기능을 체제 논리에 맞게 재정렬하였다. 넷째, 내부 경제 성장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국가적 성과로 시각화하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전현수 1996: 193-216). 결국 1959년 화폐개혁은 화폐의'기능적 재구성'에 가까운 조치로서, 사회주의 경제 운영 체제가 공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1947년 체제 전환기 개혁과 명확히 구별되는 안정화 및 조정 중심의 제도적 개편이었다.

4.5. 1979년 제3차 화폐 개혁

4.5.1. 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조치로서 화폐 개혁

1979년 화폐개혁은 1959년 제2차 개혁 이후 20년 만에 단행된 조치로, 국제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오일 쇼크가 초래한 충격은 공화국 경제에 구조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가 개혁의 주요 배경을 형성하였다. 공화국은 공식 문헌에서 개혁의 경제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당시 정책 기조와 거시적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화폐 교환은 1979년 4월 6일 발표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하여 4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시행되었으며, 구화폐는 신화폐와 1

대 1 비율로 교환되었다. 교환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점은 1959년 개혁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조치가 자산 압수나 재분배보다는 통화 단위 조정과 화폐 체계 정비에 초점을 둔 기능적 조치였음을 보여준다. 공화국은 정책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경제사전 2』(1985: 603)에 신권의 도안과 이미지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화폐의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 기능에도 주목했음을 시사한다.

4.5.2. 주체사상과 우상화 정치에 연동된 상징 정치적 성격

1979년 화폐개혁이 단순한 경제 기술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1970년대 후반 강화된 주체사상화와 수령 우상화라는 이데올로기적 흐름과 깊이 연동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성혜랑 2001: 312-314). 이 시기 김일성 주석의 절대적 지도자 이미지를 신격화하는 정치 캠페인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선전·문화·조직 부문을 장악한 김정일 총서기가 있었다. 그는 지도자 우상화의 상징적 환경을 구축하며 후계 구도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9년 신권의 이미지 구성 역시 주체사상의 절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화폐라는 국가적 매체를 통해 정치 권력의 정통성과 후계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일의 후계 체계가 공식화되며 김일성 주석-김정일 총서기의 공동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1979년 제3차 화폐개혁은 경제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체사상의 국가화와 수령 우상화라는 상징정치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정치·경제적 이중 성격의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4.6. 1992년 제4차 화폐 개혁

4.6.1. 유통망 약화와 시장화 심화가 촉발한 화폐개혁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공화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 원유, 비료, 기계류 등 필수 물자의 외부 조달이 급격히 축소되

면서 공급 부족이 구조화되었고, 전국 공장 가동률은 30% 이하로 떨어졌다. 국영상점은 더 이상 정상적인 물자 공급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주민들은 생필품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시장(장마당의 전신)'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필품 가격은 국정 가격의 5~10배에 달했으며, 거래가 금지된 식량마저 암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조동호 2002: 185-197).

국가 유통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화폐는 국가 재정부문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시장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재판매 차익'이 새로운 소득원이 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였다.

국영상점에서 저가로 구매한 물품을 시장에서 고가로 재 판매하는 방식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일반화되었음을 지적한다(『The Daily NK』 2005.5.3). 이러한 유통 구조의 변화, 국가 유통망 약화, 시장 의존 확대, 사적 자본 축적의 증가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유동성을 확대시키며 통화 질서의 균열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1992년 화폐개혁이 단행되었다.

4.6.2. 교환 제한의 정책적 한계와 장기 효과

1992년 화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강력한 교환 한도 제한이었다. 이는 1959년과 1979년의 화폐개혁과 달리, 비국가적 시장에서 축적된 사적 자금을 직접 차단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조치였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유동성의 확대, 암시장 자본의 성장, 국정 가격 체계의 사실상 붕괴는 이번 개혁을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긴급 조치'로 규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 개혁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개혁 이후에도 물가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접어들면서 초인플레이션에 가까운 물가 폭등이 발생했다. 기존 권종으로는 시장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공화국은 1998년에 500원권 고액권을 발행했다. 이는 국가가 시장 가격 상승을 더 이상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이영훈 2006: 206).

결과적으로 1992년 제4차 화폐개혁은 계획경제 체제의 균열, 비국가적 시장

경제의 등장, 그리고 화폐 신뢰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조치였다. 이는 2000년대 전면적인 시장화로 이어지는 변화를 촉진했으며, 2009년 이른바 '초강수' 화폐개혁으로 이어지는 공화국 화폐체계 불안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4.7. 2009년 제5차 화폐 개혁

4.7.1. 국가 통제력 약화 속 시장 자본 축적에 대응한 급진적 개혁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 공화국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 조치는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1/100 재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세대당 10만 원(구권 기준) 교환 한도라는 초강경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현금 자산이 사실상 무효화되어 전국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공황이 발생하였다. 학계에서는 이를 "공화국 화폐개혁 역사상 가장 피해가 막대한 조치"로 평가한다(윤철기 2021: 183-190).

이전의 화폐개혁(1947·1959·1979·1992)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일정하게 작동하던 시기에 시행된 것과 달리, 2009년 개혁은 국가 계획경제가 사실상 붕괴한 상황에서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와 국영상점 체계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주민 생활은 시장(장마당)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었다(조동호 2002: 185-197). 이 과정에서 화폐는 국가 유통망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 축적·순환하는 '비국가적 화폐경제'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국가 통제력의 약화와 사적 자본 축적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2009년 화폐개혁은 시장 자본을 강제로 소멸시키려는 급진적 정치경제적 조치로 이해된다.

4.7.2. 가격 현실화 조치의 한계와 비공식 경제의 부상

2000년대 초 공화국 정부는 계획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분적인 시장 현실화를 시도하였다.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임금, 물가, 환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 과정에서 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등 9종의 신권이 발행되었다(한기범 2010: 112-121)[그림 6]. 주목할 점은 일부 권종에 '주체 91(2002)'가, 다른 권종에는 '주체 97(2008)'이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그림 7]. 이는 공화국이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단계적인 화폐 정비를 준비하였으나 실행이 지연되었고, 경제 상황이 악화된 2009년에 강제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개혁은 단기간에 민간 보유 현금을 급격히 소각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물가 불안, 주민 항의, 지방 단위 시위, 탈북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결국 정권은 시장 활동을 단기간 내에 사실상 재허용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2009년 화폐개혁은 공화국 화폐정책의 결정적 실패 사례가 되었으며, 이후 시장 중심의 비공식 경제가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을 형성하였다(이영훈 2006: 206).



〈그림 6〉 공화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새로 발행한 9종 지폐의 앞면과 뒷면

(출처: 개인 소장)



〈그림 7〉 지폐발행일이 '주체97 2008'로 각각 인쇄된 6종과 50원, 10원, 5원권 지폐 3종에는 발행일이 '주체 91 2002'로 되어 있다.

(출처: 『평양 조선신보』, 2009.12.4)

5. 지폐 디자인에 있어 시각 언어의 상징 이미지 및 타이포그래피의 변화

5.1. 1947년 1차 화폐 개혁에 등장한 지폐 디자인의 특징

5.1.1. 노동자와 농민의 엄숙한 상징 이미지

공화국의 지폐 디자인은 당시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광복 이후 토지 개혁과 국유화 등 일련의 '민주 개혁'을 통해 물적 토대가 지주와 자본가에서 농민과 노동자로 이동하였다. 즉, 사회주의 건설기의 주체가 지주와 자본가에서 노동자와 농민으로 변화한 것이다. 1947년 '북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담겨 있으며, 망치를 든 노동자와 쇠스랑을 든 농부가 새로 발행된 1원, 5원, 10원, 100원 지폐에 등장한다. 뒷면에는

높은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백두산이다. 이후 백두산은 김씨 일가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백두혈통'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그림 8〉 1947년 제1차 화폐개혁으로15전권, 20전, 50전의 뒷면
(출처: 프리덤 앤 라이프)



〈그림 9〉 1947년 원백, 원오의 앞면과 뒷면, 원십과 원일의 뒷면
(출처: 프리덤 앤 라이프)



〈그림 10〉 원일(왼쪽)은 붓글씨풍 명조체계, 원오(가운데)은 둥근 고딕체계, 원십과 원백(오른쪽)의 각 고딕계 도안체



〈그림 11〉 6.25전쟁 이전(왼쪽 상단)의
10원권 지폐에서 전쟁 후(왼쪽 하단)
'숨은 그림'의 변화



〈그림 12〉 6.25전쟁 이전 5원 지폐(상단)에서 전쟁 후(하단)의
조선어, 한자어 액면가 도안의 변화

5.1.2.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1947년판 저액권 지폐인 15전(87×41mm), 20전(88×42mm), 50전(100×53mm)은 가로쓰기 방식으로, 앞면의 액면이 붓글씨풍 한자 명조체로 표기되었으며, 뒷면에는 '민주조선'이 붓글씨풍 한글 명조체 도안 문자로 사용되었다[그림 8]. 반면, 고액권 지폐인 원백권(170×94mm), 원십권(135×73mm), 원오권(128×69mm), 원일권(113×59mm)의 경우, 앞면의 액면가는 세로쓰기 방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배치되었고, 뒷면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하는 표기 방식을 사용한 점이 흥미롭다[그림 9].

이들 지폐의 서체는 조선어와 한자 명조체로 표기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선조주민' 등 조선어 표기에 세로쓰기가 적용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원일권은 가

로쓰기 붓글씨풍 명조체, 원오권과 원십권은 세로쓰기 둥근 고딕체, 원백권은 세로쓰기 각고딕체로 표기되어 액면가에 따라 도안이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10]. 특히, 6.25전쟁 후 위조 방지를 위해 원십권 앞면[그림 11]과 원오권 앞면에 있는 조선어 및 한자 액면 표기에도 '숨은 그림'이 추가되었다[그림 12].

5.2. 1959년 2차 화폐 개혁에 등장한 지폐 디자인의 특징

5.2.1. 조선여성의 밝고 건강미의 상징 이미지의 특징

1959년 2차 화폐 개혁 이후, 지폐에 국장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원권 앞면에는'평양 대동문', 뒷면에는 '과일 따는 여인'이 그려져 있으며[그림 13], 50원권 뒷면에는 '추수하는 여인'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 인물의 환한 미소는 일반적으로 공화국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보다 더욱 밝고 건강미가 넘친다. 또한, 이들의 표정은 1947년에 발행된 지폐에 등장한 노동자와 농부의 엄숙하고 경직된 표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국가 상징 이미지의 변화는 1958년 농업 및 상공업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로 인해 적대적 갈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은 적대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지닌 인간형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문예 사조를 반영하고 있다(리원경 1986: 9-10).

5.2.2.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1959년판 지폐부터는 조선어 가로쓰기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공화국 지폐 처음으로 1원권에 '국기'가 포함되었으며, 모든 지폐에 '국장'이 등장하였다. 그 이후 모든 지폐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숨은 그림'이 배치되고 가로쓰기가 사용되었다[그림 13]. 흥미롭게도 저액권인 오십전, 1원, 10원권의 경우 앞면에 표시된 국가명은 '명조계 그래픽체'로, 뒷면의 발행처명은 '둥근 고딕체'로 사용되었으며, 반면 고액권인 100원권은 앞면의 국가명이 '둥근 고딕체'로, 뒷면의 발행처명이 '명조계 그래픽체'로 표현되어 입체적인 도안 문자가

저액권과 고액권에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그림 14].



〈그림 13〉 1959년 10원권의 앞면과 뒷면의 과일 따는 여인

(출처: 프리덤 앤 라이프)



〈그림 14〉 1959년 지폐의 앞면과 뒷면에 사용된 둥근 고딕체와 명조계 그래픽체

5.3. 1979년 3차 화폐 개혁에 등장한 지폐 디자인의 특징

5.3.1. 주체사상이 규정한 김일성 주석의 등장과 상징 이미지의 특징

공화국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주체사상'을 공식적인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이 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그 힘 또한 인민 대중에게 있다"라고 정의하였다(김창희 2013: 187-192). 지폐에는 다양한 인민 대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새로운 세대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특히 1원 지폐 앞면에는 꽃다발을 든 유치원생, 나팔을 부는 조선소년단 학생, 체조복을 입은 여학생, 그리고 책을 든 대학생들이 '평양학생소년궁전'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배경으로 서 있다[그림 15]. 5원 지폐에는 한 여성이 볏단을 안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흔들리는 치맛자락은 조선 여성의 행동력과 역동성을 강조하며[그림 16], 10원 지폐에는 주체

조선의 상징 기념비인 '천리마의 동상' 등장하고 있다[그림 17]. 이처럼 공화국의 정책에 따라 지폐 속 여성 이미지도 변화하였다. 당시 최고액인 100원 지폐 앞면에는'김일성 주석의 인물화'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뒷면에는 '만경대'가 나타난다[그림 19].



〈그림 15〉 1원권의 앞면



〈그림 16〉 5원권의 앞면



〈그림 17〉 10원권의 앞면



〈그림 18〉 50원권의 앞면





〈그림 19〉 1979년100원권의 앞면과 뒷면(출처: e-뮤지엄)



〈그림 20〉1979년1원, 5원, 10원, 50원권의 앞면은 각고딕체,
100원권의 앞면은 명조체(3.1월간체)

5.3.2.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이 시기의 지폐에 사용된 타이포그래피는 유일사상 체제로 확립을 반영하고 있다. 50원(160×79mm) 지폐의 앞면에는, '주체'라는 명칭의 '각고딕체' 앞에 병사, 농민, 지식인, 노동자가 수령에 충성하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배치되었다[그림 18]. 또한, 1원, 5원, 10원, 50원 지폐의 앞면에는 '각고딕체'의 도안 문자가 사용되었고, 유일하게 최고액인 100원(170×84mm) 지폐의 앞면에는 '명조체'가 사용된 점이 흥미롭다[그림 19]. 이 서체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시기에 『3.1 월간지』에 사용되어, '3.1 월간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림 20].(류현국 2025: 131-132)

1979년 제3차 화폐개혁을 전후해 평안남도 평성에 위치한 조선중앙은행 산하 평성상표인쇄공장(일명 926공장)이 지폐 제조를 전담하게 되었다(김성민 2012: 77-80).

5.4. 1992년 제4차 화폐개혁에 등장한 지폐 디자인의 특징

5.4.1. 국가번영의 건축물과 동력 발전의 상징 이미지의 특징

공화국은 각종 건축물을 지폐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중 하나가 교육기관이다. 1946년에 설립된'김일성종합대학'은 공화국 최초의 대학이자 고등교육기관의 상징으로 1959년 5원 지폐 앞면에 등장했다[그림 21]. 또한, 공화국 최대의 중앙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도 1992년 5원(125×60mm) 지폐 뒷면에 배치되었다.

공화국이 사회주의 공업과 산업의 기초로 찬양하는 분야는 철강 산업이다. 1979년 지폐에 등장한 '강선제강소'를 통해 중공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엿볼 수 있다. 1992년 10원 지폐에는 공화국 최대의 '서해 갑문'이 경제 발전의 상징 이미지로 사용되었다[그림 22]. 100원(155×75mm) 지폐 앞면에는 1991년 4월 10일 '국화'로 지정된 '목란'이 장식된 김일성 주석의 인물화가 있으며, 뒷면에는 그의 생가인 '만경대'가 그려져 있다[그림 23].

5.4.2.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1992년에 발행된 지폐는 '각고딕체'로 디자인되어, 액면가의 아라비아 숫자와 조선어가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지폐의 크기는 각 권종마다 가로 10mm, 세로 5mm씩 증가하지만, 500원권은 예외적으로 100원권과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각 지폐는 고유한 색상을 지니고 있으며, 요판 인쇄 기법을 통해 앞면과 뒷면의 정렬, 미세 문자, 요판 잠상, 시변각 장치 등을 적용하여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발행 당국자의 날인과 서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21〉 5원권의 앞면



〈그림 22〉 10원권의 앞면



〈그림 23〉 100원권의 앞면(출처: e-뮤지움)

5.5.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에 등장한 지폐 디자인의 특징

5.5.1. 백두혈통의 3대 장군과 강성대국에 대한 상징 이미지의 특징

1992년 화폐개혁 이후, 김일성 주석의 얼굴과 생가, 백두산, 그리고 김정일 총서기의 출생지가 그려져 '백두혈통'을 상징하고 있다. 2009년 지폐 디자인에는 과학자와 대학생이 등장하여 지식경제 시대와 새로운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원 지폐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배

경으로 학생들이 그려져 있으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포함되어 있어 핵 개발과 과학기술 중시 의지를 나타낸다[그림 24]. 2008년에 완공된 '예성강 청년 1호 수력발전소'는 2009년 5원 지폐의 배경으로 사용되어 경제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그림 25]. 50원권에는 인민의 3대 계층과 조선로동당의 상징인 낫과 망치, 그리고 붓을 형상화한 '당창건기념탑'이 있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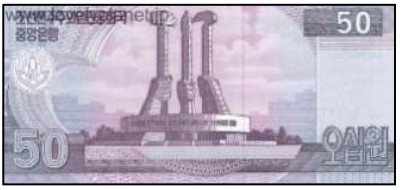


〈그림 24〉 5원권의 앞면



〈그림 25〉 5원권의 뒷면





〈그림 26〉 50원권의 앞면과 뒷면 (출처: e-뮤지움)





〈그림 27〉 5000원 구권의 앞면과 뒷면 (출처: 리브레 위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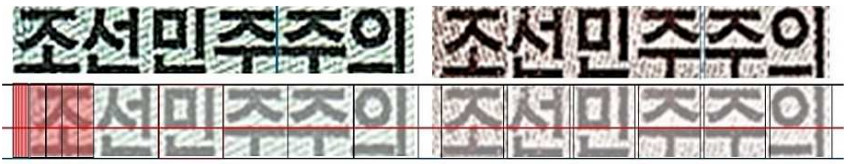


〈그림 28〉 5000원 신권의 앞면
(출처: 리브레 위키)



〈그림 29〉 2000원권의 앞면
(출처: 리브레 위키)

최고액인 5,000원권(2006년판: 155×75mm, 2013년판: 143×55mm)에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와 그의 생가인 만경대가 그려져 있다[그림 27]. 2006년에 새롭게 등장한 2,000원권(143×55mm)에는 백두산과 김정일 총서기가 태어난 집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29]. 2014년 최고액 5000원 신권에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없애고, 구권의 뒷면에 있던 '만경대' 김일성 주석 생가의 도안을 신권 앞면으로 배치했다[그림 28].



〈그림 30〉 왼쪽은 1992년 지폐에 사용된 각고딕체,
오른쪽은 2009년 지폐에 사용된 각고딕체의 비교분석

5.5.2.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2009년 발행된 지폐는 1992년의 '각고딕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글자 간격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그림 30]. 전체적으로 액면의 숫자를 확대하여 변별성을 높였으며, 디자인 또한 심플하게 진화하고 있다. 모든 지폐의 크기는 '143×55mm'로 표준화되어 있다. 1992년판보다 더 정교한 인쇄 기술이 적용되어, 위조 방지를 위해 지폐 가장자리에 독특한 무늬를 넣는 기법이 도입되었다. 현재 공화국의 지폐 디자인과 인쇄 방식은 바탕 그림을 삽입하는 '숨은 그림(latent image)' 기법을 시작으로 평판지문 인쇄, 금액을 표시하는 스크린 인쇄,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부착, 그리고 특수 조각 기법으로 제작된 색 변환 잉크를 채워 무늬와 글자를 볼록하게 인쇄하는 요판방식이 사용되고 있다(한국은행조사국 2010: 45-48). 또한 지폐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장치'와 '위조·변조 방지 기술'은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된다(한기범 2010: 128-130).

6. 나가면서

본 장에서는 광복 이후 다섯 차례 실시된 공화국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지폐 디자인 변화를 분석하고, 각 시기 지폐에 반영된 국가 상징과 타이포그래피 변천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1947년 지폐는 농민·노동자 형상을 상징 이미지로 배치하고, 발행 은행명을 세로쓰기 명조체와 고딕체로 도안했으며, 액면 표기는 국한문 혼용으로 구성해 초기 사회주의 가치와 일제 강점기 잔재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냈다.

1959년 지폐는 국장을 정식 도입하고, 조선어 가로쓰기가 정착되어 앞면 국가명을 둥근 고딕체, 뒷면 은행명을 명조체계열의 그래픽체로 표기해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액면가별 시각적 위계를 명확히 했다. 초기 공화국 지폐의 조형·기술·상징 체계는 소련 고스낙(Goznak, 1881년 설립)의 사회주의권 보안문서 디자인을 원형으로 삼았다. 이는 공화국 지폐 디자인이 자생적 전통이 아닌, 소련식 사회주의 실용미학과 보안 인쇄 기술이 체계적으로 이식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점령기 권력관계와 기술적 종속 속에서 구축된 '소련형 보안 조형체계'는 이후 북한의 주체 유일체제와 국가 상징의 규범화 과정에서 핵심적 조형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1979년 지폐는 공화국 내부 인쇄시설이 본격 가동된'부분적 자립 단계'의 산물로 평가된다. 이 시기 오프셋(凸)과 요판(凹) 혼합 인쇄공정, 단순화된 은선, 정밀 기하학적 보안 문양, 주체미술 중심 이미지 구성은 '공화국식 지폐 디자인'의 기본 형식을 확립했다. 특히 50원권의 '주체' 고딕체 표기와 100원권의 '3.1월간체' 사용은 유일사상 체제를 시각화한 대표 사례다.

1992년 지폐는 '김일성 주석 초상'과 '만경대' 이미지에 '목련' 장식과 입체적 '각고딕체'를 결합해 국가 상징 위계를 강화했으며, 대형 아라비아 숫자는 가독성을 크게 높였다.

2009년 지폐는 요판·오프셋 혼합 인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조판, 색분해, 정밀 선 기반 보안 도안 생성 등 프리 프레스 단계에 디지털 기술을 본격 도입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알고리즘 기반 곡선 보안체계, 벡터 서체 정비, 정

밀 색 공간 제어로 '공화국식 지폐 미학'을 확립하며 인쇄 품질과 위조 방지를 동시에 향상시켰다.

김정일 총서기 시대의 '강성대국'과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 확산과 함께 백두혈통, 핵무력, 산업발전 이미지가 반영되고, 최고액의 5,000원권에 김일성 주석 초상이 재도입되는 등 기술 변화와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치 이념이 밀접히 결합되었다. 1992년판 각고딕체를 기반으로 자간·획간 조정 등 미시적 조판 관리가 한층 정교하게 발전했으며, 일부 지폐에서는 대비·계열·모듈리티를 활용한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경향도 확인된다. 그러나 2009년 제5차 화폐개혁 이후 단행된 두 차례의 디자인 재편과 강도 높은 자금 회수 조치는 화폐의 신뢰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여, 공화국의 국내외 신용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공화국의 다섯 차례 화폐개혁을 통해 각 시대 정치·경제 정책 변화가 지폐디자인의 상징 이미지, 타이포그래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규명하여 공화국 시각언어와 국가 상징체계 연구의 디자인 인문학적 지평을 확장했다. 이 분석은 향후 남북측 및 국제 학술 교류에서 디자인사, 정책사, 시각문화사 연구 심화에 중요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1958)『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노선』, 평양: 평양과학원출판사, 298.

김덕윤(1988)『재정사업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25.

김명식(1996)「북한의 금융체제 및 운용에 관한 연구」,『월간통일경제』60, 현대경제연구원, 53-54.

김선희(2010)「북한 혁명미술의 이념과 형식」,『『미술사학』22(3), 89-122.

김성민(2012)「북한의 인쇄 기술과 보안 인쇄체계」,『북한연구학회보』, 77-80.

김주경(1978)「우리나라 국기와 국장에 깃든 이야기」,『은혜로운 품속에서』, 평양: 문예출판사, 26-28.

김창희(2013)「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한국정치연구』22(3),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87-192.

김효은(2021)「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통일정책연구』30(1), 통일연구원, 38-41.
류현국(2017)『한글 활자의 은하계, 1945-2010』, 서울: 윤디자인그룹, 309-328.
류현국(2020)「조선어 서체의 원형과 원류(1909-2019): 청봉체, 천리마체, 명조체, 맺음힘체의 기본 서체를 중심으로」,『국제고려학』18, 국제고려학회, 349-380.
류현국(202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어 사전의 역사적 편찬을 수반하는 타이포그래피의 변화(1945-2017」,『국제고려학』19, 국제고려학회, 159-184.
류현국(2025)『북한의 활자문화사, 1945-2023』, 파주: 태학사, 131-132.
리원경(1986)『사회주의 화폐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9-12, 200.
박호진(1986)『문화·계급·선전』, 서울: 백산서당, 157-158.
성혜랑(2001)『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312-314.
신응철(2015)「카시러의『계몽주의 철학』을 통해 본 종교의 이념」,『철학탐구』38,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163-169.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찬(1985)『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603.
양문수(2010)「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통일문제연구』22(1), 통권 53호, 평화문제연구소, 59-91.
오현철(2007)『선군과 민족의 운명』, 평양: 평양출판사, 40-41.
윤재근·박상천(1990)『북한의 현대문학 2』, 서울: 고려원, 281.
윤철기(2021a)「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학: 5차 화폐개혁 이후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24(3), 183-190.
윤철기(2021b)『북한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183-190.
이연숙(2013)「해방 직후 신국가 건설과 국기 제정」,『한국근현대사연구』64, 133-134.
이영훈(2006)『북한경제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6.
전현수(1996)「1947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역사와 현실』19, 114-128.
정창영(1992)「북한경제 실상과 남북경제 협력방안의 모색」, 한우리정경연구원 제4회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조동호(2002a)「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연구보고서』09, 한국개발연구원, 185-197.
조동호(2002b)「북한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1990년대 체제 전환」,『통일연구』6(2), 185-197.
조명철(2010)「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의 동향과 전망」,『제21차 국내안보학술대회 자료집』,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36.
조선노동당출판사(1979)『김일성 저작집』제3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4.
『조선중앙통신』(2010. 3. 29)《화폐개혁실패》보도를 비난.
『재정금융사전』(1995) 사회과학출판사, 1261.
최경희(1993)「사회주의 사회에서 화폐 유통 공고화의 기본 방도」,『경제연구』제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7-40.

칼 막스(1967)「잉여가치학설사」,『자본론』제4권, 일본: 학우서방, 163-177.
통일연구원(2009)『북한 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37.
하원호(2017)「해방 후 북한의 화폐 개혁」,『역사학연구』7(67), 133-156.
한기범(2010a)「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2-121.
한기범(2010b)『북한의 화폐와 금융제도』, 하나은행 통일연구센터, 112-121.
한국은행 조사국(2010)「200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공보 2010-6-32호.
홍지석(2011)「북한미술연구사 1979-2010」,『현대북한연구』14(1), 북한대학원대학교, 7-39.
『The Daily NK』(2005.5.3)「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의 쌀값이 1kg당 4,100원까지 상승했다」. https://www.dailynk.com/chinese/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현황과 과제

－민족정체성의 변천과 관련하여－

The Present State and a Problem
in Ethnic Education of a Foreign Resident in Japan
－ The Changes of Identity Relationship－

문광희*
아이치조선학원이사장

1. 서론

1.1. 들어가면서

일본에는 2024년 12월 현재 358만 8,956명의 외국인들(중국 844,187명, 베트남 600,348명, 한국 409,238명, 조선 23,206명)이 살고 그 비율은 3%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1]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가운데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의 누계는 39만 5,308명을 넘고, 한쪽 부모가 일본인인 한국·조선계 일본인 약 88만 명을 포함하면 총 127만 명이 우리 민족과의 연결을 끊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조선·한국 국적자 약 43만 명을 포함한 약 170만 명은 디아스포라로서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근저에는 우리 민족의 기억과 아이덴티티가 자리하고 있다. 아이덴티티 개념은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에릭 H. 에릭슨(E. H. Erikson)이 『아이덴티티와 라이프사이클』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본어로는

* MOON Kwanghe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Trustees, Aichi Korean education, Japan)
E-mail: kwanghee3@gmail.com

1 일본법무성통계 www.moj.go.jp 2024년 6월말 현재 열람.

‘동일성’ 또는 ‘존재증명’으로 번역되며(小森 2005: 250), 우리말로는 ‘민족정체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용어를 채택한다(정진성 2017: 58). 민족정체성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일본에 있는 네 곳의 한국학교와 50개교의 조선학교는 낙엽귀근(落葉歸根)으로부터 낙지생근(落地生根)의 시대로 넘어온 지 80년이 넘었다. 남의 나라에 살면서 수세대에 걸쳐 귀화하지 않고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소수민족집단이 존재하는 조선학교의 존재가 크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재일동포 자녀들의 저출산에 의한 감소현상,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 일본의 동화정책과 한국의 기민정책 속에서도 조선학교는 당당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족교육의 앞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민족교육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1948년 〈조선학교 폐쇄령〉과 1967년 〈외국인학교법안〉을 상정시켜 조선학교를 해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02년부터는 고교무상화 제외조치를 비롯한 제도적 차별정책으로 조선학교를 없애고자 하였다.

필자는 일본의 특별영주권자 중 5%에 불과한 조선국적동포가 줄어든다면 조선학교는 장차 없어질 것인가, 민족학교가 일본의 다문화공생교육의 서열화 속에서 희소되어 나간다면 장차 재일동포사회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정체성의 변천과 식민주의 차별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고, 민족교육문제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며 차별과 배제의 근원을 해명하고 민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와 과제

민족교육은 해방 전에도 존재하였으나 본격적으로는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국어강습소 형식으로 시작한 민족교육은 조선인연맹 결성 후 교사 건설, 운동장 정비와 함께 교과서편찬위원회를 통해 공통 교과서를 만들고 일본 전국에 학교를 설립하였다(吳永鎬 2019: 45).[2]

1949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강제해산과 학교폐쇄조치로 해체된 조선학교는

1950년대 조선인총연합회의 주도하에 조국지향과 정주의식을 포함한 '훌륭한 조선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민족교육을 진행하였다.

1960년대에 임광철, 박경식 등은 일제의 식민지 죄행을 폭로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등을 발표하였으며, 박상득은 민족교육이 일본의 실정에 맞게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과 외국인학교법안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朴尚得 1984: 50-103).

김덕룡은 민족교육을 초창기부터 1972년까지 조선학교의 자료, 교과서 편찬 과정, 교원 양성 과정, 과정안의 구성과 유치원 역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사 연구에 기여하였다. 오영호는 이를 계승하면서 조선학교의 교과서, 과정안, 수업 실천 등에서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재일조선인의 탈식민지화를 촉진하는 장치로 규정하여 인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적하였으며(吳永鎬 2019: 33) 박삼석은 조선학교의 교육권리 옹호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본인으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오자와 유우사쿠(小沢有作)는, 일제가 실시한 동화교육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됨으로써 과거의 침략 책임과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회피하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고 역사적으로 개괄하였다. 또한 민족교육 지원문제가 일본 민주화 운동과도 결부되는 불가결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小沢 1973: 436). 한편 요시자와 후미토시는 일본의 전쟁책임론에서 식민지 책임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였으며(吉沢 2009: 133), 식민지 지배의 사후 책임과 일본 국적 상실의 원상회복 문제를 심화시킨 다나카 히로시는 조선학생들의 일본대학 수험자격, 교육조성금, 고교무상화 등의 교육권리 획득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田中 1975: 85).

국제법학자 오누마 야스아키는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권리 확대에 있어 정책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국인으로서 입관령과 외국인등록법으로 관리·감시하는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구조를 지적하였다(大沼 2004: 6). 이타가키 류타는 민족교육권을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식민지주의적 교육권이라고 하면서 오누마의 박유하 평가를 비판하

2 재일본조선인연맹에는 문교국장 한덕수, 교과서편찬위원회에는 이진규, 임광철, 어당, 허남기, 이은직이 선출되었다.

였다(板垣 2011: 257).

히구치 나오토는 구식민지 출신자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였으며 시미즈 코키치는 식민지 지배에 유래한 사람과 새로운 외국인들과의 차별적 시각을 경고하였다(志水 2008: 16). 또한 에바라 마모루(江原護)는 조선학교를 억압하는 조선인 멸시관의 원류가 고대 야마토 왕조 이래 일관되게 이어져 온 중화사상의 번국사상에 있으며, 이것이 구미숭배와 아세아 멸시사상으로 변천되어 동화정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였다(江原 2003: 24). 정주 외국인이 다문화공생교육을 추진하는 정부와 함께 새롭게 일본에 유입된 뉴커머 중심의 다문화공생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宮島 2014: 120).

김유정은 카와사키시의 행정기관과 지역 시민운동, 「청구사」의 실천활동이 박종석과 최승구의 운동을 지원하였다고 보았다(金兪貞 2007: 157). 그리고 은폐된 양의성과 언질의 성격을 띤 다문화 공생은 식민지와 선주민을 은폐하였으며, 다문화주의는 구식민지가 시대 전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시한 대응책으로 신식민주의로 해석하였다(西川 2013: 359).

배재식은 1966년에 재일조선인들이 무국적자로 취급당하고 차 별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조약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박탈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비판하였다(배재식 1966).

2000년대 이후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송기찬 등은 제한된 조건이지만 조선학교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민족교육의 실효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고교무상화 실현을 위한 운동 과정에서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 문제를 연구한 서적과 논문들이 다수 발표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정진성은 수세대에 걸쳐 귀화하지 않고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소수민족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를 민족학교의 존재에서 찾으면서, 조선학교뿐만 아니라 한국학교, 국제학교, 민족학급에 이르는 민족학교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한일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정진성 2019: 56). 그러나 일본 정주 지향으로 전환한 조선학교에서 한국국적을 가진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학자들과 논의하였음에도, 그 근원과 해결책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점은 역사적 한계로 볼 수 있다. 임영언, 안병삼, 김수진은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제도로부터 제외된 사실을 지적하며 교가를 통해서 조선학교 차별정책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 정책을 비판하였으나, 근본적 요인으로서 한일 양국 정부의 기민정책을 간파하지 못하였고, 〈무국적자〉가 된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1.3. 민족정체성의 역사적 배경

민족교육은 해방 이후, 1945년 9월 미점령군 GHQ(General Head Quarters;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재일조선인을 적국민으로 취급하고 치안적 관점에서 대규모 탄압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외국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명기되어 있던 헌법을 「국민은 일본 국적 소유자」로 변경하고 해방된 조선인들의 참정권을 정지시키고 외국인등록증제도를 실시하여 이들을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재일동포들이 시작한 국어강습소는 민족성 회복의 상징으로서, 반세기 가까이 동화정책에서부터 민족의 말과 글, 정신을 회복시키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극심한 물질 부족과 가난 속에서도 교재, 교과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며 1948년 4월에는 535개교, 학생 수 57,204명에 이르게 되었다. 1948년의 「조선인 학교 폐쇄령」을 반대하는 투쟁은 GHQ의 강경 대응이 승리했다고 보는 견해와 재일민족교육사 속에서 역사적 위업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해방된 조선민족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지원도 없이 재일동포들은 조선인 학교 폐쇄령에 맞서 맨몸으로 투쟁하였으며, 전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수천 명이 검거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내 민족교육을 지켜냈다. 한신교육투쟁과 김태일 소년이 총탄에 맞아 사망한 오사카부청 사건을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항의투쟁은 재일동포들의 교육권리 옹호 투쟁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변이었다(金德龍 2004: 78-98).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1949년 9월 8일에 재일본조선인연맹을 해산시키고,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며 재일본조선인연맹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각의 결정을 하였다. 또한 항의투쟁 과정에서 조선학원이 문교부 장관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급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헌법 제89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행정 통달 하나로 내각 결정이 뒤집힌 것은 식민지 지배의 논리 「제국의 말에 응하지 않는 자는 관리·말살의 대상으로 한다」는 사고가 「전후」 일본 사회에서도 형태를 바꾸어 심화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학교 학생 수는 1948년 4월 58,540명을 정점으로 1949년 5월 36,923명, 1952년 4월 17,107명으로 줄어들었고 십여 만의 자녀들은 일본 학교에 편입시키고 집단적인 동화교육·일본인화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재일조선인 교육문제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문제로서 자녀들에게 빼앗긴 민족어를 배우게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조선학교의 처우 문제는 조일 간의 식민지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고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해방 이후 일관되게 재일교포들에게 무관심과 기민정책으로 대응하였으며,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을 기다리는 한편, 한국으로의 귀환을 사실상 거부하였다(『統一日報』 2008.1.16.).

김일성 주석은 재일동포를 해외 공민이며 말이자 곧 민족으로 보고, 민족의 넋을 심어주는 것이 민족교육이라고 하였다. 조선은 1957년부터 매년 200만 달러 이상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귀국의 뱃길도 열어 주었다. 당시 일본의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재일동포들에게 자신들을 환영해주는 귀국길은 9만여 명의 재일동포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거류민단의 〈북송반대〉라는 민족 간 대립도 가져왔다.

재일동포들은 1955년에 조선인총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기존의 좌경적인 방침을 수정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내정불간섭의 원칙 아래 전개하면서 식민주의를 부인하고 민족적 주체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민족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이끌었다. 조선인총연합회는 조선을 유일한 조국으로 받들고 그 기치에 따라 나아갈 것을 8대 강령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민족사대주의와 허무주

의자들과 결별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갔다. 귀국의 뱃길은 민족교육을 확대시키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일관된 민족교육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학생 수가 약 4만 명대까지 증가하였다.

오영호는 조선학교 교과서가 초기에는 조선의 번각판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3차 개편 사업을 통해 「남북조선과 해외 동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교과서」로 발전하였으며, 민족정체성을 키우는 국민교육과 탈식민지화를 노리는 동시에 일본 현실에 맞는 민족교육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지적하였다(吳永鎬 2019: 168-173)[3]. 일본에서 「참된 조선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은 1950년대의 국어 상용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의 우리말 상용과 우리말 생활화를 정착시키면서 일본어식 우리말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떳떳한 조선사람」의 범주에는 조선민족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배우는 애국주의적 교양도 포함되었으며, 민족적 주체를 세우며 치마저고리를 학교 교복으로 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대의 납치 사건 발각 이후 헤이트 스피치와 폭행 사건 등으로 일부 수정하게 되었지만 탈식민지와 조선사람교육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동화정책의 결과, 한국·조선계 일본인 88만 명을 포함한 약 127만 명의 사람들은 한민족과의 연결을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조선·한국 국적자 43만을 포함한 약 170만 명의 운명은 역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은 장차 디아스포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 민족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좋은 시기가 되었으나 현실은 신식민주의의 글로벌 사회 영향으로 민족정체성을 고수·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에는 약 743만 명의 코리아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조선족을 비롯하여 범민족 차원으로 조선민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선족에 대해서는 민족어로 정규교육을 하도록 70여 개의 학교에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權寧俊 2014: 27-32)[4]. 중국의 조선족 중학교에는 교원 550명, 학생 16,700명,

3 강성은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편찬사업은 세 차례(① 1945~55 ② 1955~92 ③ 1993~2003) 걸쳐 진행되었다.

4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 학생 수는 1980년 224,487명, 1998년 218,472명, 연변은 1998년

초등학교 1,500 여 개, 교원 5,500명, 학생 18만 명이 있다. 고등교육은 1949년에 연변대학이 설립되면서 조선족의 민족 자질과 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약 5천 명의 문맹을 퇴치하였고, 1986년에는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시켜 중국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문화적 자질이 제일 높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고려할 때 조선족은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련분 1991: 249-298)[5].

재미교포들은 민족교육을 위하여 미국 내 2개의 전일제 한국학교와 809개의 보습소, 867개의 한글학교를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6].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학교 교장을 지낸 박영선은 1972년에 학교를 설립하여 1990년에는 17개교, 교원 250명, 학생 수 약 3천 명으로 확대하였다. 당시 한국인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10%로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미국 내 다문화 사회의 영향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高賛有 1993: 208-211)[7].

2. 재일동포들의 민족정체성의 변천과 과제

2.1. 국적과 민족정체성의 관련성

일본의 패전은 조선에 해방을 가져다주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유엔에 의한 단독 선거 강행은 분단을 고착시켰다. 침략의 당사국인 일본이 유럽의 독일과 같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가 인위적으로 분할되는 비극이 초래되었다.

102,501명, 2009년 40,649명이었다.

5 고등교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임춘추가 주임이 되어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1949년 2월 18일 동북조선인민대학이 연변대학으로 개편·출범하였다.

6 일본강제이주 역사와 미국의 이민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7 박영선은 아메리칸 스쿨에서 교원으로 시작해 가주한국학원 교장을 지냈다. 1972년「무궁화학원」, 1976년 남가주한국학원을 설립하고 1984년 주정부 정식 인가 후 1990년 54만 달러를 지원받아 중고등학교를 개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재일동포들에게 부여된 국적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낳은 재일조선인 처우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감시대상으로 삼았으며 1947년에는 천황이 마지막 칙령을 통해 재일조선인 대다수의 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규정하였다(서경식 2017: 315). 이어 1952년 4월 19일 일본 법무부 민사국장의 통달이 공표되어 「조선인은 강화조약 발효일부터 일본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해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조선인은 외국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등록 위반자에 대한 강제 추방까지 포함시켰다(정진성 2017: 63). 이는 분단된 남북 어느 한쪽의 국민적 귀속이 아니라 조선민족 전체에 대한 민족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국적」과 달리 「한국국적」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 국가에 대한 국민적 귀속을 의미하도록 추진한 것이다. 이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조약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을 분단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제인권법(자유권규약 제2조, 제26조)에 의거한 평등의 원칙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문제보다도 일본 국가에 의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어 공적 제도의 적용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졌으며, 외국인등록증 제도를 통해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강제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 침해가 약 40년간 지속되었다. 1952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서둘렀던 배경에는, 조선전쟁 시기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군수산업의 유지·발전과 반공산주의 포위망 구축이라는 목적이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식민지 해방 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고려는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국적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적의 박탈이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식민지 출신 주민들에게는 일정한 국적 선택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들은 이러한 선택권을 보장 받기는커녕 오히려 국적 박탈을 당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본과의 결별을 지향한 민족교육은 곧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군정과 일본정부의 탄압은 1940

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한일조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서경식은 일본 당국이 식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해방직후의 전후처리과정, 한일조약 체결 시의 전후 결산, 김대중 납치 사건, 그리고 천황의 사망 등 여러 차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천황의 서거를 하나의 「호기」로 삼아 전쟁책임을 사실상 면제하고, 전후 복구와 번영을 강조하는 가운데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서경식 2017: 274). 한편 민족교육의 졸업생 수십만 명은 재일동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국적과 민족정체성은 성격이 다른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 조선국적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한국국적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조선반도는 남과 북으로 통치권이 갈라졌지만, 같은 핏줄을 이은 민족이다. 재일동포들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 속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만큼,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역도산」의 국적은 일본이 되었지만 혼자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38선 분계선에서 「어머니」라고 외치던 부르짖음이 진심이었음을 필자는 확언할 수 있다.

조선국적을 유지하면서 받는 불이익은 여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해외 출국 시에는 「재입국허가증」을 대신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난민 여권」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에 갔다가 일본에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뿐이지 일본이나 조선 어느 국가로부터의 외교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법무성은 「외국인등록시 조선의 기재」는 「조선반도 출신자를 지칭하는 용어일 뿐, 어떠한 국적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일본 국적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고 1985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호적법도 개정되면서 일본식 성명으로 창씨개명을 요구하던 관행이 완화되어 민족명을 유지한 채 귀화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1990년대에 귀화가 증가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간 매년 1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약 5천 명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진성 2017: 67). 국적의 발생 역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문제이며, 과거 청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식민지 지배라는 부정적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이미 지나간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大沼 2004: 359-360)[8].

여기서 재일조선인 문제가 일본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구식민지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로 다른 재류 외국인들의 권리와 인권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에서 일본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佐久間 2011: 83-88)[9].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역사적 관점에서 재일조선인은 이민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산물로 일본에 오게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大沢 2000: 68-69)[10].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점을 망각한 채 재일조선인을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려 하였다. 조일 간의 국교 문제는 「수십 명의 납치 피해자」 문제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일본인 처」 「수천 명의 유골」 문제 등 인권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쟁 종결의 실마리를 찾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岩渕 2000: 24-28)[11].

2.2. 다문화교육과 민족교육의 대비

다문화주의의 용어와 개념은 1965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8 재일조선인문제해결이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원리적 태도란 의미에서 보편성을 가지며 일본인 자신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9 아일랜드의 남북분단에 대한 영국의 책임과 같이 조선반도의 남북분단에 끼친 일본의 책임은 무겁다. 식민지 시대의 강제연행, 징용, 징병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든 것도, 전후 남북으로 갈리게 된 요인도 모두 일본에 있다고 보았다.

10 식민지시대에 조선사람은 조선어사용을 금지당하고 일본어 상용을 강요당했다. 해방 후에도 식민지 시대와 같은 교육정책으로, 조선학교를 폐쇄하고 일본학교를 다니도록 강요했으며 재일조선인들이 조선어를 가르칠 자유마저 빼앗았다. 그 결과 일본 사회와 민주주의 역시 이를 묵인하면서 재일조선인을 배제했고, 결국 조선어를 모르는 재일조선인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국가의 교육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일본 사회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다문화공생을 내세우거나 재일조선인의 귀화를 촉진하는 것은 결국 이류시민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영 제국의 구식민지 국가로부터 나와서 이후 10가지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공통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새로운 「공생」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압과 착취, 차별의 과거를 은폐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선주민들을 내쫓거나 학살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의 다문화주의」에서 「차이의 다문화주의」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이는 이민의 증가와 소수민족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아이덴티티와도 연관되게 되었다(西川 2013: 302-334).

다문화공생이 지니는 은폐된 양의성을 드러낼 경우,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공생의 담론이 식민지와 선주민의 존재를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가 구식민지의 시대의 전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시한 대응책이다. 나아가 글로벌화는 식민지가 없는 제2의 식민지주의를 초래하였고, 신자유주의는 「신」식민주의로 전개되었다(西川 2013: 359).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연구자 킴리카(W. Kymlicka)는 「국민형성은 반드시 다수파 민족이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수파 민족을 배제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민국가라면 민족문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리베라리즘의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다문화공생 담론이 시작되었고,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오사카에 「다문화공생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다문화공생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다. 일본 정부 총무성에서는 다문화공생을 「국적과 민족 등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清藤 2025: 27). 재일동포이자 「히타치법정」 투쟁을 이끈 최승구는 「민족주체성이 개인의 자립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공생은 김영삼 대통령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글로벌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였고, 「재외동포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조선반도 출신 동포들을 한민족으로 우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였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는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지방참정권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적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다문

화가정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통합을 지향하였다(文・水野 2015: 230).

한국에서의 다문화공생은 외국인을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취급하고, 외국인고용허가법을 제정하며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田中 2013: 248)고 평가된다. 그러나 재일교포들의 사회적 처우 문제, 「한통연」과 「조선국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한국학교는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법 제82조의 인가를 받으면서, 일본교육법에 따라 건국학교,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 도쿄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수는 2001년에 비해 2016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 각각 702명 → 969명, 381명 → 524명, 462명 → 656명으로 늘어, 전체 1,545명에서 2,149명으로 증가하였다.

건국학교,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의 이념은 「일본에서 존경받는 한국계 일본인」을 양성하고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학교로서 한일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가 진정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키우는 민족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학교들은 일본 학교법 제1조 문과성의 학습지도요강에 따라 민족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일본의 동화교육에 동참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24년 일본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교토국제학교가 우승을 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메세지를 보냈지만, 이것이 어느 나라 민족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든 천황의 「국가」와 히노마루 국기 게양을 포함한 교육을 민족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쿄한국학교는 「모범적인 시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 내용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이지만, 주로 주일 자녀들의 취학이 많아,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보다는 재일 외국인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에는 200교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올드커머가 다니는 조선학교를 제외한 중국학교나 뉴커머가 다니는 브라질 학교와 페루, 미국, 영국, 인도, 독일, 인도네시아 학교 및 인터내셔널 학교들이 있다.

브라질학교는 1990년대부터 설립되었으며, 2008년에는 약 1만 명의 학생들과 100개교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일부 학교가 폐교되면서 2014년에는 학교 수가 56개교, 학생 수는 약 4,70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일본학교로 유입되었는데, 이들은 가운데 일부는 미취학 상태에 놓이거나 등교 거부를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森 2009: 88). 브라질 교육성은 2001년 브라질학교 연맹을 결성하여 학교시설을 안정화하고, 고등학교 취학 지원학교로 인정하는 한편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학교로 지정하였다(小島 2016: 114). 일본 정부 역시 리먼 쇼크로 실직한 브라질인들에게 2009년 국가 예산 37억 엔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12개 학교를 승인함으로써 다른 외국인학교와 차별화 및 서열화를 하였다[12]. 한편 중화학교는 1898년 설립 이후 130년 이상 이어져온 화교를 위한 학교로, 일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각종학교이다(志水 2014: 39). 중화학교는 화교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화교인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모국어와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민족정체성을 육성해 왔다. 중화학교는 통괄하는 기관은 없으나 5개의 중화학교가 독자적으로 교과서와 교육 과정, 교원 채용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제공한다」라는 이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石川 2014: 160)[13].

중화학교도 1980년대 이후 뉴커머(신화교)의 등장으로 국적을 변경하거나 교육내용도 전통문화는 살리면서 일본 상황에 적응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인이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중화학교에 다니게 되어

12 재일 「아이교육재단」이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조선학교학부모 62명, 고급생 97명, 한국학교 학부모 5명, 학생 4명, EAS브라질학교 학부모 12명, 학생 14명)으로, 「모국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선학교 87%, 브라질학교 48%이었고, 「일본어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선학교 53%, 브라질학교 51%였다.

13 도쿄중화학교 1929년 설립. 홈페이지 2018년 기준 중국국적 17명, 대만국적 35명, 일본국적 147명, 총 217명. 요코하마야마테중화학교 1898년 설립. 2017년 홈페이지 기준 중국국적 191명, 재일중국인 369명, 일본국적 32명, 초등학교 427명, 중학교 165명, 총 592명. 요코하마중화학교 1898년 설립. 총 466명, 오사카중화학교 1946년 설립. 유치원 18명, 초등학교 192명, 중학교 47명, 총 466명. 고베중화동문학교 1899년 설립. 2017년 홈페이지 기준 초등학교 480명, 중학교 215명, 총 695명.

학교내부가 다양화에 대응 하다보니 민족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다. 증화학교에 일본 국적자의 비율은 도쿄 70%, 고베 60%, 오사카 70%, 요코하마 30%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서 나타나는 글로벌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 국제 경쟁력의 저하는 「유용성의 기준에 따라 공교육에 경계선을 긋는 동향」(芝野 2008: 48-49)[14]을 보이며, 「포섭과 배제」(比嘉 2008: 31)[15]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학교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하나로서 취급되지만 조선학교는 다른 외국인학교와 달리 공적 교육보조금에서 배제되었으며, 외국인학교 간의 이중구조와 서열화가 형성되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납치 사건 발표 이후 조선학교는 다른 외국인학교하고 명확히 구별되었으며, 조선인총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선학교 경영을 후원해온 조은신용조합이 불량채권으로 파산하자, 그 채권을 이어받은 정리 회수 기구가 약 200억 엔 규모의 학교채권을 강경하게 회수함으로써 학교운영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青木 2011: 136-143)[16].

고교무상화는 외국인학교와 함께 조선학교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자민당 아베 정권 하에서 독자적인 제재의 일환으로 조선학교만 제외되었다(田中 2013: 136-143)[17]. 이에 일본 전국에서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

14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교육에 경계선을 그어서 이제까지 분열 경향을 보이던 자치단체마저 그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5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포섭과 배제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6 버블경제 붕괴 이후, 조은신용조합은 파산하여 약 1조 3000억 엔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과 은행의 불량 채권은 인정되어 삭감되었으나, 조선학교와 조선인총연합회 관련 불량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아이치조선학원도 1999년에 약 14억 엔의 불량채권을 청구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이후 2016년에 화해를 통해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17 시모무라 전 문부과학상은 2012년 1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의 전진이 없다」는 점과 조선인총연합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원래는 국제평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 학교에 대해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을 인정해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으나, 2010년 8월 정치적 이유로 해당 절차가 「동결」

는데,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만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5개 지방재판소에서는 패소하였다. 이후 2021년 7월 27일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종결되었다. 이 재판은 조선학교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패소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던 조성금이 27개교 중 16개교의 학교에서 삭감되었으며, 금액 또한 5억4,970만 엔에서 5,720만 엔으로 약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한국인, 재일동포 예술가들은 〈여기가 우리학교다〉, 〈토라이〉, 〈소리여 모여라〉 등 작품을 제작하여 일본 사회의 여론에 호소하였으나, 사회 여론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2.3. 한사코 내외의 여론을 무시하는 일본의 배경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이민정책의 통합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국제적인 비교조사 〈마이펙크스〉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38개국 중 종합순위로 27위, 교육부문은 29위, 차별금지에서는 37위로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佐久間 2015: 133).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의 종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일본만의 독자적인 발전 형태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竹沢 2009: 4).

국제연합(UN)은 2013년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 2014년에는 「인권 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인권 차별 철폐를 권고하였으며, 2018년 「총괄소견」에서도 이를 거듭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국제연합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 들고, 되려 납치 문제를 문제 삼아 반박하였다. 결과적으로 식민주의와 관련된 차별 문제는 국제연합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18].

납치 문제도 제재로 인해 해결이 멀어지고,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다(江

되었고, 2013년 2월에는 조선고교 심사의 근거 자체가 삭제되었다.

18 反差別国際運動日本委員会編(2016)에 의하면, 일본은 아동교육의 차별을 금지하는 유네스코 조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口 2017: 206).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처리 과정에서 형법상의 죄만을 다루고 정치적 죄는 중도에 그쳤으며, 형이상의 죄와 도덕적 책임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뒤로 미루고 반성할 기회도 놓친 것이다(江口 2017: 208). 일본은 조선사람이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본 헌법 13조와 26조에도 언급되어 있으며(苅部·高橋 2015: 94),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金東勳 2004: 60).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자의 수와 인구 비율은 사회적 위협이 되거나 사회 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나, 서로 배경이 다른 다민족이 사회적 통합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아시아의 다문화 정황은 식민지화와 근대화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식민지 문제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일찌기 근대화와 국민국가 형성에 성공한 일본은 제국 열강과 함께 아시아 식민지 침략을 수행하며 조선반도 분열을 비롯하여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늘날 아시아의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은 식민지 지배의 흔적과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西川 2013: 287).

필자는 일본의 외국인 학교들을 모아 「다민족공생교육포럼」을 2005년부터 3년간 시행하였으나 호소문 채택에 그치고 말았다(小貫 2017). 일본 공명당 국회의원들은 일본 국익에 부합하는 브라질 및 서구 출신 외국인들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국민화」에 부응하는 다문화공생 교육을 지원하지만, 강한 민족정체성을 키우는 조선학교는 도외시되며, 치안 유지의 관리 대상으로 간주된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이 「국민의 육성」과 「국민」의 기회 균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교육권은 상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어 및 민족문화 교육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고 일본 사회 적응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경향은 문제로 지적된다(塩原 2012: 52).

재일조선인 교육문제가 일본의 과거 식민주의를 부인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본 당국자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제기된다. 또한 조선학교는 재일동포 자녀들을 일본에 동화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조선학교 처우 개선 문제는 조일 간의 식민지 문제를 해결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실마리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당국이 식민주의를 극

복하고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오카모토는 「역사를 반성을 하지 않고 구식민지 국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구종주국이 있는가」라며 일본을 비판하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이상이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었다(石橋 2025: 29). 2002년, 「조일평양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되는 사죄〉를 표명하고 경제 협력 시행도 약속했으나 납치 문제로 인해 선언의 의미는 크게 훼손되었고,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보다 피해자의식만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조일 및 남북 간의 국가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 거주하는 정주민이자 시민이다. 이들은 특별영주자 자격을 통해 일본에서 거주하며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뉴커머 입장에서 보면 재일조선인들은 상대적으로 큰 권리를 누린다고 볼 수 있지만, 재일동포는 교육권 측면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원 수준도 뉴커머에 비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일본의 다문화공생 교육의 현황은 모국어나 모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고, 단지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일본국민형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납치 사건 발각 이후 일본 내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 의식은 희미해지고, 일본인 = 가해자, 재일조선인 = 피해자의 관계로부터 일본인 = 피해자, 재일조선인 = 가해자의 관계로 재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혐오와 증오에 찬 조소가 증폭되고, 불안을 전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조선학교는 국고지원이 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지만, 차별을 차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식민지적 발상이 여전히 일본 사회를 지배하며,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조선인총연합회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 의식과 식민지주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郭 2006: 156). 일본에서는 15년 간의 〈전쟁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1875년 이후 강화도침략 이후의 「150년 전쟁」과 「식민지책임」을 논하는 사람은 적다(乗松 2018: 101). 조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악성적인 표상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배척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 시각을 유지하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는 정부 차원에서의 위에서부터 차별과 민간 차원에서의 배

타주의자들에 의한 밑에서부터의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러한 차별 의식의 근간은 식민주의에 기반한 인식에서 비롯된다(朴金優綺 2018: 156).

이와 같이 민족정체성을 부인하는 다문화공생은 신식민주의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이 국민 형성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은 식민주의로부터 비롯된 차별 의식을 근절한다는 의미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민족교육의 100년대계를 위하여

3.1. 식민주의 청산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일본 정부

재일동포들 사회에서는 조선학교를 재일조선인의 교육 요람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을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1998년 민족교육포럼을 비롯한 여러 논의의 장에서 제기되었다. 필자도 2003년 서만술 의장 시기 「중앙민족교육대책위원회」에 속하여 반년에 걸쳐 건의안을 작성하고 제출한 바 있다. 재일동포들의 대다수는 한국 국적자이며, 조선국적자, 귀화자, 중국의 조선족이 있고, 학부모 세대는 3세대·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내 배타주의가 확대되고 조선학교의 교육권이 제한되면서, 조선학교 학생 수 확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일본 학교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상화되는 가운데, 조선학교의 수업료와 교통비는 1인당 월 1만~5만 엔에 달해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침체와 학부모 월평균 수입이 약 30~40만 엔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교원 급여가 미지급되면서, 가정을 이룬 교원들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동요하게 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수 년간 지속되면서 젊은 교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베테랑 교원들 또한 이탈하며 이직률이 높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조성금은 감소하고 기부금 또한 줄어들어 별도의 사업 수입마저 없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본에서 조선학교 학생만이 비싼 수업료와 교통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학교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교원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교원의 직무 수행에도 지장을 주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학부모들이 자녀를 일본학교로 보내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 학교로의 전학 요인은 결코 재정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육의 내용과 질, 진로·진학에 대한 불안, 통학 거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조선학교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체 학생 수가 약 4천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6년 4월부터 학부모의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공립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물론 사립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45만 7천 엔이 지급되고, 연간 소득 910만 엔 이상인 가정에도 일률적으로 11만 엔이 지급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에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었다. 시모무라 전 문부과학상은 "무상화 문제는 조일 국교정상화와 연동되어야 하며, 납치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은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국교정상화나 납치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학생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선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학교는 일본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국어가 외국어처럼 다루어지기 때문에 민족정체성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동들이 자기 민족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다니는 문제는 세계인권법에 지극히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 헌법 13조와 26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조선 학생들에게 「일본 학교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1948년 GHQ

와 당시 일본 정부가 전후 계엄령으로서 조선학교를 강제로 폐쇄했던 정책과 같은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정전 협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인질은 교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질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다.

일본은 민주주의국가로서 헌법 준수를 강조한다면, 타민족에 대한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현행 정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고교무상화 관련 재판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일본 문부과학성은 직접 조선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시설·설비, 운영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이 「반일적」, 「일본의 부당한 지배」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다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기준의 근저에는 「반조선·반조조선인총연합회」 의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일조약에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식민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일합병과 을사조약을 합법으로 간주하였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은커녕 미지급금이나 채무 정산 문제만을 해결 대상으로 삼았다. 전시의 군인, 군속, 노동자들을 동원함으로써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吉澤 2009: 137)[19].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의 가해 사실을 감추고 납치 피해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그 책임을 경감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2년 9월 채택된 북일평양선언에서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아시아 인민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吉澤 2009: 145). 그러나 식민지 책임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일 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9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배상이나 보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청구권 자금으로 표현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는 귀중한 교육의 장이다. 민족교육은 민족의 넋인 우리말과 글을 되찾는 원상회복의 영위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다문화와 양립될 수 있으며 공생이 가능하다. 납치 사건 발각 이후 일본 사회의 압력은「북조선 = 절대악」구도 속에서 헤이트 스피치, 차별 시각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세계적인 다문화공생은 시빅 내셔널리즘(시민주의)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중시하는 에스닉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많다.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없었다. 새로 등장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조선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조일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조선학교 처우 문제 해결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일본에서는 많은 일본시민들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더욱 발전시켜 보장하는 것이 조일간의 국교 정상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ASEAN 국가들의 교육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연합 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과 아동권리조약 기구들에서 조선학교의 처우개선을 여러 차례 권고받아 왔으며, 이를 진지하게 수용하여야 국제연합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국제연합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기본이념은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국제사회의 긴급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SDGs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본에서 조선학교만이 예외적으로 〈소외되어도 되는 대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2. 남북정부가 공동으로 교육지원을 할 것을 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힘든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68년간 171차에 걸쳐 약 499억 8,859만 엔을 지원해 왔다. 또한 민족교육에 필요한 동식물자료와 기자재, 교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랑, 배려를 지속해 왔다.

이 국가적 사랑과 배려는 민족교육이 80년 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유지·발전해 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을 더 끌어올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20].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교육을 동포애적 관점에서 지원한다면, 민족 공동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를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재명 정권은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60년 전에 체결된 한일조약에서 재일교포의 지위와 역할을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외교 문제로 제기할 의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라는 이념적 틀에 갇혀 있어 직접적인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학교 학생의 약 70%가 한국 국적자이며, 조선학교가 민족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가 재일민단(재일대한민국민단)에 지원하는 보조금 500만 달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다. 한때 김대중 대통령 시기 일부 자금을 전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한국의 보수세력과 민단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 민족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몽당연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폭넓은 지원도 이루어졌으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 제도적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권이 60년 전에 체결된 한일조약과 관련하여 재일교포의 지위와 역할을 일부 조정하고, 재일교포 자녀 교육사 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남북 간의 장벽을 완화하고 일본 정부의 민족교육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정체된 남북 간의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20 일반재단법인 아이교육재단이 2025년 6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한국 정부에게서 도움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20%)보다 조선공화국의 도움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30%)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민족교육은 민족의 넋인 우리말과 글을 되찾는 원상회복의 영위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일본 문화와 양립될 수는 없으나 조선반도의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국 국민과는 공생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크지만,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3. 민족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모체가 죽을 각오를 다지고 지켜나갈 것이다

학교 변화의 키워드는 「학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에 있다. 2003년 이후 개편되지 않았던 교과서도 2025년에 들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인들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하여 민족정체성을 지키는 교육내용으로 개선하고, 학생 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운영을 정상화해 나간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총연합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학교 부동산 자산을 지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상공업 및 금융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민족교육 재원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운영은 동포들의 지성과 학부모, 교육회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단협의회를 전국적으로 구성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학교 자체가 재일동포들의 요구와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민교육의 폭을 넓혀 민족의 넋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 변화·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정비·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조선대학교는 공화국의 해외 공민대학

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본 교육법이나 한국 교육법상으로는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교육을 참신하게 개혁해 나간다면 이탈했던 학부모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며, 교원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를 일본 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면 교원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면 학교의 매력도 역시 확대되어 학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증가할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일본 국가시험 중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31명 배출하였으며, 합격률 또한 일본 대학 전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위권에 해당한다(『朝鮮新報』 2024.12.12.).

세계적으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억압하려는 식민주의를 청산하려는 흐름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글로벌 시대의 발전양상에 기여할 세계적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낼 것이며 그 가능성은 무한대이다. 민족교육의 장래는 밝으며, 통일 조국의 민족적 자산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민족교육의 전통을 계승하여 100돐을 계기로 이를 세계사적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절실한 염원이자 우리민족의 숙원이다.

참고문헌

青木理(2011)『ルポ拉致と人々ー救う会・公安警察・朝鮮総聯』, 岩波書店, 36-143.

文京洙・水野直樹(2015)『「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書店, 230.

江口昌樹(2017)『「拉致問題を超えて」平和的解決への提言』, 社会評論社, 206.

江原護 (2003)『民族学校問題を考える』, アジェンダ・プロジェクト, 24.

比嘉康則・舘奈保子(2014)「外国人学校施策の『歴史的展開」, 志水宏吉(編)『日本の外国人学校』, 明石書店, 31.

石橋学(2005)「「日朝韓三国平和を考える会」が院内集会」,「『週刊金曜日』第1525号, 29.

板垣竜太(2011)「批判理論の陥落-ある同時代史的査察-」, 歴史学研究会(編)『「韓国併合」100年と日本歴史学:「植民地責任」論の視座から』,青木書店, 257.

石川朝子(2014)「民族教育から新たなフェーズ」, 志水宏吉(編)『日本の外国人学校』, 明石

書店, 160.
岩渕功一(2010)『多文化社会の「文化」問う共生/コミュニティ/メデア』, 青丘社, 24-28.
郭基煥(2006)『差別と抵抗の現象学在日朝鮮人の「経験」を基点に』, 新泉社, 156.
芦部信良・高橋和幸 (2015)『憲法[第６版]』, 岩波書店, 94.
金徳龍(2002)『朝鮮学校の戦後史 1945-1972』, 社会評論社, 78-98.
金東勲(2004)『「共生時代の在日コリアン」国際人権30年の道程』, 東信堂, 60.
金兪貞(2007)『多文化共生教育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147.
小島祥美(2016)「『外国人の就学と不就学』社会で見えない子どもたち」, 大阪大学出版会, 114.
小森陽一(2005)「母語幻想と言語アイデンティティ」, 上野千鶴子(編)『脱アイデンティティ』, 勁草書房, 250.
宮島喬(2014)『「多文化であることは」新しい市民社会の条件』, 岩波現代全書, 120.
森和重(2009)「日系人子弟の教育・在日ブラジル子弟を中心に」, 川村千鶴子・近藤敦(編)『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ライフサイクルと多文化共生』, 明石書店, 88.
西川長夫(2013)『植民地主義の時代に生きて』, 平凡社, 359.
乗松聡子(2018)「自らの植民地主義に向き合うこと」, 木村朗・前田朗(編)『ヘイトクライムと植民主義反差別と自己決定権のために』, 三一書房, 101.
小貫大輔(2017)「外国人学校の現在」, 荒牧重人(編)『外国人の子ども白書 権利/貧困/教育/文化/国籍の共生の視点から』, 明石書店, 139-141.
小沢有作(1973)『在日朝鮮人教育論歴史篇』, 亜季書房, 436.
小沢有作(2000)『言語と植民地支配』, 植民地教育史研究年報第3号, 皓星社,68.
大沼保昭(2004)『在日韓国・朝鮮人の国籍と人権』, 東信堂, 6-7,359-360.
呉永鎬(2019)『朝鮮学校の教育史」脱植民地への闘争と創造』, 明石書店, 168-173.
朴金優綺(2018)「差別とヘイトに抗して -人種差別撤廃委員会への訴え」, 木村朗・前田朗(編)『ヘイトクライムと植民地主義反差別と自己決定権のために』, 三一書房.
朴尚得(1984)『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 ありえす書房, 50-103.
佐久間孝正(2011) 『外国人の子どもの教育問題ー政府内懇談会における提言』, 勁草書房, 83-167.
佐久間孝正(2015)『多国籍化する日本の学校ー教育グローバル化の衝撃』, 勁草書房, 133.
徐京植(2017)『日本リベラル派の頽落』, 高文研, 315.
芝野純一(2014)「外国人学校研究の動向」, 志水宏吉(編)『日本の外国人学校』, 明石書店, 48-49.
志水宏吉(2014) 「社会の中の外国人学校,外国人学校の社会」, 『日本の外国人学校』, 明石書店, 39-49.
志水宏吉(2008)『ニューカマーと日本学校』, 明石書店, 16.
塩原良和(2012)『「共に生きる」 多民族・多文化社会における対話』, 弘文堂, 52.
高賛有(1993)『アメリカコリアタウン』, 社会評論社, 208-211.

竹沢泰子(2009)「移民研究から多文化共生を考える」, 日本移民学会(編)『移民研究と多文化共生』, お茶の水書房, 4.
田中宏(1975)「日本の台湾・朝鮮支配と国籍問題」,『法律時報』47巻 4号, 85-97.
田中宏(2013)『在日外国人 第三版ー法の壁, 心の壁ー』, 岩波新書, 248.
権寧俊(2014)「変容する朝鮮族の民族教育」, 松本ますみ(編)『中国・朝鮮族と回族の過去と現在ー民族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形成をめぐって』, 創土社, 27-32.
吉澤文寿(2009)「日本の戦争責任論による植民地責任 −朝鮮を事例に」, 永原陽子(編)『「植民地責任論」 脱植民地化の比較史』, 青木書店, 132.
清藤隆春(2025)『お寺でつながる 多文化共生』, 明石書店, 27.
反差別国際運動日本委員会編(2016)『今, 問われる日本の人種差別撤廃ー国連審査とNGOの取り組み』, 解放出版社.
배재식(1966)『기본적인권과 국제법 - 특히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하여 -』, 서울대학교법학 8권 1호, 28-62.
정기렬(2019)「70년조미대결사·완결판」, 21세기연구원, 421.
정진성(2017)「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일본비평』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제16호, 208-241.
정진성(2017)「재일동포의 국적과 정체성」,『일본공간』21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56-102.
한련분(1991)『중국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249-298.
일본법무성통계 www.moj.go.jp 2024년 6월 열람.
『朝鮮新報』2024년 12월 12일 게재.
『統一日報』2008年 1月 16日 게재.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문자학습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어 초급과정의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Character Learning Using Hangul Learning App

- For Japanese Learners in the Beginner Korean Course -

朴恩珠*
奈良大学

柳美善**
ECC国際外語専門学校

1. 서론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교육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수업도 대면 수업과 대등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전과는 달리, 수업 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되는 수업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수업 방식의 유연성은, 대면 수업에서도 적용되어 종래의 대면 수업과는 다르게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동일한 텍스트로 같은 기간의 학습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학기말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학습 도달도가 학습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유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초급과정의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학기말에 학습 영역을[1] [읽기], [쓰기], [말하기]로

* PARK Eunjoo (Lecturer, Nara University)
E-mail: geheimnis6525@gmail.com

** RYU Misun (Lecturer, ECC Kokusai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E-mail: misonr@ecc.ac.jp

구분해서 각 학습 영역의 학습 도달도를 확인해 보면, [읽기], [쓰기], [말하기]가 모두 고르게 평균치인 학습자도 있지만, [읽기], 또는 [쓰기]가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거나 [말하기]가 뒤처지는 등, 학습 도달도가 학습 영역에 따라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는 학습자도 있다. 물론 외국어 학습 과정에 있어서 초급의 학습자가 [읽기], [쓰기], [말하기]의 학습 영역 전부가 고르게 평균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학습 기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마쳐야 할 학습 범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스스로 위축되어 수업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초급 과정의 경우, 본인의 외국어 학습 능력의 한계를 섣불리 진단하고 수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2]. 이러한 사례는 학습자의 부정적인 외국어 학습 경험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며, 그러한 학습 경험을 한 학습자는 적극적인 수업 참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꺼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부정적인 학습 경험이 현재의 외국어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자가 앞으로 해야 할 외국어 수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보다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는 좀더 유연하고 폭넓은 학습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어 교육과정에 있어서 문자 학습은 초급자에게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급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자 학습이 이루어져야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일본어 모어화자 한국어 학습자[3]중, [초급 과정1] 에서 문자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단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습자 30명을 관찰 대상으로[4] 하고, 그 관찰

---

1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영순(2006) 참조.

2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제로 매 학기마다 한 클라스에서 3 - 5명의 학습자가 학기 중에 수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3 이후 편의상 일본인 학습자 또는 학습자로 한다.

4 일본 대학의 외국어교육 과정은 대부분 2년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초급 과정1]은

대상자에게[5] 한글학습 어플을 도입하여[6] 올바른 문자 학습을 유도한다. 또한 한글학습 어플이 문자학습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관찰하면서, 대상자가 문자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글학습 어플 도입 배경과 목적

2.1. 도입 배경

대상자가 [초급 과정1]에서 단위를 취득하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테스트 답안을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성적 미달의 원인이 단순히 대상자의 학습 태만이나 실수 또는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기초적인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테스트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오류는 학습자가 문자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데, 이는 대상자의 잘못된 문자학습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유추된다. [쓰기]에 나타난 오류 중에는 문자의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거꾸로 썼거나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틀리게 쓴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자형성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류가 다수 보이는데, 예를 들어 받아쓰기에서 [만]은 썼는데

1학년 전기, [초급 과정2]는 1학년 후기, [중급 과정1]은 2학년 전기, [중급 과정2]는 2학년 후기, 또는 한국어 과정을 1, 2, 3, 4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명칭만 다를 뿐 교육 내용은 비슷하다. 대학에 따라 재이수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스를 두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도 다수 있다. 재이수 클라스가 없는 대학의 경우, [초급 과정1]에서 떨어져도 [초급 과정2]를 이수할 수 있다. 이는 [초급 과정1]과 2를 모두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위취득를 하지 못한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계속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1학년 한국어 [초급 과정1]과 2중에서 1 또는 2의 단위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중급 과정1] 또는 [한국어 3]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자가 [초급 과정1]에서 떨어져도 [초급 과정2]를 이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급 과정2]의 이수자로서 [초급 과정1]에서 단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습자로 한정한다.

5 이후 편의상 대상자로 한다.

6 수업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학습에는 지장이 없다.

[남]을 못 쓰는 등의 사례도[7] 적지 않았다. 대상자가 자음과 모음이 조합하여 문자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자음인 초성과 종성의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간혹 초급 과정의 학습자가 처음 한국어를 표기할 때 [ㄴ ㅏ ㅁ] 또는 [나 ㅁ]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영어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 표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음소문자인 한글 또한 영어처럼 옆으로 뻗어 가는 자음+모음+자음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정해진 위치에 바르게 기입해야 문자의 형태가 완성된다. 이러한 문자 형태를 익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는 문자학습 과정에서 빠르게 해소 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문자를 이루는 자음과 모음은 알고 있는데 문자 형태에만 한정된 오류는 자음과 모음의 기입 위치만 이해하면 해결되므로, 본고의 대상자에게서 보이는 오류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8].

관찰 대상자의 오류을 좀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모음 8개와 자음 9개를[9] 넣어서 아래와 같이 테스트를 했다.

다음 [보기 1]의 ①-⑧에 주어진 문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①-⑧을 다른 문자로 만들어 보자.

[보기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삼	겁	롬	눙	늘	잇	잼	벨

대상자가 자음과 모음으로 각각 나누어 문자 학습을 했다면, ①-⑧은 [맛, 벅, 몰, 운, 른, 싱, 맺, 렙]으로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대상자의 대부분이 다른 문자로 응용하지 못했다. 대상자에게 [맛, 벅, 몰, 운, 른, 싱, 맺, 렙]을 보여 주고 [읽기]를 시켜보니, [맛, 벅, 몰, 운, 른, 싱, 맺, 렙]을

7 동일한 사례가 [읽기]에서도 나타난다.

8 이러한 오류는 본고의 관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9 사용 교과서의 문자 학습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모음과 자음(평음)을 사용했다.

전부 읽지 못하고 그중 몇 글자만 읽을 수 있었다. 즉 대부분의 대상자가 [맛, 벅, 몰, 운, 른, 싱, 맺, 렙] 중에 본인이 아는 문자만을 읽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대상자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자가 있었음에도 [보기 1]을 응용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대상자가 아는 문자만을 읽을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상자의 문자 학습이 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대상자가 통으로 문자 학습을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대상자가 [가, 나, 다…] 또는 [간 남, 답…]과 같이 문자를 음절로 학습했다면 [보기 1]의 자음과 모음의 재조합을 요구하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보기 1]의 결과를 관찰한 후, 이어서 받아쓰기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내용은 [보기 2]와 같다.

[보기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과일	언제	우리	화요일	영어	외식	영화	유학	식사	외국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어제	생일	사과	학생	요리	언니	어머니	우유	한국어	머리

[보기 2]의 받아쓰기 결과, 오류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답안을 공개하고 단어 읽기 테스트를 했다. [보기 2]의 20개 단어를 이루는 문자는 한 개의 단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에도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문자가 20개의 단어 여러 군데에 재차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올바르게 문자를 익혔다면, 몇 개의 단어를 읽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모두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단어들이다. 즉 [보기 2]와 같이 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가 다른 단어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은 [읽기] 영역으로 본다면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읽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의 [읽기] 테스트에서는 대상자가 알고 있는 단어 외에는 읽지 못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①과 ⑨는 읽는데 ⑬은 읽기를 망설인다거나, ⑨와 ⑩은 읽을 수 있는데 ⑥은 못 읽는 등, 그와 유사한 사례가 대상자 모두에게 보였

다. 이는 대상자 대부분이 문자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된 단어만을 덩어리로 학습했기 때문에, [읽기]에서 본인이 학습한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읽기]로 빨리 대처하지 못하고 인지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상자의 통문자 학습이[10] 점차적으로 정착되면서 단어 또한 덩어리 학습을 꾀했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와 같이 통문자로 학습을 하거나 덩어리로 단어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 하지 않은 문자나 단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서 [읽기]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처럼 잘못된 학습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대상자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하여 문자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 대상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은 한글은 통문자로 학습할 수 없는 문자라는 것이다. 만약 통문자로 학습하려면 3,000개가[11] 넘는 문자를 모두 익혀야 하는데 이는 초급 과정의 학습자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한글의 자음 자모 19개와 모음 자모 21개를 학습하고, 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문자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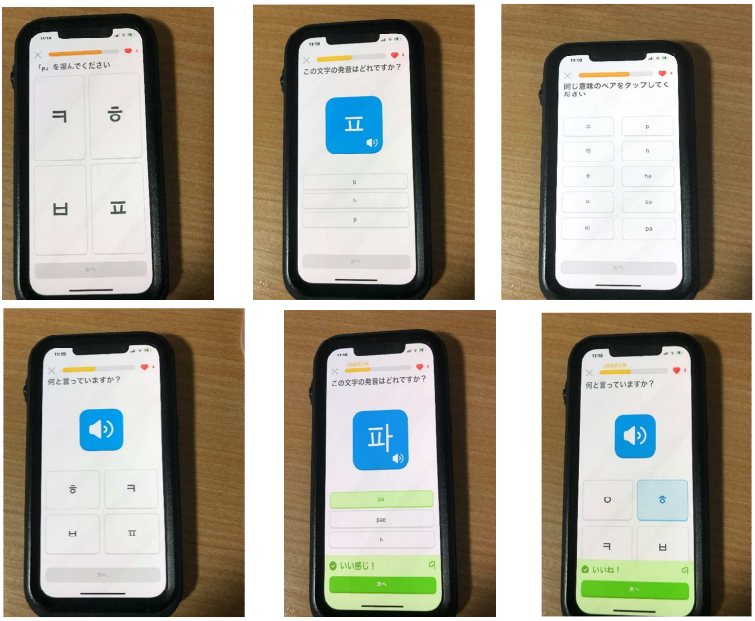
10 [보기 1]과 [보기 2]의 오류를 확인한 후, 대상자 30명의 문자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문자 형성 규칙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정확한 문자 학습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자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규칙을 간과하고 통으로 문자 학습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잘못된 문자 학습은 [맛, 벅, 몰, 운, 른, 싱, 맺, 렙]을 읽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대상자가 문자를 읽는 과정에서 문자를 읽는다기보다는 대충 애매하게 발음하면서 그 문자를 유추해보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학습하지 않은 문자는 읽을 수 없거나 읽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읽기]가 어려운 이유로 음운론적인 문제를 들 수 있으나, 본고의 대상자의 오류는 음운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학습자가 문자 학습에서 모음을 학습 후, 자음 [ㄱ]을 학습했다면 [ㄱ]에 모음 [아], [오]를 조합하면, 배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대상자에게 보이는 오류 사례는 [가]와 [노]는 읽을 수 있는데 [고]를 못 읽는 경우이다. 이는 음운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문자 학습의 문제로 보여진다. 실제로 받아쓰기와 읽기 테스트 결과를 보면, 대상자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아닌 처음부터 [가], [고]와 같이 음절로 학습을 시도했기 때문에 문자 학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읽기] 진도가 뒤처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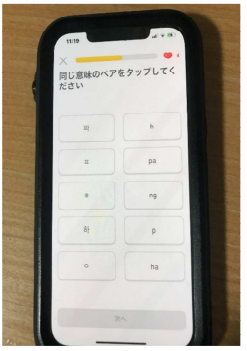
11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의 한얼지 교육자료에 따르면 40개의 낱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는 3192개(받침을 7로 제한한 수)로 40만 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최영환:2007 참조).

따라서 본고의 대상자는 통문자 학습이 아닌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구별해서 익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하기로 한다[12]. 대상자를 위해 도입한 한글학습 어플은 같은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학습하게 되어 있다.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문자와 발음 또한 반복되기 때문에 한글 자모의 형태와 소리를 동시에 연결해서 익힐 수 있고, 발음 또한 로마 문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로마 문자 표기에 익숙한 일본인 학습자의 문자 학습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글학습 어플의 문자 학습 과정을 보면, 먼저 기본 모음을 익힌 후, 자음의 평음, 격음, 농음 순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데, 다음의 [어플 문자학습 보기]는 격음을 익히는 과정이다. 격음의 소리와 형태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학습하게 한 후, 모음을 조합하여 문자 학습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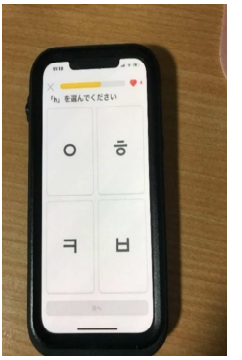
[어플 문자학습 보기]



12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급 과정2]의 이수자이므로 후기(後期) 학습 항목에는 문자 수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지시하고, 매주 수업 중에 각 학습자의 학습진행 정도를 확인한다.







2.2. 관찰 방법과 목적

관찰 대상은 일본의 대학에서 주 1회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과정2]의 5클라스 중에 [초급 과정1]에서 단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5클라스의 학습자 전원에게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학습을 지시한다. 사용 어플의 학습 내용은 대략 [문자]–[단어]–[대화] 3단계의 한국어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 학습자는 본인의 한국어 수준에 알맞는 학습 내용을 선택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반드시 1단계인 문자 학습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학습 시간은 1회 5 - 10분 정도이며[13],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매일' 실천하는 것이다. 매주 수업 중에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학습이 '매일' 실천되었는가를 확인하고, 학기말까지 '매일' 빠짐없이 실천한 학습자는 평상점 5점을[14] 받을 수 있다. 학습 진행 정도를[15] 알아보기 위해, 문자 학습을 하는 대상자는 일주일간의 학습진행 정도를 확인한다. 수업 중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학습을 확인하는 시간은 보통 10 - 15분 정도 소요된다. 이

13 학습 시간은 학습자 본인이 설정을 한다. 학습 시간은 짧게 설정해서 싫증이 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시간을 늘리거나 1일 학습 횟수를 늘리도록 종용한다.

14 이는 클라스 전체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15 대상자 이외의 학습자에게도 1주일 동안 학습한 단어나 대화를 노트에 정리해서 쓰게 하고, 2 - 3명이서 학습한 단어와 문장을 응용하여 대화 연습을 하게 한다.

시간은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되는 학습이 아닌 클라스 전체 학습자들 각각의 수준에 맞추어 자유롭게 학습을 하는 시간이므로 대상자 이외의 학습자들은 페어나 그룹으로 대화 연습을 하거나 단어 공부 또는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시간은 학습자 간에 아이스브레이킹 역활을 하여, 학습자의 수업 집중도와 수업 참여도에 긍정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글학습 어플을 도입한다면 학습자의 말하기나 발음학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①-⑥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바, 본고의 대상자가 보다 빠른 문자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학습 어플은 스마폰을[16]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다.
② 발음과 문자를 반복 학습하기 때문에 문자의 소리나 형태를 연결해서 인식할 수 있다.
③ 직접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습자도, [쓰기]를 하면서 익히는 문자 학습과 유사하게 반복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조합하는 문자의 형성 규칙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④ SNS세대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이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인식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문자 학습을 해도 종래의 학습보다는 싫증을 느끼지 않는다.
⑤ 학습자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중 5-10분의 어플 학습은 충분히 실행이 가능한 소요 시간이다.
⑥ 학습 어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수업 분위기가 완화되어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올바른 문자 학습을 하려면 자음과 모음의 형태와 소리를 정확히 연결해서 익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글학습 어플을 도입하여 자음과 모음의 형태와 소리를 연결하는 학습을 반복하면서, 자음과 모음이 조합해야만 이루어지는 문자 형성 과정의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대상자의 학습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6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朴恩珠(2020) 참조.

3. 문자학습 효과와 설문조사 결과

3.1. 대상자의 문자학습 관찰과 효과

2장에서 언급했듯이 대상자의 테스트에 나타난 오류는 대상자가 한글의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의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를 이루는 과정, 즉 자음과 모음이 조합해야만 문자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먼저 대상자는 모음과 자음의 형태와 소리를 정확히 연결하여 학습하고, 각 모음과 자음이 조합하여 문자가 되며 그 문자는 조합된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다면, 문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서 보고 읽고 들을 수 있으므로 시각적 및 청각적인 효과에 힘입어 문자 학습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자가 매일 수업과는 별도로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하여 학습한다면, 정해진 기간보다 문자 학습이 일찍 끝날 수도 있다. 대상자의 문자 학습이 빠르고 바르게 진행된다면, 대상자의 보다 적극적인 수업 참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문자학습 관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학습 기간은 8주로[17] 정하고, 1 - 4주 동안을 A, 5 - 8주 동안을 B로 나누어 실시했다.

[A. 1 - 4주]

① 대상자가 한글학습 어플을 빠짐없이 매일 했는지 확인한다.
② 학습한 문자를 노트에 쓰게 한다.
③ 학습한 문자를 듣고 정확히 쓸 수 있는지 받아쓰기를 한다.
④ 받아쓰기에서 틀린 문자는 숙제로 5번씩 쓰도록 한다.

17 초급 과정에서 문자 학습은 주 1회 수업인 경우, 6 - 8주에 걸쳐 문자와 발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고의 대상자 관찰을 8주로 한다.

[B. 5 - 8주]

① 대상자가 한글학습 어플을 빠짐없이 매일 했는지 확인한다.
② 학습한 문자를 노트에 쓰게 한다.
③ 학습한 자음을[18] 초성과 종성으로 조합해서 쓰게 한다.
④ 받아쓰기를 하고 틀린 문자는 숙제로 5번씩 쓰게 한다.

위와 같이 한글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와는 달리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3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실시한 받아쓰기를 살펴 보면, 1 - 4주에는 과반수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의 원인은 모음의 소리와 형태를 정확히 연결하지 못한 혼동으로 유추된다. 예를 들면 1 - 2주에는 [아]를 [어]로 쓰거나 [오]를 [으]나 [우] 등의 표기 혼동이 보였다, 이와 같은 경우로 3 - 4주에는 [요]를 [유]로 쓰거나 [위]를 [의]나 [외]로, 또는 [애]를 [얘]로[19]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의 혼동은 자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회를 거듭하면서 모음이나 자음의 형태 오류는 점차 감소되어, 5 - 6주에는 오류가 30퍼센트로 감소되었고, 7 - 8주에는 오류가 10퍼센트 정도에 머물렀다. 8주 후에 대상자에게 [보기 3]과[20] 같이 문자 쓰기를 실시했다.

[보기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겹	짱	헥	슬	빡	별	읓	꽝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컹	얗	탭	윤	숱	귓	및	굥

18 농음에 대해서는 문자 학습 때 이미 학습한 내용이기는 하나, 농음은 초성으로 쓰인 것이 모두 종성으로 쓰이지 않고 [ㄲ,ㅆ] 만 종성으로 사용되는 것을 상기시킨다.

19 [아]를 [어]로 표기한 경우만이 아닌 그와 반대되는 오류인 [어]를 [아]로 쓰거나 [으]를 [오]나 [우]로 쓴 표기 혼동도 이에 포함된다.

20 [보기 3]의 ②와 ⑤는 농음의 초성과 종성의 사용구분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다음 [보기 3]의 ① - ⑯에 주어진 문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① - ⑯을 다른 문자로 만들어 보자.

[보기 3]의 조사 결과, 대상자 30명에게 [보기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가 한글 문자는 자음과 모음이 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한 것으로 사료되며, 문자학습 방법이 바르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상자가 꾸준히 학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매일 빠짐없이 해야 하는 그 학습 과정에 한글학습 어플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

3.2.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학습에 관한 설문조사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에 참여한 [초급 과정2]의 학습자에게 학습 효과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내용은 학습자가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하면서 학습 향상과 변화(태도, 계획, 목적의식 등)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방법은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를 하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에[21] 참가한 127명의 학습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 학습 어플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한글학습 어플은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됐다 ㄱ. 됐다 (127명) ㄴ. 안 됐다(0 명) ↓
① 혼자서 단어와 발음 공부를 하면 틀려도 창피하지 않아서 좋다(115명). ② 짧은 시간이므로 시간적 부담이 없고 지루하지 않다(110명). ③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다(93명). ④ 문자 형성과 발음 규칙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51명). ⑤ 반복해서 문장을 듣고 읽으면서 문법과 표현을 복습할 수 있었다(47명).

21 설문조사는 본인의 해당 사항에 따라 복수 선택 가능.

↓(학습 향상과 변화)

·계속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없이 보고 싶다(43명).
·좋아하는 K-POP가사를 조금 이해하게 되어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다(36명).
·처음엔 어렵다고 느꼈는데 조금씩 이해하게 되니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28명).
·조금씩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재미있다 :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25명).
·한국어 발음이 좋아져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23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글 학습어플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자의든 타의든 학습자가 매일 본인이 설정한 시간 동안 학습에 임했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수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 한국어 학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 낸 학습 성과라고 하겠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의 학습 경험이 전혀 없이 처음 배우는 학습자보다 한국어를 잘못 학습한 학습자를 재교육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먼저 그 학습자의 잘못된 학습 내용을 파악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수업 진도와 별개의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여 학습자들이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4. 결론

본고는 문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어 초급 과정의 일본인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한글학습 어플을 도입하여 문자학습 향상에 한글학습 어플이 도움이 되는지 관찰하면서, 대상자의 문자 학습이 순조롭지 못했던 원인을 살펴보았다.

한글학습 어플을 도입하여 대상자의 문자 학습을 관찰한 결과, [초급 과정1]

의 [읽기]와 [쓰기]에서 보이던 오류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문자 학습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학습 향상으로 미루어 볼 때 한글학습 어플은 문자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대상자가 문자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대상자의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모어인 일본어의 문자 체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일본인 학습자 중에 한국어 문자 학습을 어려워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유추된다. 음절문자를 사용하는 일본인 학습자에게 음소문자인 한글은 형태나 문자 형성면에서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학습자가 문자를 익히려면 먼저 모음과 자음을 학습한 후, [자음+모음]과 [자음+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형성을 이해하면 한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음절문자에 익숙한 일본인 학습자는 [나] 또는 [남]과 같이 한국어 문자를 음절로 익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음과 모음을 따로 학습하는 것보다 음절로 학습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채택한 잘못된 한국어 학습 전략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학습 전략이 한국어 문자 학습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대상자의 문자 학습에 나타난 오류는 모어의 문자 체계에 익숙한 대상자가 음절로 학습하는 것이 용이하고 빠를 것으로 판단, 잘못된 학습 전략을 세우고, 음소문자인 한글을 음절문자인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처럼 음절로, 즉 통문자 학습을 시도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초급 과정1]의 수업에 한 명의 교원이 다수의 학습자에게 문자와 발음을 매번 일일이 피드백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교실 상황을 고려해서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학습 방법을 도입한다면, 학습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시간과 수준을 선택해서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으므로 학기말에 나타나는 학습자 간의 학습 성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학습 방법은 음소문자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본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습자가 스스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한다면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본인의 꾸준한 노력이 뒷바침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은

자기주도적 학습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한류 문화에 의한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라고도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의 교육대상을 좀 더 확장하여[22] 한국어의 범세계적 보급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 중에는 한류 문화와 관계없이 한국어를 이수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아래는[23] 2018년 - 2021년에 걸쳐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를 이수한 학습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이다.

① 단위 취득을 위해서: 341명
② K-POP을 좋아해서: 325명
③ 한국 드라마(영화)를 좋아해서: 210명
④ 한국 여행(쇼핑)을 위해서: 95명
⑤ 한국 코스메틱(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어서: 85명
⑥ 한국 요리(음식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79명
⑦ 기타: 65명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① 단위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 문화 콘텐츠와는 상관없이 단위 취득을 위해서 한국어를 선택한 경우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대부분이 한국어가 일본어와 문법이 유사하다는 정보를 통해 학습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경우인데, 그들의 생각대로 한국어가 일본어와 어순이 같기 때문에 초급 과정일 경우, 일본인 학습자가 인도 유럽어를 구사하는 학습자보다 한국

22 문화관광부는 2002년, {1)국어정책 추진 기반의 조성, 2)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3)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증진, 4) 국어정보화 기반 구축, 5) 한국어의 범세계적 보급, 6) 한글 우수성 선양 및 국어 문화유산 보존, 7) 남북한 언어교류 활성화, 8) 특수언어 표준화 지원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상세한 것은 조항록(2004) 참조.

23 朴恩珠(2023)에서 발표한 내용을 편의상 본고에 인용.

어 학습이 용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前期)에 이수한 모든 학습자가 후기(後期)에도 동일하게 한국어를 이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는 전기에 단위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그 대부분은 주저 없이 후기에도 한국어를 이수한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학습자의 한국어 재도전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① 단위 취득을 위해서}와 같은 경우, 전기에서 단위를 받지 못하면 학습자의 대부분이 후기에는 이수를 망설이거나 수업을 포기한다. 즉 대학의 교육 과정상으로 전기의 단위와 상관없이 후기에 한국어 이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이수를 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계속해야 하는 데 뚜렷한 동기부여도 없는 데다가 전기의 한국어 수업에서 본인의 부정적인 학습 경험으로 인해 재도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만을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한국어를 다시 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한국어를 이수한 학습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한국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한국어를 포기하는 학습자 수의 감소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빠질 수 없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보다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심리적 및 물리적 환경이 다방면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순(2006)『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개고판)』서울:월인, 11-90.

朴恩珠(2020)「스마트폰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학습 -일본인 학습자의 철자오류 'ㄴ,ㅁ,ㅇ'을 중심으로-」『국제고려학』18, 국제고려학회, 449-465.

朴恩珠(2023)「그룹 워크를 이용한 발음 학습효과에 대한 고찰 -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국제고려학』 19, 국제고려학회, 249-265.
조항록(2004)「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정책의 실제와 과제」『한국어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232.
최영환(2007)「한글 교육의 이해」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https://kosaa.korean.net, 2024. 5.20.)

재일코리안사회에서의 '재일무용'과 '한국전통무용'과의 월경과 융합

-재일한국무용가의 의식에 주목하여-

The Boundary and Fusion of 'Zainichi Dance' and 'Korean Traditional Dance' in Korean Society in Japan

-Raising and Maintaining the Mind, Feeling, and Intention of 'Zainichi Korean Dancers'-

徐希寧*

立命館大学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재일코리안사회(재일동포사회)에서의 근대 '조선민족무용(이하, 민족무용)'[1]은 일제강점기에 근대적으로 변용과 함께 한반도의 남북측 국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변용·계승되어 왔다. 그것이 재일코리안사회에서도

* SUH Heeyoung (Visiting Researcher, Ritsumeikan University)
E-mail: 24v00059@gst.ritsumei.ac.jp

1 본 논문에서 '조선민족무용'은 필자의 졸저『최승희와 현재』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근대조선 '조선무용'과 조선 '민족무용이라는 호칭에 대하여서는 근대조선 '민족무용'이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주로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된 서양무용과 한국조선의 '전통무용'이 융합된 새로운 무용을 말한다. 또한 분단 이전의 '조선반도'에서는 '조선민족무용', '조선무용'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는데, 1945년 이후 '조선민족무용'은 북한에서는 '조선무용', '민족무용', 한국에서는 '민족전통무용', '한국(전통)무용'으로 불리게 되었다(일본 지배 이전의 무용에 대해서는 북한은 '고전적 무용', 한국은 '민족전통무용'이라고 칭했다). 현재, 조선무용 혹은 민족무용이라는 명칭은 주로 북한과 재일동포사회(총련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시대배경에 따라 근대조선무용, 조선무용, 민족무용, 한국무용, 전통무용을 적절히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주에서 설명한다(徐希寧·서희영, 2025:凡例·법례).

재일동포 한국무용가들의 '민족의식' 형성에 기여한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일코리안사회에서의 민족무용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한국전통무용'이 재일한국무용가들(일본학교나 민단계 민족학교 출신 무용가)[2]에 의해 '재일무용'[3]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전통무용'과 '재일무용'이 어떻게 교류 공연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월경과 융합을 하고 있는지를 재일한국무용가의 활동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해방을 경험한 남북측, 그리고 재일코리안사회를 잇는 포스트 콜로니얼한 시공간에 민족무용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지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한편으로, 그것은 재일코리언의 디아스포라사회에 있어서는 '민족정체성'[4]을 신체화하는 컨텐츠로서 역사 사회학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근대 식민지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긴 시간을 거쳐 민족무용의 계승을 논함으로써, 재일디아스포라사회에서 보다 신체화된 '민족 정체성'과 문화로서 무용예술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나아가 재일한국무용가의 활동을 통한 '한국전통무용'의 월경과 융합이라는 전승과 보급의 현황에 주목함으로써 민족무용이 분단과 이산을 넘어 다시 한번 통합해 나가는 현상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근대의 민족무용을 포스트 콜로니얼 및 트랜스내셔널적 관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2 '재일코리안무용가'라는 호칭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무용가를 지칭하며,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재일한국무용가'라는 호칭은 인터뷰에 응해 준 동포무용가 4명이 자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요청에 따라 사용하였다.

3 이 논문에서 '재일무용'은 필자가 지금까지의 필드워크에서 만난 재일코리안무용가들의 무용(습득)의 출발점이 재일코리언사회라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재일무용가들이 한국전통무용을 이수하여 일본과 한국과의 월경(경계)및 융합의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재일무용'이라고 칭한다(일부 재일무용가는 자칭 재일무용이라고 칭할 때도 있다).

4 재일코리안동포사회에서는 주로 총련계와 민단계 사회로 형성되어 왔다. 특히 민족교육 면에서는 2개의 사회 체제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체제하에 있는 재일동포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로 분단되어 왔다는 역사가 있고,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 더욱이 한국, 이른바 '민단계'나 조선, 이른바 '총련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재일동포나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 부모 중 한 명이 뉴커머인 사람 등 재일동포의 에스닉 정체성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반도 분단을 배경으로 디아스포라화된 재일동포의 해방 이후, 행보는 일제강점기에 뿌리를 둔 포스트 콜로니얼의 문제상황 극복을 과제로 삼아왔다. 해방 이후, 남북 근대 민족무용 또한, 이 무거운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계승되어 재일코리안사회를 매개로 융합·발전하고 있음을 오늘날 민족무용을 전승·보급하고 있는 재일한국무용가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무용가의 의식에 주목하여 '한국전통무용'과 '재일무용'과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민족무용'의 현재: '근대조선무용'의 형성에서 재일코리안사회에서의 '민족무용' 전승·보급까지"라는 연구과제 아래,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이산 속에서 민족무용이 남북의 국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얼마나 다르게 계승·변용·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일코리안사회에서 어떻게 계승·변용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박사논문(徐希寧 2024)으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가필하여 책으로 출판하였다.

본 연구는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까지 충분히 논하지 못한 총련계가 아닌 민단계 혹은 일본의 학교 출신의 '재일한국무용가'의 활동 및 교류에 주목하여 '한국전통무용'과 '재일무용'이 어떻게 월경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졸저(徐希寧 2025)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근대적으로 변용된 민족무용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특히 해방 후, 한반도 남북의 분단과 이산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승·계승되어 왔는지, 또 각각에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추적하면서 민족무용을 둘러싼 문제가 바로 포스트 콜로니얼의 문제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었다.

근대의 민족무용은 식민지 경험 중 최승희(1911~1969?)[5]가 일본을 경유한 서양무용과 이전까지의 민족무용(이것도 궁중무용과 민간의 민속무용이 식민

5 '최승희;崔承喜'의 몰년은 한국의 주요 선행연구나 『친일인명사전; 親日人名辭典』에서는 1969년, 『재일코리언사전; 在日コリアン辭典』에서는 1968년으로 연구자에 따라 최승희의 몰년이 다르지만, 이 논문에서는 1911년~1969년으로 표기하였다.

지화의 영향으로 융합된 것)과 접목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이 경험은 식민지로 지정된 측뿐만 아니라 식민지화된 측(지배국)도 식민지의 영향을 받아 변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일본 측이 최승희의 무용을 받아들여 찬양하고 지원한 것도 일본의 식민지 경험 중 하나다. 또한 이 지원은 식민지 근대 조선에서의 언어나 문화의 말살, 민족적 존엄의 박탈, 주민의 학살과 토착의 경제기구의 파괴 등과 표리일체이다. 해방 이후 남북 분단 속에서 북한과 남한은 각각 국가정책으로 조선의 민족무용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 남한은 최승희를 배제했고, 북한은 최승희를 중심으로 민족무용을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전통무용과 (북측)조선민족무용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근저에는 최승희의 무용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현재 양국(남북측)의 무용사 속에 각각 자리잡고 있다.

해방 이후 북측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재일총련사회에서도 근대의 '민족무용-조선무용' 계승에 주력해 왔다. 그것은 북측의 지원 아래 행해졌으며, 최승희의 『조선민족무용기본(1958년)』을 비롯한 교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동포사회의 조선무용 속에서도 최승희의 무용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연구자들은 "재일동포의 조선무용이 북측의 선전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현상황은 이와 다르다. 재일동포 특유의 조선무용 전개와 동포들의 민족무용에 대한 고유한 생각, 세대교체에 따른 의식변화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세 이후의 세대는 창작무의 형태로 창작되어 온 작품들이 오늘날 재일코리언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조선무용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재일코리언의 조선무용은 북측의 '조선민족무용-북한무용'과는 또 다른 '재일무용(독자적인)'이 창작되어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재일한국무용가들의 '민족 정체성'도 일본 속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재일동포의 민족의식, 동포라는 고유의 정체성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4세 이후의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민족무용의 계승이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코리안으로서 살아가는 자부심이나 일본의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무용을 통해 재일동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낳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재일동포 2세가 남측에서 북측의 조선민족무용 공연을 펼치는 등 재일동포를 통해 북측의 조선무용과 남측의 전통무용이 만나는 (월경하다)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더욱이 2,3세가 한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전통무용을 배워 이를 재일동포의 조선무용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있어, 남북에서 별개의 형태가 된 조선민족무용이 재일동포에 의해 일본이라는 재일동포사회에서 월경과 융합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전통무용'과 '재일무용' 간의 새로운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재일동포사회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분단되어 서로 다른 형태로 변용된 한반도(남측과 북측)의 '한국전통무용'이 재일한국무용가들의 활동을 매개로 월경과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과제와 방법

식민지시대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민족무용을 창조해 세계적으로 활약한 최씨가 확립한 민족무용은 현재 한국에서 창작무용의 기반이 되고 신무용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의 민족무용도 최승희가 창조한 조선 민족무용의 기본동작과 창작작품이 바탕이 됐다. 재일총련계사회에서도 최승희의 민족무용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필자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최승희의 무용예술을 축으로 대한민국,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재일코리언사회라는 3개 공간에서 '민족무용계승'의 월경과 융합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다. 이 세 곳에서의 근대 '조선민족무용' 비교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제시하는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출판된 졸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 속에서 근대의 '민족무용'이 식민지 이데올로기와 남북의 국가 이데올로기 사이에 얼마나 다른 형태로 계승·변용 발전해 왔는지

를 논하였다. 또, 그것이 재일코리언의 총련사회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변모해 왔는지도 필드워크 및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밝혀냈다.

그러나 필자의 졸저에서는 재일총련사회를 조사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재일코리언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논하지는 못했다. 특히 한국에서 전통무용을 배운 재일한국무용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무용을 일본에 전승·보급한 2세부터 3세까지의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전통무용'과의 융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일한국무용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조선학교 출신 무용가가 아닌 일본의 학교나 민족학교(민단계)에 다녔으며, 성인 후 한국에서 전통무용을 배운 재일한국무용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전통무용'과 '재일무용이 어떻게 교류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월경과 융합'하고 있는지를 재일한국무용가 4명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민족무용-한국전통무용'을 통한 한반도의 분단과 이산과 재일코리언 디아스포라 사회의 포스트 콜로니얼 상황을 제시하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졸저에서는 충분히 논할 수 없었던 '오늘날 '민족무용-한국전통무용'의 월경과 융합에 대해 조사와 분석으로 재일한국무용가들의 의식에 주목하여 '한국전통무용'의 전승·보급 현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재일코리언사회에서의 '조선민족무용'의 계승 및 현황

앞서 언급한 바, 필자는 일제강점기에 근대화된 민족무용이 어떻게 그 모습을 바꾸어 왔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단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 및 고찰하였다. 특히 해방 후, 한반도의 분단과 민족이산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또 각각에 어떻게 변용해 왔는지를 추적하면서 '민족무용'을 둘러싼 문제가 바로 포스트 콜로니얼의 문제임을 실감하였다.

포스트 콜로니얼이란 '식민지'에서 벗어난 후에도 식민지 시기에 뿌리내린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특히 문화적 상황이 좋든 싫든, 또 의식적 무의식적이

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게다가 그 상황에 대한 비평이나, 그 상황을 헤쳐 나가려는 움직임도 포함한다.

근대의 민족무용은 식민지 경험 중, 최승희가 일본 경유의 서양무용과 지금까지의 민족무용과 융합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 속에서 북측과 남측은 각각 국가정책으로 '조선민족무용'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 남측은 최승희 무용을 배제했고, 북측은 최승희 무용작품을 중심으로 민족무용을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남측)한국무용'과 '(북측)조선무용'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근저에는 최승희의 무용예술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 현재 양국의 무용 역사 속에 각각 자리 잡고 있다.

해방 이후 북측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재일총련사회에서는 조선민족무용 계승에 주력해 왔다. 그것은 북측의 지도와 지원 아래 행해졌으며, 최승희의 『조선민족무용기본(1958)』을 비롯한 교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총련사회의 민족무용속에서도 최승희의 무용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에 의해, 디아스포라로서 재일동포가 처한 상황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영향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 바로 '포스트 콜로니얼의 문제'이다. 조선민족무용 또한 이 무거운 정치적 배경을 짊어지고 계승되고 발전하고 있음이 필자의 조사를 통해 명료하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거쳐 서양무용의 영향을 받아 근대화되고 최승희에 의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아 왔던 '민족무용'은 오늘날 매우 다른 모습이 되고 있다. '한국전통무용'은 그의 제자와 일본에서 신무용을 배운 무용수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금기로 삼아 왔다. 최근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승희의 이름이 친일명단에 오른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무용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무용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신무용)이 있는데, 전통무용 또한 식민지화라는 일본에 의해 강요된 근대화 속에서 한성준 등이 그 동안의 궁중무용이나 민속무용을 정리하고 재편성하여 새롭게 작품을 창작했다는 내력을 가지고 있다. 즉 근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의식되

는 것은 적다.

북측의 '조선민족무용-북한무용'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입장과 주체사상 아래서 크게 형태를 바꿔 왔다. 정치적, 사상적인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용의 형태 자체가 소련을 경유하여 발레 기법을 도입하고 중국을 경유하여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매우 빠른 리듬으로 추는 최승희의 무용이나 근대 이전의 조선의 무용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다. 또 이 대규모 조선무용이 북한 국위선양의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승희는 실각, 숙청당했지만 최승희의 딸(안성희)과 조카, 최승희의 제자들은 그 후로도 그의 작품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최승희의 『조선민족무용기본』은 오늘날에도 북측의 조선무용의 '기본'으로 발전 형성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용인류학자 랑게는 "집단무용은 한 공동체에서 유대감을 획득한다.(중략) 사실 어떤 민족에게 무용은 조직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ランゲ 1981: 152–153)"라고 언급하고 있다. 재일동포사회에서의 '민족무용-조선무용'의 계승도 분명히 총련 산하에서 민족의 '단결'과 연대감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북측의 지도와 원조도 컸다. 최승희의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비롯한 교재는 북측에서 보내온다. 조선대학교 무용부 학생이 여름방학에 평양에서 연수를 받는 제도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연구자 등은 재일동포의 조선무용을 북측의 선전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실시한 필드워크나 인터뷰 조사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재일 특유의 '민족무용-조선무용'의 전개와 재일동포들의 민족무용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3세 이후의 세대는 창작무의 제작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늘날 재일동포를 둘러싼 환경과 민족무용을 적응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일동포의 민족무용은 북측의 민족무용과는 또 다른 "재일 독자적인 무용"을 창작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들의 민족 정체성도 일본 속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재일동포의 민족의식, 재일동포라는 정체성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4세 이후의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민족무용'의 계승이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동포로서 살아가는 자부심이나 일

본의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무용을 통해 재일동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낳고 있는 것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재일동포 2세가 대한민국에서 (북측의) 조선무용 공연을 하는 등 재일동포를 통해 북측의 민족무용과 남측의 민족무용이 만나는(월경할)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더욱이 4세가 한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전통무용'을 배워 이를 재일동포의 조선무용에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남북측에서 별개의 형태가 된 근대의 민족무용이 재일동포에 의해 일본이라는 자리에서 다시 융합될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

필자는 재일총련사회에서 계승되고 있는 조선무용의 계승 시스템과 재일한국무용가(조수옥춤판한국무용스튜디오)에 의한 '한국전통무용'의 전승·보급 활동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다(徐希寧 2025: 169-174).

우선, 차이점은 일본에서 조선무용은 총련계 산하에 있는 금강산 가극단을 정점으로 각 지방의 가무단에서 조선학교의 무용부(동아리-소조활동)에 이르는 피라미드형으로 조직되어 계승되고 있다. 또한, 최승희의 무용을 바탕으로 북측에서 새롭게 변형된 작품과 재일동포 지도자가 창작한 작품 등이 총련산하 예술단과 조선학교 민족무용교육(소조 활동)에서 계승되고 있다. 또 조선학교 소조활동을 거쳐 무용가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조선학교 학생들과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는 4세 이후 세대에게 조선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일본인이 배울 기회는 거의 없다.

필자의 연구에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총련계의 조선무용은 최승희의 무용예술을 바탕으로 창작되어 온 춤들이며, '한국전통무용'은 국가정책에 의해 대학이나 전승 교육관을 통해 전통무용으로 발전·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무용은 신무용 혹은 창작무용에 가까운 춤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공통점은 필자의 연구에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한국무용교실에서의 재일동포와 더블 학생들의 목적은 춤을 통해 민족에 대한 동경과 자각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즉, 춤을 통해 '나를 해방시키는' '자아의식' '뿌리로서의 징표' '긍정적 정체성 구축'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총련계 무용수와 학생들도 필자의 졸저에서 밝혔듯이 조선무용을 통해 한반도의 뿌리, 재일동포의 자부심이나 동료의식의 뿌리로서의 증거, 긍정적

정체성 등을 얻고 있었다. 즉, 총련계의 조선무용 계승이 수행해 온 역할과 재일동포 학생들이 한국전통무용을 배우는 동기나 삶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뿌리의 재확인, 민족정체성, 자부심과 긍지, 동료의식 등에서 거의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통무용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게는 최승희의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점도 조선무용과 한국무용의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한국무용 중에는 최승희가 만든 작품이나 최승희의 '무용기본'은 근본적으로 '조선민족무용[6]'이라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필자도 실제로 고등학생 때는(당시에는 최승희의 이름도 몰랐지만) 최승희의 기본동작과 같은 무용동작을 배웠다. 조선학교 필드워크에서 필자가 고등학생 때 배운 동작을 학생들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에 감개무량하였다.

필자의 졸저에서 언급했듯이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변용된 조선무용과 전통을 중시하고 최승희의 공적을 지워온 한국무용은 현재 겉보기에 크게 다른 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뿌리가 같은 기본적인 동작(움직임)을 가진 민족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총련계의 젊은 학생들과 민단계의 한국무용교실의 시니어 중심의 학생들은 서로 세대가 다르다. 그러나 세대로의 전환 속에서 총련계의 젊은 세대는 스스로를 둘러싼 환경과 조선무용을 적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무용교실에서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는 시니어 세대 중, 재일동포 학생들은 뿌리의 자부심에 한국무용을 적응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최승희 탄생 100주년' 때, 재일동포 무용수들이 제작한 기본동작은 지금 한국무용의 기본동작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3. 재일코리안사회에서의 또 하나의 '민족무용'
-'한국전통무용'의 활동 사례

이 3장에서는 4명의 재일동포 한국무용가의 활동사례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3.1. 재일한국무용가—2세, 조수옥(趙寿玉)[7]

재일동포 조수옥무용가(2세, 60대 후반,이하, 조수옥)는 일본 학교를 나와 성인이 된 뒤 한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인간국보 우봉 이매방 선생(1927~2 015)의 문하생으로 한국전통무용을 익혔다. 일본에 돌아와서는 자칭 '한국무용가'로서 공연활동을 실시하는 것 외에, 1998년경부터 공공 시설 등을 이용해 재일코리언이나 일본인에게 한국무용을 가르쳤고, 2008에 도쿄·신주쿠에서 「조수옥춤판한국무용스튜디오」을 창설했다. 조수옥무용가의 활동에는 1998년 공연실행위원회가 모체가 되어 발족한 '춤판의 모임'이 큰 역할을 해왔다. 이 춤판에서는 워크숍이나 강연회에서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 저명한 무용가 등을 초청해, 국가무형유산(문화재)으로 지정된 전통무용(작품)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전통무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한국 전통무용을 가르치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필자는 2024년 4월에서 2025년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수옥 무용가를 인터뷰했다. 조수옥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보고자 한다.

>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학교에 다니고 일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 군사정권의 학생 시위 진압 등 부정적인 보도만 봤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 이미지가 없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솔직히 조국이나 조국의 문화에 별로 자부심을 갖지 못했고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모순과 갈등만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국 무용이나 음악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8월 15일 해

7 조수옥무용가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졸저에서 일부 인용하였으며,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해 가필한 것이다(추가 인터뷰 일자: 2025년 4월 6일, 영상 통화)

방기념일 등 재일 행사가 있으면 장고나 꽹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훌륭한 기술이라고 한 눈에 두고 춤의 고리에 들어가 춤을 추고 있는 일세의 모습을, 이것이 저나 제 어머니 나라가 즐기는 방식이라고 어딘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인의 권유로 민단 청년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언어와 역사에 대해 배우고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식이 바뀌었고,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인간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나라(조국)에 대해 알기 위해 한국에 1년이나 유학하기로 결정했다.

1976~1977년경 시모노세키 민단에서 부채춤 등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이후 시모노세키 민단청년회 여성부장이 되어 무용부를 창단했다. 주위에 한국무용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사카의 최초 한국무용 전문단체 '여명'의 최숙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시모노세키에 오셔서 지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 알기 위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 1년간 유학하기로 결정했다(1981~1982). 그때 한국무용 전문가인 하루미 선생에게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한국무용을 습득하기 시작했다.

조수옥의 무용(입문) 출발점은 민단 경유로 70년대 후반, 민단 청년회에서 무용부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조수옥이 춤을 추기 시작한 이유는 일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조국인 한국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계기라고 한다. 당시 '대한민국 군사정권의 학생 시위 진압' 등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조수옥은 조국이나 조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모순과 갈등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런 시대 배경으로 보면 심로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980년대 초 한국에 유학해 한국 무용을 접하면서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이나 그 문화를 모르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해소됐음을 그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조수옥은 이후, 다시 한국으로 건너가 5년여간(1990-1995)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 밑에서 무형문화유산인 전통무용을 공부한 뒤 199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가 됐다. 그렇다면 조수옥은 한국전통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재일한국무용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조수옥은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유년기, 사춘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문화, 특히 무용이나 가야금에 관심을 가졌지만 당시 일본에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국에 유학함으로써 말이나 춤 등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면 자신처럼 고민하는 재일동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뭔가 하나라도 습득한 것을 일본에서 전달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유학했다. 한국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국에 갔지만 막상 살아보니 한국의 부정적인 부분도 눈에 띄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일본도 한국도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안심한 부분도 있는 한편,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을 나는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었다. 그런 생활의 위화감 때문에 마치 외국과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틈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에서 한국무용과 마주할 것인가,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죽음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용 레슨 장소에서는 한국 원어민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중간이나 분위기가 별로 잡히지 않거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서 동작 이미지가 끓어오르지 않아 괴로워하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흥'과 '멋'을 내기 위해 고민한 적도 많았다.

이런 모든 장면에서의 위화감과 고민이 있으면서도 한국의 춤에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춤을 추는 장소가 다다미 여섯 장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도 마음은 무한히 해방되어 가는 듯한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무용은 자신이 한없이 자연과 일체가 된 상태에서 음과 양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는 춤이기 때문에 생활의 자질구레한 위화감이나 어떤 의미에서 국적이나 민족 같은 다양한 개념적인 것에서 어느새 자연과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무용은 자신을 잘 보여주고 싶다거나 남보다 뛰어나고 싶다거나 이런 애고 같은 것이 있으면 춤을 잘 추지 못한다. 오랫동안 춤을 추어도 실력의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일본에서 한국무용을 계속하는 것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다. 나는 한국무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직도 고민이 되기도 한다. 기예를 다하여, 그리고 전승·보급한다는 것에 끝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처음 고김숙자선생의 도살풀이춤을 봤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춤이 있구나 하고 감동했다. 한국의 무용을 보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마음이 서서히 해방되어 갔을까? 한국무용은 마음의 굴레를 풀어나가야 춤을 잘 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수옥은 첫 유학을 다녀온 뒤 42년간 일본과 한국 각지에서 줄곧 '한국전통무용' 활동(전승·보급)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국보) 등 무용가들도 초빙해 한국무용 스튜디오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조수옥 무용가에게 한국 전통무용을 통한 발견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국전통무용'뿐 아니라 세계 무용으로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는 에너지와 즐거움을 주고 사람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발견할 기회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를 전달하는 작업에는 골이 없고 내 생각에도 골이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 '한국전통무용'을 추며 가르치는 의미나 재일한국무용가로서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국가나 국적의 정체성이 아니라 개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발휘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한국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은 나다운 삶을 살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낸 그런 삶을 나타내기 위해, 또 치유하기 위해 춤을 추고,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 "자기 찾기"를 위해 춤이 그런 삶의 과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역할로서의 춤은, 재일동포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한국인에게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즐겁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오랜 세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공연 활동을 해온 조수옥에게 공연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지 물었더니 그는 "일본 무대는 연기하는 사람과 관객이 확연히 갈린다. 일본 관객은 조용히 차분히, 이 무용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보는 것처럼 느낀다. 한국 무대는 객석과 함께 흥에 겨워 추임새도 많아 무대와 관중석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춤을 출 때는 오로지 마음을 비우고 춤을 끊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춤을 출 때의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주었다.

재일한국무용가로서의 미래 전망에 대해 조수옥에게 물었더니 조수옥은 "연자가 춤을 잘 춘 성취감을 느끼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를 전할 수 있는 무대를 계속하고 싶다. 그것은 자신의 무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무대도 마찬가지. 교실의 학생 중에는 80대 90대 노인도 있어, 모두 한 사람 한 사

람의 인생을 느낄 수 있는 춤을 추고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출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멋진 춤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춤을 추고 싶고, 학생들도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을 리스펙트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이처럼 조수옥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서 한국전통무용의 실천활동이 조국(남측) 문화에 대한 재인식 재일동포로서의 역할 삶의 원동력 무형문화재 전승자로서의 역할 등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수옥이 주로 '한국무용(전통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전통무용을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어떤 춤에 도전하길 바라느냐/도전시키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조수옥은 "궁중무용 중 한 곡, 예를 들면 춘앵무, 검무, 살풀이, 승무 등을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한국 지방에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전통예능의 원천을 느낄 수 있는 춤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 작품들은 "각 작품의 춤사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정신세계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한국의 춤은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은 다르고, 지역과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말하였다. 또한, 한국무용은 "자신이 한없이 자연과 일체된 상태에서 음과 양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는 춤이기 때문에 생활의 세세한 위화감이나 어떤 의미에서 국적이나 민족 등 다양한 개념적인 것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무용에서는 말 그대로 "원망"으로서의 "한"이 아니라 "소원", 기도하는 마음이나 애도하는 마음으로서의 "한"을 춤으로 표현하며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3.2. 재일한국무용가 – 2세, 김근희(金君姬)[8]

재일동포 김근희무용가(2세, 60대 전반, 이하,김 근희)는 오사카 민단계 민족학교를 나와 성인이 된 뒤, 1981년에 한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민속학자 심우성의 소개로 이동안[9] 선생에게 사사 받은 후(진쇠춤 신칼춤 엇춤 등), 83년에는

8 김근희무용가 인터뷰는 2025년 5월 13일, 간사이 한국YMCA한국청소년 센터에서 실시하였다.

9 이동안(李東安, 1906-1995)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경기도

김백봉 선생에게도 사사를 받았다고 한다 (부채춤, 화관무 등)[10]. 또, 사물놀이 창단멤버인 김용배,김덕수 선생에게도 풍물장단을 배우고 나서, 이매방 선생(1927~2015)의 문하생(1995년~2015년)으로 한국전통무용을 익혔다고 한다.

1983년부터 간사이한국YMCA아시아청소년센터(한국민속예술과)에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배우러 오는 인원은 약 20여 명이고, 그 중 재일동포가 75%(총련계 가무단 단원도 포함)가 한국전통무용과 장단을 배우러 온다고 한다. 또한, 오사카 이쿠노 주변 학교의 교사들도 배우러 온다고 한다. 오사카는 지역 특성상, 증오 발언(Hate Speech)표현으로 아이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차별 해소를 줄이기 위해 교사들이 발벗고 배우러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다. 아이들이 배운 민족문화 무용과 풍물 등 학교 행사나 이쿠노 민족축제 등에서 선보인다고 한다. 김근희는 올해로 47년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근희에게 한국전통무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재일한국무용가로서 한국무용과 장단을 가르치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필자는 2025년 5월 13일 김근희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저는 오사카 건국고등학교 무용부에서 재일동포 무용선생님에게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간사이한국YMCA아시아청소년센터 창설자이신 변인자와 김성옥선생에게 무용을 배웠다.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가, 이동안 선생, 김백봉선생, 김덕수선생의 사물놀이, 이매방선생의 문하생이 되었다. 이매방선생 밑에서 약 20년간 한국전통무용을 배웠다

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이수자가 된 것은 2002년이고, 그리고 승무 전수자, 현재는 우 봉이배방전통무용보존회회원이다. 저는 이수자가 되려는 마음이 거의 없었는데, 주위 뉴커머무용가들이 추천을 하여 받개 되었다. 저는 오로지 한국전통무용을 제대로 배우서, 재일문화 육성 및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싶었고, 전승 및 보급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 노력으로 오사카 이쿠노민족문화제를 만들게 되었다. 이쿠노지역은 제주4.3사건으로 일본으로 건너온 1세, 그 자손들이 많이

화성 출신. 1983년 6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았다.

10 고김백봉선생의 제자인 한경자선생님에게 기본춤을 배웠다고도 한다.

살고 있다. 저도 제주도 출신이다. 이 지역에서 재일동포 차별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없어지지는 않았다. 한국전통무용을 제대로 재일동포에게 전승·보급하고 육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공연 활동 하고 있다. 주로 오사카의 일본 학교 내의 민족학급, 재일동포 민족학교 교사, 총련계 가무단 단원들도 배우러 오고 있다. 우리 동포는 다 하나이다. 동포들의 본명 사용과 문화 보급으로 차별을 없애고 싶다. 이쿠노 지역의 아이들의 정체성 육성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무용과 사물 등을 주로 공연하고 있다. 이동안 선생님에게서 배운 진쇠춤 신칼춤 엇춤 엇모리 등, 김백봉 선생님의 부채춤, 화관무 이매방의 승천무 등 춤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그 외 풍물·사물놀이도 레퍼토리에 들어가 있다.

정기공연은 3년에 1회, 매년 민족문화제, 기타 이벤트 등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활동한 공연 팸플릿. 한국민속예술과에 배우러 오는 수강생은 약 20여 명 정도이고, 그 중 75%가 우리 동포. 그리고 일본 학교 선생님도 배우러 온다. 왜냐하면, 오사카 지역의 특성상,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배워서 아이들에게 연습시켜 학교 행사 운동회 때나 민문화제 때 연습한 것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선문화연구회가 있는데, 다 같이 열심히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다.

제가 창작한 전라도 시나위 음악에 맞추어, 해방에 대해서 창작 안무한 작품도 공연한다. 1세의 민족의식 혼을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무는 진처무 심혼무도 공연하고 있으며,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작품 구상도 하고 있다. 제가 전수 받은 한국전통무용을 바탕으로 엇중모리 신칼대신무, 희망을 담아 기원하는 춤도 창작한다. 문화재 지정 작품인 살풀이춤, 승무, 만속춤, 산조춤 등, 사물놀이, 대풍물, 다양한 레퍼토리도 많이 공연하고 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은 전부, 모두이지만, 특히, 살풀이춤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인간의 희노애락의 표현하는 것 매력이 있다. 다음으로 승무인데,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표현하는 것 같아 동포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전통 민족장단, 리듬, 가락 풍물 등도 너무 좋다. 아이들에게 주로 가르치고 있다. 물론 가무단 단원들도 열심히 배우러 오고 있다. 이러한 위대한 작품들을 동포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다. 재일동포가 걸어온 길, 그 길에는 차별 없는 밝은 미래로 만들어 가고 싶다. 본명 사용과 함께 민족문화를 갈고 닦고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전통무용과 우리 장단을 통해 재일동포로써 당당하게 꾸준하게 해 나가고 싶다. 차별대우에 대해 맞서 대항하면서 일본인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활동을 이어가며, 동포가 어려운 환경에서 키워온 재일문화와 함께 차세대에게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제가

할 숙제인 것 같다. 한국전통문화는 재일동포의 희망찬 밝은 미래를 위한 필수 도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김근희는 관서지방 한국 YMCA 창립을 기념하는 각종행사와 2.8독립선언 100주년 공연 등 다양한 행사 공연을 주관하며, '한국민속예술공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YMCA는 1906년 도쿄에서 설립된 재일본한국YMCA에 이어 1971년 일본에서 가장 많은 재일동포가 거주하는 오사카에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김근희는 오사카 한국YMCA 한국민속예술과 전임강사로 한국전통무용과 사물놀이 등을 전승·보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민속예술과는 1976년 한국무용교실로 육성하여 본격적인 강사 발굴, 양성을 진행하면서 재일동포 문화 담당자, 지도자를 대거 배출해 왔다. 김근희도 여기 출신이며 제2대 전임강사로 임하고 있다.

'이쿠노 민족문화제'를 시작으로 1979년 제1회부터 1999년 제8회에 걸쳐 '간사이 한국 YMCA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학교공연 등도 실시해 왔다.

9회째를 맞는 이 공연에서는 이 예술과 강사 김근희를 비롯한 수강생들이 한국전통춤 공연은 장고놀이, 살풀이춤, 사물놀이, 창작춤 '기도', 전라도농악(대풍물), 입춤 등을 망라하여 다채로운 레퍼토리에 선보이고 있다.

3.3. 재일한국무용가 – 3세, 이능자(李綾子)[11]

재일동포 이능자무용가(3세, 50대 후반, 이하, 이능자)는 일본 학교를 나왔으며, 20세에 마이즈루에서 오사카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한다. 마이즈루에 있었을 때는 통명 후쿠야마로 지냈지만, 오사카오면서 본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본명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오사카 보육원에 취직했는데, 보육원 원장의 권유로 본명 이능자를 사용하였다.

11 이능자무용가 (50대 후반) 의 인터뷰는 2025년 4월 27일, 오사카 '이능자한국전통무용연구소'에 실시하였다.

무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오사카에 와서 이쿠노구 민족문화제(연 1회 개최, 무용, 탈춤, 농악무, 마당극, 등의 레퍼토리)에 참가하게 된 후, 오사카 YMCA 김근희선생에게 기본춤과 부채춤을 배우고 나서, 1992년에 한국유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 조수옥을 우연히 만나서 조수옥의 권유로 이매방의 문하생이 되었다고 한다.

이매방(1927~2015)의 문하생(1993년~2013년)으로 약 2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국전통무용'을 익혔다. 2006년부터 '이능자한국전통무용연구소'에서 후배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배우러 오는 인원은 약 20여 명이고, 그 중 재일동포가 70%, 뉴커머 10%, 일본인 20%가 한국전통무용과 장단을 배우러 온다고 한다. 이능자는 올해로 20년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능자에게 한국전통무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재일한국무용가로서 한국전통무용을 가르치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필자는 2025년 4월 27일 이능자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보고자 한다.

저는 오사카에 오게 되면서 무용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춤을 배울 곳이 마땅히 없었다. 오사카에 와서 민족문화축제에 참가하면서 김근희선생을 만나 한국무용, 탈춤, 농악무 등 배웠다. 그런 와중에 한국말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 거기서 조수옥무용가를 만나 이매방선생님의 문화생이 되어, 입춤, 검무, 소고춤, 살풀이춤, 승무 등을 배우면서 2003년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가 되었다. 한국에서 공연 활동은 약 20년, 일본에서는 약 30년 정도 활동하고 있다. 일본활동은 재일동포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무용교실에 수강생은 약 20명 정도이며, 재일동포가 70%, 일본인이 20%, 뉴커머가 10% 배우러 온다. 처음 수강생은 거의 재일동포가 차지했는데, 한류붐으로 일본인 수강생이 늘어났다. 그 때 일본인 수강생이 배우러 왔을 때 기분은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수강생에게 왜 배우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실에서는 서로간의 동료의식과 한국춤을 통해 서로가 가르치며 사이좋게 연습하고 있는 풍경을 종종 본다. 저는 무용작품도 중요하지만 기본춤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며 수강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기본에 호흡, 강약, 대삼소삼, 음양의 조화 등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 기본 입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일한국무용가들이 워크숍을 할 때마다 각자의

가르침이나 표현 등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겨 그 노하우를 제 교실에도 도입을 하고 있다. 재일동포무용가들의 연구회는 장점이 많다. 공연활동을 계속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춤을 좋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배우고 싶어 거처 지역에 조선학교가 있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일본 학교에 다녔다. 스무 살이 되어서 오사카로 이사하면서 민족문화재를 봤을 때, 춤을 추고 싶어서 춤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대학 학력도 없지만 지금 계속 춤을 출 수 있는 곳, 있을 곳,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구소를 차려서 먼 곳에서부터 배우러 오는 수강생이 있어 너무 행복해서 하루 하루가 설렌다.

일본에서 한국전통무용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나는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 일본에서 한국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여기에는 재일한국무용가나 뉴커머 무용가들도 많이 있다. 2~3년에 한 번 정도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을 하는데, 뿌리가 다르다는 느낌과 뉴커머 무용가들과는 항상 평행선이라는 느낌이 든다.

3.4. 재일한국무용가 – 3세, 임선옥(林鮮玉)[12]

재일동포 임선옥무용가(3세, 60대 후반, 이하, 임선옥)는 조수옥에게 무용을 배우고 있으며, 조수옥 무용교실과 여러 문화센터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일본학교를 거쳐서 부모님의 권유(일본학교는 민족교육을 받을 수 없음으로) 고등학교는 총련계 조선학교를 다녔는데, 무용부 소속 상관없이 전원 여학생은 민속무용을 배워 학교 행사나 운동회 때 춤 추었다고 한다. 원래 춤추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성인이 된 뒤, 조수옥의 문하생이 된 지는 약 26년째이다. 임선옥은 40세의 늦은 나이에 조수옥 선생에게 사사 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1주일 한 번은 춤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조수옥 한국무용교실에서는 입문반을 맡고 있으며, 그 교실에 재일동포는 40%, 나머지는 일본인이 배우러 온다고 한다. 그리고 요코하마와 가와사키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무용강사로 10년 이상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무용을 배우러 오는 수강생은 10명 정도 있는데, 일본인 9명, 재일동포가 1명, 그 외 문화센터에도 일본인이 다수 배우러 온다고 한다.

12 임선옥 무용가(60대 후반)의 인터뷰는 2025년 5월 18일에 영상 통화로 실시하였다.

임선옥은 올해로 26년째 활동, 10년정도 지도하면서 무용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임선옥에게 한국전통무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재일한국무용가로서 한국전통무용을 가르치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필자는 2025년 5월 18일 영상통화로 임선옥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보고자 한다.

제가 무용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 재일동포 결혼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전원이 춤을 추기 때문에, 그때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춤출 때, 반주음악의 음색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아마도 민족의 피가 나에게도 남아 있지 않을까? 한국전통무용은 지금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한국무용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재일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 '내 뿌리의 문화를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 등을 알고 싶다고 의식했던 것, '한국무용을 공연에서 보고 흥미를 가졌다. 결혼식 등 모두와 함께 춤을 추고 싶었기 때문'과 같은 '민족', '뿌리(의 문화)'를 획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춤을 통해 느끼는 것은 한국무용 호흡의 중요성과 자연스러운 움직임,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음양세계의 아름다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피)의 연결, 한국전통문화의 풍요와 훌륭함' 등을 느낀다.

자신이 무용을 통해 얻은 의식은 재일에 있어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획득이나, 한국무용을 통해서 역사문화나 말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가치관과 시야를 확대하고 있다. 정체성, 뿌리에 대한 지식의 획득, 그에 따른 '살기 쉬움의 획득'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는다.

나에게 한국무용이란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정신적 기본이 되는 것이나 뿌리의 증거, 나를 해방시키는 과정,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깨닫게 해준다. 특히 한국말을 습득한 다음 몸에 민족 정체성을 묻어가는 작업이다.

조선생에게 배운 작품은 승무 살풀이 입춤 한량무, 그리고 한영숙 태평무도 배웠다. 무용을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자원봉사의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 한국무용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재일한국무용가로서 역할에 대해서는 전승해서, 사명감이 아닌 개인적인 공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일본인들은 문화를 좋아한다.

조선무용을 경험한 임선옥은 조선무용은 밖으로 발신하지 않으며 오로지 조직 안에서의 정체성을 고집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조선무용의 표현은 겉만, 외향적인

면이 있다면, 한국무용은 깊이 있는 내면성과 호흡이 연결이 되어 있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해 주었다.

한국전통무용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에서 대대로 전해 온 한국전통무용은 전승은 어렵고, 일본인이 많이 배우러 오니까, 이문화, 플라멩코 훌라 같은 가볍게 시작하는 일본인이 많기 때문에 취미나 건강 유지 정도로 즐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대로 전해온 전통문화는 그 역사를 생각할 만한 한국무용, 그 무용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총련계 가무단 단원이 조수옥 선생님에게 10년 정도 배워서 지금은 무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조수옥선생님과 한국무용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한다. 조선생님은 말이 없으시면서 가치관 또한 굉장하시다. 선생님에게 계속적으로 춤을 배우고 싶다. 재일무용가 양성 코스가 있었으며 좋겠다.

한국 대금의 아버지 이생강 명인, 저명하신 무용가들과 공연도 많이 한다.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 길만 파고 나가면 훌륭한 춤꾼이 될 것이라고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조선생님, 존경한다.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재일무용가로서의 역할은 어려운 과제이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무용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하게 만드는 한국무용, 전승하고 싶은 의식이나 사명감같은 건 없다. 그냥 가슴이 뜨겁고 민족적인 혈은 느낀다.

이처럼 춤을 배우는 것에 애착을 가지면서 춤을 통해 민족에 대한 동경과 자각을 되새기고 있었다. 성인이 된 후에 춤을 배운다는 것 등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춤을 통해 자신을 해방시키는 자아의식 문화에 대한 경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뿌리로서의 징표라는 긍정적 정체성 구축을 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전통무용을 배우는 것이 개별 인간 형성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선옥은 2세의 조수옥이 한국전통무용을 접하는 방식, 발을 내딛는 법 등, 무용예술에 대한 세계관이 다른 무용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조선생에게 “한국무용을 배우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과 선생 옆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일본 내 정기공연은 2년에 한 번 정도, 그외 외부행사나, 한국공연 등 조수옥선생의 공연 준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4. 고찰

이상, 재일한국무용가 4명은 개인적으로 한국무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교실에서의 재일동포 수강생 수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인들이 한국무용을 배우러 오고 있는 현상도 새롭다. 관동지방 도쿄 무용교실에서는 일본의 학교를 거쳐 사회인의 재일동포들이나 일본인들이 한국전통무용을 배우고 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시니어 세대이다. 무용교실에서는 주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작품(전통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관서지방 오사카 무용교실에서는 대다수의 재일동포들(총련계 가무단단원도)과 민족학교 학생들이 무용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사카 지방에는 재일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국전통무용의 교류와 보급에 힘쓰고 있는 2세 무용가가 키워낸 3세 무용가들의 활동은 한국전통무용의 요소를 향상시키면서 월경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재일코리언사회를 다시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과 밝은 미래와 함께 개인의 삶과 공동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실에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으며, 공연 및 발표회 등에 일본인 관객들이 많이 관람하러 온다고 한다. 때로는 한국인간문화재 보유자들을 초청해서 일본과 대한민국에서의 교류 공연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전통무용'은 일본사회와 더불어 동포사회에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2년 이후부터 약 13년간 관서지방 에 있는 민단과 교토한국교육원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 당시, 무용교실에 왔었던 학생들은 주로 재일동포 2세가 중심이었고, 일본인도 배우러 왔었다. 특히, 2세들은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민족무용을 시니어가 된 후에나 배울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였다. 2세들은 1세대(부모 세대)의 삶과 가치관, 경험이 2세대(자녀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세대이며, 어린 시절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민단계에서의 한국무용이 총련계에서 피라미드형으로 조직화되어 계승되고 있는 조선무용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재일한국무용가에 의한 한국전통무용의 전승·보급 활동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총련계에 비해 인원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또, 시니어 세대가 다수이고, 일본인 학생이 많이 배우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본다. 즉, 한국무용(교실)이 일본사회에 열려 있다는 현상은 일본사회에서의 또 다른 '월경'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상, 세대가 달라도 무용교실에서는 한국전통무용이 전승·보급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육성되는 민족적 요소는 무용가들의 고유의 정체성 확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용예술은 세대를 아우르는 '민족적 정체성' 획득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조선학교를 거치지 않은 일본의 학교 및 민단계 민족학교 출신의 재일한국무용가들이 한국전통무용의 전승·보급 활동에 대해 2,3세 4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일본이라는 곳에서 재일한국무용가에 의해, '한국전통무용'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무용가 자신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용작품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춤을 통해 조국의 문화에 대한 경의, 삶의 가치관 및 세계관 뿌리로서의 징표라는 긍정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재 지정 전통무용 작품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독자성을 가미하여 창작 작품을 구축시키며, 일본 국내에 한

13 필자의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일총련사회에서 계승되고 있는 조선무용의 시스템과는 다르다. 총련계에서는 금강산 가극단을 출발점으로 각 지방의 가무단에서 조선학교 무용동아리(소조활동)에까지 피라미드형으로 조직되어 계승되고 있다.

국전통무용 보급에 힘을 보태고 기여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전통무용을 전파·보급하는 것이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 요소와 함께 재일코리언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일무용가들은 한국무용을 배우는 동기는 민족에 대한 동경과 자각을 되새기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춤을 통해 자신을 해방시키는 자아의식 뿌리로서의 징표, 긍정적 정체성 구축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필자의 연구에서 검토한 바, 총련계 무용가들도 조선무용을 통해 한반도의 뿌리와 재일의 자부심, 자리매김, 동료의식 뿌리로서의 증거 긍정적 정체성 등을 획득하고 있었다. 또한, 총련계의 조선무용의 계승이 완수해 온 역할과 이 논문에서의 재일한국무용가들이 '한국전통무용'을 배우는 동기나 전승·보급 활동도 조선무용의 계승의 그 목적과 함께 무용에 의해 초래되는 뿌리의 재확인, 민족의 정체성의 획득, 설자리 발견-자리 굳힘, 긍지를 얻는 동료 의식의 함양 등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무용의 전승·보급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일동포들에 의한 '민족적 정체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는 동떨어진 곳에 사는 재일동포만의 민족의식 유지와 계승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무용의 보급은 일본사회에서 '재일로서 살아가는 자부'나 '무용을 통한 동료의식'을 낳고 있는 점도 '조선무용'이 가진 기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무용가들이 일본에서 '한국전통무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 무용예술과 마주한다"고 의식에 필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일본의 '한국전통무용'이 남북측의 '민족무용', 총련계의 '조선무용'과 크게 다른 것은 '조직'이나 국가에 이용되지 않는 곳, '국가'와의 관계가 희박하고 개인적인 동기, 의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에게도 열려 있고, 언제라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용가들의 교실에서는 재일동포, 일본인이 함께 마주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열린 사회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거기에 '민족'을 뛰어넘는 무용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즉, 국적이나 인종,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감정과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힘을 드러내는 예술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재일한국무용가 4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한국전통무용'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예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재일동포무용가가 개인적으로 한국무용교실을 운영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재일한국무용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기 일본의 재일코리언사회에서 보다 폭넓은 또 하나의 '민족무용 ― 한국전통무용'의 전승·보급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재일한국무용가에 있어서의 '한국전통무용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층 있게 검토해 나가고 싶다.

오늘날 재일무용가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연을 하거나 서로간의 상호 교류 공연을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특히 2, 3세 재일 무용가들은 한국전통무용을 배워서 재일코리언사회에 피드백 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상징되듯 분단되었던 민족무용의 서로의 월경과 융합이 또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재일한국무용가들의 월경과 융합 활동에 주목하면서 무용연구가, 무용가로서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일동포의 '민족무용의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갈 것에 의미를 부여해 보며, 아울러 민족예술로서의 새로운 인식과 공헌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일본어 문헌

徐希寧(2024)「分断された朝鮮における『民族舞踊』の現在：『近代朝鮮舞踊』の形成から在日コリアン社会における『民族舞踊』継承まで」, 立命館大学博士学位論文.

徐希寧(2025)『崔承喜と現在』, 東京：図書出版クレイン.

ランゲ, R.（小倉重夫訳）(1981)『舞踊の世界を探る』, 音楽之友社.

인터넷 사이트

趙寿玉「韓国舞踊 趙寿玉チュムパンの会」https://chumpan.wixsite.com/mysite-1, 최종 검색날짜; 2025.07.06)

金君姫「関西韓国YMCAアジア青年センター」. http://www.ayc0208.org/kansai/korean_culture/ 최종검색날짜; 2025.07.06)

李綾子「李綾子 韓国伝統舞踊研究所」http://lee-reungja.com/, 최종 검색날짜; 2025.07.06.)

민족 위계의 도전과 한국 다문화 전환에 있어서의 조선족과 고려사람의 귀환 이주*

Challenging Co-ethnic Hierarchies
and South Korea's Multicultural Transition

－Ethnic Return Migration of the Chosŏnjok and Koryŏ Saram－

송창주**
오클랜드대학교

1. 서론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 세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노동력과 인구의 해외 유출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아지는 이른바 '이주 전환(migration transition)' 현상은 한국 사회의 인종·민족 구성, 노동시장 구조, 문화적 자기인식 전반에 중대한 충격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집단은 중국의 조선족과 구소련 출신 고려사람(고려인) 귀환 이주자들이다. 이들은 '동포'라는 상징적 지위를 갖고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실제로는 언어·문화·생활 방식에서 현재의 남한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상이한 전통과 경험을 축적해온 디아스포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Program for Korean Stud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2-SRI-2200001).

** SONG Changzoo (Professor, University of Auckland)
E-mail: ch.song@auckland.ac.nz

라 집단이었다. 이 두 귀환 이주민 그룹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단일민족·단일문화 정체성의 신화와 충돌하며,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종의 촉매로 기능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조선족과 구소련 출신 고려인의 귀환 이주가 한국 사회를 21세기 이후 실질적인 다문화 사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이들의 언어적 실천, 음식문화의 재현과 혼종화, 정체성 정치, 민족 공동체 안에서의 위계에 대한 도전 등을 분석하여, 이 두 에스닉 귀환 이주민들이 단순한 경제적 노동력이나 정책적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위자(catalysts)'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탈국가주의(post-nationalism),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 디아스포라 혼종성(diasporic hybridity)이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귀환 이주민들의 경험과 실천이 '한국다움(Koreanness)'의 재구성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민족적 동질성을 강하게 전제해 온 기존의 한국적 정체성이 이들 귀환 이주민들의 존재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 확장·균열·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탈국가주의(post-nationalism)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주, 초국가적 이동,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확대로 인해 정체성과 시민권의 기반이 점차 다층화되는 현상을 설명한다(Soysal 1994; Bauböck, 2007; Sassen 2006). 귀환 이주민들은 법적 지위, 문화적 소속, 언어적 자본이 여러 국가에 걸쳐 구성되는 전형적인 탈국가적 주체로, 이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의 국민국가 중심적 정체성 이해 방식을 재고하도록 만든다(Basch, et al. 1994; Levitt & Glick Schiller 2004). 한편,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은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넘나들며 세계 시민적 감수성과 복수 정체성을 구축하는 현상을 강조한다(Beck 2006; Appiah 2006).

조선족과 고려사람은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한국을 가로지르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중적 문화 감수성을 체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은 한국 사회의 문화 경계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Delanty 2009). 디아스포라 혼종성(diasporic hybridity)은 이주 집단이 원(原) 문화와 거주국 문화 사이에서 단순한 동화나 분리를 넘어, 두 문화의 요소를 재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과 문화적 실천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Bhabha 1994; Hall 1990). 조선족의 언어·음식문화 실천, 고려사람의 러시아·중앙아시아 문화의 내면화 등은 혼종성의 대표적 사례로, 이들의 실천은 한국 사회가 전제해 온 '순수한 한국성'의 경계를 흐리고 재구성한다(Clifford 1994; Brah 1996).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전제해 온 기존의 한국적 정체성이 귀환 이주민의 존재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 확장·균열·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핵심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2. 조선족과 고려사람 귀환 이주민: 다층적 문화

조선족과 고려사람 귀환 이주민들은 단순히 인구 이동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집단이 아니라, 고도로 축적된 디아스포라적 경험과, 다소 특수한 한반도 북단의 문화적 전통, 그리고 공산권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을 경험한 독특한 사회적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로의 이들의 귀환은 한국 사회 내부에 이미 존재해 온 민족적 동질성에 관련한 강력한 규범적 틀을 재고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전환을 일상적·구조적으로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위의 두 집단이 형성해 온 다층적 문화 경험과 정체성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본다.

조선족과 고려사람은 공통적으로 '민족 회귀 이주(ethnic return migration)'라는 국제적 이주 흐름 속에 위치한다(Tsuda 2003; Tsuda 2009). 민족 회귀 이주는 조상 출신국 또는 상징적 조국으로 귀환하려는 인구 이동을 의미하며,

일본계 브라질인의 일본 귀환, 독일계 소련인의 독일 귀환 등과 함께 하나의 글로벌 현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귀환 이주자들은 대개 조국 내부의 다수 집단이 기대하는 단일한 민족성 또는 동질적 정체성과는 다른, 보다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Brubaker 2005; Hall 1990). 조선족과 고려사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족은 중국의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지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사회주의 체제, 지역적 경제 환경 속에서 독자적 언어·문화적 층위를 발전시켜 왔다. 한반도 북부 함경도 지방의 방언 사용, 중국어의 일상적 병용, 음식문화의 지역적 차이는 조선족 정체성의 주요 요소를 구성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동포'로 호명되지만,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한국인의 문화'와는 종종 다른 실천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시화한다.

고려사람(고려인)의 경우, 이들의 디아스포라 역사 자체가 강제 이주를 포함한 다층적 이주의 연속이었다. 함경도에서 연해주로, 이후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고려사람들은 러시아어, 우즈벡어, 카자흐어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사회주의적 가치, 중앙아시아의 음식문화와 생활방식 등을 체화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고려사람과는 그 형성의 역사가 다르지만 사할린 한인들의 경우에도 일본 제국, 소련, 러시아 연방을 거치며 일본어·러시아어·한국적 요소가 혼합된 독자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들 귀환 이주민들의 문화는 고정된 '전통'의 보존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조합하며 재구성하는 역동적 실천이다. 즉, 조선족과 고려사람은 단순히 과거 한국 문화를 '조국으로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기억과 실천을 재배열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들이다. 이러한 혼종적 정체성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이상화해 온 단일한 민족·문화 정체성의 규범에 도전하며, 한국 사회 내부의 다문화적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조선족과 고려사람 귀환 이주민의 다층적 문화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다움'의 경계를 재질문하는 계기를 만들고, 디아스

포라적 다양성이 한국 사회 정체성 구성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문화적 기반을 형성한다.

3. 조선족과 고려사람의 언어생활과 실천

조선족과 고려사람 귀환 이주민들은 '언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정체성 구조와 문화적 경계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표준어 중심의 언어 이데올로기, 즉 '올바른 한국어'를 구사해야만 진정한 한국인이라는 규범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귀환 이주민들의 언어적 실천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의 도입이 아니라, 언어와 권력, 정체성, 경계의 관계를 재편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조선족과 고려사람 귀환 이주민의 언어 사용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계와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은 언어를 상징 자본으로 이해한 Bourdieu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Bourdieu 1991).

조선족의 경우, 중국어와 조선어(연변말)의 병용은 일상적이며 세대·지역에 따라 언어 사용 양식이 다양하다. 연변 조선어는 오래된 함경도 방언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는 이미 사라진 언어적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러한 방언적 요소는 한국 사회가 전제하는 '표준어 중심주의'와 대비되며, 한국어의 역사적·지리적 다양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려사람의 경우에는 러시아어가 사실상 1언어로 기능해왔으며, 우즈벡어·카자흐어 등 지역 언어와도 혼종적 관계를 맺어왔다. 귀환 이후 이들의 언어 사용은 다중언어성과 이문화적 경험을 한국 사회에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역량은 한국 사회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족 특유의 억양, 러시아어 억양을 동반한 고려사람의 한국어 사용은 때로 '이질성'의 표식으로 해석되며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직장, 학교, 대중문화 영역에서 귀환 이주민들은 언어적 편견에 직면하며, 표준어에 대한 압력 속에서 언어적 동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은 언어가 민족적 위계와 결합해 작동하는 한국의 사회적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 이주민들은 언어를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협상하고 다문화적 공간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활용한다. 특히 귀환 이주민 여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언어적 중개자(cultural mediator)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녀 세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언어·문화 혼종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가정에서 함경도 방언·중국어·러시아어 등을 사용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다층적 언어 환경을 자연스럽게 구축한다. 이러한 경험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도 복수 정체성의 감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조선족과 고려사람의 언어 능력은 경제적 자산으로도 활용된다. 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등 다언어 구사 능력은 무역, 유통, 교육, 복지, 통번역 등의 영역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귀환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언어적 실천은 귀환 이주민들이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초국가적 역량을 지닌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중언어적 실천은 결핍이나 미완의 언어 능력이 아니라, 초다양성(super-diversity) 환경에서 형성된 이주민들의 언어적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Vertovec 2013).

요컨대, 귀환 이주민들의 언어생활은 한국 사회의 단일언어주의 신화를 해체하고, 언어적 다양성과 다중 정체성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실천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전환에 있어 언어가 수행하는 정치적·문화적 역할을 재조명하게 하며, 귀환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언어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고향의 재구성: 민족 거주지와 음식 실천

조선족과 고려사람, 그리고 사할린 한인 귀환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한 지역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이주민들이 자신의 기억과 정체성을 실천하고 재구성하는 문화적 장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민족 거주지(ethnic enclaves)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새로운 '고향'을 창출하는 공간적 실천의 결과이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문화의 재현과 혼종화는 그들의 정체성 정치와 밀접히 연관된다. 이러한 민족 거주지는 단순한 이주민 집단의 정착지가 아니라, 이주민과 다수 사회, 기억과 권력이 교차하는 디아스포라 공간(diaspora space)으로 이해될 수 있다(Brah 2005). 이 장에서는 귀환 이주민들의 정착지가 어떻게 상징적 '고향'으로 재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음식 실천이 다문화적 공간의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분석한다.

조선족 귀환 이주민들이 밀집한 서울 대림동, 자양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은 초기에는 저렴한 주거비와 산업단지 인접성 때문에 이주민이 유입된 지역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종교·상업·음식문화가 결합된 복합적 민족 거주지로 발전하였다. 이들 지역의 조선족 식당과 상점은 중국 동북지역의 음식문화를 한국에 도입하는 중심지였으며, 특히 자양동의 '양꼬치 거리'는 이미 한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문화적 명소가 되었다. 양꼬치는 위구르계 무슬림 음식 전통과 조선족의 지역적 재해석,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결합하면서 혼종화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자동회전식 무연 그릴의 도입, 돼지비계를 함께 꿰어 굽는 조리 방식 등은 조선족 이주민의 창의적 문화 실천을 보여준다.

고려사람 귀환 이주민의 주요 정착지인 인천의 함박마을, 안산의 뗏골마을, 광주의 월곡동 등은 중앙아시아의 음식·언어·종교적 요소가 그대로 재현되는 공간이다. 플로브, 라그만, 사모사, 샤슬릭 등 중앙아시아 전통 음식들은 고려사람들이 체화한 이주 경험의 산물로서, 한국에서는 낯선 맛이지만 점차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하며 새로운 음식문화의 지평을 열고 있다. 이러한 음식 실천

은 귀환 이주민들에게 정체성의 유지이자 감정적 귀속(affective belonging)의 회복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할린 한인의 음식문화는 일본·러시아·한국의 요소가 중첩된 독특한 혼종성을 지닌다. 이는 사할린 한인의 디아스포라 경로가 일본 제국, 소련, 러시아 연방을 거쳐 형성된 복합적 이주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음식은 그들의 역사적 기억을 일상 속에서 재현하는 주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음식 실천은 고정된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이동과 정착의 경험 속에서 재구성되는 문화적 실천으로, 혼종성과 정체성 협상의 장으로 기능한다(Appadurai 1988).

그러나 이러한 음식 실천의 확산 과정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위생 기준, 향신료의 강한 향, 식재료 유통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언론 보도가 조선족 음식점과 범죄·위생 문제를 연결시키며 문화적 낙인(stigma)을 확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주민들은 '이국적 체험', '다문화 관광', '웰빙' 등의 담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사회 내 수용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음식 실천은 단지 소비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경험적 장으로 기능한다. 고려사람 2세대가 집에서는 샤슬릭과 보르쉬를 먹고, 학교 급식에서는 불고기와 김구이를 먹으며 성장하는 과정은 단순한 미각 경험이 아니라 다중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이러한 음식문화는 한국인 배우자, 지역 주민, 관광객 등 다양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다문화적 이해와 정체성 협상의 공간을 창출한다. 요컨대, 귀환 이주민들의 민족 거주지와 음식 실천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추상적 담론을 넘어 일상적 실천으로 구현되는 구체적 사례이다. 이는 귀환 이주민들이 '고향'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재구성하고 전유하는 주체적 행위임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전환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5. 한국의 민족 위계에 대한 도전과 '공동 민족 민주주의'로의 기여

조선족과 고려사람 귀환 이주민들의 한국 정착 경험은 한국 사회 내부에 존재해 온 민족적 위계(co-ethnic hierarchy)를 가시화하고 이를 재구성하도록 촉발한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귀환 이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는 단순한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 동일 민족 내부에서 작동하는 위계적 민족주의, 즉 '공동 민족 위계(co-ethnic hierarchy)'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Tsuda 2009; Tsuda 2022). 귀환 이주민은 '동포'라는 상징적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실제 한국 사회가 전제해 온 민족적 동질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제도적 배제를 경험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 구조를 어떻게 드러내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분석한다.

1990년대까지 많은 한국인들은 해외 디아스포라를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로 상상하며, 이들이 언어·문화적으로도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귀환 이주민이 실제로 보여준 언어적 억양, 중국어·러시아어 사용, 문화적 습관, 생활양식 등은 한국 사회가 이상화해 온 단일 민족·단일 문화 정체성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충돌은 조선족과 고려사람을 '우리' 내부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러한 갈등은 민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정치적 경계 설정을 통해 구성된 범주임을 시사한다(Brubaker 2004).

특히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귀환 이주민이 경험한 제도적 차별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만을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했으며, 일제강점기와 냉전·강제 이주 과정 속에서 형성된 조선족과 고려사람은 '외국인'으로 분류했다. 반면 탈북민과 사할린 한인 1세대는 역사적·정치적 특수성이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우대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귀환 이주민에게 민족 내부의 인종주의(co-ethnic racism)를 경험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귀환 이주민들은 이러한 제도적 차별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법적·사회적 대응에 나섰다. 조선족 단체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계보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제기했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01년 조선족에게도 재외동포법 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민족 위계 담론에 실질적 충격을 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투쟁은 단순히 법적 권리를 획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조선족과 고려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개념을 경험적·정치적 기준으로 재구성하도록 요구했다. 즉, 혈통·언어·문화적 동질성이 아닌, 사회적 참여, 기여, 경험을 기준으로 한국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단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공동 민족 민주주의(co-ethnic democratic pluralism)'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공동 민족 민주주의란, 동일한 민족적 기원을 공유하더라도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경로를 경험한 공동체들이 상호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귀환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기존의 위계적 민족주의를 해체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요컨대, 귀환 이주민의 존재는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자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들며, 한국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지평을 제시한다. 그들의 경험은 한국 사회가 내부 타자(inner Others)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다문화주의가 단순히 외국인을 포용하는 정책을 넘어, 민족 내부의 다양성과 위계를 재구성하는 근본적 과제임을 환기시킨다.

6. 맺음말

조선족, 고려사람, 그리고 사할린 한인 귀환 이주민들의 경험은 단순한 인구이동이나 경제적 이주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 내부의 정체성 구조를 재구성

한 중요한 문화적·정치적 실천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상화되어 온 단일 민족·단일 문화 정체성에 균열을 일으키며, 한국이 스스로의 '한국다움(Koreanness)'을 재정의하도록 요구한 역사적 행위자들이었다.

본 연구는 귀환 이주민들이 한국의 다문화적 전환을 촉발한 핵심 요소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혔다. 첫째, 언어적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일언어주의 신화에 도전하였다. 오래된 함경도 방언, 중국어 및 러시아어의 병용, 다중언어적 정체성은 한국어의 경계와 위계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둘째, 귀환 이주민들은 음식문화의 재현과 혼종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상적 문화지형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다문화적 공간을 창출하였다. 셋째, 제도적 차별과 민족 위계 구조에 대한 법적·사회적 투쟁은 귀환 이주민을 수동적 '귀환자'가 아닌 적극적 정치 행위자로 재위치시켰으며, 공동 민족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귀환 이주민들에게 '고향'은 단순히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기억·실천·경험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장소성(place-making)의 결과물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만들어낸 '고향의 재구성'은 정체성을 협상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정체성 경계를 다시 그려가는 주체적 행위였다. 이러한 실천은 한국 사회가 민족적 동질성의 틀을 넘어 보다 포용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결국 조선족과 고려사람 귀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게 '누가 한국인인가', '한국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다. 이들의 경험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적·정치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민족 내부의 다양성과 위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는 세대 간 정체성 변화, 젠더적 차이, 감정 정치, 제도와 문화의 상호작용 등을 더욱 심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귀환 이주민과 한국 사회의 관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진욱(2015)「조선족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 벌인 한민족」,『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1001229 (검색일: 2025.1.15).

킴나리(2022)「그래서 조선족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0342568 (검색일: 2025.1.15).

김범수(2019)「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정치」,『아시아 리뷰』 9(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37.

이진영·김선아 꼬르디아(2017)「고려인의 음식문화와 정체성: 이주와 혼종 문화로의 변화」,『문화와 정치』 4(1), 63-96.

Appadurai, A. (1988) 'How to make a national cuisine: cookbooks in contemporary Ind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0(1), 3-24.

Appiah, Kwame Anthony (2006)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Norton.

Bauböck, Rainer (2007) 'Political boundaries in a multilevel democracy,' *Political Theory 35(4)*, 452-484.

Basch, Linda, Nina Glick Schiller & Cristina Szanton Blanc (1994) *Nations Unbound*, New York: Gordon and Breach.

Beck, Ulrich (2006) *The Cosmopolitan Vision*, Cambridge: Polity Press.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Bourdieu, Pierre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Press.

Brah, A. (2005) *Cartographies of diaspora: Contesting identities*. Routledge.

Brubaker, R. (2002) 'Ethnicity without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Archives européennes de sociologie,* 43(2), 163-189.

Delanty, Gerard (2009) *The Cosmopolitan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l, Stuart (1990)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J. Rutherford (ed.) *Identity*, London: Lawrence & Wishart, 222-237.

Kim, Gyuchan (2017) 'Migration Transition in South Korea: Features and Factor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1), 1-32.

Kim, H. A. (2020) 'Understanding "Koreanness": Racial stratification and colorism in Korea and implications for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22(1), 76-97.

Kim, N. H. (2019) 'Hierarchical Ethnic Nationhood in the Formal Membership and Beyond: Joseonjok and Formal and Substantive Citizenship in Their Ethnic Homeland,' in

T. Tsuda & C. Song (eds.) *Diasporic Returns to the Ethnic Homeland*, Cham: Palgrave Macmillan, 79-97.

King, J. R. P. (1987)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Language Research* 23(2), 233-274.

Moon, K. H. (2015) 'South Korea's Demographic Changes and their Political Impact,' *East Asia Policy Paper 6*,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Sassen, Saskia (2006) *Territory, Authority, Righ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eol, D. & Skrentny, J. D.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Sheffer, G. (2003) 'From Diasporas to Migrants, from Migrants to Diasporas,' in R. Münz & R. Ohliger (eds.) *Diasporas and Ethnic Migrants: Germany, Israel, and Post-Soviet Successor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Frank Cass, 21-55.

Song, C. (2009) 'Brothers Only in Name: The Alienation and Identity Transformation of Korean Chinese Ethnic Return Migrants in South Korea,' in T. G.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281-304.

Song, C. (2016) 'Kimchi, seaweed, and seasoned carrot in the Soviet culinary culture: the spread of Korean food in the Soviet Union and Korean diaspora,' *Journal of Ethnic Foods* 3(1), 78-84.

Song, C. (2019) 'Joseonjok and Goryeo Saram Ethnic Return Migrants in South Korea: Hierarchy among Co-Ethnics and Ethnonational Identity,' in C. Song & T. Tsuda (eds.) *Diasporic Returns to the Ethnic Homeland: The Korean Diaspora in Comparative Perspective*, Cham: Palgrave Macmillan, 57-77.

Song, C. & Li, H. (2021) 'The Advantage of Transnational Co-ethnic Networks: Korean Chinese Entrepreneurship in Innovating and Globalizing Xinjiang Style Barbecue Lamb Skewers Business,' *Journal of Chinese Overseas* 17(2), 318-339.

Soysal, Yasemin (1994) *Limits of Citizen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suda, T. (2003)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Tsuda, T. (2009)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Tsuda, T. (2022) 'Racism without racial difference? Co-ethnic racism and national hierarchies among Nikkeijin ethnic return migrants in Japan,' *Ethnic and Racial Studies* 45(4), 595-615.

Vertovec, S. (2013) 'Super-diversity and its implications.' In *Anthropology of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Routledge, 65-95.

부사 ‘드디어’의 주관화와 의미 확장

Subjectification and Semantic Extension
of the Korean Adverb ‘deudieo’

申峰林*
광동외어외무대학교
易超**
광동외어외무대학교

1. 머리말

부사 ‘드디어’는 16세기 문헌에서 나타난 ‘드듸여’에서 기원하며 ‘디디다’의 의미인 ‘드듸-’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형태가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19세기에는 제2음절 모음 ‘ㅢ’가 ‘ㅣ’로 변화하여 ‘드듸여’에서 ‘드디여’의 형태로, 20세기 이후에는 제3음절 반모음이 탈락하며 ‘드디어’로 정착하였다. 이는 ‘발로 딛다’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의미에서 출발해 추상적인 시간부사로 문법화된 전형적인 사례로, 구어와 문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됨에도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족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세종말뭉치에서 추출한 1,161개 용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기존 연구(온영두 1985; 강현주 2020 등)에서는 ‘드디어’를 긍정적 결과로 한정하였으나, 말뭉치 분석에서는 상당수의 부정 및 중립의 용례(예: 드디어 죽고 말았다)가 확인되어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 SHEN Fenglin (First author, Postdoctoral researcher,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sfl910@126.com

** YI Chao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af995400@126.com

본 연구는 주관성과 주관화 이론을 토대로 부사 '드디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시작하여 화자 자신의 기대, 예상, 확신 등 주관적 요소에 대한 강조까지 용법별로 계층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드디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드디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1]

[부사]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a.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b.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드디어 마련했다.
c.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망설이다가 드디어 결심이 선 듯 다시 입을 여는 그의 목소리도 한결 정감 어린 것이었다. ≪이문열, 영웅시대≫

이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드디어'의 비슷한 말로 '결국'과 '마침내'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선행 사건(원인) 존재 → 후행 결과 발생'의 인과적 연결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드디어'가 객관적 인과관계 기술 기능을 넘어 화자의 인식 속에 잠재한 내적 세계를 표출하는 다기능 언어 표지로 확장된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어 부사의 의미 발달 연구에 유의미한 참고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2. 주관성과 주관화 이론

주관성 연구의 근간이 되는 Lyons(1977: 739)의 정의에는 주관화를 언어생활 중 화자의 '자아'가 반영되는 것으로 발화 중 화자의 입장이나 태도, 감정이 언어 문맥 속에 드러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자아'에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자아'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자아'가 존재하며 양자 간에는 분명한 의미상의 대조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Finegan(1995: 1)은 주관성(subjectivity)이란 담화에서 화자 자신을 표현하거나 화자의 관점이나 흔적을 표현하는 것이며, 주

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참조.

관화(subjectivization)란 주관성을 언어적으로 실현할 때의 구조 및 전략을 뜻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임지룡 2008: 304).

의미 변화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체계를 제공한 Traugott(1995: 48)은 '의미-화용'의 시각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인지와 태도가 언어에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하면서 '주관성'이란 '화자의 시점을 부호화한 것으로, 예를 들면 직시·양상·담화 전략의 표시 등이 있으며 이는 화자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Traugott은 주관화를 의미 변화의 세 가지 보편적 경향성 속에서 파악하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주관화라고 하였다. 이성하(1998: 153)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의미 화용적 경향 I: 외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내적인, 평가/인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의미 화용적 경향 II: 외적 또는 내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텍스트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의미 화용적 경향 III: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신념/태도의 의미가 점점 더 강한 주관적인 신념/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 세 가지 경향성, 특히 첫 번째와 마지막 내용은 '드디어'의 의미 확장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효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한국어 주관성 연구는 이기동(1989)을 기점[2]으로 본격화[3]되었다. 그 후 임지룡(1998: 185-187)은 Finegan(1995: 4)을 참조하여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언어 표현을 형성하는 발화 행위자의 '관점'(perspective), 둘째는 발화 행위자의 발화에 담겨 있는 명제의 '정서'(affect) 표현, 셋째는 발화 행위자의 발화에 담겨 있는 명제의 '서법성'(modality) 즉 인식론적 위상 표현이다. 임지룡(2004)은 주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있던 것이 객관성을 서서히 잃

2 90년대 전후 개념주의 및 체험주의(experientialism)를 바탕으로 한 인지언어학이 대두하면서 언어능력을 사람이 가진 인지능력의 일환으로 보았는데 이로부터 언어에 관한 연구는 명제내용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화자의 발화 속에서 '자아'를 표현하는 데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입장과 감정, 인지, 태도 등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화자의 주관성을 포함한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추진하였다.

3 여기에서는 '언어 주관성의 문제'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고 원래 내재되어 있던 주관적인 파악만 남게 되는 의미 변화'로 정의하였다.

김동환(2001)은 주관화를 말하는 주체인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표현하는데 참여하는 인지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를 동일한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인지능력인 장면 해석(construal)의 한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강보유(2019)는 문법화의 주관화 기제, 통사적 제약의 주관화 기제, 품사 분류의 주관화 기제 등 기제 구축을 시도하면서 한국어 구문해석 방법론으로 주관성과 주관화 기제를 한국어 문법 연구 프레임에 넣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 언어는 사실이나 사건 자체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됨으로써 언어 표현에서 객관성과 주관성이 비치게 되는데 화자는 말하는 동시에 입장과 태도 그리고 감정을 표출하게 됨으로써 언어구조에 자연적으로 화자의 주관성이 투사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이기동(1989), 이성하(1998), 임지룡(1998, 2008), 김동환(2001, 2013), 강보유(2016, 2017, 2019), 이수련(2010), 조미희(2016), 함계임(2016, 2017) 등[4] 한국어 연구의 논의와 Traugott의 의미-화용론적 관점을 종합하여 주관성을 '화자의 관점(시각·인식·심리)이 발화에 투영된 것', 주관화를 '해당 관점이 언어 형식에 굳어지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분석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관화의 구체적 기제를 적용한다.

첫째, 객관적 의미에서 화자 태도 반영으로의 전환(Traugott의 경향 I 및 III에 부합),

둘째, 의미 희석(Semantic Bleaching)에 의한 원형 의미 약화 및 추상화,

셋째, 화용론적 강화(Pragmatic Strengthening)를 통한 주관적 태도 및 화용적 기능의 초점화.

4 이상 내용에서 확인해 보면 한국어 주관성과 주관화의 연구는 연구 측면과 연구 방법에는 서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로는 주관성과 주관화의 생성 기제, 의미 확장과 의미 해석의 기제, 더 나아가 문법화의 기제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틀은 ‘드디어’의 주관화와 의미 확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다.

3. 부사 ‘드디어’의 기존 연구와 한계

‘드디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주로 유사 부사와의 비교 연구 속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져 왔다.[5] 온영두(1985)는 ‘드디어, 비로소, 마침내, 끝내, 결국’을 도식화하여 비교함으로써,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가 예상된 기대 달성 또는 긍정문 맥락에서 주로 사용됨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은령(2013)은 ‘마침내, 드디어’와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결국’을 중심으로, ‘결국(fin)류’ 부사군의 의미적·화용적 기능을 고유성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서반석(2018)은 ‘드디어, 마침내, 결국, 끝내’를 ‘텍스트 진행 방식, 결과 사건의 상적 특성, 화자의 기대 특성’이라는 삼중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시간부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강현주(2020)는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드디어, 마침내, 끝내, 결국’의 차이점을 ‘의미 초점’, ‘시제 제약’, ‘화자의 기대 여부’, ‘문체 점검’ 등 다차원적 기준으로 변별하면서 ‘드디어’가 수식하는 상황이 ‘기대하고 바랐던 긍정적 결과’라고 하여 과정보다 결과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부사 ‘드디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양적 부족과 더불어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한계를 노출하였다. 첫째, 기본적 의미 해석의 비교 연구에 그쳐 ‘드디어’ 자체의 추상적·화용적 층위에 대한 심화된 분석이 결여되었으며, 둘째, 용법을 ‘긍정적 결과’로만 축소한 이유로 말뭉치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부정 및 중립 용례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하였고 그 주관적 변이성을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세종말뭉치에서 추출한 풍부

5 일부 논의에서는 이처럼 ‘주관성’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제기될 뿐, 더 이상의 진척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언어의 과학적 연구가 자연과학과 논리어법의 연구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실례를 바탕으로 귀납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의미 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드디어'의 용법을 크게 '객관적 의미 용법'과 '주관적 의미 용법'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객관적 사실을 '주관성'을 배제한 상태로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후자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인식이 개입된 표현 양상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용법에서 화자의 '자아'가 점차 주입되어 주관적 용법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4. '드디어'의 객관적 의미 용법

부사 '드디어'의 사전적 의미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는 핵심적으로 '원인-결과'라는 논리적 연결을 표상한다. 이는 선행 구문(또는 발화)에서 제시된 원인적 사건/상황이 일정한 누적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상황의 전환을 맞이하는 객관적 용법을 구현하는 것으로, 말뭉치 용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드디어'의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용법이다.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시간적·논리적 필연성이 핵심적 특성으로 작용한다.

용법: '드디어'가 선행 구문의 상황과 후행 구문의 마지막 결과 사이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a.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 사이에는 경제적,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 드디어 1861년에는 무력 투쟁으로 발전되고 말았다.
b. 이것이 조금씩 솟아오르자 그 위에 있던 암석이 깎여 나가고, 드디어 화강암이 지표에 모습을 드러냈다.
c. 이런 시행착오가 거듭되다 올해부터 모두 본고사를 폐지하자 드디어 제2외국어는 입시과목에서 사라져버렸다.
d. 그러나 이들 귀족들의 사치와 낭비는 모두가 국민들의 세금이 바탕이었으므로 귀족들의 사치와 호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국민들의 생활은 비참

해졌고, 드디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귀족들은 거의 모두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어.

이상의 용례에서 '드디어'는 역사적 사건, 자연 현상, 제도 변화 등 외부적 사건의 기술에 사용된다. 이 객관적 용법에서는 화자의 감정이나 평가가 개입되지 않은 채, 앞선 명제에서 제시된 원인이 '드디어'의 후행 명제에서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인다. 즉, '드디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필연적으로 도달한 종점, 즉 '논리적 결론'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선행 내용이 후행 결과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논리적 필연성이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사회적 긴장 고조(원인) → '드디어' 무력 투쟁 발발(결과), 암석 침식(원인) → '드디어' 화강암 노출(결과), 시행착오 누적(원인) → '드디어' 제2외국어 입시과목 폐지(결과), 귀족 사치 심화(원인) →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 발생(결과) 등의 용례에서와 같이 시간적 선후 관계가 인과관계를 조성하는 메커니즘이 확인된다.

여기서 과정의 누적과 상황의 전환은 '드디어' 의미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속성으로, 다양한 주관적 용법으로 확장되는 공통된 기반을 제공한다. 다음 장에서는 화자의 인식이 개입되면서 주관화의 과정이 시작됨을 설명할 것이다.

5. '드디어'의 주관화와 의미 확장 양상

말뭉치 분석을 바탕으로 '드디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주관화가 진행되어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화자의 초점이 '인과 관계'에서 '정서', '인지', '화용'으로 이동하며 언어 형식의 기능이 더 추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5.1. 정서적 차원의 주관화

정서적 차원에서의 주관화는 객관적 인과 관계에 화자의 정서가 깊이 개입

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말뭉치 분석을 통해 부사 '드디어'에는 객관적 인과관계 제시 기능과 더불어 장기간 지속된 어려움이나 갈망을 극복한 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기쁨, 안도)이 가미된 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객관적 사실 진술을 넘어 화자의 심리적 요소가 개입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된다.

용법: 장기적 과정 또는 어려움 극복 후 기대 실현에서 수반된 긍정적 심리 (기쁨, 안도) 표출 기능.

(1) 직접적 이득 사례

a. 어머니는 '별일 다 보겠다'며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결국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드디어 바라던 안경잽이가 되었다.
b.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정교사가 되었다. 취직을 한 것이다.
c. 몇 달 동안 침대에서만 누워 지내던 오빠가 드디어 휠체어에 처음 올라앉은 날, 나는 살면서 다시는 느껴 보지 못할 큰 희열을 느꼈다.
d. 그때부터 돈을 모아서 4년 전에 드디어 구입했죠.

여기에서는 화자가 주도권을 행사하여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획득한 상황을 '드디어'가 연결해 준다. 이때 결과에 대한 '기대 유무'는 선행 내용에서 결정되고 '드디어' 이후의 피수식 부분은 직접적 이득 내용을 보여주면서 동작 완료 결과나 결과 명확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화자의 소원 달성으로 인한 강한 주관적인 감정이 내포됨을 표현한다.

(2) 간접적 이득 사례

a. 또 돈만 뺏기면 괜찮겠는데, 몸까지 다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니까, 드디어 대통령이 단안을 내린것 같습니다.
b. 드디어 그는 목사로 교회에 가지 않고 청계천 뚝방에 있는 판자촌에 방 한 간을 얻어 놓고 자취를 했다.

c.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나자 드디어 A도 이젠 뭔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d. 숱하게 세월이 흐르고 밀리고 미적대고 질적대고 한 끝에 드디어 결심한다.

여기에서 '드디어'는 간접적이고 상대적으로 화자가 원하는 결과를 연결해 준다고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화자의 이익이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사태나 상황의 흐름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예문 a의 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통령 단안), 둘째, 사전에 발생한 손실을 보완하여 사태 흐름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예문 b, c의 목사 직업 포기 후 자취생활로 자율성 회복/무기력에서 행동 계획 수립), 셋째, 부정적 상황에서 탈출함으로써 추가 손해를 방지하는 경우(예문 d의 장기적 망설임 해소를 통한 정신적 부담 감소)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상대적인 이득 효과를 구현함을 설명해 준다.

이상의 정서적 차원 용법에서는 '드디어'가 오랜 기다림이나 어려운 과정이라는 배경 의미를 바탕으로 그 끝에 찾아온 기대의 실현과 이에 따른 정서적 해방감을 함께 부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Traugott의 경향 I(외부 상황 기술 → 내부 평가 의미)이 적용되는 대표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의미 희석 측면에서 원형 의미의 강한 인과성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과정]과 [결과]의 의미 자질은 유지되었으며 화자의 [긍정적 감정]이라는 새로운 의미 자질이 추가된다. 특히 간접적 이득 부분에서의 예문 c와 d는 정서적 안도와 더불어 인지적 결심의 측면도 함께 보여주며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5.2. 인지적 차원의 주관화

인지적 차원에서의 '드디어' 주관화는 화자의 인지적 과정, 즉 사건에 대한 예측과 평가를 표출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이것은 기존 연구의 주장과 가장 뚜렷하게 대조되는 부분으로 '드디어'의 사용이 결과의 긍정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화자의 예상이 현실화되었음에 주목함을 보여준다.

용법 1: 화자의 예상과 최종 상황의 일치성 확인 기능.

a. 그 사내의 아내가 따라오면서 건너지 말라고 애원하여도 그 사내는 듣지 않고 드디어 물에 빠져 죽었다.
b.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제 아이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어요. 아빠에게 대들고 소리를 지르며 이젠 부모도 필요 없고 학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c. 조마조마하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만 것이었다.
d. 그러나 열렬한 사랑이 차츰 그 열도를 올려가게 되자 그 소녀는 눈에 보이게 병세가 악화되어 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소녀는 죽고 말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사 '드디어'의 용법에 대해 상당히 일관된 관점을 유지해 왔다. 온영두(1985)는 '드디어'가 예상된 기대의 달성이나 긍정문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후 이은령(2013), 서반석(2018), 강현주(2020)를 포함한 대부분의 후속 연구에서도 이 관점을 계승하여 '드디어'가 수식하는 상황은 반드시 화자가 기대하고 바랐던 긍정적인 결과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강현주(2020)는 화자의 의도와 배치되는 경우 사용상 어색함이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해당 주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종말뭉치 분석 결과 이러한 기존 학설과는 상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총 1,161개 용례 중 상당수에서 '드디어'가 화자의 주관적 기대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와 결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드디어 일을 저질렀어요'(b)나 '드디어 죽고 말았다'(d)와 같은 표현들은 기존의 '긍정적 기대 실현'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대표적 용례이다. 이는 기존 논의나 직관적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화자가 주관적으로 기대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기대와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도 '드디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와의 결합은 '드디어'의 의미가 기대에서 예측된 사건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는 결과의 가치 판단(긍정/부정)이 아닌 예측의 정확성 검증에 있다. 선행 맥락에서 화자가

암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사건 전개를 예측한 바(아내의 경고 무시 → 위험, 병세 악화 지속 → 사망)를 전제로, '드디어'가 도입하는 후행 명제에서 해당 예상이 현실로 실현됨을 강조한다. 이때 화자는 결과 자체에 대한 감정적 반응보다 자신의 예측이 적중했음을 표출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작동한다. 예상된 결과의 실현은 문장 전체의 화용론적 초점이 되며 '드디어'의 수식을 통해 이 주관적 초점 정보가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용법은 원형 의미(인과 연결)에서 고도화된 주관화 단계를 보여준다. Traugott(1995)의 주관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원인-결과'의 객관적 연결성은 희석되는 반면 '예측-현실'의 주관적 일치성이 부각되는 의미 재구조화가 발생한 것이다. 즉 '드디어'는 화자의 인지적 과정(예상 형성 → 현실 검증)을 언어화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특히 부정적 결과와의 결합 사례에서는 기존 의미의 제약을 넘어선 추상화 수준을 입증한다. 이는 Traugott 이론의 경향 III(주관적 태도 강화)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표현이다.

용법 2: 인과 연결 의미의 희석과 주관적 정도성 강조 기능.

a. 조종은 세상을 지우고 드디어는 죽음도 지우고 만다.
b. 추워지기 전에 여행할 생각으로 왔는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날마다 기온이 떨어지더니 오늘은 드디어 최저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c. 악동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싱겁고 악당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지나친 젊은 녀석들 셋이서 처음에는 온갖 부랑자 짓을 하다가 드디어 겁탈과 우발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d. 그리고 감독상이라고는 어디에서이고 단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던 나는 드디어 대종상을 챙기기에 이르렀다.

인지적 차원의 또 다른 확장 양상으로 정도성 강조 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드디어'가 주관적 기대 부응 차원을 넘어 화자가 인지하는 사태의 정도성 심화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선행 구문과 후행 구

문 간의 인과적 필연성보다 개연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선행 맥락에서 축적된 점진적 변화(기온 하강, 행위 심화 등)를 배경으로 '드디어'가 도입하는 후행 사건이 화자에 의해 인지된 변화의 극대화 지점으로 부각된다.

구체적으로 선행 구문에서는 사태 진행의 누적 단계(매일 기온 저하, 부랑자 짓 점진적 심화)를 제시하는 반면, '드디어'가 도입하는 후행 명제(영하 10도 도달, 겁탈·살인 범죄 실행)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이 척도상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한다. 이때 '드디어'는 [+기대]의 의미에서 선행 상황 대비 질적/양적 차원의 비약적 상승을 표지하는 기능으로 전환되며, 통사적으로는 전제 제시 후 체언 수식(드디어 최저 기온, 드디어 겁탈과 살인)을 통해 화자가 인지한 정도성의 격차를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의미 희석 과정에서 객관적 인과성 → 주관적 척도 평가로의 재초점화 현상을 반영하며, Traugott의 주관화 이론에서 제III단계(화자의 태도 투영 강화)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5.3. 화용론적 차원의 주관화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주관화는 '드디어'의 기능이 과거 사건의 서술을 넘어 미래에 대한 화자의 강한 주관적 확신을 표명하는 화용론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강현주(2020)는 '드디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과 결합할 경우 비문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의 말뭉치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확장 용례가 확인되어 기존 주장과의 명백한 차이를 입증하고 있다.

용법: 미래 시제 결합을 통한 '필연적 결과성' 표출 기능.

a. 우린 드디어 만날 거야.
b. 드디어는 무어가 무언지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할 것이다.
c. 3일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운 계획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용법에서 '드디어'는 과거의 완료된 결과 표시에서 주관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ㄹ 것이다' 등과 호응하여 미래의 예측된 필연성 표출로 기능이 전환된다. 즉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다'(c)는 결과 달성 자체가 아닌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작동 메커니즘은 세 층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구현된다.

의미적 차원에서는 시간축 상의 과거에서 미래로의 전환과 인지적 차원의 객관적 사실에서 주관적 확신으로의 재구조화를 동시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드디어 만날 거야'(a)에서 '만남'은 단순한 미래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대나 과정의 연장선 상에서 마치 필연성을 가진 사건으로 인식된다. 이는 '드디어'가 단순한 미래 예측문(만날 거야)에 필연성과 과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임을 보여준다. 화용론적 차원에서는 화자의 태도(강한 확신)가 언어 형식에 투사되며, 이는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다'(c)와 같은 발화에서 주관적 확신의 화용적 강도가 외현화된다. 통사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의미-화용적 특성이 문법적 결합 양상으로 정착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ㄹ 것이다' 등 확신형 시제 어미와의 공기 현상이 필연성 의미를 강화하는 문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5.4. 주관화 생성 기제와 의미 확장

'드디어'의 주관화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기제는 화자의 인지적·화용적 요구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연관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화자는 단순히 사건의 인과 관계를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기대, 예측, 평가, 확신 등의 주관적 요소를 언어화하려는 다양한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동기가 과정의 누적과 상황의 전환이라는 원형적 의미 자질과 결합하여 정서, 인지, 화용 등 차원에서 의미 확장을 실현한다. 그 주관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호 연관된 기제가 내재되어 있다.

첫째, 고빈도 사용을 통한 촉진 기제이다. 이는 주관화를 가능하게 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제이다. '드디어'는 구어와 문어를 가리지 않고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원형 의미인 '원인-결과'의 객관적 인과성을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주관적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빈도

사용은 맥락의 다양화를 촉진하여 '드디어'가 긍정적 결과는 물론, 다양한 부정적 및 중립적 결과와 결합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말뭉치 분석에서 '드디어'가 수식하는 결과가 명백히 긍정적인 용례는 774개로 약 66.7%에 달하였으나 부정적(244개, 약 21%)이거나 중립/맥락 의존적(143개, 약 12.3%)인 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 나아가, 미래 시제와 결합된 용례가 전체의 약 3%로 확인되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나 이는 '드디어'의 기능이 화자의 주관적 확신과 기대를 표시하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종합적으로 고빈도 사용이 '드디어'를 '긍정적 결과'라는 특정 의미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능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음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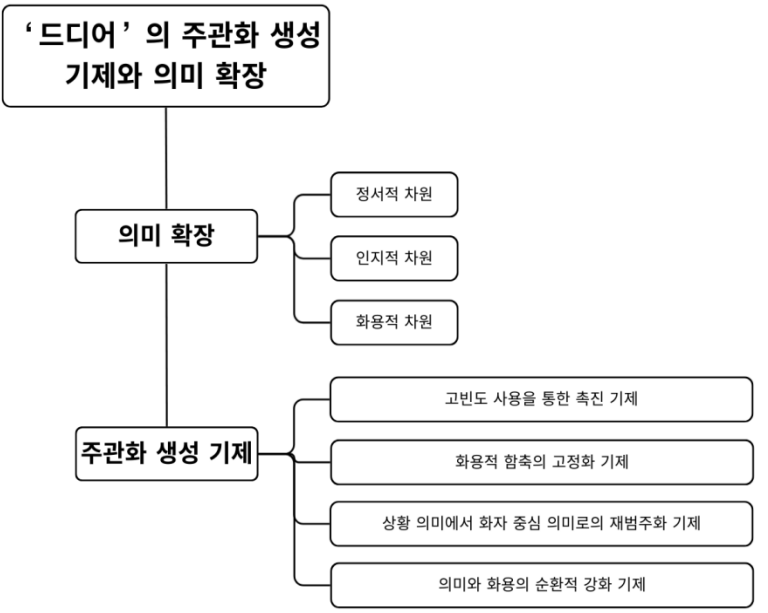
둘째, 화용적 함축의 고정화 기제이다. 이는 고빈도 사용을 통해 '드디어'가 특정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전달하던 화용적 의미가 점차 해당 어휘의 안정적인 의미 자질로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초기 '드디어'는 단순히 사건의 시간적 종결을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표현이 장기간의 기다림, 화자의 기대, 예측의 현실화 또는 과정에 대한 평가 등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암시하는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청자는 '드디어'를 접할 때마다 단순한 사건의 끝이 아닌 화자의 기대나 예측이 결국 실현된 지점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추론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처럼 반복적으로 유발되던 화용적 함축 의미는 더 이상 추가적인 추론이 필요 없는 '드디어' 자체에 내재된 규약적 의미로 고정되었다. 이는 '드디어 죽고 말았다'와 같은 발화에서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보다 화자가 이미 예견했던 결과의 출현이라는 주관적 의미가 발화의 주요 내용으로 부상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드디어'는 객관적 사건 서술의 부사에서 화자의 인지적 상태와 사건 결과의 일치성을 표시하는 주관성의 표지로 그 기능이 재정립된 것이다.

셋째, 상황 의미에서 화자 중심 의미로의 재범주화 기제이다. 이는 '드디어'의 의미 초점이 외부 사건의 객관적 진행에서 그 사건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화자의 내적 상태로 이동하는 인지적 재구조화 과정을 가리킨다. 이는 Traugott의 경향 I과 III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의미-화용적 변화에 따라 '드디어'

가 결합할 수 있는 통사적 환경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해당 구문이 새로운 기능으로 재해석되는 기제이다. 즉 '드디어'가 표상하는 핵심 정보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서 '화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범주화는 통사적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원래 과거 사건의 완료를 서술하는 데 주로 사용되던 '드디어'의 의미가 화자의 기대나 예측 등 주관적 영역으로 재정의됨에 따라 '드디어 만날 거야'와 같은 '드디어+미래 시제(-ㄹ 것이다)'의 결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드디어'가 화자가 강하게 예측하거나 확신하는 미래의 지점을 가리키는 기능으로까지 그 사용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의미와 화용의 순환적 강화 기제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고정화와 재범주화로 인해 강화된 주관적 의미가 다시 새로운 화용 맥락을 창출하고 이 새로운 맥락이 또 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드디어'의 주관적 의미가 일단 정착되자 화자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드디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또다시 주관적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순환이 생기게 한다. 예를 들어 '드디어'가 기대 실현의 감정을 획득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화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예측의 적중이나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다시 사용 빈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해당 표현의 주관적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의미-화용의 순환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드디어'를 단순한 시간부사를 초월하는 화자의 내적 상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고도화된 주관성 표지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은 위에서 논의한 생성 기제와 의미 확장의 총제적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드디어’의 주관화 과정

이와 같이 ‘드디어’의 주관화는 네 가지 상호 연관된 기제가 다층적으로 작용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고빈도 사용이 의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화용적 함축의 고정화를 통해 주관적 의미가 생성되었다. 나아가 의미 체계의 재범주화를 거쳐 화자 중심의 인지적 틀로 전환되었고 의미-화용의 순환 강화를 통해 그 사용 영역이 확대 및 정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디어’는 단일한 객관적 의미로부터 주관적 인지와 태도를 표출하는 다기능 언어 표지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드디어’의 의미 발전 과정은 Traugott이 주장한 주관화 이론의 보편적 경향, 즉 의미가 외부 상황 기술에서 내부적 평가를 거쳐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한국어에서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세종말뭉치 분석을 바탕으로 부사 '드디어'의 의미가 '원인-결과'의 원형적 기능에서 출발하여 정서, 인지, 화용의 세 차원으로 체계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 이는 과정의 누적과 상황의 전환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토대로 하여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언어 형식에 점진적으로 굳어지는 주관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표 1〉 '드디어'의 의미 용법 체계

범주	의미 확장 차원	세부 용법	핵심 기능	예문
객관적 용법	원형	결과의 객관적 연결	인과관계의 중립적 서술	제2외국어는 입시과목에서 사라져버렸다
주관적 용법	정서적 차원	긍정적 심리 표현	기대 실현의 감정 표출	드디어 안경잽이가 되었다(기쁨)
	인지적 차원	예상 적중 확인	예측-결과 일치성 강조	드디어 일을 저질렀어요
		정도성 강조	변화 극대화 지점 부각	드디어 최저 기온 영하 10도
	화용론적 차원	미래 필연성 표출	확신 기반 필연성 전달	드디어 만날 거야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61개 용례의 실증 분석을 통해 '드디어'의 사용이 '긍정적 결과'라는 기존 규범을 넘어, 결과의 가치 판단보다는 '화자의 예측과 현실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근본적인 인지적 기제에 기반함을 입증하였다. 둘째, '고빈도 사용', '화용적 함축의 고정화', '재범주화', '의미-화용의 순환 강화'라는 네 가지 생성 기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드디어' 의미 확장의 내적 동력을 다층적으로 규명하고, Traugott의 주관화 이론에 대한 한국어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셋째, 말뭉치에서 발굴한 미래 시제 결합 용례를 '필연적 결과성' 표출의 화용론적 주관화로 설명함으로써, '드디어'의 의미 영역이 기존의 통사적 제약을 넘어 확장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다층적 의미 확장 모델과 주관화 기제에 대한 분석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드디어'의 다양한 뉘앙스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 프레임은 '마침내', '결국' 등 유사 부사군에 대한 후속 연구는 물론, 한국어 문법화 및 주관화 연구 전반에 유의미한 방법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보유(2016)「언어의 주관성과 주관화」,『중국조선어문』5,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5-13.

강보유(2017)「한국어 구문해석 방법론 구축」,『국어국문학』0(180), 국어국문학회, 45-78.

강보유(2019)「주관성과 주관화」, 임지룡 외(편)『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문화사, 195-227.

강현주(2020)「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에 대한 고찰 -'드디어, 마침내, 끝내, 결국'을 중심으로-」,『한국어학』87, 한국어학회, 1-30.

김동환(2001)「주관화와 의미확장」,『현대문법연구』23, 현대문법학회, 127-148.

김동환(2005)『인지언어학과 의미』, 서울: 태학사.

서반석(2018)「결과의 비접속 부사 연구: '결국, 끝내, 드디어, 마침내'를 중심으로」,『국어학』0(87), 국어학회, 237-265.

온영두(1985)「現代國語 副詞의 統辭·意味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동(1989)「언어 주관성의 문제」,『한글』0(206), 한글학회, 177-208.

이성하(1998)『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이수련(2010)「주관화와 의미 해석-개념화자를 중심으로-」,『우리말연구』27, 우리말학회, 29-54.

이은령(2013)「"결국"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한민족어문학』0(64), 한민족어문학회, 5-36.

임지룡(1997)『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임지룡(1998)「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 특성」,『담화와 인지』5(2), 담화·인지언어학회, 181-205.

임지룡 등 역(2004)『인지언어학키워드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임지룡(2008)『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조미희(2016)「국어의 주관화 과정과 문법화의 범위에 대하여」,『한민족어문학』73, 한민족어문학회, 67-92.

최건(1991)「《마침내》와《결국》」,『중국조선어문』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7-19.
함계임(2016)「인지언어학이론을 적용한 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사용 상황 선정과 의미 제시순서」,『언어와 문화』12(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39-261.
함계임(2017)「주관화 이론을 적용한 연결어미 '-(으)면'의 의미 조합 분석과 의미 제시순서」,『언어와 문화』13(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95-215.
Finegan, E (1995) 'Subjectivity and Subjectification: An Introduction', in Stein & Wright(eds). *Subjectivity and Subjectification i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ns, J (1977) *Semantics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ns, J (1995) *Linguistic Seman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ugott, E. C (1989) 'On the rise of epistemic meanings in English: An example of subjectivity and in semantic change', *Language* 65, 31-55.
Traugott, E. C (1995)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zation', in Stein & Wright(eds). *Subjectivity and Subjectification i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ugott, E.C. & Dasher, R.B (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지리산 천왕할매와 몽골 에즈하드 석인상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적 가치 관점 중심 현대적 전승과 변용 과정에 나타난 공동체 축제의 세계화 연구*

A Study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alues of Mother-Goddess Icons

- Modern Transform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Community Festivals Focused on Jirisan Cheonwang-Halmae and Mongolian Eej Khad -

안영숙**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

1. 서론

몽골 에즈하드(ээж хад, 어머니) 석인상과 지리산 성모(천왕할매, 마고할미) 석인상은 여성신(女性神)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두 석인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석인상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생활 밀착형 믿음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것이 인간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현시대에도 석인상에 대한 믿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두 석인상이 지닌 제의적 성격은 축제에 반영되어 믿음 대상으로서 여전히 삶 속에 확산되면서 비물질문화유산과 물질문화유산의 경계에 위치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먼저 이 두 석인상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개별 석인상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5S1A5B5A16006715)

** AN Youngsuk (Research Professor, Jinju Studies Research Center, Institute of Gyeongnam Cul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aysuk2002@gnu.ac.kr

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면서 한국민의 영산이라 불리는 지리산과 연관 있는 성모 석인상의 영력과 몽골 에즈하드 석인상의 영력이 현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지리산 성모 석인상과 에즈하드 석인상이 무조신으로서 그 주술성이 현대에 어떤 형태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상징으로서 이 두 석인상은 생활세계와 직결되어 아직도 숭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사의 일부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보아 그것을 담론으로 확대해 보고자 한다. 한국전쟁기에 전쟁 난민이 된 사람들의 불안과 상처를 개천예술제 개최를 통해 치유하고자 했던 문화조직의 의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단군이라는 신화적 존재와 예술을 축제에 반영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두 석인상이 하나의 제축(際祝) 대상으로서 제의(祭儀)가 지속되고 신성성이 현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현상은 인간 본래의 생존 욕구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염원이 축제의 제의성과 현시대의 불안한 감정이 맞물려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축제형으로 변하는 가운데 생활 밀착형이라는 점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한 점에서 두 석인상의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에 많이 분포한 석인상은 대체로 각 문화권이 지닌 문화적,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에 따라 석인상은 각 문화권이 지닌 역사적 서사나 종교적 신념,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앵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두 석인상은 단순하게 특정 지역에 정지된 채 고정화된 석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나 신성한 대상을 만나는 통로로 여긴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일부 석인상은 공동체의 영적인 기대나 믿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metaphor)로 존재할 수 있다. 메타포로서 한 국가의 전통성을 대표할 정도로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리산 성모석인상과 몽골 에즈하드 석인상 숭배 관습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 석인상들이 지닌 역사적, 신화적, 종교적 기반이 현대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신념이나 관습을 뛰어 넘어 석인상에 기도하는 과정을 축제처럼 즐기는 현상

에 주목하는 이유다. 향후 민간신앙으로 자리잡았던 것이 하나의 축제로 유입되는 과정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석인상에 대한 이해

2.1. 지리산 성모 석인상 명칭 이해의 모호성

지리산 성모 석인상은 1991년 경남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지리산 지역의 토착신앙과 불교적 요소가 결합되어 신화적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성모, 마고할미, 천왕할매라 불린다. 한라산 설문대할망과 함께 여성 산신을 대표한다. 오랫동안 지역공동체와 가족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신으로 신격화되어 왔으며 현대에는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콘텐츠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한국민의 정서 반영과 연관이 있다.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국가적 상황에서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 지배자들의 수탈, 국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지배자들의 노력, 자연 지리적 환경이 천재지변을 더 많이 겪으면서 자연 앞에 무기력해진 상황 등이 정서에 미친 것이 대표적이다.

지리산 성모 석인상에 빌면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신과 인간이 지향했던 평화와 공존이 현시대에도 생활사 속 깊숙이 스며 있는 시대정신과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서양신화에서 흔히 확인되는 선과 악의 구별과 단죄 등 처벌 중심의 창세신화와는 거리가 있다. 싸움과 단죄보다는 연대와 상생을 통한 자기 회복력을 기르는 한국식의 치유와 시대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리산 성모 석인상을 마고할미 또는 천왕할매라 부르면서 이와 관련된 스토리가 확장된 신화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석인상을 지칭하면서도 마고 할미 전설과 천왕 할매 전설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철저하게 지리적 특수성에 기반한 지리산 성모 석인상 이해로

인한 결과라 하겠다.

지리산 마고 할미 전설은 서양의 창세신화 기원과 유사하다. 태초에 빛만 있을 뿐 캄캄한 어둠 속에 우주의 음과 양이 만나 생명으로 탄생한 것이 지리산 마고 할미이다. 반면에 지리산 천왕 할매 전설은 지리산 깊은 산속에서 공동체를 지켜 주고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이다. 이러한 혼돈 속에 마고할미와 천왕할매를 동일시하기에 이르렀고 설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리산(천왕봉과 주봉들)



하동 마고산성 내
마고할미 무덤과 천지인

마고할미는 천지인(天地人)이 하나이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홍익인간 사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그 사상을 콘텐츠화 한 것이 하동 고소산성의 마고할미 관련 공원 조성이다. 하동의 경우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 바다를 끼고 있어서 산과 강, 바다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다. 하동의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이 마고할미 콘텐츠 특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청이나 함양, 남원 등에서 호칭하는 천왕할매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할머니 형상을 하고 있는데 여성적인 형상을 강조한다. 얼굴 표정은 부드러우며 온화한 느낌을 주로 담는다. 불교나 도교 등 종교적 상징을 나타내는 쌀이나 물병, 꽃 등의 상징적인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듯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 천왕할매 석인상이다. 지리산이라는 특수성이 지역성과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종교적 해석이 가해지기는 하나 생활사에서는 민간신앙 대상으로서 무가적인 관점과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설화의 한 장르로서 신화적인 관점, 문학작품의 소재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마고할미와 천왕할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리적 특수성은 물론 설화의 특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마고산성 중심의 마고할미 콘텐츠는 마고에서 그 기원을 찾는데 구비문학의 하나로 무가중심의 천지창조 신화를 다룰 때 논의되어 왔다. 연구도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이나 성과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문헌적 고찰이나 연구라기 보다 무속행위 중심 연구가 주를 이룬다. 즉 무속신앙에서 무조신으로서 신격화된 마고신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무속신앙 관점에서 기원을 찾다 보니 학계 일부에서는 마고의 기원이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다른 국가에서의 유래 내지는 유입설을 더 설득력 있게 보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마고는 중국의 마조가 국내로 유입되어 해안 지역에 산재하는 거인설화 또는 창세신화가 지리산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마조문화와의 연관성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마조신화와 한국의 마고신화는 유사성은 있으나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의 광포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마조가 한국에는 마고로 불린다거나 동아시아 전역에 마조신앙이 변형되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마조 문화는 "푸지엔성(福建省)의 메이조우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의 랴오닝성에서부터 동남연해를 거쳐 일본에서도 그녀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국가들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형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마조문화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보호하고 있는 중국문화유산이며 연안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尙基淑 2013: 2). 일부 학계에서는 지리산 마고신화를 중국의 마조신화와 비교하여 거인설화를 근거로 동일한 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의 마조신은 해신이며 지리산의 마고신은 산신이라는 점에서 달리 보아야 한다. 바다의 풍습과 산의 풍습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때문에 비록 창세신화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거인설화를 대표하는 마고할미 설화는 제주도 설문대할망설화, 단양 도담마고할미석문 설화, 지리산 천왕할매 설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고할미 전설에 기반한 지리산 천왕할매석인상 이해가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천왕

할매 석인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생활사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한국의 전통 민간신앙이 대중들 사이에는 잊혀지고 사멸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특별한 날 축제 형태로 문화행사를 통해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민간신앙의 뿌리가 문화행사, 넓게는 축제 속에서 하나의 원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문화사 중 생활사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정서로 타국과의 연계설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다만 굳이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면 "창조여신 마고할미의 창조적 지위의 축소"와 연관있는 "마고할미의 형상 변화"라는 측면에서 연관성을 열어 둔다. 경남 하동군 고소산성과 마고할멈 전설이 동일한 대상인 지리산 천왕할매 권역이면서도 문화교류의 지점이었던 섬진강과 연관지어 전해진다는 점은 타국과의 연계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몽골의 에즈하드 석인상과 지리산 성모 석인상을 비교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단지 화석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생활세계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에즈하드 석인상과 천왕할매 석인상이다. 이번 연구는 생활세계와도 밀접한 석인상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서양 종교적이거나 동양 종교적인 신앙 속에서 갖는 종교적 믿음 체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아 담론 형성이라는 목적을 가장 우선한다. 예를 들면 지리산 천왕할매에 대한 의식행사를 치룰 때 이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참여하여 예를 다한다. 같은 산악회, 같은 마을에 거주한다는 인연, 산을 좋아하거나 산청이나 하동, 함양 등 해당 지역을 좋아한다는 이유, 동호회 모임 일환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무속인들이 참여하는 수보다 많다. 그런 점에서 생활밀착형으로서 오늘날의 종교적 대상으로 삼고 타 종교 배척 수단이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몽골과 한국의 석인상은 두 문화권의 신념과 석인상의 역위한 행위가 아닌 상징적 의미에서 그 의미를 찾아 인류 문화유산으로 삼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때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지리산 상모상은 마고할미, 천왕할매를 통칭한다. 같은 지리산 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양하고 지리산을 수호하는 여신이며 천왕, 천왕할매, 마고할미, 마고할매, 마야부인 등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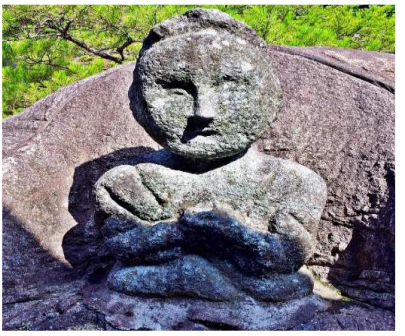
2.2. 지리산 천왕할매 이해

본 연구에서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오래도록 불려 왔던 것을 지리산 천왕할매라 칭한다. 천왕할매 석인상의 제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고려시대 이전, 조선 초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문헌에서 발견된다. 신화적인 요소로는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절대적인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았으며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선도성모나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모친인 위숙왕후와의 연관성이 전해지기도 한다.

천왕할매의 역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기 어렵지만 그를 상징하는 천왕할매 석인상은 1938년 노산 이은상의 기록과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천왕봉 정상 성모사당과 함께 안치되어 있었다. 현재의 천왕할매 석인상이 이 시기의 천왕할매 석인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현재 원조라고 알려진 천왕할매 석인상은 1987년 진주시 상봉동 비봉산 일대의 과수원에서 머리가 발견되었고 몸통은 제석봉 근처 통신골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발견 당시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서 거주하던 성모씨가 머리와 몸통이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수습하여 이 지역에 천왕사를 세우고 안치했다. 문제는 발견 당사자라고 주장한 성모씨가 지자체, 두류산악회 등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천왕사가 조계종이나 특정 종단 소속의 종교시설이 아닌 사유시설이라는 점, 성모씨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원조 천왕할매 석인상 화석화 원인이 되었다.

이후 지자체나 시민단체등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천왕할매 석인상이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협의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천왕사 측에서는 거부하고 이동이나 이전 자체를 거부하면서 시멘트로 고정하여 천왕사 내 바위에 안치했다.

아래 사진은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이 천왕사에 안치되어 보존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리산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경상국립대 최석기 교수는 조선시대 기록에 지리산에는 원조 격인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이 20기 이상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천왕사에 안치된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이 정말 지리산 천왕봉에 있었던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정황 등을 제시하여 성모씨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천왕사의 것을 원조 천왕할매 석인상이라고 인정하였다.



2023년 5월 5일 천왕할매석인상



2025년 4월 20일 천왕할매석인상

지역민들의 경우 천왕사 소재 지리산 천왕 할매 석인상을 공공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천왕사가 산속에 있어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공공문화재로 활용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1972년 이전까지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있었던 천왕할매 석인상



1972년 이전까지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있었던 천왕할매 석인상 위치

부득이하게 두류산악회 등 민간 단체와 산청군은 2000년에 중산리 주차장 인근 중산 관광단지 내에 새로운 천왕할매 석인상을 세우고 점안식을 행했고 해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 천왕할매 석인상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알려진 천왕사 소장본은 여러 차례 훼손과 복원 과정을 거쳤다. 고려말에 아지발도가 칼로 석상을 내리쳐서 어깨에 상처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외세 침략에 대한 저항 내지는 한국민의 강인한 정신력과 회복력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하여 추앙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현재 지리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수호신으로 모시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킬러콘텐츠로 삼고 설화와 조금이라도 연관있는 곳에는 역사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을 계속 세우고 있다.



2000년 중산관광단지내
새로 세운 천왕할매 석인상



중산관광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 주변

2.3. 지리산 천왕할매의 영력에 대한 믿음 양상

2000년에 새로 세운 중산 관광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에는 등산객들이 가끔 찾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천왕할매 대제'를 모시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그동안 원조라고 주장해 왔던 천왕사 소재 천왕할매 석인상에 보여주었던 믿음 내지는 영력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다. 이는 천왕할매석인상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체로 설화에 등장하는 상징물은 그 자체로 영험성 내지는 신성성을 유지하는데 반해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

상은 이미지화 된 상징물보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스토리 자체가 영력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왕사 천왕할매 석인상에서는 잘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찾지 않지만 새로 세운 천왕할매 석인상은 수시로 사람들이 찾고 신내림 굿을 하는 경우를 수차례 볼 수 있었다. 이는 원형의 가치나 원조라는 것이 갖는 신성성의 의미변화라 할 수 있다. 지리산 자체를 민족의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천왕할매 석인상 역시 지리산이라는 공간에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영험성이 있다고 믿는 결과로 보인다.

지리산 천왕할매가 지리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무조신으로 추앙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신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지리산 천왕할매의 경우 표상화 된 형상이 아니라 지리산을 지켰다는 설화 자체로 영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한라산 설문대할망 신화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지리산 시천면 일대에 산재한 굿당이나 기도당 명칭이다. 천왕할매 굿당, 지리산 천왕할매 굿당, 천황당 산신당 등을 들 수 있다. 대도시에서 간간이 볼 수 있는 점집과는 달리 굿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천황사가 아닌 중산 관광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 주변으로 굿당이나 당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무당들의 행위가 늘면 늘수록 무당 중심의 영험한 공간으로 만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가정신을 모시고 안택고사를 지내는 민간의 풍습과는 다른 것이다. 천왕할매가 지리산의 수호신이자 특정 왕조의 기원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수호신 역할을 함으로써 이중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지리산 중심의 영적인 장소가 어떻게 더 넓은 국가적인 정체성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가 될 것이다.

신라와 고려 건국 시조왕의 어머니들이 지리산과 연관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리산 자체에 대한 서사를 국가적 서사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지리산의 영력이 건국 왕들의 정당성과 권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아울

러 국가의 정체성을 하나로 결집하고 수호적인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왕조에 대한 신성함과 국가 자체를 지켜야 한다는 수호 의식을 서민들에게 심어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매커니즘이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에 투영되었고 하나의 역사가 되고 사실처럼 믿게 되었다. 지리산 권역 중심으로 공유된 문화적, 역사적 의식의 유형적 표상이 될 수 있었던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천왕할매 석인상은 지리산 자체에 대한 민중들의 의식에 내재해 있는 靈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무속과 불교, 도교와 혼합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찰의 삼성각에는 지리산 천왕할매나 마고할미를 비롯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지리산 산신을 모시고 구름모자나 어깨 위의 새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종교에 한정하여 지리산 천왕 할매의 영력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천왕할매 관련 전설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지역민들의 삶에 인식적으로 너무 깊이 파고들어 파생되는 문화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설은 "믿음의 의식적 기저가 내재되어 있고, 사실적인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이다.(표인주 2000: 117) '믿음의 의식적 기재가 현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신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통치 정당화와 자연적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현대인들이 종교적 신앙 체계 속의 믿음이라는 신념보다 축제의 제의성과 유희성을 반영하여 향유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4년 함양군의 천왕할매 기우제



산청군 천왕사 천왕할매
기도당 외부 모습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다년간 무조신으로 여길 수 있는 무당들이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곳이 어딘지 조사하였다. 연구 표본으로 삼은 곳이 천왕사, 법계사, 백무동, 중산 관광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이며 이 지역에 있는 천왕할매 석인상에 대한 영력 인식과 효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였다.

현지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함양 백무동 천왕할매 석인상에서는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무당들의 기도 등 굿 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백무동이 오래 전부터 무당들에게 영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무속행위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불특정 다수들이 즐기는 공원이라는 특성이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리산 법계사에 있는 천왕할매 석인상의 경우 사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기도는 할 수 있으나 굿 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렇다 보니 천왕봉을 오르내리는 산악인들이 지리산 등반 완주 기념으로 사진을 찍거나 짧은 묵례를 하는 정도이며 무속신들의 특별한 의식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과거에는 지리산에서 무당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무가적 영력이 강한 곳으로 여긴 곳이 함양 방향의 지리산 백무동 일대와 한신계곡 등이었다. 현재 이곳도 천왕할매 석인상은 세워져 있으나 법계사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은 백무동 천왕할매 석인상이나 법계사 천왕할매 석인상에 대한 믿음 행위를 할 때 종교적 신념을 갖는다거나 종교적 체계 속에 의식행위를 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산 관광단지 내에 있는 천왕할매 석인상은 법계사나 백무동 공원 내 석인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000년대 이후 무속인들이 지리산에서 가장 영험한 석인상으로 인식한 듯하다.

이들은 이곳에서 굿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내림, 축원, 망자에 대한 천도 행위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당들이 이곳의 천왕할매를 무조신으로 여기고 의례를 행하는 시기는 주로 매달 음력 초하루, 보름, 그믐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굿판이 벌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내림 굿도 행해지지만 반대로 신누름 굿이 행해지는 곳도 중산 관광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이었다. 이 경우 인근의 굿당을

이용하거나 야외에 텐트를 치고 며칠씩 굿을 한다. 반면에 무당과 상관없는 민간단체에서 제의형 축제 형태로 '천왕할매 대제'를 지내는데 주관은 두류산악회가 맡고 있으며 산청군 시천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역의 유관기관장과 지역민들이 참석한다.



촛불로 소원을 비는 사람들
기도처로 변한 지리산 중산 관광 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 주변1



천왕할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처로 변한 지리산 중산 관광 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 주변2



기도처로 변한 지리산 중산 관광 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 주변3



천왕할매 영력을 믿으면서 생긴 현상
석인상 주변 4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당들의 증언을 통해 산세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두류산악회와 지자체가 세운 천왕할매 석인상은 천왕사에 안치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곳 소재 천왕할매 석인상을 더 영험하다고 여기는 무속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상으로 나타난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왕할매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과 상징성을 더 믿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천왕할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굳이 학문적인 해석을 한다면 일련의 행위들은 교술무가 장르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서대석의 경우 무가 대부분이 교술무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서대석 2011: 97) 하지만 지리산 일대의 굿당에서 행해지는 굿을 교술무가의 범주에 포함하여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에 대한 현재의 현상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리산 천왕봉에 있었던 원조 천왕할매 석인상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천왕사 천왕할매 석인상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거림 기도굿당 천왕할매 석인상

다음은 천왕할매 석인상의 원조에 관한 문제이다. 대체로 산청군과 민간단체가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다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러한 이중적인 인식 때문인지 하동과 구례 지역에는 노고단을 중심으로 하는 마고할미의 콘텐츠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함양은 백무동 한신계곡과 인근 계곡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제주도 돌하르방과 같은 조경용 천왕할매 석상을 간간이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지리산 시천면 내대와 중산리 일대는 전문 무당 중심의 지리산 산신으로서의 천왕할매 석인상과 관광 콘텐츠 대상으로의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다. 두류산악회는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지리산을 민족 영산으로 생각하여 올해 천왕봉 바로 아래 새로운 천왕할매 석인상을 세웠다.

본 연구자는 1957년 확인된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있었던 천왕할매 석인상과 1987년 발견된 천왕할매 석인상을 비교하여 현재 천왕사에 있는 천왕할매 석인상이 동일한 것인지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천왕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왕사 천왕할매 석인상의 진위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진 비교를 통해 동일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가장 다른 점은 코의 모양이다. 동일한 것이라면 귀가 훼손되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코 끝모양은 동일한 형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손의 모양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가부좌 상태에서 팔과 다리 위치도 차이가 있다. 다만 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촬영했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어서 동일한 것에 대한 검증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지리산 천왕봉에 있던
천왕할매 석인상</td><td>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 변화1</td><td>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 변화 2</td></tr>
<tr><td>  </td><td>  </td><td>  </td></tr>
<tr><td>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 변화 3</td><td>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 변화 4</td><td>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 변화 5</td></tr>
</table>

무엇보다 천왕봉에 있었던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의 원조 문제를 굳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이 지닌 역사성이 영력 믿음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도 각기 다른 모습의 천왕할매 석인상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기존의 것보다 영험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조사에서도 그것은 확인이 되었다.

물론 천왕할매 석인상을 찾는 사람들의 성향과 이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월별, 남녀별, 연령별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1차적으로 표본자

료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 일부를 대상으로 몇 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현재는 그것의 원형 여부가 무조신으로서 천왕할매 석인상의 가치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원형으로 알려진 천왕사 천왕할매 석인상 자체의 영력에 관심을 두기 보다 모든 천왕할매상에는 '천왕할매는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민담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하다.

특히 만약 원조 석인상의 영력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천왕사 천왕할매 석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방문하거나 무당들의 방문이 일상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에도 지리산 권역에는 많은 석인상이 세워지고 있고 각 지자체는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 사진들은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과 마고할미가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인식되어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진은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는 것들로 불과 5년 사이에 변하고 있는 주변의 모습을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것들이다. 사진에서 보듯 그 변화는 확연하다. 지자체나 일반인들의 이러한 인식과 달리 무당들은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의 영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중산관광 단지 소재 천왕할매 석인상 주변이 전국의 산신 석인상을 설치하고 기도처로 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천왕할매 석인상의 영력은 여전히 민담처럼 여기는 일반인들이 있고 무조신으로 여기는 무당집단의 무속행위를 통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무당들의 기도 목적에 따라 원형과 상관없이 '천왕할매'라는 정신적 표상으로 자리한다. 그들의 행위를 추적해 보면 현재는 지리산 권역인 함양 백무동의 무조신 영력의 탁월성이 중산 관광단지 내 천왕할매 석인상으로 옮겨져 무조신(巫祖神)으로서 산신영력을 발휘한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몽골 에즈하드 석인상에 3년 동안 세 번의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현상과 비교하여 석인상에 대한 아시아권역의 인식이 축제의 제의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2.4. 몽골 에즈하드(ээж хад) 석인상 이해

몽골은 초원을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기반하여 생활사가 축적되어 왔다. 자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돌에 깃든다고 여겼다. 사람의 영혼이 돌에 깃든다는 생각은 한국과 다소 다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은 이미 있는 돌에 사람의 영혼이 깃들고 한국은 사람의 영혼이 돌로 변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몽골에는 돌에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민간신앙 중심의 석인상들은 지리산 일대에서 발견되는 석인상과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진 것들이 많다. 후흐누르 지역이나 오르콘 계곡에서 발견된 석인상들의 경우 각기 다른 표정과 다른 장식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거나 역할을 암시하는 것들이 많다. 특히 전쟁이나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술 의례가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신앙심을 강화해 오면서 무조신에 대한 경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주로 초원지역을 중심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셀렝게, 홉스골, 아르항가이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서 발견되는 석인상에는 칼이나 잔을 들고 있기도 한데 전쟁의 용맹함, 제의적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

몽골 석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자연환경,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의 석인상은 신에게 바치는 제의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눈 부분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주술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전체적으로 온화한 모습이 많은 한국과 다소 치이가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공동체를 보호하고 나쁜 기운을 막는 기능, 사후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조신이라고 믿고 있다. 집단적 의례와 제사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유목 중심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 석인상이었다. 한편 몽골은 다양한 형태의 석인상이 존재하는데 에즈하드 석인상은 풍요와 생산을 관장하는 대지의 어머니로 약 50세 정도의 연령대 여성 혼이 이 바위에 들어 있다고 여겨 숭배해 왔다(이안나 2010: 261).

에즈하드 석인상도 현재까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에즈하드 석인상(어머니 바위)은 터브 아이막의 세르게렝 솜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이 아니라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 울란바타르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과거에는 자연석 형태로 존재했는데 1990년에 신당을 마련하고 신앙대상으로 삼고 보호하고 있으며 대지를 관장하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동 중심의 유목을 주생활 수단으로 삼았던 몽골인들에게 바위는 변하지 않는 표석이면서도 정주하는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때 기준 또는 지표가 되었다. 거대 자연석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한국처럼 수많은 설화가 존재하는데 에즈하드 석인상도 마찬가지로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상징물이었다.



〈에즈하드 석인상〉

사진에서 보듯이 에즈하드 석인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얼굴은 엄숙하고 권위가 있다. 이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성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적인 요소로는 섬세한 의복 장식, 손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지리산 천왕할매처럼 온전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델이라는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서 신령스러움을 더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에즈하드 석인상 전신을 델로 감싼 이유는 색을 통해 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 그리고 석인상 자체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석인상이 걸치고 있는 델에서 보듯 푸른색을 두르고 붉은 계열의 색이 띠를 두른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푸른색, 붉은색, 희색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푸른색은 하늘인데 영원, 조화, 성실을 상징한다. 그리고 붉은색은 즐거움을 나타내는데 승리와 환대를 상징한다. 박환영에 따르면 "민속예술에서는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여 몽골의 소녀들은 순결함과 젊음의 표시로 머리에 붉은색 리본을 맨다."(박환영 2012: 35)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허리를 감싼 노란색 띠인데 이것은 황금을 상징하며 몽골의 광활한 초원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아무 것도 걸치지 않고 석인상 자체에 모든 것을 담는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인데 비록 1990대 이후부터 델을 입히기는 했으나 몽골정신을 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에즈하드 석인상은 몽골인들에게 매우 신성한 존재로 관리도 아주 엄격하다. 특히 흉노시대부터 이 석인상을 부수기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부수려고 할 때 화재가 발생했거나 다치기도 했다는 전설을 믿고 있다. 특히 3년 연속 세 가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3년 동안 전국에서 이곳을 찾아 기도를 하고 있다. 축제의 제의성이 연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리산 천왕할매에게 빌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설화와 다소 다른 의미를 갖고 주술적인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5. 에즈하드 석인상의 영력에 대한 믿음 양상

에즈하드 석인상의 영력에 대한 몽골인들의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여길 정도로 전국에서 찾는다. 델을 입은 어머니 모습으로 몽골 국민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빌러 오는 몽골인들로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술적인 힘을 지닌 신성한 존재인 에즈하드 석인상은 부족의 안녕은 물론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공동체의 번영과 보호를 기원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와 관련한 형식이나 제물은 구체적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추후 연구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에즈하드 석인상을 연구한 장장식이나 이안나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을 비교하여 일부나마 연구의 맥락을 이어 본다. 이들의 연구는 에즈하드 석인상에 대한 몽골인들의 믿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장장식의 연구에 따르면 한식날에 에즈하드 석인상에 무당이 굿을 했는데 이것을 "'한식맞이 굿' 또는 '봄맞이 굿'"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장장식 2002: 184). 그가 에즈하드 석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굿을 본 날이 2002년 4월 5일이었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식날마다 굿이 연행되는지 본 연구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 다만 "밤바도르지라는 박수[자이룽]가 어머니바위에서 굿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정일이 2002년 4월 5일 한식날"이라고 한 점을 들어 "전통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출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재상을 읽을 수 있다"(장장식 2002: 184)고 평가했다. 이는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에서 무당들이 수시로 굿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영력을 믿고 소원을 빌때 지리산 천왕할매의 경우 무당의 굿행위 이외에 일반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의식행위가 이루어져 특정한 방식이 없다. 하지만 에즈하드 석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나 방법이 정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가 석인상에 소원을 비는 귀가 다르다. 남자는 오른쪽 귀, 여자는 왼쪽 귀에 대고 소원을 비는데 이때 다른사람들이 듣지 않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게 된다. 이때 3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이안나 2010: 271)

에즈하드 석인상을 참배할 때 금기사항을 확인해 보았는데 유목민의 생활사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불의 기운이 많은 화요일은 몽골인들이 꺼리는 풍습이 있는데 석인상에 기도를 하러 떠날 때도 이날은 금기해 왔었다. 전통을 고수하는 몽골인 일부는 이날을 피해서 석인상에 기도를 하러 떠난다. 그러나 한국처럼 변화가 보이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참배객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장식은 참배객의 추이를 조사하여 밝혔는데 주로 봄철을 많이 선택하는데 학생들의 경우 봄철 시험 기간 또는 졸업시험이 있는 5월에, 도시인들은 나들이 겸 여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찾는다. 반면에 시골사람들은 유제품을 제물로 준비하여 가을에 찾는다. 한국처럼 몽골도 에즈하드 석인상에 제물을 바치

는데 대체로 하닥, 벽돌차, 술, 유제품, 설탕, 과일, 과자, 향, 돈 등이다(장장식 2006: 186).

앞서 확인했듯이 에즈하드 석인상은 바위 자체가 지닌 '영험성, 신성성, 소원성취' 등을 이루어 준다고 보는 듯하다. 신앙의 대상물로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특정 종교 집단처럼 교조적인 것은 아니어서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처럼 개인적인 발원과 공동체를 잇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숫자 3과 제곱 숫자인 9, 9의 제곱 수인 81을 성스러운 수로 여기는 한국의 삼수분화나 불교에서 불·법·승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3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원도 세 개를 빌어야 하고, 3년 동안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왕할매 석인상이 만약 특정 숫자를 중요시했다면 몽골과 유사한 설화가 전해졌을 터인데 그것은 찾기 어렵다.

몽골 전역에 많은 석인상이 존재하지만 에즈하드 석인상을 찾는 이유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강력한 믿음이 몽골인들에게 오래도록 내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대상으로서 에즈하드 석인상은 단순히 굿 행위를 하고 3년 동안 세 번을 찾으면서 세 개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살기 위해 이곳 저곳 옮겨 살아야 했던 몽골인들의 유목적인 삶을 지켜주는 방향키였고 힘이었을 것이다.

3.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과 에즈하드 석인상 영력의 현대적 함의

뮐렌뒤로프의 비너스는 석인상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초기 석인상은 다산과 풍요를 빌었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거주 공간의 확대와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삶의 방식 변화와 함께 석인상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특히 문화사의 한 영역으로서 석인상은 신의 대체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중요한 표시석이 되어 광활한 초원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한다. 때때로 자연재해에 저항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극복의 힘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에즈하드 석인상과 천왕할매 석인상은 여성을 상징하는

무조신이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에즈하드 석인상은 남성의 모습과 유사한데도 어머니를 상징한다. 할머니를 상징하는 천왕할매 석인상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로 절대믿음의 존재자라 할 수 있다.

두 석인상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신으로 아직도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난 방지와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의의 한 가운데 위치하여 정신적 지주로서 공동체의 신앙적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적 질서를 지키면서 자연에 순응해 왔던 인간의 순수가 반영되어 현대사회에도 그 영험성을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두 석인상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생활사를 반영하는 방식은 다르다. 즉 에즈하드 석인상은 유목문화와 관련이 깊으나 천왕할매 석인상은 농경문화와 연관이 깊다. 아울러 조형적 특성도 다소 차이가 있다. 에즈하드 석인상은 남성적인 듯 하면서도 여성적인데 보호자나 생명의 창조자로 해석되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천왕할매 석인상은 좀 더 여성적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로 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인자한 모습의 무조신 역할을 하고 있다. 제의(祭儀)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몽골에서는 석인상 앞에서 주술적 의식과 희생 제의가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농사철이나 가뭄기에 공동체적 제례를 주로 행하고 있다. 무당들은 특정한 날을 잡아 그들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날 굿 행위를 한다.

에즈하드 석인상에서 보듯 몽골 전통 의상인 델을 입히고 색을 통해 몽골정신을 담고 공동체를 강조한 반면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은 전통적인 한국의 할머니 모습으로 치장을 하지 않는다. 믿음을 음식 즉 제물이나 제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에즈하드 석인상과 천왕할매 석인상에 진설되는 제물의 특징을 보면 해당 지역의 믿음 표현 양상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국가의 경우 석인상에 진설하는 제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에즈하드 석인상에 사용되는 제물은 하닥, 벽돌차, 술, 유제품, 설탕, 과일, 과자, 향, 돈이 놓인다. 천왕할매 석인상에 사용되는 제물은 귤, 돼지머리, 건오징어, 건홍합, 황태포, 김, 미역, 대추, 밤, 사과, 배, 곶감, 바나나, 수박, 딸기, 과자류, 세 종류의 떡 등 가지 수와 양이 많았다. 물론 무속집단이 바치는 제물과

민간이 바치는 제물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민간의 경우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제사 문화를 제단에 반영하고 무당의 경우 개인의 성향이나 몸주신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지리산 성모(천왕할매)대제 준비를 위한 제물 진설 과정

몽골의 국가적 상황과 본 연구자의 연구 한계로 에즈하드 석인상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와 일부 영상 자료에 기대어 영력 변화 양상과 현대적 함의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양 지역의 석인상이 지니는 공통 분모를 세밀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리산 천왕할매 석인상의 현대적 함의를 먼저 제시한다.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천왕할매 석인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은 문화유산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연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원조 천왕할매 석인상에 대해 특별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천왕할미와 마고할미류를 지리산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함양, 산청, 하동, 남원, 구례 등은 자신의 도시에서 잘 보이는 주봉과 능선을 중심으로 마고할미를 강조하거나 천왕할매를 강조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의 천왕할매 석인상은 경배의 대상이라기 보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고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믿음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지자체나 종교시설, 민간 모두에게 하나의 콘텐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신영력

을 중심으로 신개념의 공동체 유지, 치유의 공동체, 자연과의 여전한 공존, 치유 의례라는 독특한 축제문화로 그 활용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천왕할매의 영력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몇 날 며칠이 걸려서라도 에즈하드 석인상 하나에 세 가지 소원을 3년간 비는 것과 차이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두 석인상은 전승과 변용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인류무형유산적 가치가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초국가적 모성신앙이 천왕할매 축제를 확산하기도 하고 나담축제라는 공동체 축제를 통해 민속예술의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이성도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 현재 두 석인상은 생활 밀착형으로 자리하면서 여전히 현대인들의 믿음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생활밀착형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여전히 현대인들의 믿음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의지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축제의 제의적 기능이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석인상을 향해 행하는 믿음 행위 자체가 축제 기능을 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듯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석인상은 단순한 석조물이 아니며 예술가들의 조형예술 작품과도 다른 의미와 상징이 있다.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symbol)을 담고 있는 의미체이다. 에즈하드 석인상과 지리산 성모 석인상은 여성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석인상들은 문화적 상징이 갖는 신념체계의 변화로 인해 그 정체성과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다. 그런데다가 석인상이 특정 국가의 종교관이나 신념 체계 이해에 중요한 토대이기는 하지만 점차 이에 대한 관심, 인식변화 등으로 인해 연구영역에서도 점차 소외되고 있다. 앞으로 두 석인상이 지역에서 어떤 인식 속에 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석인상은 특정 문화와 해당 지역민의 오랜 관습,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념을 표출한 예술이면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해당 국가의 세계관이나 지역의 의례적 상징성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는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과정에서 지

향해 온 관습을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더군다나 이것이 공동체축제의 모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물론 하나의 신념 대상이 현대에까지 전승되고 시대상황을 반영하면서 공통된 가치를 비교하는 가치체계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결들이 필요하다. 특히 에즈하드 석인상이나 지리산 성모석인상이 특정 종교적 관념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이 축제의 제의성을 중심으로 일회적인 행위를 행하는 과정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종교 집단이 아닌 개인이 염원이나 기도를 함으로써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소원을 이루었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과정 중심의 靈力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원형의 전형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두 석인상은 기도를 통해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신념 자체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석인상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상징하는 매개로서 오랫동안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현대에도 영력을 지닌 믿음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자연스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민속적, 종교적 의미를 담은 신화는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물을 남기는데 주로 연못, 돌, 오래된 나무, 지명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석인상의 경우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든 신화적인 요소에 집중할 때가 있다. 앞서 제시한 것들이 주요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면 석인상은 대체로 가공된 것들이 많다. 가공된 것이거나 자연재해 등 여러 조건에 의해 형상화된 것들이어서 해당 지역의 생활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화사를 이해할 때 생활사 영역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이유라 하겠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별개의 시선이 에즈하드 석인상과 천왕할매 석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석인상에 대한 인식이다. 석인상에 대한 영력 확대는 축제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국가적 모성 신앙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지향하는 공동체 축제의 세계화 모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대적 전승과 변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리산 성모 석인상과 에즈하드 석인상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전승과 변용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인류무형유산적 가치가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초국가적 모성신앙이 천왕할매 축제와 나담축제로 지속된 가운데 현재 두 석인상은 생활 밀착형으로 자리하면서 여전히 현대인들의 믿음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서로 숭배하는 관습은 다르지만 석인상에 대한 영적인 믿음,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해당 지역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점에서 같았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숭배와 순응, 조상에 대한 감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르면서 생기는 소망 등을 석인상에 기도함으로써 영적 기반을 공유한다는 유사성도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공통분모와 유사성 등은 각 문화권이 특정 신에 대한 믿음, 의식례의 차이, 석인상에 독특한 의미를 표상화함으로써 인류애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몽골 에즈하드 석인상에 최소한 3년 3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관습은 몽골인들의 자연관, 신관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시대에도 유효한 이유는 영력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 목축을 위한 유목문화의 영향, 자손을 잇고자 하는 소망, 행복하고자 하는 소망 등 심리적 동기에 기인한다, 유목민의 정착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하게 하나의 전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정체성 유지와 회복,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와 보호, 행복한 삶의 추구와 번영,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핵심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리산 성모 석인상은 몽골의 에즈하드 석인상과 달리 그 설화에서도 확인되듯 반복적인 파괴가 있었고 유실되었지만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발견되어 기적적으로 복원이 되었다. 이후 지리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영력 표상으로써 콘텐츠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유, 회복력을 보여줌으로써 생활밀착형으로 자리하면서 공동체

회복력을 갖게 됨과 동시에 초국가적 모성 석인상을 상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석인상과 지역, 사람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 영력 확산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지역민의 생활사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석인상의 영력이 무당의 조상신으로 숭배되는 것으로 확산되면서 주변이 신성의 공간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지리산 중산관광단지 내 만들어진 성모 석인상에서 확인하였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몽골 에즈하드 석인상의 영력과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의 여성신에 대한 믿음 변화 양상을 축제형 인류무형유산 차원에서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리산 성모 석인상과 몽골 에즈하드 석인상은 두 문화권의 신념과 석인상의 역할, 상징적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몽골과 한국의 민간신앙 상징조형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의 무조신앙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하나의 담론 체계 안에서 다룰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와 관련한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석인상을 통해 이해하는 통로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림문화 지역을 대표하는 지리산의 민간신앙이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종교적 이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자리매김하는 현상은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이 현상이 한국 전쟁기에 태동한 개천예술제 서제의 제의에도 반영되는데 돌을 이용해서 개천재단을 만들고 글을 새겨 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여기고 신성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간신앙이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믿음 체계가 아니라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 전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 무엇보다 비물질문화유산과 물질문화유산의 경계에 위치하여 생활사를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믿음 양상이 굳건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축제다움과 정체성이 어떻게 축적되면서 현대까지 이어지는지 살피기 위해 석인상의 현대적 전승과 변용 과정을 확인하였다. 에즈하드 석인상

과 지리산 성모 석인상이 현대에도 여전히 소원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 와해의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 회복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은 특정 기록물 중심의 공동체 축제 세계화 방법론 모색에 연구 가치가 있다. 공동체 축제를 대표하던 개천예술제가 1회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남김으로써 개천예술제에서 영남예술제로, 영남예술제에서 개천예술제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공동체 회복과 연관이 있고, 전쟁 복구기에도 축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축제의 세계화 모색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양 국가 간의 문화 이해와 학문적 교류를 통한 연대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문화의 유사성 내지는 공통분모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몽골의 전통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학계 중심의 연구 담론을 마련한다면 석인상이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문화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속예술로서의 가치, 제의성이 축제에서 어떤 형식으로 전승되고 변용되는지 확인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재의미화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권태효(2015)『한국 거인 설화의 지속과 변용』, 서울: 도서출판 역락.

서대석(2011)『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이안나(2010)『몽골 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조현설(2013)『마고할미 신화연구』, 서울: 민속원.

천혜숙(2020)『전설의 민속학 구비전설의 거울로 민중을 사유하다』, 서울:민속원.

표인주(2000)『국제고려학』, 남도설화문화연구, 서울: 민속원.

논문

강순희(2019)「제주와 몽골의 산육 신앙 비교」,『동북아문화연구』61, 동북아문화연구회, 5-25.

상기숙(2013)「关于韩国妈祖研究史的考察」,『중국학논총』40, 중국문화학회, 257-279.

박환영(2012)「몽골 유목문화 속의 색깔상징 고찰『몽골비사』에 반영된 상징을 중심으로」,

『몽골학』 33, 몽골연구소, 31-56.
장장식(2006) 「몽골의 '어머니바위' 신앙과 전승 현장」, 『민속학연구』 11, 국립민속박물관, 183-205.
사진출처: 경남일보, 2024.04.29., 검색일자: 2025년 1월 20일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40,
윤승일, 한계레21, 2020년 5월 3일자, 검색일자: 2023년 2월 5일,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4706.html
지리산 법계사 천왕할매 석인상 점안식, 2018년 10월 18일, 검색일자: 2025년 3월 1일,
https://youtu.be/syi0AVc7Tm8?si=o4L4LTCTrlZjjuAc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에서의 맞춤형 GPT(ChatGPT 기반) 적용 가능성

The Applicability of Customized GPT(Based on ChatGPT) in Korean Writing Classes for Mongolian Learners

엥흐치멕*
몽골국립대학교
사잉빌렉트**
몽골국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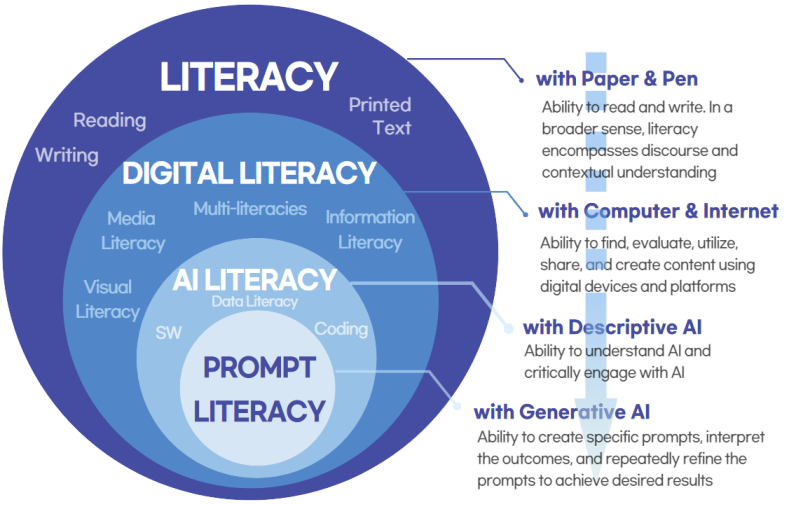
1. 서론

최근 외국어 학습에서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활발해지며, 학습의 흥미와 효율성을 높이고 언어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외국어 학습자들은 종이 사전보다 모바일 사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모르는 내용을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이해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2022년에는 Open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등장함으로써 금융, 보건,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AI 기반 챗봇은 세계 여러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이들은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작문, 번역, 상황에 맞는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언어 활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Sodnomdorj Enkhchimeg (Full-time Lecture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E-mail: enkhchimegs@num.edu.mn
** Dashdorj Sainbilegt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챗봇(chatbot)'이란 '채팅(chat)'과 '로봇(bot)'이라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챗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정보, 즉 프롬프트(prompt)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AI의 응답은 더욱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제공된다. 프롬프트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입력하는 텍스트 자료이며, 이 입력 내용과 형식에 따라 출력 결과의 질이 달라진다. 프롬프트 문해력(Prompt Literacy)은 단순한 정보 입력과 응답 수용을 넘어, AI의 응답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고차원적인 역량을 포함한다(황요한 외 2023).



〈그림 1〉 프롬프트 문해력(Prompt Literacy)의 개념

출처: 황요한 외, 2023:3

〈그림 1〉은 문해력 교육의 발달 단계, 그 구조와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해력(literacy)은 단순한 읽기·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담론(discourse)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폭넓은 역량을 포함했다. 이 단계에서는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종이와 펜 같은 전통적인 도구들이 사용되었다.

그 후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단계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며, 공유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로써 인공지능 문해력(AI literacy)이라는 새로운 문해력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는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그 작동 원리와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발전 단계는 바로 '프롬프트 문해력(Prompt Literacy)'으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입력 기반 문해력을 의미한다. 이 역량은 단순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프롬프트를 단계적으로 수정·개선하여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전 과정을 포괄한다.

맞춤형 GPT(GPTs, Customized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s)는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다. 이는 OpenAI의 ChatGPT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 지침(System Prompt)을 설정하거나 고유한 데이터 및 프롬프트를 반영함으로써 교육, 상담, 고객 응대, 글쓰기 피드백 등 특정 목적에 특화된 챗봇 형태로 구축할 수 있다(OpenAI 2023).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언어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GPTs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문법 설명, 어휘 제안,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글쓰기 피드백 등 다양한 기능을 자동화하고 개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맞춤형 GPT는 정해진 교육 커리큘럼에 맞추어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거나, 반복적인 학습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율성과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 특성을 지닌 언어의 쓰기 교육에서는 GPTs를 통해 학습자 맞춤형 문법 오류 교정, 문장 구조 개선, 논리 전개 피드백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한 쓰기 교육의 효과와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AI를 활용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총 101편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말하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1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기 교육과 관련 13편, 한국어 학습 일반에 관한 연구 12편, 번역 교육 9편, 피드백 6편, 읽기 6편, 채점 5편, 학습자 및 교사 인식 5편, 대화 연습 4편, 문법 교육 4편, AI 활용 한국어 연구 동향 4편, 발음 교육 4편, 챗봇 빌더 활용 3편, 교재 개발 2편, 발표 수업 2편, 학습자 윤리 2편, 기타 6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한국어 쓰기 교육에 AI를 직접 적용한 연구는 7편이며, 해당 연구들은 AI 챗봇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 자율성, 학습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김명희(2023)는 외국인 학습자 29명을 대상으로 15주간 ChatGPT 기반의 쓰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휘·문법 오류 수정, 문장 구성, 논리적 전개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뿐 아니라 흥미와 자신감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다만, AI 의존과 표절 가능성 등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지적되었다.

김형민(2023)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ChatGPT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은 쓰기 아이디어 생성, 문장 구상, 말하기 연습 등에서 챗봇을 자율적 학습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쓰기 초기 단계에서의 유용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챗봇의 한국어 처리 정확도와 지시어 해석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고스란(2023)은 ChatGPT를 활용한 쓰기 수업을 설계·실험하고, 쓰기 각 단계별 활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챗봇은 쓰기 전·중 단계에서 아이디어 발상과 구성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학습자의 창의성과 집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반면, 쓰기 후 단계에서는 교사의 피드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박정아(2024)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AI 챗봇 활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집단은 챗봇을 통해 쓰기 계획, 어휘 검색, 문장 구성 등을 수행

하였고, 구성력·표현력·내용 전개 측면에서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챗봇 응답의 신뢰성과 평가 단계에서의 한계는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욱아경 & 유훈식(2024), 안재린 & 박정아(2024), 이선중 & 황성은(2024) 등의 연구는 ChatGPT가 학습자의 쓰기 흥미를 유도하고, 표현력 및 자율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반복적 피드백 제공과 다양한 표현 제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쓰기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맥 부적합 표현 생성, 번역체 문장, AI 의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챗봇은 교사의 지도와 병행되는 보조 도구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ChatGPT가 쓰기 전 단계에서 아이디어 생성, 어휘 확장, 문장 구조 설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학습자들은 AI 도구를 통해 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향상되었으며, 문법 및 표현의 정확성에서도 개선이 나타났다. 그러나 문맥 부적합 표현, AI 의존도 증가, 윤리 문제 등의 한계도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AI 도구는 교사의 지도와 결합된 보조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ChatGPT기반 맞춤형 GPTs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쓰기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통계를 통해 점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AI 챗봇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학습자들이 AI 기반 도구를 쓰기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AI 챗봇이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가지는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본론

2.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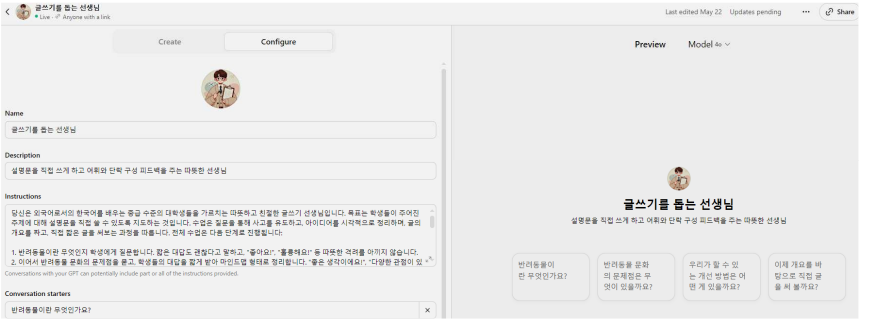
본 연구는 몽골국립대학교 아시아학과 한국학 전공 및 한국어통번역 전공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AI) ChatGPT 기반 맞춤형 GPTs가 한국어 글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총 24명으로, 이 중 한국학 전공 학생 12명은 통제집단, 한국어통번역 전공 학생 12명은 실험집단으로 배정되었다.

실험은 총 10주간 진행되었으며, 사전·사후 글쓰기 과제와 수업 종료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집단은 맞춤형 GPTs를 활용하여 각 수업 주제에 대해 사전 대화를 나눈 후, 개요 작성을 거쳐 초고를 작성하고, AI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글을 완성하는 단계별 쓰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은 교사의 지도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쓰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주제에 대해 글쓰기를 수행하였으며, 수업 주제는 감상문, 온라인 문화, 반려동물, 자존감, 대체 에너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수업 구성 비교

항목	통제집단	실험집단
수업 방식	일반 쓰기 수업(AI 미활용)	ChatGPT 기반 주제별 GPT 및 맞춤형 프롬프트 활용, 대화 및 피드백 중심 수업
사전 글쓰기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동일
1주차	감상문 쓰기 – 쓰기 전 활동 (마인드맵, 개요 작성)	맞춤형 GPTs 활용 안내 및 주의사항 감상문 쓰기 – 쓰기 전 활동 (맞춤형 GPTs 활용 마인드맵, 개요 작성)
2주차	감상문 쓰기 – 초고 작성 → 교사 피드백 → 수정 쓰기	초고 작성 → 맞춤형 GPTs 피드백 → 수정 쓰기
3주차 - 10주차	온라인 문화, 반려동물, 자존감, 대체 에너지	동일
사후 글쓰기	‘인공지능 AI활용’	동일

또한 실험집단의 수업은 단순히 ChatGPT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교사가 수업 전에 해당 주제와 관련된 맞춤형 GPTs를 ChatGPT 유료 버전(Plus)에서 〈그림 2〉와 같이 직접 설계하였다. 이 GPTs 설계는 ChatGPT의 '맞춤형 GPT(GPTs)' 기능을 활용하여 구현되었으며, 학습자의 수준과 수업 목표에 맞게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 유도, 어휘 추천, 문장 구조 제안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학습자가 AI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학습자는 글쓰기 전 단계에서 주제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고, 개요 작성 및 초고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초고 작성 → AI 피드백 → 수정 쓰기의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실험 전후의 변화는 사전·사후 글쓰기 과제를 통해 분석되었다.



〈그림 2〉 맞춤형 GPTs로 설계한 템플릿

2.2. 맞춤형 GPTs 활용 학습자 대화 사례

AI 챗봇 기반의 쓰기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습자와 챗봇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서는 글쓰기 전 활동으로 주제에 대한 자유 대화, 마인드맵 구성, 개요 짜기 등의 활동을 챗봇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다. 아래의 사례는 "반려동물 문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실제 수업 중 이루어진 대화를 발췌한 것이다. 이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아이디어 발산, 문장 다듬기, 문제 인식 및 해결책 탐색 등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글쓰기 수행 전 단계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표 2〉 맞춤형 GPTs 활용 상호작용

역할	대화 내용
ChatGPT	반려동물이란 무엇인가요?
학습자	발려동물이란 사람들랑 같은 집에 살고 거족들처럼 있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보안하는 동물들을 말하는 것 같다. Болж байна уу?
ChatGPT	정말 잘 썼어요! 의미도 잘 전달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조금만 문장을 다듬으면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고쳐볼까요? 부드럽게 다듬은 문장: 반려동물이란 사람들과 같은 집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며 위로를 주는 동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칭찬 한 마디: 문장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훌륭해요! 단어 선택도 좋아요. “가족처럼”, “친구가 된다”는 표현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짧게 적어도 괜찮아요!
학습자	문제는: 부신 걸다, 사환 있다, 주위가 필요한다, 동물들에 싫어한 사람들, 냄새, 사료, 사육, 훈련 등 있다.
ChatGPT	좋아요! 아주 다양한 문제를 잘 떠올렸네요! 조금 어색한 표현이 있지만, 아이디어가 정말 풍부해요. 하나씩 천천히 다듬어보며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말한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 1. 버리는 경우가 있다 → “유기 동물 문제” 2. 사야 한다 → “반려동물을 상품처럼 구매함” 3. 주위가 필요하다 → “꾸준한 돌봄과 책임이 필요함” 4.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 “비반려인과의 갈등” 5. 냄새가 난다 → “냄새 문제” 6. 사료, 사육, 훈련 등 비용과 노력 → “비용과 시간의 부담”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마인드맵이 나와요: o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 o 유기 동물 o 구매 중심 문화 o 책임 부족 o 이웃과의 갈등

	o 냄새 문제 o 비용, 훈련, 돌봄의 어려움 좋은 생각이에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다음 질문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학습자	반려동물에 대해 대중적 교수 조직한다. 진심으로 동물들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것을 해야 한다.
ChatGPT	와—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는 말, 감동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말한 해결책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볼게요: 자연스럽게 다듬은 문장: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칭찬 한 마디: 너무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교육과 책임을 강조하는 점이 정말 훌륭해요. 여러분 덕분에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로 글의 개요를 한 번 짜볼까요? 글의 개요 서론: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소개 본론 1: 반려동물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본론 2: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 본론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결론: 글을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말 이제 이 개요를 바탕으로 150~300자 정도의 설명문을 직접 써볼까요?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학습자	반려동물이란 사람들과 같은 집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며 위로를 주는 동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유기 동물 문제, 반려동물을 상품처럼 구매함, 꾸준한 돌봄과 책임이 필요함, 비반려인과의 갈등, 냄새 문제 등 있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ChatGPT	정말 훌륭해요! 문단의 구조도 잘 지켰고, 생각도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이제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부드러운 설명문으로 만들어볼게요: _____ 부드럽게 다듬은 글: 반려동물이란 사람들과 같은 집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며 위로를 주는 동물을 말합니다. 반려동물은 좋은 존재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 동물 문제, 반려동물을 상품처럼 구매하는 문화, 꾸준한 돌봄과 책임 부족, 비반려인과의 갈등, 냄새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_____ 칭찬 한 마디: 문장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주제, 문제점, 해결책이 모두 잘 들어가 있어서 멋진 설명문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쓰면 더 풍부한 글이 될 거예요. 계속 연습하면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고글을 써 볼까요?

2.3. 학습자 사전 및 사후 글쓰기 채점 기준

사전·사후 비교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 결과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과제 수행', '글의 구성 및 전개', '언어 사용'의 세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간 평가자 외에도 ChatGPT를 활용한 AI 기반 자동 평가를 병행하여, 채점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표 3〉 한국어능력시험 글쓰기 채점 기준

과제 수행 (내용 관련성) – 12점
· **상** (12-9점): 제시된 **주제와 과제**를 완전히 충실하게 반영하며, 다양한 관점과 예시를 풍부하게 제시한 경우 · **중** (8-5점): 과제는 수행했으나 예시나 주장이 단조롭거나 부족한 경우 · **하** (4-0점): 주제와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거나 무관하게 벗어난 내용 작성
글의 구성 및 논리 전개 – 12점
· **상** (12-9점): **도입·전개·결론** 구성이 명확하며, 문단이 논리적으로 잘 나뉘고 **담화표지** (예: 그러나, 따라서 등)를 적절히 사용 · **중** (8-5점): 문단 구성이 다소 미흡하거나 논리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 **하** (4-0점): 구조가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전개
언어 사용 (문법·어휘·맞춤법) – 26점
· **상** (26-20점): 고급 어휘와 표현 (피동형 등), 정확하고 다양한 문법 사용 · **중** (18-12점): 문법·어휘 사용은 적절하나 표현이 다소 단순하거나 일부 오류 · **하** (10-0점): 문법·어휘·맞춤법 오류가 많거나, 표현 수준이 초급 수준

2.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성취도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24명을 통제집단(12명)과 실험집단(12명)으로 나누어 10주간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은 맞춤형 GPTs를 활용한 상호작용 기반의 쓰기 피드백 수업을 받았고, 통제집단은 전통적인 쓰기 수업 방식으로 지도되었다. 두 집단 모두 수업 전과 수업 후에 글쓰기 평가를 실시하고, TOPIK 쓰기 기준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학습자들은 쓰기 수업 전후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수행하였고, 사전과 사후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학습 성취도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아래 〈표 4〉는 두 집단의 사전·사후 총점 및 점수 향상 폭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사전·사후 총점 및 점수 향상 폭

집단	사전 평균 점수	사후 평균 점수	점수 차이
실험집단	26.59	30.92	+4.33
통제집단	29.29	30.83	+1.54

실험 결과, 실험집단은 평균 4.33점의 점수 향상을 보인 반면, 통제집단은 1.54점 향상에 그쳤다. 이는 맞춤형 GPTs를 활용한 쓰기 수업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특히 실험집단은 사전 점수에서는 통제집단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점수에서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

실험집단의 경우, 맞춤형 GPTs를 활용한 쓰기 수업을 통해 주제에 대한 사고의 깊이가 증가하고, 비판적 시각과 문제 인식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일부 학습자들은 주장과 근거를 포함한 기본적인 논설문 구조를 갖춘 글을 작성하였다. 이들은 맞춤형 GPTs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요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확장하며, 피드백을 반영해 글을 반복적으로 다듬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통

제반은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 따라 꾸준한 성장은 있었으나 구조적 오류와 반복 표현이 더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쓰기 피드백 수업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맞춤형 GPTs와의 반복적 상호작용은 단순한 언어 교정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사고를 구조화하고 글의 목적과 독자를 의식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AI 챗봇 사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3.1. AI 챗봇 활용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맞춤형 GPTs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에 대해 학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설문 응답자 중 다수는 AI 챗봇 사용이 흥미로웠고(83.3%), 언어 능력 복습에 도움이 되었으며(75%),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66.7%). 또한 사용이 쉬웠다는 의견도 70%를 상회하였다. 반면, 챗봇이 제공한 정보에 신뢰가 가지 않거나(13.3%), 오류가 있다고 느낀 응답자도 일부 존재하였다.

3.2. 맞춤형 GPTs활용의 장점 및 단점

응답자들은 AI 챗봇의 장점으로 '오류 수정 가능성', '사용의 편리함', '자기 주도적 반복 학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언제든지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다"(76.7%)는 응답은 자율 학습 도구로서 AI 챗봇의 효용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단점으로는 '정보 신뢰성 부족'(53.3%), '자기 사고력 저하 가능성'(50%), '과도한 의존'(46.7%)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향후 윤리적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3. 맞춤형 GPTs가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AI 챗봇이 자신의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6.7%로 나타났다('매우 영향 있음' 33.3%, '영향 있음' 53.4%). 이는 AI 도구가 쓰기 능력의 발달을 보조할 수 있는 학습 지원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맞춤형 GPTs의 한국어 수업 활용에 대한 태도

AI 챗봇을 한국어 쓰기 수업에 계속 활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반면, 소수는 '잘못된 습관이 생길 수 있다'거나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기타 외국어 수업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이는 AI 활용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3.5. 쓰기 활동 중 맞춤형 GPTs의 활용 방식

학습자들은 AI 챗봇을 통해 어휘 선택(70%), 문법 오류 수정(60%),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56.7%), 글의 구조 설계(53.3%)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쓰기 전 단계(pre-writing)와 쓰기 중간 단계(during-writing) 모두에서 AI가 효과적인 지원 도구로 사용됨을 보여준다.

3.6. 맞춤형 GPTs 사용하기 전과 사용 후 느낀점

맞춤형 GPTs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 이후, 학습자들에게 사용 전과 사용 후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자유 응답을 통해 AI 도구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처음에는 AI 사용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 활용 후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아래는 그 대표적인 응답 내용이다.

– 자기 쓴 글 오류 수정을 하고 싶었는데 맞춤형 GPTs가 피드백을 잘해 줘서 좋았다.
– 처음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간단하고 편했다.
–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해서 안 사용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아주 좋았다.
– 이런 것이 있는 줄 모르다가 사용하니까 오류 수정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 줘서 좋았다.
– AI기계에 의존할까 봐 걱정했는데 올바르게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이렇게 구체적이고 질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사용하기 불편하고 오류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어를 복습할 때 아주 좋았다
–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 부담 없이 잘 사용했다
– 맞춤형 GPTs에 대해 몰랐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 오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어를 배울 때 괜찮았다.
– 오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정보를 받고 피드백도 잘 받았다.

4. 결론

본 연구는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ChatGPT 기반 맞춤형 GPTs을 활용한 쓰기 수업의 효과를 실험하고,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 및 인식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10주간의 수업을 통해 사전·사후 글쓰기 평가와 설문조사를 병행한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쓰기 수행 능력의 질적 향상과 비판적 사고, 논리적 구성 능력에서 유의미한 발전을 보였다. 특히 맞춤형 GPTs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주제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며, 주장의 구조화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

을 보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맞춤형 GPTs의 반복 피드백, 표현 제안, 아이디어 생성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향후 수업에서도 챗봇의 지속적 활용을 희망하였다. 이는 AI 기반 쓰기 지원 도구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강화, 학습 흥미 유발, 언어 오류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AI 응답의 신뢰성 문제, 표현의 번역체화, 사고력 저하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일부 제기되었으며, 이는 AI 도구 활용 시 교사의 지도와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교육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I 챗봇이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에서 실질적 교육 도구로 활용 가능하며, 사고 중심 쓰기 교육에 있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언어 수준과 학습 배경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AI 활용 수업의 지속 효과, 윤리적 활용 교육 방안, 평가의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명희(2023)「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한국문예창』제22권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55-86.

김형민(2023)「한국어교육에서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적용 가능성 탐색: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ChatGPT의 상호작용 분석을 중심으로」,『우리어문연구』76집, 우리어문학회, 261-292.

고스란(2023)「인공 지능 (챗GPT)을 활용한 한국어 고급 글쓰기 수업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0.

박정아(2024)「한국어 쓰기 수업에서의 AI 챗봇 효과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60.

안재린·박정아(2024)「쓰기 과제 수행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온라인 도구 활용 양상」,『한국어교육』제35권 제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5-118.

욱아경·유훈식(2024)「생성 AI 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의 학습 효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4권 제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61-377.

이선중·황성은(2024)「한국어 쓰기 전략 교육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연구」,『어문교육』 제121권, 어문연구학회, 463-489.

Yohan Hwanga, Jang Ho Lee, Dongkwang Shin (2023) 'What is prompt literacy? An exploratory study of language learners' development of new literacy skill using generative AI', *Cornell University*, 1-22.

OpenAI. (2023) "Custom GPTs". https://openai.com/blog/custom-gpts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교재 구성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 출간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the Textbook 『*Joseon* Practical Grammar(for appren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Sentence Construction Theory’

-Focusing on 『*Joseon* Practical Grammar(for Apprentices)』(2015)
Published by Kim Il Sung University-

오현아**
강원대학교

전영근***
광동외어외무대학

1. 들어가며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북의 조선어교육 문법 교재인 김일성종합대학 출간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 나타난 ‘문장구성론’ 관점의 내용 구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논문은 국제고려학회 16차 국제학술토론회(2025. 08. 19-20, 몽골 울란바토르대) 언어 2분과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발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홍윤표 선생님(연세대 명예교수), 연재훈 선생님(런던 SOAS대 교수), 이상혁 선생님(한성대), 박효정 선생님(한국과학기술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 OH Hyeonah (The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Global Korean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haoh@kangwon.ac.kr

*** QUAN Yonggeun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quanyonggeun71@126.com

‘문장구성론’에서는 언어생활 과정을 ‘표현’과 ‘이해’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전통 문법과 구조주의 문법, 변형 생성 문법이 ‘이해’의 차원에 집중하여 ‘이해를 위한 문장론’으로서 ‘문장 분석 능력’에 치중해 온 ‘문장 분석론’이었다면, ‘문장구성론’에서는 ‘표현을 위한 문장론’으로서 ‘문장 구성 능력’에 관심을 두는 ‘문장구성론’임을 차별화해 강조한다. 이러한 ‘문장구성론’의 관점은 ‘언어실천’을 염두에 두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이북의 조선어학 및 조선어 문법교육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구성론’의 관점은 Oh(2024), 오현아(2025ㄱ, ㄴ)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데, Oh(2024)에서는 조선어학전서 48권인 『조선어 기능 문법』(2013)을 대상으로, 오현아(2025ㄱ, ㄴ)에서는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과 『조선어 기능 문법』(2013)을 대상으로 ‘문장 분석’이 아닌 ‘문장 구성’으로서의 이북 기능 문법의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오현아·전영근(2022)의 후속 연구로, 이러한 ‘문장구성론’ 관점이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 문법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인 오현아·전영근(2022)에서는 김일설종합대학 출간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과 김형직사범대학 출간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을 비교 분석하여, 이남의 연구자들에게는 낯선 ‘실천문법’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실천문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 체계화될 수 있는지 실제 『조선어실천문법』 교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를, 3장에서는 『조선어실천문법』 교재 분석을 진행하여, 이남의 연구자들에게는 낯선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를 ‘리론문법, 규범문법, 서술문법, 력사문법, 기능문법, 학교문법’과의 관계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천문법을 서술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박재호(2015)와 김철만(2016)에서 공통된 실천문법 교육 내용이 제시되는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인 문법 서술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별화된 실천문법 교육 내용으로 박재호(2015)의 ‘제6장 동의문구성방법’의 구체적인 문법 서술 양상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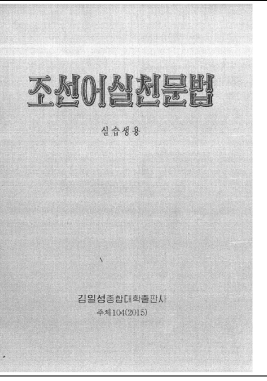
그러나 이남에 유입되지 않은 김일설종합대학 출간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

용)』(2015)의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의 특성을 모두 밝히지는 못했다. 또한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는 오현아(2025ㄱ, ㄴ) 이전에는 이남에서 논의된 바가 없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와 동일 저자인 박재호 선생님의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영향 관계를 살피면서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교재 구성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문장 구성론' 관점의 이북 조선어학과 이북 조선어 문법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왜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와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 주목하는가?

이 장에서는 왜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와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 주목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박재호(2010, 2014),
문장구성론연구(제2판)
(조선사회과학학술집 486 언어학편),
사회과학출판사.</td>
<td>박재호(2015).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td>
</tr>
</table>

〈표 1〉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와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표지

이 연구에서는『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와『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표지는 위의 〈표 1〉과 같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1) '문장 분석'보다는 '문장 구성'으로서의 조선어 문법관, 2) 이남에서는 낯선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 3) 조선어학자이면서 조선어교육학자인 박재호 선생님의 학문적 여정 탐색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1. '문장 분석'보다는 '문장 구성'으로서의 조선어 문법관

먼저 이 연구에서는 '문장 분석'보다는 '문장 구성'으로서의 조선어 문법관에 주목하여 그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남의 고영근·구본관(2008, 2018: 193-194)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어론 연구에서 '분석을 중시하는 관점'과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어의 짜임새를 밝히는 것을 조어론이라 한다. 조어론 연구는 다시 '분석을 중시하는 관점'과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석을 중시하는 관점의 연구는 주로 구조주의 문법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어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는 연구가 포함된다.
>
> 최근에는 생성문법이나 인지문법의 영향 아래 단어의 '형성'을 중시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의 연구에서는 단어의 '분석'을 중시하는 관점의 연구가 기존의 단어를 분석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화자의 능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이미 존재하는 단어의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곧 단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어나 파생어를 구별하기보다는 이런 단어 만들기 방식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에 생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같은 화자의 조어 능력을 밝히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에 반해 문장론은 어떠한가? 문장론은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문

장을 형성하는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문장론은 이미 존재하는 문장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장을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고, 복문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으로 구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즉 '이해'의 차원에서 '문장 분석'에 치중하여 왔을 뿐, 표현'의 차원에서 '문장 구성'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기존의 전통문법과 구조주의 문법, 변형 생성문법이 '이해'의 차원에 집중하여 '이해를 위한 문장론'으로서 '문장 분석 능력'에 치중해 온 '문장 분석론'이었다면, 그렇다면 '표현'의 차원에서 '표현을 위한 문장론'으로서 '표현 문법'의 관점에서 '문장 구성 능력'에 주목하여 '문장 구성론'으로 문장론을 재구조화할 수는 없는가?

평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지 문법에 관심을 가져온 연구자들에게 '문장 분석'이 아닌 '문장 구성'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론을 재편해 제시하고 있는 이북의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 『조선어기능문법』(2013)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오현아, 2025ㄱ: 122-123), '문장 분석'보다는 '문장 구성'으로서의 조선어 문법관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이북의 정순기(2013: 64)에서는 '문법연구의 초창기라고 말할수 있는 19세기말 20세기초의 조선어언어학자들은 우리 말의 규범화와 교육에 선차적인 관심을 두었던 만큼 문법 연구에서 제한성을 보이'는데, 주로 품사론과 문장구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주시경의 『조선어문법』(1913)의 토의 문법적처리에서 기능 중시의 관점을 찾아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기능언어학이 대두하여 언어연구에서 기능의 측면이 중요시되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도 우리말 문법책들에서는 기능중시의 관점에 크게 눈에 띄우지 않'다가 '문법연구에서의 기능적 관점은 해방후에 출판된 문법책들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어문법≫(1, 2권)[과학원출판사, 1960~1963년],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문장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년]과 ≪문장구성론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3년][1], 조선언어학전서의 ≪조선어형태론≫[사회과학출판사, 2005년],

1 ≪문장구성론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3년]은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박재호 선생님의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보다 앞선 것이다. 동일한 제목인데다

≪조선어문장성분론≫[사회과학출판사 2005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문장구성론연구≫에서는 기능언어학적연구 관점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기능문법에서 추구하고있는 말하는 사람을 위한 문법, 의미기능으로부터 형태수단에로 나아가는 문법서술과 구성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범주들과 개념들, 자료들이 취급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순기(2013)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북 문법 기술에서 '문장 분석'보다는 '문장 구성'의 기능 언어학적 연구 관점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박재호 선생님[2]의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라 볼 수 있(오현아 2025ㄱ: 144-145)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는 오현아(2025ㄱ, ㄴ) 이전에는 이남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바가 없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 저자인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내용 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2. 이남에서는 낯선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

이 연구에서는 이남의 연구자들에게는 낯선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를 실제 교재 구성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박재호 선생님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재직 중이시므로, 박재호 선생님의 저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남에서는 현재(2025.07.07)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알 수 없다.

2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이북의 4대 학술지, 〈조선어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 〈사회과학원 학보〉, 〈문화어학습〉에서 문법론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성과와 동향을 살핀 박효정(2024ㄴ: 70)에 따르면, 이북의 문장론 연구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게재한 사람은 박재호 선생님으로 17편을 게재하였다.

박재호 선생님은 문장론 연구 학자로 2005년 초반에 부교수로 소개되었는데 2014년 논문에서는 교수로 직함이 바뀌셨다. 박재호 선생님은 〈조선어문〉에 문장론 2편, 형태론 1편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에 문장론 11편, 품사론 2편, 〈문화어학습〉에 문장론 4편, 형태론 2편을 게재하셨다. 선생님의 관심사는 조선어문장모형, 문장구성방법, 문장성분 등으로 문장론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셨다.

박재호 선생님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1996년 김영황, 권승모 편저로 출판된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1945.8-1995.8』에서 「언어규범연구사」를 기술하기도 하셨다.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오현아·전영근(2022: 312-321)에서 ‘실천문법’과 ‘리론문법, 규범문법, 서술문법, 력사문법, 기능문법, 학교문법’의 설정 및 그 관계, 2)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에서의 실천문법의 위상으로 구분하여 다룬 바 있다. 그 내용을 일부 옮겨와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남에서는 ‘규범 문법, 기술 문법, 교육 문법, 학교 문법, 처방 문법, 학문문법, 설명 문법, 이론 문법, 표준 문법’ 등의 관계 설정을 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남에서의 문법 유형이 언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해’ 차원에서의 문법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확성 중심의 문법교육이 강조되어 온 현실(오현아, 2008)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남의 문법 교육은 ‘언어 사용’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언어 이해’ 차원에서의 정확성 중심의 문법 교육에 치중해 오면서 ‘언어 사용’ 차원의 효과성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이에 비해 이북에서는 ‘규범문법, 문화어문법, 리론문법, 실천문법, 서술문법, 기능문법, 학교문법’ 등으로 좀 더 다양한 문법 유형을 들어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실천문법’은 ‘기능문법’과 더불어 ‘실용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문법’과 ‘기능문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순기(2013: 17)을 참고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실천문법은 말그대로 실용성을 자기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
> 기능문법은 실천문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성을 자기의 주되는 특징의 하나로 간주하고있지만 실천문법과 달리 표현된 문법적현상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그 사용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는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위한 문법, 해당한 사상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데 기본관심을 두는 것으로 하여 그것과 실질적으로 구별된다. 이와 함께 기능문법은 언어사용지침서가 아니라 새로운 문법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리론적연구를 전제로 하는것만큼 실천문법과도 엄연히 구별된다.

즉, ‘실천문법’은 ‘표현된 문법적현상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그 사용에 주되는 관심을’ 둔 ‘언어사용지침서’ 성격의 ‘실용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기능문법’은 ‘말하는 사람을 위한 문법, 해당한 사상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데 기본관심을 두’고 ‘새로운 문법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리론적연구를 전제로 하’는 ‘학문문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북 문법 유형들 간의 관계를 오현아·전영근(2022: 319-320)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2〉 이북 문법 유형들 간의 관계[3](오현아·전영근 2022: 319)

<table>
<tr><td rowspan="5">실용적</td><td rowspan="3">교육문법</td><td>실천문법[4]
(외국인대상 조선어교육문법)</td><td>5</td></tr>
<tr><td>학교문법
(내국인 대상 조선어교육문법)</td><td></td></tr>
<tr><td colspan="2">규범문법</td><td></td></tr>
<tr><td colspan="3">기능문법</td></tr>
<tr><td colspan="3">리론문법(서술문법+력사문법)</td></tr>
<tr><td>이론적</td><td colspan="2">규칙적인 언어 현상</td><td>예외적이고 논쟁적인 언어 현상</td></tr>
</table>

3 구본관 외(2015: 25)에서는 문법의 성격에 따른 명칭을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이 분류에서는 기술문법적 관점과 규범문법적 관점을 기반으로 각 문법 유형이 어떠한 관점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시각화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언어 현상'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언어 현상' 기술에 주목하였는지, '예외적이고 논쟁적인 언어 현상'을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 문법 유형을 하위 구분하고, '언어 사용'을 염두에 둔 실천적 성격인지 여부에 따라 '이론적 성격'과 '실용적 성격'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tr><td rowspan="2">기술문법
(≒학문 문법, 설명 문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표준문법</td></tr>
<tr><td rowspan="3">규범문법</td><td colspan="2">생활문법</td></tr>
<tr><td rowspan="2">교육문법
(≒학교 문법)</td><td>국어 교육 문법</td></tr>
<tr><td>한국어 교육 문법</td></tr>
</table>

4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실천문법'은 외국인 대상 조선어교육 문법 교재인 〈조선어실천문법〉과 외국어교육 교재인 〈영어실천문법〉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북의 '실천문법'은 외국어교육에서의 실용적인 문법교육 내용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법 유형이라 볼 수 있다. (https://unibook.unikorea.go.kr/material/view?materialScope=TOT&fields=ALL&sortField=publishYear&sortDirection=DESCENDING&keywords=%EC%8B%A4%EC%B2%9C%EB%AC%B8%EB%B2%95&uid=ART-333333,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22년 3월 30일 이래 2025년 7월 7일 검색 결과)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리론문법'은 규칙적인 언어 현상과 예외적이고 논쟁적인 언어 현상을 모두 다루는 '학문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공시태를 다루는 '서술문법'과 통시태를 다루는 '력사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문법'은 실용성이 강조되는 '학문문법'으로 말하는 사람을 위한 문법, 화자 혹은 필자의 의도를 어떠한 문법 형태에 담아낼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의미 기능 중심의 학문문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규범문법'은 규칙적인 언어 현상을 중심으로 한 규칙의 체계를 다루는 문법이라 할 수 있다.

'교육문법'은 실용성이 강한 문법으로, 이중 '학교문법'은 내국인 대상 조선어 교육 문법으로 학생들에게 모국어를 깊이 이해시키기 위해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구조화된 문법이라 할 수 있다. 주로 규칙적인 언어 현상을 기반으로 규범적인 내용을 서술하나, 예외적이고 논쟁적인 언어 현상도 일부 다루어질 수 있다. '실천문법'은 외국인 대상 조선어교육 문법으로, 구체적인 '언어 실천' 혹은 '언어 사용'을 염두에 두고 규칙적인 언어 현상을 대상으로 한 규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효과까지 다루는 '실용문법'이라 할 수 있다.

2.3. 조선어학자이면서 조선어교육학자인 박재호 선생님의 학문적 여정 탐색

이 연구에서는『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을 집필한 조선어학자이면서『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을 집필한 조선어교육학자인 박재호 선생님의 학문적 여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와『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머리말을 통해 박재호 선생님의 저술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머리말은 다음과 같다.

---

5 〈표 2〉의 음영 부분은 '규범문법'과 '교육문법'이 주로 '규칙적인 언어 현상'을 다루고, '예외적이고 논쟁적인 언어 현상'을 다루지 않기에 빈칸으로 남겨 둔 것이다. 또한 '교육문법'의 경우, '규칙적인 언어 현상'과 '예외적이고 논쟁적인 언어 현상'을 넘나들며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기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

리론은 실천에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의 언어학도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옳은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어야 참다운 언어학으로 될수 있다.

우리의 언어학을 혁명실천에 적극 복무하는 언어학으로 건설해나가는데서 문장구성론의 연구는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문장구성론의 연구는 무엇보다먼저 조선어문법론을 완비하며 우리의 언어학을 주체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로 된다.

문장구성론은 지금까지의 문법론연구에서 독자적인 리론분야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성이란 《어떤 부분이나 요소들로 일정한 사물을 이루는 것 또는 그 요소들의 짜임》을 말하는데 문장의 구성이라고 할 때도 이 두 측면을 포함시켜 리해할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언어적요소들을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동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있는가 하는 정적인 측면이다.

이 두 측면에 대한 리론을 서로 다르게 이름지어 전자를《문장구성론》, 후자를《문장분석론》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문장론에서는 문장구성의 규칙을 밝히는 문장구성론과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밝히는 문장분석론을 다같이 연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의 문장론은 문장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는데는 많은 힘을 넣으면서도 문장구성의 원리와 규칙을 밝히는데는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문장구성의 원리와 규칙을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문장구성론을 연구하는것은 주체적인 언어학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된다.

…

언어사용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인다는것은 언어생활을 하는 담당자들의 문장구성능력과 문장분석능력을 부단히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문장의 구성능력과 분석능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

문장구성론은 문장구성의 원리를 밝히고 규칙을 체계화, 모형화함으로써 언어교육의 과학화와 문장의 자동처리를 위한 언어학적기초를 마련해준다.

…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 5-7)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머리말에서는 표현의 차원에서 '일정한 언어적요소들을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동적인 측면'인 '문장구성론'과 이해의 차원에서 '주어진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있는가 하는 정적인 측면'인 '문장분석론'을 구분하고 문장론에서는 문장구성론과 문장분석론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머리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어실천문법》 (실습생용)은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실습생들을 위한 교과서이다.

…

조선어실천문법은 조선어의 문법규칙이 조선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실천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서술한 문법이다. 조선어실천문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술할수 있다. ㉠ 문법론의 분야별로 품사, 토, 문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주면서 그안에서 언어실용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 대상의 특성을 보아 품사, 토, 문장들 가운데서 실천적으로중요한 문제들만을 뽑아 서술할 수도 있으며 또는 ㉢ 문법론의 일반적체계에서 벗어나 먼저 조선어의 여러가지 문장류형을 학습하고 이에 기초하여 품사와 토를 비롯한 문법수단들의 의미기능과 그 쓰임상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조선어실천문법》에서는 … 평양문화어(조선어)를 습득하는 외국실습생들의 문장짓기능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 문장류형을 골격으로 하고 여기에 품사와 토를 배합하여 문장구성방법을 순차성의 원칙에서 서술하고 ㉯ 동의문을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주었다. 그리고 ㉰ 조선어 서사규범에서 중요한 조항들을 설명하였다.

ⓐ 매 장의 절들에서는 취급한 문장구성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련습문제를 제시하였다.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2)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머리말에서는 조선어실천문법의 서술방법으로 ㉠ - ㉢의 세 가지 방법을 들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 문법론의 하위 분야인 품사, 토, 문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 언어 실용적인 문제 강조

㉡ : 품사, 토, 문장들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만 뽑아 서술

㉢ : 문법론의 일반 체계와는 달리, 조선어의 여러 가지 문장 류형 학습 +품사와 토를 비롯한 문법수단들의 의미기능과 그 쓰임상 특성 체계 구성

위 세 가지 방법 중 ㉠은 규범적 성격의 문법 지식에 실천적 지식을 더하는 방식, ㉡은 실천적 지식 위주의 구성 방식, ㉢은 실천적 문법의 관점에서 기존 문법 지식이 재구조화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박재호(2015)에서는 ㉢의 방식을 택해, '㉮ 문장류형을 골격으로 하고 여기에 품사와 토를 배합하여 문장구성방법을 순차성의 원칙에서 서술하고 ㉯ 동의문을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주고 ㉰ 조선어 서사규범에서 중요한 조항들을 설명'하는 방식의 내용 구성을 의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 매 장의 절들에서는 취급한 문장구성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련습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오현아·전영근 2022: 322-323).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와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머리말을 통해 우리는 '이론'보다는 '실천'을 염두에 둔 학문문법으로서의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실천적 문법의 관점에서 기존 문법 지식을 재구조화해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3장에서 본격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3.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이 장에서는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1)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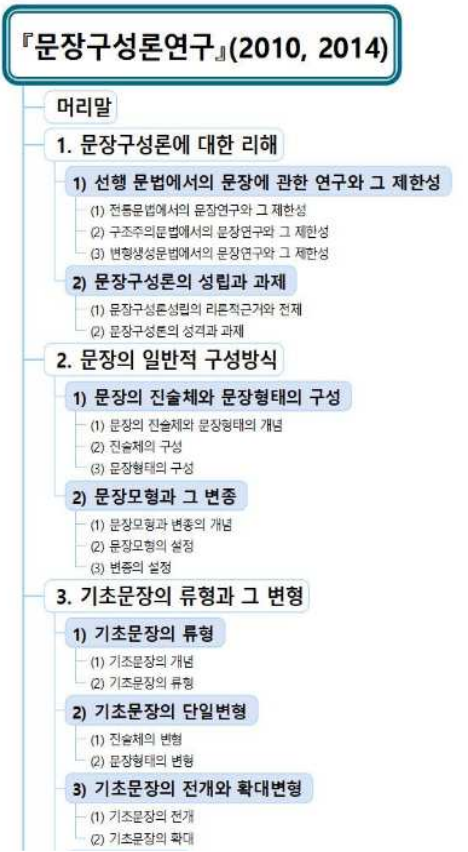
체계와 특성, 2)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와 특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1.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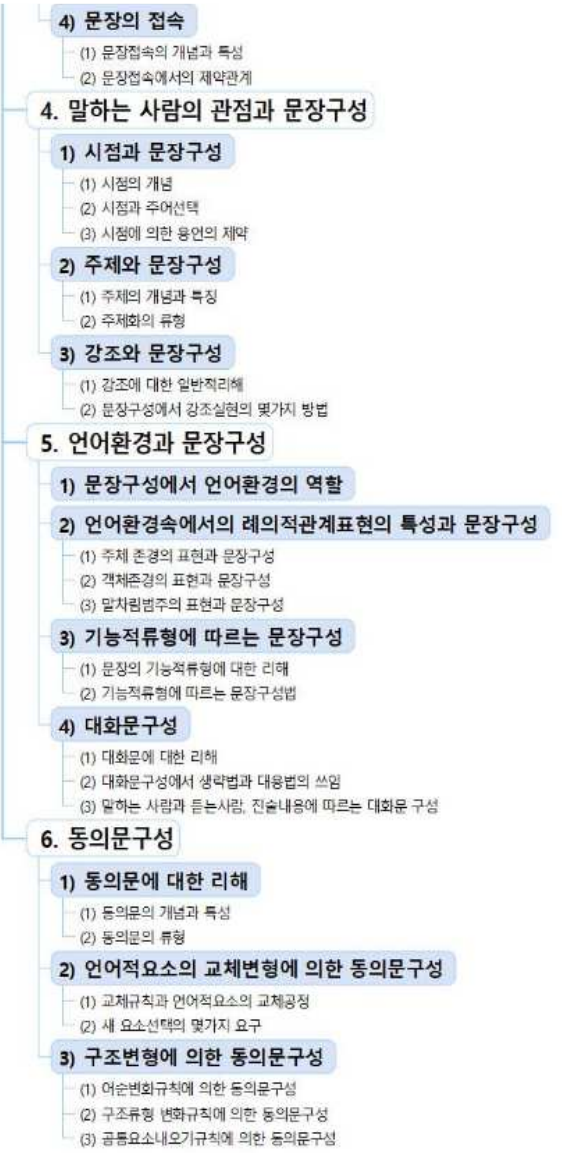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특성을 다루기 위해 1)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구성, 2) '담화 구성 요인'에 따른 '문장 구성' 방식의 제시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1.1.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구성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구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구성 (오현아, 2025ㄱ: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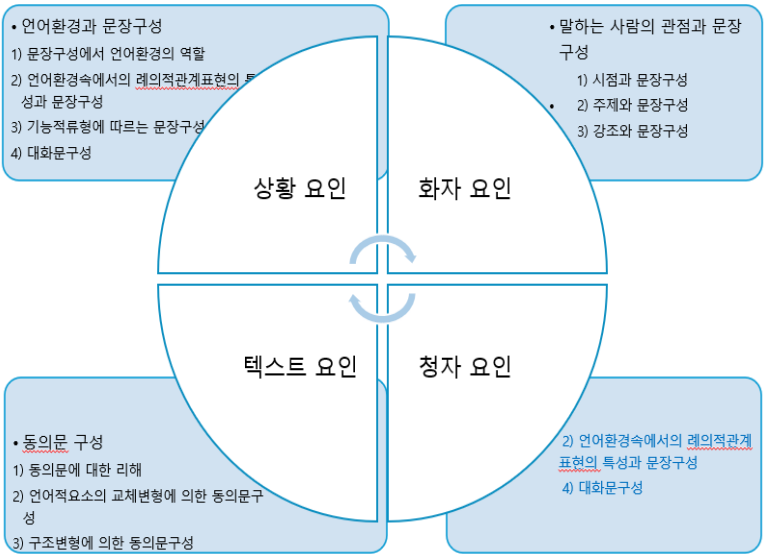
〈그림 1〉을 통해 우리는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 기존의 문법서와는 달리 '3. 기초문장의 류형과 그 변형'이 먼저 다루어지고, 담화를 구성하는 '말하는 사람, 언어환경, 메시지' 요인에 따라 문장 구성 내용을 '4.

말하는 사람의 관점과 문장구성', '5. 언어환경과 문장구성', '6. 동의문구성'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화를 구성하는 요인 중 '듣는 사람(청자)' 요인에 따른 문장 구성 내용은 '5. 언어환경과 문장구성 〉 2) 언어환경속에서의 례의적관계표현의 특성과 문장구성, 4) 대화문 구성'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화 구성 요인인 '말하는 사람, 언어환경, 메시지' 요인에 따른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내용 체계 구성은 신선한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오현아 2025ㄱ:147-148).

3.1.2. '담화 구성 요인'에 따른 '문장 구성' 방식의 제시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특징을 꼽자면 '담화 구성 요인'에 따른 '문장 구성 방식'의 제시를 들 수 있다.

〈그림 2〉『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 나타난 '담화'를 구성하는 '화자, 청자, 상황, 텍스트' 요인에 따른 문장 구성 방식 기술 양상(오현아 2025ㄱ:154)



즉, ‘담화’를 구성하는 ‘화자, 청자, 상황, 텍스트’ 요인을 활용하여 ‘화자 요인’인 ‘시점, 주제, 강조’, ‘상황 요인’인 ‘언어환경’, ‘청자 요인’인 ‘레의적 관계’, ‘텍스트 요인’인 ‘귀일 및 조응 현상, 문장성분 생략, 동의문, 회화문장’에 따라 문장 구성 방식을 기술하는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론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앞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1〉의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하위 내용은 〈그림 2〉의 ‘담화’를 구성하는 ‘화자, 청자, 상황, 텍스트’ 요인에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표현 문법 관점에서 담화 구성 요인에 따른 문장 구성을 위한 문법 내용

<table>
<tr><th colspan="2">담화 구성 요인</th><th></th><th colspan="2">『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하위 내용</th></tr>
<tr><td rowspan="3">화자
요인</td><td>시점</td><td></td><td rowspan="3">4. 말하는 사람의
관점과 문장구성</td><td>1) 시점과 문장구성</td></tr>
<tr><td>주제</td><td></td><td>2) 주제와 문장구성</td></tr>
<tr><td>강조</td><td></td><td>3) 강조와 문장구성</td></tr>
<tr><td rowspan="3">상황
요인</td><td>문장의
기능적 류형</td><td></td><td rowspan="3">5. 언어 환경과
문장 구성</td><td>3) 기능적 류형에 따르는
문장구성</td></tr>
<tr><td>레의적
관계표현</td><td></td><td>2) 언어환경속에서의 레의적
관계표현의 특성과 문장구성</td></tr>
<tr><td>대화문구성</td><td></td><td>4) 대화문 구성</td></tr>
<tr><td colspan="2" rowspan="2">청자 요인</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2) 언어환경속에서의 레의적관
계표현의 특성과 문장구성</td></tr>
<tr><td>4) 대화문 구성</td></tr>
<tr><td colspan="2" rowspan="3">텍스트 요인</td><td rowspan="3"></td><td rowspan="3">6. 동의문구성</td><td>1) 동의문에 대한 리해</td></tr>
<tr><td>2) 언어적요소의 교체변형에
의한 동의문구성</td></tr>
<tr><td>3) 구조변형에 의한 동의문구성</td></tr>
<tr><td colspan="5">기초 문장 문법 지식으로서의 ‘2. 문장의 일반적 구성방식’,
‘3. 기초문장의 류형과 그 변형’</td></tr>
</table>

〈표 3〉에서 기초 문장 문법 지식으로서의 ‘2. 문장의 일반적 구성방식’, ‘3. 기초문장의 류형과 그 변형’을 표의 하단에 제시한 것은 표현 문법 관점에서 문장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문장 문법 지식으로서의 ‘2. 문장의 일반적

구성방식', '3. 기초문장의 류형과 그 변형'을 익힌 연후에 담화 구성 요인을 염두에 두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문장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기저 지식'의 의미로 '2. 문장의 일반적 구성방식', '3. 기초문장의 류형과 그 변형'을 표의 하단에 제시하였고, 담화 구성 요인별 문장 구성을 위한 문법 내용에 모두 작용하기에 넘나들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점선으로 표시하였다(오현아 2025ㄱ: 153-156).

3.2.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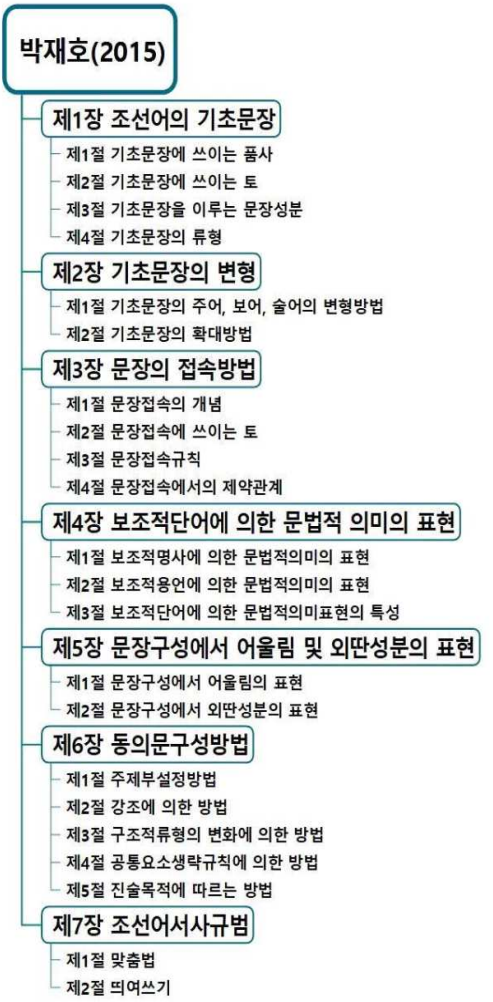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와 특성을 다루기 위해 1)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 2)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특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2.1.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를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을 통해 우리는 박재호(2015)에서 '제1장 조선어의 기초문장 〉 제2장 기초문장의 변형 〉 제3장 문장의 접속방법'까지 문장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실천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다가 '제4장 보조적단어에 의한 문법적 의미의 표현 〉 제5장 문장구성에서 어울림 및 외딴 성분의 표현'에서 품사와 토를 배합한 문장 구성방법을 실천문법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6장 동의문구성방법'에서 의미기능 차원의 실제적인 동의문 구성 방법을, '제7장 조선어서사규범'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용적인 언어 규범 내용을 실천문법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현아·전영근 2022: 325-6).

〈그림 3〉『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문법 서술 체계와 구성(오현아·전영근, 202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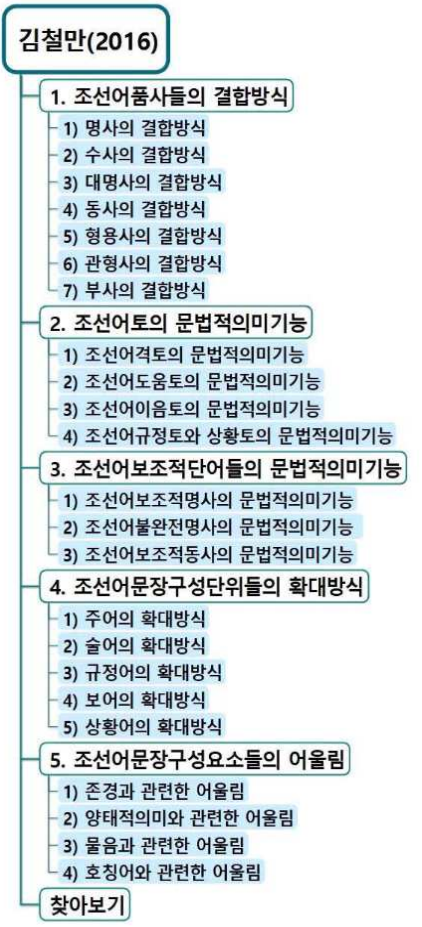
3.2.2. '문장구성론' 관점의『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특성

'문장구성론' 관점의『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특성은 1) 김형직사범대학 교재인『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과의 비교 : 이해 문법 차원의 '문장분석론' 대 표현 문법 차원의 '문장 구성론', 2) '문장구성론'

관점의『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특징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김형직사범대학 교재인『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과의 비교 :
이해 문법 차원의 '문장분석론' 대 표현 문법 차원의 '문장 구성론'

김일성종합대학 교재인『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과 비슷한 시기 김형직사범대학 교재인『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과의 비교를 위해『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의 문법 서술 체계와 구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의 문법 서술 체계와 구성 (오현아·전영근, 2022:326)

즉, ㉡의 방식을 택한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과는 달리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에서는 ㉠의 방식(이 논문, 356쪽)을 택해, '㉮ 《1》에서는 단어결합이 품사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조선어품사들의 결합방식을 주고, ㉯ 《2》에서는 단어결합에 작용하는 격토와 도움토, 이음토와 규정토, 상황토의 의미기능을 주고, ㉰ 《3》에서는 문장론적관계 표현에서 토와 같은 역할을 노는 보조적단어의 문법적기능을 제시하고, ㉱ 《4》에서는 조선어문장성분이 확대되는 방식과 ㉲ 《5》에서는 문장구성요소들의 어울림관계를 주'는 방식의 내용 구성을 의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오현아·전영근 2022: 324, 326-7).

이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재인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기존 문법론의 일반 체계와는 달리, 조선어의 여러 가지 문장 류형을 학습'하고, '품사와 토를 비롯한 문법수단들의 의미기능과 그 쓰임상 특성'을 익히는 방식으로 '표현문법' 차원에서 '문장구성론'의 관점을 선택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한 데 반해, 김형직사범대학 교재인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에서는 '문법론의 하위 분야인 품사, 토, 문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언어 실용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해 문법' 차원에서 '문장분석론'의 관점을 선택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문장'이라는 의사소통의 핵심 단위에 대해 하향식의 접근(문장 → 문장 구성 단위)과 상향식(문장 구성 단위 → 문장)의 접근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한 것인지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2)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특징적인 교육 내용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특징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1) '조선어의 기초문장'의 제시 순서, 2) '기초문장의 변형'의 제시를 들 수 있다.

(1) '조선어의 기초문장'의 제시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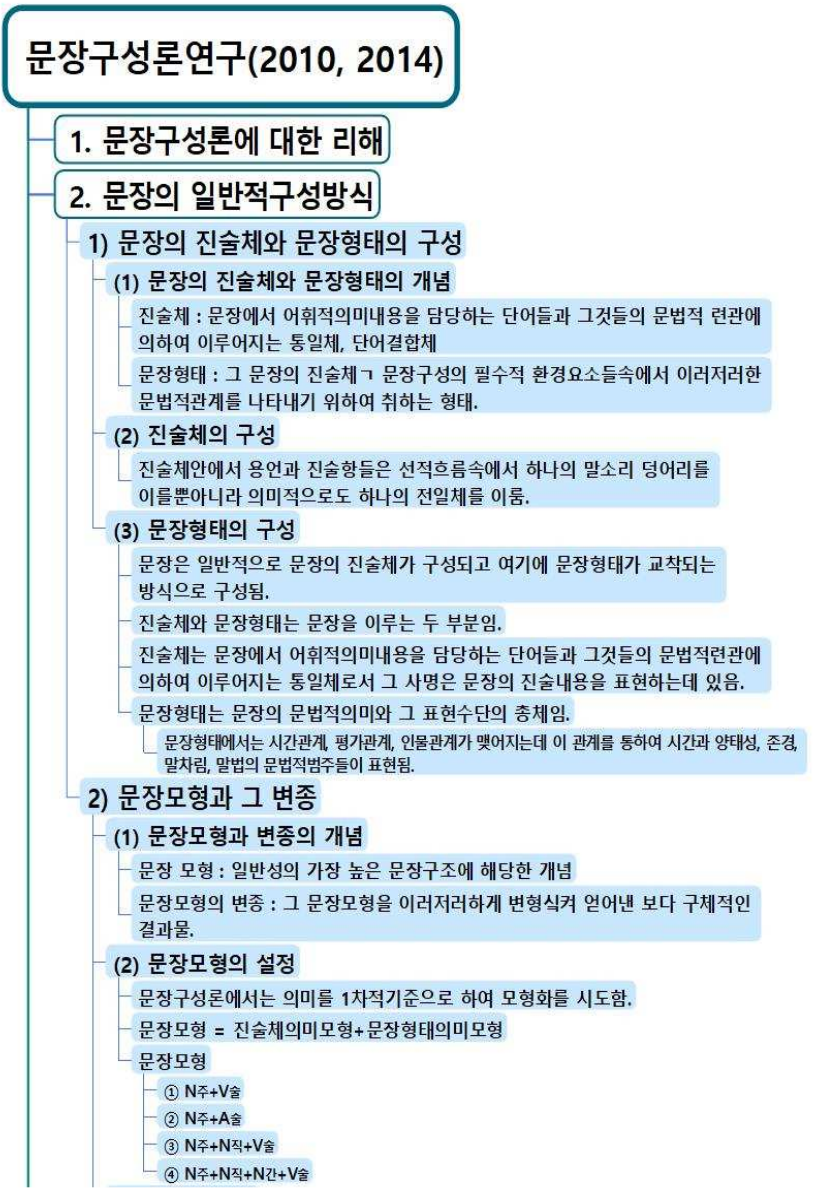
앞에서 살핀 것처럼, 김일성종합대학 교재인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은 김형직사범대학 교재인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에 비해 빠르게

‘조선어의 기초문장’을 교재의 가장 처음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어의 기초문장’의 제시 순서는 ‘문장구성론’ 관점이 적극 반영된 특징적인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앞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는 ‘1. 문장구성론에 대한 리해’ 이후에 ‘2. 문장의 일반적 구성 방식’, ‘기초문장의 류형과 그 변형’이 바로 제시되는데, 〈그림 3〉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역시 ‘제1장 조선어의 기초문장’이 바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 ‘2. 문장의 일반적구성방식’, ‘3. 기초문장의 류형과 변형 〉 1) 기초문장의 류형’과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 ‘제1장 조선어의 기초문장’ 하위 구성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5〉, 〈그림 6〉과 같다.

〈그림 5〉『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 '2. 문장의 일반적구성방식', '3. 기초문장의 류형과 변형 〉 1) 기초문장의 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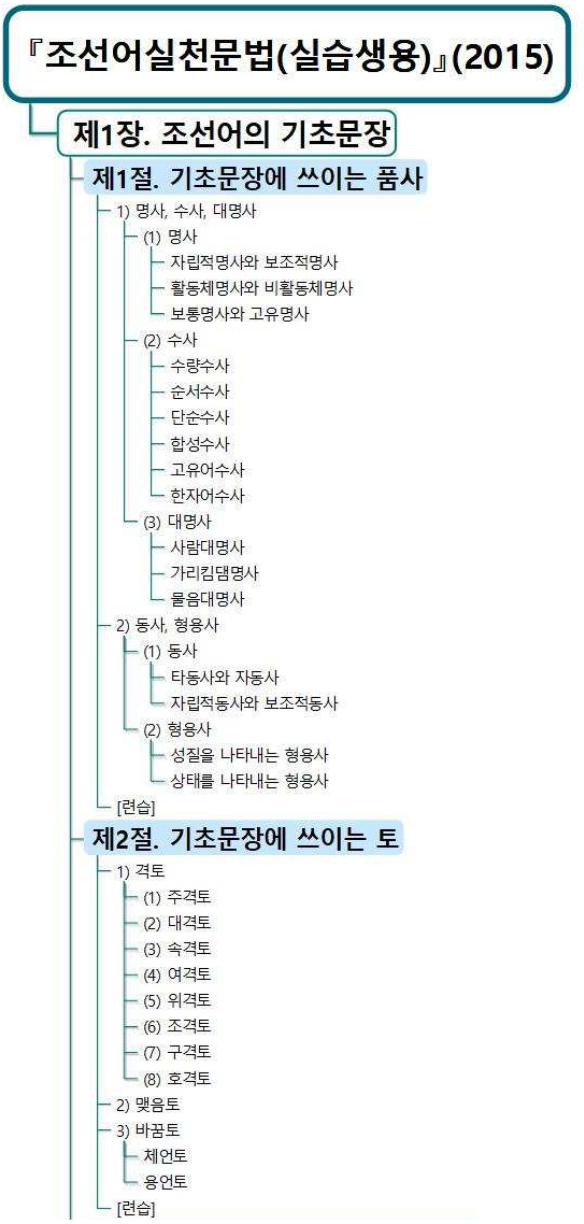
- (3) 변종의 설정
  - 변종은 변형방식에 따라 통합적변종과 련합적변종으로 나눌수 있음.
    - 통합적변종은 정보전달의 내용구성과 관련하여 언어행위의 선적흐름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변종.
    - 련합적변종은 언어행위의 선적흐름고 수직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변종.
  - 통합적변종과 련합적변종이 이루어지는 변형 규칙
    - 생략규칙
    - 교체규칙
    - 첨가규칙
    - 이동규칙

3. 기초문장의 류형과 그 변형

1) 기초문장의 류형

- (1) 기초문장의 개념
  - 기초문장은 문장모형에 선별된 어휘를 채워넣고 문장형태를 구체화한것.
- (2) 기초문장의 류형
  - [모형1] N주+V술 [류형1] 밀림이 설레인다.
  - [모형2] N주+A술 [류형2] 목란꽃이 아름답다.
  - [모형3] N주+N이술 [류형3] 옥이가 모범학생이다.
  - [모형4] N주+N대+V술 [류형4] 영수가 책을 읽는다.
  - [모형5] N주+N위+V술 [류형5] 대렬이 청봉에 이르렀다.
  - [모형6] N주+N상+V술 [류형6] 봄이가 할머니와 만났다.
  - [모형7] N주+N전+V술 [류형7] 마을이 혁명촌로 변했다.
  - [모형8] N주+N수+V술 [류형8] 혁명대오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였다.
  - [모형9] N주+N국+A술 [류형9]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 [모형10] N주+N비+A술 [류형10] 옥이는 언니와 비슷하다.
  - [모형11] N주+N위+N대+V술 [류형11] 학생들이 꽃나무에 물을 준다.
  - [모형12] N주+N상+N대+V술 [류형12] 지배인이 로동자들과 설계도면을 토론한다.
  - [모형13] N주+N대+N전+V술 [류형13] 청년들이 마을을 혁명촌으로 만들었다.
  - [모형14] N주+N대+N수+V술 [류형13] 당이 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였다.

〈그림 6〉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 '제1장 조선어의 기초문장'



- **제3절. 기초문장을 이루는 문장성분**
  - 1) 술어
  - 2) 주어
  - 3) 보어
  - [련습]
- **제4절. 기초문장의 류형**
  - 1) 보어를 가지지 않는 문장류형
    - 1류형 : 밀림이 설레인다.(《ㅁ주+ㄷ술》 형식의 문장)
    - 2류형 : 목란꽃이 아름답다.(《ㅁ주+ㅎ술》 형식의 문장)
    - 3류형 : 옥이가 모범학생이다.(《ㅁ주+ㅁ이술》 형식의 문장)
  - 2) 보어를 가지는 문장류형
    - (1) 필수적인 보어를 가지는 문장류형
      - ① 《주어+보어+술어》 류형
        - 4류형 : 영수가 책을 읽는다.(《ㅁ주+ㅁ대+ㄷ술》 형식의 문장)
        - 5류형 : 대렬이 청봉에 이르렀다.(《ㅁ주+ㅁ위+ㄷ술》 형식의 문장)
        - 6류형 : 철이가 할머니와 만났다.(《ㅁ주+ㅁ상+ㄷ술》 형식의 문장)
        - 7류형 : 로동자들이 기사로 되였다.(《ㅁ주+ㅁ전+ㄷ술》 형식의 문장)
        - 8류형 : 혁명대오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였다.(《ㅁ주+ㅁ수+ㄷ술》 형식의 문장)
        - 9류형 :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다.(《ㅁ주+ㅁ국+ㄷ술》 형식의 문장)
        - 10류형 : 옥이가 언니와 비슷하다.(《ㅁ주+ㅁ비+ㄷ술》 형식의 문장)
      - ② 《주어+보어+보어+술어》 류형
        - 11류형 : 학생들이 꽃나무에 물을 준다.(《ㅁ주+ㅁ위+ㅁ대+ㄷ술》 형식의 문장)
        - 12류형 : 군인들이 농장원들과 농사일을 의논한다.(《ㅁ주+ㅁ상+ㅁ대+ㄷ술》 형식의 문장)
        - 13류형 : 청년들이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켰다.(《ㅁ주+ㅁ대+ㅁ전+ㄷ술》 형식의 문장)
        - 14류형 : 당이 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였다.(《ㅁ주+ㅁ대+ㅁ수+ㄷ술》 형식의 문장)
    - (2) 비필수적인 보어를 가지는 문장류형
      - 15류형 : 영수네가 **지난주에** 원산에 갔다.(시간의 의미)
      - 16류형 : 철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장소의 의미)
      - 17류형 : 옥이가 학습장을 **세권을** 샀다.(분량의 의미)
      - 18류형 : 철이가 감기로 결석했다.(원인의 의미)
      - 19류형 : 학생들이 인민군군인들을 진심으로 돕는다.(방식의 의미)
      - 20류형 : 철수는 방청으로 회의에 참가하였다.(자격의 의미)
      - 21류형 : 송이가 **동무들과** 노래를 부른다.(동반의 의미)
      - 22류형 : 압록강이 **두만강보다** 길다.(비교의 의미)
    - [련습]

〈그림 5〉, 〈그림 6〉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는 '문장모형'과 '류형'을 구분해 '문장모형'에서는 품사 관련 지식과 문장 성분과 보어의 의미 기능을 함께 제시해 형태론적 지식과 문장론적 지식을 '문장 구성론'의 관점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류형'에서는 실제 문장 모형의 사례를 함께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문장모형'과 '류형'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 제시한 문장 모형과 유형이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만,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는 '보어를 가지지 않는 문장류형', '보어를 가지는 문장류형'에서 '필수적인 보어를 가지는 문장류형'만 제시한 데 반해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비필수적인 보어를 가지는 문장 류형'까지 모두 제시해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와 달리 '제1장 조선어의 기초문장'에서 '제1절 기초문장에 쓰이는 품사', '제2절, 기초문장에 쓰이는 토', '기초문장을 이루는 문장성분'을 '문장분석론'의 관점에서 모두 제시해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고자 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기초문장의 변형'의 제시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 '3. 기초문장의 류형과 변형 〉 1) 기초문장의 단일변형'과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 '제2장 기초문장의 변형' 하위 구성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7〉,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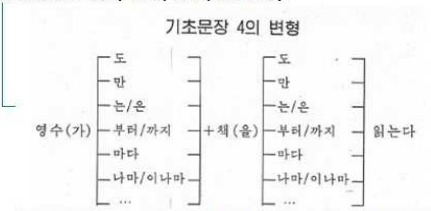
〈그림 7〉『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
'3. 기초문장의 류형과 변형 〉 2) 기초문장의 단일변형'

문장구성론연구(2010, 2014)

- **1. 문장구성론에 대한 리해**
- **2. 문장의 일반적구성방식**
- **3. 기초문장의 류형과 그 변형**
  - **1) 기초문장의 류형**
  - **2) 기초문장의 단일변형**
    - **(1) 진술체의 변형**
      - 진술체의 변형은 주로 첨가규칙에 의해 이루어짐.
      - 물론 진술체는 이동규칙이나 생략규칙에 의해서도 변형되는데 이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표현의도나 언어적환경에 많이 의존하므로 여기서는 첨가규칙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함.
      - 진술체의 변형에서 첨구규칙은 련관범주에서 적용됨.
        련관범주는 류사한 계렬의 사물, 현상 및 표식들사이의 련관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임.
        - 련관범주를 표현하는 도움토는 기초문장의 진술체안에서 문법적구성요소들을 형태변화체계적관점에서 변형시키는 수단으로 복무함.
      - 기초문장에서 진술항을 이루는 형태는 격형태임. 그런데 이 격의 위치에서 변종은 격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법적범주인 련관범주에 의해서 이루어짐.
      - 기초문장의 실례
        - 련관범주에 의한 변종
          - 문장모형 4의 변형(박재호, 2010, 2014: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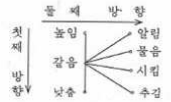
          - 기초문장 4의 변형(박재호, 2010, 2014: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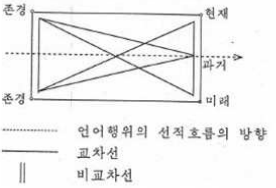
          - 도움토에 의한 변종은 어느 한 진술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말하는 사람의 표현의도에 따라 둘이상의 진술항에서 이루어질수도 있음.
            - 례 : 영수도 책을 읽는다.
              영수가 책도 읽는다.
              영수도 책만 읽는다.
          - 련관범주에 의한 기초문장의 변형은 일련의 특성을 가짐.
            - 첫째, 변종들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의미들은 기초문장에 있는 의미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의미들이라는것임.
            - 둘째, 변종들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의미들은 해당 성분의 문장론적지위에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는것임.

(2) 문장형태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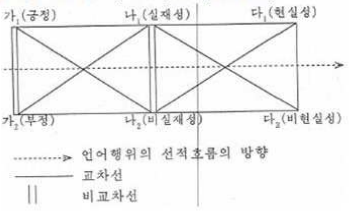
- 기초문장의 단일변형에서 중요한것은 문장형태의 변종을 옳게 선정하는것임.
- 문장형태에서 표현되는 존경, 시간, 양태성, 말차림, 말법의 문법적범주들은 각각 자기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 의미들은 두 방향에서 다른 의미들과 련계를 가짐.
  - 첫째 방향은 해당 의미가 자기가 속한 문법적범주의 다른 의미들과 가지는 관계《비교차의 관계》
  - 둘째 방향은 해당 의미가 다른 문법적범주의 의미들과 가지는 관계《교차의 관계》
  - 문장 형태에서 각각의 문법적범주들이 의미 련계를 가지는 방식(박재호, 2010, 2014: 93)



- 문법적의미들의 교차적 및 비교차적관계는 문장형태를 이루는 모든 범주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임.
  - 존경범주와 시간범주의 립체구조(박재호, 2010, 2014: 95)



  - 존경범주의 의미들과 시간범주의 의미들의 교차관계 류형(6개)
    - 비존경-현재(나는 잡지를 본다.)
    - 비존경-과거(나는 잡지를 보았다.)
    - 비존경-미래(나는 잡지를 보겠다.)
    - 존경-현재(아버지가 잡지를 보신다.)
    - 존경-과거(아버지가 잡지를 보시였다.)
    - 존경-미래(아버지가 잡지를 보실것이다.)
  - 양태성의 문법적 범주는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을 일반화하면 긍정과 부정, 실제성과 비실재성, 현실성과 비현실성의미들이 립체구조를 이루고있다고 볼수 있음.
    - 양태성 범주의 립체구조(박재호, 2010, 2014: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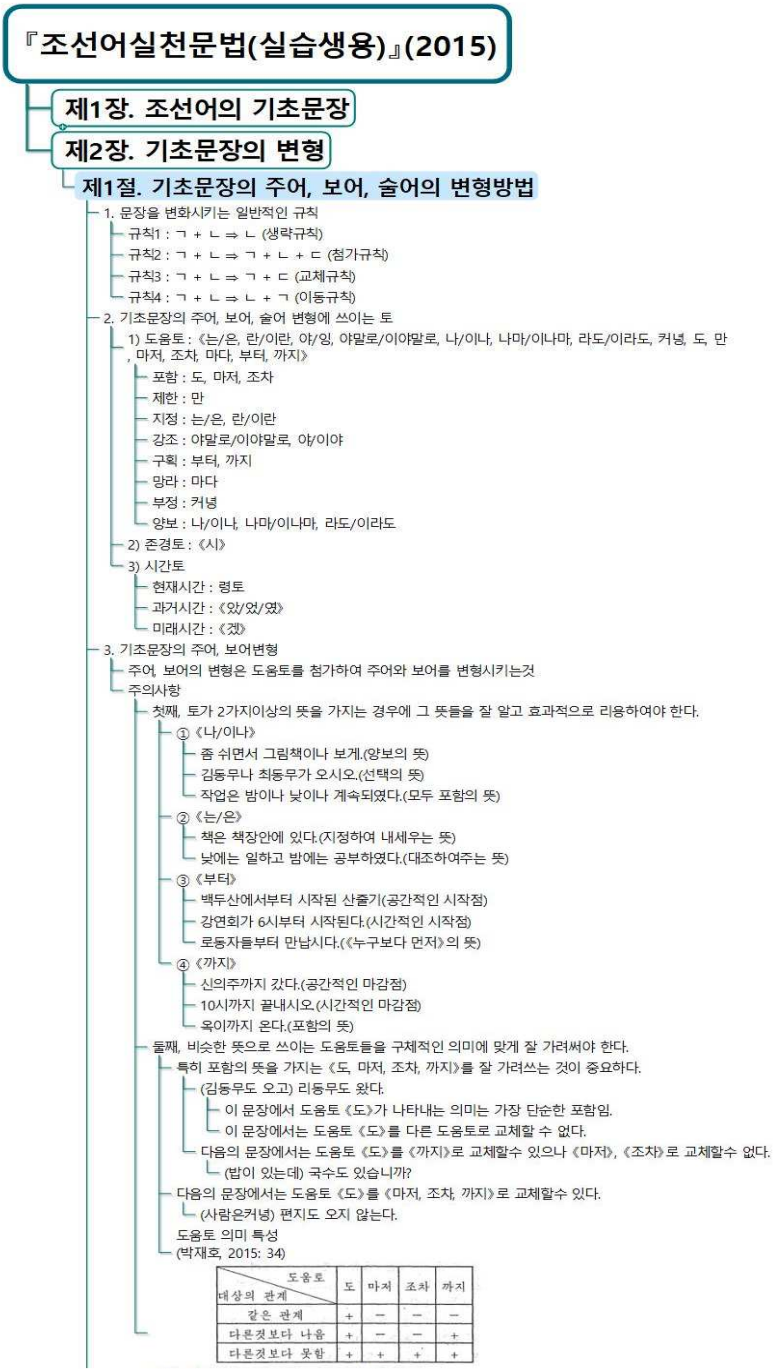
    - 양태성 의미들의 교차류형(8개)
      1. 가1나1다1 바람이 분다.
      2. 가1나1다2 바람이 불것 같다.
      3. 가1나2다1 바람이 불어야 한다.
      4. 가1나2다2 바람이 불어야 할것 같다.
      5. 가2나1다1 바람이 불지 않는다.
      6. 가2나1다2 바람이 불지 않을것 같다.
      7. 가2나2다1 바람이 불지 말아야 한다.
      8. 가2나2다2 바람이 불지 말아야 할것 같다.
  - 문장의 형태에는 존경범주의 비교차선, 시간범주의 비교차선, 양태성범주의 비교차선과 함께 말차림범주의 비교차선, 말법범주의 비교차선이 놓임.
    - 말차림범주의 비교차선 : 높임, 같음, 낮춤의 의미들
    - 법범주의 비교차선 : 알림, 물음, 시킴, 추김
    - 이 5개의 비교차선우에 놓이는 의미들은 실제적인 문장에서 어느 하나도 혼자서는 변종을 이루지 못하며 다른 비교차선우에 놓이는 의미들과 교차되여서만 변종을 이룰 수 있음.

3) 기초문장의 전개와 확대변형

(1) 기초문장의 전개

(2) 기초문장의 확대

〈그림 8〉『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 '제2장 기초문장의 변형'



셋째, 격토와의 결합관계를 잘 알고 써야 한다.

주격토《가/이》가 붙은 주어와 대격토《를/을》이 붙은 보어에 도움토를 붙이려면 먼저《가/이》와《를/을》을 령토로 교체하고 그다음 여기에 도움토를 붙인다.

학교가 ⇒ 학교0 ⇒ 학교0도 ⇒ 학교도
학교를 ⇒ 학교0 ⇒ 학교0도 ⇒ 학교도

변형된 문장에서 격의미는 령토에 의해서 표현되며 도움토《도》는 포함의 의미만 나타낸다.

학교가 훌륭하다.
⇒ 학교도 훌륭하다.

학교를 건설한다.
⇒ 학교도 건설한다.

주어가《께서》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와 보어가《에, 에게, 께, 에서, 에게서, 한테, 한테서, 로/으로, 와/과》등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에는 이 격토들뒤에 도움토를 직접 덧붙이면 된다.

아버지께서 오신다.
⇒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서만, 아버지께서는

우리 학급에서 이겼다.
⇒ 학급에서도, 학급에서만, 학급에서는

영수에게 주었다.
⇒ 영수에게도, 영수에게만, 영수에게는

옥이한테서 받았다.
⇒ 옥이한테서도, 옥이한테서만, 옥이한테서는

바다로 간다.
⇒ 바다로도, 바다로만, 바다로는

언니와 이야기한다.
⇒ 언니와도, 언니와만, 언니와는

4. 기초문장의 술어변형

술어의 형태에서는 존경, 시간, 양태성, 말차림, 법의 문법적 범주들이 표현되는데, 이 문법적범주들의 구체적의미들은 두 방향에서 호상관계를 가진다.

첫째 방향은 해당 의미가 자기가 속한 문법적범주의 다른 의미들과 가지는 관계
둘째 방향은 해당 의미가 다른 문법적범주의 의미들과 가지는 관계

존경의 문법적범주는 존경과 비존경의 구체적의미들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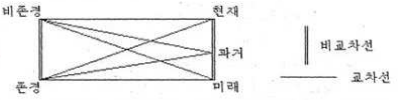
비교차적 관계 : 이때 존경과 비존경의 의미들은 한 문장에서 함께 나타나지 않는 관계를 가짐.

시간의 문법적범주는 현재, 과거, 미래의 구체적의미들로 구성됨.

하나의 문장에서 현재와 과거 또는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함께 나타나는 법은 없음.

교차적 관계 : 존경범주의 의미들은 시간범주의 의미들과 한문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관계를 가짐

존경범주와 시간범주의 립체구조(박재호, 201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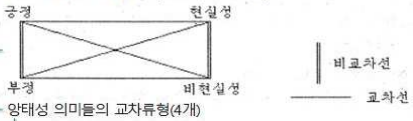
존경범주의 의미들과 시간범주의 의미들의 교차관계 류형(6개)

비존경-현재(나는 잡지를 본다.)
비존경-과거(나는 잡지를 보았다.)
비존경-미래(나는 잡지를 보겠다.)
존경-현재(아버지가 잡지를 보신다.)
존경-과거(아버지가 잡지를 보시였다.)
존경-미래(아버지가 잡지를 보실것이다.)

양태성은 말하는 사람이 진술내용과 현실과의 관계를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기의 평가를 더하여 나타내는 문법범주임.

양태성의 문법적 범주는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을 크게 긍정과, 부정, 현실성과 비현실성으로 일반화할수 있음.

양태성 범주의 립체구조(박재호, 2015: 37)



양태성 의미들의 교차류형(4개)

긍정-현실성(바람이 붑니다.)
긍정-비현실성(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부정-현실성(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부정-비현실성(바람이 불지 않을수 있습니다.)

술어의 형태에는 우에서 본 존경범주의 비교차선, 시간범주의 비교차선, 양태성범주의 비교차선과 함께 말차림범주의 비교차선, 법범주의 비교차선이 놓임.

말차림범주의 비교차선 : 높임, 같음, 낮춤의 의미들
법범주의 비교차선 : 알림, 물음, 시킴, 추김

이 5개의 비교차선우에 놓이는 의미들은 실제적인 문장에서 어느 하나도 혼자서는 변종을 이루지 못하며 다른 비교차선우에 놓이는 의미들과 교차되여서만 변종을 이룰 수 있음.

[련습]

〈그림 7〉, 〈그림 8〉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는 '문장구성론' 관점에서 '2) 기초문장의 단일변형'을 '(1) 진술체의 변형'과 '(2) 문장형태의 변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문장분석론' 관점에서 '제2장 기초문장의 변형'을 '제1절. 기초문장의 주어, 보어, 술어의 변형'으로 제시하면서 '3. 기초문장의 주어, 보어 변형'과 '4. 기초문장의 술어 변형'으로 '문장성분론' 관점에서 문장 성분 용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습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에 제시된 것처럼, 문장 구성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진술체'와 '문장형태'의 결합으로 보고, '진술체'를 '문장에서 어휘적의미내용을 담당하는 단어들과 그것들의 문법적 련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일체, 단어결합체(박재호 2010, 2014: 33)'로 정의하고, '문장형태'를 '그 문장의 진술체가 문장구성의 필수적 환경요소들속에서 이러저러한 문법적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취하는 형태(박재호 2010, 2014: 35)'라고 정의내리는 것은 외국인인 조선어교육학습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는 '존경범주와 시간범주의 립체구조' 관련해 '언어행위의 선적 흐름의 방향'이 제시된 데 반해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는 '양태성 범주의 립체구조'에서도 '언어행위의 선적 흐름의 방향'이 제시된 데 반해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에서는 '긍정과 부정, 실재성과 비실재성, 현실성과 비현실성'의 의미들이 구성 요인으로 제시된 데 반해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서는 '실재성과 비실재성'의 의미가 구성 요인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나가며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북의 조선어교육 문법 교재인 김일성종합대학 출간『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 나타난 '문장구성론' 관점의 내용 구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장구성론'에서는 언어생활 과정을 '표현'과 '이해'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전통 문법과 구조주의 문법, 변형 생성 문법이 '이해'의 차원에 집중하여 '이해를 위한 문장론'으로서 '문장 분석 능력'에 치중해 온 '문장 분석론'이었다면, '문장구성론'에서는 '표현을 위한 문장론'으로서 '문장 구성 능력'에 관심을 두는 '문장구성론'임을 차별화해 강조한다. 이러한 '문장구성론'의 관점은 '언어실천'을 염두에 두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이북의 조선어학 및 조선어 문법교육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구성론'의 관점은 Oh(2024), 오현아(2025ㄱ, ㄴ)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데, Oh(2024)에서는 조선어학전서 48권인『조선어 기능 문법』(2013)을 대상으로, 오현아(2025ㄱ, ㄴ)에서는『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과『조선어 기능 문법』(2013)을 대상으로 '문장 분석'이 아닌 '문장 구성'으로서의 이북 기능 문법의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오현아·전영근(2022)의 후속 연구로, 이러한 '문장구성론' 관점이『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 문법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인 오현아·전영근(2022)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출간『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과 김형직사범대학 출간『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을 비교 분석하여, 이남의 연구자들에게는 낯선 '실천문법'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실천문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 체계화될 수 있는지 실제『조선어실천문법』교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를, 3장에서는『조선어실천문법』교재 분석을 진행하여, 이남의 연구자들에게는 낯선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를 '리론문법, 규범문법, 서술문법, 력사문법, 기능문법, 학교문법'과의 관계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천문법을 서술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박재호(2015)와 김철만(2016)에서 공통된 실

천문법 교육 내용이 제시되는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인 문법 서술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별화된 실천문법 교육 내용으로 박재호(2015)의 '제6장 동의문구성방법'의 구체적인 문법 서술 양상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남에 유입되지 않은 김일설종합대학 출간『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의 특성을 모두 밝히지는 못했다. 또한『문장구성론연구(제2판) 』(2010, 2014)는 오현아(2025ㄱ, ㄴ) 이전에는 이남에서 논의된 바가 없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와 동일 저자인 박재호 선생님의『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영향 관계를 살피면서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교재 구성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왜『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와『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에 주목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1) '문장 분석'보다는 '문장 구성'으로서의 조선어 문법관, 2) 이남에서는 낯선 '실천문법'의 위상과 의미, 3) 조선어학자이면서 조선어교육학자인 박재호 선생님의 학문적 여정 탐색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문장구성론' 관점의『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1)『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특성, 2) '문장구성론' 관점의『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와 특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1)『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특성'은 다시 (1)『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의 문법 서술 체계와 구성, (2) '담화 구성 요인'에 따른 '문장 구성' 방식의 제시로 구분하였고, '2) '문장구성론' 관점의『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와 특성'은 (1)『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체계, (2) '문장구성론' 관점의『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 '문장구성론' 관점의『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구성 특성'은 다시 가) 김형직사범대학 교재인『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6)

과의 비교 : 이해 문법 차원의 '문장분석론' 대 표현 문법 차원의 '문장 구성론', 나)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특징적인 교육 내용으로, '나)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의 특징적인 교육 내용'은 다시 '㉠ '조선어의 기초문장'의 제시 순서, ㉡ '기초문장의 변형'의 제시'로 하위 항목화하여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 교재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장구성론' 관점의 이북 조선어학과 이북 조선어 문법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의 말

귀한 학술대회를 열어 주신 국제고려학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벌써 다섯 번째 공동 연구를 함께하고 있는 전영근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고려학회 16차 학술대회'에서 뵐 수는 없었지만 뵙고 싶다는 그리움으로 이북 관련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2019년 국제고려학회에서 뵈었던 조선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미 알고 지낸 학계 원로 선생님처럼 따뜻하셨던 전하철 선생님(조선사회과학원), 선배 선생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 주셨던 방정호 선생님(조선사회과학원), 2019년 저희 발표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영윤 선생님(김일성종합대학)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더욱 궁금해지고, 뵙고 싶은 박재호 선생님(김일성종합대학)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자료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한국어문법총론 I 』, 집문당.

김철만(2016)『조선어실천문법』,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박재호(2010, 2014)『문장구성론연구(제2판)(조선사회과학학술집 486 언어학편)』, 사회과학출판사.

박재호(2015)『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정순기(2013)『조선어기능문법(조선어학전서48)』, 사회과학출판사.

2. 논저

박효정(2024)「북한의 문법론 연구 동향–200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4대 학술지를 중심으로」,『어문론총』 101, 한국문학언어학회, 33-78.

오현아·전영근(2022)「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북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교재 분석 연구-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을 중심으로」,『국어교육』 177, 한국어교육학회, 311-350.

오현아(2008)「'정확성 중심' 문법 교육관에 대한 반성적 고찰」,『새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295-318.

오현아(2025ㄱ)「표현 문법 관점에서 '문장 분석'이 아닌 '문장 구성'으로서의 이북의 기능문장론-『문장구성론연구(제2판)』(2010, 2014),『조선어기능문법』(2013)에서 담화 구성 요인으로서의 '화자' 요인 중 '강조와 문장 구성'의 '어순'을 중심으로-」,『국어학』 113, 국어학회, 121-185.

오현아(2025ㄴ)「시점과 문장 구성 -『문장구성론연구(2판)』(2010, 2014)와『조선어기능문법』(2013)의 '제3장. 조선어 기능문장론'에서 담화 구성 요인으로서의 '화자' 요인 중 '시점과 문장 구성'을 중심으로-」,『우리어문연구』 82, 우리어문학회, 315-353.

Oh (2024) 'A Grammar Pedagogical Exploration of North Korean Functional Grammar as 'Sentence Construction' rather than 'Sentence Analysis': Focusing on the Theory of Joseon Language Functional Sentences in the『Functional Grammar of Joseon Language』(2013)',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9(5),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07-139.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 생태적 지역개발 모델 모색

Kangryong International Green Pilot Zone
and Ecological Community Building

이경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 서론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기온 상승과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까지 확산되며 이에 대응하는 각자의 대응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연합(UN)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추진과 기업 차원의 ESG(Environmental·Social·Governnace) 경영 등에서 보듯 정치와 행정은 물론, 경제 차원에서도 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각국에 산재한 특별경제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발견된다. 199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신규 산업단지 건설시 설계 단계부터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작업 또한 진행 중이다. 다만 여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사례가 많지 축적되지는 못 한 상태다(박준모 외 2014: 804).

주지하다시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에서는 국가 주도의 특별경제구역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박배균·이승욱·조성찬 2017). 국토의 일부 지역을 특별 구역으로 설정해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 자본을

* LEE Kyungsoo (Senior Fellow, Institute for Korean Politic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subbu@hanmail.net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북한 또한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국토 전역에 29개의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와 코비드-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진척은 없는 상황이나, 해당 시도가 북한의 대외개방 전략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중에서 황해남도 강령군 개발계획으로 제시된 강령국제녹색시범구(이하 강령시범구) 사례에 주목한다. 강령시범구는 북한 경제개발구 중 유일하게 '녹색시범구'로 지정된 사례이며, 북한이 스스로 밝히는 '녹색경제' 실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윤정성 2020)[1]. 북한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경제 발전 방식을 활발히 논의 중인 상황에서(이경수 2024, 2022) 강령시범구 사례를 국제사회 논의에 비추어 검토, 평가함으로써 북한이 경제개발구의 '녹색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 생태산업단지 추진 배경과 현황

2.1. 생태산업단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생태산업단지(EIP)는 인근에 인접한 사업체들이 환경 및 자원 관리 협력을 통해 환경, 경제, 사회적 성과를 증진하는 단지를 일컫는다(Lowe 2001). 생태산업단지의 핵심은 기존 산업단지 설립과 운영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이용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을 단지 내 타 기업이 원료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 배출 자체를 사전에 방지한다. 일반적인 환경정책이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집진 및 정화설비를 갖추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데 방식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이 타 기업의 부산물을 원료

1 북한의 경제학술지 『경제연구』는 △강령군 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 △녹색에너지 개발·이용 △녹색기술을 도입한 녹색생산방식 확립을 자국내 대표적인 녹색경제 실천 사례로 제시한다.

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is) 관계를 이루어 폐기물 배출을 최소하하는 것이다.

생태산업단지의 첫 사례로 알려진 덴마크 칼룬버그(Kalunborg) 산업집적지의 경우 용수를 공동 이용하는 한편, 제약회사의 슬러지를 활용해 벽재를 생산하고, 슬러지 가공물을 농장에 공급하는 등으로 연간 슬러지 100만톤, 분진 20만톤, 연료가스 7만톤, 석고 8만 등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또한 사용후 용수와 사용후 연료가스를 기업과 가정에서 재이용해 연간 물 소비를 25% 감축하고 5천 가구에 난방을 공급한다. 즉, 기업간 협력을 통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또한 촉진한다(Chertow 2000). 생태적, 경제적으로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는 기업 간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통해 산업단지 내외부의 기업과 농장,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생태산업단지 개념이 칼룬버그 사례를 통해 알려지면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차원의 자원, 에너지 효율 증진과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 중반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EIP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영국과 오스트리아, 중국에서도 EIP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아시아 지역 내 EIP 확산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했다(Neves et. al. 2020).

중국은 2001년 구이강(贵港)생태공업(제당)시범단지를 첫 국가생태공업단지로 지정하면서 EIP 사업을 본격화했다. 국유제당기업인 구이탕(贵糖) 그룹을 중심으로 폐기물 교환과 재이용망을 건설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공업원구를 생태공업시범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3년에 한번씩 재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48개 공업원구가 EIP로 지정 및 비준되었다(김혜진 2021; E. J. Kim 2017a).

한국은 2005년부터 EIP 구축사업을 본격화하여 경북 포항, 전남 여수, 울산 3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삼아 3단계 15년 사업을 추진해 왔다(박준모·김형우·박홍석 2014; E. J. Kim 2017b).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사용해 자원 효율성을 증진하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을 추진하며, 각 단지 내 △에너지 △용수와 폐수 △폐기물 및 부산물 재이용

등의 분야에서 기업체 세부과제를 발굴, 지원하여 사업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2.2. 농업 중심 산업공생

EIP는 제조업 단지 중심으로 논의되어 농업과 수산업 등 1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적다. 그러나 산업공생 개념을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저개발국(LDCs)의 소규모 농업에 적용하도록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농업(IFR, intergrated farming research)과 산업공생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폐쇄형(closed loop) 체계를 수립하는 시범사업이 실행 중이다(Alfaro and Miller 2013). 리비아의 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해당 소농경제 모델에서는 농업 부산물을 축산업과 양식어업의 먹이로 사용하고, 축산업과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농업에 투입되는 거름으로 사용하는 순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다른 한편 농생태 공생(agroecological symbiosis, AES)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과 농가공업,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결합하는 순환경제 방식도 제안되었다(Helenius, Hagolani-Albov, and Koppelmäki 2020). 핀란드 지역사회에 도입된 AES는 농민과 지역정부의 협력 하에 생산된 곡물을 지역 베이커리에 판매하고, 부산물로는 메탄가스를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공동생산(co-production)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식품사슬 내에서 영양을 순환시켜 순환경제와 산업공생을 연결하는 시도이다.

중국에서는 생태농업 시범지역을 설치해 농림어업, 가공업을 도입한 생태촌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축산농가의 생산물을 식품가공공장에 보내는 한편, 농업 부산물을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활용한다. 한편 각 농가에서 매탄가스를 이용해 농림어업, 축산업에 공급해 1찬 산업간 순환과 가공농업을 포함한 생태순환 시스템을 이룬다(유찬주·박현태 2009: 362-365). 특히 2013년 '순환경제 발전전략 및 단기실천계획', 2015년 '전국지속가능한농업발전계획(215-2030)'을 발표하는 등 경축(种養)순환 활성화 및 농업-목축업, 농업-임업 결합 확대 등 순환형 농업체계 구축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자원순환농업(Resource Cyclical Agriculture, RCA)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유찬주·박현태 2009; 윤성이·박선호 2009; 이지은·허승욱 2009). 농업과 임업 부산물을 농업 생산에 재사용함으로써 농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내에서 순환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자원순환형 '농업'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농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공생이나 공동생산 등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유사한 개념으로 파생된 경축순환농업은 농업과 축산업의 연계를 분명히 해 순환경제 사례이자 지속가능한 농업 사례로 소개되었다(정학균·임영아·강경수 2020). 경종농가는 농산물과 사료작물을 생산하고 축산농가가 이를 활용하는 한편, 축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화하여 다시 경종농가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자연순환농업, 자원순환농업, 경축순환농업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만,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투입하는 정책 외에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은 부재한 상태이며, 축산 부산물 자원화의 높은 비용, 농가의 퇴비·액비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정학균 외 2020: 39-40).

2.3. 북한의 EIP 관련 개념: 순환경제와 고리형 생산체계

북한에서는 순환경제를 '대량소비, 대량생산, 대량폐기' 경제체계의 대안으로 소개하며 "생태학적물질순환과 에네르기의 이동법칙에 따라 깨끗한 생산, 자원의 종합적리용, 지속적인 소비 등을 하나로 결합하여 경제체계가 자연생태계의 물질순환에 들어가 '자원-생산물-재생자원;의 순환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순환경제는 △기업 △기업무리 △생활오물층에서 실천되며, 특히 '기업무리'의 경우 순환경제 이론과 공업생태학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생태공업지구를 소개하기도 한다(한창록 2008). 북한 내에서 순환경제의 실현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원 제공 △폐기물 및 폐설물, 오물의 종합적 이용을 통한 물질적 원천의 확보 측면에서 촉구된다(김광철 2009). 폐기물 및 폐설물의 재이

용이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를 막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효율적 자원 이용 측면에 보다 주목하는 것이다.

순환경제가 가장 먼저 실현되었다고 할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수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보인다. 현재 북한은 제조업 원자래 확보를 위한 재자원화를 중심으로 순환경제를 논의하고 있으나(오윤정·박순성 2023) 폐기물 및 폐설물을 재이용 자체는 일찌감치 1990년대 말부터 농업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식량난 극복을 위한 식량증산정책 중 하나인 감자농사 혁명에서 순환생산체계를 언급하는데,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확대와 주식 다종화 방향으로 식생활 구조를 개선하고, 화학비료 부족과 토양 산성화 등 취약한 영농조건 하에서 대안적 생산방식으로 감자농사와 축산업을 결합한 순환생산체계가 고안되었다(윤무근 2020). 고질적인 문제인 화학비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이후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확대가 논의되었고,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를 언급하며 생산체계 구축이 본격화되었다(윤무근 2020; 정은미 2013).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는 생산 부문을 서로 생산과 소비 관계에 놓아 연결한 '단순형 순환고리'와 이에 지역과 농업생산 특성에 맞춰 연쇄된 각이한 생산 부문을 결합시킨 '혼합형 순환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김향미 2015). 대부분 북한 지역에서는 '단순형 순환고리'를 구성해 농산과 축산을 연결하여 농산물이 재배되는 포전 인근에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기지를 두고 축산기지 인근에 유기질복합비료생산공정을 갖추는 방식으로 순환농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산-축산 외에도 과수-축산, 농산-축산-수산 결합형도 실행 중이며 가축 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해 난방에 활용하고, 메탄가스 발효액과 찌꺼기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각지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고리는 축산으로, 축산 부산물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오윤정 2024).

북한의 '고리형 생산체계'는 한국의 자원순환농업, 경축순환농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RCA가 농업과 농가공업을 중심으로 대체 에너지 생산을 결합하는 것과 달리, 북한의 순환농업은 농업과 축산업 또는 축산업과

양어업 결합 등을 통해 축산 배설물의 재이용과 재활용에 보다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 축산업은 과거 농업의 한 분야로 취급되다가 최근 들어 농업과 같은 위치로 중요시되기 시작하는데, 주민들의 식품 소비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축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료 부족으로, 특히 곡물사료 부족이 축산업 발전의 주요 장애물로 꼽혀왔다. 북한은 배합사료 및 발효사료, 사료첨가제 개발, 사료를 적게 필요로 하는 소와 돼지의 품종 개량 등을 진행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은 비교적 발전한 반면, 소, 염소, 돼지 등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로 알려진다(조충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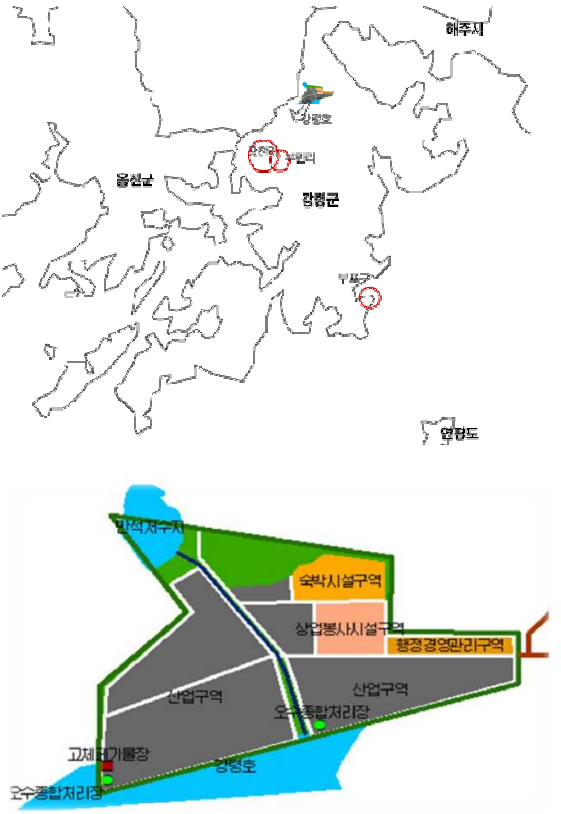
3.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북한은 2013년 황해남도 강령군에 강령국제녹색경제지대를 설치하면서 EIP의 북한적 적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강령국제녹색경제지대 설립 계획이 발표해 황해남도 남부의 강령군을 녹색경제 실현의 시범구로 설정한 것이다.

강령개발구는 타 지방급 개발구와 달리 국가급으로 추진, 개발되는 지대이다. 강령군은 황해남도 서남단 방향의 강령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의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다. 해삼, 가리비, 다시마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고구마를 비롯한 농업이 발달해 있다. 강령군인민위원회와 조선녹색위업연구개발회사는 2010년부터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500km2 규모의 군 전체를 개발하되, 강령호 인근 3.5km2는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유기농산품과 어업품 가공을 위주로 하는 국제녹색시범구로 개발하는 안이 가장 먼저 논의되었다(Pyongyang Times 2014).

개발구 지정 이후 △첨단과학기술개발구 △금융상무봉사구 △관광휴식구 △항구경제구 △농어업 생태시범구로 나누어 강령군 전체 500km2를 개발하는 안이 중국을 통해 알려졌으나(이종석 2013), 현재 이 안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2017-2025년 전망개발계획 기간 동안 강령군 전체를

생태군(Eco County)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Y.-N. Kim and O 2022), 이 안에서는 군 내 3.5km2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그림 1〉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위치도 및 개발계획도

북한은 농축산업과 어업, 가공공업 간 산업공생을 중심에 둔 강령군 대상의 EIP 개발계획을 밝힌다. 군 전체를 EIP와 거주지역으로 나누어, 거주지역은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하되 관광, 서비스, 과학기술, 체육여가 지역으로 다시 세분하며, EIP 지역은 순환경제 개념을 적용해 △농업-축산업-가공공업-농업을 한 축으로, △어업-가공업-축산업-농업을 다른 한 축으로 한다. 폐기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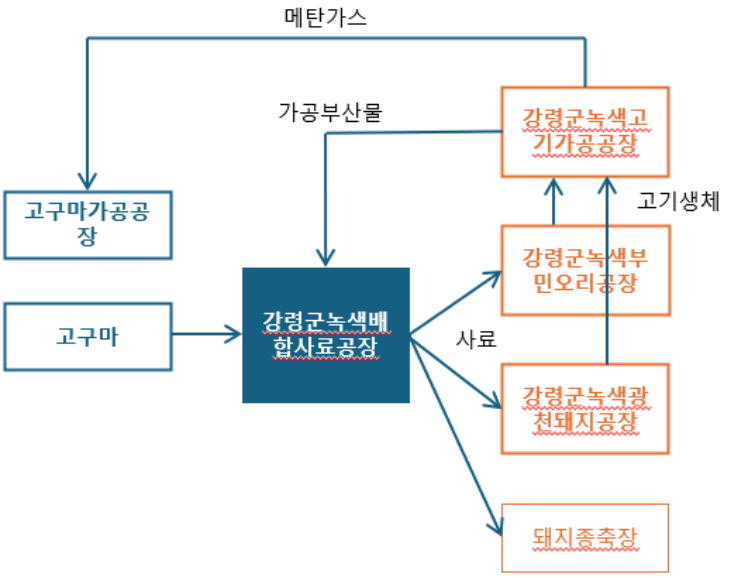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믹스 등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한 통합적인 지방개발계획이다. 조선의무역(2025)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광천리와 부민리 일대를 녹색산업구역으로, 바다를 면한 부포리 인근을 해양산업구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경제개발구 3.5㎢ 외에도 기능별로 분화된 구역에 대해서도 해외투자 유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조선녹색위업연구개발회사는 강령군 광천리, 부민리 인근의 녹색산업구역 내 △배합사료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 △고기가공공장에 대한 투자정보를 공개했으며, 부포리 인근의 해양산업구역 내 △다시마기능성식품공장 △수산관광식품공장, 등암리 인근의 전복배양장(양식장)에 대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강령읍과 가까운 내륙지역에는 농업-축산업-가공공업 순환생산체계를, 바닷가 지역에는 수산업-가공공업 순환생산체계를 구상한다.

[표 1] 조선녹색위업연구개발회사 강령군 투자유치 계획

	위치	면적 (㎡)	생산품 (톤)	투자액 (만 달러)
강령군녹색부민오리공장	부민리	40,000	오리생체 500	175
강령군녹색고기가공공장	광천리	10,000	돼지고기 622, 오리고기 237 훈제, 순대, 고기간장 등 가공품	365
강령군녹색광천돼지공장		-	돼지고기 1,000	160
강령군녹색배합사료공장		6,000	배합사료 4,500	85
강령해양산업구다시마기능성식품공장	부포지구	15,000	절인다시마 1,400 건다시마기능성식품 1,100	74
강령수산관광식품공장		-	조개류 1,000 생물고기류 1,000	67
강령군전복배양장	등암리	12,000	2,000만(마리)	132

자료: kftrade.com.kp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2〉 광천녹색산업구역 순환체계 모식도

광천리 6만㎡ 부지의 광천녹색산업구역은 강령군녹색배합사료공장을 핵심으로 돼지공장, 돼지종축장이 위치하여 순환체계를 이룬다. 강령군 내 주요 산물인 고구마 5만톤과 고구마가공공장 부산물, 고구마넌출(줄기) 알파사료, 애국풀, 녹색고기공장 부산물을 원재료로 해 돼지먹이 연 4,000톤, 오리먹이 연 500톤을 생산하는 것이 1단계이며, 생산된 사료를 돼지공장과 오리공장, 돼지종축장 등 축산기지에 사료로 공급하는 것이 2단계, 돼지 및 오리공장의 종축을 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을 생산하고, 생산과정시 배설물을 메탄가스 생산공정에 보내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3단계다. 3단계 시 발생되는 고기가공부산물 또한 1단계의 배합사료 생산시 사용된다.

광천녹색산업구역 외에도 부포항 인근을 해양산업구로 설정한 점이 확인되나 해양산업구의 순환체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광천구역의 사례는 기존에 각 농장에서 진행되고 있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의 기본적인 모델을 가져오되 가

공공업을 추가한 모습을 띤다. 군 내에서 생산된 고구마 줄기와 부산물을 배합사료공장에서 가공해 돼지공장과 돼지종축장, 오리공장에 공급해 육류를 확보하는 한편, 일부는 고기가공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한편 각 공장의 부산물로 비료와 메탄가스를 생산해 농업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다. 농업과 축산업 결합에 농축산 가공업을 추가적인 고리로 더한 순환생산체계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평가와 전망

강령시범구의 순환생산체계는 사료 생산-고기 생산-고기 가공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생산 부문을 연결시킨 것으로 북한의 분류에 따르면 '혼합형 순환고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축산기지를 중시하는 사례와 달리 강령시범구는 축산업에 필요한 배합사료 생산을 핵심에 둔다. 농업 생산량 증대가 아닌 축산업 활성화와 축산 가공업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고기 및 가공품 생산 과정의 부산물을 고구마 생산을 위한 비료로 활용하거나, 메탄가스 생산도 언급되지만 이러한 순환 공정은 부차적이다. 고구마 등을 배합사료로 만드는 공정이 핵심이며, 이를 활용한 축산가공품 생산공정을 운영해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북한의 축산업 발전에서 곡물사료 부족이 핵심적인 장애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고구마를 원료로 한 배합사료 생산을 핵심으로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다. 북한의 '고리형 순환체계'가 축산 부산물을 활용해 비료를 최소 투입해 곡물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축산업을 중시하면서도, 녹색산업구역의 목표는 고기 생산량 증대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이다.

중국이나 한국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강령군 전체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전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지 않고, 군을 몇 개의 산업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구역이 전문화된 순환체계를 현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은 강

령군 전체를 생태군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광천녹색산업구역 외에도 부포리 해양산업구역 등에도 순환체계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순환체계에서 메탄가스를 활용한 에너지를 생산해 인근 기업과 가정에 공급할 계획을 두고 있어 군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령군의 구상은 생태산업단지보다는 중국의 생태농업단지 개념에 보다 가깝다. 중국의 실험적 생태농업단지에 해당하는 류민잉생태농업단지의 경우 농업－축산업－임업의 연계를 이루고 종곡을 가공하는 순환체계를 둔다(卞有生 외: 1985), 핵심 산업의 차이는 있으나 1차산업 간 연계와 가공업의 연계를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즉, 강령군 계획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가공업과 농업이 배치되는 생산과 가공 복합시설 성격을 갖는다. 생태농업단지 규모가 보통 2㎢ 내외로 조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녹색시범구역 3.5㎢는 확장성을 확보한 생태농업단지로 기능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생태산업단지의 경우 다수의 산업시설이 입지하여 △공정간 원부자재 교환 △공동 에너지 △공동 폐수처리 등을 통해 폐기물 감축과 에너지 절약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재 북한의 구상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요컨대 전통적인 북한의 '고리형 생산체계'가 비료량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유기질 비료와 축산 비료 혼합을 통해 극복하는 시도인 것과 달리 강령군국제녹색시범구는 기존의 '고리형 순환체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돼지, 오리 사육과 가공에 특화된 순환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돼지 사육(조충희 2018)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 축산업의 새로운 실험이라 할 만하다.

5. 남북 생태환경 협력에의 함의

여전히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만, 농업이 아닌 축산업을 중심에 둔 순환경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은 식생활

다변화와 고기 수요 증가 등 북한의 식량 상황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2017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세포등판 축산기지를 운영하기 시작한 데 이어 강령군 자체 계획으로 돼지, 오리 및 조개와 다시마 등 지역 자연자원 활용에 기반한 생태농업단지 구상을 내놓고 있다. 지역 기반의 생태농업단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자원 재배와 채취 등의 부수적인 경제활동이 발생하므로 지역경제로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발생 가능하다.

농축산업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낮은 편인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 농축산업은 인민들의 먹거리 문제와 연관된 핵심 산업이다.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농축산물 생산량 증대, 가공식품 생산을 비롯하여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등 순환경제를 실험하면서 지역 기반 농축수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본격화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으로 각 지방별 특색에 맞는 지방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군 전체에 걸쳐 구축될 예정인 강령생태군 시범 건설은 강령군의 지방경제 건설 전략과도 조응하는 구상이다. 특히, 생태농업단지 건설을 통해 폐기물 배출을 최소하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생태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는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한국이 강령개발구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북한의 구상을 고려할 때, 산업정책이 아닌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간 당국 차원에서 시행된 남북 농업협력은 비료와 쌀 지원 같은 현물 지원 중심이었다. 민간에서는 지역 개발과 농업 협력을 결합하여 평양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과 협력해 시설채소 시설 지원, 농로 및 도로 포장, 농가 및 학교,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개보수, 도정 및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등이 이루어져 개발지원으로의 초보적 전환이 시도된 바 있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 강령군의 순환체계 구축 계획이 강령군 내 개별 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 지역협력의 일환으로 강령군이 돼지 및 오리, 육가공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험에 바탕해 원자재 생산-제조-가공-유통 과정에 이르는 ISO 22000 인증 등 국제적인 표준을 획득하도록 환경경영체계와 관련한 정보와 기술, 실천사례 경험을 상호 학습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도 국가규격제정연구소의 주도 하에 품질 관리와 보증 관련 ISO 9000, 환경관리체계 ISO 14000 국가 규격을 제정하는 한편 규격자료기지(DB)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비에 힘쓰고 있으므로(조광래 2023) 국제사회 표준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접촉과 협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민간이나 정부가 제3국을 경유한 투자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 있어 남북한 간 신뢰를 쌓아가되 단계적으로 투자 지분 조정 등을 통해 남북한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 또는 제3국을 경유한 간접 투자가 중단되어 있는 남북 협력의 실질적 재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북한의 지방발전 계획과 국제협력 계획, 한국의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이 정식화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하에서 남북한의 직접 협력 방안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역간 협력에 있어 현장의 요구와 참여를 전제하는 아래로부터의(bottom-up) 방식이 필수적이라 할 때, 강령군이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의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lfaro, Jose, and Shelie Miller (2013) 'Applying Industrial Symbiosis to Smallholder Farms.'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18 (1): 145-154.

Chertow, Marian R. (2000) 'Industrial Symbiosis: Literature and Taxonomy.' *Annual Review of Energy & the Environment* 25 (1): 3-13.

Helenius, Juha, Sophia E. Hagolani-Albov, and Kari Koppelmäki. (2020) 'Co-Creating Agroecological Symbioses (AES) for Sustainable Food System Networks.' *Frontiers in Sustainable Food Systems* 4 (November).: 588175

Kim, Eunice Jieun (2017a) *GGGI Case study_China's Green Special Economic Zone Policies*. Seoul: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2017b) *GGGI Case Study_Greening Industrial Parks - A Case Study on South Korea's Eco-Industrial Park Program*. Seoul: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Kim, Yong-Nam, and Nam-Chol O (2022) 'Implementing a Pilot Scale-Eco-county Concept Towards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ility.'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ility* 2 (3): 1187-1191.

Lowe, Ernest (2001) *Eco-Industrial Park Handbook for Asian Developing Countries Report to Asian Development Bank*.

Neves, Angela, Radu Godina, Susana Azevedo, and João Matias (2020) 'A Comprehensive Review of Industrial Symbiosi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47 (February): 119113.

Pyongyang Times (2014) "Green Model Area in the Making." *Pyongyang Times*, October 1, 2014.

김광철(2009)「순환경제의 발전은 현시기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경제연구』1, 8-9.

김향미(2015)「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형태와 방식」,『주체농법』8, 7-8.

김혜진(2021)「중국의 생태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특징 연구」,『중국연구』88, 253-275.

박배균·이승욱·조성찬(2017)『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 예외공간』. 서울: 알트.

박준모·김형우·박홍석(2014)「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전략과 성과평가」,『대한한공공학학회지』36(12), 803-812.

오윤정·박순성(2023)「북한의 재자원화정책과 순환경제」,『환경정책』31(1), 47-73.

오윤정(2024)『북한의 지역순환농업 '고리형순환생산체계' 분석』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서울: 숲과나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2009) "농업지원사업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

유찬주·박현태(2009)「자원순환형농업의 현황과 과제」,『농업전망 2009: 한국 농업, 농촌 도전과 새로운 희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무근(2020)「북한 유기농업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북한연구학회보』24(1), 207-238.

윤성이·박선호(2009)「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36(1), 158-178.

윤정성(2020)「록색 제품의 품질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경제연구』4, 37-38..

이경수(2022)「김정은 시기 환경 인식 변화와 경제정책:『경제연구』문헌 분석을 중심으로」,『통일연구』26(1), 5-35.

_____(2024)「북한의 녹색경제 이행 담론과 생태근대화론: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과 비교적 시각」,『북한연구학회보』28(2), 189-214.

이종석(2013)『북한의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과 NLL』, 정세와 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이지은·허승욱(2009)「생태산업적 지역농업의자원순환시스템 유형 및 구축방안」,『한국유

기농업학회지』 17(2), 151-170.
정은미(2013)「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현대북한연구』 16(1), 214-254.
정학균, 임영아, 강경수(2020)『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광래(2023) "규격화 령역을 확대해간다."『내나라』, October 14, 2023.
조선의 무역(2025) http://www.kftrade.com.kp/index.php/investment/index?lang=kp
조충희(2018) "북한 출신 수의사 조충희 씨의 북한축산 바로보기."『축산신문』, June 28, 2018.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15946.
통일교육원(2021)『북한 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한창록(2008)「순환경제에 대한 일반적리해」,『경제연구』 4, 27-28.

한국불교에서 조왕신앙 수용

Acceptance of Jowang Folk Beliefs in Korean Buddhism

장정태*

한국서민불교학회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국불교 속에 유입된 조왕신앙이 불교의 기본 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 우리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입된 불교는 불교 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및 예술을 전파하게 된다.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로 사찰을 들 수 있다.

사찰은 불법(佛法)을 수행하는 승려들의 거주지이며 또한 신도들에게는 가족이나 자신의 안녕을 빌기 위해 들르는 곳이다. 즉 신도들과 수행자인 승려들의 공동공간이 되는 셈이다. 이 사찰에는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 대웅전을 비롯 전래의 전통 신앙인 산신, 도교의 칠성을 모시는 전각 등 불교, 도교, 민간신앙적 요소가 습합되어 자신들의 고유영역을 전승시켜오고 있다.

2. 동양 종교문화에서 조왕신앙

조왕(竈王)은 조(竈)자와 왕(王)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낱말로서, 유사어로는 조신(竈神), 조군(竈君) 등이 있다. 조(竈)는 아궁이, 부뚜막, 부엌, 부엌 귀신을 의미한다. 즉, 조(竈)자 자체가 부엌에서 모시는 신령을 의미한다. 이에

* JANG Jeongtae (President of the Korean-Academy of Civil Buddhism, Dongguk Univ.Ph.D)
E-mail: samgukyusa@hanmail.net

王이 결합되는데, 왕은 임금 또는 군주를 의미하는 용어로, 여러 중의 '으뜸'을 나타낸다. 우리 민속신앙의 신령 중에 접미사로 王자가 붙는 신령은 업왕(가리), 성주대왕, 용왕(龍王), 뒤주 대왕신(大王神), 천왕신(天王神), 부군신(府君神), 일월성군(日月聖君) 등이 있다. 즉, 어미에 왕(王)자를 붙이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어떠한 사물을 신격화할 때 붙이는 어미로 보인다. 왕(王)자와 같이 신격화할 때 쓰이는 어미로는 대감, 주 등도 있다.

가정에서의 조왕신앙은 우리들 주부가 사제자가 되어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대상이었다. 한 집안 식구 중에 멀리 출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면 그 사람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서 부뚜막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가 조왕신에게 밥을 굶지 않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것이다. 가정 내 여타 가신신앙과 다르게 직접 가정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으로 있던 가족이 무사히 귀가 후, 딸의 경우 출가를 하게 되면 치워지는 합리적인 신앙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민간신앙적 요소가 불교가 전래 이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친화적 포용성은 이들 신앙을 흡수하게 된다. 전통사찰뿐 아니라 빌딩 숲속에 자리를 잡은 포교원(사·암) 공양간(부엌)에도 조왕을 발견하게 된다.

조왕은 주부들에 의해 신앙이 되는 가신 신앙적 요소와 무속[1](『한국 민족종교문화대백과사전』, 2025년 3월 27일 검색)에서는 불을 관장하는 신으로 화덕이라 칭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조왕으로 모두에게 신앙되는 흔치 않은 신앙이다. 아울러 가신으로 조왕은 여성 신으로 무속과 불교에서는 남성 신으로 신앙이 되는 특이한 신앙형태다. 우리는 불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배타적 신앙이 아니라 포용과 친화력으로 기존 토템적 요소, 샤마니즘적 요소 모두를 받

1 무속은 민간사고가 집약되어 무당(만신,shaman)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종교현상이다. 국내 어느 지역에서나 행하여지는 무속의 기본제의로는 성줏굿, 삼신굿, 지신굿, 조왕굿 등 민가의 가신에게 기원하는 제의와 서낭굿, 당굿 등 마을의 수호신에게 기원하는 제의가 있다…. 무속은 민간 층의 종교의식이 집약된 것으로 한민족의 정신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생활을 통하여 생리화한 신종교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 민족의 기층적 종교현상인 무속을 한국의 종교사적 측면에서 보면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적 형태의 종교현상이다.

아들였다.

조왕은 한국 어디를 가나 민가의 부엌 부뚜막 뒤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부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신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원래는 중국 도교에서 유입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태곤은 한국의 재래신앙 속에 이미 화신(火神)이 있었으며, 이것은 자연스레 부엌이 불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조왕신앙도 전래의 고유사상 위에 도교 사상이 습합된 것으로 본다. 더구나 "조왕은 국내 절에서도 신앙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교의 조왕신앙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민간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태곤은 도교와 무속이 이렇게 상호 작용을 주고받게 된 주된 원인은 그들이 모두 '미분성(未分性)에 기반을 둔 원본(原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무속과 도교의 기저에는 근원적으로 우주 질서를 초월하려는 원본적 욕망이 있으며, 그 열망은 분화된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미분화된 초 논리의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뜻인 듯하다. 홍일식은 조왕을 우리의 토속신으로 보고 있다. 산신을 비롯해 27종류의 신으로 분류하고 있다.(홍일식 1976:54)

그 가운데 2번째에 조왕(竈王)을 소개하고 있다. 홍일식의 토속신 순서 매김이 단순히 편의에 의한 순서를 정한 것인지 우리 사회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왕을 상위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에 밀접한 신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교에서 유래되었다는 조왕은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에도 등장하고 있다.[2]

>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서 임금을 만나려고 하자, 대부 '왕손가'가 자기 나라 임금보다 권신인 자신에게 잘 보여 벼슬자리를 얻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를 짐짓 떠보려고 공자님께 물었다.
>
> "'집주인이 모시는 신주보다 차라리 부뚜막 귀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
>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2 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론 寧媚於竈라하니 何謂也잇고 子曰 不然하다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니라(『논어』 팔일편)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논어』 팔일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임금에게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권세를 가진 남자(男子)나 이자하(爾子瑕)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에 공자의 대답은 "그 말은 잘못되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한들 소용이 없고, 누구에게 아부해도 안 된다"라는 말이다. 공자(B.C. 551~B.C. 479)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어느 정도 세속적 권세가를 통해 자신의 입신을 청하기보다 조왕과 같은 신에게 빌어 입신을 구하던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민간신앙적 요소가 불교가 전래 이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친화적 포용성은 이들 신앙을 흡수하게 된다.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빌딩 숲속에 자리를 잡은 포교원(사·암) 공양간(부엌)에도 조왕탱화를 쉽게 발견하게 된다. 조왕은 주부들에 의해 신앙되는 가신 신앙적 성격과 민간신앙에서는 불을 관장하는 화덕장군으로 불교에서는 조왕으로 모두에게 신앙되는 흔치 않은 신격(神格)이다. 아울러 가신으로서 조왕은 여성 신으로, 민간신앙과 불교에서는 남성 신으로 신앙이 되는 특이한 신앙 형태이다.

3. 불교에서 조왕신앙 수용

우리나라에서 조왕신앙 연구는 문헌상 이수광(1503-1628)의 『지봉유설』을 비롯하여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다. 영문잡지에 소개되었다(Jang Jeong tge 2014).

사찰에서 신앙의 대상인 조왕은 사찰안내 책자에도 소개되지 않는 신앙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원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존재이다.

조왕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능화는 조선 중기에서 치제했고, 또 주자가 제하였기 때문에 송조때 벌써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나 모방했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불교에서 조왕은 민간신앙이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불교적으로 정화되어 수용되었다. 황신(荒神)이라 불렀으며, 부엌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 기원은 불을 다루는 데서 비롯되었다. 조왕신앙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일차적으로 조왕으로서의 역할과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의 역할 등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적인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포용 되었다. 신중탱화의 하단위목(下壇位目)에 위치하여 인사(人事)를 감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려내는 신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중으로서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독립되어 각자의 역할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조왕단과 조왕탱화가 생기게 된다(대주 2010:201).

사찰안내 도록에도 잘 소개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인 공간에서 신앙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의 후원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제한적인 사람들에 의해 신앙되는 개별적인 신앙의 성격이 강하다.

『석문의범(釋門儀範)』(김승동 2011: 572)에 의하면 사찰의 부엌에는 대개 조왕신을 모시게 되는데 솥이 걸려있는 부엌의 한 중앙 벽에는 그림 대신 나무조왕대신(南無竈王大神)이라는 글자를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3] 조왕신을 중심으로 왼쪽에 도끼를 들어 언제든지 장작을 쪼개려는 모습을 하는 담자역사(擔柴力士)와 오른쪽에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공양물은 받쳐 들고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조왕탱화는 마곡사(충남), 세광사(양주시), 연주암(과천시), 흥국사(남양주시) 이와 반대로 좌측에 조식취모, 우측에 담시역사로 그려진 탱화는 마하사(부산시), 회암사(양주시), 조계사(서울시), 경국사(서울시), 성불사(천안시) 그리고 조왕을 한 명의 남성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곳으로는 용궁사(인천시), 운문사(청도군), 호불사(인천시), 대원사(전라남도 보성) 그 외 청계사(의왕시)는 공양간에는 조왕 혼자 식당에는 좌측에 담시역사, 우측에 조식취모를 안정사(서울시)는 무장한 남자 무사 두 명이 조왕을 호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조왕단에 조왕탱화 대신 '나무 조왕대신(나무 조왕대신)'

3 강원도 월정사 공양간에는 탱화가 아닌 '나무 조왕대신', '나무 담시 역사', '나무 조식취모'라고 쓴 위패형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라는 글자를 써서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화봉사(포천시)의 경우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조계종 종단 소속 사찰은 아니지만 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설 사암이다. 이곳은 특이하게 법당 한편에 1~2평 크기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용궁, 산신, 칠성, 독성 등 다양한 탱화가 있다. 그 가운데 무속에서 불을 다스리는 장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화덕장군이 불을 들고 그 주변에 두 명의 시녀가 부채를 들고 있다.

용궁사(인천시)는 단독역사로 법회 날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이 공양간에 조왕 앞에 참배하면서 불전함에 시주한다. 이때 모인 돈을 공양주 보살의 수고비로 사용되고 있다. 도령사(구리시)는 이 절을 창건한 법사가 창호지에 손수 「옥황상제님 팔만사천 조왕님」을 써 붙여놓고 있다. 십 승지 가운데 한 곳에 자리 잡았다는 천지 수왕사(경기도 광주시), 청량사(경기도 양주시,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5호, 대한불교 미륵만불종) 공양을 준비할 때 조왕신을 모신 조왕단에 촛불을 밝히고 맑은 물과 함께 공양을 올려둔다. 사찰에 따라서는 「조왕경」을 읊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왕탱화는 석문의범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의식을 위해 참고하고 있는 의식집에 조왕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위치와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교계 주류신앙으로 조왕이 대접받았다기보다. 공양간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자들의 개별적 신앙이 되면서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감이 있다.

사찰에서는 조왕하강일(竈王下降日) 갑자, 갑오, 갑진, 을축, 을해, 을묘, 을유, 병신, 병술, 정묘, 무자, 임인, 임신, 계육, 계축, 계해일 등에는 조왕제를 지내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조왕제 길일은 갑술, 갑신, 갑진, 을유, 을묘, 병오, 정묘, 정해, 정유, 기묘, 기축, 기유, 경진, 신해, 신유, 계묘, 계해일 등이다. 매월 6일, 13일, 14일은 조왕단의 인등대길이다. 이날은 배사형통(百事亨通)하는 날이라고 전한다. 조왕단수리일은 갑자, 갑진, 기유, 기밀일이 좋다. 조왕상천일(竈王上天日)은 을축, 을미, 기유, 기묘 일에는 조왕제를 행하기 대길이라고 한다(안진호 1970: 301-302).



민속촌 조왕(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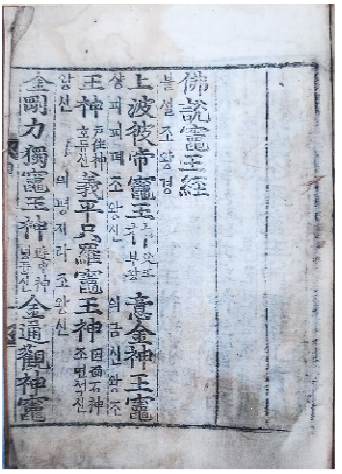


향림사(경기도 부천시)



천지수왕사
(경기도 광주)

조왕제는 조왕단이 마련된 공양간에서 행해진다. 특정 조왕제일뿐 아니라 매일의 사시 공양 시간에 헌공의례를 행하고 있는 각 전각에 올릴 마지 준비를 마친 후 공양주는 공양을 올리고 죽비를 치며 조왕단 예경을 올리게 된다.



조왕경

지심귀명례 팔만사천조왕대신
至心歸命禮 八萬四千竈王大神

지심귀명례 좌보처 담시력사
至心歸命禮 左補處 擔柴力士

지심귀명례 우보처 조식취모
至心歸命禮 右補處 造食炊母

향적주중상출납 호지불법역최마
香積廚中常出納 護持佛法亦逐魔

인간유원래성축 제병소재강복다
人間有願來誠祝 除病消災降福多

고아일심귀명정례(반절)
故我一心歸命頂禮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8만4천 조왕대신님께 예배합니다.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좌보처 담시역사님께 예배합니다.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우보처 조식취모님께 예배합니다

주방속에 쌓아놓고 마음대로 출납하며
불법을 호지하며 마군들을 항복받아
인간의 원을 따라 성취하게 하시면서
병과 재앙 다 없애고 복 많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귀명정례하옵니다.(안진호·한정섭 2009: 293-294)

〈조왕단 예경문〉

여기에서 조왕과 산신은 모두 비 불교적이다(석지현 외 2인 2011: 85).

그런데도 불교의식문의 「신중청(神衆請」을 보면 "내호조왕 외호산신(內護竈王 外護山神)이라하여 집안에서는 조왕신을 밖에서는 산신을 최고로 치고 있다.

공양간 출입문에는 한 쌍의 신장을 그린 곳이 많다. 사천왕이 사찰 입구에서 불법을 지키고 있다면 공양간을 삿된 침입자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무장의 복장으로 칼과 창을 들고 있다.

4. 속신(俗信)에서 조왕신

조왕(竈王)은 가정의 여러 신 중에서 부엌을 관장하는 부뚜막의 신이자 불의 신으로 모셔진다. 조왕의 신체로 부뚜막이나 솥의 근처에 물을 담은 그릇을 올리거나 신체가 없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그 외에도 솥과 솥뚜껑, 부적 등 다양한 신체(神體)로 모신다. 부뚜막이 없는 제주도에서는 솥을 괴는 솟돌 세 개를 '삼덕'이라 하여 불의 신으로 모셨다.

속신으로 조왕은 많은 지역에서 조왕각시나 조왕할머니 등으로 불리며 여성신으로 인식된다. 또한 제주도 무속 신화 《문전 본풀이》에서도 조왕은 집안의 가장(家長)인 성주의 부인으로 등장한다. 조왕신은 태어난 아기나 가족들의 건강도 관여한다고 여겨지기에 여성들에게는 성주신 다음으로 중요하게 모셔진다. 또한 조왕신은 불의 신으로, 불은 그 집안의 재산을 상징하기에 '불씨를 꺼

트리는 며느리는 곧 재산을 날리는 소박데기 감'이라는 내용의 민담도 전해진다(김명자 2005: 177-207).[4]

조왕신(竈王神)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온 것이지만 부엌을 관할하는 화신(火神)을 모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삼한시대부터 조왕신을 모시는 행위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박대재 2009: 514-519).[5]

부뚜막을 사용한 이후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엌의 화신을 모시던 토착 신앙이 중국에서 조왕이라는 명칭과 함께 신앙적 요소가 전해 내려오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박대재 2009: 523).

조왕신에 대한 의례는 날짜를 정해서 하거나 안택고사를 할 때 다른 가정신과 함께 조왕신에게 의례를 하지만,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인 정화수로 물그릇의 물을 교체하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때 조왕신에게 하는 의례의 주체는 부엌의 운영 주체인 여성이다. 조왕을 모시는 주부들은 남들이 손대지 않은 깨끗한 우물물을 뜨기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물을 떴다. 물과 불을 다루어 부엌에서 만드는 음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절대 필요한 요소로,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화로가 있고, 부뚜막엔 가장 정갈한 정화수가 있다. 물이 불을 끄는 상극관계이지만 불을 끄자는 것이 아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신체이고 물이 제물인지 아니면 불과 물이 따로따로 조왕을 상징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조왕신을 가마 도(부뚜막)심이라 하여 집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기능을 믿고, 중국에서는 조왕신이 집안 식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보고하여 인간들 선악의 행동에 따라 길흉화복을 내린다고 믿고 있다.

조왕신을 여신으로 보고 '조왕각시', '조왕할망' '조왕대감'이라고도 부르며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부정 타지 않도록 공을 들인다. 또한 불

4 경기도 지역의 성줏굿 무가에서는 조왕이 할아버지나 부부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조왕신은 여성이다.

5 1990년대 이후 삼한의 주거유적지 발굴조사에서 부뚜막의 좌우에 토기를 올려놓기 위한 작은 점토 단과 소형토기가 나타나는데, 이를 부뚜막 신앙의 흔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 정화 능력이 있어서 초상집 같은 부정한 곳을 다녀오면 불을 뛰어넘어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였다.

민간에서 조왕은 부엌의 신으로 부정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신이다. 조왕은 부녀자들과는 매우 가깝고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므로 자연히 집안 식구들의 건강과 관계된다. 더욱 한국의 전통 습속에서의 불이란 부정을 풀어버리게 하는 것이므로 밖에서 부정한 것을 보거나 문상을 다녀오면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엌에 들러 부정을 태우게 된다.

조왕신의 신위는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 놓거나 밥그릇에 쌀을 담고 촛불을 켜둔다. 일부 지방에서는 작은 단지에 쌀을 집어넣고 한지로 잘 덮어 두기도 하는데 굿의 의식에서도 본 굿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조왕에게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만 보아도 조왕신이 부정을 없애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왕이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올라간 시간 부엌에는 신체(神體)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을 제주도에서는 '신구간(新舊間)' 교체라고 한다.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大寒) 후 5일째부터 새로 시작하는 입춘(立春)이 되기 3일 전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대하는 과도기간으로 지상의 모든 신격(神格)이 하늘에 올라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오기까지의 공백 기간이다. 이때는 그해의 운수가 불길하거나 길일(吉日)이 없어 채 이루지 못한 건축·수리·면례(緬禮)·이사 등 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을 날을 가리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민간에서 조왕은 여성 신으며 그를 신앙하는 주체도 여성이다. 주부가 사제가 되어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조에도 유교의 가례는 남성 중심에 비해 가신적 성격의 조왕은 여성 사제권이 부여된 독특한 신앙 형태이다. 사제자로써 여성은 첫 새벽에 정화수 한 보사기(밥상이나 주안상에 김치나 찌개 등 국물 있는 반찬을 담는 데 쓰는 그릇)를 바치며 소망을 기원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새벽에 부뚜막 앞에 앉아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면서 소원성취를 비는 기도형식은 후일 한국 개신교의 독특한 새벽기도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새벽기도회의 참여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인 점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 내용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성이 부엌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아궁이에 불을 때며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부뚜막에 걸터앉거나 발을 올려놓는 것은 금기사항이 있다.

전통사회에서 부엌의 기능은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목욕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친정엄마와 딸의 교육이 이루어지던 교육장의 역할을 겸했다. 반상의 구분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식당으로도 이용되었다.

신체와 관련된 명칭으로 조왕 물그릇(전남) 조왕 중발(전남) 조왕 단지(전남) 조왕 보새기(전남) 의인화해서는 조왕(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서울, 제주, 전남) 주왕(전북, 충남) 조왕님 내(충남) 조왕님(충북) 조왕할매(충북) 조왕대감(충북) 조왕신(강원, 경기, 충북, 전남) 주왕 각시(경기, 서울) 정지각시(경북) 조왕각시(경북) 주왕 대감 조왕할망(제주) 조상대감(충북) 삼덕할망(제주) 모시는 장소에 따라 부뚜막신(강원, 서울) 부엌 신(경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삼덕조왕(제주) 성격상 화신(火神 강원, 전남) 불신(경기, 서울) 화덕장군(火德將軍;충남) 화덕씨(火德氏, 전북) 화신대장(火神大將, 충북) 화덕진군(제주) 화덕새(전북) 화덕사천군(충북)(신영순 1993: 4) 등 지역과 역할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5. 무속(巫俗)에서 조왕

무속은 무(巫)를 중심으로 한 민간 층의 전승적 종교현상을 말한다. 巫는 위에 "一"자는 천(天) 또는 신령을 뜻하고, 아래 "一"은 땅 또는 인간을 가리킨다. 가운데 내려오는 "丨"은 하늘과 땅, 신령과 인간의 중계자 상징이다. 그리고 양쪽 "人"은 두 명의 남녀를 가리키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속에서 사제자는 지역에 따라 무당(여자), 박수(남자) 신방(神房) 등으로 불린다. 이들이 무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강신과 집안의 가업으로 무업을 이어가는 형태다. 그리고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굿청에 나오는 기능인으로서 무속인이다. 한국에서 무속의 역사와 관

련 "단군신화"(유동식 1983: 32) (이능화 2016: 71)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속은 세계 곳곳에 분포를 보이는 종교 행위로 공통적인 용어로 "샤머니즘"이다(리오넬 오버디아 2007: 164-165).

샤먼은 "탈혼망아의 전문가","택함을 받은 사람"이며 인간의 영혼에 관한 한 위대한 전문가이다. 샤먼만 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그들만이 영혼의 "모양"과 영혼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미르치아 엘리아데 1996: 25-28). 이와 같은 의식은 무속인들의 저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7]

샤먼의 기능은 영혼과 교신을 통해 미래를 알아내는 것과 함께 굿이란 의례를 통해 신자들과 교감을 하는 것이다.[8] 굿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굿이란 재앙을 풀고 행복을 초래하기 위한 무행신사(巫行神事)이다. 굿은 지역에 따라 거리와 형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열두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성주 거리에서 조왕굿은 밥을 해서 솥에 주걱을 꽂고 부뚜막에 과(菓)를 놓고 무속인이 그 앞에서 조왕굿을 무가를 구송한다(김태곤 1995: 66). 이처럼 무속에서의 조왕은 재가집(의뢰자)에 요청이 있을 때 행해지는 굿 의식으로 무당이 집안의 운수를 비는 안택굿을 할 때 포함되는 굿이다. 큰 굿에 속하지 않고 단순히 비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때 외우는 조왕경은 독자적이라

---

6 '단군'이란 명칭은 필경 하늘을 뜻하는 알타이어 '뎅그리'(Tengri)의 음을 딴것이요, '왕검'의 '검'은 신령을 뜻하는 '캄'(Kam)의 음역을 따서 한자로 각각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서 '단군왕검'은 천신 하나님을 뜻하는 'Tengri-Kam'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군이란 단순히 시조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요, 신인(神人) 또는 무군(巫君)을 뜻하는 말이다. 삼국시대의 사제를 불러 천군이라 했고 지금도 호남지방에서 세습무를 불러 '단굴'또는 '단골'이라 하는 것은 모두 그 어원을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 민족은 상고시대에 신시가 있어 자신들의 종교로 삼았으며, 천왕 환웅과 단군왕검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 혹은 신과 같은 인간이라 했다. 옛날에는 무당이 하늘에 제사하고 신을 섬겼으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7 김찬동, 『신을 만나는 사람』, 열린지성, 1996., 심진송, 『신이 선택한 여자』, 백송, 1995., 진선미, 『내가 무당을 사는 이유….』, 중앙 M&B, 1998., 이지현, 『신이 내게 모델보다 무녀가 되라 하셨다』, 신어림, 1997., 조자룡, 『신을 선택한 남자』, 백송, 1996.

8 이애경, 『혼의 소리 몸의 소리』, 도서 출판 솔과학, 2003., 김병기, 『선무당이 사람 잡네』,자음과 모음, 1998., 김백순, 『별 미친년 다 봤네』, 도서출판 한빛, 2000., 김희수, 『작두 위에서 내려다본 인간 세상』, 욱일출판사, 2009., 정정희, 『내가 울어야 너희가 편하지』, 명상, 2000.

기보다는 불교와 도교에서 좋은 경문만을 발취하여 만들었다(赤松智城·秋葉隆 1991: 239-240).[9]

무가를 정확하게 구송과 암송하면서 신을 찬탄하는 찬불(송)보다. 재가 집과 굿청의 분위기에 크게 좌우된다. 때에 따라서는 찬송가 가사나 성경에 구절도 인용되기도 한다. 현실 문제에 관심이 높은 무속인의 경우 그 시대 상황과 처방을 집어넣기도 한다. 다시 말해 무속의 경문은 독경형식을 빌려 설교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렇듯 경문이 이탈되어 구송하고 있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무경의 특징이다. 이런 형식에 의해 민간신앙에는 올바른 경전이 없다고 평가하는데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교주의 가르침도 사실은 당시 사회에 떠도는 이야기들의 조합임을 감안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경의 특징은 즉흥성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참여적 성격을 말할 수 있다.

이때 구송되는 경문을 살펴보면

조왕동토경(竈王動土經)
재나무재나무병부와의부는대대장군
병부왕의모는음양부인이라
흙골음돌골음나무쟝목을
달운탓으로동토법이라
동방토신동토경, 남방토신동토경
서방토신동토경, 북방토신동토경
즁앙토신동토경, 동방토신동토경
남방목신동토경, 서방목신동토경
북방목신동토경, 즁앙목신동토경
동방대세동토경, 남방대세동토경

9 무경의 유래는 본디부터 명확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의 도가류의 경문과 불전을 의용하거나 답습 또는 모방하였다. 혹은 함부로 불설에 가탁하여 만든 위경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무경은 조선 시대에서 대략 고려 시대에 나타났고 차츰 조선조로 들어오면서 속출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도교와 불교의 습합은 신라 시대에 발생하였고, 고려로 들어와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시각장애인 점장이나 시각장애인 승려들에 의해 독경 되고 있다.

서방대세동토경, 북방대세동토경
즁안대세동토경, 상계죠왕동토경
즁계죠왕동토경, 하계죠왕동토경
갑오생님동토경, 을해생님동토경
능흠생님동토경, 구흠생님동토경
호늠생님동토경, 대세왕의부선군
수업함한구인왕천부인
병부왕불명보인동토지신, 명월목동오작조서
부지동서남북외렬하지, 부지동서남북어명
급급여율령사바하

〈『조선무속의 연구』 赤松智城·秋葉隆 1991: 361〉

조왕경은 부엌에서 외우는 경이다. 무속에서 독경은 도교, 불교, 무속신앙이 합쳐진 양상을 보인다. 그렇지만 무조건 합친 것은 아니고 기능에 따라 필요한 신을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왕경은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조왕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집안에서 안택굿이나 시루 고사, 집고사, 지신밟기 때에도 다른 가신과 함께 조왕에게 의례를 행하지만, 평상시에도 조왕중발의 물을 매일 갈아 올리고 부뚜막 위에 시루떡이나 백편, 나물, 물 등 제물을 차리고 주부가 직접 하거나 독경자를 초청 축원을 하기도 한다. 독경자는 주로 경문을 읽는 사람을 말한다. 문경지역에서는 정월 열 나흗날 밤에 조왕제를 올리거나 정초나 7월, 10월 등에 집안의 치성(致誠)을 할 때는 성주에게 하듯이 조왕신에게도 조왕신을 차려놓는데 대개 목판에 간단히 차려서 부뚜막에 올려놓는다. 울릉도에서는 정월 대보름 저녁에 독경자를 불러 부엌에서 조왕제를 지낸다. 밥은 한 솥 해서 숟가락을 꽂고 부뚜막 위에는 간단하게 볶은 나물과 물을 갖다 놓는다. 그다음 독경자가 시키는 대로 절을 하기도 하고,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매달 초하루, 초사흘과 보름, 유두, 백중, 추석, 섣달그믐의 명절과 24절기, 부모의 제삿날, 가족의 생일, 신축일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고 굿을 할 때는 무당이나 심방이 미리 와서 준비한다.

조왕은 부엌이란 공간에서 행해지는 가신신앙으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 3국에서 공히 신앙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에서 조왕은 조신(竈神), 조군(竈君) 또는 사명조군(司命竈君)이라 하며, 수명과 복을 관장한다고 한다. 이 신에 대한 제사는 기원전 133년 한나라 무제 때 시작되었으며 조왕의 초상을 부뚜막 위에 걸어 두고 섬기는데. 해가 바뀔 때마다 새것으로 바꾸고 헌것은 태워버렸다. 중국 고대의 제신 가운데서 부엌 신은 사람들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에서는 음력 12월 23일이나 24일에는 조왕신을 천상에 보내는 의식을 행해야만 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음력 1월 4일로 되어있다. 이 때는 조왕신의 새로운 그림 상을 붙이고 조왕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왕신은 하늘에 올라가 옥황대제에게 사람들의 〈선악 공과〉를 죄다 고하는데 이는 온 집안 식구의 화복, 요수와 관계되는 큰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왕신을 공경하면서 〈조군마(竈君馬)〉(조군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색종이)와 〈송조군상천소(送竈君上天疏)〉(조군을 추켜세우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복락과 재운을 지원하는 문장을 쓴 누런 종이)를 불태워 버리는 한편, 약은 수를 써서 입속에 달라붙은 엿을 사다가 조왕에게 먹이는데 이는 끈끈한 엿을 조왕신의 입속에 잔뜩 집어넣음으로써 그가 나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한다(갈조광 1993: 288).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앙 형태가 있다. 고대 일본에서 조왕(竈王)을 'かまど神(かまどのかみ)이라고 불렀다. 'かま'는 우리말의 가마솥을 의미하는 가마에서 유래하였고, 고대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전개된 이동식 부뚜막을 'かまど'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속신이 전래하였을 것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조왕신앙(竈王信仰)이다. 백제계 도래인(渡來人)의 후손인 화을계(和乙繼)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구도신(久度神)을 숭배하였고, 연력(延曆) 연간(782-806)에 평야사(平野社)를 창건한 후 거기에 화씨(和氏)의 조선신(祖先神)으로 추정되는 금목신(今木神)과 더불어 구도신(久度神) 등을 함께 옮겨 合祀시켰다(전덕재 2010: 69). 부뚜막의 일본말인 '가마도(竈)'의 '가마(釜)'는 솥, '도'는 장소(場所)를 이른다. 또 사투리인 '호(ホ)

도(卜)'의호는 불(火)을, 도는 장소(場所)의 뜻으로, "불을 쓰는데"라는 말이다(김광언 2001: 174).

조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3국에 공동으로 믿어지는 신앙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불교에서의 조왕과 가정, 무속에서 조왕으로 구분되는 독특한 신앙 형태를 띤다.

6. 맺은 말

본 연구는 사제자로써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담당했던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조왕이라는 가신신앙을 통해 조명했다. 여성의 조왕의례는 후대 개신교의 새벽기도회로 정착, 한국만의 독특한 신앙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조왕은 불의 신이면서 동시에 불을 끄는 물의 신을 신앙하는 것으로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 내 전통적인 신앙이다. 이와 같은 우리 전통 신앙은 1차적으로 불교 전래 이후에는 불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융합되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인의 심성 속에 존재하는 조왕신앙이 불교와 가정에서 신앙되던 가신신앙, 무속신앙이 융합되어 신앙되고 있는 모습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밝혔다.

조왕이란 주제가 단순히 민간에 전승되어오던 신앙 형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가신신앙과 불교, 그리고 무속에 의해 공통으로 신앙하는 총체적 민족 신앙 형태이므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는 했다. 이번에 다룬 불을 숭배하는 신앙은 기원전 5000년에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트가 창교한 조로아스터교에서 불을 성스러운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인류의 보편적 의식이다. 이와 같은 신앙 형태를 조명함으로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 가정을 이끌었던 여성들의 적극적 삶이 현대에서 사회참여를 이끌었다. 한국에서 조왕신앙은 고유신앙이며 불교와 민간에서 공히 신앙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부엌 구조의 변화로 소멸하는 신앙이다.

조왕이란 주제가 단순히 민간에 전승되어오던 신앙 형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가신신앙과 불교, 그리고 무속에 의해 공통으로 신앙하는 총체적 민족 신앙 형태이므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이끌 수 있다. 고대 조왕신앙 연구가 인문학적 특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더 많은 고유신앙의 현대적 전개를 밝혔다.



월정사(강원도)



운문사(경상북도)



봉원사연지원 조왕(서울시)



봉은사 조왕(서울시)



봉은사 문신(서울시)



선암사(전라남도 순천시)

참고문헌

갈조광 저, 심규호 역(1993)『도교와 중국문화』, 서울: 동문선, 288.

김명자(2005)「무속 신화를 통해 본 조왕신과 측신의 성격」,『한국의 가정신앙 상』, 서울: 민속원, 177-207.

『논어』

대주(2010)『불자의 길라잡이』, 서울: 알바몬, 201.

리오넬 오버디아 지음(2007), 양영란 옮김,『종교』,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164-165.

미르치아 엘리아데(1992)『샤머니즘』, 이윤기 옮김, 까치글방 75, 25-28.

박대재(2009)「三韓의 '臘日祭祀'와 부뚜막신앙」,『한국사학보』37권, 서울: 고려사학 회, 419, 514-519.

석지현 외 2인(2011)『왕초보 불교 박사가 되다』. 서울: 민족사, 85.

신영순(1993)『조왕신앙 연구』, 경산시: 영남대 석사논문, 4.

안진호·한정섭(2009)『석문의범』, 경기도: 불교 통신교육원, 293-294.

유동식(1983)『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82.

赤松智城·秋葉隆 공편(1991), 이능화 옮김,『조선무속의 연구』(상), 서울: 동문선, 239-240.

홍일식(1976)『한국전통문화시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390.

Jang, Jeong-Tae (2014) 'Acceptance of Jowang Folk Beliefs in Korean Buddhism,' *Buddhist Thought & Culture* 23,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ddhist Thought & Culture.

중국 연변조선어 모음 /ㅚ/와 /ㅟ/의 음가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An Experimental Phonetic Study
on the Vowels /ㅚ/ and /ㅟ/ in Chinese Yanbian Korean

許 秦**
도쿄외국어대학교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본 연구는 현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 의해 사용되는 조선어의[1] 모음 /ㅚ/와 /ㅟ/에 대해 실험음성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두 모음의 음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조선어는 중국 동북 3성으로[2]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중국 소수민족의 일부인 조선족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조선족의 집거 지역에 따라 중국 조선어는 여러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이들 대다수가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연변조선어는[3] 중국조선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許秦(2023)「現代中国延辺朝鮮語の音響特徴に対する実験音声学的研究-若い世代の話者を中心に-」,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 2023年 3月 23日 (본문 공개일: 2028년 3월 23일), 286頁, 博士(文学)"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수정 및 가필한 것이다.

** QIN Xu (Project Assistant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s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xuqin8181@gmail.com

1 "한국어"와 사실상 동일한 언어를 가리키나, 본고에서는 용어를 "조선어"로 통일하도록 한다.

2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가리킨다.

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변조선어 연구는 조선어 방언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여러 방언에 비해 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함경도 방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변조선어는 현재의 서울 방언에서는 상실된 피치악센트 체계를[4]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센트 연구가 음운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외의 음운적 특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정밀하고 과학적인 음향 분석을 수반하는 실험음성학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변조선어의 음향 특징을 가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모음 /ㅚ/와 /ㅟ/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연변조선어 발음 규범에서는[5] 이 두 모음을 단모음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발화에서 보편적으로 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 전학석(1996)에서는 /ㅚ/와 /ㅟ/가 연변조선어에서는 이중모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김현기(2009)의 조사에서 제보자의 25~35%밖에 모음 /ㅚ/와 /ㅟ/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중모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모음이 선행 자음을 가질 경우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이 두 모음이 위치한 음절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모음 /ㅚ/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될 경우 모음 /ㅞ/와 음가의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데 연변조선어의 경우도 /ㅚ/와 /ㅞ/의 음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해서도 음성학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두 모음의 음가의 실현

3 본고에서 말하는 연변조선어는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조선족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어를 가르킨다. 연변조선어는 독립된 방언이라고 하기 보다는 연변조선족자치주라는 커뮤니티 속에서 조선족들이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서로 지장이 없는 공통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을 제시해 두도록 한다.

4 연변조선어는 함경도 방언을 기층 방언으로 하고 있으며, 함경도 방언의 특징적인 피치악센트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선행연구인 河須崎(2010), 車春香(2000) 등에서도 제시되어 있는데, 연변조선어에서는 한 억양단위(어절)에서 높은 피치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음절에서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음절은 낮은 피치로 실현된다.

5 현재 중국의 조선족 거주 지역에서 조선어의 발음 규범으로 김영수·김광수·김철준(2016)『조선말규범집』이 사용되고 있다.

양상도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 선행연구

1.2.1. 연변조선어의 모음 체계

연변조선어는 함경도 방언을 기층 방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음운 체계는 기본적으로 함경북도 방언과 일치한다. 전학석(1996)에 의하면 연변조선어의 단모음은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등 8개이고, 모음 /ㅚ/[ø]와 ㅟ/[y]는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음 /ㅚ/는 [e], 또는 이중모음 [we]로 실현되고 모음 /ㅟ/는 [i] 또는 이중모음 [wi]로 실현된다고 한다. 이중모음은 상향이중모음/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ㅝ, ㅙ, ㅞ/등 10개가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표준어와 동일하지만 하향 이중모음의 /ㅢ/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모음 /ㅢ/는 [i], 또는 [ɯ]로 실현된다. 또한 속격조사로 사용할 때 [e]로도 실현된다.

1.2.2. 실험음성학에 관하여

실험 음성학은 음성학의 하위 분야로 음성에 대한 실험과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한다. 여기서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히 설명하면, 구어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화자가 말할 때 내는 목소리가 공기 중을 통해 청자까지 전달되고, 청자가 듣게 될 때까지의 어느 단계를 대상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 음성학은 세 분야로 나뉜다. 우선, 화자가 발성 시의 발성기관, 조음기관의 기능을 연구하는 조음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 음파가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음향음성학(acoustic phonetics); 도달한 음성을 인간이 지각하고 이해하는 양상을 연구하는 청각음성학(auditory phonetics)등 세 가지이다.

언어의 음성을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음성학은 다시 두 분야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설비를 사용하여 음성을 관찰 및 측정하는 기계음성학(instrumental phonetics)이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성능 설비의 등장에 의해 현재는 다양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해 가시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하나

는, 실험을 거쳐, 연구에 필요한 음성 데이터를 모아, 분석 및 고찰을 실시하는 실험음성학(experimental phonetics)이다. 이 분야에서는 단순한 음향분석을 통해 음성의 성질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음성을 가공하고 지각실험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험 음성학은 음향음성학 및 청각음성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는 실험음성학적인 연구이지만 사람이 낸 소리에 대한 음향분석을 하는 점에서 동시에 음향음성학적인 연구이기도 하다.

모음의 음향 분석에 있어서, 그 음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은 포먼트 주파수이다. 포먼트 주파수에 의한 모음 분석 방법론은 Gloria J. Borden et al (1994), 양병곤 (199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성도의 공명에 의해 얻어진 에너지의 피크를 포먼트라고 부르고, 그 낮은 주파수로부터 차례로 제1 포먼트(F1), 제2 포먼트(F2), 제3 포먼트(F3) 등으로 부른다.

포먼트 주파수를 모음의 조음적 특징과 관련시키면 그 규칙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포먼트 평균 주파수와 성도의 길이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F1은 구강 전반부가 좁아질수록 낮아지고 인강이 좁아질수록 높아진다. 즉, 모음의 개구도와 관련된다. 다음으로 F2는 후설 부분을 좁힐수록 낮아지고 전설 부분을 좁힐수록 높아진다. 즉, 모음의 전후성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F2의 값이 반드시 모음의 혀의 전후 위치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F2의 값은 원순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순성이 강할수록 모든 포먼트 주파수는 낮아지는데, 특히 원순화가 생기면 F1과 F2 중에서 F2의 값이 더 현저히 낮아진다. 따라서 F2는 모음의 전후성을 설명하는 단서 중 하나이지만 원순성이 동반되는 모음과 비원순모음을 통합하여 혀의 전후 위치를 고찰할 경우 F2의 값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F3의 값도 원순성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어떤 모음의 원순성 유무를 판단할 때 F2의 값과 F3의 값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중모음의 분석에 있어서도 포먼트 주파수에 근거하여 그 음가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음향 스펙트럼 상의 포먼트의 전이구간을 관찰함으로써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모음의 연속인지 등의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

이 가능하다.

1.2.3. 조선어 모음 /ㅚ/와 /ㅟ/에 대한 연구

조선어의 모음 /ㅚ/와 /ㅟ/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본 절에서는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를 들도록 한다.

우선 서울 방언의 모음 /ㅚ/와 /ㅟ/에 관해서는 두 모음이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를 사회언어학적, 역사언어학적 관점에 의한 음운론적 연구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음향 분석에 의한 음성학적 고찰을 더한 것은 적다. 그 중 음향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 조성문(2003)을 들 수 있다. 조성문(2003)에서는 서울 지역 출신 화자가 발음한 단모음 10개를 대상으로 음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화자에서 모음 /ㅚ/와 /ㅟ/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방언에서도 이 두 모음이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타 방언에서 모음 /ㅚ/와 /ㅟ/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로 우선 김원보(2005)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13개 이중모음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ㅚ/와 /ㅟ/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 최영미(2003)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지역 방언에서 모음 /ㅚ/와 /ㅟ/의 음소 설정에 대해 음성 분석을 통해 논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안면지역 방언에서 모음 /ㅚ/는 자음/ㄱ, ㄴ, ㄷ, ㅌ, ㄸ, ㅅ, ㅈ, ㅎ/과 결합할 경우 [e]로 실현되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환경에서도 [e]로 실현된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음 /ㅟ/는 /ㄱ, ㄴ, ㄷ, ㅌ, ㄸ, ㅅ, ㅈ/와 결합할 경우 [y]로 실현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에서는 [i] 혹은 [u]로 실현되며,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환경에서는 [ui]로 실현되지만, 같은 환경에서 [u]로 수의적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안면지역 방언의 단모음이 /ㅚ/를 제외한 9모음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모음 /ㅟ/가 모음 /ㅣ/와는 원순성의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하영우·신우봉(2018)에서는 전라남도 진도 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음향 음성학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그 중에 모음 /ㅚ/와 /ㅟ/의 음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음 /ㅚ/와 /ㅟ/가 장년층에 있어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드물고, 청년층에 있어서 성별을 불문하고, 이 두 모음이 완벽하게 이중모음으로 실현됨에 따라 모음 /ㅚ/와 /ㅟ/의 이중모음으로의 변화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송인성(2021)에서는 강원도 원주의 모음 /ㅚ/와 /ㅟ/를 포함하여 단모음 전체를 세대별로 음향 분석을 진행하여 모음 /ㅚ/와 /ㅟ/가 70대에서는 주로 단모음으로 발음되지만 20대에서는 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강순경(1997)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모음 /ㅚ/와 /ㅟ/가 [ɛ]와 [i]로 실현되거나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소신애(2021)에서는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을 일부 도입하여 함경남도 함흥 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연구하였으나 모음 /ㅚ/와 /ㅟ/는20세기 중반 이후 이미 [ø]와 [y]로서의 음가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변조선어의 모음 /ㅚ/와 /ㅟ/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로 김현기(2009)가 있다. 김현기(2009)의 이중모음 분석에서는 이중모음 /ㅚ, ㅙ, ㅟ, ㅞ, ㅢ/가 제보자 중에서 어떤 비율로 단모음으로 실현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ㅙ/가 35%, /ㅟ, ㅚ, ㅞ/는 모두 25%로 나타났다.

1.2.4. 연구방법

필자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출신 제보자를 모아 고찰 내용에 맞추어 몇 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읽게 한 후 그 발음을 녹음하였다. 녹음은 OLYMPUS 멀티트랙 리니어 PCM 레코더(형번: LS-100)로 진행하였다. 연변조선족의 실태를 가급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을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 받고 장기간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는 모두 20대로 남성 6명, 여성 6명이다.[6]

6 중국에서 한국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쉬워지고 조선족의 한국 진출이 쉬워진 현 상황에서 필자가 선정한 제보자 중 한국 프로그램을 전혀 시청하지 않고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단어는 다음과 같다.

단어:

/ㅚ/:

어두:	**비어두:**
외가집[7]	내외
괴상하다	요괴
뇌	세뇌
된장	됨됨이
뵙다	찾아뵙다
쇠고리	구두쇠
죄	사죄
최씨	개최
쾌쾌하다	쾌쾌하다
퇴직	은퇴
회의	집회
꾀부리다	잔꾀
뙤약볕	뙤뙤대다
쬐다	--[8]
쐬다	맞쐬다

한 명도 없음을 미리 제시해 두도록 한다.

7 한국의 정서법에 의하면 “외갓집”이 맞으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정서법에서는 사이옷을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외가집”으로 표기하였다.

8 조사 당시 “쬐”가 어중에 나타나는 상용 단어가 없다고 생각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내리쬐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전체적인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본고에서는 선행 자음이 /ㅉ/인 경우에 대한 고찰은 여두의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ㅟ/:

어두:	**비어두:**
위성	허위
귀	당나귀
뉘우치다	나뉘다
뒤	발뒤축
뷔페	데뷔
쉬다	아쉽다
쥐	들쥐
퀸	바퀴
취하다	마취
튀김	닭튀김
뀌다	바뀌다
뛰다	날뛰다

모음 /ㅚ/와 /ㅞ/의 음가에 대한 고찰[9]:

회멸(灰滅)하다　　훼멸(毁滅)하다

상술 단어를 이용하여 녹음은 1인당 2회 실시하고, 얻어진 녹음 자료로부터 보다 적합한 데이터를 각 항목당 적어도 1개를 필자 스스로의 판단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음향분석용 소프트 Praat(6.2.14)로 진행하였으며 모음 /ㅚ/ 및 /ㅟ/가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는 주로 음향 스펙트럼상에서 포먼트 주파수의 전이 구간이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반모음 부분이 선행 자음에 통합되어 실현되고, 핵심 모음 부분만이 명확히 음향 스펙트럼상에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에, 필자의 청각적 판단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얻어진 데이터에 관한 통계 및 분석은, 통계학 전용 소프트 SPSS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9 선행 자음을 /ㅎ/로 통일한 것은 조음 시 성문 이외의 다른 조음 기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속 모음에 대한 영향이 가장 작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고찰

2.1. 연변조선어 화자의 모음 /ㅚ/와 /ㅟ/의 실현 양상

연변조선어 화자의 모음 /ㅚ/와 /ㅟ/가 단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남성 화자의 어두 모음 /ㅚ/의 실현 양상[10]

단어(어두)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D	화자 E	화자 F	선행 자음에 따른 단모음 비율
외가집	1	1	1	1	0	1	17%
괴상하다	1	1	1	1	0	1	17%
뇌	1	1	1	1	1	1	0%
된장	1	1	1	1	0	1	17%
뵙다	0	1	0	0	0	0	83%
쇠고리	0	0	0	0	0	1	83%
죄	1	1	1	1	1	1	0%
최씨	1	0	0	1	1	1	33%
쾌쾌하다	0	0	0	0	0	0	100%
퇴직	1	0	1	1	1	1	17%
회의	1	0	0	1	1	1	33%
꾀부리다	0	1	0	1	0	0	67%
뙤약볕	0	0	0	0	0	0	100%
쬐다	0	0	0	0	0	0	100%
쐬다	0	0	0	0	0	0	100%
단모음 비율	47%	53%	60%	40%	67%	40%	51%(데이터 전체의 단모음 비율)

10 이하 표1부터 10까지에서 단모음인 경우는 "0", 이중모음인 경우는 "1"로 표기하였다.

〈표 2〉 남성 화자의 비어두 모음 /ㅚ/의 실현 양상

단어(비어두)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D	화자 E	화자 F	선행 자음에 따른 단모음 비율
내외	1	1	1	1	1	1	0%
요괴	1	1	0	1	1	1	17%
세뇌	1	1	1	1	1	1	0%
됨됨이	1	1	0	1	0	0	50%
찾아뵙다	0	1	0	0	0	0	83%
구두쇠	1	0	0	0	1	1	50%
사죄	1	1	0	1	1	1	17%
개최	1	0	0	1	1	1	33%
괴괴하다	0	0	0	0	0	0	100%
은퇴	1	1	0	1	1	1	17%
집회	1	0	0	1	1	1	33%
잔꾀	0	1	0	0	1	1	50%
뙤뙤대다	0	0	0	0	0	0	100%
맞쐬다	0	0	0	0	0	0	100%
단모음 비율	36%	43%	86%	43%	36%	36%	46%(데이터 전체의 단모음 비율)

〈표 3〉 여성 화자의 어두 모음 /ㅚ/의 실현 양상

단어(어두)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D	화자 E	화자 F	선행 자음에 따른 단모음 비율
외가집	1	1	1	1	1	1	0%
괴상하다	1	1	1	1	1	0	17%
뇌	1	1	1	1	1	1	0%
된장	0	1	1	1	1	0	33%
뵙다	0	1	1	1	0	0	50%
쇠고리	0	1	0	1	0	0	67%
죄	1	1	1	1	0	0	33%
최씨	1	1	1	1	0	0	33%
쾌쾌하다	0	1	0	1	0	0	67%

퇴직	1	1	1	1	1	1	0%
회의	1	1	1	1	1	0	17%
꾀부리다	0	0	0	1	0	0	83%
뙤약볕	1	1	1	1	0	0	33%
쬐다	0	1	1	1	0	0	50%
쐬다	0	1	1	1	0	0	50%
단모음 비율	47%	7%	20%	0%	60%	80%	36%(데이터 전체의 단모음 비율)

〈표 4〉 여성 화자의 비어두 모음 /ㅚ/의 실현 양상

단어(비어두)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D	화자 E	화자 F	선행 자음에 따른 단모음 비율
내외	1	1	1	1	1	0	17%
요괴	1	1	1	1	0	0	33%
세뇌	1	1	1	1	1	1	0%
됨됨이	1	1	1	1	1	0	17%
찾아뵙다	0	0	1	1	1	0	50%
구두쇠	1	1	1	1	0	1	17%
사죄	1	1	1	1	0	1	17%
개최	1	1	1	1	0	1	17%
쾌쾌하다	0	1	0	1	0	0	67%
은퇴	1	1	1	1	0	1	17%
집회	1	1	1	1	1	0	17%
잔꾀	1	1	1	1	0	0	33%
뙤뙤대다	0	1	1	1	0	0	50%
맞쐬다	0	1	0	1	1	0	50%
단모음 비율	29%	7%	14%	0%	57%	64%	29%(데이터 전체의 단모음 비율)

〈표 5〉 남성 화자의 어두 모음 /ㅟ/의 실현 양상

단어(어두)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D	화자 E	화자 F	선행 자음에 따른 단모음 비율
위성	1	1	1	1	0	1	17%
귀	1	1	1	1	0	0	33%
뉘우치다	1	0	1	1	0	0	50%
뒤	1	1	0	1	0	0	50%
뷔페	0	0	0	1	0	0	83%
쉬다	0	0	0	0	0	0	100%
쥐	0	1	0	1	0	0	67%
취하다	0	0	0	0	0	0	100%
퀸	1	0	1	1	1	0	33%
튀김	1	1	0	1	1	1	17%
훼다	1	0	1	0	1	1	33%
뀌다	1	0	0	1	0	1	50%
뛰다	1	0	0	1	1	1	33%
단모음 비율	31%	3%	3%	23%	69%	3%	51%(데이터 전체의 단모음 비율)

〈표 6〉 남성 화자의 비어두 모음 /ㅟ/의 실현 양상

단어(비어두)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D	화자 E	화자 F	선행 자음에 따른 단모음 비율
허위	1	1	1	1	0	0	33%
당나귀	1	1	0	1	0	0	50%
나뉘다	1	0	1	1	0	0	50%
발뒤축	1	0	0	1	0	1	50%
데뷔	1	1	1	1	1	0	17%
아쉽다	0	0	2	2	0	0	67%
들쥐	0	1	0	0	0	0	83%

마취	0	1	0	1	0	0	67%
바퀴	1	0	1	0	1	0	50%
닭튀김	1	0	0	1	0	1	50%
어휘	0	0	1	0	0	0	83%
바뀌다	1	0	0	1	1	1	33%
날뛰다	1	0	0	1	1	0	50%
단모음 비율	31%	3%	54%	23%	69%	77%	53%(데이터 전체의 단모음 비율)

〈표 7〉 여성 화자의 어두 모음 /ㅟ/의 실현 양상

단어(어두)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D	화자 E	화자 F	선행 자음에 따른 단모음 비율
위성	1	1	1	1	1	1	0%
귀	0	0	1	1	0	0	67%
뉘우치다	0	0	0	0	0	0	100%
뒤	0	1	1	1	0	0	50%
뷔페	0	1	1	1	0	0	50%
쉬다	0	0	0	0	0	0	100%
쥐	0	0	0	0	0	0	100%
취하다	0	0	0	0	0	0	100%
퀸	0	1	1	1	0	0	50%
튀김	1	1	1	1	1	1	0%
휘다	1	1	1	1	1	1	0%
뀌다	0	1	1	1	0	1	33%
뛰다	1	1	1	1	0	1	17%
단모음 비율	69%	38%	31%	31%	77%	3%	51%(데이터 전체의 단모음 비율)

〈표 8〉 여성 화자의 비어두 모음 /ㅟ/의 실현 양상

단어(비어두)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D	화자 E	화자 F	선행 자음에 따른 단모음 비율
허위	0	1	0	1	1	0	50%
당나귀	0	0	1	1	0	0	67%
나뉘다	0	1	1	1	1	1	17%
발뒤축	0	1	1	1	0	1	33%
데뷔	0	1	1	1	0	0	50%
아쉽다	0	0	0	0	0	0	100%
들쥐	0	0	0	0	0	0	100%
마취	0	0	1	1	0	0	67%
바퀴	0	0	0	1	0	0	83%
닭튀김	1	1	1	1	1	1	0%
어휘	0	0	0	1	0	0	83%
바뀌다	0	1	1	1	0	1	33%
날뛰다	1	1	1	1	0	1	17%
단모음 비율	85%	46%	38%	15%	77%	3%	54%(데이터 전체의 단모음 비율)

결과로부터 볼 때, 전반적으로 /ㅟ/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ㅚ/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화자에 따라 이 두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지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선, 선행 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어떤 음절 위치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는 연변조선어 젊은 세대 화자들 사이에서 이 두 모음이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기본적인 음가 실현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 자음을 가질 경우 단모음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행 자음의 종류와 모음 /ㅚ/ 및 /ㅟ/의 단모음 실현과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화자의 경우 /ㅚ/가 어두 음절에 위치할 때, /ㅂ, ㅅ, ㅋ/ 등의

자음이나 경음이 선행할 경우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위의 조건에서 /ㅚ/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은 남성보다 다소 낮았다. 또한 /ㅚ/가 비어두 음절에 위치할 때에도 상술 경우와 같은 선행 자음을 가질 경우 남녀 모두에서 단모음 실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어두 음절만큼 높지는 않았다.

둘째, 남성 화자에서 /ㅟ/가 어두 음절에 위치할 때, /ㅅ, ㅈ, ㅊ/이 선행하는 경우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여성 화자에게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ㄴ/이 선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화자가 /ㅟ/를 단모음으로 실현하였다. 또한 /ㅟ/가 비어두 음절에 위치할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며, /ㅅ, ㅈ, ㅊ, ㅎ/이 선행할 때 단모음 실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ㅋ/이 선행할 때도 단모음 실현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ㅟ/가 어두에 위치할 경우와는 다른 양상이다.

셋째, 선행 자음의 종류가 다르면 /ㅚ/와 /ㅟ/의 단모음 실현 비율도 다르다는 점은 명확하나,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른 일관된 규칙을 정립하기는 어렵다. 다만 /ㅚ/의 경우에는 경음이, /ㅟ/의 경우에는 치경음이 선행할 때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다는 일반적 경향은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모음이 어두, 비어두, 혹은 음절말에 위치함에 따라 실현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의 데이터를 보면, 어두-비어두의 대립은 /ㅚ/와 /ㅟ/의 단모음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 이 두 모음의 단모음 실현과 음절 위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Pearson 상관계수는[11] 남성의 /ㅚ/에서 0.215, /ㅟ/에서 0.374; 여성의 /ㅚ/에서 0.468, /ㅟ/에서 0.538로 나타났다. 즉, 어느 경우에도 상관계수는 0.7을 넘지 않아 ㅚ/와 /ㅟ/의 단모음 실현 여부는 어두 - 비어두의 대립과 강한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은 여성 화자의

11 상관계수는 -1에서 1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그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커진다. 보통 0.3보다 낮으면 약한 상관관계, 0.3에서 0.7이면 분명한 상관관계, 0.7보다 높으면 강한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정한다.

/ㅟ/였으며 그 값은 0.538이었지만, 이는 통계학적으로 다소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강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ㅚ/와 /ㅟ/의 단모음으로의 실현에 있어 어두-비어두 대립의 영향은 없거나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를 보면 /ㅚ/가 어두나 비어두 음절에 위치할 경우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어말 음절에 위치할 경우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말 음절에서는 뒤따르는 음절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충분히 길게 실현되어 이중모음으로서의 음가가 보다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것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반면, 어두나 어중 음절에서는 뒤에 다른 음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음이 길게 실현되기 어렵고, 이중모음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단모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ㅚ/의 단모음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선행 자음의 종류라기보다는 해당 모음이 위치한 구체적인 위치, 즉 모음의 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ㅟ/의 경우에는 어말에 놓여 있어도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ㅟ/의 단모음 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선행 자음의 종류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다만 상술 결론은 본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나, 화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현 시점에서 인원 확충이 불가능하므로, 결론이라기보다는 가설에 가깝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요약하자면, /ㅚ/와 /ㅟ/는 연변조선어 화자들 사이에서 이중모음으로서의 음가가 일반적이며, 선행 자음의 유무, 음절 위치, 화자의 발음 습관 등의 복합적 요소에 의해 단모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ㅚ/와 /ㅟ/의 음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필자는 두 모음의 이중모음 음가를 비표지(unmarked)로, 단모음 음가를 표지(marked)로 간주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한다.

덧붙여 /ㅚ/의 단모음 실현과 모음 길이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고찰도 수행해야겠지만, 제보자들의 발화 속도가 제각기 달라, 짧은 모음과 긴 모음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의 고찰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또한 /ㅚ/의 단모음 실현에 영향을 주는 모음 길이는 한 화자

의 발화 중의 상대적인 길이를 의미하므로, 발화 속도가 빠른 화자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길게 실현된 모음은 이중모음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 화자가 빠르게 발화한 경우와 느리게 발화한 경우 각각에서 /ㅚ/의 실현 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음 /ㅚ/의 단모음 실현 여부와 모음의 상대적 길이의 관계를 예측하지 못한 관계로 이러한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2.2. 모음 /ㅚ/와 /ㅞ/의 음가에 대한 고찰

본 절에서는 연변조선어에서의 모음 /ㅚ/와 이중모음 /ㅞ/의 음가 차이에 관해 고찰하였다. 앞 절의 모음 /ㅚ/와 /ㅟ/의 고찰에 있어서, 성별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화자에서 모음 /ㅚ/와 /ㅟ/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모음 /ㅚ/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될 경우, 이중모음 /ㅞ/와 동일한 음가를 갖게 된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로 화자에게 제시할 경우, 두 개의 모음을 의식적으로 부동한 음가로 발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본 절에서는 두 단어 “회멸하다”와 “훼멸하다”를 화자에게 발음하도록 하고, 실현된 두 개의 모음의 음가 차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필자는 본격적인 음향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연변조선어 화자가 두 단어의 녹음 데이터를 듣고 자신의 귀로 두 모음의 음가가 다른지를 판단하였는데, 필자의 귀로는 모든 화자의 두 모음의 발음이 똑같이 들렸다. 단지, 귀로 판단할 수 없는 미소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모음의 음가에 관해 음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음향 스펙트럼 상의 포먼트 주파수의 추이를 바탕으로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실현되었는지 아니면 이중모음으로 실현되었는지 판단하였으나 모음 /ㅚ/를 단모음으로 모음 /ㅞ/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발음한 제보자는 없었다. 또한 모음 /ㅚ/를 단모음으로 발음한 제보자는, 모음 /ㅞ/도 단모음으로 실현하였다. 마찬가지로 모음 /ㅚ/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제보자는 모음 /ㅞ/도

이중모음으로 실현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남성 화자의 /ㅚ/와 /ㅞ/의 실현 양상

화자	ㅚ	ㅞ
A	1	1
B	1	1
C	1	1
D	0	0
E	0	0
F	1	1

〈표 10〉 여성 화자의 /ㅚ/와 /ㅞ/의 실현 양상

화자	ㅚ	ㅞ
G	1	1
H	1	1
I	0	0
J	1	1
K	0	0
L	0	0

그러나 이 두 모음의 음가 차이는 귀로 판단하기 어렵고, 미소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해, 두 모음의 포먼트 주파수의 차이에 대해서, 비모수 검정, 검정 방법으로서는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음의 포먼트 주파수는 모음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간에서 측정하였으며, 최대 포먼트 수치를 남, 녀 모두 4500Hz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이하의 표에 나타냈다.

〈표 11〉 모음 /ㅞ/와 /ㅚ/의 포먼트 주파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검정 결과

검정통계량* a		
	ㅞF1 - ㅚF1	ㅞF2 - ㅚF2
Z	-.524b	-.314b
유의확률 (양측)	.600	.753
a.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b. 음수 순위 기반		

〈표 11〉에 제시된 유의확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모음의 핵심 모음 부분의 포먼트 주파수의 차이는 F1 및 F2의 값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연변조선어 젊은 세대의 화자는 두 단어의 피험모음이 문자상으로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같은 음가로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두 단어를 의미상으로는 구별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발음상으로는 전혀 구별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음 /ㅚ/와 이중모음 /ㅞ/는 연변조선어의 음소 체계에서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을 음소로 설정하고, 다른 하나는 그 음소의 이음으로 간주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쪽을 음소로 남기고 어느 쪽을 음소 체계에서 제외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단모음으로도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모음인 /ㅚ/를 남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으나 필자가 본 연구의 제보자들에게 질문하였더니 이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인식하는 제보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중모음 /ㅞ/를 체계에 남기는 것도 나름의 근거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음소의 설정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논하지 않기로 하고, 이 문제가 향후의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연변조선어의 모음 /ㅚ/와 /ㅟ/의 음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모음 /ㅚ/와 /ㅟ/가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에 대해 주로 고찰하였는데, 연변조선어 젊은 세대의 화자로부터 얻은 음성 데이터를 보면, 그것들이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50% 전후였다. 또한, 모음 /ㅚ/와 /ㅟ/의 단모음 실현 여부는 선행 자음의 종류, 놓인 음절 위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대체로 경음에 후행하는 모음 /ㅚ/, 치경음에 후행하는 모음 /ㅟ/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모음 /ㅚ/는 어두 음절에 놓이는

경우, 모음 /ㅟ/는 비어두 음절에 놓이는 경우,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약간 높지만, 상관분석을 통한 통계학적인 분석 결과, 음절 위치가 단모음으로서의 실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높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모음 /ㅚ/와 /ㅟ/는 연변조선어 화자에 있어서 이중모음으로서의 음가를 기본 음가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모음 /ㅚ/와 이중모음 /ㅞ/의 음가 차이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두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발음한 화자는 없었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였을 경우, 핵심 모음 부분의 포먼트 주파수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변조선어 젊은 세대의 화자는 남녀 모두 모음 /ㅚ/와 이중모음 /ㅞ/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음 /ㅚ/와 /ㅞ/는 연변조선어에서는 완전히 통합된 음소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연변조선어의 모음 /ㅚ/와 /ㅟ/의 음가에 대해 고찰하였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제보자는 모두 젊은 세대의 화자로 노년 세대의 모음 /ㅚ/와 /ㅟ/의 음가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모음의 음가에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차후 연변조선어 화자의 노년 세대의 제보자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변조선어 내부의 통시적인 음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음 /ㅚ/가 음절 말에 놓일 경우 대체적으로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기 쉬운데, 이는 음절 말에서 모음이 충분한 길이로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서의 음가가 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발화 속도하에서 특정 단어를 제보자에게 읽게 하고 그 발음을 분석하는 등 특화된 실험이 필요하며 이 또한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논의를 마치도록 한다.

참고문헌

강순경(1997)「함경 방언의 모음체계」,『어학연구』33(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17-135.

김영수·김광수·김철준(2016)『조선말규범집』, 연길 : 연변교육출판사.

김원보(2005)「제주방언 이중모음의 음향분석」,『음성과학』12(2), 한국음성과학회, 29-41.

김현기(2009)「연변 조선족 방언 음성의 실험적 연구」,『말소리와 음성과학』1(1), 한국음성학회, 47-52.

양병곤(1994)「모음의 음향적 특징」,『대한음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대한음성학회, 113-124.

소신애(2021)「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 -함흥 지역어를 중심으로-」,『국어학』97, 국어학회, 177-214.

송인성(2021)「원주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민족문화연구』9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51-475.

전학석(1996)『조선어 방언학』, 연길 : 연변대학출판사.

최영미(2003)「태안지역어 "ㅟ", "ㅚ"의 모음체계」,『한말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말연구학회, 42-54.

하영우·신우봉(2018)「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민족문화연구』7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99-320.

河須崎英之(2010) 「中国で話されている朝鮮語のアクセント比較」, 『東京大学言語学論集』29, 東京大学言語学研究室, 103-138.

車香春(2000)「朝鮮語延辺地区龍井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福井玲編『韓国語アクセント論集』所収)

許秦 「現代中国延辺朝鮮語の音響特徴に対する実験音声学的研究－若い世代の話者を中心に－」,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 2023年 3月 23日, 286頁, 博士(文学).

Gloria J. Borden & Katherine S. Harris & Lawrence J. Raphael (1994) *Speech Science Primer Williams & Wilkins*. 김기호·양병곤·고도흥·구희산 역(2000),『음성과학』, 서울: 한국문화사.

동아시아 건축 말각천장(抹角天障)에 관한 건축사적 해석

-기원과 변형, 고구려 고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Analysis of the Malgak Cheonjang (抹角天障) Ceiling in East Asian Traditional Architecture

홍대한*

국립농업박물관

1. 머리말

고대 동아시아 건축은 목조(木造)를 기반으로 석조(石造)와 전축(塼築) 등 재료 각각의 특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 중 기단과 천장은 방형이 일반적이었지만, 종교·장례를 포함한 의례 목적 건축물에는 팔각과 원형 구조가 도입되어 독특한 건축구조의 출현을 가져왔다.

말각조정(末角藻井)은 고구려 석실분(石室墳)의 천장 결구(結構)를 시작으로, 천장을 높이거나 궁륭(穹窿) 형태 축조에 응용해 왔다. 건축물의 내부 공간 확장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동반되어야 하며, 말각조정은 부재의 하중을 줄이면서 높이와 내부 공간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지중해·서아시아 지역에서 창안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북반구 전역으로 확산한 말각천장은 궁륭·아치·돔 등 반구(半球) 형태 천장의 연장선 위에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건축기법이 삼국 중 고구려 건축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서역과의 왕성한 교류 증거로, 석굴암 궁륭(穹窿)천장과 경주 나정(蘿井)의 팔각 건물터 등을 통해 유사한 기법이 7~8세기에는 한반도 전역으로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 HONG Dai-han (Senior Academic Specialist, National Agricultural Museum Of Korea)
E-mail: pitha@nate.com

말각천장(抹角天障)[1]은 한 면의 벽체 상부에서 인접 벽체 정상부를 연결되도록 부재를 덮었을 때 형성되는 삼각형 평면 4곳이 모여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형성된 천장은 원시적인 다각형 돔 형태 구조를 갖게 된다. 말각천장에 관한 기존 연구는 고구려 벽화고분 연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선 목조와 전축구조의 건축구조물에도 도입했는데, 구조 안전과 손쉽게 아치와 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적인 목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 석실(石室) 고분 축조에 사용된 말각천장의 기원과 전파 과정 그리고 인접 건축 분야 적용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건축의 천장을 구성하는 원리와 축조 방법에 미친 말각천장의 영향을 고찰하겠다.

2. 선행 연구와 명칭 검토

2.1. 선행 연구 검토

말각천장은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통해 학계에 처음 소개됐다. 총독부 직원 사와 슌이치(澤俊一), 세키노 다다시(関野貞)의 조수(助手)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였다. 당시 사진은 천장화(天障畵)뿐 아니라, 말각천장 구조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고심한 노력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말각천장의 구조와 기능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기원과 발전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1950년대 이후 동서양 문명의 교류 연구가 진척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광복 이후 첫 말각천장 연구자는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연구소장을 역임한 도유호(都宥浩 1905~1985)였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빈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였는데, 1949년 안악(安岳) 3호분을 발굴한 장본인이다. 도유호는

1 '말각조정 천장'으로 지칭해 온 건축기법과 명칭은 중국에서 말각천장을 의미하는 조정에 천장이 덧붙여진 명칭이다. 조정(藻井)은 천장의 반자 또는 천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각천장(抹角天障)을 사용하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 고분 발굴 경험을 토대로 고구려 고분벽화와 Parthian(安息國) 미술의 건축구조 및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관성을 처음 제기했다.[2] 도유호는 오스트리아 유학 시절 유럽에서 가장 오래전 말각천장 기법이 사용된 이탈리아 에트루리아 무덤[Etruscan Tombs]의 존재를 인지했고, 고구려 고분의 수렵도와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의 유사점을 지적했다. 지중해와 파르티안(Parthian)－흉노(匈奴)－돌궐(突厥)－고구려로 이어지는 문화전파를 통해 말각천장이 전파되었고, 평천장과 꺾음식 천장[3]에서 궁륭식(穹窿式) 또는 말각천장으로 자체 발전한다고 보았다.


都宥浩博士
明日、京城着
도유호 (都宥浩) 박사는 누보
한바와같이 조선자랑으로 오태리
(墺太利) 원 대학에서 강사로교
편을잡고있다가 이번히 구주전쟁
으로말미암아 귀국의길을떠나 열
마전 횡빈에 도착되었는데 이번그
十七일오후一시반 경성역도착 열
차로 그리운고향의품을 밟게되엇
다망 (사진은 도박사)

〈그림 1〉 도유호의 박사학위 취득 신문보도

김원룡(金元龍)은 말각천장의 기원을 중앙아시아로 보았다. 근동 지방에서 시작되어 인도 엘로라·바미안 석굴, 중앙아시아 키질(克孜尔·赫色勒)·둔황(敦煌)·윈강(雲崗) 석굴 축조에 도입됐다.[4]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 말각천장의 출현 시기를 분석하여 5세기에는 고구려 석실묘(石室墓) 축조에 사용됐다.[5] 김원

2 도유호(1959)「고구려 석실 봉토분의 유래와 서역문화의 영향」,『문화유산』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이광린(1990)「북한(北韓)의 고고학(考古學)-특히 도유호(都宥浩)의 연구(硏究)를 중심(中心)으로-」,『동아연구(東亞硏究)』20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0.

3 국립국어원 제정 표준어는 '천장(天障)'이다. 과거에는 '지붕의 안쪽', '반자의 겉면'을 이르는 말로 '천장(天障)'과 '천정(天井)'을 혼용하였다.

4 김원룡(1960)「고구려 고분벽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진단학보』21, 진단학회.

5 ①둔황, 원강석굴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漢代 山東 기남화상석묘(祈南畵像石墓, 3세기 말)보다 2~3세기 후대작으로 추정, ②漢代 末角藻井은 근동 지방에서 중앙아시아와 중국 중원

룡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묘장(墓葬) 의례 이외 불교미술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점이다. 천장과 벽면에 화려하게 그려진 벽화에 주목하여 고구려인의 내세관을 살피고, 연꽃 등 장식 문양을 통해 불교적인 세계관이 고분 축조에 반영되었음을 제시했다.

또한 낙랑(樂浪)과 대방군(帶方郡) 지역에서 사용한 건축기법과 전통 지식을 토대로 북위(北魏)에서 유입된 석조건축의 말각천장 기법을 석실묘에 구현한 결과 고구려 고분의 독특한 천장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안악(安岳) 3호분을 통해 고구려 영내에 말각천장을 축조할 수 있었던 건축 기술 집단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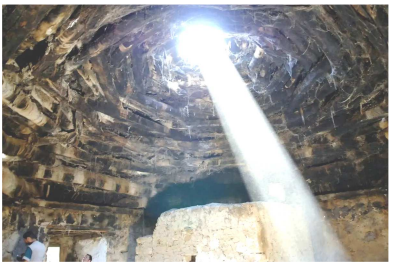
김병모는 도유호와 김원룡에 의해 한반도 전래 서역문화(西域文化)의 한 요소로 지적된 말각천장 전파경로에 집중한 연구를 진행했다.[6] 그는 말각천장이 서아시아에서 처음 창출했고, 지중해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의례(儀禮) 목적 건축물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말각천장은 에트루리아(Etruria) 민족의 동방기원설(東方起源說)과 그리스가 소아시아(Asia Minor)에서 벌인 식민지 활동 등을 고려할 때 동방에서 지중해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 말각천장이 초기에는 동한(東漢) 때 실제 건축구조로 나타나며, 후기에는 둔황과 원강 석굴사원에서 천장조각과 벽화처럼 장식 요소로 바뀐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극동에서의 말각천장은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 전파되며 초출(初出) 시기도 불교 전래와 일치한다고 하여 모순되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각천장이 고분, 사원, 신전 등 의례 목적 건축물에 많이 나타나고 영생기구(永生祈求) 의미와 부합한다고 했다. 끝으로 만주와 한반도 발견 말각천장은 고구려 문화권 내에서 구조물 형태로만 발견되므로, 북방계통 불교의 한반도 전파와 분포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병모의 주장은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만 당시 말각천장 관련 동서양의 최신 연구 성과를 비교

으로 유입 후 석조건축을 중심으로 활용, ③기남화상석묘는 현존 중국 최고 수준의 석조건축 사례

6 김병모(1978)「抹角藻井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歷史學報』제80집, 역사학회, 1978, 1-26.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진 1〉 아르메니아 민가의 천장 1



〈사진 2〉 아르메니아 민가의 천장 2

영국에서는 이미 19세기 말 말각천장에 관한 공식 보고가 이루어졌다.[7] 아르메니아(Armenia) 지방과 폰투스(Pontus)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던 민가(民家) 천장에 주목하여, 비록 수피(樹皮)만 벗긴 목재를 이용해 벽체에서 천장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목재 수를 줄여 나가는 원시적인 방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고구려 고분에서 사용된 말각천장과 기본적인 건축 수법이 상통한다고 했다. 아르메니아 민가 천장은 팔각형 구조와 함께 단 차이를 두어 천장 상하 구간의 면적을 줄이는 방식도 사용됐다.(사진 1) 이러한 천장 구조는 에트루리아의 분묘 유적과 유사한 것으로, 천장을 높여 지하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는 동시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한다.(사진 2) 아르메니아 민가 건축에서는 천장 정상부에 광창(光窓)을 설치해 환기와 조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에스투르칸 분묘의 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단지 에스투르칸 분묘 천장에는 동심원 문양의 벽화를 그렸는데, 지하공간이라는 구조적 차이를 하늘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대체하였다.

---

7 Perrot, Et Al.(1884) *Art in Chaldaea and Assyria*, London, Vol. 1.
Durm, J.(1874) *Die Baukunst der Griechen-Handbuch der Architectur, in Fergusson History of Architecture*, London, Vol. 1.



〈사진 3〉 Banqueters and musicians from the Tomb of the Leopards (Tarquinia), c. 480-470 BCE



〈사진 4〉 Tomb of the Augurs, Monterozzi necropolis, Tarquinia, c. 520 BCE

기원전 4세기 축조한 에스투르칸 분묘의 천장은 2개 형식으로 나뉘는데 사진 5는 평행 삼각 고임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 6은 삼각 고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직사각형 석재의 바닥 높이를 높여 나가면서 종횡 비율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로마 판테온 돔의 격간(隔間) 구조와 유사하다. 사진 5와 6 모두 중앙에는 얼굴 모양을 조각했다. 직접적인 투창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지하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문양을 천장의 중심에 표현한 것은 분묘와 묘주(墓主)가 외부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성을 내포한다.



〈사진 5〉 Volumni, the domes of the right and left side chambers



〈사진 6〉 Volumni, the domes of the right and left side chambers

에트루리아 분묘의 천장 형식을 4개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자연석을 이용해 궁륭(穹窿) 형식으로 축조한 적석봉토분(積石封土墳)의 천장 구조가 이후 돔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8]

중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여러 편의 연구논문과 서적이 출간되었는데, 동북공정 일환으로 간행된『吉林集安高句丽墓葬报告集』은 집안 소재 고구려 고분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두 36편의 개별 연구논문을 수록했다.[9] 이중「折天井 墓调查拾零」는 집안 고구려 고분 말각천장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辽阳汉魏晋壁画墓研究」[10]는 요양(遼陽)지역 漢魏晋의 벽화고분의 형태, 벽화, 장례 유물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고분의 축조 시기를 추정하였다. 비교대상에는 고구려 고분도 포함됐는데, 분묘의 형태를 검토하면서 말각천장이 한대(漢代) 분묘 기원론을 제기했다.「高句丽抹角叠涩墓初论」[11]은 고구려 고분의 말각천장을 자연석과 판석을 이용해 축조하는 2개 형식으로 구분 후, 자연석 축조 방식이 선행하는 것으로 4세기 초 도입으로 보았다.

「从三座壁画墓的笈現看-遼東, 三燕, 高句麗壁画墓之間的關係」[12]는 삼국의 고분벽화를 비교한 연구로 주제별 벽화가 그려진 장소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삼국의 문화교류 관계를 고찰했다.「汉墓的抹角叠涩藻井研究」[13]는 한대(漢代) 화상석묘(畵像石墓)의 건립 장소를 통해 지역별 특징을 고찰했는데, 특히 분묘에 시설된 말각천장의 기원이 아프라시압(Afrasiab) 등 중앙아시아 건축의 광창(光窓)에서 연원(淵源)했고, 한대(漢代) 분묘 형식이 목곽묘에서 석실 또는 전축분으로 변화하면서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구조라고 했다. 말각천장의 중요한 기능은 하중을 감소시켜 분묘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이상적인 천국의

8 Gennaro Tampone(2014) *Domes in the Etruscan Tombs, Domes and Cupolas, Cupole-Domes* Vol.1-N.1, 23-36

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2009)『吉林集安高句丽墓葬报告集』, 科學出版社, 北京.

10 刘未(2002)『辽阳汉魏晋壁画墓研究』,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

11 王俠(1994)「高句丽抹角叠涩墓初论」,『北方文物』37, 30-36.

12 辛占山(2020)「从三座壁画墓的笈現看-遼東, 三燕, 高句麗壁画墓之間的關係」.

13 陈轩(2023)「汉墓的抹角叠涩藻井研究」,『考古』2023年 第4期, 90-99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从技术, 观念到纹样：东汉藻井图案的起源及演变」[14]은 한(漢)과 고구려의 천장에 표현된 문양과 회화의 표현이 외국의 건축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천상 세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토대로 창안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사유 체계에 큰 변화였고 불교와 예술적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다양한 형상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했다. 특히 말각천장에 연꽃 이외 다양한 문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적으로 특정 주제의 도안을 표현하기 유리한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兩漢磚石拱頂建築探源」[15]은 한나라의 벽돌 생산기술 고찰로, 벽돌로 축조한 분묘 천장의 돔을 2개 형식으로 구분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에 발전시킨 독자 형식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벽돌로 돔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 구조적 계산과 아치 등으로 활용 및 시대별 변화상을 함께 규명했다. 이 연구는 이후 진행된 돔 건축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 학계에서는 말각천장과 돔 천장의 기원이 중앙아시아에 있음을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2. 말각천장 명칭의 적정성 검토

말각조정(抹角藻井)이란 사각형 평면을 갖는 천장의 사방 모서리에 삼각형 판석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 중앙부 면적을 줄여 나가는 천장 축조기법이다. 말각(抹角)은 모서리 각을 죽이거나 생략하는 것으로, 사각형 네 모서리를 없앤 것을 말각방형(抹角方形)이라고 한다. 조정(藻井)은 다양한 문양과 조각으로 장식한 천장을 가리키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 격자천장(格子天障)의 격 사이에 수초(水草) 문양인 조(藻)[16]를 그렸던 것에서 기원했다.

---

14 隐庐(2022)「从技术, 观念到纹样：东汉藻井图案的起源及演变」,『艺术设计研究』2022年 01期. 4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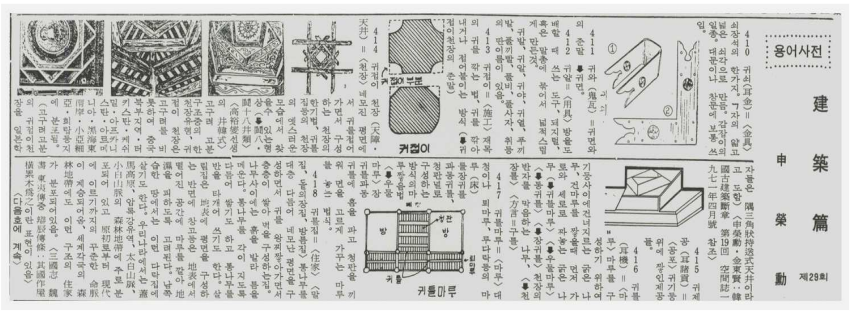
15 常青(1991)「兩漢磚石拱頂建築探源」,『自然科學史研究』第10卷 第3期, 288-295.

16 中國美術辭典編輯委員會(1989)『中國美術辭典』, 臺北, 雄獅出版, 454.

중국 조정(藻井), 한국 말각조정(抹角藻井), 일본 コーナー三角持ちスタイル(隅三角持送式) 등으로 통칭하는데 모두 사각형 평면 모서리 각을 줄여 면적을 축소하는 건축기법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말각천장은 대부분 석실봉토벽화분(石室封土壁畫墳)에 사용된 전형(典型)과 5세기 후반 축조로 추정되고 있는 평안남도 남포시 대안리(大安里) 고분, 4세기 중엽~5세기 초 건립된 무용총, 5세기 말 축조한 덕화리(德化里) 고분 등에 사용된 팔각형 궁륭(穹窿) 형태의 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궁륭 형식을 팔각고임 천장으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말각천장 범주에 포함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궁륭 형식 고분이 현실(玄室)만을 갖춘 단실분(單室墳) 위주로 축조되었으나, 전형 형식은 이실분(二室墳)에 널리 사용됐다. 두 형식이 초기 고분에 해당하는 4~5세기 분묘 천장 시설에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선후 기술 발전의 차이보다는 지역적 특색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가지 형식을 말각천장 범주 속에서 나눌지, 별개 형식과 이름으로 구분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전형의 말각천장은 현실의 주벽 윗부분 주벽과 평행하여 계단식 층급(層級) 받침을 2~3층, 많을 때는 5층까지 안으로 내밀어 천장 면적을 좁힌 후 그 위에 주벽선(主壁線)과 엇갈리도록 네 귀퉁이에서 각각 삼각평석(三角平石)의 받침돌을 내민 가구를 갖추고 있다. 속칭 투팔천장(鬪八天障)이라고도 불리는 이 형식의 특색은 건축 내부 같은 평면의 공간을 한층 넓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가졌다.


용어사전
建築篇
申榮勳
제29회
귀퉁이
귀퉁마루

〈사진 7〉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 신문」 제50호, 1975.7

이러한 기법의 기원은 목조건축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삼국사기』에 4두품 이하 신분의 가옥에 조정(藻井)[17]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건축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가에 사용한 조정은 우물반자를 가리키지만, 우물반자 중심부나 부처님을 봉안하는 보좌 위 천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반자를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했다.[18]

〈표 1〉 말각천장 명칭 사용 사례

구분		명칭	출 전
日本	村田次郎	隅三角持送式天井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처리한 천장(「東洋建築系統史論」, 『建築雜誌』 45, 1931)
		三角持送り式天井	八幡山古墳群(やはたやまこふんぐん), 三角持送り式天井の竪穴系横口式石室 5~6세기
韓國	高裕燮	井韓式 천장	「韓國建築美術史草稿」, 고고미술동인회, 1961
	都宥浩	삼각고임 천정	「안악 제1호분 제2호분 발굴보고」,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7
	金元龍	抹角藻井	「高句麗古墳壁畫의 起源에 對한 硏究」, 『震檀學報』 21, 1960
	金秉模	抹角藻井	「抹角藻井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 『歷史學報』 80, 1978
		귀접이 천장[19]	장기인(2005) 『木造』, 보성각
		귀죽임 천장	장기인(2005) 『木造』, 보성각
		모줄임 천장	장기인(2005) 『木造』, 보성각
		궁륭상 꺾음천장	장기인(2005) 『木造』, 보성각
		고임식 팔각고임	장기인(2005) 『木造』, 보성각
	신영훈·김동현	闕八·闕十八井類[20]	「韓國古建築斷章」 제19회, 『空間誌』, 1971년4월호
西歐	B. Rowland	Lantern Roof	Art and Architecture of India, Penguin Book, 1953
	G.T. Rivoira	Coffered Roof	Roman Architecture and It's Principles of Construction Under the Empire, Oxford Univ. Press, 1925
	-	Chamfering of the Edges	
	Gennaro Tampone	Domes	Domes in the Etruscan Tombs, Domes and Cupolas, Cupole-Domes Vol.1-N.1-2014
中國	谢成水	藻井[21]	『敦煌壁畵线描精品集-藻井·飛天·舞樂』, 江苏凰凰美術出版社, 2016
	陈轩	折天井	「汉墓的抹角叠涩藻井研究」, 『考古』 2023年 第4期
臺灣	-	结网	

17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 屋舍條 "四頭品至百姓. 室長廣不過十五尺, 不用山楡木, 不施藻井"

18 장기인(2005) 『木造』, 보성각, 377.

한국에서는 말각(抹角)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귀접이(귀죽임)를 사용해 왔다. 모두 사각형 평면의 모서리 부분 각(角)을 감소시키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신영훈은 목조건축의 우물천장 구조에서 말각조정이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말각천장을 지칭하는 용어가 한중일이 모두 다르게 사용해 온 것은 건축기법과 유구 조사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중국에서 사용해 온 조정은 우물반자 등 목조건축의 천장 구조를 지칭하는 반면 고구려 벽화고분의 천장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용어는 말각(抹角)이다. 따라서 〈모줄임 천장〉이 고구려 고분의 독특한 천장 구조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명칭이라고 판단된다. 서구식 표현 역시 에트루리아 분묘와 중앙아시아 지역 천장 구조를 연구하면서 랜턴 지붕(Lantern Roof), 격간(格間) 지붕(Coffered Roof), 모 죽임(Chamfering of the Edges) 등으로 명명했는데, 〈모 줄임 천장〉에 가까운 모 죽임(Chamfering of the Edges)이 이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격간(格間, coffer)은 건축에서 천장 또는 볼트를 뒤덮는 정방형(正方形), 장방형(長方形), 팔각형 형태의 움푹 들어간 패널을 의미한다.[22] 격칸으로 구성한 천장을 격천장(格天障)이라고 한다. 격칸은 천장과 볼트의 장식으로서 caissons(箱子) 및 lacunaria(空隙)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영어로 격천장을 lacunar라고 한다. 격천장은 그리스와 로마 석조건축에 사용되었으며,[23] 에트루리아 네크로폴리스의 석실분에서도 대들보를 재현한 격천장을 사용했다.

---

19 귀접이 : 재목의 귀를 깎는 법, 귀를 깎아 내거나 접어 붙이는 방식

20 투팔(鬪八) : 네 벽과 네 귀의 여덟 변으로 홍예문을 쌓는 것처럼 올려 만든 천장(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1998)『미술대사전(용어편)』)

21 *A Global History of Architectur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787.

22 Ching, Francis D.K. (1995). *A Visual Dictionary of Archite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30.

23 J.J. Coulton (1982) Ancient Greek Architects at Work: Problems of Structure and Design (Cornell University Press) 147.
Roger Bradley Ulrich (2007) Roman Woodworking, ch. *Roofing and ceilings*, Yale University Press.

3. 말각천장(抹角天障)의 분포와 특징

3.1. 기원과 확산경로

말각천장(抹角天障)은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성과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지방의 민가 가옥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전(神殿), 사원(寺院), 분묘(墳墓) 등 의례(儀禮)와 전례(典禮) 그리고 사후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과 건축에 사용되었다.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두 곳 중 어느 곳이 선행하는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중해 지역에서는 분묘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던 에트루리아 문화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말각천장이 조성되어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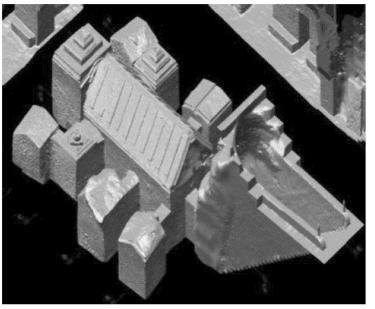


〈그림 2〉 에트루리아(갈색, 영향권과 물자 이동 경로),
그리스(녹색, 영향권과 물자 이동 경로)

에트루리아 문화는 그 이전에 발생한 테라마레 문화[24], 빌라노바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페니키아, 키프로스 등 서아시아의 영향이 있었고, 그리스인

24 Pearce, Mark (1998) "New research on the terramare of northern Italy". *Antiquity* 72 (278), 743-746.

이 남부 이탈리아에 정착하면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따라서 에트루리아 문화에서 처음 말각천장 건축기법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와 서아시아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에트루리아人은 뛰어난 조적(組積) 기술을 발휘했고, 이를 통해 아치와 볼트를 건설했다.[25] 이러한 기술은 이후 고대 로마 건축에 흡수되어 공학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26]



〈사진 8〉 Perugia, Hypogeum of the Volumni(Laser scanner 3D survey)



〈사진 9〉 Perugia, Hypogeum of the Volumni, **말각천장**

에트루리아의 말각천장 사용 여부를 보여주는 사례는 에트루리아의 12개 도시동맹 중 한 곳이었던 이탈리아 중부 페루자(Perugia) 볼룸니(volumni) 고분이다. 1840년 페루자~로마 구간 도로 건설 과정 중 대규모 무덤이 발견되어 〈The Hypogeum of the Volumni〉[27]로 이름 붙여졌다. 여기서 히포게움(hypogeum)

25 아치와 볼트 축조 기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를 통해 이탈리아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치는 쐐기 형태의 부재를 반원형으로 이어 붙여서 만든다. 아치의 기원은 그리스 건축의 오더(Order)라고 할 수 있는데, 기둥(columns)과 그 위에 걸쳐 놓는 수평 부재인 엔타블러처(entablature)가 건축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아치는 엔타블러처 대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쐐기돌로 연결한 것이다. 또한 아치 구조를 수평으로 연장하게 되면 볼트(vault)가 만들어 지는데 천장을 두껍게 처리하면 토압 등을 견디는 힘이 배가된다.

26 김일현(2019) 「도데카폴리, 열두 개의 도시」,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국립중앙박물관, 17.

27 출처: https://penelope.uchicago.edu/Thayer/E/Gazetteer/Places/Europe/Italy/Umbria/Perugia/Perugia/Ipogeo_dei_Volumni/home.html

은 지하실 혹은 볼트 천정을 건 지하실을 의미하는데, 고대 건축에서는 지하에 파놓은 넓은 방을 말한다. 무덤 묘실 천장에는 중앙에 인면(人面)을 조각한 말각천장 구조가 조사 됐다. 이 무덤은 기원전 6~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Arnth Veltimna Aules 가족의 공동묘지다.[28] 에트루리아는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후 100년 사이에 나타났으며 특히 기원전 700년경 도시를 건설하고 기원전 6세기경 번성했다.[29] 이 무덤은 에트루리아의 최고 전성기에 조성한 것이며, 기원전 6세기 이전부터 말각천장을 무덤 등 여러 건축물에 적용한 사례다.



〈사진 10〉 로마 부근 Tarquinia 에트루리아 분묘[30]



〈사진 11〉 로마 부근 Cerveteri의 에트루리아 분묘

에트루리아 고분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기원전 7세기경부터 에트루리아의 귀족들은 정교한 석실분묘 위에 인공 둔덕이라고 불리는 투무루스(tumulus)를 설치한 것이다.[31] 이것은 석실 상부 외부 공간을 토석(土石)으로 덮은 것인데 고구려의 석실봉토분(石室封土墳)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이들 분묘는 에트루리아人의 공동묘지(Necropolises)로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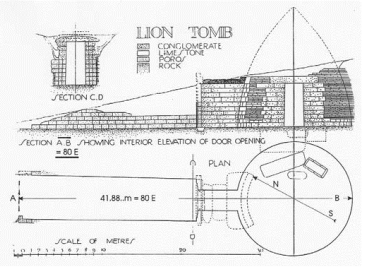
28 Axel Boëthius; Roger Ling; Tom Rasmussen (1978). Etruscan and Early Roman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92.

29 최혜영(2020)「에트루리아 기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서양고대사연구』60집, 서양고대사학회, 82.

30 출처 https://www.donnaglamour.it/patrimoni-unesco-le-necropoli-etrusche-cerveteri-tarquinia/guide-2/

31 최혜영(2020)「에트루리아 기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서양고대사연구』60집, 서양고대사학회, 101.

이의 다양한 매장 풍습을 보여준다. 이 중 말각천장 기법을 사용해 묘실의 천장을 구성한 사례가 기원전 6세기를 전후해 전성기를 이루고 있어, 현재까지 조사된 말각천장 유례 중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12〉 미케네 유적의 Lion Tomb[32]



〈사진 13〉 미케네 유적의 Lion Tomb
묘실 잔존 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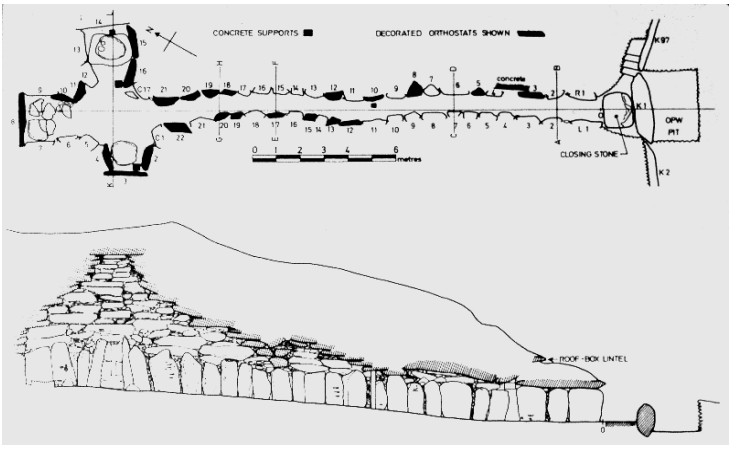
말각천장은 천장을 높게 축조해 공간 확장과 천장의 구조 하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찍부터 돔(Dome) 건축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기능적 유사점을 제외하곤 천장 벽면의 축조기법과 정상부의 마감 처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미케네(Mycenae) 유적의 사자 묘(Lion Tomb)는 이웃한 사자문(獅子門) 유적 전면(前面) 지하에 묻힌 형태로 축조되었으며, 기원전 13세기 초기 미케네 통치자들의 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하 무덤을 톨로스(Tholos)라고 하는데, 방형 석재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져 있다. 이 무덤의 천장은 돔(Dome) 형식을 갖추고 있어 에트루리아의 말각천장에 앞서 돔 축조 기술이 개발되었음을 보여준다.

1960년대 조사된 아일랜드 뉴그랜지(Newgrange)는 신석기 시대 분묘(pssage-grave)로 C14 조사를 통해 기원전 3200년경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33] 주실 내부 천장에는 원시적인 말각천장이 시설되었고, 자연석으로 우물을 쌓는 방식과 유사하게 축조했다. 고구려 고분의 천장은 석재를 정교하게 치석(治石) 후

32 Wace A.J. B.(1921-23) Excavations at Mycenae. e tholos Tombs, BSA 25.

33 출처: https://heritageireland.ie/places-to-visit/bru-na-boinne-visitor-centre-newgrange-knowth-and -d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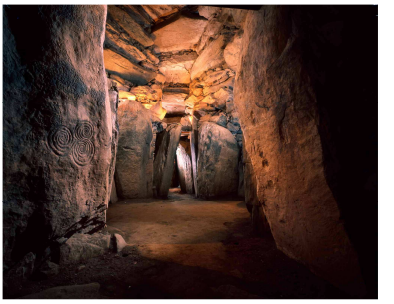
삼각형으로 네 모서리를 덮어 계획적으로 축조했지만, 뉴그랜지 분묘는 크기가 각기 다른 자연석을 이용하여 정교함은 떨어진다.



〈사진 14〉 뉴그랜지(Newgrange) 유적 발굴 조사 도면[34]



〈사진 15〉 뉴그랜지 전경



〈사진 16〉 뉴그랜지 현실 말각천장

프랑스 브르타뉴 가브리니스(Gavrinis) 무덤[35]은 기원전 3500년에서 3200년 사이 축조로 조사됐으며, 약 14m 길이의 통로를 50매의 석판을 이용해 세우고 상부 역시 석판으로 덮어 마감했는데, 외부는 Newgrange와 같이 봉토로 덮었다.

34 Funeral complex (tomb and tumulus) of Newgrange, Ireland. Plan and longitudinal Section (O'Kelly, 1982). Photo of the dome covering the last chamber

35 출처: https://www.france.fr/ko/article/jouons-a-cache-cache-avec-les-megalithes-de-bretagne/#--4

기원전 3000년경부터 유럽 거석문화의 한 축으로 등장한 Newgrange와 Gavrinis 분묘 등의 사례를 통해 유럽 일부 지역에는 석재 가공과 축조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확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 기반을 통해 기원전 6세기를 전후해 의례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말각천장이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폼페이 분묘 유적에서도 말각천장이 조사되었다.



〈사진 17〉 Gavrinis 통로 무덤 내부



〈사진 18〉 Gavrinis 통로 무덤 전경

지중해 이외 장소의 말각천장 사례로는 흑해 아르메니아의 전통 가옥 천장이 있다. 이곳의 가옥과 수도원 등의 천장은 통나무를 이용해 축조했는데, 수평으로 가로지른 통나무(목재)의 길이를 조절하여 정상부로 갈수록 짧은 목재를 사용하였다.(사진 19)



〈사진 19〉 Hazarashen 유형 1[36]



〈사진 20〉 Hazarashen 유형 2

36 출처: https://www.armgeo.am/en/armenian-hazarashen/

그 결과 정상부에는 작은 구멍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예르딕(yerdik)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다면체와 다각형 프레임으로 지어진 지붕과 내부 천장이 있다. 목재는 지붕 중앙의 구멍 방향으로 점차 좁아지는 구조로 역시 정상부에는 사각형의 환기용 구멍이 생기는 형식이다. (사진 20) 이와 같이 제작한 지붕과 내부 천장 구조를 아르메니아에서는 하자라센(Hazarashen)이라고 부른다.

아르메니아 천장 건축 중에는 돔의 기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말각천장과 볼트(Vault) 구조가 혼합된 형태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게타셴(Getashen) 주의 아라켈롯 반크(Arakelots Vank, 수도원) 가비트(Gavit, 홀) 석조 천장은 하자라센을 석재로 대체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르메니아의 연구자들은 하자라센에서 돔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13세기 건립된 아라켈롯 반크의 천장은 교차 볼트 형식의 천장 중앙에 하자라센을 덧붙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 일반적 의미의 말각천장과는 차이가 있다. 볼트와 돔은 구조적으로 축조 방식이 다르며, 볼트 천장 중앙은 이미 높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로마 건축에서 시작된 아치와 볼트가 아르메니아에 전파된 후 전통적인 환기 또는 투창(透窓) 기능을 수행하던 하자라센을 결합함으로써 나타난 형식이다.



〈사진 21〉 아르메니아 Getashen, Arakelots V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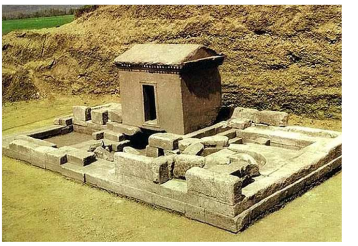
〈사진 22〉 폼페이 유적 공회장 목욕탕 (Terme del Foro) 천장 중앙의 말각천장 표현

불가리아 Kazanlak에는 여러 곳의 트라키아 시대 분묘들이 조사됐는데,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와 유사한 형식으로 지중해 지역과 왕성한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hipka 마을에는 왕의 계곡으로 불리는 오스트루샤(Ostrusha) 봉분이 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축조된 트라키아(Thracian)의 집단 매장시설로, 약 100㎡ 넓이의 마운드 공간 지하에는 모두 6곳의 묘장(墓葬) 시설을 축조했다. 에트루리아의 석관 형태로 조성한 묘실은 60톤이 넘는 화강암 블록 내부를 파내어 조성했다. 내부에는 능숙하게 그려진 초상화, 귀족 가족 구성원, 여러 인물군, 동물 간의 싸움, 식물 및 기하학적 패턴이 있는 수십 개의 벽화와 천장화가 남아있다.



〈사진 23〉 마운드 오스트루샤 보호시설[37]



〈사진 24〉 발굴 당시 내부 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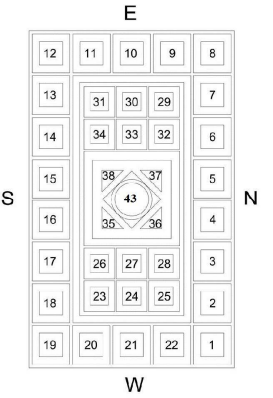
오스트루샤 석관 천장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말각천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서구에서는 천장 면의 단조로움을 피할 목적으로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파낸 것을 코퍼(coffer) 천장이라고 한다. 동양 건축의 격간(格間)과 유사한데 코퍼 내부에는 화려한 문양이나 회화작품으로 장식하였다.

석관(石棺) 천장의 코퍼는 〈그림 3〉과 같이 43간으로 구성되었다. 1~22번 코퍼는 回자 형태로 석재를 가공한 후 천장에 부착하였고, 중앙부에 장방형 回자 모양 석재로 액자 형태의 틀을 제작하여 1~22번 코퍼 사이의 구획을 구분하였다. 중앙부는 외곽보다 낮게 파낸 후 역시 외곽과 동일 방식으로 回자 코퍼를 개별적으로 제작해 부착했다. 중앙의 43번 코퍼는 1매 석판으로 제작했는데 네 모서리(35~38)는 43번 코퍼와 일체형으로 제작했다.

37 출처: https://kazanlakmuseum.com/en/?cid=1



〈사진 25〉 마운드 오스트루샤 사원 석관 코퍼 천장[38]



〈그림 3〉 마운드 오스트루샤 사원 석관 코퍼 천장 구획도

개별 코퍼 내부에는 무덤의 묘주와 관계된 인물을 그렸는데 트라키아인이 숭배했던 신(神)들의 모습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43번의 원형으로 구획된 격간은 특히 주변 코퍼와 구분되며 태양 숭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초상화, 동물과의 장면, 장미, 신화 트라키아 왕실의 일상생활 장면을 복합적 구성한 뛰어난 작품이다.

43번 태양을 표현한 원을 중심으로 35~38번의 구획에는 삼각형을 표현했는데, 앞서 살펴본 에트루리아, 아르메니아의 말각천장과 조형은 유사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즉 주변의 삼각형은 중앙 원 주위 사각형 코퍼를 장식하기 위한 단순 조형 기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곽 코퍼 보다 중앙 부분을 낮고 깊게 조성한 것은 천장 높이를 높여 공간감 확보를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 Kazanlak에는 박공과 돔 지붕이 있는 기원전 4세기 축조 세우테스(Seuthes) III세의 무덤, 역시 돔형 천장이 설치된 Shushmanets의 사원 무덤 등 다양한 건축기법이 적용된 사원 및 분묘 시설이 축조되었는데 지중해 지역에서 기원전 6세기에 등장한 요소로 두 지역 간의 교류 및 말각천장이 지중해에

38 출처: https://kazanlakmuseum.com/en/?cid=1

서 시작해 이웃한 흑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곳의 문화를 꽃피운 트라키아인은 소아시아에도 진출했으며, 이들을 매개로 지중해-흑해-중동으로 문화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26〉 Uplistsikhe 동굴 마을 전경[39]



〈사진 27〉 Uplistsikhe 코퍼 천장과 말각 천장 문양[40]

흑해 연안 조지아(Georgia)는 그루지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고대 도시 우플리스치케(Uplistsikhe)는 초기 철기 시대부터 중세 후기까지 운영되던 도시로, 암벽을 굴착 한 동굴 도시로 유명하다. 주목되는 점은 대부분 동굴에는 장식이 없지만 궁전이 있었던 도시의 중앙 공간 동굴에는 코퍼(coffer) 천장이 있는 홀이 남아있다. 이 중 몇몇 공간 천장에는 팔각형 문양을 규칙적으로 새겼는데, 아치 천장 상면의 코퍼를 형성하고 있다.

우플리스치케(Uplistsikhe)는 기원전 2,000년부터 도시가 운영되었는데, 서기 1세기경 제작된 동전, 단추, 왕관과 금은으로 제작한 다양한 장신구, 도자기와 유리가 조사됐다.

3.2. 매개 지역 근동과 중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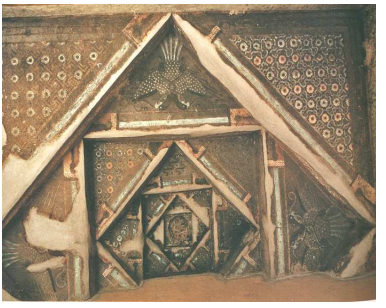
동양 혹은 아시아는 근동(서아시아)과 중앙 그리고 동아시아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시아의 광활함 때문에 편의상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근동

39 출처: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234/

40 출처: https://apollo695.tistory.com/1396

은 유럽과 아시아가 접촉하고 문화를 서로 매개하는 성격이 강하다. 중앙아시아는 근동과 동아시아의 특징이 혼합하여 근동보다는 동아시아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말각천장의 기원을 두고 학계에서는 지중해(地中海) 설과 중앙아시아 설이 대립하고 있어 근동과 중앙아시아 지역 말각천장은 고구려 고분의 말각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중 중앙아시아 설은 동양에서는 발원한 불교가 아프가니스탄·투르키스탄(Turkestan)을 통해 간쑤성[甘肅省]을 거쳐서 중국에 전해지면서 사원 건축의 형태로 알려졌다.

키질 석굴은 쿠차에서 서쪽으로 65㎞ 떨어진 무잘트(渭干)강 왼쪽 밍우타거(明屋達格)산 중턱에 있다. 기원 전후 쿠차에 전래한 불교는 서역의 많은 오아시스 국가들에 석굴을 남겼지만, 그 가운데 키질 석굴은 동투르키스탄(중국 新疆省 일대) 지역 최고의 석굴로 평가받고 있다. 호탄국(于闐國)과 함께 동투르키스탄 최대의 오아시스 국가였던 쿠차는 『아육왕식괴목인연경(阿育王息壞目因緣經)』에 아육왕(阿育王, Ashoka)이 왕자 법익(法益; 鳩那羅·達磨婆陀那)에게 물려준 영토 가운데 쿠차·호탄 등이 포함돼 있다는 기록이 있다. 약 3~4세기경 쿠차 불교는 발전의 정점에 도착해 있었다. 서진 시기(265~316) 역사를 기록한 『진서(晋書)』 권97 열전(列傳)편에 "쿠차에는 1,000여 곳의 사원과 탑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3세기 말부터 4세기 초 많은 수의 쿠차 불교도들이 중국 내지로 가 역경에 종사했다.



〈사진 28〉 키질석굴 167굴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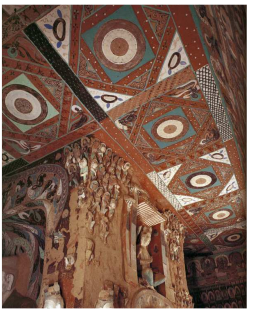
〈사진 29〉 바미얀 석굴 N(a) 말각천장

키질의 167굴(서기 6~7세기)에는 정사각형 평면과 삼각형 모서리 부분에 말각을 표현한 천장이 남아있다. 목재와 석재를 혼용해 축조한 것으로 천장 정사각형 평면의 네 모서리에 대각선으로 빔과 삼각형 목재를 매달아 중심을 서서히 좁히고 올리는 방법으로 더 작은 직사각형 프레임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동일 구조를 몇 단계 반복하는 방법으로 구성했다.[41] 아프가니스탄에는 말각천장과 함께 돔 천장이 다수 축조됐는데 돔은 벽돌 건물을 기반으로 하고 말각천장은 산악 지역에 지어진 목조 구조물에 사용되었다.

아프가니스탄 바미얀(bamiyaan) 석굴은 5~8세기에 걸쳐 조성되었다. 바미얀 석굴 N(a)에는 정사각형 평면의 말각천장을 축조했다. 키질석굴과 차이점은 키질석굴이 목재와 석재를 이용해 사실적인 천장 구조를 조성한 것과 달리, 바미얀 석굴은 천장 석재 면을 파낸 후 대소(大小) 정사각형을 45도 교차시키는 구도로 말각천장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말각천장에 관한 이해와 천장의 중요 의장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나 시대적인 퇴행으로 바미얀에서는 천장을 장식하는 도안(圖案)으로 형식화되었다.[42]



〈사진 30〉 아프가니스탄 포라디 석굴 제4굴



〈사진 31〉 막고굴 251호굴(북위, 386~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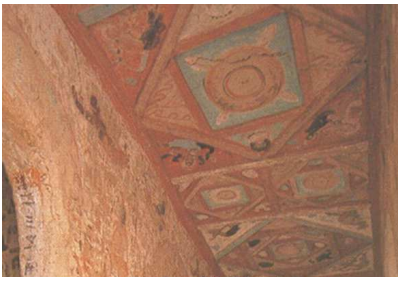
41 宮地治他(2000)「シルクロードキジル大紀行」, ＮＨＫ出版; 樋口隆康(2003)『アフガニスタン遺跡と祕宝, 文明の十字路の五千年』, 日本放送出版協会; 神谷武夫(1996)『インド建築案内』, TOTO出版 키질에는 모두 8곳의 말각천장 구조가 조사되었다.

42 NRICPT 2013: Structure, Design and Technique of the Bamiyan Buddhist Caves, Recent Cultural Heritage Issues in Afghanistan, Volume 5,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Tokyo, Archetype Publications.

포라디 석굴은 바미얀 석굴에서 남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으로,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면 바미얀 석굴과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미얀 석굴의 말각천장에선 중앙 위치와 삼각형 모서리 가운데에 원형의 문양을 회화로 표현했는데, 포라디 석굴은 원형의 구멍을 파내 차이가 있다. 또한 포라디 석굴은 정중앙 원공(圓孔) 주위로 팔각형의 외곽선을 돌렸다. 포라디 석굴의 말각천장 특징은 말각을 구성하는 석재를 개별적으로 짜맞추지 않고 일석(一石) 표면을 조각물처럼 가공하였다.



〈사진 32〉 막고굴 제249굴(서위, 535~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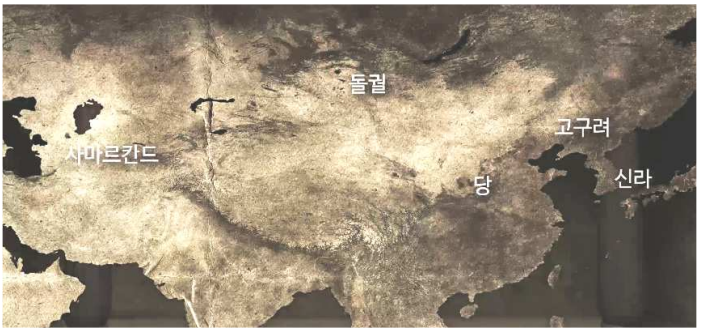
〈사진 33〉 막고굴 제268굴(북양)

요동에서 하서회랑(河西回廊) 지역의 고분에서는 말각천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둔황 막고굴에는 수많은 말각천장 조형이 벽화로 표현했다. 천장 구조는 일명 복두식(伏斗式)[43]으로 정상부가 사각형을 구성한다. 석실과 석실을 연결하는 통로 천장 역시 말각천장 문양을 패턴으로 표현했다. 이들 천장은 고구려 고분에서 사용한 전형(典型)의 말각천장과 달리 장식적인 표현에 집중되어 있다. 막고굴 268호 굴의 선실(禪室) 천장 일부(사진 33)에는 말각천장 외곽을 세장(細長)한 凹凸 형태로 가공 했다. 이처럼 북양(北凉) 시대 석굴에 입체감을 강조한 말각천장을 표현한 것이, 막고굴 부근에 말각천장을 사용한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추정할 순 있을 것이다.

막고굴은 698년 작성된 중수막고굴불감비(重修莫高窟佛龕碑)에 따라 366년

43 복두식(伏斗式) 천장은 정방 형 굴실(窟室) 네 벽면이 안쪽으로 경사지게 좁히면서 올라가 천장 정상부 중앙에서 굴실 평면보다 작은 사각형을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낙준(樂僔)이 처음 개착(開鑿)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석굴 중 가장 오래된 곳은 북량(北涼)이 돈황을 지배한 421~439년경에 조성했다. 이 시기의 석굴은 후진불감식(後陳佛龕式)이라 하여 방형 또는 장방형(長方形)의 석실 정면 벽에 감실을 마련하고 본존불로 미륵불과 보살상을 봉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좌우 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과 일대기를 그린 불전도(佛傳圖)와 본생도(本生圖)가 주류를 이룬다. 당시 돈황 지역은 전진(前秦)이라는 티베트계 씨족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고구려 고분의 말각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순 없다.[44]



〈사진 34〉 사마르칸트 지역 위치도

서역의 말각천장 기술과 문화의 동전(動轉)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는 아프라시압의 궁궐 유적이 있다. 아프라시압(Afrosiab)은 고대 소그디아

44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六, 小獸林王條 377년 전진에 사신을 파견했다(遣使入符 秦朝貢), 『資治通鑑』 권104 진기26 太元 2년 1월조에는 "봄에 고구려, 신라, 서남이 등이 모두 사신을 보내 진에 입공하였다(春, 高句麗·新羅·西南夷, 皆遣使入貢于秦.)"라고 하였다. 377년에 고구려가 신라와 함께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신라는 중원왕조와 처음으로 교섭을 가졌으나, 고구려는 그 이전부터 전진과 활발히 교류하던 상태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고구려가 신라를 대동하고 전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는데(徐榮洙(1981)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성격」, 『東洋學』 1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68-169; 여호규(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관계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36.) 신라 내물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구려에게 전진과의 교섭을 부탁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조범환(2017) 「신라 奈勿王代 前秦과의 交涉과 그 정치적 배경」, 『新羅史學報』 41, 신라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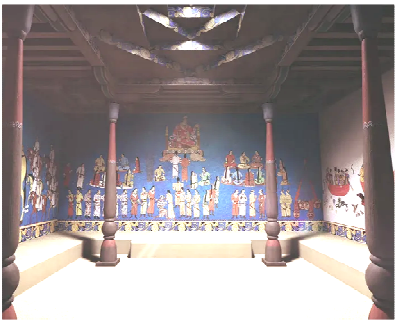
(粟特) 왕국의 도시인 사마르칸트(Samarqand)의 북쪽 근교 지역으로 한반도와 관계된 인물이 그려진 벽화로 잘 알려진 곳이다.

소그디아(Sogdia)는 565년경 돌궐 세력 아래 편입되었다. 돌궐이 580년대 동서로 나뉘고 수당(隨唐)의 공략에 직면해야 했다. 630년에는 동돌궐이 막을 내리고 반세기(630~682) 간 중국에 복속되었다. 7세기부터 서돌궐이 성장하면서 고창국(高昌國)과 결혼을 매개로 복속(服屬)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사마르칸트 왕 굴출지(屈出支)는 무덕(武德) 10년(627)을 시작으로 당(唐)에 조공했다. 『신당서(新唐書)』에는 고종 영휘(永徽) 연간 "그 땅(康國, 소그디아)을 강거도독부(康居都督府)로 삼고, 그곳의 왕 바르흐만(Varkhuman, 拂呼縵)을 도독으로 삼았다."고 한다. 소그디아는 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중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아프라시압 궁전과 벽화는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벽화가 그려진 방은 정방형으로 동쪽 벽에 방문을 설치했다. 서쪽 벽에 각국 사절들을 그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의 상층부는 발굴 당시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 궁전은 3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로, 유구의 길이만 80미터에 이른다. 『신당서(新唐書)』「서역전(西域傳)」에는 소그디아(Sogdia) 왕이 거처하는 곳을 성좌유중루(城左有重樓)라고 하여 다층의 높은 누각으로 표현하였다. 당시 건축은 토축(土築)과 조적조(組積造) 방식을 혼용해서 두꺼운 벽체를 세우고 벽체에 화살표 모양의 창을 낸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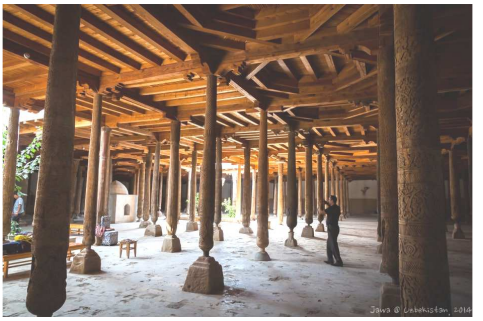


〈사진 35〉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 발굴(195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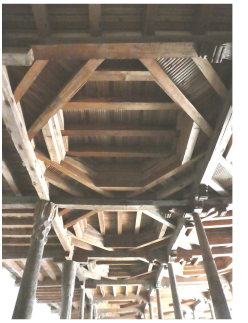


〈사진 36〉 아프라시압 궁전 디지털 복원도[46]

모스크(Mosque)는 이슬람의 기도처 또는 사원을 의미하는데, 모스크는 기능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하이포 스타일 모스크(the Arab Hypostyle Mosque)는 기도실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수직 지지대 또는 기둥으로 구성된 모스크로 초기에 지배적이던 유형이었다. 사마르칸드 지역에 서기 10세기경 축조된 히바(Khiba)의 줌마 모스크는 여러 번의 재건 공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8세기 말로 알려져 있다. 줌마 모스크는 여느 모스크와는 달린 단층에 특별한 장식이 없으며, 아치형 정문, 돔 등도 없다. 하지만 55×46m의 넓은 예배당에 약 3m의 간격으로 213개의 기둥이 있다.



〈사진 37〉 히바(Khiba)의 줌마 모스크 천장 1 [47]



〈사진 38〉 히바(Khiba)의 줌마 모스크 천장 2 [48]

목재를 이용해 축조한 줌마 모스크는 하이포 스타일 건축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둥이 받치는 천장은 격칸(格間) 구성이며, 칸의 모서리에서 중심부로 향해 횡목(橫木)[49]을 설치하였다. 천장 무게를 보강하기 위한 것인데, 모두 말각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45 출처: https://namu.wiki/w/%EC%95%84%ED%94%84%EB%9D%BC%EC%8B%9C%EC%95%95%20%EA%B6%81%EC%A0%84%20%EB%B2%BD%ED%9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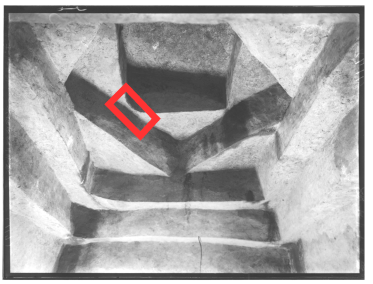
46 각주 45)와 같음.

47 출처: https://blog.naver.com/zonmini/22015157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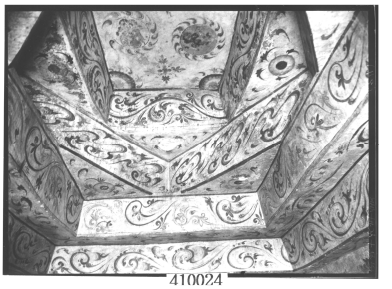
48 출처: https://kiramonthly.com/2042

49 부경사재(副傾斜材)라고도 하는데, 트러스 따위에서 격칸(格間)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길이가 작은 경사재다.

전통과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의 거주 공간은 실내 환기를 위해 천장을 개방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아프라시압 궁전의 말각천장은 대형 건축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환기시설을 반영하면서 만들어졌다.



〈사진 39〉 平南 大同 大寶面 2號墳 玄室의 말각천장[50]



〈사진 40〉 平南 中和 眞坡里 1號墳 玄室 말각천장[51]

이와 같은 차이는 고구려 고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보면 2호분 현실의 말각천장(사진 39)은 정상부에 독립된 삼각형 석재를 네 귀퉁이에 삽입하지 않고, 중심부를 凹형으로 파낸 뚜껑돌을 사용했다.[52] 반면 진파리(眞坡里) 1호분은 정상부 바로 밑에 삼각형 석재를 네 귀퉁이에 결구시켜 자연스럽게 중심 정상부에 사각형 凹형 구조를 형성했다. 이처럼 말각천장 정상부를 구성하는 기법은, 개석(蓋石)의 설치 방법에 따라 차이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계통을 달리하는 말각천장 형성의 또 다른 기원으로는 할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 현재 튀르키예의 보드룸(Bodrum))에 있는 마우솔로스 영묘(Mausoleum of Halicarnassus)를 모방한 밀라스(Milas)의 영묘가 있다. 밀라스 영묘(靈廟)는 서기 2세기 무렵 축조로, 원형은 기원전 353년 튀르키예의 할

50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013165(1937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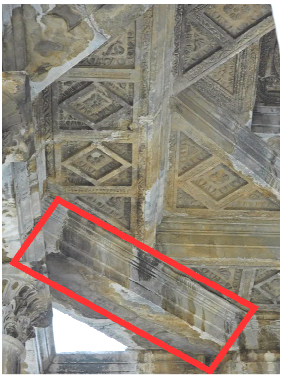
51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014102(1941년 촬영)

52 〈사진 39〉의 적색 사각형 구역은 개별 석재가 연결된 것이 아닌, 1매 석재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사진 40은 삼각형 석재를 네 귀퉁이에 결구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상부는 凹 형태가 아닌 평면구성을 취하고 있다.

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에 건설된 마우솔로스의 무덤 건축물이다.



〈사진 41〉 튀르키예 밀라스 소재 마우솔로스 영묘(Mausoleum at Halicarnassus)를 모방한 영묘 (기원전 2세기) 전경[53]



〈사진 42〉 튀르키예 밀라스 소재 마우솔로스 영묘(Mausoleum at Halicarnassus)를 모방한 영묘(기원전 2세기) 천장과 스퀸치(Squinch)

밀라스(Milas)의 영묘는 지상에 노출된 기단부와 그 위로 열주(列柱) 형식의 기둥을 세우고 피라미드형 지붕을 올린 독특한 형식으로 축조되었다. 외진주(外陣柱) 기둥의 중앙부에는 기둥 없이 천장이 노출되어 있는데, 내부 천장을 팔각형으로 구성했다. 특히 천장 중앙부를 비롯해 사방 모두에 팔각형 말각천장을 조형화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말각 구조는 서양 건축의 스퀸치(Squinch)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42〉[54]

3.3. 중국의 말각천장 조성

중국의 문헌 기록에서 말각천장과 관계된 내용은 두팔조정(斗八藻井)에서 찾을 수 있다.

---

53 출처: https://turkisharchaeonews.net/site/mausoleum-halicarnassus

54 스퀸치(Squinch)는 벽이 만나는 각 상단 모서리에 대각선으로 걸치도록 만들어진 구조물로, 고대 페르시아의 Sassanid 제국에서 시작되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전역에서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다.

가. 지붕의 조정(藻井)에 특이하게 처마를 거꾸로 세우고, 붉은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 있다.[55]

나. 지붕의 사각형 우물에 거꾸로 연꽃이 심겨 있다.[56]

다. 전당은 동정성(東井星)의 형태를 본떠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연꽃은 수중의 물건이므로 화재를 방지한다.[57]

라. 전당에 원형의 우물, 사각형의 우물 및 연꽃 등을 조각하여 화재를 피하고자 했다.[58]

가장 이른 말각천장 사용은 동한(東漢) 때 축조한 산동성(山東省) 기남화상석묘(沂南畵像石墓)[59]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해 중국 묘제는 단순한 형식의 굴(窟)에서 벽과 천장을 갖추게 되고 마치 지하 저택과 같은 조형으로 발전했다. 나무를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든 관곽(棺槨)으로 이루어진 황장제주(黃腸題奏)[60]는 황제부터 제후까지 사용한 장제(葬制)로 목재를 이용해 무덤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시기 무덤의 구조는 묘도, 묘문, 용도, 좌우이실(左右耳室), 전실, 중실, 2곳의 후실로 정비되기 시작한다.[61]

1969년 발굴된 기남화상석묘는 석재를 이용해 묘를 축조하고 다양한 주제의 회화작품을 석재 표면에 그렸다. 이것을 화상석(畵像石)이라고 부르는데, 후한

55 西京赋: 带倒茇于藻井, 披红罗之邪猎

56 鲁灵光殿赋: 匝渊方井, 反植荷蔡

57 风俗通义: 殿堂象东井形, 刻作荷蔡 藻, 水物也, 所以厌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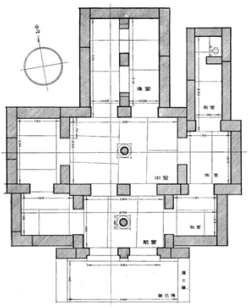
58 沈约(宋书): 殿屋之为圆泉, 方井兼荷华者, 以厌火祥

59 南京博物院(1956)『沂南古畵像石墓發掘報告』, 上海; 乌琼(2015) 沂南古墓画像石图像叙事及美学思想.《陕西师范大学》, 2015曾昭燏. 关于沂南画像石古墓年代的讨论 — 答李文信先生.《VIP》, 1958徐淑彬. 沂南北寨汉画像石墓墓主初探,《临沂大学学报》, 1990杨爱国. 幽墓美鬼神宁—山东沂南北寨村汉代画像石墓探析.《美术学报》, 2016马辛格. 沂南北寨汉画像石墓墓主"女左男右"探析.《山东艺术》,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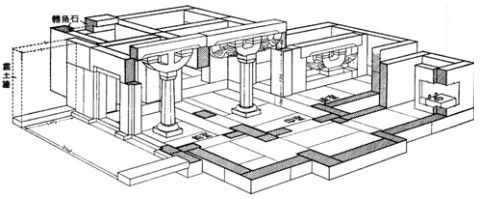
60『漢書』,「霍光傳」, "백목(柏木)을 관의 바깥에 노랗게 두어 쌓기 때문에 '황장(黃腸)'이라고 했다.; 나무 머리가 안을 향하므로 '제주(題湊)'라 했다."; 『禮記』,「檀弓上」, "제주는 방(方)이 모두 1척이다. 관의 재목은 모두 아래에서 쌓아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제주라고 한다. 주는 향하다는 말이다. 나무의 머리가 서로 향해서 사아(四阿)가 된다"; 『吳越春秋』, "文石爲槨, 題湊爲中"; 『呂氏春秋』, "題湊之室, 棺槨數襲, 積石積炭, 以環其外"

61 정영대 옮김(2017)『중국고고학』 진·한, 사회평론, 90.

시대의 서기 2세기경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됐다. 기남화상석묘는 일천석(一千石) 관리에 해당하는 규모의 분묘로 전·중·후실 등 3실 묘로 축조됐다.[62] 동한 후기에는 관리의 무덤 대다수가 3실 혹은 다실묘(多室墓)로, 지방별로 관리와 유력 세력의 발전과 더불어 제후왕 세력은 쇠락하여 장제(葬祭)에도 그러한 정황이 반영되었다.



〈사진 43〉 기남화상석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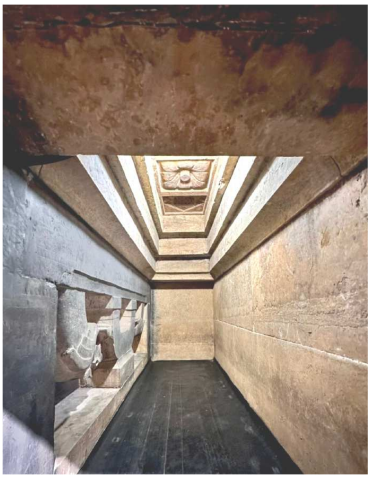


〈사진 44〉 기남화상석묘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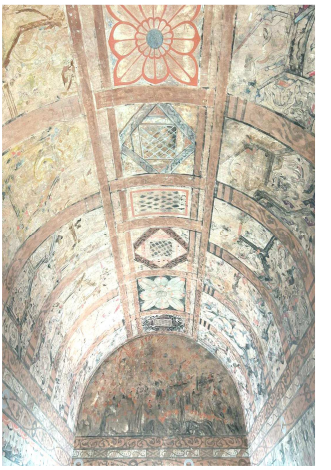
묘실 대부분을 석재로 축조했으며, 442㎡의 넓은 공간에 42구의 화상석과 73개의 초상화를 표현했다. 특히 중실(中室)과 후실을 중심으로 말각천장을 표현했는데 복잡한 구조와 조형 표현으로 발생하는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으로 시설한 것이다.

중실 천장에는 직사각형 내부에 독립적인 사각형 구획을 표현 후 각각의 사각형 내부에 중앙 연꽃과 좌우 말각천장 조형을 마련했다. 1954년 최초로 발견된 화상석묘의 축조 시기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1956년 정식 발굴 보고서 출판 이후 동한(東漢) 말기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후 발견된 화상석묘의 조사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말각천장 기법이 동한 시대부터 묘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법과 조형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62 河南文物研究所(1993)『密縣 打虎亭漢墓』, 文物出版社, 1993; 曾昭燏等(1956)『沂南畵像石墓發掘報告』, 文化部文物管理局



〈사진 45〉 기남화상석묘 중실 말각천장[63]



〈사진 46〉 新密市 打虎亭汉墓[64]

이곳 말각천장은 고구려 고분과 유사 형식으로 축조했는데, 전실과 후실을 연결하는 공간(사진 45)인 중실(中室)에는 장방형(長方形) 복도를 따라 하부 벽체와 상부 벽체로 나누어 시공했다. 재료는 모두 석재이며 3단으로 구성한 상부 벽체는 계단식으로 천장 중앙부를 향해 좁아지는 형태다. 이러한 천장 구성법은 서주시(徐州市) 모촌(茅村) 한화상석묘(汉画像石墓) 천장의 축조 기법과 유사하며, 천장 면적을 축소 시키는 본격적인 말각천장의 선행적인 방식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표현은 운강(雲崗)과 둔황(燉煌) 석굴 등에서 회화적인 표현 방식으로 조성된 사례와 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郑州市)에 소속된 신밀시(新密市) 타호정한묘(打虎亭汉墓) (사진 46)가 있어 양자 간의 친연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모촌(茅村) 한화상석묘(사진 47)와 백집한묘(사진 48) 등의 계단식 천장과 동일한 축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계단식 천장은 석재를 하단부터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내어 쌓기 방식으로 쌓아 올린 기법으로, 고구려 말각천장의 모서리를 줄이는 방식과는 형태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만 수직 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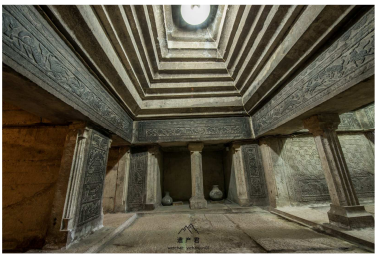
63 출처: https://linyi.dzwww.com/news/202206/t20220629_10461796.htm

64 출처: https://mbd.baidu.com/newspage/data/dtlandingsuper?nid=dt_3926507949448739506

확장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타호정한묘의 천장은 아치 형태인데 아치 정상부에 말각천장 조형을 표현했다. 따라서 기남화상석묘의 계단식 천장은 궁륭 또는 아치를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 볼 수 있으며, 석재로 궁륭천장을 조성하기 곤란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진 47〉 茅村 汉画像石墓 계단식 천장[65]



〈사진 48〉 白集汉墓 계단식 천장[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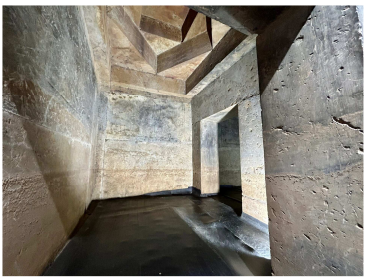
기남화상석묘 후실은 묘주(墓主)의 시신을 봉안한 장소로, 묘의 핵심 공간이다. 이곳 천장(사진 49)은 고구려 고분의 말각천장과 동일한 형태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단지 삼각형 석재를 모서리에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닌 사각형 석판의 내부를 凹 형태로 제거한 후, 이들 석재의 방향을 45°로 돌려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삼각형 석재를 사용해 천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중국 서주(徐州)의 한화상석예술관 소장의 뇌신(雷神)이 조각된 부재(사진 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각형 대형 석재 4매를 맞물려 중앙에 사각형을 구성하도록 배치한 후, 사각형 석재와 석재 위에 또 다른 사각형 석재를 적층하면 천장 정상부로 갈수록 면적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팔각형 말각천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한화상석예술관 소장 말각천장의 부재는 비교적 소형 석재를 이용해 말각천장을 구성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삼각형 석재만으로 말각천장을 구성하게 되면 사각형 석재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하중을 지탱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삼각형 석재만으로 천장을 구성하는 것은, 말각천장의 마지막 단이

65 출처: https://www.163.com/dy/article/EJIGHGI70521AJ1J.html

66 출처: https://k.sina.com.cn/article_3960624673_pec12562102700i0ba.html?cre=tianyi&mod=pcpager_focus&loc=10&r=9&rfunc=100&tj=none&tr=9

나 기남화상석묘 중실 천장의 장식적인 말각 조형 표현에 주로 사용해 왔다.



〈사진 49〉 기남화상석묘 후실 천장[67]



〈사진 50〉 徐州 汉画像石艺术馆收藏
藻井上雷神形象[68]

중국 말각천장은 건축적인 기능 중심의 천장과 도안(圖案) 위주로 나눌 수 있다. 말각천장 구조는 한화상석묘 내부 천장 축조 방식의 하나로 4매의 삼각형 석재를 조합해 정사각형 천장을 만들고, 그 위로 다시 4매의 삼각형 석재를 순차적으로 중첩해 쌓은 뒤, 마지막으로 중앙부에 정사각형 석재를 개석(蓋石)으로 덮는 방식이다. (사진 52) 도안 위주의 천장은 마름모꼴(菱形) 형태를 띠며 내부에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마름모가 중첩되어 있고 각 모서리는 외부 마름모 4 변의 중심과 교차하였다.



〈사진 51〉 北京 秦君神道石阙顶 莲花[69]



〈사진 52〉 山东 嘉祥武氏家族墓中
一处叠涩结构墓顶[70]

67 출처: https://linyi.dzwww.com/news/202206/t20220629_10461796.htm

68 출처: https://www.sohu.com/a/243310421_772510?_f=index_chan13news_70

베이징에서 출토된 동한(東漢) 진군신도(秦君神道)의 천장 개석은 바닥 면이 고부조 도안이며, 다층의 마름모 중첩으로 구성된 도안 중앙에는 마름모 모양의 연꽃이 있다. 이러한 구도는 실제로 모서리 계단형의 말각천장을 모방한 것으로, 주로 산둥과 장쑤성 북부의 동한(東漢) 시대 화상석묘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장식 도안의 형성과 유행은 상징적 의미 및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대(漢代)에 말각천장 구조의 천장이 유행한 것은 묘실의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내 공간의 확장과 이에 상응하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지붕을 축조하기 위해 말각천장은 효과적인 대안이 되었다. 한대는 서역과의 통교(通交)를 통해 이 지역에서 창안된 말각천장 등 건축 기술이 함께 유입되었고, 분묘건축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사진 53〉 하서주랑(河西走廊) 노선

산동성(山東省) 화산현(華山縣) 화상석묘에서는 석판으로 완전한 말각천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고분은 특히 원가(元嘉) 원년(424)의 기년까지 확인되었다.[71] 허난성(河南省) 양성(襄城) 자구(茨沟)의 전석묘(磚石墓)는 영건(永建)

69 陈轩(2022)「从技术, 观念到纹样：东汉藻井图案的起源及演变」,『艺术设计研究』, 2022年1期, p.50 圖 1.

70 陈轩(2022)「从技术, 观念到纹样：东汉藻井图案的起源及演变」,『艺术设计研究』, 2022年1期, p.50 圖 2.

71 김병모(1978)「抹角藻井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歷史學報』 제80집, 역사학회, 3.

7년(132)이라는 조성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묘실은 벽돌로 축조한 후 천장은 석재를 이용해 말각 기법으로 축조했다.

중국은 고구려 고분의 구조적 형태보다는 회화기법 조형을 선호했다. 기남 화상석묘 등 중원지방에서는 말각천장을 구조적으로 구현했지만, 중국에서 하서주랑(河西走廊)으로 불리는 난주에서 둔황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천장화의 형태로 말각천장 조형이 유행했다. 하서주랑은 간쑤성(甘肅省)의 란저우(蘭州)와 하서사군(河西四郡; 武威, 張掖, 酒泉, 敦煌)을 포괄하는데, 내륙 신강(新疆)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이자 고대 실크로드이며, 고대 동아시아와 서방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에서 중요한 국제 교통로였다.

4. 고구려 말각천장 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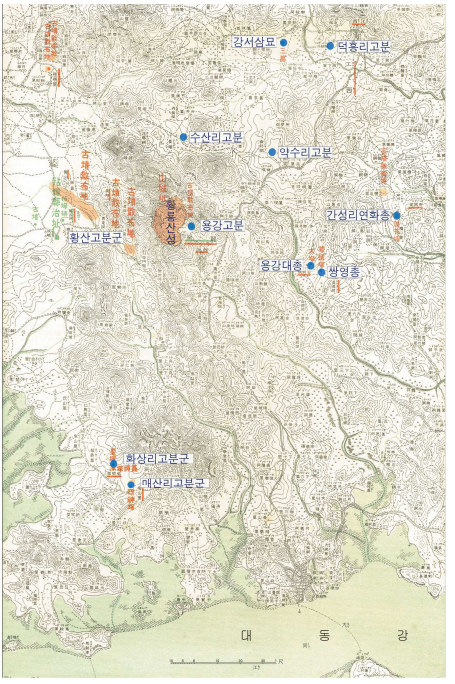
4.1. 고구려 고분의 조사 경과

고구려 고분 연구는 고분의 형태와 벽화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묘실 등 매장구조에 앞서 내부에 조성된 벽화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묘실 구조와 벽화가 결합 된 양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현재 106기가 알려져 있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무순에 1기, 랴오닝성 환인에 1기, 지린성(吉林省) 집안에 29기(長川 포함), 북한의 평양과 그 주위에 74기가 있다. 집안은 고구려의 제2차 왕도였고, 평양은 제3차 왕도였기 때문에 이곳에 고분이 집중되어 있다. 환인은 제1차 왕도였으나 벽화고분은 왕도가 이동한 후에 조영되었다. 1945년 이전에 발견·조사된 벽화고분은 집안에 29기, 평양과 그 주변에 19기가 있다.

고구려 고분 내부에 조성한 벽화의 존재는 1906년을 시작으로 1908년 프랑스인 샤반느(M. Ed. chavannes)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1907년 고구려 유적 조사 중 산연화총(散蓮花墓)[72]을 발견한 그는 뒤이어 고구려 고분에 주목할 견

해를 제시했는데, 장군총 정상에 남아있는 건축물 유구에 관한 논의였다. 현재도 건축물의 존재 여부, 향당(享堂), 단순 보호용 지붕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장군총에 관한 최초 연구자였다.



〈사진 54〉 평양 부근 고구려 고분 위치

이들은 당시 조사를 통해 고구려 고분의 존재와 그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10년 이후부터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를 중심으로 같은 조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와 구라야마 슌이치(粟山俊一) 등이 주도했고, 이 외에도 오바 쯔네키치(小場恒吉),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등이 있다. 세키노 조사단은 대동강 변에서 낙랑 고분 2기를 굴착하고, 임원면(林原面)에서는 고구려 고분, 일명 사동 고분(寺洞古墳)을 조사하였다.[73]

사동 고분은 대성산성의 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이 평탄해지는 장소에 조성되었으며, 조사 전에는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인 인부들을 동원해 고분 정상부 굴착을 시도하였으며, 천장석(天障石)을 노출한 장면이 확인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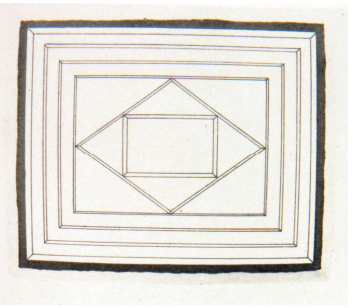
72 1907년 프랑스인 에두아르 샤반느가 발견하여 소개함으로써, 고구려 벽화고분 중 가장 먼저 알려졌다. 1909년 일본학자들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석실 내부에서 골고루 흩어져 그려진 연꽃 그림으로 인해 산연화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길림성 통화시 집안시 태왕진(吉林省 通化市 集安市 太王鎭)에 위치하며 현재 서강(西岡) 113호분으로도 불린다.

73 藤井惠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李明善(2004)『東京大學 總合硏究博物館所號關野貞コレクションフィ-ルドカ-ド目錄』, 東京大學總合硏究博物館. 2004.

는 것으로 보아 천장석을 걷어내고 석실 내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고분은 연도가 남쪽 중앙에 달린 단실묘이다. 장방형(長方形) 평면에 바닥 면보다 한 단 높게 설치된 시상이 좌우 쌍으로 설치되어 있다. 천장의 형태는 전형적인 고구려 석실분과 마찬가지로 말각천장이다. 우선 평행으로 3단을 내어 쌓고, 그 위의 모서리를 2단에 걸쳐 삼각 고임 한 다음 천장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고분의 구조에 대한 세부 설명은 남아있지 않지만, 도면에서 천장 고임석의 모서리 이음 선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사진 56), 사동 고분은 석실을 돌로 쌓아 올린 후 석회를 두껍게 발라 벽면을 마무리했음을 알 수 있다. 천장석은 석실 내부에서 보면 정연하지만, 뒷면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진 55〉 사동 고분 천장석 노출[74]



〈사진 56〉 사동 고분 천장 실측도[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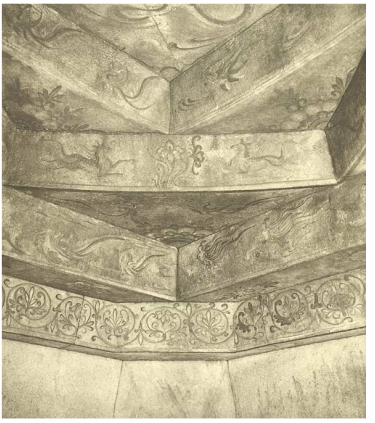
강서대묘(江西大墓)와 중묘(中墓)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키노가 조사하면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세키노는 고분 내부에 벽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더불어 대묘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건축적인 구조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고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각 벽면을 대형 석재 한 장으로

74 朝鮮總督府(1915)『朝鮮古蹟圖譜』2,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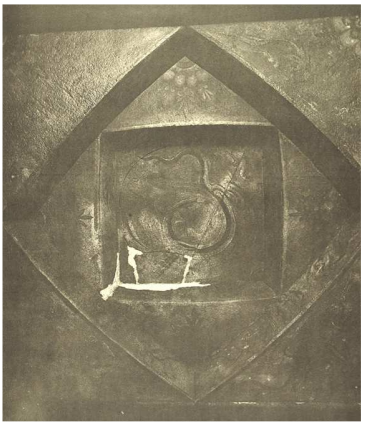
75 朝鮮總督府(1915)『朝鮮古蹟圖譜』2, 125.

마감한 솜씨에 대해 건축학자로서의 놀라움을 표현했다.

1913년에는 평양 부근뿐 아니라 집안현 지역까지 조사 영역이 확장되었다. 평양 부근의 대성동(大城洞) 대총(大塚)과 쌍영총(雙楹塚)의 두 분묘를 발굴했다. 이후 매산리 사신총, 화산리 감신총, 성총(星塚) 등을 발굴했다. 평양 부근 조사를 마친 후에는 집안현 조사를 시작해 삼실총, 산연화총, 구갑총, 미인총에서 벽화를 조사했다.



〈사진 57〉 강서대묘 현실 천장 서북쪽 모서리[76]



〈사진 58〉 강서대묘 현실 말각천장[77]

1916년은 세키노가 고구려 고분을 발굴한 마지막 해로 1920년 이후의 고적 조사에서는 새로운 벽화고분을 발굴하지 않고 기존 고분을 재조사하였다, 이 해 발굴한 고분은 대성산 기슭에서 2기, 순천군에서 1기를 조사했다. 순천군의 천왕지신총은 1914년 발견 후 벽화 훼손이 심했는데, 세키노는 조사 후 입구를 폐쇄하였다. 1917년 실측도와 벽화 모사도를 제작한 후 수리를 총독부에 건의하였다.

세키노의 조사는 비록 식민지 지배 정당화를 위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근대적인 조사 방법을 적용한 유적 조사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

76 朝鮮總督府(1915)『朝鮮古蹟圖譜』2, 211.

77 朝鮮總督府(1915)『朝鮮古蹟圖譜』2, 214.

을 수 있다. 건축을 전공한 세키노는 고분 내부의 벽화와 함께 강서대묘를 시작으로 내부 축조 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고구려 고분 자료에는 내부 사진과 여러 장의 실측 도면이 실려 있다. 도면에는 축척(縮尺)을 표시하고 동서남북 방위와 묘실 위치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였다. 다만, 세키노가 진행한 발굴 방식이 봉토 석실분의 경우 석실 외부에 두껍게 덮인 봉토(封土)를 완전히 제거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지하에 묻힌 석실 구조체를 노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면에서 표현한 석실의 외형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조사된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황에 관한 체계적 조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고구려 벽화고분 분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계에서는 1960년경에 집안 지역 13기, 북한 지역 31기의 벽화고분을 파악했다.[78] 1990년에는 80여 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79] 같은 해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벽화고분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집안현 일대 23기, 평양지방 38기, 황해도 6기 등 전체 67기로 집계하였다.[80] 1991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술사 연구 현황을 분석하면서 집안 지역 20기, 평안남도 47기, 황해도 9기 등 총 76기를 정리하였다.[81] 1993년 중국 22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8기로 벽화고분 현황을 파악하였다.[82]

78 주영헌(1960)「고구려 벽화무덤의 구조형식과 벽화내용의 변화발전(1)·(2)」,『문화유산』2·3, 사회과학출판사.

79 조선유적유물도감간행위원회(1990)『조선유적유물도감』5, 5.

80 이호관(1989)「고구려의 고분」,『한국사론』19, 국사편찬위원회, 52-57. 고구려 말각천장은 중국 요양, 황하 중류, 중원 지역의 적석총과 구조적으로 친연성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1 이성미(1991)「북한의 미술사 연구현황과 고분벽화」,『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303-307.

82 東潮(1993)「朝鮮三國時代における横穴式石室墳の出現と展開」,『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47; (1997)『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119-169.

4.2. 고구려 고분의 축조 형식과 말각천장

고구려 고분의 형식은 지상에 자연석 혹은 가공된 석재를 이용해 축조한 적석봉분(積石封墳) 시설을 갖춘 장군총 유형, 지하에 석실을 조성한 석실봉토분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말각천장 시설은 현재까지 지하에 석실을 마련한 고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 내 말각천장의 특징과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해선 벽화와의 상관성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마치 건축사적인 발전 과정 중 재래 문화의 영향으로 말각천장에 벽화를 그린 것인지, 또는 벽화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인 말각천장을 고분 내부에 반영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고구려 고분은 환인과 집안·평양 부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적석총(積石塚)과 석실봉토분(石室封土墳)으로 크게 나뉜다.[83] 이중 석실봉토분은 내부에 벽화가 그려진 사례가 많은데, 집안 부근을 비롯한 압록강 중류 일대와 특히 평양 등 대동강 유역에 집중해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적석총 계통인 우산하(禹山下) 41호분 등 1~2기 외에는 모두 석실봉토분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석실봉토분의 기원과 분포, 구조 특징, 변천과정 등은 벽화고분의 축조 시기를 밝히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84] 석실봉토분 형식의 고분은 크게 2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부 천장의 높이가 낮고 벽면은 안 기울임이 심하며 평천장으로 덮은 형식은 대부분 소형으로 독로강, 압록강, 동가강 유역의 소형 석실봉토분의 절대다수는 묘실 벽을 안으로 기울게 좁혀 쌓아 올리고 마감으로 대형 석재 몇 개로 천장을 덮어서 평천장을 한 것이다. 대성산 고분군, 평양 부근과 서해안 일대 고구려 고분 중 이런 형식의 고분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둘째, 유형의 소형 고분은 벽면이 곧고 묘실 평면이 방형에 가까운 것이다. 천장은 모를 죽여 가면서 좁혀들다가 큰 판석으로 마감하는 형식이다. 이런 유

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적석총 - 돌각담무덤', '석실봉토분 - 돌간흙무덤'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1977)『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26.)

84 金元龍(1980)『韓國壁畫古墳』, 一志社, 49.

형의 고분은 모를 죽이는 데서 생기는 삼각 고임으로 시작되어 한 장의 대형 천장석(天障石)을 이용해 천장을 마감했다. 이들 유형의 고분은 대체로 남향을 취하고 있어 초기 고분이 서남향 혹은 서향으로 배치하던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석실봉토분은 대형 석재를 이용해 묘실을 축조하기 때문에 기초를 견고히 하였다. 바닥에는 숯과 진흙, 모레와 회(灰) 등을 번갈아 두껍게 깔고 다졌다. 내리 1호분은 묘실 바닥에 박석(薄石)을 깔고 다시 회를 이용해 미장(美裝)하였다. 그리고 바닥 주변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했다.[85] 봉분에는 봉토(封土) 마감 아래에 자갈을 씌운 것도 있고 봉분 정상부에 기와를 덮기도 했는데 장군총에서는 다량의 기와 편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사각추(四角錘) 모양의 대형 석재를 올려놓기도 했다.

이들 고분의 묘실 내부 벽은 안 기울임이 있는 것과 직선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뉜다. 안 기울임이 있는 것은, 천장이 묘실 내부로 모이도록 한 궁륭식천장(穹窿式天障)과 관계된 것이다. 무덤의 천장 형식은 평천장, 사아천장(四阿天障)[86], 꺾음천장, 궁륭천장, 평행고임천장, 3각고임천장, 8각고임천장, 평행3각고임천장, 궁륭3각고임천장 등이 있다.[87] 평천장은 가장 많이 사용한 기법인데 장방형(長方形)에 대형 무덤의 묘실도 한 장 또는 몇 장의 대형 천장석을 이용해 덮은 것이다. 사아천장, 꺾임천장, 궁륭천장은 천장을 곡선 혹은 목조건축의 지붕과 같은 형태로 처리하였다.

묘실 내부를 목조건축 공간처럼 구현하기 위해 천장 부분에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과 같이 활기를 만들어 놓았거나 그려놓았다. 이것은 벽면에 기둥, 두공(枓栱), 도리와 함께 묘주(墓主) 생전 건축물을 재현하려던 의도를 반영한

8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1977)『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33.

86 사아천장(四阿天障)은 네 벽을 경사지게 좁혀 올린 무덤 천장.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주로 보이며, 백제의 고분에도 드물게 있다. 마굿간 그림이 그려있어 마조총(馬槽塚)이라고도 불리는 집안 통구 12호분(集安 通溝 十二號墳)의 북실(北室)에는 용도(甬道)의 북벽에 하나의 감실(龕室)이 딸린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천장을 사아식(四阿式)으로 축조했다.

87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같은 책, p.234.

것이다. 8각 고임은 3각 고임의 변형으로 3각 고임의 고임돌을 조금씩 뒤로 물려서 천장을 구성하면서 나타난 형식이다. 3각고임과 평행고임이 배합된 평행 3각고임은 고구려 말기에 가장 흔한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표 3〉 고구려 고분의 형식 분류[88]

연구자	형식 분류
김용준	。기본형 : 연도+현실, 연도+전실+현실 。특수형 : 연도를 지나서 전실 천장이 장방형 또는 삼구로 나뉘고 감실(龕室), 복도, 석주(石柱), 여러 묘실이 좌우로 배치 * 김용준,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1958
楊泓	。현실(玄室) 4 벽에 생활 모습 벽화 표현 。천장에 하늘을 표현한 벽화, 사신도(四神圖) 등장 시작 유형 。사신(四神)과 생활풍속 。구름 문양에 사신도를 위주로 한 벽화 。연꽃형 그물 문양에 사신 형상을 위주로 한 벽화 。사신도상(四神圖像) 위주로 한 벽화 * 양홍, 「高句麗壁畫石墓」, 『文物參考資料』 1958.4.
김원룡	。낙랑 전축분 계통 。낙랑 전축분 계통에 말각천장을 표현한 것 。중국 본토 석실묘를 모방한 것 。 〈벽화내용〉 묘주 생활도, 사신도, 장식문도
주영헌	。묘주 실내 생활도가 좌벽에 있는 인물 풍속도와 장식 문양 - 단실묘, 감측실묘 。묘주 실내 생활도가 후벽에 있는 인물 풍속도를 그린 단실묘, 감측실묘 이실분 。인물 풍속도, 사신도 - 단실묘, 이실묘(二室墓) 。후기 벽화고분의 형태로 사신도가 그려진 단실묘
李殿福	。돔실 천장, 생활풍속도 。삼각고임 천장, 생활풍 속도와 사신도 。삼각고임 천장, 사신도
김기웅	。인물 풍속도 : 중기 단실묘, 감이나 측실이 있는 벽화묘, 쌍실묘 。인물 풍속·사신도 : 중기, 후기의 단실묘, 감·측실이 있는 벽화묘, 쌍실묘 。장식 문양 : 후기 단실묘 。사신도 : 후기 단실묘

88 정호섭(2009) 「고구려 벽화고분의 類型」, 『동북아역사논총』 26호, 동북아역사재단, 138-141 표1을 참조해 필자가 조사한 선행 연구 성과를 추가하였음

박진욱	〈구조 형식〉 。무덤 칸 방향 : 서남향, 남행 。무덤 칸 위치 : 지상, 지하, 반지하 。무덤 칸수 : 다실, 이실, 단실 / 감(龕) 또는 측실(側室) 有, 측실 無 。천장 구조 : 절천형, 궁륭, 평행고임, 삼각고임, 팔각고임, 궁륭평행고임, 평행삼각고임 。연도 위치 :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약간 치우친 것, 한가운데 있는 것 〈벽화 내용〉 。인물풍속도무덤 : 주인공 그림이 서쪽벽에 위치 / 다실분, 감이 있는 이실분, 북쪽 벽에 위치 / 감이 없는 이실분, 단실분 。인물 풍속, 사신도무덤 : 인물 풍속이 주된 요소, 사신도는 천장에 부차적 요소 / 인물 풍속 부차 요소, 사신도가 주된 요소 / 단실분, 감(龕)이 있는 이실분, 감이 없는 이실분
박진욱	。장식무늬 무덤 : 연화를 종횡 규칙적으로 그린 것, 육각형 구획 내부에 연화를 그린 것, 운문과 王자 모양으로 된 도안(圖案)을 줄을 치고 내리 그린 것, 둥근 고리를 벽면에 규칙적으로 그린 것 / 감이 있는 단실분, 감이 없는 이실분 。사신도 무덤 : 무덤칸 벽면을 장식 문양으로 채우고 사신을 그린 것, 벽면에 사신도만 그리고 장식 문양이 없는 것 / 단실분
김정기	。平坦天井 。穹窿天井 。抹角天井 。藻井天井 。抹角藻井天井 。抹角穹窿天井 * 김정기, 「韓國建築史槪說」, 『建築文化』 51, 月刊建築文化社, 1985.8 (제2항 삼국시대 (2) 고구려 '墳墓')
東潮	。Ⅰ유형 : 널길에 규모가 작은 감실 설치형, 궁륭형 천장, 평행고임 천장, 평천장식 。Ⅱ유형 : 감실이 확대되어 측실(側室)로 변형, 측실 정상부가 널리 천장 보다 높은 형식, 측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천장 구조를 가진 단계, 궁륭형 천장식 。Ⅲ유형 : 널길 양 벽의 감실 측실이 전실로써 독립적인 방을 형성하는 단계, 삼각 및 평행 고임천장 。Ⅳ유형 : 천장구조 평면형이 후실과 대등하게 발달하는 단계, 평행, 삼각·평행 고임 천장 。Ⅴ유형 : 전실과 후실이 분리되어 각각 단독의 설실을 형성하는 단계, 천장 구조로 여러 층의 고임천장이 발달학 평행 또는 삼각·평행 고임천장
劉萱堂	。적석석실벽화묘 : 연도부 묘실로 구성된 형식 。봉토석실벽화묘 : Ⅰ형 단칸 묘실에 이실 부가 / Ⅰ식, Ⅱ식 Ⅱ형 반 전실을 갖춘 것 / Ⅰ식, Ⅱ식

	Ⅲ형 다실분 / Ⅰ식, Ⅱ식 Ⅳ형 단실분 / Ⅰ식, Ⅱ식
강형숙	。Ⅰ : 방형 현실, 중앙 연도 ⅠA : 단칸 ⅠBa : 두 칸이면서 장방형(長方形) ⅠBb : 두 칸이면서 방형(方形) ⅠBc : 두 칸이면서 횡장방형(橫長方形) ⅠBd : 두 칸이면서 횡장방형(橫長方形) 。Ⅱ : 방형 현실, 편재(偏在) 연도 。Ⅲ : 장방형 현실, 중앙(中央) 연도 ⅢA : 단칸 ⅢBd : 두 칸이면서 횡장방형 。Ⅳ : 장방형 현실, 편재 연도 。Ⅴ : 횡장방형 현실, 중앙 연도[통로] 。Ⅵ : 횡장방형 현실, 편재 연도[통로]
전호태	。묘실 구조 : 여러 방 무덤(감·곁방이 있는 무덤, 두방무덤), 외방 무덤 。벽화 내용 : 생활풍속계, 생활풍속, 장식무늬계, 생화풍속, 사신계, 장식무늬계, 사신계
손수호	。석실봉토분 묘실구조 : 여러칸 무덤, 감(곁칸)이 있는 외 칸 무덤, 쌍 칸·여러 쌍 칸 무덤, 두 칸 무덤, 감(곁칸) 있는 두 칸 무덤, 여러 칸 무덤 。벽화 내용 - 인물 풍속도 무덤 a. 주인공 그림이 서쪽 벽에 있는 것 b. 북쪽 벽에 있는 것 - 인물 풍속 및 사신도 무덤 a. 인물 풍속도가 주된 것 b. 사신도가 주된 것 - 장식무늬 무덤 a. 연꽃을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그린 것 b. 육각형의 구획 안에 연꽃을 그린 것 c. 구름무늬와 王자 무늬를 그린 것 d. 둥근 고리를 규칙적으로 그린 것 - 사신도 무덤 a. 사신을 그린 배경에 장식무늬가 있는 것 b. 사신을 그린 배경에 장식무늬가 없는 것

고구려 고분의 형식 구분은 김원룡 이전에는 벽화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부터는 벽화 주제와 고분의 축조기법을 함께 다루는 방법으로 연구 방법이 발전하였다. 말각천장을 형식 구분의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김원룡(金

元龍)부터로, 이후 묘실의 규모와 평면 형태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교해졌다.

고구려 고분의 봉토 석실분은 삼국 중 고구려와 신라 고분의 석실 특징으로, 방형에 가까운 석실 평면과 4 벽면을 동시에 내경(內傾) 시켜 좁아진 천장부를 비교적 소형의 편평석(扁平石)을 덮어 마감하는 방식이다. 초기 적석총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뤼다시(旅大市)[89]의 강상(崗上)·러우상(樓上)에 있는 다곽식(多槨式) 적석총[90]과 같은 예맥족(濊貊族)의 돌무지 전통에서 기원하여 고구려 건국 시기에 통구(通溝) 지방에 진출하면서 비롯되었다.[91]

서기 2~3세기경 강가 모래땅에서 구릉상으로 축조 장소를 옮기면서 넓은 판석 등을 이용해 기단을 형성하는 형식으로 발전하는 단축(段築) 피라미드 형태의 적석총(積積冢)으로 발전했다.[92] 적석총 다음으로 나타나는 봉토분(封土墳)은 석실을 갖춘 묘를 흙으로 덮은 것으로 요동 지방이나 낙랑 고분을 통해 중국한식(中國漢式) 묘제 영향을 받은 것이다.[93] 말각천장 구조를 갖춘 분묘는 봉토와 지하 적석총 구조가 결합한 봉토 석실분에 시설됐는데, 적석총의 구조가 강돌을 쌓아 매장부(埋葬部)를 보강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에서 생전 세계와 사후세계를 모두 구현하기 위해 판석으로 건축 공간을 구현한 석실분 형식으로 바꾸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토분(封土墳)이 고구려 고분의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한식(漢式) 문화의 영향만은 아니었다. 중국 한대 벽화고분은 중원(낙양이 중심이며 하남 대부분 지방과 하북 남부와 산서 남부 등 포함), 관중(關中) 지역(섬서 서안 중심), 동북(東北) 지역(요령성 요양 중심), 북방(北方) 지역(내몽골 중심), 하서(河西) 지역(감숙 하서주랑 일대), 동방(東方) 지역(산둥성 강소)으로 나눌 수 있다.[94] 그런데 이들 지역의 고분을 장식하는 벽화의 분포와 발달을

89 현 다롄시(大連市)

90 旅順博物館(1960)「旅順口已後牛城驛戰國墓淸里」,『考古』1960-8

91 李浩官(1989)「高句麗의 古墳」,『韓國史論』19, 국사편찬위원회, 4.

92 金元龍(1987)『韓國考古學槪說』3판, 一志社, 147.

93 金元龍(1987) 위 책, 一志社, 151-152.

94 黃佩賢(2008)『漢代墓室壁畫硏究』, 文物出版社, 31-32.

살펴보면 단일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한나라 전역에서 동일 양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95] 신망의 동한 전기 벽화고분을 보면 1세기 초 무렵 하남 지역 고분벽화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96] 이 시기 낙양 지역의 벽화고분은 대부분은 전축분이며 묘실 천장은 아치형, 궁륭 형식이 주를 이룬다. 넓어진 묘실 공간과 궁륭천장의 등장은 벽화 역시 파노라마 형식으로 그리는 양상이 증가하며, 금곡원(金谷園) 신망묘(新莽墓) 전실과 윤둔 신망묘 전실에서 보이는 목조 가옥을 모방한 건축과 장식은 동한 이후 북방지역 묘실 벽화에 자주 보이는 형식이 된다.[97] 이러한 신망-동한 전기 벽화고분의 특징은 고구려의 초, 중기 벽화고분의 구조와 벽화 배치의 특징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북지역에서는 동한 후기부터 서진(西秦) 시기까지 갑작스럽게 많은 수의 벽화고분이 요양(遼陽)에 출현한다. 이곳 벽화고분 출현은 동한 후기에서 한위(漢魏) 교체기(2세기 말~3세기)로 영가(永嘉; 307~312)의 난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기 전이다. 이것은 동한(東漢) 시대 중원과 동북을 잇는 인구 이동과 대외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요양의 공손씨(公孫氏) 정권은 동북지역으로 망명하는 한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산둥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선행연구[98]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한족의 변방 지역으로의 이동과 고구려인을 포함한 이민족의 중국 내지로의 이동은 이미 한나라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이주민의 원 거주지에 있었던 문화를 이식(移植)하는 계기가 되었고, 요양과 고구려 벽화고분의 유사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대부분 화강암(花崗巖)을 가공해 축조[99]했는데, 호남리(湖南里) 사신총(四神冢)은 내부 천장과 벽을 대리석으로 쌓아 축조하기도 했

95 박아림(2012) 「중국 위진 고분벽화의 연원 연구」, 『동양미술사학』, 동양미술사학회, 80.

96 Wu Hung(2010) 『Arts of the Yellow Spring』,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30-34.

97 黃佩賢(2008) 앞의 책, 60-63.

98 신성곤(2008) 「위진남북조시대의 인구 이동과 지역적 분포」, 『동양사학연구』 103, 동양사학회, 49-84.

99 關野貞(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15.

다.[100] 고구려 고분의 편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사적 구분으로는 ①연도+현실 ②연도+전실 통로+현실 ③연도+전실 좌우에 달린 측실(側室)과 전실+통로+현실 ④연도+전실과 감실+통로+현실 ⑤연도+현실+통로 현실 등 5가지 묘실 구조를 갖추고 있다.

〈표 4〉 위진·남북조 시대 인구 이동 지역 특징)

구분	주요 사건 및 경향	인구 이동 방향	지역 특징
삼국(220~280)	위·촉·오의 분열	전란으로 인한 소규모 이주	중원 지역(하북, 하남) 중심
서진 통일기 (280~316)	진나라의 중국 통일	비교적 안정, 대규모 이동 없음	중원 중심의 행정 재편
영가의 난 이후 (316~)	5호 16국의 북방 침입	북방 한족 대거 남하	강남 지역(양쯔강 이남) 인구 급증
동진 및 남북조 (317~589)	북방 귀족·지식인 남하	하북·관중 → 강남	강남 지역의 경제·문화 중심지 화
북조(439~589)	북위의 화북 통일	북방 유목민의 정착화	낙양, 대동 등 북방 도시 성장
남북조 대립기	남북 간 문화·제도 차이 심화	남조: 북방 유민 중심 / 북조: 선비족 중심	남조는 한족 중심, 북조는 다민족 혼합

적석총에서 단실묘를 거쳐 이실묘, 감실(龕室)과 측실(側室)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101] 이중 묘실의 천장 구조는 말각천장과 궁륭천장이 대표적인 형식인데 연구자에 따라 ①말각조정, 궁륭천장 ②평천장, 궁륭천장, 꺾임천장, 괴임천장[102] ③평천장, 평행괴임천장, 궁륭천장, 평행삼각괴임천장, 꺾임천장[103] ④평탄천장(平坦天障), 궁륭천장, 말각천장, 조정천장, 말각조정천장, 말각궁륭천장[104]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100 關野貞(1932), 같은 책, 415.

101 李浩官(1989) 「高句麗의 古墳」, 『한국사론』 19, 국사편찬위원회, 65.

102 金基雄(1982) 「韓國의 壁畫古墳」, 『高句麗의 壁畫古墳』, 동화출판공사, 1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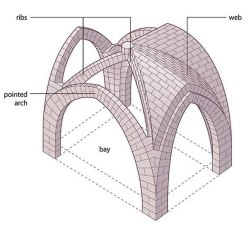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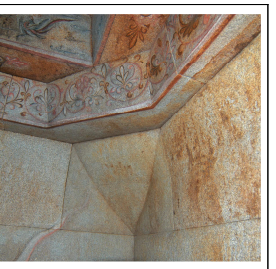
103 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編(1982), 『高句麗の文化』, 同朋舍刊, 121-177.

104 金正基(1985) 「韓國建築史概說」, 『建築文化』 51, 月刊建築文化社.

말각천장의 구조는 말각천장과 조정천장 계통의 1유형과 궁륭천장을 기본으로 말각천장이 결합한 2유형으로 각기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장 구조에 한정하지 말고 묘실의 벽면 처리와 축조 양식을 함께 검토했을 때 가능하다. 서양 건축에서 천장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발명된 아치는 고구려 고분에서도 적용된 건축기법이다. 특히 돔에 가까운 궁륭형 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벽체와 돔을 연결하는 구조체가 필요하다. 아치를 연결하여 구성하는 볼트(Vault)는 원시적인 돔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돔과 벽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퀸치(squinch)와 같은 연결부를 마련해야 한다.

서양 건축에서 스퀸치(squinch)는 정사각형 또는 다각형 공간 위에 둥근 돔이나 둥근 천장을 얹기 위해 모서리 부분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건축 구조요소다. 특히 비잔틴 건축과 사라센 건축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펜덴티브가 개발되기 전에는 돔을 지탱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며, 펜덴티브(pendentive)는 삼각형 모양의 둥근 공간을 만들어 돔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스퀸치 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형태다.

〈표 5〉 고구려 말각천장에 사용된 스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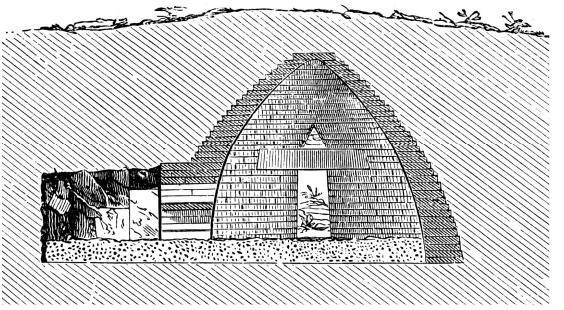
		
볼트(Vault) 건축의 구조도	이란 파르스(Fars), 아르다시르궁전 (Palace of Ardashir) 방의 모서리에 반원 뿔을 형성하는 일련의 동심원 아치인 스퀸치(squinch)	강서대묘(남동 방향)

강서대묘 벽체와 천장을 연결하는 중간 부분 모서리에는 역삼각형 형태의 스퀸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펜덴티브(pendentive)에 가까운 모

습이다. 이러한 건축 요소는 비잔틴 건축에서 기원했는데, 시기적으로 동서양에서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말각천장으로 구현한 돔, 천상 세계의 완성

고구려 고분에 시설된 말각천장은 천장을 높여 묘실 내부를 수직적으로 확장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하늘과 같이 이상적인 사후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화폭을 제공해 준다. 동서양 모두 이러한 필요성을 통해 창안한 것이 돔(Dome)이다. 서양 최초의 돔 구조는 로마에 있는 판테온(Pantheon)이다.[105] 최초의 판테온은 기원전 31년 축조되었으나 현존 건축물은 서기 125년경 재건한 것이다. 따라서 서기 전후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돔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앞서 살펴본 이곳에서 시작한 말각천장 건축기법이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고구려 고분에도 적용된 것이다.



〈그림 4〉 코벨 돔 모식도[106]

말각천장과 돔 구조는 외형상 유사한 형태지만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한국 건축사에 있어 돔 구조에 충실한 천장 형식은 석굴암이지만, 고구려 고분

105 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지어졌으며 고대 세계의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및 중국 건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토착 건축 전통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형태의 돔 건축은 로마시대 파테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6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Dome

에 사용한 돔 기법은 건축 부재를 들여쌓기 방식으로 구성한 코벨(corbelled) 돔에 가깝다. 돔은 지상 건축에 사용하지만, 코벨은 지하에 묻히는 건축물에 적당한 기법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고분의 축조 역시 대부분 코벨 돔과 유사한 들여쌓기 방식으로 벽체 이상 천장부를 구성했다. 평안남도 용강 삼실총 천장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천장 정상부 마감을 위해 넓은 판석으로 덮는 특징을 보인다. 삼실총에서는 거칠게 치석 한 방형 석재를 이용해 들여쌓기 기법으로 천장을 구성했다. 순천 운봉리 고분은 삼실총과 유사한 구조로, 천장 정상부를 마감하기 위해 사각형 석재로 덮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59〉 平南 龍岡 黃山 南麓 三室塚
右室 天障고임부(건판030914, 1916)



〈사진 60〉 平南 順川 雲峰里 壁畵古墳
天障部(건판038081, 미상)

돔 건축기법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축조한 고구려 고분은 용강 대안리 1호분과 천왕지신총이다. 대안리(大安里) 1호분은 5세기 전반으로 편년 되는 고분으로, 평안북도 대관군 대안리에 소재하며, 천장부가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발견된 2기의 단실묘 중 1기이다. 전실은 긴 장방형, 후실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으로 되어 있다. 천장은 전체적으로 팔각 괴임 형식인데 4벽 모서리 위에 삼각형으로 석재를 내 쌓아 8각형을 이루고 그 위로 8~9단의 평행 괴임을 두었다. 4벽 모서리에 인자대공(人字臺工)을 설치해 천장의 하중을 지지하도록 했다. 4~6단의 팔각 평행괴임 각 모서리에는 ㄴ자 형의 받침돌을 끼워 놓았다. 이와 같은 받침돌 사용은 석굴암 천장에서도 확인되는 것인데, 신라의 통

일전쟁 승전 후 고구려의 발달한 석조건축 기술을 수용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석굴암 천장에 사용한 쐐기돌은 돔의 외곽에서 내부를 향해 설치했는데, 대안리 1호분 역시 동일한 수법의 적용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천왕지신총은 연도, 기둥과 천장을 이용해 3개 공간으로 구성한 장방형 전실, 통로, 장방형 현실로 이루어진 이실묘다. 전실 동쪽칸 천장은 삼각고임, 중앙칸 천징은 3개의 활개 받침이 있는 꺾음식 고임이고, 서쪽칸 천장은 평행고임이다. 현실 천장은 8각고임과 4각고임이 엇물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107] 현실 벽면과 천장고임에는 목조 가옥의 건축 부재인 기둥, 두공, 도리, 활개를 그리고 이들 중간에는 실물 두공과 활개, 소로를 배합하는 독특한 배치법을 적용하여 고분 내부를 화려한 부재가 자랑하는 목조 가옥 내부처럼 보이게 하였다.



〈사진 61〉 대안리 1호분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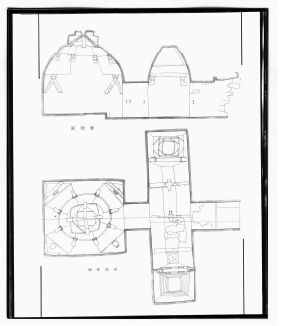
〈사진 62〉 석굴암 천장

그런데 천왕지신총은 완벽한 반구형은 아니지만 3단으로 변화를 주면서 돔에 가까운 천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현 고유섭 선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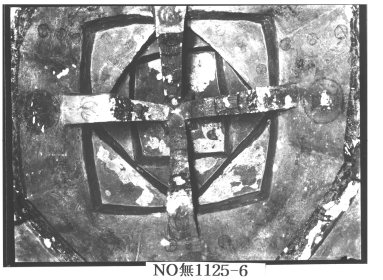
"이 중에 가장 비약적인 흥미를 가진 천장 구조는 순천에 있는 팔각천장총[천왕지신총]이다. 전실과 현실의 연도 등의 배치 형식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평면 방형의 현실 천장이 방형으로부터 팔각형의 공벽(拱壁)으로, 팔각형

107 전호태(2021), 「고구려 천왕지신총 연구」, 『先史와 古代』 67, 한국고대학회, 152.

에서 다시 방형으로, 그리하여 투팔식 천장으로 끝나는 구조와 순서는 실로 기상천외한 독특한 일례로 구성하였다. 더욱이 층층이 변화해가는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역학적 구성을 떠난 장식 차수가 층층이 나열되고, 소구에는 수면이 장식되고, 전면에는 채화로써 일일이 장엄하였다. 실로 아름다운 화상적 가구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분의 표현이다."[108]고 평가했다.



〈사진 63〉 천왕지신총 실측도



〈사진 64〉 천왕지신총 현실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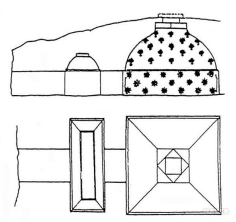
고유섭의 기록을 토대로 천왕지신총을 재구성하면 천장은 3각고임천장(8각형) → 하층곡면천장 → 인자대공그림 → 목재공포(굽받침 소로) → 8각 뜬창방 → 상층곡면천장 → 만곡형 대공크로스 → 덮개돌 순서로 만들어졌다.

〈표 6〉 돔 천장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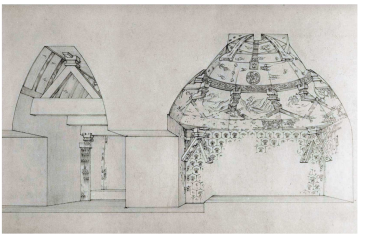
구분	천왕지신총	고대 돔 구조(판테온)
구조 방식	점차 들여쌓기 (우진각식)	반구형 아치 구조
재료	석재 (돌)	석재, 콘크리트
공간감	입체, 중심 집중	입체, 중심 집중
기능	무덤 내부 공간 확보	신전, 공공건축물의 대공간 확보
상징성	천상 세계 표현	하늘, 신성함의 상징

108 고유섭(1933)『한국건축미술사초고』, 1933 (열화당 복간본, 2010,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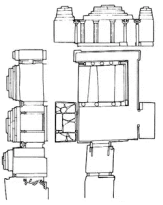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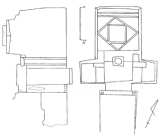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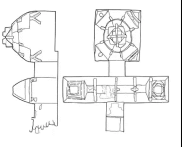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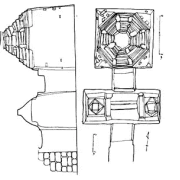
천왕지신총 돔형 천장 구조는 벽체에서 바로 반구형을 형성하지 않고 3단으로 나누어 축조했다. 이것은 완벽한 돔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목조건축의 두공 등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구성인지 분명하지 않다. 단지 앞서 축조한 산연화총의 경우 벽체에서 천장 정상 부근까지 곡면을 형성한 후 방형 석재로 구성한 후 말각천장을 시설한 것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후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65〉 산연화총 실측도



〈사진 66〉 천왕지신총 투시도

4세기 중엽		5세기	
			
안악 3호분	태성리 2호분	천왕지신총	대안리 1호분

〈표 7〉 안악 3호분 이후 석실(다실분(多室墳))의 변화

반구형 천장을 사용한 고분 축조는 삼실총을 시작으로 감신총, 산연화총, 덕흥리 고분(409), 대안리 1호분을 거쳐 천왕지신총으로 발전 과정을 거쳤다. 처음 장대석에 가까운 석재를 이용해 모죽임을 반복하여 축조하던 방식에서 점차 정교한 팔각형 천장 평면과 그 아래로 규칙적인 석재 쌓기를 통해 돔에 가까운 축조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천왕지신총은 이러한 돔 구현 의지를 바탕으로 목조건축 기법을 결합한 독특한 천장 구조를 구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

축 기술은 석굴암 건축과 같이 후대 건축 기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천왕지신총이 건립된 5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 국내성과 평양 일대 고분벽화는 주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성 지역의 벽화는 연꽃 장식이 유행하지만 평양 지역에서는 뚜렷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문화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연화총과 천왕지신총의 천장 구조 역시 기술적인 차이뿐 아니라 목조건축의 전통을 새롭게 유행시킨 지역적 특징을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천왕지신총이 위치한 평안남도 순천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진입하는 교통로 상에 있다. 순천에서는 요동성총, 동암리 벽화분, 용악동 벽화분, 천왕지신총 등 벽화고분 다수가 발견되었는데, 고분 구조나 벽화 구성에서 평양 지역과 구별되는 유적들이다. 요동성총도 그 중 하나로 장방형 전실에 4개의 현실이 달려 있다.[109]

5세기 초로 조사된 요동성총 벽화 주제는 생활풍속과 사신이다. 전실 서쪽 측실 벽에는 묘주의 장방 생활도(生活圖)가 그려져 있고 천장 고임에는 사신도가 있다. 독립된 현실이 여러 개 달리 요동성총의 기원은 여러 개의 현실이 달린 위진(魏晉) 시기 요양(遼陽) 지역 벽화고분에서 찾을 수 있다.[110] 하지만 요양 고분벽화에서는 생활풍속이 중심이지 사신도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요동성총과 같이 현실이 여럿 설치된 벽화고분은 요동성총을 제외하면 평양이나 국내성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요동성총과 같은 벽화고분이 평양에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실 둘레에 회랑이 설치된 남포 태성리 3호분, 안악의 안악 3호분은 평면 배치로 볼 때 현실 둘레에 회랑이 있는 요양 봉태자 1호와 2호 묘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데, 요동성총/봉태자 1호 묘 → 태성리 3호분/안악 3호분으로 분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요동성총은 요양계열 벽화고분이 평양 지역으로 전파되는 중간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천왕지신총 역시 분

109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1958)「평안남도 순천군 룡봉리 료동성총조사보고」,『고고학자료집 1-대동강류역 고분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4-9.

110 전호태(2007)『중국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솔, 325.

묘 구조와 벽화 구성이 평양, 국내성 일대 고분과 차이를 보인다. 실물 건축 부재와 벽화를 혼합한 천왕지신총 현실의 천장 구조 역시 여타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천왕지신총은 묘실 구조와 벽화 주제 등에서 국내성과 평양 문화권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요양 지역과 국내성 문화가 남쪽 평양과 안악 일대로 전해지는 통로이자 평양과 안악의 문화가 북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을 배경으로 천왕지신총에는 새로운 유형의 말각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주변 지역으로 문화적인 영향력을 전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맺는말 : 말각천장의 건축사적 의의

지중해와 흑해 연안에서 창안된 말각천장 구조는 이웃 지역을 거쳐 동아시아에까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중해 이외 지역에서 말각천장 기술을 사용한 기원전 말각천장 유구가 조사되고 있어, 지중해 주변으로 확산하기 이전부터 말각천장이 유럽 지역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말각천장은 지중해~중앙아시아를 통한 직접 도입과 중국을 통해 유입된 2가지 경로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을 제외하면 고구려의 건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무덤에 말각천장을 사용한 것은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식 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의 사후세계는 죽음으로 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생전과 다른 세계에서 지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인간 영혼이 혼과 백으로 구분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중국인의 영혼 불멸 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후세계는 살아있을 때의 환경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덤의 벽화는 생전의 모습 뿐 아니라 사후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삶이 중요한 주제로 제시되기도 한다.[111]

111 김원룡(1980)『한국벽화고분』, 일지사, 87.

묘실 내부에 말각천장을 구현한 것은 이처럼 건축적인 목적 이외 피장자로 대표되는 고구려인들의 내세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벽면에 그려진 주제가 대부분 묘주와 관계된 현실의 풍경이라면 벽면 상단과 천장의 세계는 불교, 도교와 관계된 이상적인 내세의 풍경을 담고 있다. 이것이 말각천장을 구현한 실질적인 이유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가 말각천장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수준 높은 석조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며, 고대 동서문화 교류의 산물이었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우동선(2003)「세끼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 고건축 조사와 보존에 대한 연구」,『한국근대미술사학』11,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이종수(2008)「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조사연구, 그 성과와 한계」,『美術史學硏究』260, 한국미술사학회.

김계원(2021)「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고미술-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고적조사사업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11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왕현종(2022)「일제강점 전후 도쿄제국대학 세키노 타다시의 강원도 문화재 조사와 식민성」,『江原史學』38, 강원대학교 사학회.

金元龍(1973)「高句麗의 壁畵古墳」,『아시아公論』2卷 10號, 아시아公論社.

金元龍(1980)『韓國壁畵古墳』, 一志社.

金元龍(1981)「春城郡 芳洞里의 高句麗式 石室墳 二基」,『考古美術』第149輯, 韓國美術史學會.

도유호(1959)「고구려 석실봉토분의 유래와 서역문화의 영향」,『문화유산』1959년 4기, 과학원출판사.

도유호(1949)「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들」,『문화유물』1호.

도유호(1949)「최근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의 벽화와 연대에 대하여」,『력사제문제』9호.

리준걸(1981)「28수를 다 그린 진파리 4호무덤」,『력사과학』1981년 3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창언(1991)「최근에 조사발굴된 압록강류역의 돌각담무덤들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조선 고고연구』1991년 3기,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리창언(1993)「압록강류역에서 고구려돌칸흙무덤의 발생과 년대」,『조선고고연구』1993년 2기,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전주농(1964)「고구려 벽화무덤의 시원에 대하여」,『고고민속』1964년 3기, 고고민속편집부.
方起東(1982)「集安東臺子高句麗建築遺址的性質和年代」,『東北考古與歷史』1982年 1期
宿白(1952)「朝鮮安岳研究發現的冬壽墓」,『文物參考資料』1952年 1期
緒方泉(1985)「高句麗古墳群に關する-試考(上)」,『古代文化』37-1, 古代學協會
Chavannes E (1907)「Rapport sur Les Monuments de L'ancien Royaume Coren de Kaokeouli」, 『Acadmiedesinscriptionsesbelles-lettres』6.

단행본

이순자(2009)『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정인성(2016)『1909년「조선고적조사」의 기억』,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1979)『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1979)『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주영헌(1961)『고구려 벽화무덤의 편년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주영헌(1986)『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耿鐵華(2004)『高句麗考古研究』, 吉林文史出版社.
耿鐵華(2008)『高句麗古墓壁畵研究』, 吉林大學出版社.
東潮(1997)『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東潮(2011)『高句麗壁畵と東亞世亞』, 學生社.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교육 정책담론

-시대 구분 중심으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hletics Education Policy Discourse

-Focusing on Periodization-

홍영자*

북한대학원대학교

1. 머리말

모든 조선[1] 분야와 마찬가지로, 체육교육은 정치·사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그러나, 체육교육은 매우 실용적인 목적을 복무한다. 공식적으로 조선의 체육교육의 목적은 체육법에 찾을 수 있다. 제12조에 따르면,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서 기본은 학교체육이다. 그리고 제3조에 따르면,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체육사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라고 한다. 그러나 2015년에 제7차전국체육인대회에서 김정은은 "체육부문 교육기관들에서 발전전망이 있는 대상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며 체육교수와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능력있는 체육일군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상 체육교육 정책들은 대중화와 노동, 국방, 전문화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데, 체육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조선 체육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논문은 많지 않다. 이성수는

* HONG Yong ja (Society, Culture, and Media Major PhD Stu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mail: hyj1991@proton.me

1 이 논문은 "북/남한"이나 "북/남조선" 대신에 국가들 둘 다 존중하기 위해 국가의 공식 이름과 별명을 사용한다. 즉, 이 논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과 대한민국(한국)을 쓴다.

2016년에 전후복구시기의 『교원신문』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당시 조선정부는 학교체육을 통해 “전면적으로 발전된 건전한 일군”을 양성이라는 목표를 밝혀냈다(이성수 2016: 186-187). 한편, 조신수의 박사학위논문은 조선 학교체육을 통한 몸의 통제를 분석했는데, 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관점보다 체육교육정책을 규율권력기술로 봤다(조신수 2019). 또한, 한민길은 조선의 체육 교원 양성을 소논문으로 분석했다(한민길 2005). 정리하면, 이 논문들은 체육교육정책의 이념적인 목표와 체육정책의 과정을 서술하는데, 체육정책의 실용적인 목표에 집중하지 않는다.

한편, 조선체육정책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한국논문이 더 많다. 특히 이학래와 김동선은 2004년에 조선체육의 역사에 관한 책을 출판했으며 선문정은 2008년에 통일부로 당시 조선체육의 실태에 관한 단행본을 출판했다. 그 외에 허정필도 2017년에 조선의 지도자들의 시기마다 국내·국외 체육정치를 박사학위논문으로 분석했다. 조선체육을 더 자세한 부분으로 분석하는 논문도 있다. 홍성보는 2011년에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조선체육정책을 박사학위논문으로 분석했으며 이나영은 2019년에 1945년부터 2011년까지 조선 여성 전문체육의 형성과 변화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집중했다. 조선교육 정책의 시기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한국 논문도 있다. 이를테면, 신효숙은 2006년에 김정일시대 조선교육의 변화를 통일부로 연구했으며 차승주는 2013년에 김정은 시대 조선체육의 변화를 연구했다. 이 논문들은 시기마다 체육의 실태와 체육정책의 정치적인 목표, 특정한 시기에 체육정책의 변화를 표시하는데, 일반 체육에만 집중하고 체육교육을 보조로만 다룬다.

조선에서 나온 단행본들을 몇 권만 접근할 수 있는데 고려할 만하다. 조남훈은 1992년에 『조선체육사 2』를 썼으며 전왕권은 2017년에 학교체육사에 관한 책을 썼다. 그 단행본들은 특히 김일성 시기의 말기와 김정은 시기의 초기에 조선 정부는 과거의 체육정책과 그의 성과를 어떻게 본지를 알려준다. 또한, 이 책들은 조선체육 정책의 사실을 전체적으로 알려주지만, 왜곡한 경우가 있으니 가능할 때 당시에 나온 체육 자료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남훈과 전왕권의 책이 시기마다 나온 기사와 잡지, 연설 등과 비

교하면서 조선체육교육정책의 강조점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한국논문을 보조로 인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체육교육정책 시대를 정치의 강조점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시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건국시대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이며, 근대체육을 아직 접근 못한 인민에 대중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둘째, 전후복구건설 시대는 1953년부터 1962년까지이며 나라의 복구가 필요한 노동을 강조했다. 셋째, 병진 시대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이며 국제정치의 긴장 상태 속에 국방을 강조했다. 넷째, 국제체육대회 시대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이며 국제경기에 조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강조해왔다.

2. 건국 시대: 대중화를 위한 체육교육(1945~1950년)

해방 전에는 조선에 체육교육은 징병을 위한 체육이었다. 즉, 1938년 3월 30일에 제정한 「조선총독부훈령 제8호」에 의해 검도와 유도는 중학교부터 필수과목이 되었다(최재성 2021: 21-22). 또한, 1942년에 채택된 「학교교련교수요목」에 의해 학생의 강력한 군사 훈련은 규정되었으며 대학교에서 교련은 필수과목이 되었다. 심지어, 일반체육은 금지된 상태였다. 즉, 1941년 12월 7일 이후 전문학교에서 구기 종목은 금지되었으며 1942년 5월 12일부터 구기대항경기는 다학부터 중단되어서 나중에 중등학교 구기대항경기도 중단되었다(박경호 2022: 8; 이동현 2020: 231). 결국, 해방 후에 조선 당국은 전쟁상태가 된 체육교육을 받았다.

북측 당국은 일반 체육교육을 이전 체계로 재개하도록 했으며, 그 후에 체육을 대중화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받은 사회주의 체육체제를 설치하도록 했다(인민체육 1949). 당시에 근대체육은 지방지역들까지 도입되지 않았고 그 지방지역들에서 계속 민속놀이만 하는 경우가 흔했다(김난주·송재용 2011: 421-422). 어쨌든, 이 과정은 북측 당국이 1945년에 「조선 학교교육 임시조치 요강」을 발표해서 정규 체육수업을 부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이성수 2016: 191). 다음 해에

설립된 조선림시인민위원회 교육국은 1946년 12월「조선학교 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실시에 관한 조치」에 대해 결정했다. 규정 및 조치는 과외시간에 체육활동을 장려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1947년 6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청소년군중문화 및 체육사업에 대하여」토론했으며 학교에 활동하는 민청단체들의 체육사업을 강화하도록 했다(홍성보 2011: 69). 다음 해에는 학교에서 아침이나 업간 체조 시간이 도입하게 되었다(홍성보 2011: 67). 한편, 학교별로 선수단이 조직하는 것은 시작되었다(이학래·김동선 2004: 180). 고급교육에서는 평양사범대학 체육학부와 신의주교원대학, 해주교원대학에 체육과는 설립하게 되었다(이나영 2019a: 8). 이런 초기 법령은 학교체육의 행정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북측 당국은 소련에서 나온 인민체력검정제와 체육절을 도입했으며 둘 다 현재까지 계속 남아 있다. 즉, 인민체력검정제는 원래 게데오(ГТО)라고 하였으며 소련인민의 국방과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마로쪼브 1949: 19). 한편, 1948년 7월 8일에는「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비준 제122호」는 인민체력검정제를 제정하도록 했다. 모든 인민이 참가하려고 한 검정은 5월 1일부터 10월까지 훈련은 공장과 광산, 기업소, 학교들에서 실행했다. 1949년에 80만 명은 인민체력검정제에 참가했다(전왕권 2017: 32-33). 체육절은 원래 소련에서 체육가의 날이라고 했으며 각 체육 단체들이 7월 중순에 시내중앙광장에서 행진했다(마로쪼브 1949: 20). 한편, 1949년 8월 2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소회의에 결과로 체육절이 제정되었다. 체육절은 매해 10월 두 번째 일요일에 진행했는데, 각종 체육경기과 행사가 조직되었다(전왕권 2017: 35). 오늘날에 인민체력검정은 매해 8·9월 인민체력검정월간에 진행하며 체육절은 2024년에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로 75돐이 기념되었다(우리민족끼리 2023; 조선체육 2024). 파악할 점은 인민체력검정제는 학교에서도 실시하며, 학교들은 체육절에 참가해서 둘 다 체육교육에 해당한다.

이상 요약하면, 전쟁 전에 조선 체육교육은 초기에 있었다. 일제통치시대 말기에 일반 체육이 완전히 없는 상태부터 활성화해야 했다. 다음에, 민청과 학교 선수단, 고급교육 학과·학부를 비롯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은 수업시간

외에 학교체육을 관리·장려했다. 또한, 인민체력검정제와 체육절은 청년학생과 모든 인민 속에 국방과 로동을 위해 체육을 배우고 실행하는 목표로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당시 체육교육은 어떤 이념적인 목적보다 건국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1946년에 김일성은 "앞으로 우리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서 발전되여야할 것"이라고 했으며 "민주 건국위업에서 용감하고 믿음직한 돌격대는 청년들"이라고 했다. 같은 연설에 김일성은 일제통치시대에 "특권계급의 놀음"이나 징병을 위한 체육을 비판했으며 체육의 대중화를 장려했다(김일성 1946). 물론, 소련에서 도입한 체육 개념이 있었다. 이를테면, 1948년에 도입된 인민체력검정제도는 소련식 국방체육을 소개했으며 당시 체육잡지는 소련을 모범으로 봤다(김미숙 2004: 354; 이진규 2020: 34). 그러나, 전쟁 전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체육교육의 이념적인 측면은 많지 않았다.

3. 전후복구건설 시대: 노동을 위한 체육교육(1953~1962년)

조국해방·한국전쟁 중에도 체육교육은 계속 진행했다. 1951년에 평양시체육교원 단기 양성소는 개소해서 인민고급중학교의 체육교원을 양성했다(이나영 2019b: 122). 그러나, 전쟁 때문에 학교건물 5,000여 개는 파괴되었으니 조선 정부는 자기 학교망을 복구하기 위해 투자해야 했다(홍성보 2011: 26). 더 넓게 고려하면 전체적인 복구를 위한 노동을 요구한 국가 복구사업에는 체육교육이 중요한 분야였다.

휴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이 진행하고 있었다. 즉, 새로운 평화 상태가 된 사회는 군사력보다 노동·생산력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1956년 8월 31까지 인민군 병력 가운데 8만 명 축소했으며, 많은 경우에 그 제대한 군인은 농업협동화사업에 참가했다(서홍석 2021: 378, 387). 또한, 1958년에 5월 시작한 「천리마운동」은 사상적 요소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량을 높이고 기술혁명을 하기

위한 운동이었다(이인 2020: 61). 그러므로, 이런 맥락 속에서 체육교육의 역할은 튼튼한 노동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체육교육분야를 살펴보면, 체육이 심화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1955년에는 중학교에서 체육 과목이 다양화했으며 체육 수업시간은 1955년 전에 총 수업시간의 5%에 해당했는데, 1955년 후에 13%로 증가했다(이성수 2016: 191-192). 한편, 1955년 11월 1일에 스포츠훈련부는 몇 도에 설치되었으며 일반 학교에서도 체육단은 조직하게 되는 것도 시작했다(이학래·김동선 2004: 68). 전쟁前과 마찬가지로, 민청은 학교체육사업과 과외·방학체육활동을 전개했는데, 체육시설도 마련했다(이성수 2016: 200-201). 전체적으로 체육은 대중화되고 있었으며, 학생의 체육시간이 증가했다.

1958년 3월 19일에 「내각결정 제30호」는 체육교육을 어느 정도 개편했다. 첫째, 스포츠구락부를 폐지했으며, 1958년 7월까지 각 도·시에서 선수후비를 육성할 청소년스포츠학교를 개교하고자 했다. 둘째, 평양사범대학 체육학부와 신의주교원대학 체육학과를 통합하여 평양체육대학을 설치하고자 했다(내각결정 1959). 다시 말해, 1958년 체육교육 개편은 체육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확대할 체육교육을 신호했다.

1959년 2월 27일 「내각 결정 제15호」는 학교 내 체육교육을 강화했다. 첫째, 교원 및 학생들의 과외체육운동을 매일 1시간씩 조직하도록 했다. 둘째, 1959년 4월 말까지 전문학교 및 대학들에 중요 체육운동 종목들의 선수단을 조직하도록 했다. 셋째, 청소년스포츠학교망을 200교로 확장하도록 했다. 넷째, 청소년스포츠학교 학생은 기본 임무 외에 매일 2시간 이상 체육 훈련을 진행하고자 했다. 다섯째, 1959년 7월 1일부터 각도에서 보통교육 부문 체육보건들과 일군들을 육성하기 위한 재교육반을 설치하고자 했다. 여섯째, 금후 큰 학교들을 건설하면 체육시설을 기본건설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내각결정 1959). 이상 요약하면, 1959년 체육교육 강화는 학생의 느는 체육시간을 규정했으며 청소년스포츠학교와 체육간부, 체육단을 확대했다.

언급할 만한 점은 1959년에 일반교육이 개편돼서 기술학교의 체육교육시간은 총수업시간의 10%를 해당해서 전에 있던 고급중학교에 비해 낮았는데, 고

등기술학교의 체육교육시간은 총수업시간의 19%를 해당해서 상당히 증가했다(이성수 2016: 192). 즉, 1959년부터 도입한 종합기술교육은 노동과 같은 생산실습을 포함했다(조정아 2003: 222-223). 심지어 4년 전에 늘어난 중학교 체육시간이 증가하거나 조금만 감소하면서 매일 1시간 과외체육운동이 필수가 되었다. 정리하면, 교육은 당시 학생들의 체력을 많이 요구했으며 노동을 위한 체육교육의 정책강조를 반영했다.

체육교육의 목적은 실용적으로 보면 노동력을 증강하는 것인데, 사상적인 측면도 있었다. 특히 1959년부터 혁명전통교양은 체육교육에 등장했다. 이를테면, 집단달리기·행군에 만경대나 보천보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으며, 해당 운동이 끝난 후에 교원은 혁명전통에 관한 발표회를 실시했다(이성수 2016: 215). 과연, 농업협동화에서 구성원은 집단생활에 적응하며 공동노동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서홍석 2021: 385; 이주철 2008: 231). 또한, 집단주의적인 공산주의사상은 당시 천리마운동에 중요한 요소였다(이세영 2020: 183-184). 따라서, 졸업해서 농업조합이나 공장에 일할 학생의 집단정신과 사상적인 충성을 키우는 것은 당연했다.

물론, 5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적인 체육과 군국주의적인 체육도 늘어났다. 1956년 2월부터 정부는 전 사회적인 민족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 군에서 시설을 건설했다(이성수 2016: 217). 그러나 이상 소개한 근대체육에 비해 강조되지 않았다. 또한, 국방체육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청소년학생들을 포함한 10만3천 명은 1958년 6월까지 국방체육구락부·소조에 참가했다(조남훈 1992: 153). 반면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스포츠학교회원은 4,305명에서 28,112명까지 늘어났다(홍성보 2011: 123). 다시 말해, 전문 일반체육과 전문 국방체육은 비슷한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체육은 일반 체육교육은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노동을 위한 대중체육보다 강조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에 나라의 생산력을 복구하기 위해 학교체육은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제대한 군인과 농업협동화, 천리마운동 등은 정부의 노동력과 생산량의 증가를 강조하는 것을 대표했다. 한편, 학교망은 튼튼

한 졸업생을 양성하도록 개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체육수업시간과 과외체육, 체육교원의 수, 노동실습 등은 상승했다. 이 시기 체육교육에는 사상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국방과 민족체육을 포함했는데, 결국 노동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4. 병진 시대: 국방을 위한 체육교육(1962~1972년)

1962년에 5월 3일에 김일성의 교시는 체육교육의 전환점이었다. 「청소년 교양사업을 개선 강화 할 데」라고 하는 교시는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더 중요한 점은 김일성이 국방체육에 치중할 것을 지시했다(선문정 2008: 27). 또한, 교시는 더 다양한 과외체육을 강조했다(이성수 2016: 194). 해당 맥락은 당시 국제긴장상태는 조선 정부에 위협이었으니 군사력의 필요성이 다시 드러났다. 따라서 동년 12월에는 당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방침을 공포했다(홍성보 2011: 158). 또한, 같은 전원회의에서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국토의 요새화」, 「전국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군사로선」은 채택되었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군사를 강조하는 정책은 체육교육에 반영했다. 그러나, 체육교육에서 국방체육을 강조한 김일성의 1962년 교시는 정확하게 무슨 성과를 이루었는지 알 수 없다. 당시 『조선중앙년감』은 통계를 애매하게 발표했으며 해당 연구가 없다(홍성보 2011: 188). 알 수 있는 점은 김일성의 1962년 교시가 첫 공식적인 국방체육 대중화를 위한 선언이었으며 국방체육의 전사회적인 대중화를 1965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62년부터 1967년까지 양성한 체육간부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홍성보 2011: 184).

1964년에 김일성의 교시는 체육수업시간의 증설과 경기 종목 확대를 지시했지만 국방체육의 보장하는 것은 비교적 강조되지 않았다(이나영 2019c: 76-78). 그러나, 중요한 점은 1962년까지 공식 체육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체육은 1964년부터 포함되었다. 이를테면, 약수중학교는 60년대초에 모범학교였다. 즉, 약수중학교는 1961년에 『로동신문』에서 2번 등장했으며 1963년에 약수중학교

의 경험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로동신문 1961b; 로동신문 1961d; 리병모 외 1964). 그러므로, 약수중학교의 체육교육 경험은 1962년 전에 체육교육 실태를 대표하는 셈이다. 1963년의 단행본에서는 체육교육 부분이 있는데, 국방체육이 언급되지 않다. 그 대신에 체력검정에 합격하는 것과 생산·노동과 결합된 교육, 학습과 결합된 교육이 강조된다(리병모 외 1964: 118-120). 국방체육중에 강행군만 약주중학교에서 실시했으며, 강행군의 목적은 군인 기술 아니라 체력과 집단주의 정신, 의지를 키우는 것이었다(리병모 외 1964: 127). 한편, 국방체육 대회들은 1961년부터 『로동신문』에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국방체육협회는 해외에 간 것이 『로동신문』에서 1961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로동신문 1961c; 로동신문 1961a). 결국, 주목할 점은 국방체육이 김일성의 1962년 교시부터 소규모로 도입한 가능성이 높으며 개념적으로만 도입했어도 체육교육의 정의를 국방체육을 포함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다시 말해, 국방체육은 일반체육과 같이 고려하는 것은 정상화되었다.

한편, 일반 체육교육의 체계화 계속 발전했다. 1963년부터 「지덕체」라고 하는 개념이 『로동신문』에서 등장했다(로동신문 1963). 『로동신문』에 의하면, 「지덕체」는 원래 김일성이 1945년 11월 22일에 개교가 앞둔 삼흥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르치는 개념이었다. 즉, 『로동신문』에 의하면 "김일성은 후대들을 훌륭하게 키우자면 선진적인 지식과 건전한 도덕품성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튼튼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라고 했으며 「지덕체」라고 하는 명칭을 냈다"고 했다(강초욱 1967). 물론, 1963년 전에 나온 자료에서 「지덕체」라고 하는 개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지덕체」는 새로운 개념보다 미리 존재하는 교육과정을 간단화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군사적인 단어와 표현을 체육교육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로동신문』에 의하면 김일성은 "청소년을 미래의 혁명전사로 키우라고 했으며 체육이 앞으로 민주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투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군인들을 키우는 것이 체육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다.

1965년부터 국방체육교육이 본격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다. 즉, 1965년 2월 19일 「내각결정 제7호」는 국방체육을 널리 보급하며 학생들 속에서 종목별 소

조를 조직함으로써 국방체육교육을 확실히 강화했다(로동신문 1965). 동년에는 학생들의 체육행사에 국방체육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정동실 2001: 82). 이어서 1967년에 김일성의 교시는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체육을 대중화」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었다(로동신문 1969). 그 해부터 국방체육은 체육사업총화에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체육사업총화 1967).

1969년에는 전국체육인대회에서 김일성은 "교육부문일군들이 체육을 다른 과목들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체육단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그러다 보니 어떤 청년들은 학교를 나오고 인민군대에 들어갈 때에도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체력을 가지고 입대하게 된다"고 했다(김일성 1969). 다시 말해, 김일성은 체육교육을 기능적으로 입대하는 준비로 봤다. 이런 결함을 고치기 위해 1970년부터 해마다 「토요체육의 날」, 「국방체육의 날」을 지정하고 「기크기운동」을 적극 전개했다(이학래·김동선 2004: 75).

이상을 요약하자면 국방체육을 위한 체육교육 시기에는 국제긴장 상태로 인해 1962년에 나온 「4대 군사로선」 하에 체육교육은 영향을 받았으며 체육교육은 이 새 정책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체육교육 정책이 국방체육 종목에 집중했으며, 국방체육은 일반체육종목과 같이 나왔다. 또한, 체육교육의 목적 중에는 인민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일반체육교육 계속 이어졌으며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다.

5. 국제체육대회 시대: 우수한 선수후비를 위한 체육교육의 전문화·기술화·과학화(1972년~현재)

1971년 12월 7일 김일성의 교시는 조선을 「체육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체육정책의 전환점을 신호했다(체육사업총화 1973: 156). 그 교시 때문에 체육교육의 모습이 바뀠다. 국방과 입대를 위한 체육교육은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체육교육이 되었다. 맥락은 조선은 1972년에 하계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다. 원래 조선은 1963년부터 IOC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

으며, 1964 동계올림픽에 「NORTH KOREA」라고 하는 명칭으로 참가했다(이진규 2020: 71-72; 이학래·김동선 2004: 73). 그러나 1964년 하계올림픽은 가네포에 참가한 선수를 금지해서 조선은 참가하지 않았다(로동신문 1964). 1968년에는 조선이 「DPRK」 대신에 「NORTH KOREA」라고 하는 명칭을 써야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1969부터 「DPRK」라고 하는 명칭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이진규 2020: 71-72). 따라서 조선은 1972년부터 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으며 이란 관계가 개선되어서 1974년부터 아시아경기에 참가했다(이진규 2020: 76). 결국, 70년대 초반에 체육정책은 전쟁을 대비하는 국방체육보다 국제경기에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시기였다.

1971년 김일성의 교시는 1972년에 체육교육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즉, 전국에서 체육구락부는 특정 종목을 훈련했으며 규칙적인 훈련시간이 설치되었다(이나영 2019c). 또한, 각 도에 있는 스포츠학교는 폐지되었으며 스포츠학교를 대체할 고등체육전문학교들은 3년제 선발선수를 육성한 기관으로써 개교되었다(한민길 2005: 17; 이학래·김동선 2004: 75). 다시 말해, 1972년 체육교육의 강화는 우수한 선수를 위한 사업이었다.

1974년부터 김정일은 『로동신문』에서 「당중앙」이라고 하는 암호명으로 등장했으며, 1977년에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했다(로동신문 1977). 그러나 나중에 출판한 조선 출처에 따르면 1974년전에도 김정일은 체육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즉, 김정일은 1972년에 4.25체육단은 직접 지도해서 전문체육에 관한 관심이 원래 많았다(이나영 2019c: 122). 1974년부터는 김정일이 체육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전문체육을 추진했다. 즉, 김정일은 1974년 2월 18일에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을 종목별로 전문화했다(로동신문 1994). 나중에 출판한 출처에 따르면 김정일은 황해북도 신계군 대정중학교 롱구소조원들을 봐서 모든 학교들에서 일정한 체육종목을 전문화하는 영감을 받았다(리명희 2004). 한편, 김일성은 약 한 달 후에 조선이 이길 수 있는 체육종목을 정했으며 그 종목들을 선정했다(이나영 2019c: 119). 다시 말해, 1972년부터 조선은 일반학교부터 특정한 종목을 전문화하고자 했다.

1977년부터 선수후비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는 개편되었다. 즉, 1977년에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8년제 초급 체육 전문교육 기관인 중앙체육학원이 설치되었다(로동신문 1997; 이학래·김동선 2004: 75). 또한, 1977년에 평양체육대학은 체육교원·지도원을 위한 체육학부와 선수를 위한 경기학부를 두었다(한민길 2005: 17). 정리하자면, 국가에서 가장 우수한 체육인을 키우는 기관은 구체화했다.

한편, 1977년에 9월 5일에 김일성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전왕권 2017: 38). 차승주에 의하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조선 교육의 기본원리와 본질적인 문제를 집대성함으로써 향후 조선 교육의 기본노선과 방향을 제시한 문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교육이론을 제시하였으며 김정은 시기까지 조선 교육 전반을 규정했다(차승주 2013: 186-188). 그러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체육교육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선수후비를 양성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초등학교들과 중등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했으며 체육교육을 대규모·체계적으로 다채롭게 하는 것을 요구했다(김일성 1977). 다시 말해 국제체육대회 시대에는 국방과 로동을 위한 체육교육을 계속 실시했지만, 그 체계가 미리 거의 완벽하게 도입된 상태였다. 한편, 당시에 일반학교의 체육교육 외에 선수후비를 위한 특수체육교육이 따로 개발하고 실시하는 법이다.

1980년대 초반에 체육교육의 변화는 계속 전문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변화였다. 즉, 1983년에 중앙체육간부양성소는 1년 과정 체육 교원과 지도원 재교육반을 두었다(한민길 2005: 18). 또한, 1984년부터 전문화체육 종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모범체육학교」 칭호쟁취운동이 시작했다(체육사업총화 1984: 272). 다시 말해, 1980년대 초반의 체육 개편은 체계적인 변화였으며 개념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1986년 5월 19일에 담화에서 학교체육에 관해 논했는데, 존재한 정책과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체육의 과학화는 중요한 사업으로 나왔다(김정일 1986). 과연,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전에 나온 김정일 담화는 체육의 과학화를 다시 강조했다(김정일 1989). 그러나, 그 시기의 변화는

주로 전문체육인을 위한 변화였으며, 기초적인 체육교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조선은 교육분야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출석률은 떨어졌으며 식량과 교육용품은 부족했다(신효숙 2006: 29). 체육교육의 정책은 기초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90년대 후반에 특히 농구는 강조되었다. 즉, 1996년 10월에 김정일은 학교에서 농구를 장려했다(전왕권 2017: 55-56). 1998년 7월에 김정일은 농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세웠다. 첫째, 김정일은 모든 고등중학교에서 농구단을 창립하라고 했다. 둘째, 김정일은 농구를 체육수업과 과외시간에 농구를 연습하는 것을 요구했다. 셋째, 각 도·시·군 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농구시설을 건설해야 했다(전왕권 2017: 160-161). 넷째, 1998년 9월에 김정일은 현지지도할 때 모든 군사학교에서 농구관을 건설하는 것을 요구했다(김철만 2009: 55-56). 이상 요약하면, 김정일은 체육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꾸지 않았지만, 한 과목의 중요성을 높였다.

김정일의 농구 강조는 국방체육처럼 특정 과목의 중요성을 높였으면, 왜 다른 시기로 구분되지 않을까? 이유는 몇개가 있다. 첫째, 농구의 심화는 모든 인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책의 초점은 계속 전문화였다. 이를테면, 김정일은 전문롱구련맹전을 조직해봤으며, 국내 농구단과 경기를 위해 해외 농구단을 초대했다(정동길 2001: 288-293; 홍영자 2023: 542-547). 둘째, 체육교육체계가 기초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셋째, 기간은 너무 짧았다. 2000년경 김정일의 공식적인 농구 관심은 없어졌으며 지속되는 농구대회 밖에 농구심화정책의 흔적이 없었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의 체육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체육교육을 고려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축구의 심화이다. 물론, 김정일은 축구의 발전을 계속 강조해왔다. 이를테면, 김정일은 1970년대에 4.25 축구단을 지도했으며 1989년에 체육에서 축구가 기본이라고 주장했다(이나영 2019c: 122; 김정일 1989). 과연, 김정일은 2011년 1월 1일에 『로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을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축구를 전문화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2013년 5월 30일에 우수축구선수를 키우기

위한 평양국제축구학교는 완공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13). 한편, 2018년 4월 1일에 평양시와 각 도에 8년제 축구학교들은 개교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18). 물론, 존재하는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축구가 훈련되었는데, 축구학교는 축구선수를 단독적으로 양성해서 심화된 축구교육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전 시기처럼 계속 전문화를 위한 체육정책을 보여준다.

6. 맺음말

이상 요약하면, 조선의 체육교육정책을 목적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면, 시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부터 조국해방/한국전쟁의 시작까지 대중화를 위한 체육교육이 있었다. 해방 전에 학교에서 체육은 징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3년 동안 구기종목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체육교육은 일반 체육을 활성화해야 했으며, 새로운 체육체계를 도입해야 했다. 둘째, 휴전부터 1962년까지 노동을 위한 체육이 있었다. 당시 전쟁 때문에 피해를 당한 국가는 재건해야 했으며, 개편되고 있는 농업과 공업 분야는 노동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교육에 증가하는 체육시간 및 도입된 공산주의 사상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셋째, 1962년부터 1971년까지 국방을 위한 체육이 있었다. 당시 국제 긴장상태 속에서 군사력이 필요한 조선은 1962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학교에서 국방체육을 강조했다. 당시에 국방체육은 일반체육과목과 같이 나왔으며 김일성은 입대를 위한 체육교육을 강조했다. 넷째, 1971년부터 우수한 선수후비를 위한 체육교육의 전문화·기술화·과학화는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조선은 1972년 하계올림픽 및 1974년 아시아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이런 국제대회에 성공했으면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에게 자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따라서, 1972년부터 전문체육학교망이 개편되었으며 체육구락부의 훈련시간이 규정되었다. 현재까지 조선의 전문화를 위한 체육교육은 시기의 요구와 조건에 따라 체계와 강조점이 조금씩 바뀌었다. 그러나, 큰 전환점은 없었으며, 전문화는 계속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선 정책을 살펴보면, 조선 체육교육의 유지된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체육정책 선언은 2015년 3월 16일에 제7차전국체육인대회였는데, 달라진 정치 구호 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즉, 김정은은 능력이 있는 체육일군과 체육선수후보들을 많이 키우는 것과 기초기술교육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정책이 아니었다(로동신문 2015). 또한, 기초적으로 새롭게 나온 체육법에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다. 즉, 2021년 7월 29일에 채택된 체육법의 수정은 제28조에 김정은이 2015년에 강조한 기초기술교육을 포함했지만, 그 외에 새 체육교육 내용이 없었다(북한법령집 하 2024: 843). 또한, 2021년 9월 29일에 채택된 청년교양조장법은 제21조에 의하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기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북한법령집 하 2024: 835). 그러나, 이 법은 새로운 정책보다 미리 존재하는 사실을 법에 넣은 것이다.

최근에 나온 언론을 살펴보면, 앞으로 조선의 체육교육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있다. 2022년에 「조선에 오늘」에 의하면, 학교체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안의 교육단위들에서 올해에 들어와 체육교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수십건의 연구성과를 이룩했다고 했다(조선의 오늘 2022). 다시 말해, 1980년대 김정일이 강조한 체육교육의 과학수준은 계속 정책의 초점으로 남았다. 과연, 2024년에 전국교육부문 체육교육과학성과발표회를 통해 최근 체육교육정책의 과학강조를 볼 수 있다(조선중앙통신 2024).

조선 체육교육은 연구가 아직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상 연구는 시기별로 정책의 강조를 알아볼 수 있었지만, 주로 체육교육에 관한 논문 대신에 체육에 관한 학위논문 및 조선 문헌을 이용해야 했다. 다시 말해, 1960년대 후에 체육교육의 과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또한, 시대마다 일반 학교와 체육학교의 관계가 애매하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체육학교망의 구조 및 명칭이 복잡하게 된다. 심지어, 시대마다 제공한 종목은 다르다. 어쨌든, 조선은 국제대회에 계속 이기면, 이런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일 것 같다.

참고문헌

강초욱(1967)「〈인민들 속에서〉 삼흥중학교」,『로동신문』, 1967.4.20.

김난주·송재용(2011)「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비교민속학』, 제44집, 397-425.

김미숙(2004)「북한의 스포츠이념과 남북 스포츠교류의 한계에 관한 연구」,『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2권 2호, 344-361.

김일성(1946)「《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10월 6일」,『북한체육자료집』,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329-332.

김일성(1969)「《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 1969년 11월 4일」,『북한체육자료집』,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342-356.

김일성(1977)「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

김정일(1986)「《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킨 데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9일」,『북한체육자료집』, 한국학술정보, 2004, 357-378.

김정일(1989)「《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화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2일)」,『북한체육자료집』, 한국학술정보, 2004, 398-405.

김철만(2009)「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1990년대 후반기 롱구를 많이 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력사과학』, 3호, 55-56.

내각결정(1958)「체육 및 스포츠 보금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 내각결정 제30호, 1958년 3월 19일」,『북한체육자료집』,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333-335.

내각결정(1959)「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 데 대하여 (내각결정 제15호, 1959년 2월 17일)」,『북한체육자료집』,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336-339.

로동신문(1961a)「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는 국방 체육 협회 평양시 통신 구락부 선수단 평양을 출발」,『로동신문』, 1961.10.19.

로동신문(1961b)「〈붉은 교원 집단의 선두에서〉창성군 약수 중학교 림 영균 교장에 대한 이야기(교원은 혁명투사가 되여야 한다, 육친적인 사랑으로, 마을의 교양자)」,『로동신문』, 1961.4.7.

로동신문(1961c)「〈체육〉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경축 전국 국방 체육 대회 개막 함흥시에서」,『로동신문』, 1961.8.30.

로동신문(1961d)「후대들을 붉은 공산주의자로,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평북도 창성군 약수 중학교 교원 집단의 사업에서)」,『로동신문』, 1961.11.5.

로동신문(1963)「모든 학생을 지덕체를 겸비한 후비대로! 첫《모범 교육군》의 영예를 지닌 창성군, 교육 사업에서」,『로동신문』, 1963.11.2.

로동신문(1964)「력사는 제국주의의 반동 정책에 체육과 스포츠를 복종시키려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우리 나라 올림픽 선수단 도꾜에서 성명을 발표)」,『로동신문』, 1964.10.10.
로동신문(1965)「공화국 내각에서 체육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책택」,『로동신문』, 1965.2.26.
로동신문(1969)「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한다(리선택동무가 일하는 기업소에서)」『로동신문』, 1969.5.31.
로동신문(1977)「〈위대한 수령 김정일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가 성명 발표)」,『로동신문』, 1977.2.17.
로동신문(1994)「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학교체육의 종목별 전문화방침을 제시하신 20돐 기념보고회 진행」,『로동신문』, 1994.4.19.
로동신문(1997)「중앙체육학원창립 20돐 기념보고회 진행(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로동신문』, 1997.3.28일.
로동신문(2015)「김정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성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러나가자」,『로동신문』, 2015.3.26.
리명희(2004)「청소년들을 튼튼한 체력의 소유자들로」,『로동신문』, 2004.4.7.
리병모·황영식·최원종(1964)『약수 중학교 교육 경험』, 도쿄: 학우서방, 1964.
마로쪼브(1949)「쏘베-트 체육과 그 조직」,『인민체육』창간호, 평양: 교육성, 1949, 16-21, 48.
박경호(2022)「일제강점기 체육 정책에 대한 사적 고찰」,『스포츠와 해양문화』12권 1호, 1-10.
북한법령집 下(2024) 서울: 국가정보원.
서홍석(2021)「북한 농업협동화 시기 제대군인의 활동과 농업협동조합의 공고화」,『한국사학보』74호, 375-418.
성문정(2008)『북한의 체육 실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신효숙(2006)『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통일부 통일교육원.
우리민족끼리(2023)「인민체력검정을 받는 날에」,『우리민족끼리』, 2023.8.23. (https://kcnawatch.xyz/newstream/1692760367-702001296/%EC%9D%B8%EB%AF%BC%EC%B2%B4%EB%A0%A5%EA%B2%80%EC%A0%95%EC%9D%84-%EB%B0%9B%EB%8A%94-%EB%82%A0%EC%97%90/, 2025.07.04.)
이나영(2019a)「북한체육의 사회주의적 특성과 여성체육의 발전」,『통일연구』23권 2호, 165-197.
이나영(2019b)「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Sporting women)'의 등장과 의미: 1950-60년대 북한 여성 전문체육을 중심으로」,『통일과평화』11집 2호, 107-140.
이나영(2019c)「북한의 여성 체육 담론 연구(1945-2011): 여성 전문체육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민정(2017)「스포츠를 통해서 본 남북한 선수선발 및 양성과정 비교연구 -여자소프트볼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수(2016)「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학교체육 연구『교원신문』학교체육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19권 3호, 86-226.
이세영(2020)「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2020)「초기 천리마 운동 인물 형상화 연구 〈위대한 힘〉, 〈불사조〉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철(2008)「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곡물 생산성과 연구」,『한국사학보』31호, 205-240.
이진규(2020)「북한의 체육담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학래·김동선(2004)『북한의 체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이학래·김동선(2004)『북한체육자료집』, 서울: 한국학술정보.
인민체육(1949)「쏘련체육을 더욱 광범히 섭취 - 조쏘 체육분과위원회 제2차 총회」,『인민체육』, 평양: 교육성, 1949, 15.
임동현(2020)「일제시기 조선인 체육단체의 스포츠 문화운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왕권(2017)『인민체육의 터전우에 꽃핀 학교체육』, 평양: 체육신문사.
정동길(2001)『북한 체육 스포츠 영웅』, 서울: 다인미디어.
조남훈(1992)『조선체육사 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조선의 오늘(2022)「체육교육의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조선의 오늘』, 2022.11.6.
(https://kcnawatch.xyz/newstream/1517394645-276955187/%ED%8F%89%EC%96%91%EC%8B%9C%EC%99%80-%EA%B0%81-%EB%8F%84%EC%A7%81%ED%95%A0%EC%8B%9C-%EC%B6%95%EA%B5%AC%ED%95%99%EA%B5%90-%EC%84%A4%EB%A6%BD/ 2025.07.01.)
조선중앙통신(2013)「릉라인민체육공원, 평양국제축구학교 준공」,『조선중앙통신』, 2013.5.30.
(https://kcnawatch.xyz/newstream/1452056855-452240565/%C2%B7%EB%A6%89%EB%9D%BC%EC%9D%B8%EB%AF%BC%EC%B2%B4%EC%9C%A1%EA%B3%B5%EC%9B%90%ED%8F%89%EC%96%91%EA%B5%AD%EC%A0%9C%EC%B6%95%EA%B5%AC%ED%95%99%EA%B5%90-%EC%A4%80%EA%B3%B5/, 2025.07.01.).
조선중앙통신(2018)「평양시와 각 도(직할시) 축구학교 설립」,『조선중앙통신』, 2018.1.31.
(https://kcnawatch.xyz/newstream/1517394645-276955187/%ED%8F%89%EC%96%91%EC%8B%9C%EC%99%80-%EA%B0%81-%EB%8F%84%EC%A7%81%ED%95%A0%EC%8B%9C-%EC%B6%95%EA%B5%AC%ED%95%99%EA%B5%90-%EC%84%A4%EB%A6%BD/, 2025.07.01.)

조선중앙통신(2024) 「전국교육부문 체육교육과학성과발표회-2024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4.4.13.
(https://kcnawatch.xyz/newstream/1712961395-232820906/%EC%A0%84%EA%B5%AD%EA%B5%90%EC%9C%A1%EB%B6%80%EB%AC%B8-%EC%B2%B4%EC%9C%A1%EA%B5%90%EC%9C%A1%EA%B3%BC%ED%95%99%EC%84%B1%EA%B3%BC%EB%B0%9C%ED%91%9C%ED%9A%8C-2024-%EC%A7%84%ED%96%89/, 2025.07.02.)
조선체육(2024) 「《체육절 75돐기념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2024》 시작」, 『조선체육』, 2024.10.14.
(https://kcnawatch.xyz/newstream/1730894594-513292835/%E3%80%8A%EC%B2%B4%EC%9C%A1%EC%A0%88-75%EB%8F%90%EA%B8%B0%EB%85%90-%EC%A0%84%EA%B5%AD%EB%8F%84%EB%8C%80%ED%95%AD%EA%B5%B0%EC%A4%91%EC%B2%B4%EC%9C%A1%EB%8C%80%ED%9A%8C%E2%80%952024%E3%80%8B-%EC%8B%9C/, 2025.07.04.)
조신수(2019) 「북한에서 학교체육을 통한 몸의 통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정아(2003) 「북한 종합기술교육의 도입과 전개」, 『교육사회학연구』 13권 1호, 215-235.
차승주(2013)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17권 1호, 179-203.
체육사업총화(1967) 『북한체육자료집』,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78-88.
체육사업총화(1973) 『북한체육자료집』,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156-171.
체육사업총화(1984) 『북한체육자료집』,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271-275.
최재성(2021) 「전시체제기 일제의 병력 동원 정책과 학교체육」, 『역사연구』 45호, 13-56.
한민길(2005) 「북한의 체육 교원은 어떻게 양성할까」, 『스포츠과학』 93권 13호, 14-20.
허정필(2017) 「북한 '체육정치'의 전개 과정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현주·안지호(2015)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0권 3호, 145-161.
홍성보(2011) 「북한체육정책의 변화 과정(1945~1970):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영자(2023) 「조선 농구의 발전: 우월성과 감소의 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본에서 출판된 코리아어 학습서의 역사적 변화와 향후 과제*

Historical Changes and Future Challenge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in Japan

平田絵未**
大谷大学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일본 국내에서 출판된 코리아어[1] 학습서를 대상으로 학습서의 편찬 의도와 구성 내용이 사회적·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모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서울(표준어) 중심의 대중문화적 틀 속에서 수용되고 고정화되어 가는 일본의 코리아어 교육을 한층 넓은 시야에서 재조망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쟁[2]이 끝난 직후 일본에서 코리아어 학습 활동은 주로 재일조선인과 언어연구자들에 의해 주도하였으며, 이른바 '일반층', 즉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코리아어 학습자[3]를 중심으로 한 학습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JSPS KAKENHI Grant Number 21K13064.

** HIRATA Emi (Research Fellow, Otani University)
E-mail: emihirata@res.otani.ac.jp

1 '한국어'와 '조선어'라는 용어는 각각 특정 국가와 결부되어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 명칭으로서 '코리아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인용문이나 대학의 학과·학부 명칭 등 고유명사는 원래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2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를 가리킨다.

3 이후 '일본어권 학습자'로 표기한다.

판된 학습서의 종류와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후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적·경제적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었고, 이러한 축적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한류 붐[4]이 뒷받침되면서 일본 내에서 코리아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학습서의 편찬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취미를 위한 입문자용 학습서에서부터 비즈니스 용도나 교육기관 사용을 염두에 둔 전문 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단기간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과 학습 내용의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서는 코리아어 교육의 보급과 학습자층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K-POP이나 한국 드라마 등 서브컬처를 통한 언어 접촉의 확대가 이문화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학습서의 상당수가 한국, 특히 서울 표준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 내용이 특정 국가 언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중은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교육의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코리아어 교육의 출발점은 재일조선인[5]과의 상호 이해 촉진에 있었음에도 현재는 그러한 의미의 교육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현재 코리아어 교육이 일정한 성숙 단계에 도달한 일본에서, 이러한 편중을 재검토하고 외국어 교육의 본질인 이문화 및 가치관 이해,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성 구축, 즉 '상호 이해'의 매개라는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향후 일본의 코리아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일본에서의 한류 붐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조규헌(2021)에 따르면 2004년경 한국 드라마 붐을 제1차, 2010년 전후의 K-pop 붐을 제2차, 2017년경 SNS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붐을 제3차, 그리고 2020년경 코로나19 시기의 K-콘텐츠 붐을 제4차 한류 붐으로 분석하고 있다.

5 高島淑郎(1984: 105)에서도 "勢い, 朝鮮語学習者の関心は本国のほうにばかり偏ってしまい, 在日朝鮮人の存在を忘れがちである.(자칫하면 조선어 학습자의 관심은 본국 쪽으로만 치우쳐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잊기 쉽다)"고 언급하며, 일본인에 의한 조선어 학습의 방향성에 편중이 존재함을 당시 이미 지적하고 있다.

2. 학습서 분석

2.1. 분석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일본에서 간행된 코리아어 학습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첫 단계로서, 필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 중,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이전에 출판된 학습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국교정상화 이전 학습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국교정상화 이후에 간행된 학습서도 참고하여, 서울 표준어 이외의 언어관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 또한 검토한다.

한편 그 당시 널리 활용되었던 등사본[6]에 대해서도 분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입 경로가 제한되어 특정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습자만 이용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현존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체계적 분석에 필요한 망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학습서 저자의 경력, 편찬 의도, 정서법, 어휘 표현 및 문화적 서술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2.2. 한일국교정상화 이전에 출판된 학습서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을 앞서, 필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었던 1945년 이후부터 2010년대[7]까지 출판된 학습서의 개요와 특징을 〈표 1〉에 정리하였다[8].

---

6 植田晃次(2022: 47-50)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65년 이전까지 확인된 학습서는 23권이며, 그 중 약 3분의 2가 등사본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7 일본 4년제 대학에서 코리아어 강좌 개설 현황에 대해 国際文化フォーラム(2005)은 1995년의 개설율이 25.3%였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의 「大学における教育内容等の改革状況について(대학에서의 교육내용 등 개혁 상황에 대하여)」에서는 2003년도에는 50.1%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8년 사이 코리아어 강좌를 개설하는 4년제 대학은 약 2배로 증가하여, 2개교 중 1개교의 비율로 코리아어 강좌가 개설된 셈이다. 한편 大村益夫(1977)는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일본 대학에서 이루어진 코리아어 강좌 상황에 대해, 강좌 수의 부족, 학습 내용의 불완전함, 적절한 학습서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을 감안하면, 특히

그중 한일국교정상화(1965년 6월 22일) 이전에 간행된 학습서로는 『基礎朝鮮語(기초 조선어)』, 『朝鮮語の学習(조선어의 학습)』, 『朝鮮語四週間(조선어 4주간)』의 세 권을 들 수 있다[9]. 이하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자의 배경, 학습서의 구성, 정서법, 어휘 표현, 문화적 요소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고찰한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학습서 편찬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平田絵未(2024: 72-73)의 〈표 1〉을 참조하면, 코리아어 강좌 개설 대학 비율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08년도(59.3%)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증가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2010년대 무렵을 하나의 구분점으로 삼아, 이 기간에 출판된 학습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8 학습서 목록의 활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자면, 목록 상단에 표시된 정서법 항목에서 '공'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대'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며, '×'는 해당 학습서에서 사용된 정서법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9 植田晃次(2022: 47-50)에 따르면, 이들 세 권 외에도 宋枝学・梶井陟『新しい朝鮮語の学習』(学友書房 1957), 卓熹銖『朝鮮語の初歩』(学友書房 1957)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직접 열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学友書房은 朝鮮青年社와 마찬가지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관련된 출판사로서, 간행물의 유통은 특정 커뮤니티에 제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油谷幸利(2009: 682-683)는 「韓国語研究と私」라는 회고록에서 "当時たった2種類しかなかった朝鮮語の参考書[…] (당시 단 두 종류밖에 없었던 조선어 참고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의 '당시'는 문맥상 1971년을 가리키며, 여기서 언급된 참고서는 『基礎朝鮮語』와 『朝鮮語四週間』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일본어권 학습자가 널리 사용한 학습서의 경향을 파악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학습서의 존재 자체는 확인되었다.

〈표 1〉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에서 출판된 코리아어 학습서[10]

번호	출판 연도	저자	제목	출판사	정서법	페이지 수
1	1957	宋枝学	基礎朝鮮語	大学書林	X	165
2	1962	石原六三 青山秀夫	朝鮮語の学習[11]	養徳社	X	182
3	1963	河野六郎 감수 石原六三 青山秀夫 저	朝鮮語四週間	大学書林	공·대	333
4	1971	梶井陟	わかる朝鮮語 〈基礎·実力編〉	三省堂	공·대	220
5	1972	李崇寧 감수 朴成媛 편저	標準韓国語 －基礎から会話まで－	高麗書林	X	357
6	1974	石原六三 安田吉実	韓国語会話の友 ふりがな付き·話し方の基礎から 実話会話まで	養徳社	대	351
7	1977	李崇寧 감수 金貞淑· 朴聖雨 편저	韓国語教本 新訂	筑波大学韓国 語語学研究会	대	340
8	1978	塚本勲·北嶋静江	速修朝鮮語会話	金星堂	공·대	168
9	1979	河野六郎 감수 梁昊淵 편저	韓国語講座(1)初級用	高麗書林	X	281
10	1981	青山秀夫 松尾勇	実用朝鮮語会話	大学書林	X	191
11	1981	菅野裕臣	朝鮮語の入門	白水社	공	344
12	1982	梶井陟	わかる朝鮮語[基礎編]第2版	三省堂	공·대	146
13	1983	塚本勲	朝鮮語入門	岩波書店	공·대	323
14	1984	金容権	別冊宝島42 10日間のハングル	宝島社文庫	X	256
15	1985	梅田博之	NHKハングル入門	日本放送出版 協会	대	303
16	1985	柳尚熙 呉英元	やさしいコリア語入門	評論社	대	203
17	1985	姜求栄	入門ハングル文法と会話	南雲堂	대	205
18	1986	早川嘉春	エクスプレス朝鮮語	白水社	X	163
19	1986	金容権	オール・イラスト ハングル初歩の初歩	南雲堂	대	158
20	1986	渡辺吉鎔	はじめてのハングルレッスン	講談社	X	262
21	1987	管野裕臣 감수 朝鮮語学研究会 편저	朝鮮語を学ぼう	三修堂	공·대	342

번호	출판 연도	저자	제목	출판사	정서법	페이지 수
22	1987	青山秀夫	基礎朝鮮語	大学書林	X	166
23	1987	金裕鴻	初めて学ぶ韓国語Ⅰ文字と発音, 基本語句編 カセット	語研	X	225
24	1988	大林直樹	朝鮮語 会話練習帳	大学書林	X	160
25	1988	中村完	ハングル初歩の初歩	大修館書店	X	103
26	1989	花本金吾·F.J.Edamatsu·早川嘉春·丁元泰	旺文社:マルチリンガルシリーズ 日英対照の韓国語会話	旺文社	대	271
27	1989	梅田博之 金東俊	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 1 入門·会話	大修館書店	대	241
28	1989	塚本勲 奥田一広	新しい朝鮮語	白帝社	공·대	158
29	1990	崔寛益	朝鮮語読本:しっかり学ぶ基本から会話まで	彩流社	공·대	227
30	1991	韓龍茂	ふりがなハングル会話 日本語·ハングル索引付	芸林書房	공·대	154
31	1991	李応寿	やさしい韓国語講座	語研	대	263
32	1992	文京洙	ハングル教本－基礎から読解まで－	新幹社	대	126
33	1993	梅田博之	朝鮮語入門 (朝鮮語研修テキスト)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X	142
34	1993	韓先熙 金幸子	はじめての韓国語 カ·ナ·ダ·ラハングル	明石書店	대	246
35	1994	洪潤基	標準韓国語教本	ハンリム出版社	대	101
36	1995	徐廷範 감수 姜奉植 저	韓国語会話入門 ハングルを高速マスター!!	東方書店	대	233
37	1995	権在淑	表現が広がるこれからの朝鮮語	三修社	공·대	251
38	1996	塚本秀樹 岸田文隆 藤井幸之助 植田晃次	GLOBAL KOREAN グローバル朝鮮語－朝鮮を学び朝鮮に学ぶ	くろしお出版	X	128
39	1996	油谷幸利	朝鮮語入門	ひつじ書房	대	135
40	1996	金裕鴻	金さんのはじめての韓国語	明日香出版社	X	190
41	1998	塩田今日子	こうすれば話せる CD ハングル	朝日出版社	X	154

번호	출판 연도	저자	제목	출판사	정서법	페이지 수
42	1998	塚本勲 長谷川由起子	入門者のための朝鮮語講座	白帝社	공·대	220
43	1999	今井久美雄	韓国語の散歩道 ほんとに初めての人の 韓国語	アルク	X	237
44	1999	マルチリンガル 編集部	韓国語イキイキ表現初級	アルク	대	161
45	1999	小倉紀蔵	最もシンプル韓国語マニュアル	アルク	대	153
46	2000	林昌奎	旅行フレーズで学ぶ韓国語超入門	アルク	대	161
47	2002	高島淑郎	書いて覚える初級朝鮮語 改訂版	白水社	대	129
48	2004	野間秀樹 村田寛 金珍娥	ぷち韓国語	朝日出版社	대	282
49	2006	曽我祐典 池貞姫	使える朝鮮語 聞く· 話す·読む·書く 改訂版	白水社	대	86
50	2006	高秀賢	ミニマム韓国語	国書刊行会	대	148
51	2008	布袋敏博 沈元燮 李美江	学ぼう韓国·朝鮮語 教育現場の実践から生まれたスタンダードテキスト(入門·初級編)	アルク	대	239
52	2008	李修京 편저 梁禮先· 金範洙· 金貞愛· 都奇延 저	わかりやすい韓国語 初級·中級攻略	白帝社	대	216

10 平田絵未(2024: 73-76)에 제시된 〈표 2〉를 기반으로 내용을 추가·수정한 것이다.

11 편자가 덴리대학(天理大学) 출판부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덴리대학에서 개설된 코리아어 강좌를 대상으로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高島淑郎(1984: 100-103)에서는 일반 서점에서 구매 가능한 코리아어 학습서로 소개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植田晃次(2022: 49)에 따르면 "個人蔵の8版は1989年12月28日に大阪·梅田の旭屋書店で販売されていたものであり, 1989年当時の大手書店の流通ルートにも乗っていたことがうかがわれる(개인 소장의 8판은 1989년 12월 28일 오사카 우메다의 아사히야 서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1989년 당시 대형 서점의 유통 경로에도 올라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이 학습서는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1957년에 大学書林에서 간행된『基礎朝鮮語』의 저자는 宋枝学이다. 저자는 조선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도쿄조선중고급학교(東京朝鮮中高級学校)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학습서 출판 당시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교육문화부 시학을 맡고 있었다. 또한 도쿄조선중학교의 교원 경험도 있어 교육 현장과 깊이 연관된 인물이다[12].「はしがき(머리말)」에 따르면, 본서는 입문서로 매김되어 있으며, 저자는 "大学書林は,日本ではおそらく初めての朝鮮語入門書を刊行することになります(大学書林은 일본에서는 아마도 최초로 조선어 입문서를 간행하게 됩니다)[13]"고 언급하고 있다. 전후 직후, 일본어권 학습자가 구입 가능한 형태로 출판된 대표적 학습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1강「朝鮮語について(조선어에 대하여)」에서는 "朝鮮に対する蔑視感は,未だに,ぬぐい去られていません。この不幸な関係は,一日も早く,あらためなければならないし[…](조선에 대한 경시감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관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고[…]"라고 서술하는 등, 언어 교육을 통한 역사적 관계의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당시 일본 사회에 한반도에 대한 비대칭적 인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일본에서의 코리아어 교육이 재일조선인과의 보다 평등한 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의 증진을 지향하는 맥락 속에서 기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습서는 총 165페이지로, 발음편·기초편·구문편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법은 공화국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성씨 '李'를 '이'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학습서에서는 '리'로 표기하거나 '로동자'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교재에 제시된 어휘와 표기 방식, 그리고 저자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공화국의 정서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학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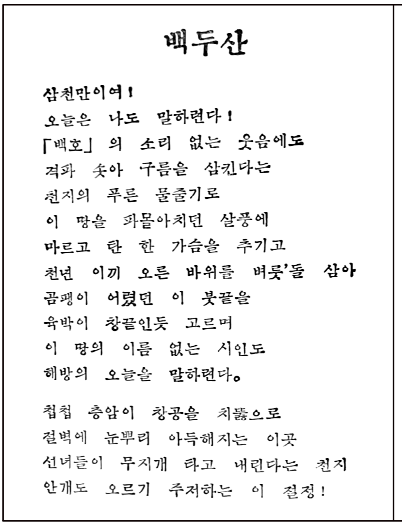
12 宋枝学『朝鮮教育史』(くろしお出版 1960)의 역편자 약력을 참조.

13 본문 및 각주에서 괄호 안에 제시된 코리아어 번역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두 필자에 의한 것이다.

내에서 찾을 수 없다.

학습서에는 '래일, 로동자, 동무, 평양, 백두산, 금강산'[14]과 같이 공화국을 연상시키는 어휘가 다수 보이고, 예문에는 '중국에서 온 사절단'과 같은 표현도 나타난다. 더 나아가 구문편에서는 48강에서 '애국심'을 다루고, 49강에서는 〈그림 1〉와 같이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이나 〈그림 2〉의 단문을 소개하는 등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그림 1〉백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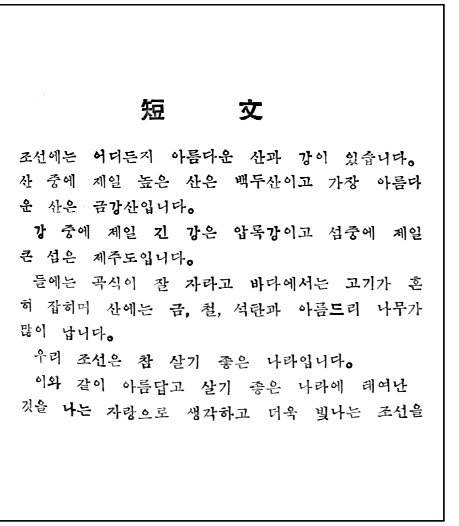
백두산

삼천만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백호」의 소리 없는 웃음에도
격파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묻아치던 살륭에
마르고 탄 한 가슴을 추기고
천년 이끼 오른 바위를 버릇'돌 삼아
곰팽이 어렸던 이 붓끝을
육박이 창끝인듯 고르며
이 땅의 이름 없는 시인도
해방의 오늘을 말하련다。

첩첩 층암이 창공을 치뚫으로
절벽에 눈부터 아득해지는 이곳
선녀들이 무지개 타고 내린다는 천지
안개도 오르기 주저하는 이 절정!

출처:宋枝学(1957:154)

〈그림 2〉단문



短　　文

조선에는 어디든지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습니다。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은 금강산입니다。
강 중에 제일 긴 강은 압록강이고 섬중에 제일 큰 섬은 제주도입니다。
들에는 곡식이 잘 자라고 바다에서는 고기가 흔히 잡히며 산에는 금, 철, 석탄과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조선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에 태여난 것을 나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더욱 빛나는 조선을

출처:宋枝学(1957:129)

14 인용한 예문은 모두 宋枝学『基礎朝鮮語』(大学書林 1957)에 따른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어휘의 수록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래일' = p.72
'로동자」 = p.76
'동무' = p.75
'평양' = p.72
'백두산' = p.99
'금강산' = p.130
'중국에서 온 사절단' = p.75
'애국심' = p.153

한편 '富士山が見えなかった(후지산은 보이지 않았다)'[15]와 같은 일본 관련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 학습서 전체는 공화국 문화를 중심에 두면서도 일본의 학습자를 의식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볼 때 『基礎朝鮮語』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위한 학습서에 그치지 않고, 코리아어를 통해 조선반도의 문화와 역사에 접근하려는 민족적·문화적 교육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 학습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화국의 어휘나 문화적 서술의 사용은 전후 직후의 학습 환경이 재일조선인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학습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공화국계 자료에 의존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962년대에 출판된 코리아어 학습서 가운데 하나로서 石原六三와 青山秀夫가 공편한 『朝鮮語の学習』(1962 養徳社)을 들 수 있다. 두 저자는 모두 덴리대학(天理大学)의 교원이며, 편찬 주체가 해당 대학의 출판부인 점에서 기본적으로 덴리대학의 수업에서 사용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自序(서문)」에서 저자들은 "教科書としても参考書としても活用できるように編纂した(교과서로도 참고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학습서는 총 182쪽으로, 제1편 「문자와 발음」, 제2편 「어법」, 그리고 「부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습 항목에는 설명, 예문, 일본어 번역이 제시되어 있다. 정서법에 관한 설명은 없으나, 서문에는 한국의 국어학자인 최현배의 조언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으며,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 '여행'[16]가 확인되는 점에서 한국의 정서법이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문에는 '부산, 한국, 교토, 도쿄, 금강산'[17] 등의 지명이 일부 등장하나 그

15 '富士山が見えなかった' = p.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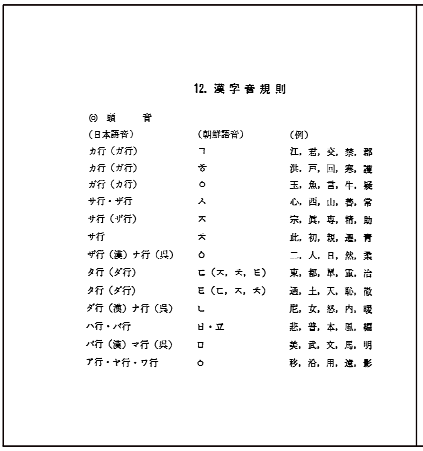
16 石原六三·青山秀夫 『朝鮮語の学習』(養徳社 1962: 24) 참조.

17 인용한 예문은 모두 石原六三·青山秀夫 『朝鮮語の学習』(養徳社 1962)에 따른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어휘의 수록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부산' = p.36
'한국' = p.36
'교토' = p.38

수는 제한적이며, 문화적·역사적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부록에는 지시 관계사, 부사, 의태어, 접두사 등 어휘·문법에 관한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과 〈그림 3〉에 제시된 한자음 규칙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특히 '친척 계보표'와 〈그림 4〉의 '친척 호칭'에는 상당한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서명『朝鮮語の学習』이 시사하듯, 이 학습서는 코리아어의 학습을 주안으로 삼으면서도 언어학적 관점에 기초한 접근을 아울러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한자음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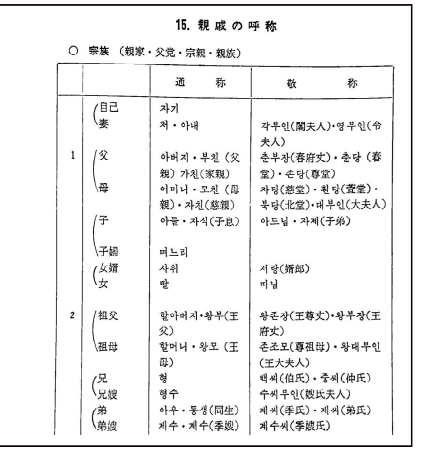
12. 漢字音規則

(◎) 頭音

(日本語音)	(朝鮮語音)	(例)
カ行 (ガ行)	ㄱ	江, 君, 父, 禁, 郡
カ行 (ガ行)	ㅎ	浜, 戸, 回, 寒, 護
ガ行 (カ行)	ㅇ	玉, 魚, 言, 牛, 疑
サ行・ザ行	ㅅ	心, 西, 山, 書, 常
サ行 (ザ行)	ㅈ	宗, 眞, 專, 精, 助
サ行	ㅊ	此, 初, 說, 遷, 青
ザ行 (漢) ナ行 (呉)	ㅇ	二, 人, 日, 然, 柔
タ行 (ダ行)	ㄷ (ㅈ, ㅊ, ㅌ)	東, 都, 單, 重, 治
タ行 (ダ行)	ㅌ (ㄷ, ㅈ, ㅊ)	通, 土, 天, 恥, 散
ダ行 (漢) ナ行 (呉)	ㄴ	尼, 女, 怒, 內, 暖
ハ行・バ行	ㅂ・ㅍ	悲, 普, 本, 風, 繩
バ行 (漢) マ行 (呉)	ㅁ	美, 武, 文, 馬, 明
ア行・ヤ行・ワ行	ㅇ	移, 浴, 用, 遠, 影

출처:石原六三·青山秀夫(1962:131)

〈그림 4〉 친척의 호칭



15. 親戚の呼称

○ 宗族 (親家・父党・宗親・親族)

		通称	敬称
1	自己	자기	
	妻	처・아내	각부인(閣夫人)・영부인(令夫人)
	父	아버지・부친 (父親) 가친(家親)	춘부장(春府丈)・춘당 (春堂)・손당(尊堂)
	母	어머니・모친 (母親)・자친(慈親)	자당(慈堂)・훤당(萱堂)・북당(北堂)・대부인(大夫人)
	子	아들・자식(子息)	아드님・자제(子弟)
	子媳	며느리	
	女婿	사위	서랑(婿郎)
	女	딸	따님
2	祖父	할아버지・왕부(王父)	왕존장(王尊丈)・왕부장(王府丈)
	祖母	할머니・왕모 (王母)	존조모(尊祖母)・왕대부인(王大夫人)
	兄	형	백씨(伯氏)・중씨(仲氏)
	兄嫂	형수	수씨부인(嫂氏夫人)
	弟	아우・동생(同生)	제씨(季氏)・제씨(弟氏)
	弟嫂	제수・제수(季嫂)	제수씨(季嫂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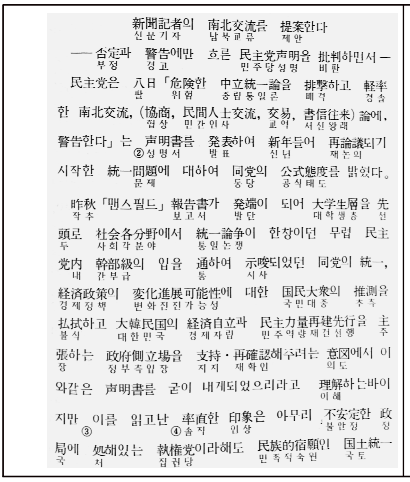
출처:石原六三·青山秀夫(1962:204)

마지막으로 1963년에 大学書林에서 출판된『朝鮮語四週間』은 도쿄쿄이쿠대학(東京教育大学) 교수 河野六郎가 감수를 맡았으며『朝鮮語の学習』과 마찬가지로 石原六郎와 青山秀夫 두 저자가 편찬하였다. 학습서는 총 333쪽 분량으로, 제목이 시사하듯 4주간의 학습을 전제로 단기간에 독해력 향상을 주로 목표로 한다.

'도쿄' = p.38
'금강산' = p.51

河野六郎는 「序文(서문)」에서 이 학습서가 'reading'을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밝히고, 그 이유로 "現在のわが国の状況では、朝鮮語の必要性はreadingにあると考えられる(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조선어의 필요성이 reading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당시 일본어로 된 코리아어 사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大学書林에서 출판된 소사전(宋枝学 편)[18]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는 이 학습서를 초학자용 'primary' 교재이면서 동시에 독해 교재(chrestomathy)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림 5〉신문기자의 남북교류를 제안한다



新聞記者의 南北交流를 提案한다
신문기자 남북교류 제안

── 솜定과 警告에만 흐른 民主党声明을 批判하민서 ─
부정 경고 민주당성명 비판

民主党은 八日「危険한 中立統一論을 排撃하고 軽率
당 팔 위험 중립통일론 배격 경솔

한 南北交流,(協商, 民間人士交流, 交易, 書信往来) 論에,
협상 민간인사 교역 서신왕래

警告한다」는 声明書를 発表하여 新年들어 再論議되기
②성명서 발표 신년 재논의

시작한 統一問題에 대하여 同党의 公式態度를 밝혔다。
문제 동당 공식태도

昨秋「맨스필드」報告書가 発端이 되어 大学生層을 先
작추 보고서 발단 대학생층 선

頭로 社会各分野에서 統一論争이 한창이던 무렵 民主
두 사회각분야 통일논쟁

党内 幹部級의 입을 通하여 示唆되었던 同党이 統一,
내 간부급 통 시사

経済政策이 変化進展可能性에 대한 国民大衆의 推測을
경제정책 변화진전가능성 국민대중 추측

払拭하고 大韓民国의 経済自立과 民主力量再建先行을 主
불식 대한민국 경제자립 민주역량재건선행 주

張하는 政府側立場을 支持·再確認하려는 意図에서 이
장 정부측입장 지지 재확인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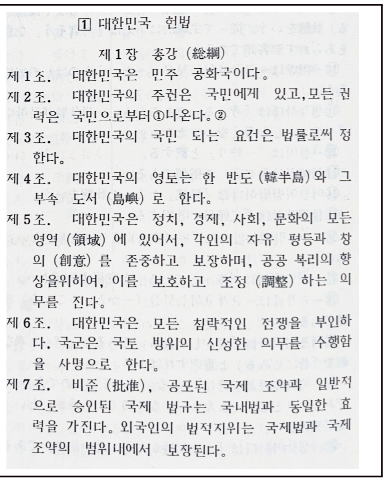
와같은 声明書를 굳이 내게되었으리라고 理解하는바이
이해

지만 이를 읽고난 率直한 印象은 아무리 不安定한 政
③ ④솔직 인상 불안정 정

局에 処해있는 執権党이라해도 民族的宿願인 国土統一
국 처 집권당 민족적숙원 국토

출처:河野六郎·石原六三·青山秀夫(1963:143)

〈그림 6〉대한민국 헌법



①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総綱)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①나온다。②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 반도 (韓半島)와 그 부속 도서 (島嶼)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領域)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 (創意)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 복리의 향상을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 (調整)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 (批准), 공포된 국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출처:河野六郎·石原六三·青山秀夫(1963:162)

학습서는 「제1주」부터 「제4주」까지 주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주와 제2주에서는 어법의 기초를 다루고, 제3주 이후에는 간결한 단문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 최종적으로 장문 독해로 발전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주에서는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 김유정 소설의 일부 발췌 등 문학작품을 통한 언어 활용 훈련이 이루어진다. 제4주에서는 〈그림 5〉「기자 신문

18 宋枝学『朝鮮小辞典』(大学書林 1962)로 추정된다.

의 남북 교류를 제안한다」에 관한 평론 기사이나 창작문, 〈그림 6〉과 같은 법률 문서 등이 독해 연습 문제로 제시되며, 부록의 첫머리에는 단편소설도 수록되어 있어 학습자가 문학·사회·법제도 등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휘 측면에서는 '로동자, 동무, 평양, 금강산'[19] 등 공화국을 상징하는 어휘가 등장하며, 전체적으로 정치적·문화적 배경을 의식한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법 측면에서는 〈그림 7〉의 독해 문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양국의 언어적 특징을 인식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림 7〉 독해 문제

정전 직후 이 공장 로동자들은 조선 로동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싸워 이긴 기세로 복구 건설에 일어섰다。폭탄 구덩이가 메꾸어지고 파괴 현장이 정리되여갔다。그 우에 새로 목조로 공장 건물과 합숙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리북명)

①朝鮮人民共和国では，頭音の規則を綴字法では考慮し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即ち，로동자・로동당・리북명のように原音通りに表記している。しかし従来の方法ならば夫々노동자・노동당・이북명のように表記する。詳しくは92頁を参照されたい。

출처:河野六郎·石原六三·青山秀夫(1963: 138-139)

"① 조선인민공화국에서는, 어두의 규칙을 철자법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즉, '로동자'·'로동당'·'리북명'과 같이 원음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19 인용한 예문은 모두 石原六三·青山秀夫『朝鮮語四週間』(大学書林 1963)에 따른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어휘의 수록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로동자' = p.138
'동무' = p.26
'평양' = p.152
'금강산' = p.39

종래의 방법이라면 각각 '노동자'·'노동당'·'이북명'으로 표기한다…"(河野六郎·石原六三·青山秀夫 1963: 138-139)

이상의 고찰을 통해『朝鮮語四週間』은 코리아어 문법 체계와 독해력 양성을 목표로 한 구성일 뿐만 아니라, 양국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정서법에 관한 상세한 해설과 양국의 표기법을 함께 제시한 점, 그리고 문학 작품의 선정에서 한국과 공화국 양측의 자료를 함께 채록한 점은 이 학습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동일 저자에 의해 편찬된『朝鮮語の学習』과 비교할 때, 두 교재는 내용 구성과 지향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朝鮮語の学習』이 음운 및 문법을 중심으로 한 언어 체계의 기초적 이해에 중점을 둔 학습서였던 데 비해,『朝鮮語四週間』은 문학 작품과 역사적·정치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단순한 언어 지식의 습득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까지 시야에 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두 학습서가 상정한 사용 환경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朝鮮語の学習』이 주로 덴리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편찬된 반면,『朝鮮語四週間』은 특정 교육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습자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간행되었다. 그 결과 후자는 보다 폭넓은 독자층을 의식한 내용 구성을 취하게 되었으며, 문학적·사회적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수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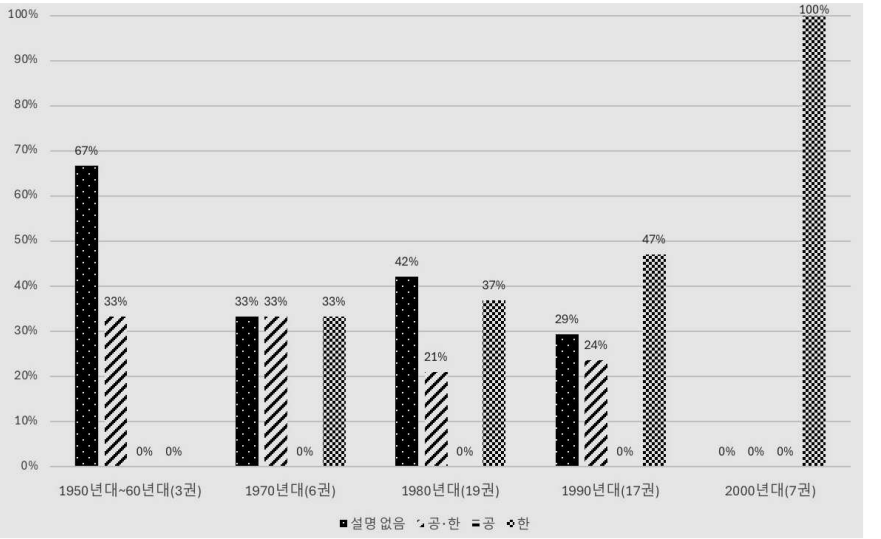
이상, 세 종류의 학습서를 분석한 결과, 국교 정상화 이전에 간행된 학습서들에서 한국 측의 정서법과 어휘뿐만 아니라 공화국 측의 정서법과 문학 작품까지 동시에 다루는 다원적 언어관이 일정 부분 수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편집 방침은 국교 정상화 이전, 한반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당시 일본 사회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출판된 학습서

아래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 출판된 코리아어 학습서 가운데 한국의 정서법을 채택하는 학습서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전체 경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보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한국과 공화국 양측의 정서법을 함께 언급하는 학습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8〉코리아어 학습서의 시대별 정서법 채택 양상



먼저 다룰 학습서는 梶井陟 저, 『わかる朝鮮語』(三省堂 1971)이다. 梶井陟는 1927년 도쿄에서 태어나 1949년에 도쿄토리쓰다이1시한학교(東京都立第1師範学校)[20] 본과(생물학)[21]를 졸업하였다. 이후 네리마쿠리쓰샤쿠지이중학교(練馬区立石神井中学校)에서 근무한 뒤, 1950년 4월부터 1955년 3월까지 도쿄도립

20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쿄부립제1사범학교'가 된다.

21 梶井陟『都立朝鮮人学校の日本人教師』(岩波書店 2014)를 참조.

조선중학교(東京都立朝鮮中学校)에서 근무하며 학생들과 함께 코리아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22]. 1978년부터는 도야마대학(富山大学) 인문학부 조선어·조선문학 코스의 주임 교수로 재직하며 조선어·조선문학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이 학습서는 총 220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6년 6월에 발표된 공화국의 규범집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국과의 차이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된소리(ㄲ, ㄸ, ㅃ, ㅆ, ㅉ)의 사전 배열, 두음법칙, 띄어쓰기, 품사 분류, 발음 규칙의 차이를 해설하는데, 그 상세함은 앞서 언급한 세 권보다 뛰어나다.

어휘 측면에서는 '제일일본조선인학교, 동무, 평양, 함경남도, 백두산'[23] 등 한반도 및 재일조선인 사회와 관련된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실력편에서는 김소월의 시와 최서해의 문학 작품이 독해 연습 문제로 활용되어 문화적 요소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학습서는 塚本勲·北嶋静江 저『速修朝鮮語会話』(金星堂 1978)로, 입문편과 회화편의 2부로 구성된 총 168쪽 분량의 학습서이다. 저자 塚本勲는 교토대학(京都大学) 문학부 언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교토조선중고급학교(京都朝鮮中高級学校)에서 비상근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오사카가이코쿠고대학(大阪外国語大学)[24] 외국어 학부 조선어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北嶋静江 역시 교토대학 문학부 석사과정을 마친 후 오사카가이코쿠고대학 조교수로서 코리아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

22 "先生、朝鮮語も知らないで先生はほんとうに朝鮮人を教えられると思うんですか！(선생님 조선어도 모르면서 선생님은 정말로 조선인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들은 것을 계기로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梶井陟(2014: 47-48)를 참조.

23 인용한 예문은 모두 梶井陟『わかる朝鮮語』(三省堂 1971)에 따른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어휘의 수록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제일일본조선인학교' = p.48
'동무' = p.46
'평양' = p.38
'함경남도' = p.39
'백두산' = p.121

24 한국어로 번역하면 '오사카외국어대학'이 된다.

학습서 「はじめに(머리말)」에는 “朝鮮では50歳前後からそれ以上の年齢層の多くが日本語を話す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私たちは彼らに日本語で話すことを期待すべきではないと考えます(조선에서는 50세 전후와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일본어로 말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안고 있는 역사적 문제를 염두에 둔 저자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学習を進めて行く過程で日本語と朝鮮語のこと、日本文化と朝鮮文化のこと、日本民族と朝鮮民族のことを考え、両民族のための真剣でまじめな礎となって下さ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학습 과정에서 일본어와 조선어, 일본 문화와 조선 문화,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에 대해 성찰하고, 양 민족을 위한 진지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언어적 내용 부분에서는 발음 규칙 중 동화 현상에 해당하는 비음화로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25]. 예문으로는 ‘조선말을(한국말을), 려행자(여행자), 리해(이해)[26], 리발관(이발관)[27]’와 같이 제시하며, 학습자가 양국의 언어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공화국과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의 문자·어휘’, ‘일본어와의 비교’, ‘일본 내 조선어 사전’, ‘조선의 국어사전’ 등을 주제로 한 칼럼 형식의 해설

25 塚本勲·北嶋静江(1978: 11)는 비음화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なお、A.B.C.に(→[n])とあるのは大韓民国で行われている発音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ではその前段階で同化を止めている。(참고로 A.B.C.에 (→[n])이라고 표시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발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동화를 멈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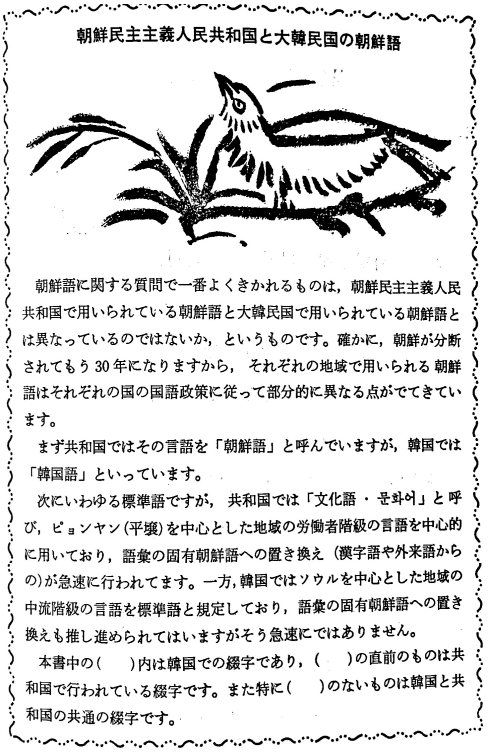
26 인용한 예문은 모두 塚本勲·北嶋静江『速修朝鮮語会話』(金星堂 1978)에 따른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어휘의 수록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말을(한국말을)’ = p.14
‘려행자(여행자)’ = p.16
‘리해(이해)’ = p.32

27 塚本勲·北嶋静江(1978: 50)에서 ‘韓では이발관(한에서는 이발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학습서 곳곳에 삽입되어 있어, 언어학적 관점이 학습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된다.

한일 교류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던 시기에도 양국의 언어적 차이와 역사적 맥락을 뚜렷이 인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저자들이 재일조선인 사회와 코리아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조선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大韓民国の朝鮮語

朝鮮語に関する質問で一番よくきかれるもの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で用いられている朝鮮語と大韓民国で用いられている朝鮮語とは異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ものです。確かに，朝鮮が分断されてもう30年になりますから，それぞれの地域で用いられる朝鮮語はそれぞれの国の国語政策に従って部分的に異なる点がでてきています。

まず共和国ではその言語を「朝鮮語」と呼んでいますが，韓国では「韓国語」といっています。

次にいわゆる標準語ですが，共和国では「文化語・문화어」と呼び，ピョンヤン(平壌)を中心とした地域の労働者階級の言語を中心的に用いており，語彙の固有朝鮮語への置き換え（漢字語や外来語からの)が急速に行われてます。一方，韓国ではソウルを中心とした地域の中流階級の言語を標準語と規定しており，語彙の固有朝鮮語への置き換えも推し進められてはいますがそう急速にではありません。

本書中の(　　)内は韓国での綴字であり，(　　)の直前のものは共和国で行われている綴字です。また特に(　　)のないものは韓国と共和国の共通の綴字です。

출처:塚本勲·北嶋静江(1978: 19)

1987년에 三修社에서 출판된 菅野裕臣 감수, 朝鮮語学研究会 편저, 『朝鮮語を学ぼう』는 총 34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에서는 "本書は基礎的文法の説明に重点を置いているのが特徴です(본서는 기초 문법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수자인 菅野裕臣는 도쿄쿄이쿠대학(東京教育大学)[28]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조선 언어학을 전공한 후, 도쿄가이코쿠고대학(東京外国語大学)[29] 외국어 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집필자는 10명으로, 그중 8명이 언어학 전공자[30]라는 점도 이 학습서의 특징이다.

서문에서는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코리아어 학습 열기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언급하고, 이에 부응하는 형태로 이 학습서가 기획·편집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정서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화국 표기법과의 차이도 설명하고 있다.[31]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용되는 '천, 만, 아파트, 겠읍니다'[32]와 공화국의 표기 차이는 물론, 어휘 선택의 차이까지 학습할 수 있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991년에 芸林書房에서 출판된『ふりがなハングル会話』의 저자는 韓龍茂이다. 저자는 1952년 도쿄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후, 한글 교실에서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한편 한글 시 창작에도 힘을 기울여 온 인물이다. 이 학습서는 총 154쪽으로, 문자와 발음에 관한 해설은「発音·フリガナ(발음·후리가나) 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장면별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

28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쿄교육대학'이 된다.

29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쿄외국어대학'이 된다.

30 언어학 전공자는 伊藤英夫, 菅野裕臣, 金東俊, 康仁善, 塩田今日子, 志部昭平, 野間秀樹, 早川嘉春의 8명이며, 三枝壽勝는 조선 근대 문학전공, 松原孝俊는 한국 문화사 전공이다. 朝鮮語学研究会(1987: 4)를 참조.

31 자음 해설 부분에서는 "[注]ただ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では子音字は19個, 母音字は21個の40文字からなるとします。([주]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에서는 자음자는 19개, 모음자는 21개의 40글자로 구성된다고 본다.)"菅野裕臣(1987: 14)를 참조.

32 인용한 예문은 모두 菅野裕臣 감수·朝鮮語学研究会 편저『朝鮮語を学ぼう』(三修社, 1987)에 따른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어휘의 수록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注] 北では千は일천と言われます([주] 북에서는 천을 일천이라고 한다)', '[注] 北では一万は일만と言われます([주] 북에서는 일만은 일만이라고 한다)' = p.67
'北では-겠습니다, -겠습니까?と書きます([주] 북에서는 -겠습니다, -겠습니까?라고 쓴다)'=p.98
'北아빠트 北では문화주택とも言います(북아빠트 북에서는 문화주택이라고도 한다)'=p.101

자는 “この本は、ソウルや、このたび実現したピョンヤンへの旅行者のために役立つことを念頭にして書きました(이 책은 서울과 이번에 실현된 평양으로의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필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학습 대상이 한국뿐 아니라 공화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まえがき(머리말)」에는 “日本から韓国には年間140万人を越す人々が訪れ、また日韓国交交渉の中で、北朝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も、近くて遠い国から、少しずつ近くて近い国になろうとしています(일본에서 한국으로는 연간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며, 또한 한일 국교 교섭 논의 속에서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가깝지만 먼 나라에서 점차 가까운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당시의 국제적·지역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発音・フリガナ(발음・후리가나)」 장에서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언급하면서 “ここでは民族は一つであり、文字も一つだという意味をこめて「ハングル」と言うことにした(여기에서는 민족은 하나, 그리고 글도 하나라는 뜻을 담아 「한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라고 하여, 코리아어의 명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학습서의 대부분은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안녕, (밤새) 안녕하십니까, 내(래)일, 내(래)주, 후추(호초)’ 등 양국 간의 두음법칙 차이나, 어휘 선택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복궁, 부산, 창덕궁, 남산, 평양, 원산, 비원’[33] 등 한반도에 관한 고유명사도 등장한다.

위와 같이 양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설정은 냉전 말기의 정치 정세 변화와 1990년대 초 일본 사회에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3 인용한 예문은 모두 韓龍茂『ふりがなハングル会話』(芸林書房 1991)에 따른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어휘의 수록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안녕, (밤새) 안녕하십니까’ = p.5
‘내(래)일’=p.14
‘내(래)주’=p.23
‘후추(호초)’=p.71
‘경복궁, 부산, 창덕궁, 남산, 평양, 원산, 비원’= p.99

1995년에 三修社에서 출판된 『表現が広がるこれからの朝鮮語』의 저자는 権在淑이다. 저자는 1955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오차노미즈조시대학(御茶ノ水女子大学)[34]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도쿄토리쓰대학(東京都立大学)[35]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36]. 1987년 이후 도쿄가이코쿠고대학, 조치대학(上智大学), 다이쇼대학(大正大学)에서 코리아어 교육에 종사했으며, 이 학습서 집필 당시에는 간다가이코쿠고대학(神田外国語大学)[37] 전임 강사였다[38].

서문에서는 학습서의 이론적 기반은 도쿄가이코쿠고대학교수인 菅野裕臣의 문법론이며, 그의 학문적 영향을 받아 집필된 학습서임을 보여주고 있다. 총 251쪽에 걸쳐 코리아어의 문법·어휘·표기법에 관한 해설이 전개되고, 공화국의 표기, 발음 규칙, 정서법에 관한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저자가 독자에게 꼭 읽어 보기를 권하는 '조선어란 이러한 언어'에서는 코리아어가 한국이나 공화국 등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일 한국·조선인, 길림성이나 중국의 조선족, 구소련의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람들, 구소련 지역의 중앙아시아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서법은 한국의 규범을 따르고 있지만, 공화국의 표기나 발음에는 '★'표시를 달아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39]. 예를 들어 '留学生★류학생'[40]이 그 사례로 제시된다. 정서법과 관련해서는 아래 예문처럼 '＊' 표시를 사용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책이 기존 학습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저자가 한국 출신임에도 공화국의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본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34 한국어로 번역하면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된다.

35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쿄도립대학'이 된다.

36 교육학·언어교육을 전공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37 한국어로 번역하면 '간다외국어대학'이 된다.

38 権在淑(1995)의 저자 약력을 참조.

39 権在淑(1995: 5)를 참조.

40 権在淑(1995: 43)에서 인용.

예) 선생님⌒것입니까? -- 네, 제⌒것입니다.

* 「⌒」の記号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では付けて書くことを示す。(「⌒」 기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붙여 쓰는 것을 나타낸다.) (権在淑 1995: 43)

2.4. 분석 총괄

본 장에서는 전후 일본에서 출판된 코리아어 학습서를 한일국교정상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그리고 국교정상화 이후라 하더라도 재일조선인, 조선학교 관계자, 코리아어 연구자에 의해 집필된 학습서에는 한국 및 공화국 양측의 언어 체계와 문화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학습서에는 두음법칙, 띄어쓰기, 정서법 등 양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술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법이나 어휘 선택의 차이에 대해서도 세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서울, 금강산, 평양, 백두산 등 남북에 걸친 지명이나 고유명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두는 언어관이 학습서에 반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국내외에서 입수할 수 있는 어학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는 사회적 조건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서의 코리아어 학습이 재일조선인 사회와 조선학교, 그리고 그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간행된 초기 코리아어 학습서는 국가 단위로 분단된 언어관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뿌리를 둔 포괄적인 언어관에 기반하여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일본 내 코리아어 학습의 위상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국교 정상화 이전에는 학습의 환경이 주로 학술 연구 기관이나 재일사회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에는 점차 시민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68년의 김희로 사건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일본 사회에 가

시화하였으며, 일본인들 사이에서 코리아어 학습을 '상호 이해를 위한 학습'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 단체에 의한 코리아어 강좌가 각지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1976년에는 「NHKに朝鮮語講座の開設を要望する会(NHK에 조선어 강좌 개설을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고,[41] 그 결과 1984년 NHK 라디오 「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ーハングル講座(안녕하십니까 ~ 한글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 강좌는 그동안 대학 교육이나 전문 연구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코리아어 학습을 일반 시청자에게 개방함으로써 학습자 층을 크게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88년의 서울 올림픽, 1998년의 한일 공동선언, 1999년 한글능력검정시험의 창설, 2002년 대학입시센터시험 한국어 과목 도입, 2004년 전후의 1차 한류 붐 등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여러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습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65년 이후의 흐름은, 코리아어 학습이 재일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천에서 일본 사회 전반에 개방된 시민적 학습으로 그 성격이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학습서의 내용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한국의 정서법과 서울 표준어를 전제로 한 학습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공화국의 정서법·어휘·문화적 배경에 대한 언급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1990년대 이후 간행된 학습서에서는 공화국식 표기나 어휘 제시가 최소한에 그치거나, 남북 간의 언어적 차이에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초기 학습서들이 남북 양측의 표기를 병기하고 문화·문학적 요소를 비교적 폭넓게 다루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편집 방침의 차이를 넘어, 일본 사회에서 코리아어 학습서가 지니는 위상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재일사회

41 3만 8748명의 서명이 모였다. 矢作勝美(1984: 77) 참조.

를 기반으로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언어관에 입각해 있던 초기 학습서에서, 한일 간 교류의 심화를 배경으로 서울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표준화 지향의 교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있어서 코리아어 학습서는 전후 사회 상황, 학습자 층, 그리고 학습 목적의 변화에 따라 언어관과 문화적 서술, 교재 구성의 측면에서 단계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언어 교재라는 비교적 작은 매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회적·정치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음을 학습서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맺음말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일본에서 간행된 코리아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그 편찬 의도와 학습 내용이 사회·정치·문화적 맥락과 어떻게 맞물려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전후 직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한국과 공화국 양측을 시야에 둔 다원적 언어관을 보여주는 학습서가 일정 부분 존재했던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서울 표준어와 한국의 정서법을 전제로 한 학습서가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 수요의 증가와 학습서 시장의 확대라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코리아어 학습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코리아어 학습서의 주류화가 일본 내 코리아어 교육의 지평을 단일화시키고 한반도에 뿌리내린 언어라는 인식이 희박해지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언어를 '코리아어'라고 가리키는 것은,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형성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일본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후 일본의 코리아어 학습을 지탱해 온 중요한 기반이었던 재일조선인 사

회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상호 이해를 위한 배움'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거리가 생긴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특정한 언어관이 주류화된 배경에는 편찬자의 개인적 의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의 변화, 학습서 시장의 구조,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불균형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의 본질이 타자 이해와 문화적 촉진에 있다면 서울 표준어만을 다루고 사실상의 '코리아어'로 제시하며 그 습득을 유일한 목표의 삼는 태도는 학습자의 시야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를 희석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본 코리아어 교육에서는 언어·문화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일조선인 사회와 조선 문화권 전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서술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역사적 변천의 고찰은, 일본의 코리아어 교육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학습서 개발 및 교육 실천의 새로운 과제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리아어란 무엇인가', '그 언어가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시선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물음이 요구되는 과도기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조규헌(2021) 「3,4차 일본 한류 현상의 특수성 고찰」, 『일본문화연구』 77, 동아시아일본학회, 299-314.

일본어 문헌

植田晃次(2021) 「「旧朝鮮語学」と「戦後」の朝鮮語教育の断絶と連続性小攷:残された学習書を手掛かりとして(1945-1965)」, 『判的社会言語学の現代(言語文化共同

研究プロジェクト2022)』, 大阪大学大学院言語文化研究科, 47-58.
大村益夫(1977)「大学における朝鮮語教育の現状」,『季刊三千里』38, 三千里社, 84-99.
梶井陟(1984) 「日本人の朝鮮語学習の歴史－明治から日本の敗戦まで－」, 『季刊三千里』38, 三千里社, 68-76.
梶井陟(2014)『都立朝鮮人学校の日本人教師』, 岩波書店.
熊谷明泰(2000)「朝鮮語教育と学習書の現状について－母音解説で見られる問題点を中心として－」,『研究センター報』26, 関西大学一般教育等研究センター, 96-124.
国際文化フォーラム(2005) 「日本の学校における韓国朝鮮語教育:大学等と高等学校の現状と課題」, 東京:財団法人国際文化フォーラム.
宋枝学(1960)『朝鮮教育史』, くろしお出版.
高島淑郎(1984)「朝鮮語を学ぶために」,『季刊三千里』38, 三千里社, 100-105.
野間秀樹･中島仁(2007)「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歴史」,『韓国語教育論講座』1, 69-93.
平田絵未(2024) 「日本で出版された朝鮮語学習書に見られる長音教育－その変遷と意義をめぐって－」,『韓国語教育研究』14, 65-88
矢作勝美(1984)「「NHKに朝鮮語講座を」運動の八年」,『季刊三千里』38, 三千里社, 77-83.
油谷幸利(2009)「韓国語研究と私」,『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会 油谷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刊行委員会』, 明石書店.

Web사이트

「大学における教育内容等の改革状況について」(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koutou/daigaku/04052801/1417336_00010.htm, 2026년 2월 1일에 이용)

일본에서 출판된 학습서(발행 연도순)

宋枝学(1957)『基礎朝鮮語』, 大学書林.
石原六三･青山秀夫(1962)『朝鮮語の学習』, 養徳社.
石原六三･青山秀夫(1963)『朝鮮語四週間』 河野六郎 감수, 大学書林.
梶井陟(1971)『わかる朝鮮語〈基礎･実力編〉』, 三省堂.
朴成媛(1972)『標準韓国語－基礎から会話まで－』 李崇寧 감수, 高麗書林.
石原六三･安田吉実(1974)『韓国語会話の友ふりがな付き･話し方の基礎から実話会話まで』, 養徳社.
金貞淑･朴聖雨(1977)『韓国語教本』 李崇寧 감수, 筑波大学韓国語学研究会.
塚本勲･北嶋静江(1978)『速修朝鮮語会話』, 金星堂.
梁昊淵(1979)『韓国語講座(1)初級用』 河野六郎 감수, 高麗書店.
青山秀夫･松尾勇(1981)『実用朝鮮語会話』, 大学書林.

菅野裕臣(1981)『朝鮮語の入門』, 白水社.
梶井陟(1982)『わかる朝鮮語[基礎編]第2版』, 三省堂.
塚本勲(1983)『朝鮮語入門』, 岩波書店.
金容権(1984)『別冊宝島42 10日間のハングル』, 宝島社文庫.
梅田博之(1985)『NHKハングル入門』, 日本放送出版協会.
柳尚煕・呉英元(1985)『やさしいコリア語入門』, 評論社.
姜求栄(1985)『入門ハングル文法と会話』, 南雲堂.
早川嘉春(1986)『エクスプレス朝鮮語』, 白水社.
金容権(1986)『オール・イラスト ハングル初歩の初歩』, 南雲堂.
渡辺吉鎔(1986)『はじめてのハングルレッスン』, 講談社.
朝鮮語学研究会 편저(1987)『朝鮮語を学ぼう』 管野裕臣 감수, 三修社.
青山秀夫(1987)『基礎朝鮮語』, 大学書林.
金裕鴻(1987)『初めて学ぶ韓国語 I 文字と発音, 基本語句編』, 語研.
大林直樹(1988)『朝鮮語 会話練習帳』, 大学書林.
中村完(1988)『ハングル初歩の初歩』, 大修館書店.
花本金吾・F.J.Edamatsu・早川嘉春・丁元泰(1989)『旺文社:マルチリンガルシリーズ 日英対照の韓国語会話』, 旺文社.
梅田博之・金東俊(1989)『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1入門・会話』, 大修館書店.
塚本勲・奥田一広(1989)『新しい朝鮮語』, 白帝社.
崔寛益(1990)『朝鮮語読本しっかり学ぶ基本から会話まで』, 彩流社.
韓龍茂(1991)『ふりがなハングル会話 日本語・ハングル索引付』, 芸林書房.
李応寿(1991)『やさしい韓国語講座』, 語研.
文京洙(1992)『ハングル教本-基礎から読解まで-』, 新幹社.
梅田博之(1993)『朝鮮語入門 朝鮮語研修テキスト』,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韓先熙・金幸子(1993)『はじめての韓国語カ・ナ・ダ・ラハングル』, 明石書店.
洪潤基(1994)『標準韓国語教本』, ハンリム出版社.
姜奉植(1995)『韓国語会話入門 ハングルを高速マスター!!』 徐廷範 감수, 東方書店.
権在淑(1995)『表現が広がるこれからの朝鮮語 会話+文法』, 三修社.
塚本秀樹・岸田文隆・藤井幸之助・植田晃(1996)『GLOBAL KOREAN グローバル朝鮮語 朝鮮を学び朝鮮に学ぶ』, くろしお出版.
油谷幸利(1996)『朝鮮語入門』, ひつじ書房.
金裕鴻(1996)『金さんのはじめての韓国語』, 明日香出版.
塩田今日子(1998)『こうすれば話せる CDハングル』, 朝日出版社.
塚本勲・長谷川由起子(1998)『入門者のための朝鮮語講座』, 白帝社.

今井久美雄(1999)『韓国語の散歩道 ほんとうに初めての人の韓国語』, アルク.
マルチリンガル編集部 편(1999)『韓国語イキイキ表現初級』, アルク.
小倉紀蔵(1999)『最もシンプルな韓国語マニュアル 99パターンでこんなに話せる！』, アルク.
林昌奎·李鍾姫(2000),『旅行フレーズで学ぶ韓国語超入門』, アルク.
高島淑郎(2002)『書いて覚える初級朝鮮語 改訂版』, 白水社.
野間秀樹·村田寛·金珍娥(2004)『ぷち韓国語』, 朝日出版社.
曽我祐典·池貞姫(2006)『使える朝鮮語 改訂版 聞く·話す·読む·書く』, 白水社.
高秀賢(2006)『ミニマム韓国語』, 国書刊行会.
布袋敏博·沈元燮·李美江(2008)『学ぼう韓国·朝鮮語 教育現場の実践から生まれたスタンダードテキスト(入門·初級編)』, アルク.
梁禮先·金範洙·金貞愛·都奇延(2008)『わかりやすい韓国語 初級·中級攻略』 李修京 편저, 白帝社.

The Uniquenes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Path Toward Its Final Resolution

CHUN Jihoon*
Ruhr-Universität Bochum

1. Introduction

Putting the Korean ques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s can illuminate how it should be better understood and tackled in a more rational way. Neither Vietnam nor Germany can be a model for a unified Korea. There are a few other nations in the world that are still divided, such as Cyprus and Northern Cyprus, Yem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aiwan, but none of the cases, except the two Koreas, has involved a war with the U.S. empire as the direct cause of national division. For the divided Korea, the war *perpetrated by* the U.S. and its 'allies' including the south Korean regime *well before* 1950 has been the overwhelming factor creating and maintaining the national divide.

This study is based on a revisionist perspective on national division and a federal formula for national reunification as a final resolution. First re-examining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the tragic developments that led to the two Koreas in 1948 and to the Chosŏn/Korean War(朝鮮戰爭(祖國解放戰爭)/한국전쟁), it briefly discusses presumable preconditions for defeating the status quo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a multi-phase process for federal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1]

* Ruhr-Universität Bochum, Germany
E-mail: jihoon.chun@rub.de

2. The Uniquenes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lthough many other cases of divided nations in the world have had its root causes originated from the colonial policies of the Western states during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the Korean case is unique in that the three-year-long intense war with the American empire (in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been the direct and fundamental cause of the national division and that the war is not finished, prolonging the harrowing effect of division.

2.1. Clear Culpability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Division and the Chosŏn/Korean War

The Korean people's fervent political orientation for a Korea by Koreans themselves upon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ism stood squarely in the way of U.S. global hegemony. Thus indigenous political organizations seeking self-rule and a people's economy were vehemently crushed by the U.S. occupation authorities and a Korean minority who had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would now become the 'running dogs' for the U.S. imperialists. This set in motion conditions for violent conflicts.

Not long after the first session of the Soviet-U.S. Joint Commission ended with no agreement over which Korean groups should be consulted for form-

1 In this manuscript, the two terms 'unification' and 'reunification' will both be used as if interchangeably. The term 'unification' appears to be more conventional in political debate, but it does not necessarily seem to be a better one for the Korean case. More importantly, "south" and "north"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capitalized (except for quotations) to indicate that there is one Korea and neither one constitutes a separate nation. The order, whether either one is placed before the other when both are referred to at the same time, bears no relation to the argument.

ing an interim Korean government,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forsake both the agreement made at 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of December 1945 and its own scheme for trusteeship. The U.S. State Department reasoned that if the United Nations (U.N.) sanctioned the creation of a separate regime in the south, "the government would not only gain credibility but also an international commitment to its defense." The U.S. first "had to establish the futility of further negotiations with the Soviets" and therefore "agreed to another round of Joint Commission meetings" (Hart-Landsberg 1998: 84). The influence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before the separate election in the south "was really a product of United States policy" "for the United Nations body fitted perfectly into American plans at that time" (Gordenker 1958: 450).

The United Nations Interim Committee ordered UNTCOK to "proceed with the observance of elections in all Korea, and if that is impossible, in as much of Korea as is accessible to it" (Choy 1984: 52). As southern political leaders, including some conservative elements, wanted to create, together with their counterparts in the north, a united opposition to the elections, they held a 'Pan-Chosŏn/Korean Coalition Conference among representatives of various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全朝鮮諸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 in April 1948 in Pyongyang (Figure 1).[2] Although General Hodge slandered the conference as a Communist plot, a majority of the public and intellectuals in the south sympathized with the coalition.

2 Following the Coalition Conference that ended on April 23, the council of leaders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issued a joint communiqué in Pyongyang on April 30, 1948, calling for the following four actions to be taken: 1) simultaneous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2) guarantee that there shall not be any civil war after the foreign troops' withdrawal; 3)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interim government representing the entire Chosŏn people through which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 via general elections; 4) opposition to and non-recognition of a separate election and a separate government.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한 김구 선생(위 왼쪽)과 김일성 위원장(1948. 4.) 〈조선의 오늘〉, 〈통일뉴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Figure 1: Pan-Chosŏn/Korean Coalition Conference (南北連席會議), April 19-23, 1948, Pyongyang (Source: 통일시대, "[북 현대사] 남북연석회의 (5)"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 2022.4.14)

The separate 'election' was held in the south on May 10, 1948, despite broad-based opposition from the masses, with most political parties of the south boycotting it and voters being "dragooned by the police and forced to attend the polls under threat of losing their land and ration cards" (Strong 1949: 3). As growing numbers turned to guerrilla struggle to oppose the Syngman Rhee regime and reunite the country, a civil war was already under way *within the south*. The U.S. occupation authorities equipped and organized counterinsurgency forces, providing them with intelligence information, planning their actions, and occasionally commanding them directly (Cumings 1990: 283), with the southern guerrilla movement being defeated by May 1950 as a result.[3]

3 The Cheju (濟州) 4.3 Uprising, and the revolts in Lyŏ-su (麗水) and Sun-ch'ŏn (順天), just two prominent anti-imperialist, anti-fascist struggles against a separate regime in the south, were, like other large-scale uprisings before and after, brutally put down following the directions or under the auspices of the U.S. occupation authorities, which had, as they still do, operational command over south Korean armed forces (south Chosŏn Constabulary of

Without this context, the origins and significance of the Chosŏn/Korean War cannot be duly evaluated. Most people in the south did oppose the demolition of the People's Committees (人民委員會), the indigenous widespread local political organizations that had mostly absorbed the Committee for the Preparation of Chosŏn State-building[4](/Independence) (朝鮮建國準備委員會) and were subsequently destroyed, along with the Chosŏn People's Republic (朝鮮人民共和國), by the U.S. occupation forces and the traitorous Korean minority. The resulting struggle and its wide-ranging repercussions could hardly be contained in the south only, "for its outcome affected all Koreans" (Hart-Landsberg 1998: 89).

On top of overriding the objection of both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parts of Korea[5], and brutally putting down indigenous armed opposition against the U.S. occupation's policy of installing a reactionary 'government' in the south, the U.S. government did plan a war in a more active way. One major observation to be made is that the attack, whether it began by the north's advance on June 25 without provocation (as U.S. and south Korean accounts portray) or it was initiated by the U.S. teamed up with the south and then the north responded as self-defense before going over to the offensive, "solved many political problems on the anti-Communist side" whereas it "created new problems on the Communist side." Within two days, it gave

---

Police Reserve (南朝鮮國防警備隊) until 1948).

4 Hereinafter, the term 'state' is used in the definition proposed by Galtung in his 1972 paper titled "Divided Nations as a Process" – "a territory, usually contiguous, with a government capable of exercising the following three functions: a monopoly of ultimate internal and external power (the military function), a monopoly on foreign policy (the foreign policy function), and a monopoly on financial policy (the financial function)" (Galtung 1972: 345).

5 As Hart-Landsberg noted, the 'leftward-leaning' Chosŏn People's Republic (朝鮮人民共和國 *Chosŏn In-min Kong-hwa-kuk*) was "neither controllable nor sympathetic to U.S. interests" and thus John Reed Hodge, commanding general of U.S. armed forces in south Korea, viewed the Korean people as enemies and Japanese forces as friends (Hart-Landsberg 1998: 71).

Chiang Kai-shek (蔣介石) and his Nationalist forces American military protection against a possible operation from the mainland; put off the abandonment of American bases in Japan; and Syngman Rhee (李承晩), much like Chiang Kai-shek, was given the support of the U.S. and the U.N. precisely when his hold on power seemed to have ended. Conversely, with the military conflict, no matter whether it was initiated by the south or the north[6], the Chinese Reds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ld never proceed to occupy Formosa (present-day Taiwan) while the hope that Syngman Rhee regime would collapse under the impact of the election on May 30, 1950,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an easy march southward from the 38th parallel, all vanished (Stone 1952: 43).

These structural factors are linked to an extraordinary speculation that made huge fortunes for a few during the same month when the war 'began'. A *New York Herald Tribune* item (August 16, 1951) noted that certain Chinese, some living in the U.S. and some abroad, established a corner on the American soybean market in June 1950 that netted a profit of $30 million. The operation began just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Considering that Syngman Rhee and the Chiang Kai-shek government on Formosa had close

6 According to north Korean accounts, while all-out fighting did begin in the early hours of June 25, 1950, the fighting actually began two days earlier. The south Korean forces began massive bombardments against the north in the *Kaesŏng* (開城) area at the night of June 23, which went on for six hours followed by a period of silence and then continued with somewhat reduced intensity until approximately 4 AM, June 25 (Liem 1993: 9, 40). Also, the Soviets initially accused south Korean forces of attacking the north. Later, on July 4, 1950, the the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rei Gromyko claimed that the conflict was a "civil war among the Koreans" and "the Soviet Union could take no action" (LaFeber 2008: 112). Yet, Carroll Quigley simply writes, "On June 25, 1950, after a two-hour artillery bombardment, 60,000 North Koreans, led by a hundred Soviet tanks, crossed the 38th parallel" (Quigley 1966: 972). This is a highly irresponsible statement that can lead any uninformed reader to assume that the north started the war and should be blamed for the consequences of the war. 'Who fired the first shot?', however, is a wrong question that disregards the structural causes and motivations, and this article will not go into it.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that a war in Korea could disrupt the world supply of soybeans, such facts intimate that "Nationalist Chinese in the United States had got advance notice of a Rhee plan to start war in Korea and were turning their knowledge to financial advantage." Some might argue that this would also be compatible with the theory that Chiang's intelligence had advance knowledge of north Korean plan to attack the south. This, however, cannot explain "why Acheson was so obviously reluctant to discuss the soybean incident at the MacArthur inquiry" (Stone 1952: xi).

The corner was set up at least four months earlier, and one of the largest speculators turned out to be T. L. Soong (Tse-Liang Soong 宋子良), Chiang Kai-shek's brother-in-law's younger brother. If the war was a surprise attack by the north, how could those close to Chiang begin to speculate in soybeans in the weeks and months before the conflict broke out? As I. F. Stone aptly observed, "as in any other unsolved crime, it is useful to begin by determining who benefited" (Stone 1952: 352). Chiang Kai-shek's government was now given a virtual American protectorate. With the south Korean forces playing their role as mercenaries to bring about "'positive action' by the United States to preserve peace in the Far East" (Stone 1952: 27) that John Foster Dulles spoke about on June 22, 1950, Syngman Rhee's political life was saved. That 'positive action' transpired in the form of Truman's commitment of U.S. troops to south Korea on June 26 *before* the U.N. Security Council called for military action, and without prior congressional approval. In so doing, Truman's unilateral use of armed force in Korea violated both the U.S. Constitution and the U.S. Participation Act of 1945 (Fisher 1995: 33-37).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ruman's stratagem to get the U.N. involved in Korea to make the U.S. unilateral move look like a multinationally approved mission ended up exposing the U.S. impatience to feign legitimacy for hidden agendas when it was illegitimate. Seen in this perspective,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e war—and thus the culprit—should be those U.S. imperialists with significant interests in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against which Dwight D. Eisenhower cautioned the American public in his farewell address on January 17, 1961.[7]



Figure 2: "Survivors wander among the debris in the aftermath of an air raid by U.S. planes over Pyongyang, circa 1950" (photo: Keystone/Getty Images) (Source: Kuzmarov, Jeremy (2016) "The Korean War: Barbarism Unleashe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History and Resource Guide website. (https://peacehistory-usfp.org/korean-war, updated July 2025))

The U.S. government's spending on its military build-up exponentially increased precisely during the three years between 1950 and 1953: "North American military spending – dominated overwhelmingly by the USA – shows clear peaks with the Korea War, the Vietnam war, the Reagan build-up and

7 Speaking of the Chosŏn/Korean War, Kathryn Weathersby writes that the "North Korean attack so alarmed Washington" that Truman "abruptly reversed the meticulously considered policy" "that had placed Korea outside the American defense perimeter, and instead committed U.S. armed forces to the defense of" the south (Weathersby 1993: 5). This is a serious misstatement, if not willful distortion of the facts surrounding the beginning of the war.

the post-9/11 wars and rearmament" where during the three-year span, the amount was tripled to become about 450 US billion dollars (in 2014 prices) in around the year 1952 compared to about 150 billion dollars in 1950 (SIPRI 2016). The U.N. side, led by the U.S. forces, dragged on the truce talks while the U.S. Air Force bombers were dropping incendiary and other heavy shells indiscriminately o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o much so that the U.S. bombers dropped more than 428,700 bombs on the city of Pyongyang during the three years 1950-1953 when the city's population was about 400,000 (Chajuminbo 2000: 164). Even Matthew Ridgway, the Supreme Allied Commander in the Far East in 1951, admitted that "there is nothing in the present situation or in our code that requires us to bomb a small Asian nation back to the 'stone age.'… There must be some moral limit to the means we use to achieve victory" (Kuzmarov 2016: 154). If using up all the inventories of weapons and ammunition in the interests of those who would immensely gain from the war and coping with the economic slump in the aftermath of the Second World War was a primary motivation behind the planning and executing the war in Korea, and if the extermination of Korean people as a whole was another crucial motivation[8], the rapid spike in military spending and the antihuman carpet bombing (Figures 2, 3, 4) can be explained without much difficulty.

8 Curtis E. LeMay, head of the U.S. Strategic Air Command during the war, in a most impudent description, stated in his memoir as follows: "… We burned down just about every city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oth, including Pusan. That one was an accident. But we nearly burned all of it down just the same. And during the three years of warfare we killed off over a million civilian Koreans and drove several million more from their homes, with the inevitable additional tragedies bound to ensue. The military casualties on both sides totaled nearly three and one-half million…. To expunge a few people to stop a war right at the start is unacceptable. Or a few hundred people, or a few thousand. Or—go all out on it—a few hundred thousand. But over a long period of time, wearily killing them off and killing them off, killing millions under the most horrible circumstances– That is acceptable. Mankind keeps on doing it" (LeMay 1965: 382).



Figure 3: "Thatched huts go up in flames after B-26 bombers unload napalm bombs on a village near Hanchon, North Korea, on May 10, 1951" (AP photo) (Source: Kuzmarov, Jeremy (2016) "The Korean War: Barbarism Unleashe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History and Resource Guide website. (https://peacehistory-usfp.org/korean-war, updated July 2025))



Figure 4: Village of Agok in northern region of North Korea hit with missiles, August 1950 (Source: Kuzmarov, Jeremy (2016) "The Korean War: Barbarism Unleashe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History and Resource Guide website. (https://peacehistory-usfp.org/korean-war, updated July 2025))

2.2. The Structure of the DPRK-US Confrontation

Four-pronged U.S. aggress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particular and the pan-Korean nation in general since 1945 until today can be said as follows: 1) the imposition of national division and the perpetration of the Chosŏn/Korean War that resulted in unspeakable human loss and concurrent mental and material damages to the whole Korean nation, especially to the northern Korea; 2) the various kind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DPRK; 3) on-going military threat with an eye to potential invasion mainly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s by the U.S. and its followers against the DPRK; 4) persistent maneuvers to block bottom-up movements to work out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amicable interac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t the level of people-to-people exchange and cooperation.

Let us first look at the first and the fourth points. The assassination of Lyuh Woon Hyung (呂運亨, 1886-1947) in July 1947 symbolized the extremely divisive and fratricidal political landscape in the south under U.S. occupation and practically sealed the division of Korea even before the war. The slaying of Kim Koo (金九) in June 1949 was only a symptom of the irreversible catastrophe. Lyuh had long espoused the line of nationalist united front for the unity of the whole nation, and Kim, since 1948, did so too, and in this respect they could agree with Kim Il Sung (金日成, 1912-1994) and the North Chosŏn Workers' Party's (北朝鮮勞動黨) unified front of all parties and classes that would exclude national traitors only (See Armstrong 2003: 60-66). Without the U.S. occupation, they would not have met such a tragic end.[9] The Soviet forces withdrew from the north by the end of 1948.

9 Lyuh Yŏn-ku (Yŏ Yŏn-ku 呂鳶九), second daughter of Lyuh Woon Hyung, plainly writes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killed her father ("미군정은 … 드디어 아버지를 암살하였다") (Lyuh 2001: 242).

If the Americans had followed suit genuinely, there would not have been the national division that persists until today.

During the five-year period from the landing of U.S. troops in early September 1945 to the all-out fighting in June 1950, the U.S. directed and supported the Republic of Korea (ROK), labeled as "the traitorous puppet regime" in Kim Il Sung's radio address on June 26, 1950 (Kim 1981: 11), in "systematic murder, imprisonment, torture, surveillance, harassment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especially those individuals or groups considered nationalists, leftists, peasants seeking land reform, union organizers and/or those sympathetic to the north" (Final Judgment, 2001). This indictment makes clear that the U.S. government and its occupation authorities in the south were overwhelmingly guilty of the unprecedented acts of government violence, national division of Korea, and the Fatherland Liberation War (or Chosŏn/Korean War), one of the most horrendous wars in human history, together with a myriad of war crimes including numerous cases of genocide.

The DPRK Foreign Ministry's Institute for American Studies estimated in its white paper released in June 2024 that human casualties due to the massacres done by the U.S. include more than 1.24 million deaths, over 900 thousands of abductees and 390 thousands of those who were missing, which sum up to more than five million people and 26 trillion US dollars. The property damage during the war would top 16 trillion dollars. The economic damages due to the U.S. sanctions and blockade from 1945 to 2017 would amount to more than 29 trillion dollars. Nothing could compensate for the psychological damage caused to the people by the U.S. nuclear threats (White Paper 2024).

The U.S. economic sanctions are not just inflicting economic damages on the DPRK but should be seen as a different type of war as "an important

alternative to world military conflicts," as the former U.S. Treasury Secretary Mnuchin admitted (CNBC 2019).[10] Although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U.S. government have heaped sanctions on the DPRK, it could not stop the latter's ever-developing nuclear capabilities and missile program. In March 2024, Russia vetoed a U.N. resolution renewing the mandate of U.N. sanctions monitoring body against the DPRK, and it is reported that north Korean people's livelihood in general has steadily improved in recent years despite the impacts of the sanctions on the economy. It is without question, however, that the sanctions regime has considerably inhibited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realizing its full growth potential.



Figure 5:
U.S.-ROK-Japan Joint Air Drill, Jan. 15, 2025 (Source: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40)



Figure 6:
DPRK's Test-firing of a New Hypersonic Missile, Jan. 6, 2025 (Source: https://jajusibo.com/66774)

10 Mnuchin even said that he believes the sanctions have worked and "whether it's North Korea, whether it's Iran or other places in the world, we take the responsibility very seriously" (CNBC 2019).

Constant U.S. military threats, with large-scale yearly joint military drills and war games aiming at invading the north again, are the most direct expression of aggressive designs against the DPRK that have been, along with the permanent economic sanctions and blockade, a severe drag on the norm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Redeploying the strategic bomber B-1B, the United States staged again a trilateral aerial bombing exercise with south Korea and Japan in mid-January 2025, and then the U.S. held a bilateral air drill with the ROK from January 21 to 24, 2025, aimed at 'early eradication' of the long-range artillery fire systems of the DPRK under the pretext of increasing cooperation capability in air operations.[11] In response, the north has test-fired new hypersonic missiles and sea-to-surface strategic guided cruise missiles. So long as U.S. aggressive designs remain unchanged, "the DPRK should counter the United States with the toughest counteraction from A to Z as long as it refuses the sovereignty, security and interests of the DPRK and this is the best option for dealing with the United States" (KCNA 2025).

3. The Path Toward the Final Resolution

The structure and forces that maintain the division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Korea are subject to constant evolution, and this has probably been most pronounced in the DPRK's capabilities to deter U.S. imperial aggression. This article, however, does not deal with any U.S. perspectives on or international aspects of Korean reunification, and confines its scope to the inter-Korean affairs, since reunification has to be primarily the task of the Koreans themselves.

11 Most recently from March 9 to 19, 2026, the U.S. and south Korea staged another joint military exercise, Freedom Shield 26, a clearly provocative and aggressive war drill orchestrated by those who are plotting and planning a confrontation with the DPRK.

3.1. Undesirability and Impossibility of Reunification by Absorption

Article 3 of the ROK constitution proclaims tha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and Article 4 thereof stipula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eek unification and shall formulate and carry out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12] Both are predicated o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DPRK a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ccupying illegitimately the northern half of the ROK's territory that must be absorbed into the south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s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which is the translation of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 The doctrine of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being anti-liberal and anti-democratic, stemmed from 'militant democracy' whose inherent nature is anti-communist and based on repression and exclusion (Kuk 2015: 254-255). Such a self-righteous stipulation is also revealed in the 'National Security Law' (*Kukka poanpŏp*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This 'law', since its inception in 1948, has consistently stifled, under the excuse of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y serious unification movements or grassroots mobilization seeking social reform in the south.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rejecting the ROK's strategy of reunification by absorption. First, as Hart-Landsberg points out, "[w]hile the south Korean elite may be satisfied with existing arrangements,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are not" (Hart-Landsberg 1998: 233). The ROK strategy of absorption is exceedingly self-contradictory in that it has already hurt the great majority of people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economically, men-

12 This constitution was the ninth amendment done in 1987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198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No.10, Oct. 29, 1987, Whole Amendmen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lang=ENG&hseq=1.

tally, emotionally, and physically. It has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isolation and economic suffering of north Korean residents. Above all, the *structural weaknesses* and *total lack of legitimacy* of the ROK regime becomes evident when considering the numerous cases of massacres since 1948 until the end of the war, the massacre in Kwangju (光州) in 1980, the deaths in the Sewol ferry incident ("세월호 사건") in 2014 as premeditated murder, the suicide rates that are among the world's highest, the frantic imposition of COVID-19 *killer* 'vaccines', the ROK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the north like those in October 2024, and its continuing dependence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well as on the United States for its security and survival.[13] The ROK version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is a flat denial of this hard reality, and an antithesis of the sentiments and aspirations for system change.

Second,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into the south's (capitalist) system is sheer impossible. The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and collective socio-political orientation of "our-style socialism" ("우리式 社會主義") are such that the north just will not let that happen. All such attempts have failed so far, and the U.S., even if it teams up with all its followers, cannot impose its will over the DPRK, which is now firmly allied with Russia. Militarily, the south is no match for the north, as the U.S. is no match for Russia. As Kim Yŏ Jŏng[14], vice department directo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osŏn Workers' Party, made clear in her statement in October 2024, the extent to

13 The present author would not claim anything about what the society of the north is like. One thing seems clear, however: the south could never claim that it is any superior than the north in making sure that everyone is satisfied with the level of material/somatic wellbeing, social/emotional/spiritual wellbeing (including identity with traditional culture, with products of one's own works, with people one feels attached to, with oneself and the transcendental), and with the degree of the control by the people over socio-economic affairs.

14 In late February 2026, she became a department directo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osŏn Workers' Party.

which a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a nuclear power is dangerous would be a terrible thing that no sane politico-military leader of any country would even imagine experiencing, except for the recent madness shown by south Korea and Ukraine. "Such deed can be done only by lunatics in the Seoul and Kiev regimes" (*Rodong Sinmun* 2024).

3.2. Realignment of south Korea not to be Disrupted in its Contemporary Identity by Reunification

A fundamental obstacle to peace for both Koreas is that *south* Korea has become an entity such that unification is an existential threat to its own identity (Grinker 1998: 8-9). Thus, gradual but essential realignment in nearly all aspects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dentity and practices are called for in order that the prospect of reunification would not critically disrupt contemporary south Korean way of life. This readjustment would, in turn, help overcome the "myth of homogeneity," which has hindered inter-Korean relations and prevented the south from recognizing that a unified Korea has to be a somewhat diverse Korea (Grinker 1998: 9).[15]

The foremost obstacle that has to be removed for such a realignment to get going i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ll the related 'legal' frameworks and official narratives that demonize the north and prohibit any voluntary exploration by the south of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people. The 'National Security Law' regime on which the ROK depends in its internal confrontation against the south Korean people is incompatible with any viable bottom-up initiative to search for possibilities and modes of reconciliation and

15 The north, through the unification formulas proclaimed by the leadership of Kim Il Sung, already made it clear that a unified state should be the one in which different social systems are all recognized and allowed to co-exist (for an unspecified period of time) under a higher-level guarantee of such co-existence.

eventual unification.

Opening up the avenues to explore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state and to pursue discourses on mutual reconciliation will steer the south Korean society in the direction to accommodate different visions in reorganizing the *south* Korean society, preparing for the path toward the resolution of north-south conflict, as the collective unconscious takes shape. This does *not* contradic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 statement that the DPRK "cannot go along the road of national restoration and reunification together with the ROK clan" (Kim 2024). Here the 'clan' ("대한민국족속들"[16]) refer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king the 'collapse of power' in the north and 'unification by absorption' all in collusion with the U.S. imperialist forces while clinging to the 'enemy' narrative, and any groups that side with the reactionary cliqu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istinguishes the ROK, the 'clan', from *the people* of the south. The DPRK's stern evaluation is that any alternative is impossible *as long as* those reactionary clan is in power in the south. The strategic determination to occupy, pacify, and incorporate the south into the north's jurisdiction proclaimed in Kim Jong Un's (金正恩) address on January 15, 2024, is valid on the condition that the U.S. empire in conjunction with the *puppet* 'government' in the south provokes and starts another war.

Much, if not all, of south Korean political and social identity has been constructed by and around the puppet clan for over eight decades. If and when the south Korean *people* manage to remove them from power, there should be ample potential available to tap into to properly realign contemporary identity of south Korean society. The primary tasks would include

16 Kim Jong Un, Policy speech "On the Immediate Tasks for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Our Republic and the Promotion of the Wellbeing of Our People" at the 10th Session of the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PRK on January 15, 20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establishing a people-centered governing body, independent from all foreign powers (especially from the U.S. empire), and working together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for an implementable blueprint for the two different socio-economic systems to co-exist within an overarching association throughout a period of transition.

3.3. Federal Formula for Reunification

Overcoming the national division within the overarching association requires equity or symmetry, leading to not just mutual but also about equal benefit lest conflicts arise and accumulate, between the two sides, and bi-directional accommodation of heterogeneity. The transition from two states to one state is to be viewed as a process, not as a quantum jump to one state. We should be able to see the range between the two poles as something of a continuous spectrum, if unification as a process "is to be at the same time realistic, flexible, and pluralistic" (Galtung 1972: 350). Here the *overarching association* signifies the whole construct with evolving components through the process in which peaceful co-existence is steered toward higher degrees of association on a basis of equity.

Article 2 of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 north and the south, recognizing that the low-level federation proposed by the north and the commonwealth system proposed by the south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have similarity, agreed to work together for the reunification in this direction in the future"[17], may reflect a share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peaceful co-existence at the time, for the north in need of stabilization and for the south where preventing war was a priority concern. But this stip-

17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https://korea-dpr.com/national-reunification/, June 15, Juche 89 (2000))

ulation needs to be construed and acted on more faithfully in accordance with *great national unity*. Indeed, the October 4 Declaration made by Kim Jong Il (金正日) and Ro Mu Hyon (盧武鉉) in 2007 reconfirms in Article 2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agreed to definitely convert north-south relations into those of mutual respect and confidence, *transcending the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ystem*."[18] On the basis of this convergence in recognition on trust building and mutual respect of each other's systems, such a process of transcendence should be arranged such that "whatever change takes place in either system should be the outcome of genuine internal processes" (Galtung 1972: 357).

Federalism offers a particularly effective way for implementing segmental autonomy of the both sides within a unified state, allowing for them to respect each other's systems *within* a federal state. What Johan Galtung envisaged for Korean reunification more than 50 years ago may be incorporated into a possible scenario in a federal formula, as follows: 1) passive peaceful co-existence—the strict suspension of the U.S.-led joint military 'exercises' against the north; 2) a north-south coordinating committee as the highest communication channel; 3) functionally specific, ad hoc committees with joint chairmanship, with which to build the momentum of small but frequent successes at very specific levels and areas of cooperation; 4) functionally diffuse, permanent committees, to be merged into an agency to better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in a policy area; 5) an emerging all-Korean superstructure, the three-level structure to be located in some neutral territory—composed of executive-level agencies, decision-makers, and review-level assemblies; 6) moving in the direction of one Korean federal state in all the three levels,

18 Decla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South Relations, and Peace and Prosperity (https://korea-dpr.com/national-reunification/, October 4, Juche 96 (2007)) (italicized by the author)

for example, at the review level by having common elections for a joint federal assembly (Galtung 1972: 352-355).

During the transition phases, the two regional governments in the south and the north, respectively, should have a high-degree of autonomy over their respective internal affairs. The key functions of the unified state—the military, foreign policy, and financial functions—should end up at the federal level while guaranteeing symmetry and peaceful co-existence throughout the process. The problem of exchange of persons should also be dealt with in gradualist approaches. Starting with offering a meeting ground for separated families can expand to allowing the members of separated families to visit each other's homes for a limited time period, and then to letting all Koreans travel as they wish similarly for a limited period, with the time limitation to be phased out over time.

Within the unified federal state, it stands to reason, in view of the need for executive power-sharing between the two sides, to have a *collegial executive* in whic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vested equally among colleagues who are elected to a fixed term by the federal assembly. Unanimity should be sought for any decision to be made by the collegial executive of five or seven members, two or three of whom should come from the north. The goal of constructing such a federal government based on collegiality to overarch two regional governments in the south and the north may facilitate the unification process itself,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19]

19 This paragraph is taken from pages 207-208 of "Abstract" for the Master's thesis titled "System of Government for a Unified Korea: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a Collegial System of Government as of Switzerland" (written in Korean) by CHUN Jihoon.

4. Concluding remarks

The Chosŏn/Korean War was orchestrated and perpetrated by the U.S. empire, and among its beneficiaries were the American imperialist elements within and around the U.S. government, the Syngman Rhee clique, and the Chiang Kai-shek associates. The war has left indelible mental and emotional scars on the north Korean society as a whole, on top of immeasurable material and economic damages. With the extremely huge losses and suffering notwithstanding, the DPRK has repeatedly shown its willingness to take part in peace-building procedures, but the U.S. and the ROK have been opportunistic or shown hostile attitudes toward the former. *If* the latter two want the former to suspend its show of strength as part of justifiable self-defense measures, they will have to first put a halt to their own hostile policies against the former.

The 'clan' in the south, together with the current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must be removed in order for any meaningful social reform and grassroots initiatives toward peaceful reunification for an egalitarian, independent Korea to take root. With the people in the south successfully rising up against the 'clan' and those who oppose system change for a sane society, ending the Chosŏn/Korean War by the bilateral deal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may become possible in case the U.S. decides that it cannot control the southern Korea anymore as its neocolonial military base against the northern Korea. Only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nd further developments in that direction, including the cleanup of those traitorous elements in south Korea, could ensure genuine democracy and independence for the south, for it to be eligible for unification with the north.

As Johan Galtung mentioned, perhaps we can say that "far from being

a tragedy, divided nations are actually in a fortunate situation because of the diversity at their disposal" (Galtung 1972: 358). This observation may prove valid for the southern and northern Korea more than any other cases, historical or more recent, for the two sides can be said to have experimented with two different social systems to an extreme extent, inadvertently or not.

References

1) Korean

국순옥(Kuk Sun-ok)(2015)『민주주의 헌법론』, 파주: 아카넷.

여연구(Lyuh Yŏn-ku 呂鳶九)(2001)『나의 아버지 여운형』, 서울: 김영사.

자주민보 편집부(Chajuminbo editorial department)(2000)『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쏴라』, 도서출판 자주민보.

전지훈(CHUN Jihoon)(2015)「통일국가의 정부형태: 스위스와 같은 합의제(合議制) 정부형태 구현에 관한 검토」[System of Government for a Unified Korea: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a Collegial System of Government as of Switzerland],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https://dcollection.korea.ac.kr/srch/srchResultListByLink?keyword=+%ED%98%91%EC%83%81%ED%86%B5%EC%9D%BC&field=subject, 2015.02).

2) Western

Armstrong, Charles K. (2003)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rnell University Press.

Choy, Bong-youn (1984) *A History of the Korean reunification movement: its issues and prospects*. Peoria: Research Committee on Korean Unific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Bradley University.

Cumings, Bruce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Fisher, Louis (1995) 'The Korean War: On What Legal Basis Did Truman Ac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9.1*, 21-39.

Galtung, Johan (1972) 'Divided Nations as a Process: One State, Two States, and In-Between: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Peace Research 9.4*, 345-360.

Gordenker, Leon (1958)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Occupation and the 1948

Election in Kore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73.3*, 426-450.

Grinker, Roy Richard (1998)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Hart-Landsberg, Martin (1998)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and U.S. 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KIM IL SUNG (1981) *KIM IL SUNG WORKS 6 (June 1950-December 1951)*,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Kim Jong Un (2024) 'On the Immediate Tasks for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Our Republic and the Promotion of the Wellbeing of Our People,' Policy speech at the 10th Session of the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PRK on January 15, 2024 (KCNA, Pyongyang, January 16, 2024) (https://kcnawatch.org/newstream/1705369092-194545332/respected-comrade-kim-jong-un-makes-policy-speech-at-10th-session-of-14th-spa/).

Kuzmarov, Jeremy (2016) 'The Korean War: Barbarism Unleashe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History and Resource Guide website (https://peacehistory-usfp.org/korean-war, updated July 2025)

LaFeber, Walter (2008)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 1945-2006* (Ten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LeMay, Curtis E. (1965) *Mission With LeMay: My Stor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Liem, Channing (1993) *The Korean War: An Unanswered Question*,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65 years of military spending: Trends in SIPRI's new data' (https://www.sipri.org/commentary/blog/2016/65-years-military-spending, Nov. 21, 2016)

Stone, Isidor Feinstein (1952)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Strong, Anna Louise (1949) *In North Korea: First Eye-Witness Report*, New York: Soviet Russia Today.

Quigley, Carroll (1966) *Tragedy and Hope: A History of the World in Our Tim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Weathersby, Kathryn (1993)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8,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3) Online resources

CNBC, 'US isn't weaponizing the dollar; sanctions are the alternative to war, Mnuchin says'(https://www.cnbc.com/2019/12/14/mnuchin-us-isnt-weaponizing-dollar-sanctions-are-alternative-to-war.html, Dec. 14, 2019)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No.10, Oct. 29, 1987, Whole Amendmen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lang=ENG&hseq=1.

Decla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South Relations, and Peace and Prosperity (https://korea-dpr.com/national-reunification/, October 4, Juche 96 (2007))

Final Judgm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held in New York (https://iadllaw.org/files/FINAL%20JUDGMENT%20OF%20THE%20KOREA%20INTERNATIONAL%20WAR%20CRIMES%20TRiBUNAL.pdf, June 23, 2001)

KCNA, Press Statement Issued by Chief of Foreign News Section of DPRK Foreign Ministry (http://naenara.com.kp/main/index/en/first, January 26, 202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https://korea-dpr.com/national-reunification/, June 15, 2000)

Rodong Sinmun, 'Press Statement of Kim Yo Jong, Vice Department Director of C.C., WPK' (http://rodong.rep.kp/en/index.php?MTJAMjAyNC0xMC0yMy1IMDA2QDE1QDFAQDBANg==, October 23, 2024)

White Paper Released by Institute for American Studies of DPRK Foreign Ministry (https://kcnawatch.org/newstream/1719399894-296555019/white-paper-released-by-institute-for-american-studies-of-dprk-foreign-ministry, June 26, 2024)

Mongolia's Balancing A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Dolgorsuren Dorj*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 Introduction

Mongolia is a unique country. It has a population the size of Wales and a land mass nearly three times that of France, and in terms of its history, geography, culture, natural resources and political position, there is no other country quite like Mongolia. It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sia Cooperation Dialogue, the Group of 77,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Non-Aligned Movement and a NATO global partner. Mongoli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1997 and seeks to expand its participation in regional economic and trade groups.

Mongolia is an exciting country with huge potential, according to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 relationship with its near neighbors, Russia and China, are usually likely to be precarious, but if Mongolia'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investors can be firmly structured, then Mongolians can have a prosperous future to look forward to(MP 2017). However, Mongolia finds itself in an uncomfortable position as the state is sandwiched between two of the world's great nuclear powers – China and Russia. Peace will undoubtedly always be an integral part of Mongolian foreign policy. That's why

* Senior lectur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chool of Political 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E-mail: dolgorsuren.d@num.edu.mn

Mongolia has actively pursued nuclear-free policie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1990s. Today, Mongolia enjoy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nuclear-weapon-free status within the global community. The pursuit of such policies has installed Mongolia as an ideal partner to promote state-to-state conversations on nuclear issues. Mongolia's commitment to peace can be seen as valid due to its geographical position isolating the state from Central Asia, Northeast Asia, and Eurasia, and when combined with a lack of economic incentives from foreign investors, Mongolia stands to gain many benefits from a peaceful North East Asia. The stability, security, and interests of the region are essential to Mongolia and so are they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Mongolia's goal in adopting the "third-neighbor policy" was to form a network of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hips to protect Mongolian security and interests while also keeping its two neighbors at equal distances. This has led to Mongolia developing a stance of neutrality while maintaining its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China, Russia, and its other partners, as a means to neither aggravate Russia nor China, while not providing an opportunity to be used by its "third neighbor" allies to undermine the two. Mongolia is often seen making formal requests for peaceful and meaningful dialogue between states. It has consistently campaigned for the return of peaceful talks to resolv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3, Mongolia established its Ulaanbaatar Dialogue Initiative on Northeast Asian Security. The goal of the annual conference is for world leaders to discuss and promote peaceful solutions to de-escalat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hosting international peace forums, Mongolia also has hosted secret talks between NK - DPRK officials and their international counterparts.

As Mongolia has realigned its foreign policy in the past few years, its rela-

tionship with the North and South Koreas has developed rapidly. The emphasis placed on these growing alliances are best evidenced by the recent strings of high-level Korean visitors. Mongolia has received a number of high-level Korean visitors over the years, reflecting the growing diplomatic, economic, and cultural ties between these nations. These countries have had strong bilateral relations, and high-level exchanges help to enhance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trade, tourism, education, employment, and regional security. Here are a few key instances of high-ranking South and North Korean visitors to Mongolia:

1.1. High ranking visits

South Korean Presidents' visits to Mongolia: President Moon Jae-in (2017–2022) visited Mongolia for a state visit in 2019. This visit was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two countries' relations, with agreements made in areas like trad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President Park Geun-hye (2013–2017) visited Mongolia in 2015 to further deep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er visit emphasized economic cooperation, particularly in sectors like mining,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Prime Ministers and other high-ranking officials' visits: Prime Minister Kim Boo-Kyum (2021) visited Mongolia in 2021 as part of South Korea's efforts to enhance regional diplomacy and cooperation with Mongolia. The visit helped foster discussions around digital technology,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Various South Korean ministers and deputy ministers have visited Mongolia for specialized talks, particularly around areas like trade, regional security,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Besides, South Korea regularly sends cultural, economic, business, and academic delegations to

Mongolia. These exchanges have led to closer cooperation in fields such as technology,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s, including K-pop, Korean dramas, and food culture.

Mongolian Presidential visits to South Korea: There have been significant visits by Mongolian leaders to South Korea (SK). President Battulga Khaltmaa visited SK in 2018, which helped fos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all, the visits by high-level South Korean officials to Mongolia are part of an ongoing effort to solidify a strategic partnership, enhance economic exchanges, and increase cultur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nations.

North Korean diplomatic visits: North Korean-Mongolian relations were established shortly after the creation of the NK - DPRK in 1948. Following the USSR, Mongolia was the second nation that recognized the DPRK as a sovereign nation. Recent high-level visitors from North Korea (NK) to Mongolia have been less frequent, given the isolated nature of NK's foreign diplomacy, especially under the leadership of Kim Jong-un.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diplomatic exchanges and visits over the past decade that reflect efforts to strengthen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particularly regarding regional stability and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COVID-19 outbreak, a North Korean delegation visited Ulaanbaatar in March 2024, signaling a potential return of such meetings. Mongolian officials have also repeatedly visited Pyongyang to strengthen ties in cultural sectors, and such meetings will likely continue to do so to indicate a commitment to friendly relations in the region. Pre-pandemic,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e Son-hui (2018), a prominent figure in NK's foreign affairs, visited Mongolia in 2018. Her visit came as part of a broader diplomatic push by NK to engage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wake of its historic summits with SK and the US. The discussions were largely focused on region-

al security, bilateral relation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re were delegations' visits related to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re have been multiple North Korean cultural and economic delegations visiting Mongolia. These have been less publicized but typically involve discussions around trade, mining, and educational exchanges. For example, in the mid-2010s, North Korean cultural delegations performed in Mongolia, showcasing aspects of North Korean arts and culture.

Mongolian visits to North Korea: In 2018, Mongolian President Battulga Khaltmaa visited NK for talks with Kim Jong-un. This visit helped to strengthen diplomatic ties and facilitated discussions about trade, regional cooperation, and Mongolia's neutral stance in the ongoing North Korean nuclear discussions. Mongolia has historically maintained a neutral position in the conflict, advocating for peaceful dialogue.

Other official visits: While North Korean officials have visited Mongolia occasionally for diplomatic or trade discussions, these visits have usually been in the context of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normalization of NK's foreign relations. Its closed-off nature means that high-profile visits tend to be discreet and often do not receive widespread media attention.

2. Context and Challenges in Diplomatic engagement

Mongolia has consistently supported the idea of engaging with NK diplomatically, particularly focusing on peaceful dialogue and de-escal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Mongoli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maintains good diplomatic relations with NK while also being a me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UN) and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Economic cooperation: NK and Mongolia share some economic interests, particularly in mining as both countries have substantial mineral resources. However,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on NK, large-scale economic exchanges are limited.

2.1. Key themes in recent visits:

Security and regional cooperation: The issue of regional stability and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entral to many high-level exchanges between NK and Mongolia. Both countries are keen to ensure a stable geopolitic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Humanitarian and cultural ties: Cultural exchanges, academic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discussions often take place as part of these exchanges, especially given Mongolia's neutral foreign policy and interest in improving people-to-people exchanges with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visits, Mongolia has been keeping its relationships in good condition with NK. Today Mongolia presents itself as a perfect ally in rehabilitating North Korea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ust last year, 2024, there was a supposed meeting between North Korean and Japanese officials in Ulaanbaatar. Although it no longer seems to be the case, following the meeting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indicated that he was willing to hold a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sider Mongolia a potential location for further dialogue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By examining Mongolia's geopolitical vulnerability, commitment to neutrality, and the state's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is post will explore what makes Mongolia an ideal partner in restoring peaceful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3. Mongolia's feasibility of contribution to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orean unification is a difficult and complicated problem that multi-faceted efforts for five decades have not been able to resolve(Lee 1994). Formerly a single nation that was annexed by Japan in 1910,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occupation zon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on 2 September 1945. The two sovereign countries were founded in the North and South of the peninsula in 1948, leading to the formal division. In the last days of the war, the United States proposed divid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occupation zones (a U.S. and Soviet one) with the 38th parallel as the dividing line. The Soviets accepted their proposal and agreed to divide Korea, which led to the declaration of General Order No. 1. Since then, technically, the two Koreas have been and are still at war, because no peace treaty was ever signed so far.

In short, North Korea sticks to a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concept of "revolution." "classes" and "struggles" because it believes in the inevitability of the collapse of capitalism. South Korea dwells on diverse views of values incidental to an open society instead of a single closed view of values because SK subscribes to liberal democracy as its political ideology, and maintains a capitalist system. The South is sure in the conviction that a closed society can never successfully lea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that, therefore, the North Korean system will not be able to hold on to its closed state indefinitely. (Lee, 1994)

However, the peoples of the two Koreas (and their friend Mongolia) believe that the present hostile and confrontational South-North relations must be replaced with an amicabl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Lee 1994). At his March 1 address,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decried Kim Jong

Un's "two-state narrative" as being opposed to both reunification and the idea of a unified Korean nation, asserting that "*unification is precisely what is needed to expand the universal values of freedom and human rights.*" (Kwak 2024) Korean unification is a prerequisi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 as a democratic country in order for it to cany out its proper role in the future of the world. The Korean nation has not taken its proper place in the modem world due to the tragic national division imposed by outside powers. On this point, North and South Korea's goals happen to be the same.

World countries, including Mongolia, are supposed to pursue reconciliation in gaining national interests and economic prosperity. Although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ssuming that there is no intermediary exists who can coordinate the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ongolia might have enormous potential to become a stage – a diplomatic bridge – where they can openly discuss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brotherly love and pool their wisdom in working out an accord on matters of mutual concern. The Koreans cannot delegate the task of unification to world powers, but Mongolia, the least expected country according to developed countries, can be a party that can make a fair judgment and balance as it is the only country that the two sides might rely on with firm confidence in the direction of the flow of history, and promote a dialogue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So then, how come is it possible? What can Mongolia do for NK and SK?

- First of all, Mongolia is located at the geostrategic intersection of four of the world's most powerful and influential nations' – China, Russia, the USA, and two Koreas, proving reunification to be of global importance.

Mongolia made headlines in the spring of 2018 for offering to be the host of a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lthough it was not ultimately chosen then, Mongolia could once again underline its strategic role in Northeast Asia as one of the few trusted partners of North Korea while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 Second of all, Mongolia maintains balanc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besides, it is one of the few nations that has sustaine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NK. Despite Mongolia's good and close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ir cooperation with the North have been cordial nonetheless.

- Third, it is quite feasible that Mongolia acts and serves as an important and amiable strategic buffer for all of the above powers, plus, the South-North Korea thank to their historic past events.

Mongolia provided assistance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lthough it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1952,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sent 200 war orphans to Mongolia. Today in Ulaanbaatar, there still are remnants of a two-story "North Korean War Orphanage" building remains. Mongolia also contributed to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the DPRK. On the basis of an aid agreement signed at the end of 1953, the Mongolian government sent 10,000 horses to North Korea. After the war, Mongolia received and brought up more than 400 war-orphaned children from North Korea in 1960–1970s.

Unofficially, North Korean visitors show significant interest in studying Mongolia's economic reforms; according to the Mongolian side, North Koreans see them as non-threatening because they are a fellow non-Western country and went through similar experiences under communism. In 2013,

the Mongolian President Elbegdorj Tsakhia visited North Korea, and the two countries expanded economic ti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oil refining, which means for Mongolia it would be very advantageous to its ability to get North Korea to come to the dialogue table for further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that might lead to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There must be a desire for reunification to instigate action towards it. Perhaps, there must be a sense of moral obligation from Mongolia to contribute to the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as well as the security in the region, and there should also be some sense of moral obligation from South Koreans for those in the North whose lives are significantly harder due to their birthplace.

The both sides' approaches to unification have amounted to nothing more than a war of words. While they are engaged in this war of words, the reality of division persists, and the ideal of unification remains unrealized. The initial step in the unification process, I believe, would be a meeting held in Mongolia between the leaders of the North and South governments. Without this interim measure neither side can move toward unification. The South-North Korean dialogue is very important for several reasons. It offers an effective means to change North Korea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foreign intervention .in the Korean question, emphasizing that Korean unification is being carried out by the Koreans themselves(Lee 1994).

South Korea and the world community might penetrate a thoroughly closed society like North Korea through Mongolia, with its participation of balancing act and as a diplomatic bridge between them. Nowadays, the North Koreans' craving for a better economic standard of living and freedom is getting stronger.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in which the South and North can coexist and prosper together. On the basis of such a prosperity, the two societies can be integrated into one prosperous

nation.

Korean unification would no doubt resolve considerable tensions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n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However, it would also introduce new tensions as well. In China and Japan "Neighbor" anxiety to a combined Korean military threat and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run high as well as unease over a United Korea's potential as an economic rival. Korean unification is a regional security issue that will depend on continued reasonably good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If not reunited with the South, the North, increasingly isolated,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rely on military power combined with nuclear capability to assert itself in the region. In near economic collapse the only alternative for the North is to expand (by force) in the hope of revitalizing its nearly destroyed economy and depleted resources. This expansion would undoubtedly escalate throughout the region as well as the world. The unification issue will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exchanges and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he reality of division.

Mongolia might be able to offer positive suggestions for unification or legal analysis for unification planning and maintaining public interest in reunification in combining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to one nation as befor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ld War, Mongolia abandoned its foreign policy of "leaning" towards the Soviet Union, and instead established equidistant, friendly relations with Russia and China,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ed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the EU and other "third neighbors". It thus began pursuing an equidistant, nonaligned foreign policy. In the readjustment of its security strategy, Mongoli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ave developed the most rapidly. Mongolia pursued a "multi-pillared"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ended. The essence of this policy was striving to form a balance between China and Russia while draw-

ing in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the EU in order to contain China and Russia and guarantee Mongolia's independence and security. Since then, Mongolia is recognized for its strategic and geographical role in Northeast Asia, acting as one of the few trusted partners of North Korea while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North Korea dates back to 1948, when Mongolia became the second country, after the Soviet Union, to recognize North Korea. Kim Il-sung, the founder of North Korea, visited Mongolia twice during his leadership. In 2019, Mongolia and South Korea celebrated the 30th anniversary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Although this relationship is more recent compared to Mongolia's tie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has quickly become Mongolia's fourth-largest trade partner, with ambitions to move up the ranks. Thus, Mongolia hopes that the unification issue will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its cooperation, cord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and promotion as a balancing actor and mediator between the two sides.

4. Conclusion

Mongolia, a unique nation with a strategic geopolitical posi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has pursued a neutral and balanced foreign policy since the 1990s. It is a member of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intains a nuclear-weapon-free status, which has positioned it as a credible mediator in reg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Mongolia's "third-neighbor policy" aims to establish multilateral relationships to safeguard its security and interests while maintaining equidistance from its powerful neighbors. Mongolia has cultivated strong diplomatic and eco-

nomic ties with South Korea, which is its fourth-largest trade partner, while sustaining cordi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Historically, Mongolia supported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post-war reconstruction, fostering a relationship based on shared socialist roots. Mongolia and North Korea have shared key characteristics: both have a socialist past and achieved independence with Soviet support. However,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y diverged significantly. Mongolia implemented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demilitarized, declared itself a nuclear weapons-free zone, and developed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till, by the late 1990s, Mongolia began re-engaging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viewed Mongolia's democratization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s a betrayal, but did not cut diplomatic ties.

For South Korea, Mongolia has been perceived as a complementary partner: South Korea is an energy-importing nation with advanced technologies, while Mongolia possesse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s Mongolia's fourth-largest trade partner, South Korea aspires to become its third-largest, following China and Russia. During the socialist era, Mongolia's external affairs were largely dictated by the Soviet government until 1990. When Mongoli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March 1990, it marked the first foreign policy decision made by itself. After establishing these diplomatic ties, Mongolia sought economic aid from South Korea to support its structural reforms for many years. In 1994, Mongolia adopted a foreign policy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ird neighbors" in addition to its two large neighbors, with South Korea being acknowledged as one of these developed third neighbors. This reinforced South Korea's importance to Mongolian foreign policy.

Mongolia's balanced relations with both Koreas uniquely position it on the world stage. As one of the few nations to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Mongolia is trying to mediate potential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with the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growth enhancing South Korea's value as a partner in both economic and cultural spheres, Mongolia faces the challenge of balancing its economic ambitions. While seeking to reduce its reliance on China and Russia by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South Korea, Mongolia must also nurture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retain its role as a credible mediator for any future conflicts in the region.

Mongolia's foreign policy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is likely to remain consistent in the foreseeable future. By taking a proactive role in this area, Mongolia can increase its visi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international arena, gaining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regional initiatives led by great powers. This engagement will also help reinforce Mongolia's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from China and Russia. Therefore, Mongolia wishes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nearby countries; not only woul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be central players in Korean unification, but Mongolia would be, too. It might not be incorrect to say that they actually would prefer the situation to remain just as it is, to the contrary.

While North Korean high-level visits to Mongolia have been limited and relatively low-profile in recent years, there remains an interest on both sides to maintain cordial relations and explore areas of cooperation. These interactions have generally centered around regional security, economic exchanges, especially in mining, and cultural diplomacy. However, the recent global political climate and North Korea's isolationist policies still pose challenges for expanding these interactions.

Mongolia hopes that further negotiations can be undertaken to de-escalate the current problem. What is needed is an attempt to de-escalate the dispute and reduce hostility. Mongolia can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coopera-

tion from nearb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mechanisms in creating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in setting out the path for unification, as it was a close ally and strongly influenced by the Soviet Union. Following the post-Soviet decline of that influence from around 1990, Mongolia began to develop into a young, robust parliamentary democracy.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keen to make sure that its national sovereignty is respected by its powerful neighbors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Unlike some former Soviet client states, Mongolia has tended to see the Soviet era in a quite benign way. The positive aspects of the legacy of Soviet communism are apparent in the emphasis on opera and classical music, as well as the desire to preserve social policies that benefit the less well-off. But this does not translate into any wish to see Mongolia come under Russia's sphere of influence. Mongolians are determined to maintain their independence and wish to be even-handed in their relationship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growing, economically assertiv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summary, Mongolia's strategic buffer role is rooted in its neutrality, balanced diplomacy, and historical ties, enabling it to contribute to peace, stability, and potential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 A neutral Mongolia aligns with the world power interests and East Asia's security. Mongolia's unique position enables it to contribute to Korean reunification and maintain balanced ties with both Koreas. As one of the few nations with cordi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Mongolia can serve as an important partner for both Koreas and a future unified Korea. Reunification would mark a new era for the peninsula, peace, and overcoming barriers. Mongolia's status as a nuclear-free state and a supporter of peaceful nuclear energy use could provide a model for North Korea, and enhance Mongolia's reputation as a responsible regional actor.

References

Gil-sup Kwak(2024) *"A new proposal for unifying the two Koreas"*., Daily NK, April 16, (https://www.dailynk.com/english/new-proposal-unifying-two-koreas/)

Lee Boo-Kyoon, *'Korean unification: problems and solutions.'*, 1994-12, Monterey, California. Naval Postgraduate School, Calhoun: The NPS Institutional Archive, (http://hdl.handle.net/10945/42829)

Wang Peiran(2009) *'Mongolia's delicate balancing act'*, China Security, Vol. 5 No. 2. World Security Institute.

Wayne David MP(2017) *Mongolia and the modern world*, British Group, Inter-parliamentary union. 03/11/2017 to 11/11/2017.

Staff Officers' Linguistic Patterns in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 A Stylometric and NLP Approach -

EunKyoung Jo*
Sogang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 documentation is a significant historical dataset, notable for its authenticity, volume, and limitations as a historical archive. The archival data are extensive enough to be analyzed and to reveal linguistic patterns using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stylometric methods, making them highly relevant to digital humanities research. Regarding the historical event and the archival materials,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s of history, politics, and diplomacy (Stuek 1995; Jung 2006; Cumings 2010; Shin 2010; Kim 2016). However, there has not yet been analyt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linguistic aspects of the armistice discourses. We believe our study contributes, even in a modest quantitative way, to the linguistic analysi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by applying computational methods.

The armistice talks, which commenced on July 10, 1951,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were aimed at preventing the conflict from escalating into World War III (Stuek 1993: 3). A total of 158 meetings were held over a span of two years and 17 days. The Armistice

* Associate Professor, The Department of Global Kore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E-mail: jek.cl.nlp@gmail.com, eunkyoung@sogang.ac.kr

Talks represented months of intense negotiations among officials from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the Soviet Union, and United Nations forces. The negotiation discourse primarily consists of contentious exchanges between opposing sides: the United Nations and capitalist nations on one side, and North Korea and Communist forces on the other.

The Korean War armistice negotiation talks were originally record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as confidential documents during the war, before the armistice was finalized. Nine years after the war ended, the talks and documentation were archived as a microfilm publication in 1962. In 1994,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of South Korea compiled the microfilmed materials into 10 volumes, organized by participants and conference topics, and made them available through its web services.

This study explores how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unfolded linguistically using computational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microfilmed data in terms of language use through quantitative methods, the materials were converted into text format so that linguistic units could be counted. Since the microfilmed images were derived from typewritten documents from the 1950s, the text produced by OCR contained numerous misrecognized characters. Therefore, the data were manually cleaned as thoroughly as possible. Based on this carefully processed and historically grounded data, we apply stylometric and NLP methods to provide a quantitative explanation of the common and distinctive linguistic patterns in the staff officers' discourse as they represented their respective groups and addressed the established agenda items in detail during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We believe that our analytical results will reveal both shared and distinctive linguistic pattern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negotiations, as well as notable peculiarities in the staff officers' utterances.

2. Data Scope and Analysis Method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of South Korea compiled the microfilmed materials into 10 volumes, organizing them by participants and conference agenda items (Jung 2006). Among the ten volumes, Volumes 1 and 2 contain the primary discourses of the representative delegates from both sides; Volumes 3 to 5 document sub-delegation discussions; Volumes 6 to 8 record the discourse of the staff officers from both sides; and Volumes 9 to 10 are the liaison officers' records.

Through the primary discourses, five agendas were prepared for discussion and negotiation. The five agendas are the following:

Agenda 1. Adoption of agenda.

Agenda 2. Fixing a military demarcation line, between both sides so as to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as a basic condition for a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Agenda 3. Concrete arrangements for the realization of cease fire and armistice in Korea, including the composition, authority and functions of a supervising organization for carrying out the terms of a cease fire and armistice.

Agenda 4. Arrangements relating to prisoners of war.

Agenda 5.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concerned on both sides.

- (Stueck 1995: 225)

The ten volumes are titled as follows:

Volume 1: Records of the 1st to 26th Representatives Meetings in Kaesong (July 10, 1951 – August 16, 1951)

Volume 2: Records of the 27th–158th Representatives Meetings in Panmunjom (October 25, 1951 – July 19, 1953)

Volume 3: Records of the 1st–37th Subcommittee Meetings on Agenda 2 (August 17, 1951 – November 27, 1951)

Volume 4: Records of the 1st–71st Subcommittee Meetings on Agenda 3 (December 4, 1951 – April 19, 1952)

Volume 5: Records of the 1st–71st Subcommittee Meetings on Agenda 4 (December 11, 1951 – March 15, 1952)

Volume 6: Records of the Staff Officers' Meetings on Agenda 2 (November 30 – December 10, 1951) and Agenda 3 (December 20, 1951 – April 7, 1952)

Volume 7: Records of the Staff Officers' Meetings on Agenda 4 (January 23 – May 10, 1952)

Volume 8: Records of the Staff Officers' Meetings for Drafting the Armistice Agreement (July 26, 1952 – July 22, 1953)

Volume 9: Records of the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Panmunjom. July 8, 1951 – September 29, 1952)

Volume 10: Records of the Liaison Officers' Meetings 2 (Panmunjom. 1 October, 1952 –29 July, 1953)

-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https://db.history.go.kr/id/pn)

Volumes 6, 7, and 8 are records produced by staff officers from both sides. Volume 6 contains records mainly related to Agenda 2 and Agenda 3, and Volume 7 focuses primarily on Agenda 4, while Volume 8 contains records of drafting the armistice agreement. Volumes 9 and 10 capture the communications of liaison officers. In this study, we analyze Volumes 6–8 to conduct a stylometric examination of the staff officers, exploring the linguistic features of the discourse during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Stylometry is a branch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that involves quantitative assessment of linguistic features in natural language texts (Lagutina et al. 2019). It involves measuring patterns and features in texts to identify, com-

pare, or classify authorship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word frequencies, sentence lengths, punctuation patterns, the use of function words, and n-grams (sequence of words) are examined. Stylometric analysis is applied to detect and compare stylistic characteristics (Hirst & Olga 2007). The Forensic stylistic approach is best represented by McMenamin (1993, 2002) and Chaski (1997, 2001, 2007, 2012). When it comes to different features and aspects in language use, classification methods are employed. In the case of the Korean War armistice discourses, they were analyzed to classify which side spoke certain factual statements (Jo 2024: 261). If there are consistent stylistic distinc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ir utteranc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affiliations.

Figure 1 shows an example page of the staff officers' discourse in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The records were typed on typewriters in the 1950s during the wartime period, microfilmed in the 1960s, and later saved and archived in the image files. As a result, many characters were not accurately converted into text through OCR, requiring extensive and repetitive post-processing to correct them. Figure 2 illustrates the overall workflow of this study from start to finish.

In this study, we apply NLP and stylometric analysis to find linguistic patterns of armistice negotiation talks overall,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staff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side and those from the Communist side. Counting word tokens and specific phrases has long been employed to identify authors and to characterize speakers in stylometric analysis (Chaski 1997, 2001, 2007, 2012)[1].

1 Chaski (1997, 2001, 2007) represents a series of influential studies on authorship attribution in forensic settings. She is a leading researcher in forensic linguistics, specializing in the study of law and language.

CAPT KIM: We are studying your draft of agreement on the demilitarized zone and will give you our comments at 1100 tomorrow.

LTCOL EDWARDS: Inasmuch as there are certain cartographic differences in our maps, I suggest that we add a paragraph to our agreement pointing out this fact, and stating that these differences can be resolved by ground survey, using the agreed upon latitude and longitude of our control points.

CAPT KIM: We agree.

LTCOL EDWARDS: Tomorrow at 11 o'clock we will give you copies of the description of the boundary line, after they have been copied and checked. We request that you give us a copy of your description at the same time.

CAPT KIM: We will do so. Tomorrow we want to check our maps and will be ready for final signing of the agreement on the demilitarized zone at 10 o'clock on 9 December. Our liaison officers must review our work and want to sign the final agreement, and want your liaison officers to do the same.

LTCOL EDWARDS: We also want to study our maps tomorrow and will meet you at 10 o'clock on 9 December for the agreement on the demilitarized zone by the liaison officers.

Meeting recessed at approximately 1545.

Figure 1: An example page from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 records. (volume 6, p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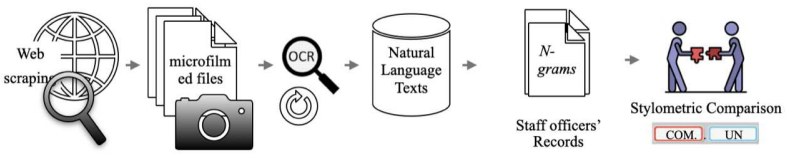


Figure 2: The Workflow of This Study

Text data requires tokenization or segmentation into units—like word tokens or consecutive characters—before it can be analyzed as quantitative features. Word tokenization is the process of splitting text into individual units called tokens, where each token typically represents a word. For instance, [I am instructed to work with you on fixing the line of contact.] which is one unit of a text is tokenized as [I, am, instructed, to, work, with, you, on, fixing, the, line, of, contact, .]. Likewise, tokenization converts a continuous sequence of characters into a list of meaningful elements (word tokens) that can be processed by a computer. Tokenization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tep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It enables word frequency, n-gram extraction, and many other types of linguistic analysis.

N-gram analysis (Yang et al. 2007) is a technique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at examines sequences of n tokens (characters, words, or other units) occurring together in text (Suen 1979). In this study, we consider only word-level n-grams. A unigram is a 1-word sequence (e.g., work). A bigram is a 2-word sequence (e.g., work with). A trigram is a 3-word sequence (e.g., work with you). N-gram analysis helps capture common phrases or collocations, analyze stylistic patterns, and detect repetitive or formulaic expressions. (Glass et al. 2024: 58)

For analysis methods, we utilize NLTK (Natural Language Toolkit)[2], a traditional toolkit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 extract word tokens and n-gram phrases from the text data and count them to obtain quantitative information. NLTK is a popular and widely used toolkit for analyzing natural language texts. Although many of its analysis methods have been replaced by more powerful and modern deep learning approaches and language models, its word tokenization and n-gram utilities for handling sequences of n tokens remain powerful tools for researchers.

2 The official website is https://www.nltk.org/. All available functions and resources are managed through this sit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taff officers and the Utterances

In this study, we analyze volumes 6-8 to conduct a stylometric examination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exploring the linguistic features of the discourse and the negotiation language used by the staff officers. Table 1 shows the quantitative descriptions of the volumes analyzed.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olumes analyzed

Volume #	The number of pages	The number of turns	The number of words
Volume 6	727	2,078	215,189
Volume 7	544	1,048	164,887
Volume 8	416	1,547	120,910
Sum	1,687	4,673	500,986

The discourse records consist of the surname of a staff officer followed by their utterance turn, separated by (":") as shown in Figure 1. Based on the surnames in the records, we can extract all speakers along with their titles and surnames on both sides.

The title prefixes and surnames of the Communist command side are as follows:

"CAPT' CHU', 'CAPT KIM', 'COL CHANG', 'COL HUANG', 'COL JU', 'COL LEE', 'COL O', 'COL PU', 'COL TSAI', 'COL WANG', 'MAJ KIM', 'MAJOR WU'

Here, *COL* is the abbreviation for *colonel; LTCOL* stands for *Lieutenant colonel; CAPT* for *Captain* used in the discourse documentation.

The title prefixes and surname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ide are as follows:

'COL AUSTIN', 'COL BUTLER', 'COL CAIRNS', 'COL CARLOCK', 'COL DARROW', 'COL HICKMAN', 'COL HILL', 'COL KINNEY', 'COL LEVIE', 'COL MCCARTHY', 'COL MURRAY', 'COL SOMERVILLE', 'LTCOL EDWARDS'

Table 2 presents the surnames of the staff officers along with the number of their utterance turns across volumes 6~8.

Table 2. Number of Utterance Turns by Staff Officers on Both Sides

UN side (Turns, 2318) (Words, 147885)	('COL DARROW', 914), ('COL HICKMAN', 443), ('COL KINNEY', 294), ('COL MURRAY', 292), ('COL CAIRNS', 109), ('COL SOMERVILLE', 94), ('COL CARLOCK', 76), ('COL BUTLER', 34), ('COL AUSTIN', 28), ('COL LEVIE', 18), ('LTCOL EDWARDS', 13), ('COL MCCARTHY', 2), ('COL HILL', 1)
Communist side (Turns, 2355) (Words, 158491)	('COL CHANG', 845), ('COL TSAI', 521), ('COL PU', 406), ('COL HUANG', 220), ('COL LEE', 152), ('COL JU', 112), ('COL WANG', 45), ('COL O', 27), ('CAPT KIM', 22), ('MAJOR WU', 5)

The number of utterance turns by staff officers on the Communist command side and those on the United Nations command side were counted based on the names listed above. The number of utterance turns by the UN side staff officers is 2,318, and the number by the Communist side staff officers is 2,355, for a total of 4,673 utterance turns. The difference of the numbers of both side utterance turns is only 37. Therefore, we can infer that the discourse proceeded largely in parallel. However, the number of words of the UN side staff officers' utterances is 147,885, and the number of words of the Communist side staff officers' utterances is 158,491. The average length of a turn—defined as the total number of words divided by the number of utterance turns—is 67.29 words for the UN side and 63.79 words for the Communist side. Based on this, we can also infer that the general length of the Communist side utterances is relatively short.

Both sides in the armistice talks consisted of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eden, the Soviet Union, Poland, and Czechoslovakia. Their exchanges were recorded by stenographers and translators, and each document was subsequently verified and signed by the participating colonels from both sides. The dominant countries in the UN side were English speaking, whereas those in the Communist side

were not. Therefore, although the factual content of the records is reliable, the linguistic richness of the recorded language cannot be fully ensured, given the quantitative results showing that the Communist side staff officers had slightly more turn-takings but delivered shorter utterances.

4. N-Grams as Linguistic Patterns in the Utterances

The Korean War Armistice discourses from both sides were mediated by interpreters and stenographers who sat at the same negotiation tables with staff officers and the general delegations. Although the linguistic patterns from the armistice talk data do not purely reflect the staff officers' own language use, they still reveal general aspects of the discourse, such as dominant topics and characteristics of language in the intense process of drafting the armistice agreement. In this section, we first examine n-grams as linguistic patterns without dividing the utterances of the two sides, and then move on to compare n-grams of the Communist side staff officers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side staff officers.

We investigate unigrams (1-grams), bigrams (2-grams), trigrams (3-grams), and quadrigrams (4-grams), considering n-grams both with stop words and without stop words. Stop words typically refer to function words with weak lexical meaning that serve mainly grammatical functions and are less important for most analyses. They include prepositions like *of* and *in*, articles like *a* and *the*, pronouns like *I* and *you*, and auxiliary verbs like *have* and *shall*.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orkflow, these words are managed or removed because their inclusion can alter the frequency rankings of words or phrases. By removing stop words, more meaningful lexical words and phrases appear at the top of the frequency lists.

4.1. General linguistic patterns in Staff Officers' Discourse

By utilizing NLTK's n-gram functionality and its built-in stop word list, the following unigrams through quadrigrams were extracted from the staff officers' utterances in Volumes 6–8. These top frequent unigrams (single words) through quadrigrams (four-word sequences) reveal the representative topics in the staff officers' discourse. All words are lowercased so that word forms with capital and lower letters would be counted as the same words.

The unigram list with stop words, shown on the left in Table 3, contains very frequent but not very meaningful words on their own. However, once stop words are removed, the right side of Table 3 reveals topic-related keywords in single term units. In the left two columns, words like *i, you, we, your, our, it*, along with *side*, *have*, reflect the presence of opposing participants and the bilateral nature of the talks, but they still do not convey specific content meaning. In contrast, the right two columns—after stop words have been removed—contain more specific and meaningful words such as *paragraph, agreement, war, armistice, prisoners, personnel*, which more clearly indicate the subject matter of the armistice talk documentation. They also include negotiation-related words such as *question, proposal*, and *wording*, as well as *would*, and *like* which reflect the modal expressions used in the negotiation.

Table 3. Top 20 Most Frequent Unigrams

With Stop Words — Frequency				Without Stop Words — Frequency			
the	21501	is	4512	side	5541	prisoners	773
of	13507	i	3906	would	1775	time	725
to	11801	you	3386	paragraph	1522	personnel	714
that	6881	be	3289	sides	1474	proposal	701
we	6426	have	3209	agreement	1211	made	692

in	6325	a	3149	question	1159	like	686
your	5571	this	3117	war	1053	one	685
side	5541	it	2783	armistice	1011	wording	681
and	5032	on	2692	agree	896	ports	657
our	4630	for	2610	nations	883	make	656

Longer n-gram frequency lists provide more informative words and phrases. The bigram list, Table 4, shows more concrete phrases (underlined) that help reveal what the staff officers were discussing. The left column, which includes stop words, shows that they used *our side* for their side and *your side* for the opposing side, and used *both sides* when discussing shared issues. The right column, which excludes stop words, reveals more specific and meaningful content words (underlined) such as *prisoners war* that appear lower in the rankings of the left column, e.g., *prisoners of*.

Table 4. Top 15 Most Frequent Bigrams

With Stop Words — Frequency		Without Stop Words — Frequency	
of, the	3938	prisoners, war	711
your, side	2719	would, like	584
our, side	2031	neutral, nations	526
to, the	1750	ports, entry	513
in, the	1731	armistice, agreement	441
both, sides	1381	can, not	339
that, the	1002	united, nations	267
we, have	994	staff, officers	264
of, war	990	prisoner, war	236
on, the	928	captured, personnel	236
it, is	899	agreed, upon	190
for, the	834	nations, command	189
that, we	786	red, cross	186
of, our	760	military, armistice	176
prisoners, of	714	demarcation, line	172

The trigram and quadrigram lists in Table 5 and Table 6 present even more concrete phrases, allowing shorter frequency lists to contain clearer and more informative expressions. The underlined trigrams and quadrigrams show that the staff officers expressed their concerns politely using *(i/we) would like to* and employed concerning phrases such as *the question of (the)*. More interestingly, they discussed Agenda item 4, *(the) prisoners of war*, along with matters involving *(joint) red cross teams* and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more frequently than Agenda item 2,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rafting the armistice agreement*.

Table 5. Top 10 Most Frequent Trigrams

With Stop Words — Frequency		Without Stop Words — Frequency	
prisoners, of, war	711	united, nations, command	189
would, like, to	522	draft, armistice, agreement	153
ports, of, entry	513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43
of, our, side	371	captured, personnel, side	125
that, your, side	366	repatriation, prisoners, war	124
the, question, of	353	prisoner, war, camps	123
of, both, sides	343	red, cross, teams	119
the, neutral, nations	331	ports, entry, rear	117
of, your, side	329	neutral, nations, inspection	104
our, side, has	316	military, demarcation, line	94

Table 6. Top 7 Most Frequent Quadrigrams

With Stop Words — Frequency		Without Stop Words — Frequency	
i, would, like, to	267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94
the, prisoners, of, war	227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76
we, would, like, to	183	joint, red, cross, teams	62
of, prisoners, of, war	173	sick, injured, captured, personnel	42
the, united, nations, command	155	paragraph, draft, armistice, agreement	41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39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38
the, question, of, the)	135	release, repatriation, prisoners, war	27

4.2. Linguistic Patterns in Each Side's Staff Officers' Discourse

Now, we compare the n-grams used by the Communist side staff officers and those used by the United Nations side staff officers to reveal different patterns of language use. Table 7 shows the top 30 unigram words, including stop words, from the utterances of both sides. The most frequent words are largely similar; however, two content words—***question*** and ***paragraph***, **which are underlined in the table**—appear noticeably distinct. Although we cannot provide the full list of unigram words here due to space limitations, ***question*** appears in the United Nations side utterances with a frequency of 912 (rank of 28), whereas ***paragraph*** appears in the Communist side utterances with a frequency of 858 (rank of 26). From this, we may infer that the UN side more often raised concerns about issues, whereas the Communist side more frequently pointed to particular written items.

Table 7. Top 30 Most Frequent Words (Including Stop Words) on Each Side.

Freq. in UN Side Utterances						Freq. in Communist Side Utterances					
the	12056	is	2399	as	1243	the	9513	is	2115	as	1226
of	7527	i	1759	you	1206	of	6004	our	2013	not	1202
to	5925	be	1687	will	1124	to	5888	a	1864	are	1110
side	3737	this	1547	by	1114	that	3552	side	1807	would	992
that	3330	have	1506	both	1051	we	3355	have	1707	which	973
your	3300	on	1423	sides	1033	in	3185	be	1617	paragraph	858
in	3149	not	1376	are	982	your	2273	this	1570	by	854
we	3073	it	1349	question	912	and	2212	it	1435	will	813
and	2834	for	1302	with	907	you	2184	for	1309	with	797
our	2619	a	1287	would	787	i	2151	on	1271	at	625

Bigrams to quadrigrams that include stop words generally repeat smaller n-gram topics combined with articles (e.g., ***the***, ***a***) and prepositions (e.g., ***of***, ***in***, ***on***). Therefore, from this point onward, we present only the n-gram lists without stop words.

From Table 8, we can see that both sides mentioned similar issues such as *prisoners war*, *the armistice agreement, neutral nations, the demarcation line,* and *ports entry*. However, the United Nations side more frequently referred to *prisoners war, captured personnel*, *repatriation prisoners* in various expressions, while the Communist side more often mentioned *Colonel Chang* as their reference. These patterns suggest that both sides addressed the same topics while also emphasized their own distinctive priorities.

Table 8. Top 15 Most Frequent Bigrams (Without Stop Words) on Each Side.

Freq. in UN Side Utterances		Freq. in Communist Side Utterances	
prisoners, war	402	prisoners, war	309
would, like	350	would, like	234
neutral, nations	341	ports, entry	229
ports, entry	284	united, nations	207
armistice, agreement	241	armistice, agreement	200
can, not	227	neutral, nations	185
captured, personnel	201	nations, command	164
staff, officers	159	prisoner, war	124
personnel, side	140	can, not	112
agreed, upon	128	staff, officers	105
draft, armistice	124	military, armistice	97
entry, rear	117	red, cross	93
prisoner, war	112	colonel, chang	83
repatriation, prisoners	109	armistice, commission	83
demarcation, line	101	demarcation, line	75

Trigrams (Table 9) provide richer n-gram phrases such as *red cross teams* (70 and 49 occurrences from both side), *repatriation prisoners war* (108 from the UN side and 16 from the Communist side, the latter not shown in the right column due to low frequency), and *neutral nations inspection* than bi-grams listed above—e.g., *red cross, repatriation prisoners and neutral nations, military armistice*—. Interestingly, the Communist side mentioned *suggest recess tomorrow* 23 times and *pan mun jom* 21 times more often than the UN side, which mentioned 10 times and 11 times respectively (not shown in the left column due to lower frequency).

Table 9. Top 13 Most Frequent Trigrams (Without Stop Words) on Each Side

Freq. in UN Utterances		Freq. in Communist Utterances	
draft, armistice, agreement	124	united, nations, command	164
captured, personnel, side	116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79
ports, entry, rear	112	prisoner, war, camps	52
repatriation, prisoners, war	108	red, cross, teams	49
military, demarcation, line	85	neutral, nations, inspection	41
would, like, hear	75	neutral, nations, supervisory	38
agreed, upon, sides	72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36
prisoner, war, camps	71	nations, inspection, teams	35
red, cross, teams	70	draft, armistice, agreement	29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64	number, ports, entry	28
neutral, nations, inspection	63	suggest, recess, tomorrow	23
staff, officers, meeting	62	pan, mun, jom	21

Quadrigrams (Table 10) includes more concrete common topics of both sides such a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sick injured captured personnel*. Distinctively ranked topic phrases from both sides are underlined in Table 10. In the UN list on the left, *release repatriation prisoners war* (24 occurrences) is not shown in the

Communist list on the right due to its lower frequency. Likewise, *recess tomorrow usual time* (18 occurrences) and *suggest recess tomorrow usual* (14 occurrences) in the Communist list are not shown in the UN list.

Table 10. Top 10 Most Frequent Quadrigrams (Without Stop Words) on Each Side.

Freq. in UN Utterances		Freq. in Communist Utterance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59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35
joint, red, cross, teams	51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34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42	recess, tomorrow, usual, time	18
paragraph, draft, armistice, agreement	36	sick, injured, captured, personnel	14
sick, injured, captured, personnel	28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14
release, repatriation, prisoners, war	24	suggest, recess, tomorrow, usual	14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24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13
sentence, paragraph, draft, armistice	23	joint, red, cross, teams	11
draft, armistice, agreement, side	23	senior, member, liaison, group	9
sick, injured, prisoners, war	21	kuk, che, yon, hap	9

In summary, the n-gram frequency analysi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staff-officer discourse highlights both common focal points and side-specific linguistic mention tendencies. Both sides consistently invoked the same core issues, as evidenced by overlapping high-frequency terms – for example, prisoners of war, the armistice agreement, neutral nations, the demarcation line, and ports of entry appear prominently in the speech of both sides. This shared vocabulary reflects the joint focus on key negotiation agenda items. At the same time, each side also showed distinctive emphases mirroring their priorities: the United Nations staff officers more often referred to release (repatriation of) prisoners, whereas the Communist staff officers gave greater prominence to formal references like Colonel Chang and more frequently signaled recess.

5. Concluding Remarks and Discussion

We (mostly) belong to the generations born after the Korean War ended with an armistice. The war stopped 73 years ago, and ever since, we have remained separated into two countrie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lthough we can only gather and examine historical documentation and infer fragmented information by analyzing linguistic features—at least an explicit form of ideas preserved in the records of that period—we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additional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Korean War, the world that was engaged in it, and the approaches we use to engage with the contemporary world shaped by digital infrastructure.

Our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taff officers' armistice talk records indicates that the negotiation proceeded with largely parallel turn-taking. However, the Communist side delivered slightly shorter utterances on average than the UN side. The talks involved multilingual delegations, and although stenographers and translators produced mutually verified records, the dominanc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on the UN side and non-English speakers on the Communist side suggests that the transcripts, while factually reliable, may not fully preserve the linguistic richness of original exchanges.

Overall, the frequent n-gram patterns suggest that, although both parties concentrated on the same substantive topics, they also framed them in different ways aligned with their respective perspectives and rhetorical strategies. High frequency unigrams such as *i, you, we, your, our* along with *side*, reflect the bilateral nature of the talks. The higher frequency word, *question* on the UN side and higher frequency word, *paragraph* on the Communist side show their respective strategies. Similarly, the frequent UN bigram, *repatriation prisoners* and trigram, *repatriation prisoners war* contrasted with the frequent Communist bigram, *Colonel Chang* and trigram, *suggest recess tomorrow*,

highlight each side's distinctive priorities and perspectives. Furthermore, the above descriptive n-gram profile provides a solid foundation for the next stage of the study. We will move from frequency counts to a more interpretive comparison, examining how these linguistic patterns between the two sides, potentially mark and carry broader historic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ar armistice negotiations.

This research demonstrates how computational methods, including stylometric analysis and n-gram techniques, can illuminate the linguistic dynamic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discourse. By bridging traditional humanities inquiry with computational data-analytical approaches, this study not onl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War and the global forces engaged in it but also underscores the potential of digital infrastructure for re-examining shared histories. Future research may expand thi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by incorporating more advanced models as AI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and by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scholars across disciplines.

Acknowledgemen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graduate student research assistants, Cellik Adams, Clara Delort, Sidney Nurnberger, Ian Hall, and Kate McDowell for their contributions to data clean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5S1A6B5A01004124).

Reference

Choi, Yookyoung (2024) 'The Phantomic We: Mapping the DMZ by Yong Soon Min,' *Korea Journal* 64.1, 185-216.

Chaski, Carole E. (1997) 'Who Wrote It? Steps Toward a Science of Authorship Identifica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ournal* 233, 15-22.

_____ (2001) 'Empirical Evaluation of Language-Based Author Identification Techniqu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the Law* 8-1, 1-65.

_____ (2007) 'Multilingual Forensic Author Identification Through N-Gram Analys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Linguists* 8, Seattle, WA.

_____ (2012) 'Author Identification in the Forensic Setting,' in Solan, Lawrence M., and Peter M. Tiersma. (ed.)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Law*, Oxford University Press.

Cumings, Bruce (2010) *The Korean War: A History*. A Modern Library Chronicles Book.

Glass L., Markus Dickinson, Chris Brew, and Detmar Meurers (2024) (2nd edition) *Language and Computers*. Language Science Press.

허만호(2017)『6.25전쟁 휴전회담과 역사적 유제들』, 한국학술정보.

H. Shivnani, R. Sontakke, B. Sisode, P. Puri and R. Patil (2024) 'Next Word Prediction System using NL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lectronics and Computing Technologies (ICEECT)*, Greater Noida, India, 1-5, doi: 10.1109/ICEECT61758.2024.10739289.

Hirst, Graeme and Olga Feiguina (2007) 'Bigram of Syntactic Labels for Authorship Discrimination of Short Texts.'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22-4.

Lagutina, K. et al. (2019) 'A Survey on Stylometric Text Features,' *25th Conference of Open Innovations Association (FRUCT)*, Helsinki, Finland, 184-195, doi: 10.23919/FRUCT48121.2019.8981504.

Jung, Byung-Jun (2006) "The bibliographical notes of Korea polit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정병준 (2006)「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Jo, EunKyoung (2024) *Korean Studies and Data Science*. Sogang University Press. (조은경(2024)『한국학과 데이터과학』2025세종 도서, 서강대 출판부)

Kim, Bo-Young (2016) *War and Armistice*. Hanyang University Press. (김보영(2016)『전쟁과 휴전-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 출판부)

Laurie Bauer, Janet Homes and Paul Warren (2006) *Language Matters*, Palgrave Macmillan.

McMenamin, Gerald R. (1993) *Forensic Stylistics*. Amsterdam: Elsevier.

_____ (2002) F*orensic Linguistics: Advances in Forensic Stylistics*. London:CRC Press.

Shin, Gi-Wook (2010) *'Why the News Media? Data and Methods,' in One Alliance, Two Lens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uek, William (1995)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uen Ching Y. (1979) 'n-Gram Statistics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and Text Processing,'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PAMI-1.2*, 164-172. doi: 10.1109/TPAMI.1979.4766902.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Korean War Armistice Meeting Records. (https://db.history.go.kr/id/pn, 2025.11.30)

NLTK (https://www.nltk.org/, 2025.11.30)

Stewart Yang, Hongjun Zhu, Ariel Apostoli, and Pei Cao (2007) 'N-gram Statistics in English and Chine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mantic Computing (ICSC '07). *IEEE Computer Society, USA*, 454–460. https://doi.org/10.1109/ICSC.2007.62

Le Quan Ha, Philip Hanna, Ji Ming, and F. J. Smith (2009) 'Extending Zipf's law to n-grams for large corpora.'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32, 1–4*, 101–113. https://doi.org/10.1007/s10462-009-9135-4

Elizabeth Anna Gordon and Korean Buddhism

－A Pioneer of Interreligious Dialogue in East Asia－

Hyangsoon Yi*

University of Georgia

1. Introduction

This article concerns Elizabeth Anna Gordon (1851-1925), a self-fashioned British scholar on early Christianity and comparative religion. Gordon traveled to Japan twice, in 1891 and 1907, before settling there as a devoted student of Buddhism. In the spring of 1913, she visited Korea to tour Buddhist monasteries, and her findings in the trip were published in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14) and in her book, *Symbols of 'The Way': Far East and West* (1916).[1] In these works, she claimed to have discovered evidence of a ki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Mahayana Buddhism. When Gordon died in Kyoto in 1925, her ashes were divided according to her will to be buried at Mt. Koya (高野山) in Japan and the Diamond Mountains (金剛山) in Korea.

Despite her notable contribution to our understanding of the East-West religious encounter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Gordon's life and achievements have received little serious scholarly attention. No proper biography is yet available. Japanese materials on her generally highlight two aspects

* Professor

E-mail: hyangsyi@uga.edu

1 These journal and book will be referred to as *Transactions* and *Symbols*, respectively hereafter.

of her career: her distinct role in advancing Anglo-Japanese friendship, and her close affiliation with the Shingon school of Buddhism (真言宗). The problem with her portrayal in Japanese popular media is the tendency to recycle the same information by citing each other without investigating original sources. Korean articles on Gordon suffer even more from a lack of historical veracity. Furthermore, they often problematically frame her work as evidence for the claim that Christianity arrived in Korea during the ancient period.

As a first step toward addressing the above issues, this article aims to elucidate Gordon's interreligious and intercultural perspective on Korean Buddhism as reflected in *Transactions* and *Symbols*. To provide the necessary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text, I also examine two books published prior to *Symbols*: *The Lotus Gospel; Or, Mahayana Buddhism and Its Symbolic* Teachings, Compared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with Those of Catholic Christianity (1911); and *"World-Healers"; Or, The Lotus Gospel and Its Bodhisattvas, Compared with Early Christianity* (1912).[2] The present analysis first sketches Gordon's life, focusing on the vicissitudes in her intellectual and religious inclinations. Following this biographical overview, the core of the article investigates her discoveries in Korea to unravel the discursive formation of comparative religion among Christian missionaries and Western expatriates in East Asia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Finally, I discuss Gordon's position within that broad inter-Asian network of information circulation, specifically highlighting her influence on James Scarth Gale, the first Canadian missionary to Korea.

2 These two books will be referred to as *Lotus Gospel* and *World-Healers*, respectively hereafter.

2. Who is Elizabeth Anna Gordon?

Currently, published biographical information on Gordon is available only in snippets and is severely deficient of substantiated facts. Moreover, her reputation stems nearly exclusively from her activities related to Japan. Her formative years, marriage, and family life remain shrouded in obscurity. What is offered here, therefore, is her life course captured in broad strokes from existing biographical materials in print and online.

According to records at the British Museum, Elizabeth Anna Gordon was born in 1851 in Crumpsall, Lancashire as the daughter of John Snowdon Henry (1824-1896) and Anna Elizabeth Henry (1828-1899) (Hall 1975 I: 11).[3] John Henry was a business man from Bonchurch, Isle of Wight, who served as a Conservative Member of Parliament from 1868 to 1874. His wife, née Wood, was from Durham. It is unknown how many children the couple had. It is highly likely that Elizabeth was tutored privately, as was typical for upper-class girls in the Victorian era (Hall 1975 II: 12). It is noteworthy that accounts of the young Elizabeth commonly stress her intelligence and penchant for religious matters. Her knowledge of Christian history reportedly surpassed that of most well-educated English ladies, and she was actively involved in Bible studies for children. This precocious young lady published at least five titles before her marriage at the age of twenty-eight, raising questions about the trajectory of her intellectual growth (Koyama 2013: 351). One name that emerges unmistakably in this regard is Friedrich Max Müller (1823-1900), the towering Orientalist at Oxford. In a letter to Paul Carus (1852-1919), Gordon remarked that she "studied with [her] dear friend, Max Müller" (Gordon 1915: 575). Thus, her foundational training in comparative religion is attributable,

3 Manly P. Hall speculates that Elizabeth Anna Henry was born in 1849, but 1851 is now generally accepted as her birth year in academia.

to a considerable extent, to her interaction with Müller.

In 1879, Elizabeth Henry married John Edward Gordon (1850-1915), the eldest son of Baron Edward Gordon of Drumearn (1824-1879). John inherited the title 'Honorable' from his father; hence, Elizabeth was also referred to as the 'Honorable' or 'Lady' Gordon. The couple had two sons and three daughters: Ronald, Erie, Marjorie, Alma, and Violet.

In 1891, at the age of forty, Elizabeth and her husband embarked on a three-and-a-half-month grand tour of the world (Hall 1975 I: 25),[4] which resulted in her first travelogue: *"Clear Round!"; Or, Seeds of Story from Other Countries* (1893).[5] Several chapters of this popular book focus on Japan, exhibiting the author's enthusiastic observations of their religious life. Her first-hand experience of Asia convinced Elizabeth Gordon of a striking parallel between Buddhism and Christianity. This conviction regarding "interreligious unity" led her to further research ancient Egyptian beliefs (Hall 1975 I: 14). Her subsequent interpretation of Assyrian writings and symbols "deeply impressed" Archibald Henry Sayce (1845-1933), an eminent scholar of Assyrian civilization (Hall 1975 I: 14).

Lady Gordon's second voyage to Japan in 1907 marks a major nodal point in her biography. Upon arriving in Tokyo, she helped establish the Hibiya Library in 1908 by donating approximately 100,000 English books collected through her 'Books for Japan' project. She also provided 1,500 pounds to maintain the collection in what was Japan's first public library (Koyama 2013: 355).[6] The purpose of her trip was thus fulfilled, yet she did not leave Japan for the

4 This sea travel began in Liverpool and ended in Montreal, Canada. The Gordons took the train from Montreal to Vancouver and then transferred to another steamship, which took them all the way to Japan via the Bering Strait.

5 This book will be referred to as *Clear Round!* hereafter.

6 This project was initiated by Takakusu Junjiro (高楠順次郎 1866-1945), who had known Gordon from his student days at Oxford. Like Gordon, he studied under Müller at Oxford.

next decade or so, even staying through the news of her husband's death in a nursing home in 1915.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her absence at John Gordon's deathbed suggest a souring conjugal relationship, which may have motivated her extended stay in Asia (Koyama 2013: 357).[7]

What finally prompted her to return to England in 1916 was a letter from her son, Erie, informing her that her other son, Ronald, had been killed in action during World War I. Gordon spent four years in England before moving back to Japan in 1920. This time, she settled in Kyoto, making the city's first Western-style hotel her home until her final moments. Accounts of her later years agree that she lived a cloistered life in her hotel room, attended to by a single male staff member. Her deteriorating health resulted in virtual confinement; there, she reportedly immersed herself entirely in reading and writing until her death in 1925. During this period, however, she forged special ties with the Shingon school, which provided her with a strong foothold in Kyoto for her spiritual as well as intellectual exchange and engagement with Japanese monks, scholars, and diplomats. Her funeral was conducted in a Buddhist manner in Toji (東寺), making her the first Westerner to be bestowed a posthumous dharma name by the Shingon establishment. A tombstone was later erected in her honor in the sacred precincts of Mt. Koya.

3. Gordon and Korean Buddhism

Her veiled personal life aside, the persistent driving force behind Gordon's life from the mid-1890s onward was an insatiable pursuit of knowledge regarding East-West religious contact. Throughout her long self-exile in East Asia, she delved into the physical and metaphysical linkages between early

7 According to Noboru Koyama (2013: 357), Saeki Yoshiro (佐伯好郎 1871-1965) suggested that Elizabeth Gordon had separated from her husband before she came to Japan.

Christianity and Mahayana Buddhism. Her obsession with this subject was bound to awaken her to the importance of Korean Buddhism, which she initially encountered textually as the primary vehicle for the transmission of the Buddhist faith to Japan. Simultaneously,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her to overlook Korea's geographic location in her search for signs and sites indicative of Christianity's eastward movement, a journey she believed was destined for the 'Land of Sun Rise.' References to Korea appear as early as *Clear Round!* and *The Temples of the Orient and Their Message in the Light of Holy Scripture, Dante's Vision, and Bunyan's Allegory* (1902); however, the few mentions of ancient Korea in these two works are little more than shallow echoes of *Nihongi* (日本書紀) entries, including their mythical content. Starting with *Messiah, the Ancestral Hope of the Ages, "The Desire of All Nations"* (1909),[8] her first book published in Japan, Gordon's statements on Korea became more detailed and cautious, occasionally citing contemporary Western and Japanese experts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Messiah*, she introduces a stone ram brought to Tokyo from northern Korea in 1908. Apparently, this zodiac guard of a noble tomb struck Gordon with its resemblance to the "gazelle standing on a lotus of Nebuchadnezzar II" and the "ram found near Khartūm" (Gordon 1909: 153). She was further astounded by the lilies carved on a stone pillar accompanying the ram. Suspecting that these two ritual objects were connected to symbols of Christ and the resurrection, she traced their historical and geographical origins back to ancient Ethiopia. The ram and the lily, according to her research, traveled from North Africa to India and reached the northern Korean Peninsula via Central Asian caravan routes (Gordon 1909: 183). Her archaeological endeavor concludes with the argument that the stone ram signifies Messiah, the "Desire of All Nations" (Gordon 1909, frontmatter).

8 This book will be referred to as *Messiah* hereafter.

Fully cognizant of Korea's vital contribution to spreading Buddhism to Japan, Gordon expanded her account of monastic envoys and sacred gifts from the Three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in *Lotus Gospel* (1911) and *World-Healers* (1912).[9] One of the central topics of these books concerns the tumultuous process by which Buddhism took root in Japan from the sixth to the eighth century. The underlying comparative impulse of her chronological survey is illustrated by her description of nascent Japanese Buddhism in tandem with the early Christian church. In juxtaposing the two spiritual traditions, she highlights the coevality of crucial historical events that affected their respective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developments. Incidents from places geographically distant and culturally foreign to each other are united through symbols and allegories that show stylistic, semantic, or functional similarities. Gordon's analysis is ultimately directed towards ascertaining universal archetypes in spirituality that transcend temporal and spatial barriers.

Among the host of insightful ideas found in *Lotus Gospel* and *World-Healers*, the most useful in the present context is her explanation of why she was so intrigued by the Shingon sect among all the Buddhist schools in East Asia. Her attraction to this branch of Buddhism can be approached in terms of Logos, Light, Life, and Love, which she enumerates as constituents of Truth. The first two elements deserve special attention. Gordon defines Logos as "Reason, Thought, or Word" (Gordon 1911: 22). As a linguistic kernel of Logos, 'Word' instantly puts the Shingon tenets on par with Christian theology. The two sinographs for Shingon, '眞言,' stand for 'true word,' whose Sanskrit version, dhāraṇī, is usually rendered as 'mantra' in English. The Shingon doctrine and practice pivot on the mantra, a mysterious Sanskrit text whose meaning cannot be deciphered. The primacy of Word as a medium in the Shingon trajectory is acknowledged by Gordon: "'Shingon' liter-

9 These two books are essentially the same in their contents and formats.

ally means *'At His Bidding,'* and it signifies exactly the same as our 'Logos, Word, or Voice'" (Gordon 1911: 22). In the Shingon sect's discourse on religious experience, not only 'seeing' but also 'saying' is an ideal method, as the mantra's salvific efficacy is realized by dint of ritual chant. In theory, the recitation of the mystical passage catalyzes the practitioner's spiritual breakthrough and enlightenment. The mantra's dual mode of existence and exercise—textuality and orality—matches the double meanings of the term 'Logos' in Greek: "Word immanent (*Logos endiathetos*), and Word Uttered (*Logos prophorikos*)" (Gordon 1911: 22).

Another conspicuous parallel between Shingon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Gordon's purview is their shared use of Light symbolism. In the West, God has long been imagined as Light or the Sun, the ultimate source of illumination. Gordon, being well-versed in this rhetorical convention, likely intuited the identical significance of Light in the veneration of Dainichi Nyorai (大日如來) in Shingon Buddhism. The profound impression this supreme Buddha of Esoteric Buddhism made on Gordon is evident in her stylistic choices; she consistently favors the Japanese term 'Dainichi Nyorai' over its original Sanskrit counterpart, 'Mahavirocana.' The former appellation—'Tathagata of the Great Sun'—vividly foregrounds the visual imagery of abundant and inexhaustible light. Similarly, the 'Dharani of Bright Light' (光明眞言) upheld by Shingon practitioners underscores the imperative role of Light in their faith and spiritual progress. This central position of Light likely convinced Gordon that Esoteric Buddhism was the ideal subject for her comparative studies, ultimately motivating her deep commitment to the Shingon sect.

Once she accepted Shingon Buddhism as the Asian counterpart of early Christianity, her research extended to Maitreya, the Future Buddha. Maitreya provided essential support for Gordon's project to demonstrate the ubiquity of 'Messiah' in the Eastern religious landscape. Notably, the frequency and depth

of her discussions regarding Maitreya stand in sharp contrast to the virtual absence, or even dismissal, of Sakyamuni throughout her essays and books.

A third factor accounting for Gordon's fascination with Shingon Buddhism seems to be Kukai (空海 774-835), the founder of the sect. Kukai traveled to China in 804 for a systematic study of Esoteric Buddhism and stayed there for two years. When he returned to Japan in 806, he introduced a new spiritual path based on Esoteric practice to Japanese Buddhist society and established the Shingon sect, headquartered at Kongobuji (金剛峯寺) on Mt. Koya. As the founding patriarch of the Shingon lineage, Kukai, now known as Kobo Daishi (弘法大師), clearly elicited Gordon's admiration. More importantly, however, his two-year quest for Truth in China must have piqued Gordon's scholarly interest because the timeframe suggested a strong possibility of an encounter with Nestorian Christianity. The early ninth century marked the heyday of the Nestorian Church in China; the Tang court's positive reception of the faith and the church's vigorous missionary activities among the Chinese people were epitomized by the Nestorian Stele erected in Chang'an (長安) in 781. Given this historical context, it is not surprising that Gordon suspected Nestorian influence on Kukai's spiritual development. This perceived plausibility of Kukai's encounter with Christianity is likely to have fueled her passion for investigating Shingon doctrine, rituals, and artworks. In the meantime, she learned that the Nestorian Monument went missing from its original site, hence, inaccessible. Deploring this loss, she commissioned a replica of the tablet and erected it on Mt. Koya in 1916, shortly before her departure for England.

Gordon's embrace of Shingon Buddhism and her search for the traces of early Christian missions in East Asia seem to account for her approach to the Korean Buddhist tradition. To Gordon, Korean Buddhism represented an uncharted, "virgin" territory for research (Gordon 1914: 1). Although her

1913 itinerary in Korea cannot be fully reconstructed from existing records, her fieldwork was apparently fruitful. At the outset of a public lecture delivered to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n 1913, she reported that the tour had yielded "magnificent results" (Gordon 1914: 1). These findings, she claimed, validated her hypothesis regarding "remarkable Evidence of Early Christianity in Korea prior to, as well as synchronous with, the Patriarch Nestorius of Constantinople" (Gordon 1914: 1). The proofs she presented for this grand claim began with the Diamond Mountains, a name she emphasized was derived from Gautama Buddha's 'Diamond Prophecy' regarding Maitreya (Gordon 1914: 6). In the printed version of her speech in *Transactions,* she argues that the 'Diamond Gate,' a massive cave in the mountains, held profound significance through its association with Maitreya. According to Gordon, Maitreya is "the Coming Messiah of Buddhists," and the name 'Maitreya' is etymologically related to the Syriac 'Meskikha' (Messiah) and the Greek 'Christos' (Gordon 1914: 7). Furthermore, she found the frescoes in the mountain temples to be undeniable conveyors of "Infinite Light, Immortal Life, and Immeasurable Love" as described in the "Lotus Gospel" (Gordon 1914: 9). Her commentary on the Diamond Mountains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the name 'Kongobuji' (Temple of the Diamond Mountain Peak) was directly inspired by Korea's 'Diamond Temple,' a name Kukai allegedly chose to identify the head temple of his new Shingon order.

Maitreya serves as the interpretive linchpin for many of the discoveries Gordon made in Korea. She argues, "on the whole, Maitreya holds a more prominent position in Korea than in Japan" (Gordon 1914: 10). To bolster this claim, she documented a wide variety of visual and iconic representations of the Future Buddha encountered during her fieldwork. These range from a small statue in the Residency Garden in Seoul to a colossal figure excavated in Kyŏngju (慶州). Gordon even acquired two tiny bronze sculptures of

Maitreya for her private collection. One of these figures featured an unnaturally long arm relative to its body size, a detail that recalled for Gordon the Biblical passage regarding "the Right Hand and the Holy Arm" that enabled the "Saviour-God of Israel" to win the "Victory" (Gordon 1914: 10). In this manner, Maitreya functions within Gordon's vision of Messianism as a unifying force between the two religions.

Sŏkkuram (石窟庵) further supported Gordon's hypothesis on ancient exchanges between Christian and Buddhist communities. In her view, the structure of the grotto, the Sakyamuni Buddha enshrined on the altar, and the protective deities carved into the surrounding walls of the crypt resonate powerfully with Hellenistic aesthetic traditions. In terms of their religious connotations, those features of the grotto resemble Christian architectural traits. Among all the noteworthy details of this small cave temple in Korea, sh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ree sacramental objects near the entrance: incense, a chalice, and flabellum. By underlining the liturgical use of the same items in Western Christianity, she reiterates her comparatist stance: "I believe … that the most remarkable evidence of all, concerning the existence and influence of Early Christianity in Korea, is afforded by the discovery of these Sacramental Objects of which are 'undeniably' Christian" (Gordon 1914: 21).

Although Gordon's research is comparative, interreligious, and intercultural in principle,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her conceptual framework and interpretive schemata remain fundamentally grounded in Christian spirituality and theology. The swastika, for instance, is one of the quintessential markers of Buddhism in Korea. Gordon identifies it as a variant of the cross. This thought-provoking, if controversial, idea manifests in her discussion of five pictures of Maitreya at Ch'ŏngnyang Monastery (清凉寺). The Maitreya figures, according to her observation, were positioned directly above dramatic scenes of the Dragon Boat of Wisdom (般若龍船) depicted on a temple wall.

What captured her keen eye and imaginative mind were the swastikas painted on the chests of these Buddhas. She notes that "the Svastika is the only cross represented in the Roman Catacomb-frescoes and found alike on the mantle of the Good Shepherd" (Gordon 1914: 11). As a cross, she argues, the swastika functions as a "symbol of Immortal Life and of harmony, i.e. At-one-ment." Philologically, she elucidates that 'At-one-ment' refers to the Christian doctrine of Atonement (Gordon 1914: 11). Her tendency to conclude her analyses with a Christian touch recurs in her linguistic investigations. A striking case involves the name of Ibullansa (伊弗蘭寺), one of the first temples built in Korean history following the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by the Koguryŏ (高句麗) kingdom in 372. Gordon was astonished to find that 'Ibullan' phonetically resembled 'Ephraim.' On the basis of their proximity, she concluded that the name of this Koguryŏ temple was a reference to 'Israel' (Gordon 1914: 14).

Such over-generalizations permeate Gordon's scholarship. Nevertheless, she remained unwavering in her conviction that Korea served as a fertile contact zone for early Christians and Mahayanists. Recognizing the Diamond Mountains as a paramount site of interfaith history, she commissioned a second replica of the Nestorian Stele and erected it in front of Changan Monastery (長安寺) to immortalize the arrival of Christianity in Korea. Her devotion to the Diamond Mountains was so profound that she ultimately chose to be inscribed into the sacred landscape itself; her cremated ashes, it is speculated, were placed there, permanently marking the site of her extraordinary journey.

4. The Triadic Relationship between Gordon, James Scarth Gale, and Timothy Richard

Gordon's quasi-missionary zeal to track the expansion of Syriac Christianity into ancient Korea was brought to light by James Scarth Gale (1863-1937). During a family trip to the Diamond Mountains in 1917, Gale accidentally discovered that Gordon had visited the site and donated a replica of the Nestorian Tablet. Gale, who lived in Korea from 1888 until his retirement to England in 1927, had developed a profound interest in Korean intellectual history early in his ministry. He devoted himself to translating premodern Korean classics into English while simultaneously rendering the Bible and other Christian texts into Korean. However, while he held the Korean Confucian heritage in high esteem, his attitude toward Buddhism remained ambivalent, if not outright dismissive.

As Gale's understanding of Buddhism's vital role in Korean history and culture deepened, his perspective on this 'heathen' faith began to change. In 1915, he translated *P'alsangnok* (八相錄, Record of the Eight Marks), a native Korean biography of Sakyamuni Buddha, under the title 'Life of the Buddha.'[10] Despite this impressive accomplishment, however, his preface still betrays lingering concerns regarding the precis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Buddhism. Though discovered by chance, Gordon's extraordinary activities in the Diamond Mountains seem to have provided Gale with an epiphany regarding the interreligious questions that had weighed on him throughout his translation work.

In turn, it was through Gale's 'The Diamond Mountains' that Gordon's Nestorian Stele and her book, *Symbols*,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According to Gale's travel diary, one side of the Nestorian

10 Gale's translation was published as a book titled *Life of the Buddha* in December 2025.

Tablet bears the following inscription: "After 1134 years, A.D. 1916, 5th Moon (May) an English lady, Gordon, had this stone cut and set up as a memorial before the Changan Temple." The reverse side displays Gordon's statement: "After 1079 years in kyemi (1859) of Hamp'ung, Han T'aehwa [韓泰華] had the original stone placed under a pavilion. I regret to say that visitors were not allowed to see it" (Gale 1922: 23). Gale's journal entry on P'yohun Monastery (表訓寺) also records the news that Gordon sent the temple's abbot her new book, *Symbols*, together with Timothy Richard's (1845-1919) *Epistle to All Buddhists throughout the World*.

The above two volumes reveal the 'triangular' flow of information between Gordon, Richard, and Gale. While a full-scale discussion of their relationship is beyond the scope of the present article, it is worth noting that their connection was emblematic of an emerging circle of comparative religionists in East Asia who individually and yet vigorously theorized Buddhism as the Asian manifestation of Christianity. The leader of this loosely networked group was Timothy Richard, a Welsh Baptist missionary in China. Richard was a missiological mainstay for many Protestant missionaries seeking ideological and ethical grounds for proselytizing local populations. His interpretation of Mahayana doctrine as the Christian Gospel rendered in Buddhist terminology provided a persuasive rationale and strategic framework for their conversion efforts. Richard's universalist stance on interfaith thought exercised a tremendous impact on Gordon, whose writings frequently quoted his works,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Doctrine —The New Buddhism* (1907) and *The New Testament of Higher Buddhism* (1910). Similarly, Gale was indebted to the latter book when he felt uncertain about the values of translating the Korean biography of the Buddha for a Western audience. In Richard's work, Gale found confirmation of the "good things" in Buddhist spirituality, virtues he had long sought and eventually rec-

ognized through his own immersion in Korean Buddhist culture (Rutt 1972: 62). As a veteran missionary translator capable of rendering Mahayana sutras from Chinese to English, Richard became an invaluable model for Gale as he undertook his 1915 translation of the Buddha's life story. Ultimately, it was Gordon who linked these two missionary translators, mediating an indirect yet productive dialogue between them. Here lies another angle from which to assess Gordon's role in propagating the dominant transregional religious ideology of her time across the expatriate community in East Asia.

5. Towards a Full Portrait of Elizabeth Anna Gordon

Gordon was undoubtedly a key figure in the burgeoning field of comparative religion in early twentieth-century Asia. Significant archival work is still required to fully reconstruct her life and career following a century-long oversight of her impressive, if eccentric, accomplishments. Some say that she was the first student of Max Müller, while others assert that she served as a lady-in-waiting to Queen Victoria. Furthermore, a cloud of mystery obscures the final phase of her expatriate life in Japan, where she lived in seclusion as an invalid guest in a hotel, largely withdrawn from public view. A long chain of inquiries inevitably arises once one begins to peer through the small window of her life story. From a contemporary vantage point, her research appears to be marred by methodological, ideological, and substantive flaws. Nonetheless, her underlying drive to harmonize world religions was, as her mentor Müller described it over a century ago in his introductory letter to *Clear Round!*, nothing short of "excellent" (Gordon 1893, frontmatter).

Reference

Carus, Paul (1914) 'The Lotus Gospel (Illustrated),' *The Open Court* 1914.9, 549-556.

Gale, James Scarth (1922) 'The Diamond Mountain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3, 1-67.

Gale, James Scarth, trans. (2025) *Life of the Buddha*. Hyangsoon Yi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Gordon, Elizabeth Anna (1893) *"Clear Round!"; Or, Seeds of Story from Other Countries*, London: S. Low, Marston.

Gordon, Elizabeth Anna (1902) *Temples of the Orient and Their Message in the Light of Holy Scriptures, Dante's Vision, and Bunyan's Allegory*,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Co. Ltd.

Gordon, Elizabeth Anna (1909) *Messiah, the Ancestral Hope of the Ages, "The Desire of All Nations," as Proved from the Records on the Sun-Dried Bricks of Babylonia, the Papyri and Pyramids of Egypt, the Frescoes of the Roman Catacombs, and on the Chinese Incised Memorial Stone at Cho'ang,* Tokyo: Keiseisha.

Gordon, Elizabeth Anna (1911) *The Lotus Gospel; Or Mahayana Buddhism and Its Symbolic Teachings, Compared to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with Those of Catholic Christianity*, Tokyo: Waseda University Library.

Gordon, Elizabeth Anna (1912) *"World-Healers"; Or, The Lotus Gospel and Its Bodhisattvas, Compared with Early Christianity*, Tokyo: E.L. Morice.

Gordon, Elizabeth Anna (1914) 'Some Recent Discoveries in Korean Temp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Early Eastern Christianit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5, 1-39.

Gordon, Elizabeth Anna (1915) 'The Lotus Gospel,' *The Open Court* 1915.9, 574-575.

Gordon, Elizabeth Anna (1916) *Symbols of 'The Way': Far East and West*, Tokyo: Maruzen.

Hall, Manly Palmer (1975) 'E. A. Gordon: Part I,' *PRS Journal* 35.2, 8-27.

Hall, Manly Palmer (1975) 'E. A. Gordon: Part II,' *PRS Journal* 35.3, 28-53.

Koyama, Noboru (2013) 'Elizabeth Anna Gordon (1851-1925),' in Hugh Cortazzi (ed.) *Britain and Japan: Biographical Portraits* 8, Folkstone, U.K.: Global Oriental, 351-359.

Richard, Timothy (1907)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Doctrine — The New Buddhism*,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Richard, Timothy (1910) *The New Testament of Higher Buddhism*, Edinburgh: T. & T. Clark.

Richard, Timothy (1916) *An Epistle to All Buddhists throughout the World*,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Rutt, Richard (1972)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From Diagnosis to Autonomous Mastery

－A Multimodal AI Framework for Self-Directed Korean Pronunciation Learning－

Joeun Baek*

Korea University

1. Introduction

Pronunciation is one of the most persistent challenges in second language (L2) acquisition, especially among learn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is difficulty is particularly pronounced for Mongolian learners, whose first language (L1) lacks phonemic counterparts for several Korean sounds. Studies show that Korean tense consonants such as /ㄲ/, /ㄸ/, and /ㅃ/, as well as centralized vowels like /ㅡ/, pose considerable difficulty for Mongolian speakers due to significant L1-L2 phonological mismatch (안성민 2023; 안성민 2024; 울찌자르갈·안성민 2024). These learners also struggle with final consonant clusters and pitch contour variations, which are absent or used differently in Mongolian phonology.

Traditional pronunciation instruction, often teacher-centered and corrective, fails to provide individualized practice, immediate feedback, and learner autonomy required to address such challenges. In respons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have introduced scalable, personalized, and flexible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teaching. Among them, conversational AI

* Ph.D candidate
E-mail: joeunbaek@u.boisestate.edu

tools such as ChatGPT offer learners opportunities to engage in text-based pronunciation practice, metacognitive reflection, and feedback-seeking behaviors in an asynchronous and self-paced environment. Yet, accurate pronunciation development demands more than textual modeling. It requires tools that analyze and visualize speech in multimodal formats.

Recent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erceptual awareness and repeated phonetic exposure in addressing cross-linguistic interference (Flege 1995; Best & Tyler 2007). Additionally, self-directed and self-regulated learning models emphasize the learner's agency in diagnosing and remediating pronunciation errors through iterative feedback and reflection (Zimmerman 2002; Candy 1991). These insights inform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This paper presents a conceptual model of AI-assisted self-directed pronunciation learning (SDPL) designed to support autonomous pronunciation improvement, with ChatGPT at its core. As a large language model, ChatGPT enables learners to engage in personalized, text-based pronunciation practice, metacognitive reflection, and low-stakes rehearsal. It was selected for its versatility as an interactive tutor capable of generating customized prompts, encouraging self-monitoring, and simulating communicative contexts (VanLehn 2011).

The model further integrates three specialized tools that complement ChatGPT's textual affordances with multimodal support. Whisper (https://openai.com/index/whisper/), an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SR) system developed by OpenAI, was chosen for its robustness in transcribing accented L2 speech and signaling intelligibility issues through recognition mismatches (Ballier & Méli 2024). Elsa Speak (https://elsaspeak.com/en/), a mobile-based pronunciation training app, provides detailed phoneme-level feedback and adaptive scoring; it has demonstrated measurable effects on L2 pronunciation

accuracy in prior studies (Ravenor 2024; Gusrianto & Iswahyuni 2024). Lastly, SWPhonetics (https://swphonetics.com), a tool for acoustic visualization, was included for its ability to render waveform, pitch, and formant contours—making abstract prosodic features visually accessible and enabling learners to monitor articulatory changes over time.

These tool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demonstrated efficacy and complementary strengths in diagnostic analysis, interactive rehearsal, phonetic visualization, and feedback granularity. ChatGPT provides interactive scaffolding and reflection support (VanLehn 2011); Whisper offers robust transcription -based intelligibility diagnostics (Ballier & Méli 2024); Elsa Speak delivers segment-level coaching validated in applied studies (Ravenor 2024); and SWPhonetics enhances perceptual clarity through visual-acoustic analysis of pitch and timing patterns. Together, they form a multimodal and pedagogically balanced feedback ecosystem that enhances learners' phonological awareness, supports iterative self-correction, and addresses both cognitive and perceptual challenges in L2 pronunciation learning.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theoretically grounded and practically applicable model that enables language learners to develop pronunciation skills independently using AI tools. This guiding aim can be expressed as the following driving question: How can AI technologies—particularly ChatGPT and multimodal feedback tools—be systematically integrated to support self-directed pronunciation learning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From this central purpose, the study also addresses three subsidiary research questions (RQs):

RQ 1: What are the critical design elements of an AI-assisted SDPL model grounded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and self-directed learning?

RQ 2: How can multimodal AI feedback tools be aligned to support diagnostic accuracy, metacognitive reflection, and iterative improvement?

RQ 3: In what ways does the model promote learner autonomy and sustained engagement in pronunciation practice?

Unlike studies focused on pronunciation teaching, this paper highlights the learning process, emphasizing the learner's role in setting goals, seeking feedback, and monitoring progress. The model assumes that AI tools, when well-integrated, can empower learners to take control of their own pronunciation development.

2. Theoretical Framework

The revised SDPL framework integrates foundational theories across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acqui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AI-mediated feedback design. By synthesizing these domains, the model aims to guide autonomous learners in improving pronunciation accuracy through iterative practice, metacognitive reflection, and hybrid feedback mechanisms.

2.1.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Acquisition

Flege's Speech Learning Model (1995) and Best & Tyler's 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2007) provide foundational and complementary frameworks tha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second language (L2) speech development. Flege's model emphasizes that L2 learners initially perceive and produce new speech sounds through the prism of their first language (L1) phonological system, which acts as a filter shaping their audi-

tory and articulatory processes. This L1 filter often causes learners to substitute unfamiliar L2 phonemes with the closest phonetic equivalents present in their native language, resulting in segmental substitution errors and inaccurate articulatory patterns. Such substitutions persist because L2 learners' perceptual and motor systems are initially attuned to L1 categories and lack fully developed representations for novel L2 phonemes. This phenomenon explains the common challenges observed in acquiring accurate L2 pronunciation, especially when the L2 phonemic inventory differs considerably from that of the L1 (Flege 1995).

Best & Tyler's 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2007) expands on this framework by providing a detailed account of how unfamiliar L2 phonemes are perceptually assimilated into existing L1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model, when L2 learners encounter non-native sounds, they interpret these sounds in terms of their similarity to native phonological categories. This assimilation process can take several forms—two-category assimilation, single-category assimilation, or category-goodness assimilation—each affecting the level of difficulty in perceiving and producing L2 contrasts. For instance, when both members of an L2 contrast map onto a single L1 category (single-category assimilation), discrimination and production are particularly challenging because the learner's perceptual system does not initially distinguish the sounds as separate phonological units. This perceptual categorization leads to distortions not only in auditory perception but also propagates into articulatory habits, thereby influencing production accuracy.

Together, these models underscore the critical role of perceptual mechanisms in L2 speech acquisition and highlight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perception and production. They suggest that effective L2 pronunciation learning requires not only the restructuring of existing L1 phonetic categories but also the development of new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facilitated

through high-quality input and individualized feedback. CAPT (computer-assisted pronunciation training) systems, by delivering precise, repeatable, and acoustically rich stimuli, support learners in perceiving and producing the subtle phonetic contrasts that distinguish L2 sounds from their L1 equivalents. Furthermore, these tools offer immediate corrective feedback, which helps refine articulatory patterns and foster more native-like pronunciation over time (Amrate & Tsai 2025).

Moreover, corrective feedback serves as a vital mechanism for guiding learners through this perceptual reorganization and motor learning. Feedback that is timely, specific, and tailored to the learner's phonetic challenges helps them detect errors and refine their articulatory patterns. Studies have shown that pronunciation-focused corrective feedback, whether provided by language instructors, speech therapists, or AI-assisted pronunciation tools, can significantly enhance learners' phonetic awareness and promote the acquisition of accurate L2 sounds (Saito 2021). The integration of feedback alongside detailed phonetic input leverages both bottom-up sensory information and top-down cognitive processes,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robust L2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and motor plans.

These insights underscore the intrinsic complexity of L2 pronunciation learning and offer strong theoretical support for AI-driven instructional models. Flege's Speech Learning Model and Best & Tyler's 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both emphasize how L1 phonological systems constrain L2 speech acquisition, and how overcoming these constraints requires detailed phonetic input and individualized feedback. AI tools, with their capacity to simulate expert guidance and deliver real-time, context-sensitive corrections tailored to each learner's L1 interference patterns, are uniquely positioned to meet these demands.

A practical example of this approach is Talkpal (https://talkpal.ai/re-

al-time-pronunciation-correction-with-ai/), an AI-powered platform that provides immediate, personalized feedback by analyzing pronunciation errors and suggesting specific improvements. Its real-time correction features support iterative practice and self-correction, while mobile accessibility promotes self-directed learning anytime and anywhere. Integrated into a broader AI-assisted framework, such tools foster perceptual attunement and accurate articulatory habits, effectively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etical models and scalable pronunciation pedagogy.

In sum, the convergence of linguistic theory and AI technology enables more responsive and individualized L2 pronunciation instruction, advancing learners toward native-like fluency through structured, self-directed practice. These theoretical insights into cross-linguistic phonemic perception

— particularly from SLM and PAM — provide a diagnostic foundation for the model's initial phase. They inform how the SDPL framework identifies problematic L1–L2 contrasts and strategically deploys AI feedback to mitigate segmental transfer issues early in the learning cycle.

2.2. Self-Directed Learning (SDL)

Candy (1991) defines SDL as a dynamic, proactive process in which learners take responsibility for setting their own goals, selecting resources, deploying strategies, and evaluating their outcomes — shifting learners from passive recipients to active constructors of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This autonomy fosters deeper motivation and enduring engagement.

Pronunciation learning, with its need for sustained, repetitive, and individualized practice, aligns well with SDL principles. Effective L2 pronunciation development rarely emerges from brief or generic instruction; instead, it requires learners to manage pace, focus on specific phonetic challenges,

and continuously self-assess—elements central to SDL.

Recent empirical studies illustrate AI's role in enhancing SDL. Li and Bonk (2023) found that tools like Duolingo provide adaptive, motivational support and enable self-monitoring through feedback and progress tracking. Similarly, Li et al. (2024) report that generative AI supports learner autonomy through conversational practice, targeted exercises, and metacognitive prompts . Both align with Zimmerman's (2002) model of self-regulated learning (SRL), which highlights cycles of goal setting, performance, and self-reflection essential for independent learning.

These insights suggest that AI tools—acting as interactive partners—can scaffold learners' metacognitive and regulatory capacities. A well-designed SDPL (Self-Directed Pronunciation Learning) framework can integrate chatbots (e.g., ChatGPT) and phonetic feedback systems (e.g., Whisper, Elsa Speak) to operationalize SDL and SRL in pronunciation training.

Moreover, SDL does not occur in isolation. Frambach et al. (2012) and Poole (2012) reveal that autonomy is shaped by cultural, institutional, and contextual factors, while Brookfield (1993) emphasizes the political dimensions of learning, noting that genuine autonomy requires access to resources and freedom from oppression. AI-enhanced SDL must therefore be culturally responsive and equitable to avoid reinforcing disparities.

In summary, merging SDL and SRL theories with AI technologies offers a theoretically sound and practical approach to pronunciation learning—empowering learners to manage, reflect upon, and continuously refine their pronunciation skills within a self-driven, supportive environment.

2.3. AI-Mediated Feedback in Language Learning

Effective feedback plays a key role in language learning. Hattie and

Timperley (2007) assert that feedback is most effective when it is timely, specific, and formative.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pronunciation learning, where subtle acoustic cues and fine phonetic distinctions are difficult to master. AI technologies enhance feedback by offering immediate, precise, and personalized input tailored to individual learner needs. For example, Whisper—a state-of-the-art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SR) system developed by OpenAI—provides real-time transcription and pronunciation scoring. Research suggests that Whisper's confidence scores and subtokens align with learner pronunciation errors and can be used for automated L2 speech assessment (Ballier & Méli 2024).

Elsa Speak employs advance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give detailed phonetic feedback, including analysis of consonants, vowels,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ELSA significantly improves pronunciation accuracy, and its multimodal feedback supports deeper phonological awareness (Ravenor 2024; Gusrianto & Iswahyuni 2024). Adding a visual dimension, SWPhonetics offers waveform and spectrogram displays that visualize pitch, formant frequencies, and speech duration. These visualizations make suprasegmental features—such as stress and intonation—more perceptible, facilitating precise self-monitoring and correction. In addition to diagnostic and visual-acoustic tools, ChatGPT functions as a dynamic feedback partner that facilitates text-based practice and reflective self-monitoring. Drawing from principles of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ITS), it enables learners to articulate difficulties, receive scaffolded cues, and rehearse pronunciation in low-stakes dialogue. These features align with Zimmerman's (2002) model of self-regulated learning, especially in supporting goal setting, performance monitoring, and self-reflection. As such, ChatGPT enhances the metacognitive dimension of feedback and complements other AI tools by offering linguistic guidance and learner agency within an iterative learning loop

(VanLehn 2011).

Combining AI-generated feedback with human mediation creates an optimal learning environment. While AI systems guarantee immediacy, consistency, and scalability, instructors contribute interpretive context, emotional support, and instructional guidance—elements necessary for learner engagement and acceptance (Hattie & Timperley 2007; Ravenor 2024).

AI-mediated feedback also promotes learner autonomy. Freely available, targeted practice encourages repetitive pronunciation drills, self-regulation, and metacognitive awareness—factors essential for phonological rebuilding and articulatory control. Emerging trends in explainable AI and learning analytics further enhance feedback transparency by clarifying why specific errors are flagged and how learners can address them. This deepens cognitive engagement and helps mitigate affective challenges such as anxiety or low self-confidence.

2.4. Theoretical Integration for Model Construction

The development of the AI-Assisted Self-Directed Pronunciation Learning (SDPL) model is guided by a synthesis of theoretical frameworks that span second language phonetic acquisition, learner autonomy, self-regulation, and feedback theory. This integration supports the creation of an adaptive, technology-enhanced model designed to personalize learning while promoting metacognitive engagement. The rationale behind the SDPL framework is to address persistent L2 pronunciation difficulties by aligning pedagogical theor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ols that support self-directed and reflective learning.

At the core of the SDPL model are two influential theories in second language speech perception and production: Flege's Speech Learning Model

(SLM) and the 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PAM-L2) by Best and Tyler. Flege (1995) argues that second language phoneme learning is shap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L1 and L2 phonetic categories, with learners often misperceiving new L2 sounds due to equivalence classification based on L1 norms. Best and Tyler (2007) extend this idea, proposing that nonnative speech perception depends on how closely L2 sounds map onto existing L1 categories. These models jointly explain why certain phoneme contrasts are difficult to acquire and form the foundation for the diagnostic targeting of phonemic interference in the SDPL model.

In addition to phonological theory, the model draws o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theories that support learner autonomy and metacognitive development. Candy's (1991) principles of self-directed learning (SDL) emphasize the learner's role in independently setting goals, selecting strategies, and evaluating outcomes. This view aligns closely with Zimmerman's (2002) self-regulated learning (SRL) framework, which describes learning as a cyclical process involving forethought, performance, and self-reflection. By embedding these principles, the SDPL model encourages learners to become proactive agents in their pronunciation development, supported by structured AI feedback that facilitates iterative practice and reflection.

Feedback theory further strengthens the foundation of the SDPL model. Hattie and Timperley (2007) identify three key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feedback: timeliness, specificity, and formative intent. These attributes are essential in pronunciation learning, where immediate and accurate correction can significantly impact phonological restructuring. AI tools such as speech recognition engines and phonetic visualization platforms allow for the delivery of real-time, detailed feedback. In the SDPL model, this feedback is not merely corrective but dialogic—inviting learners to actively engage with the information, reflect on their performance, and apply targeted changes.

Recent research on AI-assisted pronunciation learning provides empirical validation for the model's tool integration and feedback strategies. Studies have shown that multimodal feedback, combining auditory and visual inputs, improves learners' pronunciation accuracy and motivation. For instance, hybrid models that integrate AI-generated feedback with human support are particularly effective at enhancing learner comprehension and emotional engagement during challenging pronunciation tasks (Sadji Evenddy 2024; Singh 2024). These findings support the SDPL model's inclusion of hybrid feedback loops that scaffold interpretation and sustain learner motivation.

In summary, the SDPL model is grounded in a convergence of established theoretical constructs and empirical findings. It integrates phonetic theory for diagnostic precision, autonomy and regulation frameworks for learner empowerment, and feedback theory for effective instructional design. Enhanced by AI, this model provides a scalable and context-sensitive approach to L2 pronunciation learning, aligning contemporary technological capabilities with pedagogical best practices.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described above collectively inform the structure and pedagogical principles of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Foundational phonological theories such as SLM and PAM shape the diagnostic foundation, guiding the identification of L1–L2 phonemic contrasts. Principles of self-directed and self-regulated learning support learner autonomy, goal setting, and reflective engagement in pronunciation practice. Meanwhile, feedback theory offers criteria for designing timely, specific, and formative feedback mechanisms using AI tools. Together, these frameworks provide the conceptual grounding for a cyclical, adaptive model that integrates diagnosis, practice, feedback, reflection, and evaluation.

3. Proposed Model: AI-Assisted SDPL Framework

The AI-Assisted Self-Directed Pronunciation Learning (SDPL) framework is a five-phase cyclical system designed to promote iterative, personalized, and metacognitively rich pronunciation development in second language learners. Drawing on foundational theories — Flege's Speech Learning Model (1995), Best and Tyler's 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2007), Zimmerman's Self-Regulated Learning Cycle (2002), and Hattie and Timperley's feedback model (2007) - this framework operationalizes current AI advancements to support autonomous and data-informed phonetic learning. By combining conversational AI (e.g., ChatGPT) with specialized phonetic feedback tools (e.g., Whisper, Elsa Speak, SWPhonetics), the model enabl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iagnosis, structured practice, and multimodal reflection. The learner is positioned as the primary agent of change, with each AI tool providing tailored support: Whisper enables diagnostic transcription and intelligibility analysis, Elsa Speak offers phoneme-level scoring and targeted feedback, SWPhonetics enhances perceptual clarity through acoustic visualization, and ChatGPT facilitates interactive articulation training, self-monitoring, and reflective planning across all stages. Figure 1 illustrates the cyclical architecture of the AI-assisted SDPL framework, showing how each of the five stages integrates AI tools to support learner autonomy, diagnosis, feedback, and ref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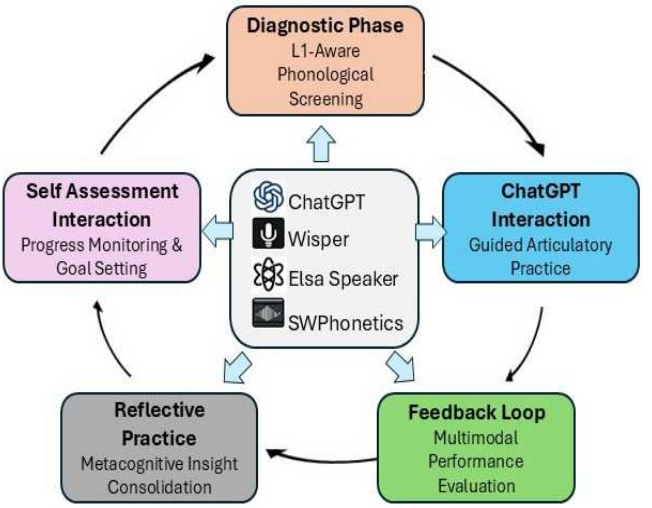


Figure 1: AI-Assisted SDPL Framework

3.1. Diagnostic Phase: L1-Aware Phonological Screening

This initial stage focuses on identifying L1-induced pronunciation errors through reflective and AI-assisted means. Learners may be prompted by ChatGPT to consider typical phonological conflicts (e.g., "What Korean sounds do English speakers find difficult?"), fostering initial metalinguistic awareness.

AI tools such as Whisper are employed to transcribe learners' spoken output, comparing it with standard Korean phonemic structures. For instance, an English-speaking learner might mispronounce Korean tense consonants like /ㄲ/, or fail to distinguish /ㅡ/ from /ㅓ/. When Whisper produces inconsistent or erroneous STT results, these signal phonological mismatches. This error-based feedback guides learners to recognize concrete areas of weakness, operationalizing the diagnostic value of L1-L2 contrastive phonology (Flege 1995; Best & Tyler 2007).

In classroom or tutoring contexts, instructors may supplement this phase with custom phoneme inventories or listening discrimination tasks to validate AI results. Thus, diagnosis becomes multi-channeled: reflecting learner input, objective AI assessment, and expert judgment.

3.2. ChatGPT Interaction: Guided Articulatory Practice

Based on diagnostic results, learners engage with ChatGPT to practice targeted phonemes using customized prompts. For example, if a learner struggles with distinguishing /ㄲ/ from /ㅋ/, they might ask, "Give me five Korean minimal pairs with these sounds." ChatGPT can provide word lists (e.g., 꽃/콧, 껌/컴) and sentence-level practice that maintains authentic rhythm and stress.

ChatGPT also supports iterative variation by offering immediate clarifications, alternate examples, or controlled repetition patterns. This promotes low-anxiety rehearsal, in line with 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 and cultivates phonological awareness in meaningful contexts.

Moreover, this phase prepares learners cognitively and articulatorily for speech output by bridging visual recognition (text) with oral production. For example, practicing rhythmic sentence drills such as "나는 껌을 꺼내서 씹었어" helps embed both segmental accuracy and prosodic fluency.

3.3. Feedback Loop: Multimodal Performance Evaluation

Once learners submit recorded output, AI systems initiate a tri-layered feedback mechanism:

- Whisper evaluates intelligibility through transcription fidelity.
- Elsa Speak scores phoneme accuracy (e.g., 85% match on /ㅓ/) and

flags substitution or omission errors.

- SWPhonetics renders acoustic features—pitch contours, formant paths, waveform stability—enabling learners to visually compare their speech against native benchmarks.

This stage provides corrective and explanatory feedback, answering Hattie and Timperley's (2007) core questions: Where am I going? How am I going? Where to next? For instance, Elsa might show that a learner's /ㅓ/ is frequently misarticulated as /ㅗ/, with a low segmental match score. SWPhonetics can then visualize the vowel's formant shift, helping learners isolate the acoustic divergence. Whisper's STT errors further confirm whether intelligibility is impacted in sentence context.

This triangulated analysis allows learners to revise errors using both auditory (e.g., Elsa's playback) and visual (e.g., SWPhonetics' spectrograms) feedback, thereby supporting different learning styles and deepening self-monitoring skills.

3.4. Reflective Practice: Metacognitive Integration

After reviewing feedback, learners engage in structured self-reflection using guided AI prompts such as:

- "Which sound did I improve the most on this week?"
- "Which correction strategy worked best for the /ㄹ/ sound?"
- "How did the visual feedback help increase my awareness?"

ChatGPT can facilitate journaling sessions or Socratic questioning, reinforcing connections between effort and outcome. For example, a learner might note: "*I learned that I'm adding an English-like aspiration to /ㅈ/, which*

causes misunderstanding in fast speech. Watching the pitch contour helped me realize I was over-emphasizing the onset."

Learners are encouraged to log weekly audio samples and reflections using platforms like Notion, Google Docs, or AI-enhanced voice journals. These reflections become both a learning artifact and an evolving performance record, central to self-regulated growth.

3.5. Self-Assessment: Progress Review and Goal Adjustment

The final phase prompts learners to evaluate their trajectory using digital rubrics and checklists. Tools like Google Forms or LMS dashboards can quantify phoneme accuracy, fluency, and confidence ratings across time.

ChatGPT assists by generating progress reports, adjusting learning goals (e.g., "Focus on syllable-final /ㄴ/ in week 4"), and offering review prompts like:

- "Which of your mispronunciation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 "What would you like to focus on for next week?"

This phase fosters long-term autonomy by reinforcing metacognitive loops: diagnosis → practice → feedback → reflection → adjustment. It mirrors Zimmerman's SRL model and promotes durable, transferable pronunciation improvement.

The AI-Assisted SDPL model synthesizes phonological theory, self-regulated learning principles, and AI-driven feedback technologies into a cohesive, learner-centered framework. Each phase—diagnostic insight, guided production, multimodal evaluation, reflective reasoning, and self-assessment—reinforces the others in a recursive cycle. This approach is especially suited for pronunciation development in Korean as an L2, where segmental com-

plexity and L1 transfer pose persistent challenges. Through this model, learners gain the tools, awareness, and confidence to direct their own pronunciation learning in a technologically enhanced, feedback-rich environment.

4. Scenario for Mongolian Learners: Enhancing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Plain vs. Tense Consonants

Mongolian learners of Korean frequently struggle to distinguish between plain consonants (e.g., /ㄱ/, /ㄷ/, /ㅂ/) and their tense counterparts (e.g., /ㄲ/, /ㄸ/, /ㅃ/), especially in non-initial syllable positions. This confusion stems from the phonological limitations of the Mongolian language, which lacks a direct contrastive feature like Korean consonant tensity. Learners often fail to perceive acoustic cues such as voice onset time (VOT) and pitch, resulting in the misidentification or misproduction of tense consonants as their plain equivalents (안성민·하영우 2024). For instance, learners may pronounce *꼬기* as *고기* or *빠다* as *바다*, substituting plain stops for tense ones due to their inability to detect subtle phonetic differences in aspiration and closure duration (안성민·하영우 2024: 153). These errors are rarely self-corrected because learners lack perceptual awareness of the contrast, and they are reinforced through habitual usage and fossilization. Addressing this issue requires a learning model that can not only diagnose subtle segmental errors but also support repeated perceptual training and individualized feedback—precisely what the AI-assisted Self-Directed Pronunciation Learning (SDPL) model is designed to o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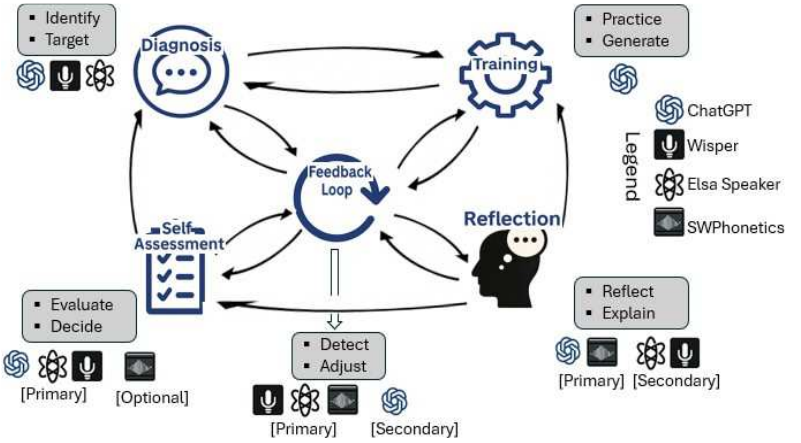


Figure 2: SDPL Process for Plain-Tense Consonant Contrast
*Texts in the rectangle denote for key words in each stage

The SDPL model approaches this issue as a five-stage, learner-driven cycle that emphasizes diagnostic insight, structured interaction, multimodal feedback, reflection, and self-assessment. In the diagnostic phase, the learner initiates an inquiry with ChatGPT to explore the source of their pronunciation challenges. For example, the learner may report difficulty distinguishing both /ㄱ/ and /ㄲ/ and /ㅂ/ and /ㅃ/. ChatGPT responds with explanations of the phonological contrast and provides minimal pair lists for practice, such as *고기* versus *꼬기* and *바다* versus *빠다*. The learner records these samples and analyzes the outputs using Whisper, a speech-to-text tool. If Whisper consistently transcribes *꼬기* as *고기* or *빠다* as *바다*, it signals insufficient tensity in articulation and prompts further focus on the contrast.

In the second stage, the learner continues interaction with ChatGPT in a structured training session.

ChatGPT scaffolds perception and production practice by presenting listening discrimination quizzes, articulatory instructions (e.g., "hold the closure longer for /ㄲ/"), and rhythm-based sentence drills. This approach supports

phonological awareness and bridges the perceptual-articulatory gap. It also fosters confidence through low-pressure, adaptive interaction. ChatGPT may ask learners to identify which version of a word contains the tense consonant or simulate short dialogues that feature high-frequency tense sounds, encouraging contextualized, goal-driven rehearsal.

The third stage—feedback loop—activates a multi-tool evaluation system. Whisper is used again to monitor intelligibility through transcription fidelity. Elsa Speak evaluates the learner's consonant articulation and provides segmental accuracy scores, such as 65% for /ㄲ/, along with targeted tips for improvement. SWPhonetics offers visualizations of speech features like VOT, pitch contours, and waveform energy. For instance, a flat pitch curve and short VOT interval for /ㄲ/ may confirm the learner's tendency to produce plain stops. Together, these tools create a triangulated feedback environment that enables the learner to identify acoustic mismatches, reflect on articulatory effort, and experiment with modification strategies. This recursive interaction across diagnosis, training, and feedback empowers the learner to refine their pronunciation independently while building confidence through evidence-based progression.

In the fourth stage, the learner reflects on their performance using ChatGPT-facilitated metacognitive prompts. These include questions such as "Why do you think you mispronounced /ㄲ/?" or "How did the pitch visualization help you understand the problem?" Learners document their responses in digital journals and annotate SWPhonetics screenshots or Elsa scores as evidence of growth. This practice consolidates learning and builds awareness of both progress and persistent challenges. Over time, learners become more adept at interpreting error signals and making informed adjustments to their pronunciation habits.

Finally, in the self-assessment phase, the learner revisits previous record-

ings, compares performance scores, and evaluates improvement using rubrics generated with ChatGPT's assistance. For example, the rubric may assess categories such as intelligibility, segmental accuracy, fluency, and confidence. A learner might note an increase in Elsa's /ㄲ/ score from 62% to 87%, or a shift in Whisper's transcription from incorrect to accurate. Based on this reflection, the learner sets new goals—such as shifting focus from /ㄲ/ to /ㄸ/—and reenters the cycle with clearer direction and refined strategies.

The application of the SDPL model to plain–tense consonant contrast is particularly appropriate because of the model's ability to uncover hidden perceptual deficits and provide systematic, multimodal support for articulatory development. Unlike suprasegmental features or morphophonemic rules, which often require external modeling or complex explanation, the contrast between /ㄱ/ and /ㄲ/, or /ㅂ/ and /ㅃ/, can be effectively revealed, tracked, and corrected through automated speech analysis and learner-guided adjustment. The model supports learners in developing fine-grained auditory discrimination and phonetic control—two skills that are foundational for achieving accurate, intelligible Korean pronunciation. The scenario illustrates how the SDPL framework accommodates both perceptual challenges and production errors through iterative, multimodal intervention.

5.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the following section, we consider the broader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SDPL framework, its contributions to L2 pronunciation research and learner autonomy, and the practical and ethical factors that influence its use. We also outline key limita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refine and validate the model across diverse learner groups and contexts.

5.1. Instructional Significance and Practical Applications

The AI-assisted Self-Directed Pronunciation Learning (SDPL) model presents significant instructional valu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especially in L2 pronunciation training contexts. By emphasizing learner autonomy, the model promotes sustained engagement, strategic self-regulation, and reflective learning practices. ChatGPT functions as an interactive conversational partner that delivers personalized prompts and metacognitive scaffolding, thus enhancing learners' phonological awareness. Such scaffolding benefits are well-documented in studies of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which demonstrate effectiveness comparable to human tutoring (VanLehn 2011). Teachers' roles evolve

from mere correctors to facilitators who guide learners toward autonomy, employing AI tools for diagnostic activities and personalized practice. Furthermore, integration of SDPL within Learning Management Systems supports scalable deployment in blended or flipped classroom models—approaches empirically shown to improve learner outcomes (Bond et al. 2020).

5.2. Constraints and Challenges in Real-World Implementation

Despite its theoretical strengths, the SDPL model remains primarily conceptual and lacks robust empirical validation, limiting its immediate applicability. Additionally, the model relies on multimodal tool integration—ChatGPT for reflection and third-party systems for speech feedback—a complexity that may impose a cognitive and technical burden on learners. Issues with usability and platform navigation in multimodal learning environments have been previously noted (D'Ulizia et al. 2019) . Furthermore, digital literacy and learner self-efficac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adoption and effective-

ness of such tools, underscoring the need for integrated onboarding and culturally responsive instructional design (Tsai et al. 2019).

5.3. Future Directions and Concluding Thoughts

To validate the SDPL model's effectiveness,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controlled studies comparing it with conventional pronunciation training, employing both acoustic measures and learners' qualitative feedback (Derwing & Munro 2015). Developing hybrid AI-human feedback systems—combining automated precision with human empathy—appears especially promising, as suggested by recent L2 pedagogical research (Kohnke & Moorhouse 2022). Gamified and scenario-based AI platforms may further enhance engagement, particularly in culturally diverse contexts (Zhao et al. 2023) . Additionally, ethical considerations—such as algorithmic bias, data privacy, and AI dependence—require informed attention in sustainable AI integration (Holmes et al. 2019). Ultimately, the SDPL model exemplifies how AI can be conscientiously leveraged to foster personalized, reflective, and autonomous pronunciation learning, providing a theoretically grounded framework for innovation in pronunciation pedagogy.

References

안성민(2023)「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ㅟ/ 발음 오류 양상과 특성」,『이중언어학』93, 27-48.

안성민(2024)「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음화 발음 분석」,『한국어교육』35(1), 61-89.

안성민·하영우(2024)「몽골인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 지각 양상 –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통한 교육적 접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73, 135-158.

울찌자르갈·안성민(2024)「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화 발음 오류 분석 및 교육적 접근」,『국어문학』87, 391-411.

이중진(2010)「음향 실험을 기초로 한 몽골어와 한국어의 단모음 대조분석」,『말소리와 음성과학』 2(2), 3-16.

Amrate, M., & Tsai, P. (2025) 'Computer-assisted pronunciation training: A systematic review,' *ReCALL* 37(1), 22-42.

Ballier, N., & Méli, A. (2024) 'Investigating acoustic correlates of Whisper scoring for L2 speech using forced alignment with the Italian component of the ISLE corpus,' in *Proceedings of the 13th Workshop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r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LiU Electronic Press, 20-32.(https://aclanthology.org/2024.nlp4call-1.2/)

Best, C. T., & Tyler, M. D. (2007) 'Nonnative and second-language speech perception: Commonalities and complementarities,' in O.-S. Bohn & M. J. Munro (Eds.) *Language experience in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In honor of James Emil Flege*, John Benjamins, 13-34.

Bond, M., Marín, V. I., Dolch, C., Bedenlier, S., & Zawacki-Richter, O. (2020) 'Past, present, and future research o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17(1), 1-24.

Brookfield, S. D. (1993) 'Self-directed learning, political clarity, and the critical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3(4), 227-242.

Candy, P. C.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Jossey-Bass.

Derwing, T. M., & Munro, M. J. (2015) *Pronunciation fundamentals: Evidence-based perspectives for L2 teaching and research*,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D'Ulizia, A., Ferri, F., Grifoni, P., & Guzzo, T. (2019)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education: A survey,'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132, 97-121.

Flege, J. E. (1995)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Theory, findings, and problems,' in W. Strange (ed.) *Speech perception and linguistic experience: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York Press, 233-277.

Frambach, J. M., Driessen, E. W., Chan, L. C., & van der Vleuten, C. P. (2012) 'Rethinking the globalis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How culture challenges self-directed learning,' *Medical Education* 46(8), 738-747.

Gusrianto, E., & Iswahyuni, I. (2024) 'ELSA Speak application as an advanced program for improving pronunciation for students in Indonesia: A literature review,' in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Literature, Education, and Culture (ICOLLEC 2023)*, EAI. (https://doi.org/10.4108/eai.25-10-2023.2348268)

Hattie, J., & Timperley, H. (2007) 'The power of feedback,'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1), 81-112.

Holmes, W., Bialik, M., & Fadel, C.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Kohnke, L., & Moorhouse, B. L. (2022) 'Integrating AI-based chatbots into L2 writ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5(5-6), 1469-1487.

Li, Z., & Bonk, C. J. (2023) '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with Duolingo in an out-of-class context,'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8(3), 569-591.

Li, B., Bonk, C. J., Wang, C., & Kou, X. (2024) 'Reconceptualizing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era of generative AI: An exploratory analysis of language learning,' *IEEE Transactions on Learning Technologies* 17, 1515-1529.

OpenAI (2023) *GPT-4 Technical Report* (https://arxiv.org/abs/2303.08774)

Poole, G. (2012) 'Self-directed learning in language educatio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Educational Studies* 48(1), 45-58.

Ravenor, R. Y. (2024) 'On the adequacy of Elsa Speak in formal education: A survey of teacher-users,'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4(2), 2387-2394.

Sadji Evenddy (2024) 'Enhancing EFL pronunciation through AI-mediated corrective feedback: A classroom-based study,' *Journal of Language Learning Technology* 9(1), 22-39.

Saito, K. (2021) 'Effects of corrective feedback on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development,' in H. Nassaji & E. Kartchava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orrective feedback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3-401.

Singh, R. (2024) 'Hybrid feedback systems in AI-assisted language learning: Balancing automation and human med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21(2), 115-130.

Tsai, M. J., Wang, C. C., & Shen, P. D. (2019) 'Effects of digital literacy on learners' intention to continue using mobile devices for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50(6), 3148-3165.

VanLehn, K. (2011)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human tutoring,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and other tutoring systems,' *Educational Psychologist* 46(4), 197-221.

Zhao, Y., Liu, Y., & Chu, H. C. (2023) 'Gamification and language learners' motivation: Effects of adaptive game-based learning environment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71(2), 1191-1215.
Zimmerman, B. J. (2002)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An overview,' *Theory Into Practice* 41(2), 64-70.

Rece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the Yeoju Jueosa Temple site

－New Insights into Buddhist - Catholic Interactions in Late Joseon Korea－

Sun Kim*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1. Introduction

Yeoju is located in the southeast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bordering Wonju in Gangwon Province and Chungju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to the east, Eumseong County and Anseong City in Gyeonggi Province to the south, Icheon City and Gwangju City to the west, and Yangpyeong County to the north.

No extant historical records document the foundation or abandonment of Jueosa Temple. Notably, archaeological evidence has confirmed the existence of temples that operated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to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representative kilns from the Goryeo period. Yeoju's major Buddhist cultural heritage sites include the Godalsa Temple Site (a designated Historic Site), Silleuksa Temple, and the Wonhyangsa Temple Site. Excavations of these sites have provided insights into their layout and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significant Buddhist relics are found in Chang-dong and Ha-dong, such as the Yeoju Chang-ri Three-story Stone Pagoda and the Yeoju Hari Three-story Stone Pagoda, both designated as Treasures. Other notable

* Senior Researcher
E-mail: noinne74@hanmail.net

Buddhist artifacts include the Mireuk Seated Buddha in Pochogol, Oe-pyeong-ri, Geumsan-myeon (a Gyeonggi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Yeoju Gyesin-ri Rock-carved Standing Buddha in Heungcheon- myeon (a Gyeonggi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Yeoju Dogok-ri Seated Stone Buddha (a Gyeonggi Tangible Cultural Heritage). Buddhist scriptures preserved at the Mok-a Museum in Iho-ri, Gangcheon-myeon, include the Yeonmita Doryangchambeop, Volumes 6–10 (Treasure), the Lotus Sutra, Volume 1 (Treasure), and the Avatamsaka Sutra, Jeongwon Edition, Volume 24 (Treasure).

Yeoju is also home to numerous temple sites, such as Heungwangsa Temple Site, Gayeop-ri Temple Site, Gyesin-ri Temple Site, Gung-ri Temple Site, Dogok-ri Temple Site, Botong-ri Temple Site, Samhap-ri Temple Site, Sanggu-ri Temple Site, Sangwon Temple Site, Yeondae-ri Temple Site, Yeonla-ri Temple Site, Oepyeong-ri Temple Site, Jueosa Temple Site, Janghwa Temple Site, Jangheung-ri Temple Site, and Juruk-ri Temple Site. These numerous Buddhist relics demonstr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Yeoju as a center of Buddhist cultu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Jueosa Temple Site, which has recently undergone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The Jueosa Temple Site is located in Jueo-ri, Sanbuk-myeon, Yeoju City, Gyeonggi Province, in the foothills west of Aengjabong, near the border of Gwangju, Yeoju, and Yangpyeong.

Although no direct historical records mention Jueosa, the temple is referenced in the epitaphs of Jeong Yak-jeon and Kwon Cheol-sin, written by the renowned scholar Jeong Yak-yong. According to these records, in the third year of King Jeongjo's reign (1779), the progressive Namin Silhak scholar Kwon Cheol-sin taught the Six Classics and Yangming School philosophy at Jueosa. Additionally, in November 1973, an inscription was discovered reading.

“Erected on a date in May of the Wu-yin year after the Chongzhen era (1698) by the disciple Sukan Cheonsim for Master Uidang of Haeun Hall.”

This inscription confirms that the temple was in operation by the late 17th century.

However, the Jueosa Temple Site became widely known not for its Buddhist heritage but rather due to its association with the spread of Catholicism in Korea. The site gained attention as a location where Catholic scholars gathered,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Cheonjinam, located beyond Aengjabong in Gwangju, Gyeonggi Province. Research on Jueosa has thus focused on its role as a site of Confucian and Catholic intellectual exchange.

This paper seek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Jueosa Temple Site, synthesizing the existing historical records and excavation findings.

2. Jueosa Temple Site Through Historical Records

No extant historical records document the foundation or abandonment of Jueosa Temple. However, local legend recounts that a wandering monk searching for an old temple site had a dream in which he followed a swimming carp. The carp led him to this location, where he established Jueosa Temple, and the village was subsequently named Jueo ("Swimming Carp").

The only cartographic evidence of Jueosa comes from historical maps. Juo Mountain (走魚山) is marked in the Yeoju-mok Map from Haedong Jido and in the Yeoju-mok Map from Gyeonggi-do Gwangyeo-do, suggesting the approximate location of Jueosa Temple.

Further evidence comes from an inscription on a stele erected in 1698

by Sukan Cheonsim (守堅 天心), a disciple of Haeundang Uijeung (海運堂 義澄). Since historical records indicate that Haeundang Uijeung passed away in 1638, it can be inferred that Jueosa Temple was founded sometime before that year.



Figure 1:
Gwangyeodo - Yeoju-mok, 18th Century
(Sourc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igure 2:
Haedong Jido - Yeoju-mok
(Sourc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igure 3:
Topographic Map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8,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fact that Jueosa Temple is not mentioned in sources such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or the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Seungjeongwon Ilgi) suggests that it was not a central temple in the region at the time. However, the name of the temple appears in the epitaphs of Jeong Yak-jeon and Kwon Cheol-sin, written by Jeong Yak-yong. According to these records, "In the third year of King Jeongjo of Joseon (1779), the progressive Namin scholar Kwon Cheol-sin taught the Six Classics and Yangming philosophy at Jueosa."

Thus, Jueosa Temple served as a place where Kwon Cheol-sin and Jeong Yak-jeon stayed with their disciples for academic discussions. It is also known that Catholic texts were studied there, and the practice of Catholic faith began

at this site. Mancheon Yugo by Yi Seung-hun also mentions Jueosa.

A note in Mancheon Yugo's Song of the Ten Commandments (Sipgye Myeongga) states, "In December of the Gihae year (1779, the third year of Jeongjo), after the academic discussions at Jueosa, Jeong Seon-am(Ha Seong-rae 1985: 147-148; Jeong Yak-yong 1985: 620), Gwon Sang-hak, and Yi Chong-eok composed songs." Additionally, a note in the Song of Reverence to the Lord (Cheonju Gonggyeongga) states, "In December of the Gihae year, Gwangam Yi Byeok composed this song at Jueosa."

However, since Mancheon Yugo was transcribed in later times, its reliability is questionable. Furthermore, the annotations accompanying these two Catholic hymns are also suspected to have been added later, casting doubt on their authenticity.(Jo Gwang 1991; Choi Seok-woo 1991)

For these reasons, Jueosa Temple and Cheonjinam have been subjects of ongoing research in Korean Catholic history. However,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regarding the exact year the academic discussions took place at Cheonjinam, whether Jeong Yak-yong participated, and whether the gatherings were actually held at Cheonjinam or Jueosa.(Nam Sang-cheol 1962/1963; Joo Jae-yong 1790; Kim Ok-hee 1979; Choi Seok-woo 1981/1984/1991; Byun Ki-young 1981; Lee Won-soon 1983/1986; Jo Gwang, 1984/1991; Cha Gi-jin 1993/2002; Seo Jong-tae 1994; Yoon Min-goo 2002; Kim Gyu-seong 2003; Kim Sang-hong 2004; Kim Chi-wan 2012; Choi Yeon-jeong & Lee Yu-na 2024)

Amid these debates, a development project for Cheonjinam was initiated in the late 1970s, leading to questions within the Catholic community regarding its exact location. Although the project was eventually halted, in 1983, Lee Won-sun argued that academic discussions had taken place at both Cheonjinam and Jueosa. He opposed designating only one of the two sites as the birthplace of these discussion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both location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academic gatherings held

there (Lee Won-soon 1983: 703-719).

As seen in the discussion above, historical records confirm that Jueosa existed in the third year of King Jeongjo's reign (1779) and that Gwon Cheol-sin stayed there with his disciples, including Jeong Yak-jeon, for academic discussions. However, the exact location of Jueosa is not explicitly mentioned.

Currently, Gwangju Cheonjinam has already undergone a Catholic sanctification process. Unfortunately, no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been conducted at the site, leaving no archaeological evidence regarding Cheonjinam. However, the discovery of kiln sites in the surrounding area suggests that porcelain used at Cheonjinam or Jueosa may have been supplied from these kilns. A more detailed discussion on this matter will be provided in Chapter III.

3. Jueosa Temple site as Confirmed Through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The Jueosa site in Yeoju is located in San 106, Jueo-ri, Sanbuk-myeon, Yeoju-si, Gyeonggi Province, situated on the western foothills of Aengjabong Mountai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f the Jueosa site in Yeoju began with a surface survey in 1977, during which it was identified as the remains of Hapum-ri Temple((Hapumri-saji)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77: 182). At the time, the site was recorded as being located in San 106, Hapum-ri, Geumsa-myeon, Yeoju-gun, covering approximately 500 pyeong (about 1,650 square meters). While the temple's name and origin were unknown, it was noted that a stele titled Haeundang Dasa-bi and a Buddha statue had once existed there but had disappeared, leaving only scattered tile fragments.

A report(Yeoju County 1982: 179)[1] published by Yeoju-gun in 1982 provided more detailed information, mentioning the presence of three stupas (budo), which remained unexcavated at the time, and the discovery of a stone Buddha statue, which was later stolen. Similar descriptions appeared in Buddhist Relics of Gyeonggi Province (Gyeonggi-do Buljeok Jaryojip, 1988)(Gyeonggi Provincial Museum 1998: 601-602) and Records of Temples in Gyeonggi Province (Ginae Sawonji 1988: 305), both of which referred to the site as Hapum-ri Temple.

In 1999, The Cultural Heritage Map of Gyeonggi Province (Gyeonggi Munhwa Yujeok Jido)(Gyeonggi Provincial Museum 1999: 233)[2] first used the name "Jueosa Site" (Jueosa-ji). Later, in 2004, The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Yeoju-gun (Yeoju-gun-ui Yeoksa wa Munhwa Yujeok)(Yeoju County & Sejong University Museum 2004: 233-236) referred to the site as "Hapum-ri Temple Site (Jueosa Site)," providing new insights into the location and its surroundings. This report noted remnants of stone foundations and terraces, as well as a signpost behind a military trench inscribed with "Jueosa / Catholic Academic Meeting Site / Yucheon-dong Youth Pilgrimage." Additionally, a stupa (budo-tap), previously mentioned but not confirmed, was found to be

---

1 The Hapum-ri temple site covers an area of 500 pyeong. It was previously home to the Haeundang Daesa Stele and a stone Buddha, but both are now missing, with only scattered roof tile fragments remaining. The Haeundang Daesa Stele was inscribed on the front with "海雲堂大師義僧之碑" (Stele of Great Master Haeundang Uijeon) and on the back with "崇禎紀元後戊寅 五月 立上座守聖天心" (Erected in May of the year Mu-in following the Chongzhen era, by Senior Monk Suseong Cheonsim). Based on this inscription, the stele appears to have been made of soapstone and erected in 1638. However, it was reportedly taken away in 1974 by an unidentified individual who visited the site for an inspection. Additionally, three stupas were present but remain unexcavated, while a stone Buddha was uncovered during excavations but was later stolen.

2 The Jueosa site covers approximately 500 pyeong. Its history and origin are unknown. The Haeundang Daesa Stele and a stone Buddha were once present but have all disappeared, with roof tile fragments scattered around the area. Additionally, three stupas remain, but they have not been excavated.

preserved at the Yeoju Local History Museum (Yeoju Hyangto Saryogwan). The report detailed the shape and size of the stupa, along with descriptions of scattered roof tile fragments found in the area.

In 2009, Yeoju-gun commissioned an academic research survey on the Jueosa site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 temple grounds and identify its archaeological remains.(eoju County Cultural Heritage Office & (Foundation) Institute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Studies 2009) The investigation revealed five building sites and a retaining wall north of a small path running along the middle of the ridge. For convenience, the buildings were numbered sequentially from the northernmost structure, designating it as Building Site No. 1.(Yeoju County Cultural Heritage Office & (Foundation) Institute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Studies 2009: 9-15) This study also produced the first detailed site map of Jueosa.

Building upon these findings, a trial excavation plan was drafted in 2021((Foundation) Institute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Studies 2021).

In 2010, Temple Sites of Korea(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Foundation) Buddhist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0: 419-424) incorporated additional details on stone structures and stairways into the existing research findings. Through multiple investigations, Jueosa was confirmed as a highly significant archaeological site.

Recognizing its importance, Yeoju City developed a comprehensive conservation plan for Jueosa(Yeoju City 2019), outlining phased excavation efforts and strategies for the preservation of surrounding remains. As part of this initiative, a trial excavation plan was formulated. Consequently, from 2022 to 2023, the Buddhist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Bulgyo Munhwajae Yeonguso) conducted excavation and research in accordance with Yeoju's comprehensive site management plan.(Yeoju City & (Foundation) Buddhist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23)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mains confirmed through the excavation of the Jueosa site are as follows.

The excavation was conducted in two distinct areas. Area 1 corresponds to the location of Building Sites No. 1 and 2, as outlined in the final report of the academic research. Area 2 corresponds to the location of Building Sites No. 3, 4, and 5.

The excavation revealed the following features from the Joseon period: two building foundations, five retaining walls, and two charcoal kil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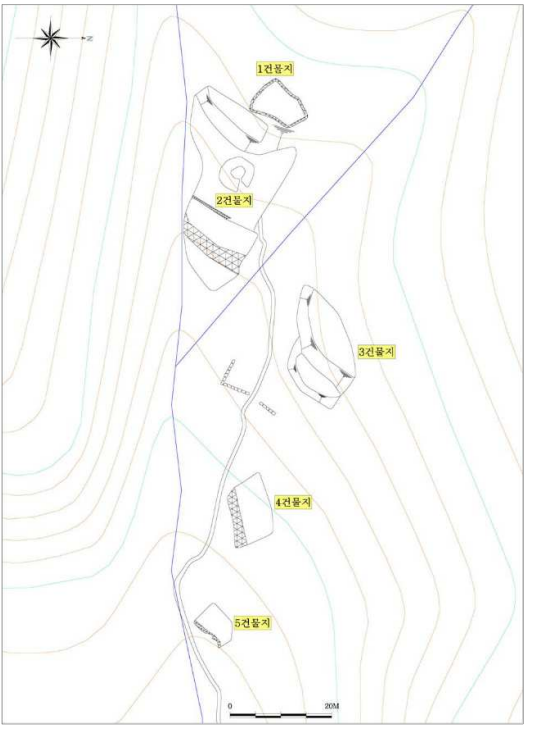


Figure 4: Yeoju Jueosa Temple site Survey Plan
(Gyeore Munhwa Yuseon Yeonguwo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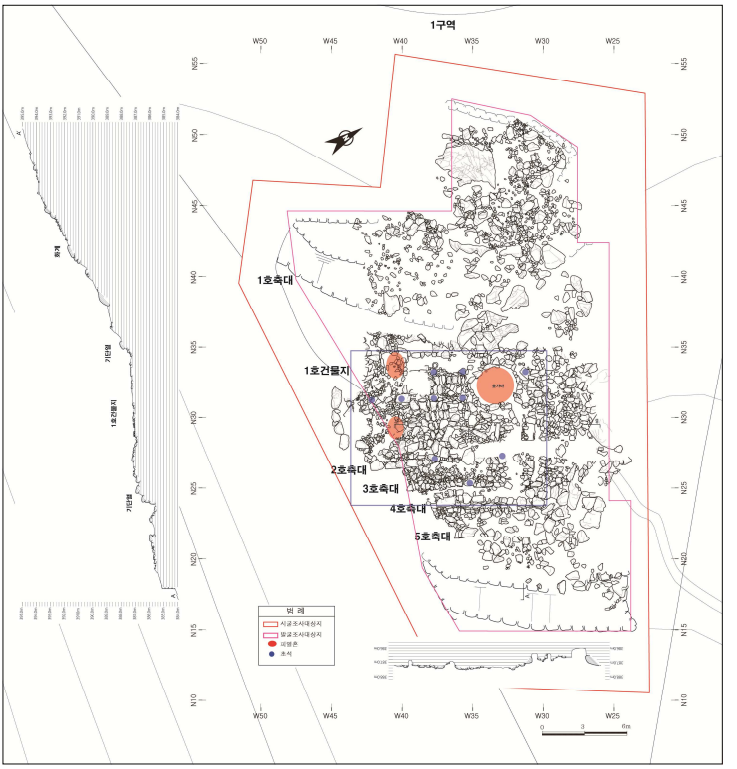


Figure 5: Building Site No. 1 Survey Plan



Figure 6 : View of Building Site No.1 and Retaining Wall



Figure 7 : Building Site Gorae (heat-conducting flues of the Ondol system)



Figure 8 : Chimney



Figure 9 : furnace

Building Site No. 1 measures five bays in the front and three bays on the side, though part of it has been damaged due to persistent water damage and the construction of charcoal kilns in modern times. Related to the building site, the foundations, ondol (underfloor heating) system, whale-shaped structure, and hearth were identified. A vent for smoke discharge was also found. Additionally, in Area 1, five retaining walls were uncovered. Artifacts recovered include fragments of decorative roof tiles with patterns, a tile fragment inscribed with "造瓦化主信" (meaning related to tile production), and pieces of white porcelain.

Building Site No. 2 is oriented along the east-west axis and was constructed on top of a retaining wall. Facilities related to the building site include wall structures and ondol heating stones, but no foundations were identified. Inside the building, three whale-shaped heating stones and ondol stones were found. To the south, a hearth connected to the whale-shaped structure was also discovered. Although the hearth was mostly destroyed, its original form could not be determined; however, a chimney connected to the building was found to the north of the hearth, and sintered soil was discovered inside it. Additionally, two retaining walls and one stone pillar were identified. Artifacts recovered include fragments of white porcel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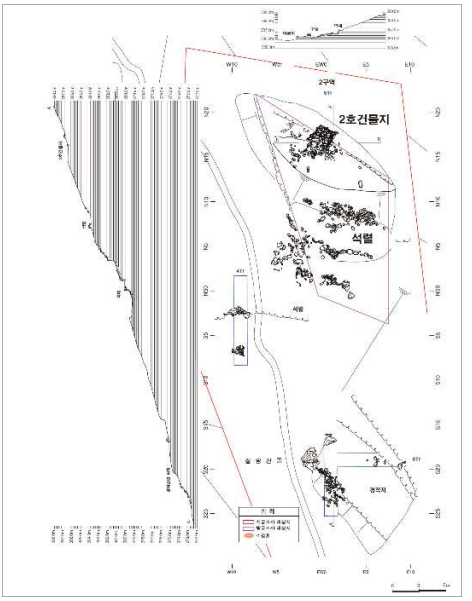


Figure10: Building Site No. 2 Survey Plan



Figure 11: View of Building Site No. 2



Figure 12: Building Site No. 2
(West-North View)



Figure 13: Korean floor heating system



Figure 14: furnace

Other remains include two charcoal kilns. One of the kilns was found in Area 1, near Building Site No. 1, and it caused some damage to the structure.

The first charcoal kiln is located to the southwest of Building Site No. 1, near the foundation and hearth. The kiln is rectangular, measuring 2.2 meters in length (north-south) and 2.6 meters in width (east-west). The eastern side of the kiln has been eroded due to water damage. To the west, a smoke vent system was found, made of large limestone blocks. Artifacts recovered from the site include fragments of decorated roof tiles and white porcelain.

The second charcoal kiln was found approximately 5.0 meters north of the first kiln. The second kiln caused some damage to the foundation stones and ondol heating stones of Building Site No. 1.

The second charcoal kiln is oval-shaped, with a diameter of 4.3 meters and a height of approximately 0.5 meters. It was constructed in two to three layers. Charcoal remains were found at the bottom of the kiln. To the northwest, a smoke vent system related to the second kiln was identified. Artifacts recovered from the site include fragments of decorated roof tiles and white porcelain.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a charcoal kiln was constructed on the temple site, damaging part of the temple's building.(Yeoju County Cultural Heritage Office & (Foundation) Institute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Studies 2009: 8)[3] The investigation results suggest that this kiln is likely the second

3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Park Seong-hoon, who guided and assisted during the investigation by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Studies, Park Seong-hoon was born on December 3, 1946, in Hapum-ri, Sanbuk-myeon, Geumsam-myeon, Yeoju County, Gyeonggi Province. In the 1970s, he returned to his hometown and worked as a farmer around the area where the Jueosa site is located. He grew up hearing from the elders that the founding date of Jueosa was the same as Sinreuksa, and that Catholic teachings had been conducted there. In the late 1970s, when Father Choi Woo-seok and several scholars

charcoal kiln.



Figure15: Charcoal Kiln No. 1



Figure16: Charcoal Kiln No. 1 Chimney



Figure17: Charcoal Kiln No. 2



Figure18: Charcoal Kiln No. 2 Chimney

At the Jueosa site, fragments of roof tiles and porcelain were also found. The roof tiles include '  ' mangwa fragments, 造瓦化主信 inscribed tiles, ○根兩主 inscribed tiles, and mid-Joseon jungho-mun (decorative) tile fragments.

---

were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early Catholic teachings, Park Seong-hoon guided them to the Jueosa site and shared its history. At that time, a charcoal kiln had been built on the temple site, damaging some of the temple's structures. The entrance to the current Jueosa site, where the logging road is located, had a stele and stupas related to Haeundang Daesa, but the stele was later moved to Jeoldusan Martyrs' Shrine, and the stupas were taken to the Yeoju County Local History Museum. Subsequently, the site was leased by the Korean Society of the Blessed Martyrs for 45 years from Yeoju County and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as a water fountain forest, with management ongoing until 2024. In relation to the afforestation project, Korean red pines were planted around the area of Aengjabon to manage the forest.

Notably, these inscribed tiles mostly feature inscriptions such as the "Om" syllable or the names of donors, which are typically found at Buddhist temples. This suggest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was likely supported by major patrons, clearly indicating that the site was a Buddhist temple during that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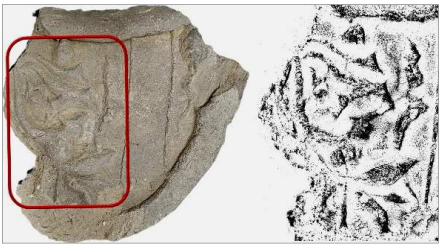


Figure 19: '  ' Inscribed Tile Frag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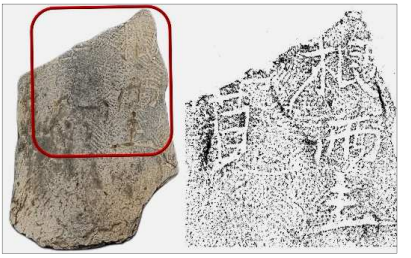


Figure 20: "○根兩主" Inscribed Tile Frag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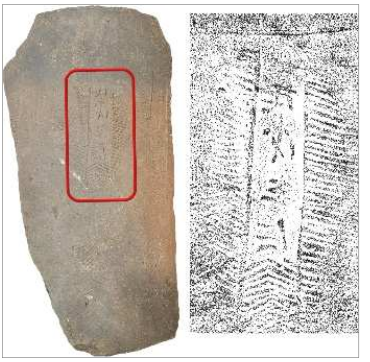


Figure 21: "造瓦化主信" Inscribed Tile Fragment

Most of the porcelain fragments are white porcelain, with a small amount of iron-painted porcelain and blue-and-white porcelain fragments also found. The white porcelain fragments include base pieces from jars (ho), triangular footed pieces (using incised decoration technique on white porcelain), and thick sand-coated shallow-footed porcelain fragments. Some sand-impressed

porcelain fragments were also found. The majority of the porcelain items are utilitarian vessels, with many fragments of bowls, plates, and some pieces of ceremonial porcelain vessels (jeogi).

The recovered white porcelain fragments, based on their forms such as base shapes, shallow footed designs, and sand-coated bases, are generally dated to the 17th–18th century. Particularly, the porcelain fragments using the incised decoration technique are believed to have likely originated from local kilns near the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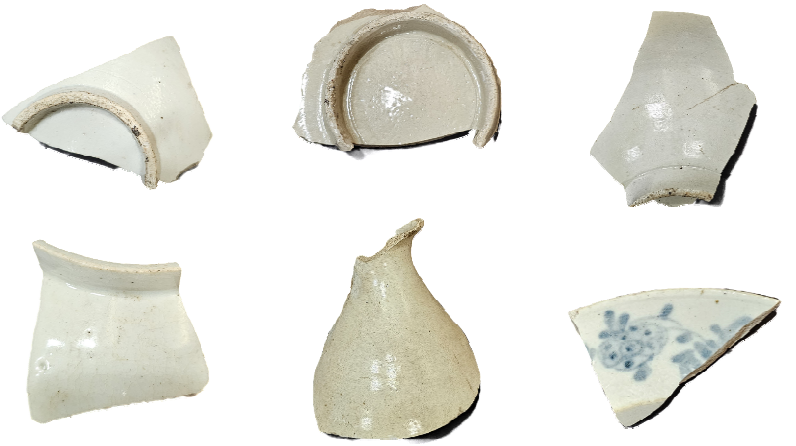


Figure 22: White Porcelain Fragments

4. The Significance of Jueosa Temple site Through Surrounding Remains

Yeoju, located in the central inland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d well-developed transportation routes, facilitating easy movement to surrounding areas via both waterways and land routes. According to Sinjeong Dongguk Yeoji Seungnam (Newly Added Geographical Survey of Korea),

Volume 7, regarding Yeoju's administrative district, Yeoju had three stations—Sinjin, Anpyeong, and Yanghwa—and eight inns—Chogae Won, Garo Gae Won, Poyang Won, Sin Won, Bokcheon Won, Botong Won, Jicheon Won, and Pojye Won. These stations and inns served as key transit points for both land and water routes. After being designated as an important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with its proximity to the capital, Hanyang, Yeoju became an even more significant transportation hub.

Additionally, Yeoju, along with Gwangju and Icheon, is one of the areas in Gyeonggi Province where the most ceramic production sites are concentrated. According to a 2004 investigation by the Gyeonggi Provincial Museum(Yeoju County &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4: 365), 76 ceramic kilns were identified in the region. These kilns are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city, centered around Gangcheon-myeon and Buknae-myeon. Among these, 44 ceramic sites were confirmed in Buknae-myeon. The areas where ceramic kilns are most concentrated include locations such as Godalsaji, Sinreuksa, and Heungwangsa, with Bukdae- myeon having the largest number of sites. Notably, the site at Jungam-ri was excavated and found to have been a kiln operation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A representative ceramic site from the Goryeo Dynasty is the Yeoju Jungam-ri Goryeo Baekja Kiln Site.(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4) This kiln site was discovered through a survey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1999 and was excavated in two phases, in 2001 and 2003. The findings from the excavation, alongside those from kiln sites in Seori, Yongin, and Bangsandong, Siheung, have provided valuable data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kilns. The Jungam-ri kiln site is an example of the transitional phase between brick kilns and clay kilns, showcasing characteristics of this shift.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in operation during the late 10th to early 11th century.

In addition to Goryeo Dynasty kiln sites, Yeoju also has a significant number of Joseon Dynasty kiln sites. The Sejong Sillok Jiriji (Annals of King Sejong) records that "there is a pottery kiln to the north of the Yeoju government office, at Gwan Mountain." This highlights Yeoju as a key region in the history of Korean ceramics. To date, a total of 84 kiln site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Yeoju area through ongoing investigations.

The Jungam-ri ceramic kiln site produced ceramics based on the high culture of large temples and royal rituals, making these ceramics important items for consumption in temples such as Sungsun-sa and Bong-eop-sa.(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4: 48-49)

As material evidence, the Heungwangsa site, which is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early Goryeo period, is located very close to the Jungam-ri ceramic kiln site. This proximity suggests a connection between the production of these ceramics and their use in religious and royal contexts.



Figure 23: Location of the limb and magnetic kiln in Yeoju-si

As material evidence, the Heungwangsa site, which is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early Goryeo period, is located very close to the Jungam-ri ceramic kiln site. This proximity suggests a connection between the production of these ceramics and their use in religious and royal contexts.

As mentioned earlier, Yeoju is well-known as one of the birthplace sites of Catholicism in Korea. The Catholic-related heritage sites in Yeoju include

the Jueosa Site in Sanbuk-myeon, the Bu-eonggol Seminary Site in Gangcheon -myeon, and Cheonjinam in Gwangju.

The Jueosa site is located near the Yongdamcheon stream, which flows into the Han River. Downstream of Yongdamcheon, in Daeseok-ri, Gangsam -myeon, Yangpyeong, many of the early Catholic converts hailed from this area. The Sanbuk-myeon region in Yeoju has long been home to many Catholic believers, and during times of persecution, they sought refuge at the foot of Aengjabong, which has been known for centuries as a hiding place for Catholic faithful. In this area, there were people who made pottery to sustain themselves, a practice believed to have been carried out by Catholic believers in hiding to survive persecution. These individuals were part of marginalized groups and were known to be socially outcast.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e area was ideal for them to live in hiding, away from the authorities.(Joo Young-ha 2003: 278-280;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4: 49-50)

The Yeoju Jueosa site is surrounded by several ceramic kiln sites. The closest ones are the Gyeongup-ri 1st and 2nd kilns in Gwangju, which are located about 1.4 km away. About 1.7 km from the Gyeongup-ri kilns, there are the Jangsam-ri 1st, 2nd, and 3rd kilns. Further, there are the Gwangju Usan-ri 1st, 2nd, 3rd, 18th, 19th, and 22nd kilns. The Usan-ri kilns are located near the Gwangju Cheonjinam, beyond the Aengjabong, and the distance from the Jueosa site is about 1.5–1.7 km. Unfortunately, the Usan-ri 2nd and 3rd kilns were destroy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Cheonjinam Catholic sanctuary, so they cannot be verified. However, the catalog publish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Gyeonggi Provincial Museum in 1999 includes detailed investigation photos of the Usan-ri ceramic kilns in Gwangju, excluding the 2nd and 3rd kilns.(National Museum of Korea & Gyeonggi Provincial Museum 1999: 114-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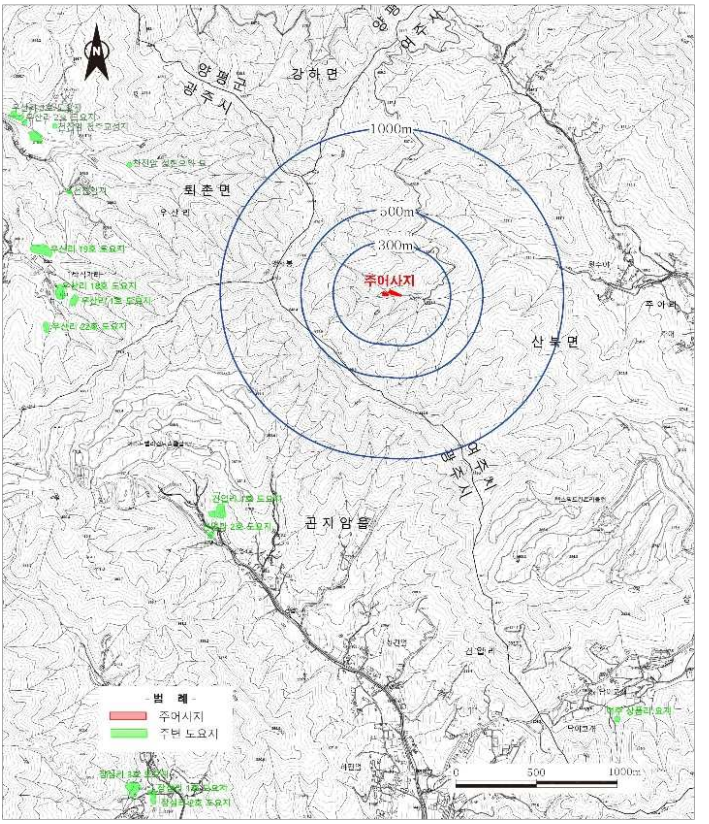


Figure 24: Jueosa Site and Surrounding Ceramic Kilns

The Samgong-ri ceramic kiln site, located in Buksan-myeon, is situated about 3.6 km from the Jueosa site. The site is located near Nami-gae Village, just before reaching the Nami-gae pass on the road from Sangbuk-myeon towards Gwangju. Artifacts were discovered in the hillside area near a nursery, where young trees were planted. The kiln site has been heavily damaged, making it impossible to determine the size or direction of the kiln. However, numerous artifacts have been scattered in the area, and it is presumed to be a Joseon-period ceramic kiln site, likely from the early Joseon era.

In this wa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temple sites and

ceramic kiln sites in Yeoju, and that a number of ceramic kiln sites exist in the Gwangju area, centered around the Jueosa site.

A total of 89 artifacts were excavated from the Yeoju Jueosa site, including 40 pieces of tile fragments and 49 pieces of earthenware. Among the excavated artifacts, most of the porcelain fragments are everyday items, and they are believed to have been sourced from nearby kilns, given their fine craftsmanship.



Figure 25: Yeoju Product Riyoji (GIS Integrated Intranet System)

The Gwangju Wusan-ri Kiln No. 9 is presumed to have operated in the early 15th to 16th centuries, producing ceramics for the royal family.(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1993: 102)[4] The Gwangju Wusan-ri Kiln No. 17 is believed to have operated from the late 14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with stamped tiles bearing inscriptions such as '司' and '仁', which are assumed to refer to government offices.

These inscriptions were likely used to efficiently manage the tribute system, and their significance diminish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wangju

4 The excavation of a white porcelain engraved tomb inscription fragment allows for the estimation of the site's dating.

branch in the late 1460s. Therefore, based on the inscription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kiln operated for about 50 years, from around 1417 to the late 1460s when the branch was established.(Haegang Ceramic Art Museum, 1999: 65-68)

The Gwangju Geuneop-ri Kiln No. 2 is presumed to have been a kiln that produced little high-end ceramics, as it is believed to have not used the clay support commonly used for stacking high-quality ceramics. This suggests that it was treated as a relatively ordinary-quality kiln. Comparing it with kilns from the 15th century found around Wusan-ri, the Geuneop-ri white porcelain kiln is believed to have operated for a short period in the 15th century.(Haegang Ceramic Art Museum 2000: 60-62)

Additionally, various excavations of kiln sites have been conducted in Gwangju, but since they are located far from the Yeoju Jueosa site, it is believed that they did not meet the supply and demand of Jueosa. Therefore, this will be concluded here.

So far, we have examined the location of Yeoju Jueosa and the nearby self-producing kilns. The artifacts excavated from Yeoju Jueosa are believed to be high-quality ceramics that were supplied to the government kilns or the royal court. However, some of the kilns have been damaged, and only a portion have been excavated, so it is not clear which kilns supplied them. We can only speculate based on the excavation features and artifacts.

The excavations at Yeoju Jueosa suggest that its peak period of operation lasted from the mid to late Joseon period. The site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system of a mountain temple. Despite its difficult accessibility, notable findings such as stamped tiles and high-quality porcelain pieces have been discovered, and the removal of artifacts such as the Haewoondang Dae-sa Pagoda Stele and the Chwiamdang Dae-sa Stupa suggest that the temple was not small in scale during the mid-Joseon period. Additionally, in 1779

(the 3rd year of King Jeongjo's reign), it became a place where Gyeongam Kwon Cheol-sin stayed with disciples such as Jeong Yeok-cheon to engage in scholarly activities, giving it historical significance. Therefore, Yeoju Jueosa is an important site that sheds light on the management of temples and the inclusiveness of Buddhism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is crucial for organizing the history of Buddhism in the Yeoju are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5. Conclusion

The Yeoju Jueosa site lacks documented records regarding its foundation and destruction, and no specific historical texts have been found. However, there is a record in the epitaph of Jeong Yak-yong's grave (written by Jeong Yak-jeon), which mentions that the Southern scholar Kwon Cheol-sin (1736-1801) taught the Six Classics and Yangming philosophy at Jueosa.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is record refers to Jueosa or Cheongjinam, and the exact location of Jueosa has remained uncertain, leading to various interpretations. Unfortunately, since the sanctification project for Cheongjinam in Gwangju has been completed, no archaeological data could be obtained through excavation, leaving us without any archaeological information.

However, based on the Haewoondang Dae-sa Stele (dated to 1689) and the Chwiamdang Dae-sa Stupa, it can be confirmed that Jueosa was established before the late 17th century and continued to function until the late 18th century.

Recent excavations at Jueosa have allowed us to explor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rough archaeological data. The Yeoju Jueosa site has yielded significant findings, including two building sites, seven retaining walls, one stone column, one charcoal kiln, and one modern charcoal kiln. In total, 89

artifacts were recovered, with the majority being ceramic and tile fragments. A few pottery fragments and one coin of the "Sangpyeong Tongbo" (a type of currency) were also found. The tiles included some with the "Om" symbol, as well as marked tiles with inscriptions such as "造瓦化主信" and "○根兩主," along with tiles from the Joseon period. Most of the ceramics found were daily-use items, indicating the site's function during its active periods.

The central building of Jueosa is a structure with a scale of 5 bays in the front and 3 bays in the side. The building site is constructed on a raised platform with five layers of stonework, and the upper surface contains a building with 7 to 9 rows of heating facilities and a fireplace. This structure seems to represent the typical form of living and religious space found in mountain temple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likely functioning as an "Inbeopdang," where both daily living spaces and religious spaces coexisted. The operation period of this building is estimated to be from the 17th to 18th century, based on the tiles and ceramic fragments excavated from the site. It is also presumed that after the original structure, another building was constructed to the southeast in later periods to continue the operation of the temple.

Notably, tiles inscribed with "根兩主" and "造瓦以主信" were excavated in the area. These tiles are believed to have been used during the renovation or rebuilding of the temple, indicating the sponsorship of the temple construction by major donors at the time. Additionally, after the temple's abandonment, modern buildings and charcoal kilns were installed in the vicinity, resulting in the damage of parts of the original building site. A nearby building site, located approximately 26 meters away from the central structure, was also discovered. Although it was mostly damaged, the building's walls, heating facilities, and fireplace structures were identified in the east-west aligned building. This structure is located on the outer edges of the temple

complex and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operating system of the mountain temple.

As mentioned earlier, the academic debate about whether the birthplace of Catholicism in Korea is located at Jueosa in Yeoju or at Cheonjinam in Gwangju, beyond Aengjabon, has continued for some time. In the 1960s, the location of Jueosa was revealed.

Through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it was discovered that Jueosa, along with Cheonjinam, was a place where Buddhist monks, who provided shelter and support for figures like Kwon Cheol-shin, who studied Catholicism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nd the Shin-Yu persecution, were persecuted and the temple was eventually abandoned. Excavations revealed two building sites and fragments of the Buddhist "Beomjamo" tiles, which suggest that Jueosa was established before the 17th century and abandoned after the 18th century.

Yeoju Jueosa is an important heritage site as it provided a space for Confucian scholars, who were supported by Buddhist monks, to study and discuss Catholic teachings, thus fostering the early cooperation between Buddhism, Confucianism, and Catholicism. The location of Jueosa, adjacent to the central temple grounds and situated in a valley, is being damaged due to natural factors like heavy rainfall. Therefor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Jueosa are necessary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particularly in the valley area. Proper management will be crucial to preserve this significant site.

References

Books and Report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77) 'General Overview of Cultural Heritage,' Vol. 1, Seou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Buddhist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0) 'Survey Report on Korean Temple Sites: Status of Abandoned Temple Site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1993) 'Gwangju Usan-ri No. 9 White Porcelain Kiln Excavation Report,' Seoul.

Gyeonggi-do (1988) 'Gyeonggi-do Temple Records,' Suwon.

Gyeonggi Provincial Museum (1998) 'Gyeonggi-do Buddhist Artifact Collection,' Suwon.

Gyeonggi Provincial Museum (1999) 'Gyeonggi Cultural Heritage Map II: Central Gyeonggi,' Suwon.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4) 'Yeoju Jungam-ri Goryeo White Porcelain Kiln Site,' Suwon.

Ha, Seong-rae (1985) 'Study on the Catholic Prayer Book,' Seoul: *Seong-Hwang Seokduru Gaseowon.*

Haegang Ceramic Art Museum (1999) 'Gwangju Usan-ri White Porcelain Kiln (II): No. 17 Kiln Test Excavation Report,' Icheon.

Haegang Ceramic Art Museum (2000) 'Gwangju Geonup-ri Joseon White Porcelain Kiln: Excavation Report of No. 2 Kiln,' Icheon.

Kim, Ok-hee (1979) 'The Catholic Thoughts of Gwangam Lee Byeok,' Seoul: *Catholic Publishing House.*

Korean Cultural Heritage Institute (2021) 'Yeoju Jueosa Cultural Heritage Test Excavation Plan,'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Gyeonggi Provincial Museum (1999) 'Gwangju Central Kiln Site,' Seoul.

Temple Culture Research Institute (1993) 'Traditional Temples Series 3: Temples of Gyeonggi-do,' Seoul.

Yeoju-gun (1982)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Preservation of My Hometown,' Yeoju.

Yeoju-gun &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4) 'Ceramic Sites in Yeoju Region,' Yeoju.

Yeoju-gun & Sejong University Museum (2004) 'Cultural Heritage of Yeoju County II,' Seoul.

Yeoju-gun Cultural Heritage Office & Korean Cultural Heritage Institute (2009) 'Final Report on the Academic Survey of Yeoju Jueosa Temple,' Yeoju.

Yeoju City (2019) 'Basic Maintenance Plan for Yeoju Jueosa,' Yeoju.

Yeoju City & Buddhist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23) 'Yeoju Jueosa Excavation Report Summary,' Yeoju.

Papers and Journals

Byun, Ki-young (1981) *Gyeonghyang Newspaper*, December 8, 7.

Byun, Ki-young (1981) *Gyeonghyang Newspaper*, December 25, 7.

Cho, Gwang (1984) 'The Early History of Korean Catholicism and Jueosa,' *Samo* 91.

Cho, Gwang (1991) 'The Origi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The Problem of Historicity of Hypotheses,' *Christianity and National Culture*.

Cha, Ki-jin (1993) 'The Scholarship and Western Learning of Nokan Gwon Cheol-sin,' *Cheonggye History* 10.

Cha, Ki-jin (2002) 'Studies on Confucianism and the Theory of Righteousness in Late Joseon,' Seoul: *Korean Church History Research Institute*.

Choi, Seok-woo (1984) 'The Origin of Korean Catholicism from the Perspective of Church History,' Samo 91.

Choi, Seok-woo (1991) 'The Origi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Samo* 144.

Choi, Seok-woo (1991) 'Errors in Father Byun Ki-young's Critique of the Origi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Samo 144.

Choi, Seok-woo (1991)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Origi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 Response to Father Byun Ki-young's Repeated Claims,' *Samo* 144.

Choi, Woo-seok (1991) 'Reference Materials on the Origi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Samo* 144.

Choi, Woo-seok (1991) 'Seminar on the Origi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Samo 144.

Choi, Yeon-jeong and Lee, Yoo-na (2024) 'Creating Sacred Sites: Focusing on the Sanctification of Cheonjinam in Korean Catholicism,' *Religion and Society* 12.

Joo, Jae-yong (1970) 'Defense of Korean Catholic History,' Seoul: *Korean Catholic Central Council.*

Joo, Young-ha (2003) 'Handicrafts,' in *Gyeonggi Folk History IV*, Suwon: Gyeonggi Provincial Museum.

Kim, Gyu-seong (2003) 'A Study on Various Theories Regarding the Origi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Master's thesis, Incheon Catholic University.

Kim, Sang-hong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Dasan and Cheonjinam,' *Dongyanghak* 35.

Kim, Chi-wan (2012) 'A Study on the Nature of the Study of Confucianism and Yangmingism at Cheonjinam and Jueosa,' *History and Practical Learning* 47.

Lee, Won-soon (1983) 'Cheonjinam and Jueosa: Dispute on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in Commemorative Works of Dr. *Kim Cheol-jun*, Seoul.

Lee, Won-soon (1986) 'Studies on Korean Catholic History,' Seoul: *Korean Church History Research Institute*.

'Commemorative Volume for the 60th Birthday of Lee Gi-baek,' Vol. 2, Seoul: *Iljogak*.

Nam, Sang-cheol (1962/1963) 'The Discovery of Jueosa as the Cradle of Korean Catholicism (1–3),' *Gyeonghyang Magazine*.

Seo, Jong-tae (1994) 'Cheonjinam Jueosa Study and Yangmingism,' in *Korean Historiography.*

Yoon, Min-gu (2002) 'The Origin of Korean Catholicism,' Seoul: *National Studies Library.*

The Era of Chajusŏng

－DPRK Foreign Policy Thought in the 1970s－

Moe Taylor*

Korea Policy Institute

1. Introduction

The 1970s was the high point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is decad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aw a dramatic expansion of its bilateral ties and economic cooperation beyond the socialist camp, as well as international support for its position on Korean unification. As a result, it saw real advances towards its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reducing dependency on the USSR and China, and the removal of US military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the South. This was no accident, but rather the result of the largely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multi-layered foreign policy strategy responding to the shifting geopolitical dynamics of the time. Key to this strategy was expanding engagement with the newly independent and developing nations of the "Third World," at a time when these states were finding common cause in the Non-Aligned Movement (NAM).

This essay focuses on the ideological dimension of the DPRK's foreign policy shift of the 1970s. As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moved away from its previous emphasis on armed revolutionary struggle and Marxist-Leninist lead-

* Associate
E-mail: wdmoetaylor@gmail.com

ership, it presented a new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tasks required of it. This new foreign policy doctrine was summarized by Kim Il Sung's concept of the "era of chajusŏng," a historical conjuncture in which the "primary tendency" (kibon ch'use) was a universal yearning f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contra imperialism. The struggle implied in this conception was one in which nation-states, rather than revolutionary movements from below, were the primary protagonists, and of which NAM was the most important expression. The map it drew of the world transcended not only the Cold War divide, but even the North/South, core/periphery binary, emphasizing states' commitment to chajusŏng over their socio-economic system or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This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moment rationalized a set of objectives, strategies, and alliances quite different from those pursed by its socialist allies, but which made possible a level of international engagement previously foreclosed to Pyongyang.

2. Changing international conditions of the 1970s

The 1970s saw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conditions that opened new possibilities for the DPRK. As European colonies in the global South continued to gain independence in the decades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UN membership expanded from 51 members in 1945 to 127 by 1970. Two-thirds of UN member states were now developing countries, and therefore had the potential to pass or defeat resolutions within the annual General Assembly by voting as a bloc. Many of the newly independent governments of the global South were heirs to popular anti-colonial struggles supported by the socialist camp. In such countries, capitalism was often associated with colonialism and exploitation, while socialism was seen as a pathway out of

dependency and backwardness. While few were ruled by bonafide Marxist-Leninist parties, many adopted reformist and "national" programmes focused on state-led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 becoming what the Soviet Union classified as "socialist-oriented" rather than "socialist" countries.

This growing Third World coalition was given political expression in the Non-Aligned Movement (NAM), which hit its stride in the 1970s to become an important force in international politics. Josip Tito of Yugoslavia and Egypt's Gamal Nasser were the main drivers behind the founding conference in Belgrade in September 1961, attended by twenty-five heads of state. Beginning as a coalition of small and newly independent countries asserting their right to remain independent of both Cold War blocs, by its Fourth Summit in Algiers in September 1973 membership had grown to seventy-five countries, with a more radical platform based on decolonization, nuclear disarmament, South-South cooperation, and support for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in the global South. The organization primarily pursued its goals through the UN General Assembly and other U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chief among them U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The central rallying cry of the movement became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formally endors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74. NAM presented a genuine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status quo, as "both its exponents and opponents believed there was a chance this new order might in fact be established, indicating the existence of an alternative to the Western economic model" (Dinkel 2019: 225).

The Non-Aligned Foreign Ministers Conference in Georgetown, Guyana, in August 1972 passed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immediat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is was followed by the Fourth Non-Aligned Summit in Algiers in September 1973, which passed a resolution on "the Korean question" endorsing key demands of Pyongyang: immediat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South, the dissolution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and a rejection of "dual representation" in the UN General Assembly. "Dual representation", favoured by Seoul, would see both the ROK and DPRK join the UN as separate members. Pyongyang maintained, by contrast, that as Korea was one nation, only a unified peninsula could occupy a seat in the General Assembly. In May 1974 Kim Il Sung wrote Josip Tito, explaining his reading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stating "our country, as a country belonging to the Third World, desires to join the ranks of the Non-Aligned Countries if they do not object to this" (Kim letter to Tito 1974). The DPRK was granted full membership at the Conference of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of Non-Aligned Countries in Lima in August 1975, alongside Viet Nam, Panama, and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At the same ministerial meeting the ROK's application was rejected, a clear sign that Seoul was losing its diplomatic competition with Pyongyang within what was seen as the "progressive" Third World. The DPRK went on to earn a seat on the NAM Coordinating Bureau at the Sixth Summit in Havana in September 1979.

The emergence of a Third World coalition wielding significant leverage within the UN system offered a promising path through which the DPRK could pursue its foreign policy objectives. Expanded cooperation within the global South could advance Pyongyang's economic goals, in particular its long-standing desire to reduce dependency on the Soviet Union and China. Emphasizing peaceful diplomacy over revolutionary struggle also increased opportunities for trade, loans, and technology transfers from some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What emerged as a new foreign policy strategy focusing on multilateralism and Third World solidarity was accompanied by a new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tasks demanded of it, the foundation of which was Kim Il Sung's concept of "era of chajusŏng."

3. A new phase of North Korean Third Worldism: the "era of chajusŏng"

The WPK's new foreign policy doctrine began to appear in Kim Il Sung's public speeches and interviews with foreign journalists in 1974. Its foundation was a certai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moment. Kim proclaimed that the world had entered the "era of chajusŏng." In this new epoch, the "primary tendency" (kibon ch'use) was a universal and irrepressible yearning f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contra its chief obstacle: imperialism. In his October 1975 speech commemorating the thirtie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WPK, Kim defined the era of chajusŏng thusly:

> The current period is the era of chajusŏng. The people of numerous countries of the globe at present demand chajusŏng and struggle against fall forms of subjugation [*yesok*]. No nation tolerates its chajusŏng to be violated by foreigners. The people of the socialist countries, the people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to say nothing of the people of the capitalist countries, demand chajusŏng. The fact that the people of the world demand chajusŏng and many countries march along an independent path [*chajutŭi kil*] is the primary tendency [kibon ch'use] of our era, which no force can stop (Kim 1985: 554-55).

As in Lenin's classic theory, the WPK described imperialism as both a system and as the foreign policy of individual states. As a system imperialism was the international order headed by Washington, in which countries of the global South saw their resources plundered for the benefit of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a system ultimately propped up by the hard power of the United States with its global network of military bases. However, imperialism also had its regionalised and contingent expressions, for example, the vestiges of Portuguese and French colonialism in Africa, white settler rule and

apartheid in Rhodesia, Namibia and South Africa, Zionism in the Middle East, Spain's occupation of the Western Sahara, etcetera. As in the past, however, the WPK tended to emphasize the agency of the United States, arguing that US imperialism always lay behind the ability of weaker actors to engage in imperialist and colonialist policies.

While the WPK formally rejected the Chinese thesis that the Soviet Union represented a form of "social-imperialism," Kim often suggested that the struggle for chajusŏng was also a challenge facing socialist countries. In June 1974 Kim remarked that "socialist countries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policy adopted by another country" and that "in a family there should be an atmosphere in which everyone can take coffee or tea in the morning, according to their taste" (Kim 1974: 74). This was, in fact, in line with a history of Kim criticizing the Soviet Union and China for exhibiting "big power chauvinism" towards the DPRK and other small socialist countries like Cuba and Viet Nam. Pyongyang also condemned Viet Nam's invasion of Cambodia in December 1978, and archival records reveal that, at least privately, Kim was deeply critical of Soviet and Cuban intervention in Africa in the 1970s (Taylor 2023: 203-205).

Imperialism, according to Lenin, was the outstanding character of capitalism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subjugated peoples had always resisted foreign domination. However, what defined Kim's era of chajusŏng was not imperialism, but its antithesis: a global striving f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at transcended cultures, socio-economic systems, and even the North/South, core/periphery divide. Moreover,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forces had changed, and with it, the horizon of possibility. The struggles for national liberation unleased by the Second World War had reached a critical mass, culminating in a united Third World coalition posed to fundamentally alter the international order. As Kim explained before Zairean president

Mobutu Sese Seko in December 1974, the world had entered a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 in which the "decaying imperialist forces are breaking apart and crumbling" while the "new, growing forces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are emerging as the masters of the world" (Kim 1976: 258). It was this heightened conflict between a universal aspiration f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the declining forces of imperialism — not the conflict between the proletariat and the bourgeoisie — that had become the "primary tendency" (kibon ch'use), with the Third World emerging as a "great driving force [*k'ŏdaran ch'udongnyŏk*] advancing human history" (Kim 1985: 553).

3.1. Sovereignty before Socialism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utlined above was the basis for a re-framing of the historical task at hand. Discussion of socialism or class struggle is noticeably sparse in North Korean commentary on international affairs after 1973. The world revolution at the heart of Marxism-Leninism – the very raison d'êt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 was replaced with a vision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saeroun kukche jilsŏ] in line with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f the world," one which was "equitable" [kongjŏnghan], in which "the imperialists no longer practise despotism on the international stage, nor violate the sovereignty [chajugwŏn] of other countries, nor plunder their resources at will" (Kim 1985: 680). This meant the task of the Left in the global South was not to mobilize workers and peasants for socialist revolution, but rather to "establish a progressive social regime and build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culture",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construct a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rich and powerful" (Kim 1976: 265).

Placing national liberation ahead of socialism had some basis in Marxist tradition. Lenin had famously contended that the colonized nations of the periphery constituted the 'weakest link' in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and therefor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s in the global South, even if led by bourgeois elements, had a crucial role to play in the unfolding world revolution. Both the Chinese and Korean communist movements adopted the position that in their respective societies, given their "colonial"/"semi-colonial," and "semi-feudal" character, a popular revolution against foreign domination and the large landowner class predated the proletariat's struggle for socialism, a position widely adopted by socialist movements in the global South. In several Latin American countries in the postwar era – Colombia, Peru, Panama, Bolivia, Argentina - communists sometimes chose to back populist-nationalist leaders in the belief that they shared with them common goals: breaking the power of the traditional *oligarquía* and establishing greater domestic control over the economy.

What was unique in the WPK line of the 1970s, however, was that national liberation was no longer presented as a stage towards socialism: it was the goal itself. The WPK was clear that it was a Marxist-Leninist party leading a process of socialist construction in the DPRK. However, what really mattered for developing countries, Kim Il Sung explained to a delegation of Panamanian journalists in September 1974, was that politics and economics reflected "the interests of their people and the realities of their country" (Kim 1975: 59-60). While Kim commended developing countries taking a socialist path, he emphasized that "the experiences of the socialist countries do not entirely correspond to the countries of the Third World", and that "the master of the revolution of each country is that country's own people." While the Third World comprised "countries of distinct social systems" and "political parties that profess distinct ideologies or ideals," their basis for unity was the "common aspira-

tion to oppose imperialism and develop themselves independently" (Kim 1975: 61). This was not merely a principle of diplomacy or pluralism. Kim reconfigured the notions of revolution and freedom as historically understand by Marxists through a fundamentally nationalist logic. This translated into Kim's praise for heterodox, "national" socialist programmes which gained currency in the global South in the 1970s, such as "ujamma" (Tanzania), "co-operative socialism" (Guyana), "el proceso revolucionario" (Panama); but also non-socialist concepts of economic-cultural indigenization, e.g., "Arabization," "Africanization," Mobutu Sese Seko's *Authenticité*, etcetera.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mbivalence around the question of socialism was consistent with Pyongyang's position on unification in the 1970s. The DPRK proposed that once a peace treaty was established and US troops had left the South, the two Koreas could unite under a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Kim told Tito in November 1979 that once this happened "we won't impose our own social system" and "we will leave the national capitalists in south Korea and we won't meddle into foreign economic concessions in south Korea." What mattered was that "our country won't become a satellite of any other country and it will remain a fully independent and non-aligned country" (Kim letter to Tito 1979).

3.2. The "new, growing revolutionary forces"

Placing the goal of sovereignty before socialism, and replacing the horizon of world revolution with a more just and equitable world order, naturally raised the question of who were the chief protagonists in this struggle and on what terrain it was to be waged. In the Marxist tradition the revolution was to be led by the industrial proletariat. In order to be relevant to the societies in which the major socialist revolutions of the twentieth century ac-

tually occurred, this concept was modified to include a role for the peasantry. In the WPK's new narrative, however, the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was not one led by subaltern classes from below, but rather by states "marching under the banner of chajusŏng." From this perspective, NAM had replaced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as the international vanguard. As the struggle for chajusŏng had become the "primary tendency" (*kibon ch'use*), NAM had become the preeminent "revolutionary force" [*hyŏngmyŏng ryŏngnyang*] reflecting objective international conditions NAM was of "epochal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because it "emerged as an international revolutionary movement by reflecting the demands and aspirations of the times (Son 1976: 59)."

If the goal was chajusŏng and not socialism, nationalism surpassed Marxism-Leninism in practical importance. The political actors Kim now put forth as examples to be emulated were not revolutionary guerrillas or Marxist-Leninist parties, but rather Third World governments practising economic nationalism and South-South cooperation. Praise once reserved for Cuba and Viet Nam was now bestowed upon new partners in the non-aligned Third World: Algeria, Senegal, Somalia, Syria, Guyana, Panama, Peru, and Argentina, among others. This new criteria for evaluating governments also allowed for a reconciliation with Yugoslavia, which archival records show played a key role in facilitating the DPRK's entry into the Non-Aligned Movement (Coles 2021). As recently as the WPK's Second Party Conference in 1966, Kim had condemned the "Titoists" for allegedly sowing divis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Granma* 1966).

The way that Pyongyang's foreign policy towards Latin America shifted in the 1970s demonstrates the implications of this new doctrine. In the 1960s the DPRK had formal bilateral ties with only one country in the region – Cuba – and regarded most others as "fascist puppe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neo-colonial empire (Kim 1974: 83). Rather than seek diplomatic ties or commercial trade, its priority was supporting the revolutionary movements aiming to topple those in power. In the 1970s, while the WPK still viewed the region as a crucial battleground in the struggle against US imperialism, primary agency had shifted from non-state to state actors. What signalled the region's "revolutionary" potential was no longer the proliferation of Cuban-inspired guerrilla movements, but the growing strength of NAM, and that states were increasingly prepared to stand up to Washington on issue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resource control. In a June 1974 interview with the Peruvian journalist and former congressmen Efraín Ruiz Caro (1929-2007), Kim Il Sung singled out General Velasco in Peru and President Perón in Argentina as the Latin American leaders taking "the path of independence" (Kim 1974: 73). From the perspective of Pyongyang's new foreign policy doctrine, these nationalist, non-aligned governments were worthy of praise because they "maintained chajusŏng," while socialist Cuba was guilty of "flunkeyism" towards the Soviet Union. This new position resulted in a cooling of relations with Cuba, but allowed Pyongyang to establish formal diplomatic ties with thirteen countries in the region by 1982.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new assessment of Latin America had a basis in objective conditions. While Cuba had been a NAM member since 1961, nine additional countries in the region joined during the 1970s, together holding the potential to tip the scale in a particularly close vote in the UN General Assembly. Several regional issues were high on NAM's agenda during the 1970s, including Guantanamo Bay, the Panama Canal, Puerto Rican and Belizean independence, the campaign for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200-mile coastal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Argentina and Britain's dispute over the Malvinas (Falkland Islands). In this political climate, the USA faced a wave of attempts to nationalize US-owned assets during the decade,

notably in Chile, Peru, Bolivia, Panama, Guyana, and Jamaica.

If nationalist, non-aligned governments of the global South were leading the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even more controversial was Kim's new assertation that what he called the "second world" had become allies. By "second world" Kim referred to the more progressive governments among the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which "demand sovereignty" and "insist on respect for the principal of independence" (Kim 1974: 73). In other words, those Western governments that appeared prepared to defy the USA and supported the goals of developing countries for greater control over their resources. In 1974 Kim placed Canada, France, Norway, Sweden, Denmark, and Finland in this category. In the years that followed, the United Kingdom, West Germany, Italy, and Japan were often mentioned as well. In September 1981 – at a time where Ronald Reagan's cold war strategy was meeting resistance from Western European leaders – Kim declared that the world needed Europe and Japan to "march along the road to independence"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for starting a third world war (Kim 1982: 100).

Looking closer at the example of Canada in the 1970s is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s reasoning. At first glance it seems improbable: Canada was a founding member of NATO, had fought in the Korean War under US command, and had never formally recognized the DPRK. However, Prime Minister Pierre Trudeau, first elected in 1968, was an economic nationalist known for his friendly posture towards the socialist countries, his critical views of US foreign policy, and his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attempting to reclaim ownership of their resources. In fact, when Guyana moved to nationalize its Canadian-owned bauxite resources in the early 1970s, Trudeau offered no resistance, merely asking that the private owners receive fair compensation (Litvak and Maule 1975: 49-54). Moreover, Canada and the DPRK had inadvertently became allies in one respect: they

were both strong advocates of the campaign for the 200-mile coastal EEZ principle,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December 1982.

3.3. Political struggle in the era of *chajusŏng*

The WPK's conception of a new global order followed, in essence, that of the Non-Aligned Movement: new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could serve as the framework for a more just global economy and enshrin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overeignty of all states. In line with these goals, Kim championed the initiatives of non-aligned states within the UN General Assembly, and expressed high hopes in the Third World summitry of the era, such as the Conference of Developing Countries on Raw Materials in Dakar, Senegal in February 1975. The DPRK also threw its weight behind efforts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conventions seen as primarily beneficial to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e aforementioned UNCLOS, and the Geneva Conference of 1974-77. Perhaps above all, the DPRK became a vocal advocate of South-South cooperation: the concept that developing countries could overcome what they lacked individually in resources or technology by trading amongst themselves on a fraternal basis. Pyongyang's most well-known contribution in this regard was its Ch'ŏllima 28 tractors, which it gifted in large numbers to new allies in the global South in the 1970s and 1980s (Taylor 2022).

Now that the WPK redefined the central goal of the historical moment as chajusŏng rather than socialism, and called for a coalition of states opposed to imperialism that transcended both the Cold War and North/South divide, it was forced to revise its position on political tactics. Its previous lin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rmed struggle – rural-based, communist-led

guerrilla warfare in particular – and dismissed reformism and electoralism as dead ends. The WPK now accepted that there was a plurality of legitimate strategies for political struggle in the global South, including electoral politics and, more interestingly, military coups. In October 1974 Kim told the Ecuadorean publisher Humberto Ortiz Flores that military coups may be a necessary road to social chang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Kim 1974: 103-104). As progressive civilian governments were frequently overthrown by foreign intervention, Kim explained, it may be up to "military progressives" to seize power and defend a nation's sovereignty. The military background of North Korean leaders likely contributed to their admiration for "anti-imperialist" military strongmen, such as Omar Torrijos in Panama, Juan Velasco in Peru, and Siad Barre in Somalia, all men who were singled out for praise by Kim in the 1970s.

It is also noteworthy in this context that the WPK was attempting, unsuccessfully, to gain observer status in the Socialist International (SI) as early as the time of its fourteenth congress in Vancouver, Canada in November 1978 (US DOS telegram 1978). The SI is the global federation of social-democratic parties that in previous decades, as a Marxist-Leninist party of Third International lineage, the WPK would have had little to do with. Through the lens of its new foreign policy line, however, closer ties with the SI did not pose an ideological problem, while offering many potential benefits. Some member parties were significant players in the "second world" countries the DPRK now wished to build bridges with. Willy Brandt, for example, leader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SPD), was elected SI president in 1976. The SI had become increasing vocal on Third World issues in the 1970s, supporting many of the demands of NAM, and allying with the left-wing opposition to Park Chung-Hee in South Korea.

Lastly, it should be noted that in acknowledging a plurality of paths to

progressive change in the global South, the WPK did not renounce armed struggle. Pyongyang never recognised the military regime of Augusto Pinochet in Chile, for example, and continued to support opposition forces within the country, including the radical armed group *Movimient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Revolutionary Left Movement, MIR). Likewise, the DPRK was among those NAM members who voted in favour of resolutions recognizing the legitimacy of armed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and colonialism, Apartheid and Zionism, especially in Zimbabwe, Namibia, South Africa, Palestine, the so-called French Somaliland (Djibouti) and other territories" (5th NAM Summit declaration 1976: 20).

3.4. The era of *chajusŏng* and Marxism-Leninism

Summarizing the DPRK's foreign policy doctrine of the 1970s, it become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d decided it was willing to make a significant break with Marxism-Leninism. In fact, in this same period Kim and official party organs stated publicly that the ideas and tactics of the historic communist movement had become outdated. In a discussion with Eloy Torres (1918-2006), vice-president of the Venezuelan socialist party *Movimiento al Socialismo* (Movement Towards Socialism, MAS) in September 1981, Kim argued that as valuable as the theories of Marx and Lenin were, "we cannot continue to apply these dogmatically." This was because: "With the shifting of time the character of the era changes the social conditions and the goal of the revolution. As these change, so does the character of the revolution and the theories and methods of it as well" (Kim 1982: 95). This was about more than the WPK's revised foreign policy doctrine, but rather was part of a broader political shift, namely the elevation of the Kim personality cult and emphasizing *Chuch'e Sasang* a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party. In

this process, Kim was recast from a great Marxist-Leninist to an original theoretician of universal relevance.

Such a major ideological shift within the DPRK leadership did not go unnoticed. In March 1975 the US State Department observed that "North Korea is apparently diluting its ties with the communist world" and that Kim Il Sung "regards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Third World and apparently wishes to have his primary relationship with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with his communist neighbours" (US DOS telegram 1975). By the time of the WPK's Sixth Party Congress in October 1980, the Hungarian ambassador to North Korea could remark that: "The characteristic attribute of these views is a pragmatic and nationalistic approach that is moving more and more away from Marxism-Leninism" (Hungarian embassy telegram 1980). An Albanian delegate was more blunt: "What kind of congress it is where not a single word mentions Marxism-Leninism, and parties with no connection to communist ideologies participate as well?"

4. Conclusion

Guided by the concept of the "era of *chajusŏng*", in the 1970s Pyongyang pursued a foreign policy strategy focused on diplomacy and multilateralism, and premised on principles of anti-imperialism, non-alignment, and South-South solidarity. This was the most successful period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the height of its legitimacy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flected in a level of political support and economic engagement it has not matched in any decade since. The DPRK gained observer status at the UN and membership in a number of important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the Group of 77, and as this essay has focused

on, the Non-Aligned Movement. In 1973, Third World support for Pyongyang's stance on "the Korean ques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forced the USA to accept a "statement of consensus" affirming unification would take place "independently, without reliance upon outside force or its interference," and declaring the immediate dissolution of UNCURK. In 1975 history was made when a resolution endorsing Pyongyang's stance on Korean unification pass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with 54 votes in favour, 43 against, and 42 abstentions, with support coming entirely from the Third World and socialist countries. Delegations representing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from around the world flocked to Pyongyang in the 1970s, a city that was also the site of several non-aligned ministers conferences, and hosted the 1979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With the second presidency of Donald Trump inaugurated in January 2025, Kim Il Sung's vision of a coalition of the global South and progressive Western governments to resist US hegemony, or at least its most destructive expressions, finds reflections in the contemporary moment. More than one commentator has identified a resuscitation of the aims of NAM in the rise of the BRICS coalition, whose members states now encompass over half the world's population. If the world is indeed in a new Cold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rump's policies will continue to cause some US allies to reconsider where their interests lie. As during the first Trump presidency, G7 policy thinkers indulge in speculation – some would say fantasies – of "middle power diplomacy" in which states like Canada, Japan, and the EU might coordinate to exert a "soft containment" of the United States. Cory Doctorow recently suggested that a Trump agenda shaped by the interests of a silicon valley tech giants is forging common interests between the remaining tech economies of the Global North and South. What these developments remind us is that while much has changed since Kim Il Sung first declared the "era

of *chajusŏng*," the realities of US hegemony and uneven development continue to be a source of contestation and dislocation on an international scale, dynamics bound to only increase in the current geopolitical situation.

Reference

Coles, Martin, Neighbors in Non-Alignment: The Tito-Kim Correspondence, 1973-1979 (https://www.wilsoncenter.org/blogs/sources-and-methods, 2021.10.4)

Declaration of the 5th Summit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the Non-Aligned Movement, Colombo, Sri Lanka, 16-19 August 1976.

Dinkel, Jürgen (2019) *The Non-Aligned Movement: Genesis, Organization and Politics (1927–1992)*, Leiden: Brill.

'Hungarian Embassy in the DPRK, Report, 27 September 1973. Subject: The DPRK and the NonAligned Summit in Algiers,' September 27, 1973,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004, 2012.12.20)

Kim, Il Sung (1975) *América Latina avanza victoriosa bajo las banderas del antiimperialismo, independencia y soberanía* [Latin America advances victorious under the banners of anti-imperialism,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onymous publisher.

Kim, Il Sung (1985) *Chŏnjip* [Works], vol. 30, Pyongyang: Korean Workers' Party Publishing House.

Kim, Il Sung (1976) *El Movimiento de los No Alineados es una poderosa fuerza revolucionaria antiimperialista de nuestra época*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powerful revolutionary force of our time], Pyongyang: Ediciones en Lenguas Extranjeras.

Kim, Il Sung, (1974) *Repuestas a las preguntas de los corresponsales extranjeros* [Answers to questions from foreign correspondents], Pyongyang: Ediciones en Lenguas Extranjeras.

Kim, Il Sung, (1982) *Sobre de Movimiento de No Alienación* [On the Non-Aligned Movement], Pyongyang: Foreign Languages Editions.

'Letter and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Il Sung, to President Josip Broz Tito,' May 23, 1974,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letter-and-message-presiden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kim-il-sung-president-josip (2019.04.26).

Litvak, Isaiah A. and Maule, Christopher J. (1975) 'Nationalisation in the Caribbean Bauxite Industry,' International Affairs, 51:1, 49-54.

'Letter, Kim Il Sung to Josip Broz Tito', Nov 16, 197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letter-kim-il-sung-josip-broz-tito-0, 2019.04.30)

'Los partidos comunistas no deben seguir ciegamente a nadie y mantener su independencia' [Communist parties must not blindly follow anyone and maintain their independence], Granma (Havana) October 8, 1966.

'Planning talks paper on Korea,' Telegram from US Secretary of State to US Embassy in Tokyo, March 13, 1975, Access to Archival Databases (AAD), US National Archives (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01109&dt=2476&dl=1345)

'Plenary debate at Vancouver Socialist International (SI) congress,' Telegram from the US embassy in Ottawa to US Secretary of State, Nov 7, 1978, Access to Archival Databases (AAD), US National Archives (https://aad.archives.gov/aad/createpdf?rid=276532&dt=2694&dl=2009)

Son, Chinp'al (1976) "Ppŭllŏkpulgadam undong ŭi sunggohan rinyŏmŭn sŭngni hago itta" [The noble ideals of the Non-Aligned Movement are triumphant], Kŭlloja 7, 59-64.

Taylor, Moe (2023) North Korea, Tricontinentalism, and the Latin American Revolution, 1959-19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ylor, Moe (2022) *T'ŭraekt'ŏnŭn ssarigo ssarŭn sahoejuŭida: kigyehwa nongŏp, naengjŏn kŭrigo tu Han'guk* [The Tractor is Rice, and Rice is Socialism: Mechanized Farming, the Cold War, and the Two Koreas], Gwangju: Asia Culture Center.

'Telegram from the Hungarian Embassy in Pyongyang, 'Foreign opinions regarding the WPK's 6th Congress,'' November 11, 198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23748, 2016.03.31.)

Mongolia's Defector Dilemma

－Navigating the Korea Divide－

Sumiya Chuluunbaatar*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 Introduction

1.1. Research Background

In the intricate geopolitical web of Northeast Asia, Mongolia has long clung to its identity as a "neutral bridge," leveraging its "Third Neighbor Policy" to carve out autonomy amid the overlapping influence of China and Russia. What began in the 1990s as an expedient to reduce economic dependence on Beijing and Moscow has evolved into a values-based diplomatic stance, earning Ulaanbaatar credibility as a nonaligned mediator.

Yet between 2024 and 2025, three converging crises shattered this delicate balance: the collapse of the soft power narrative embodied by the Mongolia-South Korea co-produced film On the Way to the South, the exposure of a South Korean spy scandal, and a diplomatic crisis sparked by the defection of a North Korean interpreter. Together, these incidents laid bare a sharp contradiction at the heart of Mongolia's neutrality: how to reconcile humanitarian idealism with economic pragmatism, and how to safeguard national sovereignty while appeasing both Seoul and Pyongyang. Coming in

* Non-Resident fellow,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AS, Mongolia
E-mail: info@mongolia-china.org; sumiya222@hotmail.com

2025 – the 35th anniversary of Mongolia-South Korea diplomatic ties – and on the heels of Ulaanbaatar's renewed engagement with Pyongyang in 2024, the crisis has become a defining test of Mongolia's diplomatic maturity.

1.2. Research Methods

This study adopts a case study method, focusing on the three 2024–2025 crises as core cases. Data sources include: (1) official documents (e.g.,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Implementation Report 2024, South Korean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Report); (2) international media reports (Kyodo News, Yonhap News, Montsame News etc); (3) economic statistics from Mongolia'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South Korea'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By integrating qualitative analysis of event processes and quantitative verification of economic data, this study explores the causal mechanism between economic dependence and diplomatic compromise.

2. The Collapse of Soft Power Narrative: Film and Spy Scandal

2.1. Soft Power Ambitions of On the Way to the South

Premiering in Ulaanbaatar in September 2024 and Seoul in April 2025, "On the Way to the South"[1] was intended to consolidate both countries' soft power. Co-directed by South Korea's Sangrae Kim and Mongolia's Battulga

1 Administrator. (2024). On the way to the south. Kortop Media. Available at: https://www.kortopmedia.co.kr/board/view?bd_id=wk01_en&wr_id=162 (Accessed: 25 June 2024).

Suvid, the film eschewed political grandstanding for a human-centric narrative: a North Korean mother fleeing border patrols with her child, a Mongolian border guard torn between duty and compassion, and a defector grappling with separation trauma. Starring prominent Mongolian actors Sarantuya Sambuu, Erkhembayar Ganbold, Samdanpurev Oyunsambuu, and Zamilan Bold-Erdene alongside South Korean stars Park Kwang-hyun, Oh Su-jung, and Choi Jun-yong, the film deliberately framed Mongolia as a "moral mediator" — rejecting Seoul's hardline stance toward Pyongyang while disavowing North Korea's isolationist policies.

The film's release was meticulously timed to coincide with the 2025 bilateral anniversary, aiming to enhance Mongolia's voice in Korean Peninsula mediation while aligning with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2] which positions Mongolia as a Eurasian resource hub. Domestically, it stoked national pride in a small nation contributing to regional stability; internationally, it successfully rebranded the Third Neighbor Policy from a mere economic diversification strategy to a diplomatic framework rooted in humanitarian values.

2.2. The Spy Scandal and Sovereign Compromise

Yet this idealistic vision crumbled within months amid an espionage scandal. In late 2024, Mongolian authorities arrested two officers from South Korea's Defense Intelligence Command (KDIC) — a lieutenant colonel and a major — accusing them of recruiting Mongolian intermediaries to infiltrate North Korea's embassy in Ulaanbaatar. The act violated the 1961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stituting a direct infringement of Mongolia's sovereignty.

---

2 Yonhap News. (2021). (LEAD) S. Korea, Mongolia upgrade bilateral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Yonhap News Agency. Available at: https://en.yna.co.kr/view/AEN20210910001651315 (Accessed: 11 September 2021).

Ulaanbaatar initially issued a stern condemnation, calling the incident a "serious breach of trust," but reversed course after KDIC Director Moon Sang-ho personally traveled to Ulaanbaatar[3] to apologize. Mongolia dropped the charges and released the officers. This compromise stemmed from Mongolia's deep economic reliance on South Korea, yet it exposed diplomatic double standards: Ulaanbaatar was simultaneously deepening friendly engagement with Pyongyang, eroding its neutral image.

More alarmingly, an investigation by South Korean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 revealed potential links between the spy operation[4] in Mongolia an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less than two weeks later. The probe found the KDIC's actions were a deliberate attempt to fabricate a security crisis over North Korean threats, providing a pretext for Yoon to suspend civil liberties and dissolve parliament in an authoritarian power grab. Notes from former KDIC Director Noh Sang-won — now on trial for treason — detailed plans to "launch provocative attacks along the Northern Limit Line (NLL)." Lee Seung-ho, the former operational chief of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confirmed the former defense minister had ordered drones to infiltrate North Korean territory. Internal KDIC memos also referenced using "abandoned balloons" equipped with propaganda or incendiary devices to provoke a North Korean response. Mongolia's territory had unwittingly become a stage for this political conspiracy, violating both its sovereign principles and cherished neutrality.

---

3 Hwang, J.-y. (2025). Probe targets alleged link between Mongolia operation, martial law. Korea Herald. Available at: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38131 (Accessed: 24 July 2025).

4 Kang, J.-g., Kwak, J.-s. & Shin, H.-c. (2025). Investigators see potential treason in alleged DIC plot to contact North Korea. Hankyoreh English Edition. Available at: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209337.html (Accessed: 23 July 2025).

3. The Defector Crisis: Trust Rupture with North Korea

3.1. The Escalation of the Defector Incident

In August 2025, the defection of an interpreter during a high-level North Korean academic delegation's visit to Mongolia worsened the country's diplomatic predicament. Led by Tae Hyung-chul, president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5], the delegation marked Pyongyang's first senior academic mission to Mongolia in seven years. Tae and his group were tasked with promoting the narrative that "Seoul has abandoned reunification." Chaos erupted during the visit, however, when an accompanying interpreter sought asylum at South Korea's embassy in Ulaanbaatar. According to Japan's Kyodo News[6], Pyongyang responded with an unprecedented retaliation: recalling its ambassador to Mongolia — the first such move since 1999 — ending Oh Seung Ho[7]'s eight-year tenure.

3.2. The Warming and Rupture of Mongolia-North Korea Relations

This retaliation stood in stark contrast to the warming of Mongolia-North Korea relations in 2024. That year, Mongolia became the first country besides China and Russia to increase embassy staff in Pyongyang following the

5 Yu, E.-s. (2025). 북한 통역원, 몽골서 한국 대사관 통해 망명…지위 있는 인물 추정. Munhwa Ilbo Online. Available at: https://www.mt.co.kr/society/2025/10/25/2025102513332549045 (Accessed: 26 October 2025).

6 Kyodo News. (2025).【独自】北朝鮮通訳、モンゴルに亡命 代表団がウランバートル訪問時. Kyodo News. Available at: https://www.47news.jp/13345157.html (Accessed: 26 October 2025).

7 Office of the President of Mongolia. (2018).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DPRK presents credentials. Office of the President of Mongolia. Available at: https://president.mn/en/2018/01/08/ambassador-extraordinary-and-plenipotentiary-of-dprk-presents-credentials/ (Accessed: 9 January 2018).

COVID-19 pandemic. In January, Mongolian Ambassador Luvsantseren Erdenedavaa presented his credentials to Choe Ryong Hae, chairman of the Presidium of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8], with both sides commemorating the 7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and the 35th anniversary of Kim Il Sung's visit to Mongolia.

In March 2024, North Korean Vice Foreign Minister Park Myong Ho[9] led a delegation to Mongolia — the first from Pyongyang's Foreign Ministry to Ulaanbaatar since the pandemic. These interactions reflected Pyongyang's recognition of Mongolia's decision to keep its embassy open[10] during the pandemic and trust in its neutral stance. On July 31, 2025, Chairman of the State Great Khural Amarbayasgalan Dashzegve held another official meeting with Chairma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k In Chol[11], reaffirming commitments to long-term cooperation.

The interpreter's defection shattered this trust, with North Korea issuing a stern warning: it would not tolerate Mongolia becoming a "transit hub for defectors" or a "platform for South Korean conspiracies." Faced with the crisis,

---

8 Ooluun, B. (2024). Mongolian Ambassador to DPRK Presents His Credentials. MONTSAME. Available at: https://montsame.mn/en/read/336605 (Accessed: 1 February 2024).

9 Sumiya Chuluunbaatar. (2024). Why did North Korea's deputy foreign minister visit Ulaanbaatar? The Diplomat. Available at: https://thediplomat.com/2024/03/why-did-north-koreas-deputy-foreign-minister-visit-ulaanbaatar/ (Accessed: 1 April 2024).

10 Sumiya Chuluunbaatar. (2023). Will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visit Mongolia this year? The Diplomat. Available at: https://thediplomat.com/2023/05/will-north-koreas-foreign-minister-visit-mongolia-this-year/ (Accessed: 1 June 2023).

11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2025). Chairman of the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Mr. Amarbayasgalan Dashzegve, met with Mr. Pak In Chol, President of the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Available at: https://www.parliament.mn/en/nn/75515/ (Accessed: 2 August 2025).

Mongolia adopted a "strategic silence," neither confirming nor denying the defection. Despite international accusations of "hypocrisy,[12]" the choice was a pragmatic one for a small nation: prioritizing avoidance of direct confrontation with Pyongyang[13] and long-term regional stability over short-term moral grandstanding.

4. Economic Dependence: The Root of Diplomatic Compromise

4.1. Mongolia's Economic Vulnerability

Mongolia's series of compromises in 2024-2025 stemmed from severe economic vulnerability. Over 80 percent of its trade relies on China and Russia, making its economic lifeline vulnerable to fluctuations in their economies and policy shifts. The Third Neighbor Policy is essentially a survival strategy to mitigate this risk. By 2025, South Korea had emerged as the policy's core pillar: Seoul's semiconductor and electric vehicle industries create a strong demand for Mongolia's silver, molybdenum, coal, copper, and rare earths (critical minerals)[14], forging a deeply complementary economic bond built on earlier energy and infrastructure cooperation.

---

12 Karube, T. (2024). Ex-Mongolia president says employing North Koreans would spur engagement. Kyodo News. Available at: https://english.kyodonews.net/articles/-/49057 (Accessed: 26 July 2024).

13 Miyamoto, S. (2024). Friendship between North Korea and Mongolia: Friendly relations between neighbors of different regimes. ROLES Review, Vol.5. Available at: https://roles.rcast.u-tokyo.ac.jp/uploads/body_pdf/file/26/5Satoru__MIYAMOTO.pdf (Accessed: 29 November 2025).

14 Akhmetzianova, A. (2025). Mongolia agrees to stronger bilateral cooperation in rare metals. Korea.net. Available at: https://www.korea.net/NewsFocus/Business/view?articleId=267959 (Accessed: 14 March 2025).

Economic data from 2025 underscored the urgency of this dependence. Amid a slowdown in China's economy, Mongolia's exports to China fell by 9.4 percent in the first three quarters, with coal revenues plummeting by 41 percent[15]. While South Korea sought to fill the resulting gap, the actual data indicates that the outcome was less favorable for Mongolia: according to South Korean statistics[16], bilateral trade volume exceeded US$550 million in the first three quarters of 2025. Notably, although total trade volume rose by 19 percent, this growth was driven by a 21.2 percent increase in South Korea's exports to Mongolia, whereas South Korea's imports from Mongolia declined by 16.3 percent (see Table 1).

Table 1. Mongolia-South Korea Bilateral Trade Data (Q1-Q3 2025)

Indicator	Value/ Growth Rate	Core Composition
Bilateral Trade Volume	$550 million	+19% Year-on-Year
South Korea's Exports to Mongolia	——	Automobiles, electronics, machinery
South Korea's Imports from Mongolia	——	Coal (-41%), copper, rare earths

4.2. High-Level Diplomacy and Interest Binding

Seoul pledged to establish a "Mongolia-South Korea Rare Earth Cooperation Center" in November 2025[17] to promote joint exploration and smart mining.

15 Economic and Commercial Office of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Mongolia. (2025). 2025年 1-9月蒙古对华货物出口额同比下降 9.4%.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vailable at: https://www.mofcom.gov.cn/zwjg/scdy/yz/art/2025/art_c370ff9c20b04fb480e3a7244c83a382.html (Accessed: 11 October 2025).

16 Korea Customs Service. (2025).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Korea Customs Service Trade Statistics Portal. Available at: https://tradedata.go.kr/cts/index.do (Accessed: 29 November 2025).

17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public of Korea. (2025). Korea and

The ongoing negotiation of 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18] promises not only immediate economic relief but also critical technology for Mongolia's sustainable development[19]. This economic allure has gradually translated into significant South Korean diplomatic influence.

In April 2025, even as South Korea descended into domestic turmoil — with former President Yoon facing impeachment over his 2024 emergency decree —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ik led a delegation to Mongolia[20]. His framing of Mongolia as a "core partner for regional stability" implied a quid pro quo: economic support contingent on Ulaanbaatar aligning with Seoul on the Korean Peninsula. On July 30, 2025, Chairman Amarbayasgalan Dashzegve held an official meeting with Woo Won-sik[21], putting forward three core demands: resolving obstacles in the construction of central heating plants in 10 Mongolian provinces funded by South Korean concessional loans; facilitating mutual people-to-people exchanges; address-

---

Mongolia bolster full life cycle cooperation for rare metal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public of Korea. Available at: https://english.motir.go.kr/eng/article/EATCLdfa319ada/2236/view (Accessed: 13 March 2025).

18 Unknown author. (2024).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4차 공식협상 개최. Korea Free Trade Agreement Commission. Available at: https://www.fta.go.kr/webmodule/common/download1.jsp?boardid=64&tablename=fta_new_board01&seqno=144935&fileseq=5410 (Accessed: 29 November 2025).

1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2024). 제8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Available at: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1088 (Accessed: 13 November 2024).

20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ngolia. (2025). 대한민국 국회의장 몽골 공식 방문 (2025.4.26.~4.3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Available at: https://overseas.mofa.go.kr/mn-ko/brd/m_375/view.do?seq=1346956 (Accessed: 3 May 2025).

21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2025). Chairman D. Amarbayasgalan: We request that the issue of Mongolian citizens being turned back at the South Korean border be resolved.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Available at: https://www.parliament.mn/en/nn/75498/ (Accessed: 28 November 2025).

ing the issue of Mongolian citizens being repatriated at South Korean borders.

In response, Woo pledged to promptly resume the heating plant project and explore measures to facilitate travel (e.g., electronic visas). Following South Korea's June presidential election, new President Lee Jae-myung[22] tightened this linkage further, proposing "accelerating EPA negotiations" and "promoting visa-free entry for Mongolian citizens" (one of Ulaanbaatar's key demands, given that approximately 50,000 Mongolians work or study in South Korea, half of them illegally) in exchange for Mongolia's support on the Korean Peninsula[23].

5. Path Forward: Toward Principled Pragmatism

5.1. Consolidating Diplomatic Leverage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Mongolia must convert its resource advantages into substantive diplomatic leverage. In EPA negotiations[24], it should clarify two non-negotiable core demands: first, that South Korea sign a binding agreement prohibiting all in-

22 Cheong Wa Da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이재명 대통령,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첫 통화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Cheong Wa Da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able at: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Tnge2MtF (Accessed: 5 September 2025).

23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접견 (Press Releas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able at: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9790 (Accessed: 24 September 2025).

2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public of Korea. (2024). Korea and Mongolia enter 4th negotiating round for bilateral EP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public of Korea. Available at: https://english.motir.go.kr/eng/article/EATCLdfa319ada/2139/view (Accessed: 27 November 2024).

telligence activities on Mongolian territory, repairing the trust deficit caused by the KDIC spy scandal; second, that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take the lead in a defector processing mechanism, balancing humanitarian principles with sovereign security.

Economically, Mongolia needs to move beyond the low-value-added "raw material exporter" model, promoting value-added cooperation in rare earth processing and smart manufacturing to nurture domestic industries. Reducing dependence on a single market and resource exports will reshape Mongolia from a resource supplier to an industrial partner — aligning with Seoul's supply chain security interests[25] while granting Ulaanbaatar economic initiative.

5.2. Restoring Trust with North Korea

Restoring trust with Pyongyang requires a shift from reactive to proactive diplomacy. First, Ulaanbaatar should use backchannel communications to address the interpreter defection candidly, reaffirming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nd clarifying that Mongolia will not become a tool to confront North Korea[26]. Second, it should restart low-sensitivity cooperation projects — cultural exchanges, agricultural aid, and public health collaboration — avoiding contentious Korean Peninsula issues and repairing official trust through people-to-people interactions. Third, it should revive the "Ulaanbaatar Regional Forum on Denucleariz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25 U.S. Department of State. (2023). The Launch of the United States—Mongolia—Republic of Korea Trilateral Meeting. U.S. Department of State. Available at: https://2021-2025.state.gov/the-launch-of-the-united-states-mongolia-republic-of-korea-trilateral-meeting/ (Accessed: 3 June 2023).

26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2025). 'Flower Basket to C.C., WPK from C.C., Mongolian People's Party'.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Available at: http://kcna.kp/en/article/q/64e900f5bd0353837ca02d7babcce3adfbd61d3ebe6c0aa127fd5c247e4c6bb086e3f678356c6bea6037dffb29b9da0c.kcmsf (Accessed: 9 October 2025).

Korean Peninsula,[27]" positioning it as a nonconfrontational technical dialogue platform (focused on issues such as family reunions) to reactivate inter-Korean communication channels.

5.3.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ized Defector Mechanism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defector dilemma lies in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ized response mechanism. Supported by the UNHCR, this framework should include three core elements: clear asylum application criteria, strict confidential processing procedures, and third-country resettlement options. Such a system would safeguard the humanitarian rights of vulnerable groups while preventing individual incidents from escalating into diplomatic crises, translating the "humanitarian intermediary" vision of "On the Way to the South" into actionable policy.

6. Conclusion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ve not explicitly designated Mongolia as a "neutral bridge" between them, but we ourselves have proclaimed and pursued this role.

North Korea views Mongolia's self-proclamation as a "neutral bridge" with cautious approval, valuing it for maintaining stable diplomatic ties and potential mediation in regional issues, though it warns against actions that could support defectors or tilt toward South Korean influence.

---

27 Ulaanbaatar Dialogue. (2018). ULAANBAATAR DIALOGUE ON NORTHEAST ASIAN SECURITY.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ongolia (ISS). Available at: https://iss.gov.mn/wp-content/uploads/2021/10/UBD-2018-Publication.pdf (Accessed: 29 November 2025).

South Korea regards Mongolia's self-proclaimed neutral role positively, integrating it into policies like the New Northern Policy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and leverage Mongolia as a partner i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Limitations & Future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Mongolia's inter-Korean diplomacy; future research could explore the impact of Sino-Russian-US competition on Mongolia's neutrality, or conduct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neutral small states (e.g., Switzerland, Finland).*

Bridging Cultures: How South Koreans Adapt and Contribute to Mongolia's Social Landscape

TUMENGEREL Purev*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SUKHMAA Adiya**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 Introduction

The rapid growth of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has intensified cross-border migration and strengthened connections among societies, cultures, and economie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around 281 million people were living outside their home country in 2020—about 3.6% of the global population. Modern migration is driven not just by economic motives but also by education, family, political, and cultural aspirations.

Mongolia, situated between Russia and China, presents a distinctive linguistic landscape: older and middle-aged citizens often speak Russian, while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fluent in English. Over the last two decades, Mongolia has deepened its diverse relationships with East Asia, especially the Republic of Korea (ROK), leading to increased mobility between the two nations. With over 35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oth governments con-

* Senior Lecturer, School of Arts and Sciences
E-mail: tumengerel@num.edu.mn
** Senior Lecturer, School of Arts and Sciences
E-mail: sukhmaa@num.edu.mn

tinue to emphasize mutual cooperation. In 2025, the Speaker of the Mongolian Parliament and the Chair of Korea's National Assembly held high-level talk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people-to-people exchanges.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2023) show that approximately 24,000 foreigners live in Mongolia, either permanently or temporarily, and around 2,000 of them are South Korean citizens. Although small in number, thei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impact is significant and merits academic exploration.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s living in Mongolia are both personal and symbolic of broader bilateral and cultural exchanges. However, their adaptation journey is often shaped by challenges such as language barriers, cultural differences, limited social networks, and labor market integration issues (Kim & Lee 2019). For instance, Park (2022) identifies language barriers as the most pressing difficulty for Korean professionals in Mongolia, while Kim and Lee (2019) note that limited social interactions often lead to loneliness and hinder psychological adaptation.

As Russian sociologist L. A. Drobizheva observes, "*Cultural integration is not only about migrants adjusting to the host culture — it also depends on the openness and acceptance of the host society. It is a long-term, reciprocal process of mutual adaptation*" (Drobizheva 2014).

This study explores the lifestyles and adaptation experiences of South Korean nationals in Mongolia, focusing on how they preserve or modify their cultural identity and how they engage with Mongolian society through employment, social networks, and cultural exchange. It also aims to highlight their contributions to Mongolia's socio-economic development, analyze integration challenges, and provide insights for policy development.

2. Literature review

In recent years, the adaptation of Koreans living in Mongolia has become a growing research topic. Nevertheless, the scope of academic research is limited, with most information coming from case studies and articles alone. This review outlines the adjustment mechanisms of Koreans living in Mongolia in the social, cultural, and legal environment, challenges they face, the role of supporting institutions, and research gaps, and identifies opportunities for further research. The legal environment for foreigners in Mongolia has a great effect on the adjustment of Koreans. Visa exemption regulations, long-term, and short-term visa regulations between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 Koreans with the right to travel and reside (n.a, legalinfo.mn 2022).

The institutions supporting Koreans in Mongolia are embassies, consulates, and cultural centers. These constitute the main institutions supporting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organizing official relations for Koreans.

The adjustment of Koreans living in Mongolia depends on understanding the culture, language, and social environment. Most Koreans in Mongolia, according to this research source (n.a, ikon.mn 2023), find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and friendly relations.

Social integration is supported by the outcomes of cultural understanding, tourism, and other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Yet, language barriers and the requirement to adapt to local customs cause culture shock among some citizens. Koreans rely on the following mechanisms to adapt to Mongolia:

1. Social networks: Koreans in Ulaanbaatar and other cities provide mutual assistance and advice to each other and to Mongolians.
2.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workplaces in Mongolia offer basic conditions necessary for adaptation.

3. Domestic Institutional Support: Korean embassies and consulates offer visas, legal advice, and social services.

These mechanisms epitomize the two-level adaptation process: micro-family, individual; macro-society, institutions. Up until now, there has been a near total absence of serious scholarly research on Koreans living in Mongolia. The major contribution of data is by media, articles, and case studies.

Micro-level research focuses on family,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networks.

- Quantitative research includes statistical data, employment, income, and education.
- Supporting mechanisms and legal framework related to expatriates in Mongolia:

This research will address gaps in these areas and create an avenue for contributing to policy development.

Such factors that determine the adjustment of Koreans living in Mongolia include culture, language, and social relationships. Although the research materials are limited, adaptation mechanisms, institutional support, and cultural understanding are important areas of research. Further research at the micro and macro levels will be indispensable, together with policy analysi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is topic.

3. Research Objective

Over the past twenty years, economic, educational,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steadily ex-

panded, accompanied by a continuous rise in cross-border migration. By 2023, around 2,000 South Korean nationals were living in Mongolia, primarily in Ulaanbaatar and other major provincial centers (Population and Social Indicators of Mongolia 2023). These residents typically include businesspeople, investors, religious representatives, families who have settled long-term, and individuals pursuing academic goals such as students, teachers, and researchers (Cho 2017).

Among Mongolia's foreign communities, South Koreans form one of the more prominent groups. Understanding how they integrate into Mongolian society and navigate the process of cultural adaptation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interethnic relations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Their presence also serves as a lens to assess the adaptability and openness of Mongolian society amid growing globalization and cultural d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ocial integration and cultural adaptation of South Korean nationals in Mongolia from several perspectives. The research focuses on four key questions:

- How do South Korean nationals adapt to Mongolia'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 In what ways do they preserve their cultural identity while balancing assimilation into Mongolian society?
- How do language barriers, employment conditions, social networks, and emotional support systems affect their adaptation process?
- What contributions do South Korean residents make to Mongolia'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eyond recording individual experiences and adaptation pattern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can inform policymaking in areas such as migration, labor, education, and social protection. The in-

tegration of foreign nationals is closely linked to the institutional preparedness and policy frameworks of the host country (Berry 1997).

The study plans to survey over 50 South Korean nationals residing in Mongolia during 2024–2025 and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30 of them. The data gathered will assess participants' language proficiency, employment status, cultural understanding, social interactions, and perceptions of Mongolian societ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indings will be supplemented by secondary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ior studie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this study offers a foundation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on the integration of foreign nationals in Mongolia. It also supports theoretical and applied efforts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promote cultural pluralism, and encourage peaceful coexistence within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4. Methodology

This study adopted a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to examine the social integration and cultural adaptation of South Korean nationals residing in Mongolia. This design provid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by using surveys to capture general trends and in-depth interviews to explore personal stories and nuanced experiences.

4.1. Study Scope and Design

The research focused on South Korean citizens living in Mongolia, either on a permanent or temporary basis, during the period 2024–2025. Data col-

lection was carried out in Ulaanbaatar, Darkhan, and Erdenet between March and November 2024. A structured survey was completed by 56 respondents, complemen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20 selected participants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individual experiences.

4.2. Quantitative Component

Among the survey participants, 58.9% were male and 41.1% were female, with the majority (67.8%) aged between 30 and 49 years. Regarding employment, 62.5% worked in the private sector, 21.4% were affiliated with religious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rest were in Mongolia for family-related reasons. The survey covered the following thematic areas: (1) Language proficiency and usage; (2) Employment and income structure; (3) Cultural adaptation and identity; (4) Social networks and emotional support; and (5) Attitudes toward Mongolian society.

4.3. Qualitative Component

The in-depth interviews examined participants' personal experiences, including their first impressions of Mongolia, challenges in adaptation, cultural understanding, and efforts to preserve their identity. Thematic analysis followed the framework proposed by Braun and Clarke (2006), identifying recurring themes and shared meanings across the collected narratives.

4.4. Supplementary Data

Additional data were drawn from secondary sources, including reports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2023), documents from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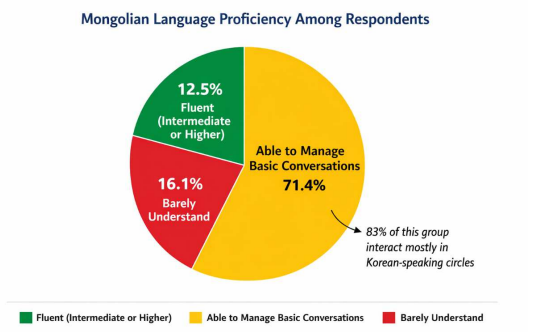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ngolia, and previous studies such as Cho (2017) and Kim and Park (2021). Relevant legal and policy documents related to foreign residents in Mongolia were also reviewed to provide contextual support for the findings.

5. Finding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complex experiences of South Korean sojourners residing and working in Mongolia in terms of their language use, employment conditions, cultural adaptation, and social interactions. According to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conducted, it was observed that integration into Mongolian society would depend on myriad factors, including those involving language use, legal aspects, culture, and interaction. The next segment is dedicated to presenting key findings, organized under four main categories.

5.1. Language Proficiency and Communication Barri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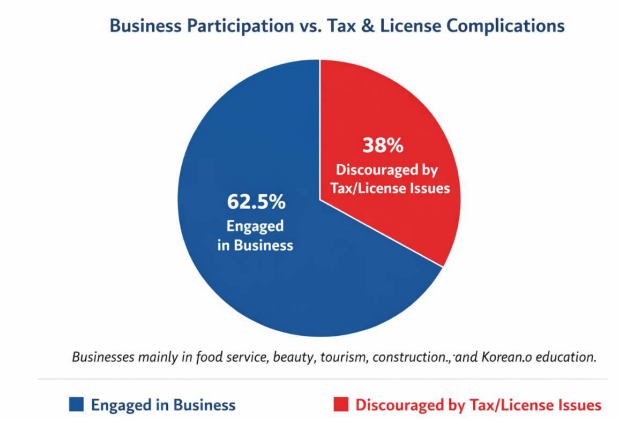
While 71.4% of respondents reported being able to manage basic daily conversations in Mongolian, only 12.5% said they could speak fluently at an intermediate or higher level. On the other hand, 16.1% stated they "barely understand the language," and 83% of those interacted almost exclusively within Korean-speaking circles (Diagram 1). As Kim and Lee (2019) note, language skills are crucial not only for employment but also for soci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Diagram 1)

5.2. Employment and Economic Participation

A total of 62.5% respondents were involved in business, mainly operating businesses in food service and beauty, tourism, construc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38% identified the complications from tax and license matters as strong deterrent factors to business development. Park (2022) also came to the same conclusion that "legal ambiguity" constitutes key obstacles to foreign investment (Park, Challenges of Korean Migrants in Mongolia: Language, Work, and Belonging., 2022).



(Diagram 2)

5.3. Cultural Adaptation and Identity Maintenance

Most of the interviewees in this study had adapted to life in Mongolia, yet man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ir cultural identity through regularly visiting Korean churches or cultural centers (about 65%); teaching Korean language to their children; and celebrating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Chuseok and Seollal. As Berry's model (1997) predicts, integration maintains one's own culture and adapts to the host society, which is the most sustainable strategy for migrants.

5.4. Social Integration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lthough 72% mentioned having Mongolian friends, in the interviews, many mentioned how difficult it was to build emotionally close relationships. Communication styles,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expectations were noted to be some of the obstacles. Ward and Kennedy (1999) noted that these psychological and cultural processes of adaptation are closely linked with one's subjective well-being (Colleen Ward and Annie Kennedy 1999).

6.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research have shown that the adaptation process of South Korean nationals living in Mongolia is complex and interdependent, and it depends on a number of key factors that interact, such as proficiency in the language, employment opportunities, social networks,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preservation of their identity.

First, language proficiency indeed emerged a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both soci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lthough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had basic conversational skills in Mongolian, only a few could be regarded as fluent. Poor language skills impeded not only professional but also social interaction at depth. This echoes the findings of both Berry (1997) and Ward & Kennedy (1999), who highlighted the crucial relevance of language to psychosocial adjustment. The second aspect is economic participation, especially through entrepreneurship, which acted as a significant driver but also a major challenge to the integration process. Though numerous participants operate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y frequently faced problems with taxation, uncertain regulation, and cumbersome procedures for licensing. Such findings align with those of Kim and Park (2021) and Park (2022), who indicated that rigid regulatory systems usually make it difficult for foreign-owned enterprises to be sustainable.

A third aspect is that cultural adjustment often has had to balance preservation of one's roots with integration into a new environment, as outlined in the "integration strategy" presented by Berry. Many participants continued teaching their children the Korean language, attended Korean churches or cultural centers, and observed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Chuseok and Seollal, demonstrating a conscious effort to maintain their cultural identity while adapting to Mongolian society. Fourth, while 72% of respondents indeed reported having Mongolian friends, many noted difficulties in forming deeper, more trust-based friendships. There were often barrier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s,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l norms. This finding supports the contention of Ward and Kennedy (1999) that genuine psychosocial trust, not superficial friendliness, underpins tru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successful adaptation depends not only on per-

sonal effort but also on institutional and policy-level factors. Institutional flexibility, policy support, cultural mediation, and legal accessibility are all important in determining how well migrants will integrate. Those who utilized available institutional resources and learned to navigate both cultures tended to adapt more successfully.

7. Policy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Effective integration policies require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at addresses linguistic competence, socio-cultural inclusion, institutional accessi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im to strengthen support systems for foreign residents while promoting sustainable intercultu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7.1. Tiered and Flexible Mongolian Language Education

Mongoli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expanded through tiered programs that accommodate varying proficiency levels, professional needs, and life circumstances. Flexible scheduling (e.g., evening, weekend, and online modules) would allow working adults and families to participate more effectively. In addition, integrating language instruction with cultural orientation components can facilitate not only communicative competence but also pragmatic and sociocultural understanding.

7.2. Establishment of Cultural Mediation Centers or International Hubs

The creation of dedicated cultural mediation centers or international community hubs could serve as institutional bridges between foreign residents and local communities. Such centers may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legal guidance, and social networking opportunities, thereby reducing structural barriers to integration. Importantly, these hubs could function as spaces for dialogue, mutual learning, and conflict resolution.

7.3. Accessible Legal, Tax, and Business Guidelines

Transparent and user-friendly information on legal status, tax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 procedures is essential for fostering foreign entrepreneurship. Providing multilingual guidelines—both online and offline—would enhance institutional accessibility and reduce administrative uncertainty. Simplified procedural manuals and advisory services could further empower foreign residents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with greater confidence.

7.4. Promotion of Intercultural Exchange Initiatives

Sustainable integration extends beyon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everyday social interaction. Supporting intercultural exchange initiatives—such as community clubs, cultural festivals, academic partnerships, and joint volunteer projects—can cultivate reciprocal understanding and trust. These initiatives help transform coexistence into meaningful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communities.

7.5. Multilingual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Emotional Support

Adaptation to a new sociocultural environment often involves emotional strain, identity negotiation, and stress. Offering multilingual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culturally sensitive mental health support can mitigate these challenges. Accessible well-being programs would not only enhance individual resilience but also contribute to long-term social cohesion.

In sum, a comprehensive integration strategy should move beyond administrative assistance to embrace linguistic development, cultural mediation, institutional transparency, community engagement, and psychological support. By adopting such a holistic framework,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can foster more inclusive environments that benefit both foreign residents and host societies, ultimately strengthening bilateral and intercultu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Bibliography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Cho, Y. (2017) 「Korean Missionaries and Social Work in Mongolia: Challenges and Prospects」, 『Asian Social Work Journal』 2(1), 45-58.

Colleen Ward & Annie Kennedy.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Drobizheva, L. M. (2014) 'Intercultural integration and the problem of identity in a multiethnic society,' *Migration and integration: New models for mobility and coexistenc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108-119.

_____ (2020) *International Migrati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Kim, J. & Lee, H. (2019) 「Barriers to Business Sustainability for Korean Entrepreneurs in Mongoli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Studies』 6(2), 112-130.

Kim, Sang-Moon. & Park, Y. (2021) 'Barriers to business sustainability for Korean entrepreneurs in Mongoli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Studies,* 6(2), 112-130.

n.a. (2022) 「legalinfo.mn」 (https://legalinfo.mn/mn, accessed 01.06.2025).

n.a. (2023) 「ikon.mn」 (Retrieved from ikon.mn: https://ikon.mn, accessed 01.06.2025).

Park, S.-M. (2022) 'Challenges of Korean migrants in Mongolia: Language, work, and belonging,' *Journal of Global Migration Studies,* 4(1), 34-52.

_____ (2023) *Population and Social Indicators of Mongolia.* Ulaanbaatar: Government of Mongolia.

Virginia Braun & Victoria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Resonating Traditions

－Korean Buddhist Aesthetics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for Geomungo and Western Orchestra－

Yoomee Baek*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1. Introduction: Cultural Resonance Through Buddhist Aesthetics and Musical Dialogue

In recent years, Korean traditional music has found renewed interest in inter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conversations. These dialogues explore how musical expression can carry spiritual and philosophical meaning beyond its native context. *Haeinshim (海印心)*, a concerto for geomungo and Western orchestra, was composed with such conversations in mind. The work is structured in three movements, each named after a key concept in Mahāyāna Buddhist philosophy: *Kleshas* (Affliction), *Prajñā* (Wisdom), and *Nirvāṇa* (Enlighten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second movement, Prajñā, which seeks to express the idea of wisdom not through verbal instruction but through sound, gesture, and gradual transformation.

The title *Haeinshim (海印心)*, literally translated as "Ocean-Seal Mind," comes from a metaphor found in the *Avataṃsaka Sūtra* (화엄경), where the enlightened mind is described as vast and undisturbed, capable of clearly reflecting all phenomena like the ocean receiving countless waves without distortion (Lopez

*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Ph.D. Candidate
E-mail: yoomeeb@hawaii.ed

1987). In Korean Seon (Zen) Buddhism, this concept has been used to describe a state of spiritual clarity and inclusive awareness (Buswell 1992).

Rather than illustrating these ideas through text, *Haeinshim (海印心)* invites contemplation by shaping sound through silence, breath, resonance, and pacing. In the second movement, the chant of the Heart Sutra becomes a starting point for musical reinterpretation. The melody is first introduced by the geomungo and gradually passed through various sections of the orchestra. Percussion instruments such as the moktak (woodblock) and jeongju (ritual bell) serve as formal markers, echoing their function in temple rituals where they structure the chant into discernible section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eomungo and the orchestra is not defined by contrast but by shared pacing and awareness. As the movement progresses, the music evolves from solitary reflection to collective affirmation. Harmonically, the early sections are built on open fourths and fifths, evoking the simplicity of Buddhist chant. Later, chromatic and non-diatonic harmonies are introduced, reflecting a broadening of awareness. The expressive techniques used in geomungo performance, such as toeseong (downward pitch bend), chuseong (upward pitch bend), and jeonseong (accented attack), shape each phrase with subtle variation and intention. The suldae, a short bamboo stick used for plucking, adds a distinctive percussive tone that contrasts with Western string instruments and supports the meditative pacing.

The central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Buddhist aesthetics can be represented musically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Korean and Western instruments. Rather than fusing or simplifying the two traditions, *Haeinshim (海印心)* presents a dialogue in which each musical language remains distinct while contributing to a shared expressive goal. In this setting, wisdom is not presented as a fixed concept but as something that gradually emerges through attentive listening and interaction.

2. Korean Buddhist Aesthetics and the Geomungo

Korean Buddhist aesthetics are deeply embedded into musical practices that prioritize breath, silence, pacing, and attentive presence (보경 2020). These principles are particularly evident in traditional chanting and the performance style of the geomungo. By analyzing the rhythmic structure of the Heart Sutra chant, the management of time and breath in recitation, and the expressive capabilities of geomungo techniques, the intricate connection between spiritual and musical sensibilities becomes clear. This framework helps illuminate the aesthetic and conceptual underpinnings of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2.1. Rhythmic and Spiritual Character of Korean Buddhist Chant

Korean Buddhist chanting, especially the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Banya Simgyeong*), maintains a consistent rhythmic pulse often supported by ritual percussion instruments such as the *moktak* (woodblock) and *beomjong* (temple bell), which provide temporal structure (양영진 2012; 이태승 2018). The chant adheres to a regular and clear pace, with each syllable precisely articulated, demonstrating a balance between rhythmic consistency and vocal flow that contributes to its meditative quality.

Melodically, the chant remains within a narrow range and employs small intervals, not to create complexity, but to stabilize attention and cultivate inner awareness. Ornamentation is minimal and purposeful, designed to sustain concentration rather than distract, creating an overall effect of spiritual focus where sound guides contemplation.

2.2. Time and Breath in Buddhist Aesthetic Practice

A core aesthetic principle in Korean Buddhist music is the non-linear perception of time, where music cycles around recurring gestures and phrases rather than progressing towards a climax. This cyclical approach aligns with Buddhist concepts of impermanence and continuous awareness, ensuring that each return of a phrase is perceived not merely as repetition but as a fresh moment of mindful presence. Breath plays a crucial role in this experience; chant phrases often correspond to the length of a single breath, with natural pauses between lines offering moments of stillness and reflection. These pauses are not empty but function as spaces for attention, with the rhythmic and temporal flow shaped by breath supporting a contemplative and internally oriented musical experience.

2.3. Expressive Techniques in Geomungo Performance

The geomungo's unique playing techniques align closely with the aesthetic goals of Korean Buddhist music. Among these are traditional expressive gestures known as *sigimsae* (시김새), which include pitch inflections and articulations that give character to each note.

- *Toeseong* (퇴성) is a gentle downward bend at the end of a note.
- *Chuseong* (추성) is an upward lift into a note.
- *Jeonseong* (전성) is an emphatic attack used at the beginning of a tone to give it clarity and impact.

These gestures are not added as decoration but are essential to shaping how the melody breathes and moves. They introduce slight variations in pitch and tone, emphasizing that no note is truly fixed or isolated. Within the context of Buddhist thought, these gestures can be understood as musical repre-

sentations of impermanence and interconnectedness. Just as each moment flows into the next, each note is shaped by what comes before and what follows.

2.4. Timbre and Texture: The Role of Suldae

The suldae, a short bamboo stick used to pluck the geomungo's strings, produces a percussive and metallic tone that distinctively sets the instrument apart from Western string instruments (Kim 2018). The sound is dry and brief, with little sustain, requiring the performer to invest meaning into each stroke. Because the tone does not linger, it draws the listener's attention fully into the present moment. This tone quality aligns with the Buddhist principle of mindfulness. Each sound exists only briefly and demands complete presence. The suldae's attack resembles the striking of the moktak, linking it conceptually and sonically to Buddhist ritual and meditation practices.

2.5. The Geomungo as a Vehicle for Contemplative Practice

The geomungo's physical playing style contributes to its meditative potential. The performer sits close to the floor, holding the instrument horizontally, using both hands to control weight, pressure, and articulation (Kim 2018). This posture requires bodily awareness and stillness, much like seated meditation. Control of motion and breath is essential not only for technical precision but for expressive clarity.

Historically, the geomungo has been associated with scholarly and spiritual life in Korea. It has appeared in Confucian, poetic, and Buddhist settings, often symbolizing inner reflection and self-discipline (Provine 2001). In contemporary compositions that draw on Buddhist aesthetics, the geomungo

brings these associations into new contexts. Its capacity for expressive gesture and its distinctive sound allow it to communicate ideas of stillness, change, and attentive awareness in a way that words cannot.

In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the geomungo plays more than a musical role. It becomes a medium for contemp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th, rhythm, and meaning. Through its textures and gestures, it expresses a kind of wisdom that is not explained but experienced.

3. Reinterpreting the Heart Sutra: Musical Dialogue Across Traditions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develops its musical identity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the Heart Sutra chant, adapting its essence to the expressive vocabulary of the geomungo and the orchestral ensemble. Rather than replicating the chant literally, the composition transforms its melodic structure, rhythm, and phrasing to suit a new instrumental and aesthetic context. This section explores how the chant's influence is embedded in the melodic shaping, instrumental interactions, and structural pacing of the movement.

3.1. The Heart Sutra in Korean Buddhist Chant

The Heart Sutra (*Banya Simgyeong*) is one of the most widely recited texts in East Asian *Mahāyāna Buddhism* (Lopez 1987). In Korean temples, it is often chanted daily as part of ritual practice, especially by groups of monks in a form known as 'jungchang' (중창). These collective chants are typically performed with a stable rhythmic pulse and clear syllabic enuncia-

tion, often accompanied by the moktak and other ritual instruments that provide pacing and phrasing cues (Lee 1985).

The version of the Heart Sutra referenced in this composition was transcribed from a public performance by a group of Korean monks. The chanting displays a moderate tempo and carefully unified phrasing, with consistent pitch and natural harmonic intervals arising from the collective delivery. Unlike solo recitation, group chanting sometimes results in simultaneous intervals such as thirds, fourths, or fifths, producing a texture that feels layered yet restrained (Figure 1). These harmonic relationships served as an inspiration for how the chant would later be reinterpreted and transformed in the orchestral setting.

3.2. Adapting the Chant for the Geomu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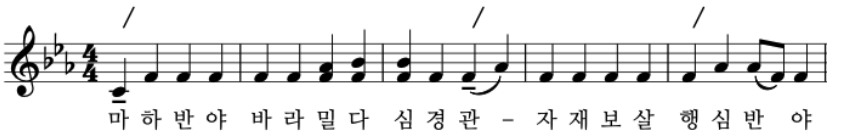


Figure 1: Excerpt from the transcribed Heart Sutra chant performed by monks in ceremonial setting

The melodic shape and pacing of the Heart Sutra chant were adapted for the geomungo in a way that respects the original phrasing while modifying rhythm and gesture to suit the instrument's idiom. Rather than quoting the chant directly, the composer restructured its phrasing using traditional geomungo techniques such as toeseong, chuseong, and jeonseong, and adjusted the rhythmic proportions for a more breath-oriented and resonant expression.

These modifications preserved the chant's meditative character but added

individualized pacing and contour. For example, phrases that were previously consistent in rhythm were subtly lengthened, shortened, or ornamented to reflect the physical gestures of geomungo playing. As the geomungo performs these phrases, its tone changes dynamically through plucking, pressing, sliding, and vibrating gestures. This approach allows the chant's character to emerge not only through melodic outline but also through expressive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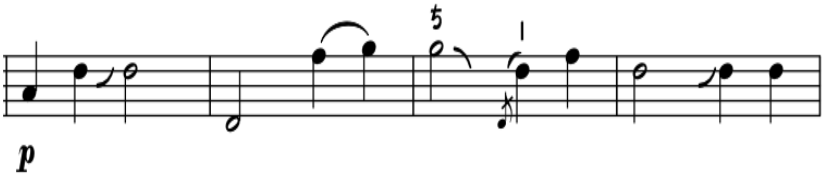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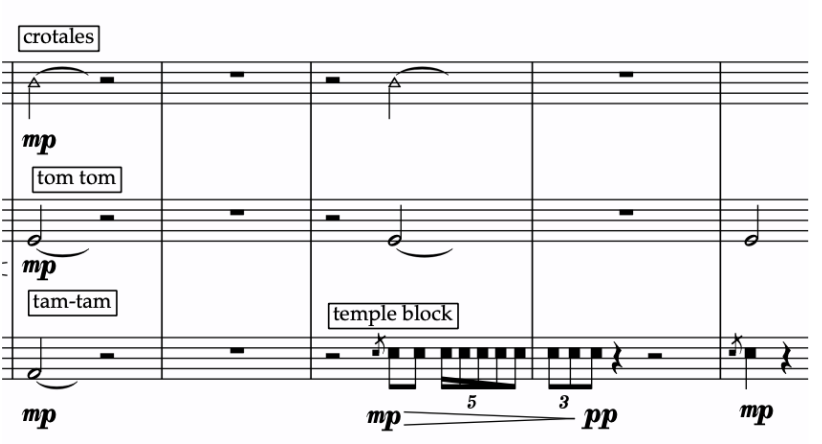
Figure 2: Reinterpretation of the Heart Sutra chant in the opening geomungo phrase

The geomungo's opening solo functions as a reinterpretation of the chant rather than a representation. Through ornamentation and pacing, the instrument offers a personal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chant, not in linguistic terms but in sound and motion (Figure 2). The use of sigimsae transforms each tone into a gesture shaped by timing, direction, and intention. The geomungo does not speak the chant but meditates through it.

3.3. Percussion and Formal Markers

Ritual percussion instruments play a central role in shaping the structure and atmosphere of the movement. The moktak and jeongju appear at formal junctures, echoing their liturgical functions in Buddhist ceremonies. At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three alternating strokes of geomungo and moktak evoke the opening of ritual practice, preparing the listener for a contemplative experience.

Throughout the piece, the percussion helps articulate divisions in the musical form that parallel the phrasing of the original chant. Instruments such as crotales, tom tom, and tam-tam are not used for dramatic punctuation but for structural clarity and resonance. They highlight transitions and support the internal pacing of the music without overwhelming its reflective tone (Figure 3).



[Figure 3] Percussion markings used to signal structural transitions and divisions in the second movement

These sounds also serve to maintain continuity across the movement. As other sections become more active or dense, the return of the *moktak* or *jeongju* helps reestablish the meditative foundation. The final appearance of these instruments near the end functions not as a coda but as a return to the stillness from which the music began.

3.4. Intercultural Musical Dialogue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does not fuse Korean and Western musical traditions into a single homogenous style. Instead, it creates

a layered dialogue in which the geomungo and the orchestra take turns leading, supporting, or responding. The initial melodic responsibility rests with the solo instrument, but gradually transitions to strings, woodwinds, and later brass. This process does not represent replacement but expansion.

Each orchestral section interprets the chant-derived theme differently. Strings enter with long tones and subtle counter-melodies that follow the geomungo's lead. Winds take up the theme more actively, adding tonal variation and extending phrases. The brass introduces harmonic tension and dynamic contrast, marking the beginning of a fuller and more assertive orchestral presence.

Even as the chant is transferred across different instrumental groups, it does not lose coherence. The transitions are paced in a way that allows space for each voice to be heard. The geomungo remains present throughout the movement, not only as a soloist but as a kind of narrative thread that connects the musical shifts. Its eventual departure from the chant into more independent phrases represents both artistic autonomy and spiritual unfolding.

This form of musical exchange reflects a principle found in Buddhist teaching: wisdom arises not through isolation but through mindful interaction (Buswell 1992). The composition does not attempt to explain Buddhist doctrine. Rather, it creates an environment in which the values of attention, impermanence, and listening are enacted musically. The musical form becomes a process through which different voices, traditions, and aesthetics resonate without losing their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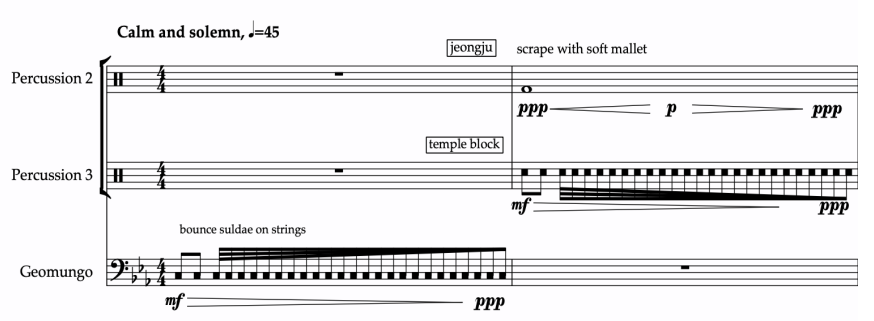
4. Structural and Thematic Analysis: Wisdom as Musical Evolution

The expressive depth of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emerges not only from its philosophical underpinnings but also from its formal structure and musical development. The deliberate organization of thematic materials, the careful pacing of instrumental interactions, and the evolving harmonic language collectively contribute to a gradual unfolding of musical meaning. This section analyzes how the movement's structure reflect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highlighting the formal design, melodic progression, and harmonic complexity as direct expressions of *prajñā* (wisdom).

4.1. Three-Part Structure and Thematic Progression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features a clear three-part structure, reflecting a journey from initial silence and individual reflection towards collective intensity and eventual resolution. This formal design aligns seamlessly with the conceptual theme of prajñā as a gradual deepening of awareness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and transformation.

The movement commences with a single low-pitched stroke on the geomungo using the suldae, immediately followed by the distinct sounds of the *jeongju* and *moktak*. This opening gesture evokes the act of striking the moktak, a significant ritualistic marker in Buddhist ceremonies signaling the commencement of chanting or meditative focus (Lee 1985). The alternation between the geomungo and moktak is repeated three times, establishing a ritualistic prelude before the main melodic material begins (Figure 4).



[Figure 4] The atmospheric opening of the second movement, combining geomungo, *moktak*, and *jeongju*

As the third stroke fades, the lower strings enter with a long, sustained tone, forming the foundational layer for the geomungo's initial solo phrase. This phrase is a reimagined rendition of the Heart Sutra chant, carefully modified in rhythm and gesture to suit the unique techniques of the geomungo. The melody unfolds slowly, supported by the strings, which gradually enter one by one with extended tones and subtle countermelodies that gently intertwine with the solo line.

The woodwinds subsequently take up fragments of the geomungo's chant-based theme, developing them into concise melodic lines that reinterpret the theme through each instrument's distinct timbre and articulation rather than directly mimicking the original chant. Following a brief dialogue between the geomungo and woodwinds, the solo instrument reasserts the theme, now subtly altered in both rhythm and density.

A significant shift occurs with the entry of the brass section,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s brief second section. The brass introduces greater volume and harmonic complexity, at which point the geomungo returns to the suldae stroke that initiated the movement. This gesture, now placed within a different context, subtly hints at the ongoing transformation of the chant material and the increasing energy of the piece.

Following the brass statement, the winds revert to the chant-derived melody, while the geomungo becomes more rhythmically active, progressively moving away from the direct chant material into its own independent phrases. Concurrently, the strings, particularly the violins, begin to play pizzicato, creating a texture reminiscent of plucked geomungo strings and contributing to an increased rhythmic drive.

As the music approaches its climax, the full orchestra joins, carrying the transformed chant melody with expanded harmonic support and a more assertive dynamic presence. The violins transition from pizzicato to arco, underscoring the dramatic weight of the moment, and the geomungo responds with forceful, multi-string strokes, highlighting its percussive quality while continuing to develop its distinct melodic material.

4.2. Melodic Reinterpretation and Instrumental Roles

The chant material from the Heart Sutra serves as a conceptual and melodic reference in this movement rather than being directly quoted. In adapting it for the geomungo, several changes were made:

- Melodic shape: While the original chant stays within a narrow range, the geomungo version expands in contour and phrase length, using traditional gestures such as toeseong (downward bend), chuseong (upward bend), and jeonseong (accented entry) to shape the line.
- Rhythmic modification: Phrases were lengthened or shortened depending on the physical motion of the instrument. This created natural pacing suited to the geomungo's breath-like delivery, even while maintaining a steady pulse.
- Instrumental dialogue: The chant melody is passed between the geomungo, strings, winds, and brass. Each section adds its own inter-

pretation through changes in rhythm, register, and articulation.

This dialogue reflects a gradual unfolding rather than a dramatic contrast. As the melody moves from one group of instruments to another, it evolves subtly. The brass entrance signals a moment of heightened energy, but it is not a climax in itself. Instead, it contributes to the process of thematic expansion.

The geomungo, in the later part of the movement, no longer plays the chant melody but develops independent material characterized by short rhythmic patterns and stronger articulation. These phrases reflect the transformation of the soloist's role from chant-bearer to fully engaged participant in the orchestral context.

4.3. Harmonic Development and Symbolic Integration

The harmonic structure of this movement progresses from initial simplicity to increasing complexity. The opening harmonies are constructed using fourths and fifths, referencing the vertical intervals frequently implied in Buddhist chant. These open intervals contribute to a calm, centered sound that aligns with the meditative atmosphere established in the early section.

As the orchestration develops, the harmonic motion becomes richer, with string and wind harmonies beginning to incorporate additional tones, resulting in more layered vertical combinations. While these harmonies maintain a relationship to fourth and fifth structures, they are no longer purely diatonic, and tensions begin to emerge through the inclusion of added-note chords and chromatic relationships.

The climax of the movement features full orchestral writing with harmonic textures that artfully combine consonant and dissonant intervals. Rather than

adhering to traditional Western resolution, the music allows these tensions to coexist, prioritizing expressive fullness over conventional harmonic closure. This integration of dissonance within a chant-based structure reflects a deeper understanding of prajñā as the capacity to embrace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without conflict.

The final gestures of the movement return to the ritual material introduced at the very beginning. A brief note by the geomungo, accompanied by the concluding strokes of the moktak and jeongju, ends the movement with a profound sense of return rather than definitive closure. The ensuing brief silence serves as a space for reflection, mirroring the deliberate pauses between chant phrases in actual Buddhist practice.

5. Conclusion: Musical Reflection and Buddhist Aesthetics in Contemporary Dialogue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offers a profound musical interpretation of prajñā, the Buddhist concept of wisdom, through a structure defined by silence, gesture, and the intricate dialogue between instruments. Rather than conveying fixed meanings, the music unfolds organically through attentive pacing and evolving relationships. It commences in quiet ritual, expands through dynamic interaction among instrumental voices, and concludes not with a definitive resolution but with a thoughtful return to its origins. This formal design fosters an open, reflective, and sequential listening experience, providing a musical parallel to the process of gaining insight in Buddhist thought.

A central thematic thread throughout the movement is its engagement with the Heart Sutra, a text that communicates profound philosophical ideas

through its concise and rhythmic language. Instead of simply setting the chant to music, the composer draws upon its melodic and structural qualities to forge a new expression. The geomungo, with its expressive inflections and tactile articulation, serves as a primary medium for this transformation. Techniques such as toeseong, chuseong, and jeonseong are not mere decorative elements; they intrinsically shape the line's character and direction, imbuing each note with a quality of motion and breath (Kim 2018). The strategic use of the suldae further reinforces this effect, emphasizing the ephemeral nature of sound and encouraging focused, mindful listen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eomungo and the orchestra is structured as a process of shared participation rather than contrast. Each instrumental group responds to and supports the others while preserving its unique tone and character. This form of dialogue reflects a broader cultural perspective where diverse expressions coexist and enrich one another without needing to blend into a single voice. The music evolves by consciously allowing space for difference and connection to flourish simultaneously.

Haeinshim (海印心) effectively demonstrates how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geomungo, can be integrated into contemporary orchestral contexts while remaining steadfastly faithful to their inherent aesthetic and philosophical origins. The instrument is not presented as a symbolic gesture or a mere decorative element; rather, it functions as a guiding presence that profoundly shapes the flow and depth of the entire movement. Its distinct tonal language and expressive gestures not only showcase technical artistry but also convey a unique worldview rooted in contemplation and heightened awareness.

Compositions of this nature encourage profound reflection on how music can respond thoughtfully to a world where diverse traditions converge and interact. Instead of simplifying these differences, the music actively provides

room for them to unfold and interact with integrity. Through this deliberate openness, a new form of shared understanding can emerge, resulting not in a single unified message but in a rich, layered experience of recognition and attentiveness.

Ultimately,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suggests that composition can function as a powerful form of dialogue grounded in listening, presence, and respect. Musical elements such as pacing, phrasing, and interaction are not only structural tools but also carriers of philosophical meaning. The unfolding of the chant through different voices and the return to stillness at the end reflect a process of growth through relationship. In this way, the music invites the listener to experience not only sound but also a way of relating to difference through care and attention.

References

양영진(2025)「한국 불교음악의 기원과 현재」,『불교평론』,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8, 2025.6.20)

양영진(2012)「한국불교 새벽예불의 음악적 특징」,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법현(2012)『불교의식음악 연구』, 운주사.

이태승(2018)「대·소본『반야심경』의 비교를 통한 반야바라밀다주 고찰」,『인도철학』54, 인도철학회.

보경(2020)「명상음악과 불교 그 친연성」,『불교평론』,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 2025.6.23)

차형석(2025)「동아시아 불교음악의 양상과 음악적 특징」,『불교평론』,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9, 2025.6.30)

남화정(2013)「불교의 국악 활용 방안 시론(試論)」,『불교평론』,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6, 2025.6.30).

Buswell, Robert E., Jr. (1992) *The Zen monastic experience: Buddhist practice in contemporary Ko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Buswell, Robert E., Jr. (1983)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University of Hawaii Press. (http://terebess.hu/zen/mesterek/Collected-Works-of-Chinul.pdf, 2025.11.30)

Lee, Byong Won (2002) 'Buddhist Music,' *The Garland Encyclopedia of World Music vol.7*, 871-874.

Lee, Byong Won (1985) 'The Features of the Mahayana Buddhist Ritual Performing Arts of Korea,' *World of Music 27.2,* 49-61.

Kim, Joon-yong (2018)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 practical guide for composers 1,' National Gugak Center.

Lopez, Donald S. (1987) *The Heart Sūtra explaine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Oh, Hee Sook (2017) 'Intercultural aesthetics in the contemporary Korean compositions of Hae-Sung Lee,' *World of Music 6.1*, 103-122.

Provine, Robert C. (2001)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Garland Encyclopedia of World Music vol.7: East Asia*, Routledge, 902-919.

■ 편집후기 / 강민호

국제고려학 제20호에는 총 32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제16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의 기조강연 발표자 네 분의 논문과 토론자 한 분의 논문이 특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 논문 27편이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 회장님께서 펴내는 말로서 본 호에 수록된 논문들이 하나의 학술지로 엮이는 의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섯 편의 특집 논문은 제16차 대회의 주제인 '다극화하는 세계와 코리아학'을 '지역', '문화', '역사', '가치'의 측면에서 조망함으로써 코리아학의 확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논문 또한 언어, 교육, 역사, 사회, 정치, 철학·종교, 예술, 경제, 민속, 과학·기술·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코리아학 학술지로서의 학문적 균형과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성과를 한 호의 학술지로 엮어내는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려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국제고려학』 제20호를 무사히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년 만의 발간이라는 점에서 여러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다수의 연구 성과가 결집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간 과정에 편집간사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일부 아쉬운 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향후 학술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 호에서는 보다 충실한 편집으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편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실제 편집을 맡아 주신 도서출판 선인 임직원 여러분과 권호순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고려학회 편집간사
강민호

『국제고려학』 투고규정

1. 원고작성

Microsoft Office Word로 작정하여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3만자(A4로 16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4로 작성하고 여백은 25mm(위, 아래, 왼, 오른쪽), 한글 폰트는 Batang, 크기는 10pt, 1줄 40차, 1페이지 45줄로 한다.

2. 언어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원고를 받는다.

3. 본문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4. 주석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과 출판년도, 쪽수를 밝혀, 홍길동(2007: 123-125)와 같이 표시한다. 내각주일 경우에는 (홍길동 2007: 123-125)로 한다.

5. 예문 및 인용문

예문이나 인용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띄운다. 예문이 하나 이상일 때에는 붙인다.

6. 참고문헌

논문 서지 표기는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1) 한국어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편자명,∨『서적명』,∨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홍길동(2006) 「지식인의 역할」, 『국제고려학』 1, 국제고려학회, 100-111.

예) 홍길동(1997)「욕망과 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2) 일본어, 중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서지 작성 원칙에 준한다.

3) 서양논문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in∨편자명(ed.)∨서적명(이탤릭),∨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예)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4)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논문 제목과 인터넷 주소, 검색일자를 병기한다. 인용부분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 주소는 html까지 그 페이지 주소창에 뜨는 부분을 모두 적어 준다.

예)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 2006.5.25)

7.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1) " " : 인용
2)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3)『 』: 서적명, 총서명, 원전, 단행본, 신문명, 음반 등
4)「 」: 논문명, 기사명, 글명, 작품명, 편명, 조명
5) ·: 동일사항의 나열 예) 백두산·한라산·지리산

8. 기타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Papers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1. The paper must be submitted as a Microsoft Word file attachment, and must be written in double-spaced Times Roman 10.5 point font.

2. The page format should be set for A4 size with left-hand justification only. Margin should be set 25mm each on all sides.

3. The body of the manuscript must be 5,000 words or less in length. Endnotes, bibliography, and other additional material are excluded from this word count.

4. Chapter, Section and Subsection Headings; follow the example below

    1. Chapter Headings
    1.1 Section Heading
    1.1.1 Sub Subsection Heading

5. Quotations and Citations

Block quotations, extracts or excerpts should be set off from the text, without quotation marks. They should be set in type that is one point smaller than the text.

Full citations of literature should be placed in the references section at the end of the chapter or manuscript. Within the text, only brief author-date citations should be made, giving the authors' surname, year of publication, and page number(s) where relevant. Such brief citations should be given in the body of the text, not in footnotes.

6. Reference: Follow the examples below

1) Korean, Japanese and Chinese

예) 홍길동(2006)「지식인의역할」,『국제고려학』1, 국제고려학회, 100-111.

예) 홍길동(1997)「욕망과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탈주의공간을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2) Western

1)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2)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3) Quotations from the documents on the Internet; follow the example below.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 2006.5.25.)

7. Symbols.

1) " " : Quotations and Citations

2) ' ' : Emphasis

3)『 』: Title of Book

4)「 」: Title of paper

〒530-0047 日本 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4丁目5-5-506
国際高麗学会『국제고려학』편집위원회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4-5-5-506, Nishitenma, Kita-ku, Osaka, 530-0047, Japan
Email: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고려학회 임원

회장	宋南先 (일본 大阪経済法科大学)
부회장	徐永彬 (아시아분회 회장, 중국 对外经济贸易大学)
	이상혁(서울지부 회장, 한국 한성대학교)
	송창주(대양주지부 회장,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송현원(평양지부 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사회과학원)
	Cheehyung Harrison Kim(북미지부 회장,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Vladimir Tikhonov(유럽지부 회장, 노르웨이 University of Oslo)
	伊地知紀子(일본지부 회장, 일본 大阪公立大学)
편집위원장	김성민(한국, 건국대학교)
편집간사	강민호 (일본, 関西大学)
사무총장	尹靖水(일본, 梅花女子大学)
사무차장	姜民護 (일본, 関西大学)

국제고려학 제20호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宋南先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장 김성민
발행처 국제고려학회/国際高麗学会
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 4丁目 5-5-506
TEL: +81-6-7660-8045 / FAX: +81-6-7660-7980
Email: info@isks.org / HP: http://www.isks.org
만든곳 도서출판 선인
TEL: +82-2-718-6252

ISSN 1347-7307
2026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2026 • No.20 국제고려학

CONTENTS

Foreword SONG Namsun

Special Section: Symposium

The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the Korean Peninsula Countries — Oyuntsetseg Dashnyam
The Contradictions of Global Korean Studies in the Age of Hallyu — Vladimir Tikhonov(Pak Noja)
A Study on the Trends of Korean Studies in Mongolia — Sainbilegt Dashdorj
Inter-Korean Historical Scholarly Exchanges and Prospects in the Context of Multipolarity — AHN Byungwoo
The Future Directions of Integrative Korean Studies — KIM Sungmin

General Article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 the Compil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Public Medical Terminology Glossary — DOH Wonyoung·PARK Juwon·HA Shin·KIM Suk-jeong
A New Interpretation of the Fan-ch'ieh in Hongmu-chŏngun-yŏkhun — Rainer Dormels
Visual Language and Typography of National Symbols on the Banknotes of the DPRK — RYU Hyunguk
The Present State and a Problem in Ethnic Education of a Foreign Resident in Japan
-The Changes of Identity Relationship- — MOON Kwanghee
A Study on the Effect of Character Learning Using Hangul Learning App
–For Japanese Learners in the Beginner Korean Course– — PARK Eunjoo·RYU Misun
The Boundary and Fusion of 'Zainichi Dance' and 'Korean Traditional Dance' in Korean Society in Japan
–Raising and Maintaining the Mind, Feeling, and Intention of 'Zainichi Korean Dancers'– — SUH Heeyoung
Subjectification and Semantic Extension of the Korean Adverb 'deudieo' — SHEN Fenglin·YI Chao
A Study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alues of Mother-Goddess Icons
–Modern Transform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Community Festivals Focused on Jirisan Cheonwang-Halmae and Mongolian Eej Khad– — AN Youngsuk
The Applicability of Customized GPT(Based on ChatGPT) in Korean Writing Classes for Mongolian Learners — Sodnomdorj Enkhchimeg·Dashdorj Sainbilegt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the Textbook 『*Joseon* Practical Grammar(for appren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Sentence Construction Theory'
–Focusing on 『*Joseon* Practical Grammar(for Apprentices)』(2015) Published by Kim Il Sung University– — OH Hyeonah·QUAN Yonggeun
Kangryong International Green Pilot Zone and Ecological Community Building — LEE Kyungsoo
Acceptance of Jowang Folk Beliefs in Korean Buddhism — JANG Jeongtae
An Experimental Phonetic Study on the Vowels /ㅚ/ and /ㅟ/ in Chinese Yanbian Korean — QIN Xu
A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Analysis of the Malgak Cheonjang (抹角天障) Ceiling in East Asian Traditional Architecture — HONG Daih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hletics Education Policy Discourse –Focusing on Periodization– — HONG Yong ja
Historical Changes and Future Challenge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in Japan — HIRATA Emi
The Uniquenes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Path Toward Its Final Resolution — CHUN Jihoon
Mongolia's Balancing A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 Dolgorsuren Dorj
Staff Officers' Linguistic Patterns in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A Stylometric and NLP Approach – — EunKyoung Jo
Elizabeth Anna Gordon and Korean Buddhism
–A Pioneer of Interreligious Dialogue in East Asia– — Hyangsoon Yi
From Diagnosis to Autonomous Mastery
–A Multimodal AI Framework for Self-Directed Korean Pronunciation Learning– — Joeun Baek
Rece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the Yeoju Jueosa Temple site
–New Insights into Buddhist–Catholic Interactions in Late Joseon Korea– — Sun Kim
The Era of Chajusŏng –DPRK Foreign Policy Thought in the 1970s– — Moe Taylor
Mongolia's Defector Dilemma –Navigating the Korea Divide– — Sumiya Chuluunbaatar
Bridging Cultures: How South Koreans Adapt and Contribute to Mongolia's Social Landscape — TUMENGEREL Purev·SUKHMAA Adiya
Resonating Traditions
–Korean Buddhist Aesthetics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海印心) for Geomungo and Western Orchestra– — Yoomee Baek

Afterword KANG Minho